濟州大學校博物館調査報告 第十輯

法華寺址

濟州大學校博物館
西歸浦市
1992

發　刊　辭

지난 '83년 法華寺址 發掘調査 報告書에 이어 10년만에 그 동안 發掘된 내용을 市民 여러분께 報告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西歸浦市 市民 여러분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한라산을 중심으로 千惠의 아름다운 自然現場과 지역 固有의 鄕土性을 바탕으로 文化의 獨創性을 유지하며 오늘날까지 성장 發展하여 왔습니다.

우리의 先人들께서 온갖 試鍊을 克服하며, 이 고장에 뿌리를 내리고 삶의 터전을 다지며 남겨 놓으신 문화 遺産을 發展·保存·繼承하여, 後孫에게 물려주고 그 叡智를 活用하여 뿌리있는 文化市民의 衿持를 다지는 일은 매우 當然하다 하겠습니다.

市民 여러분의 聲援과 至大한 관심속에,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된 法華寺址의 發掘 結果, 建物址 내부 중앙에서 「重創十六年己卯」이라고 陽刻된 銘文瓦片과 雲鳳文 암막새 그리고 청자·분청사기·백자편등 다량의 유물을 發掘하므로써, 지금까지 法華寺 創建 年代가 13세기경이라는 漠然한 推測에서 1279년에 重創되었다는 새로운 사실을 確認하는 커다란 成果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西歸浦市에서는 地域에 散在하여 있는 각종 文化財들을 발굴, 原形保存시킴으로써, 市民들에게는 文化民族으로서 自矜心을 심어주고 또한 地域의 文化觀光 資源으로써 活用될 수 있도록 積極 힘써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發掘 調査에 積極 協調하여 주신 濟州大學校 調査團員 여러분의 勞苦에 깊은 感謝를 드립니다.

1992년 11월 일

서귀포시장　金　仁　圭



12. 雲龍文 암막새



13. 鳳凰文 숫막새



14.「重卅六年己卯畢」銘기와



10. C지구 4구역 늪지 바닥노출 상태 (북에서)

11. C지구 4구역 늪지 서쪽 경계 서축 (남에서)





8. C지구 남북트렌치 (남에서)

9. C지구 4구역 동서트렌치 (서에서)





6. A지구 북서쪽 기와보도

7. A지구 c건물지 온돌부속시설





4. A지구 c건물지 전경 (북동에서)



5. A지구 c건물지 전경 (서에서)



1. A지구 a건물지 전경 (남동에서)



2. A지구 a건물지 발굴전경 (남동에서)

3. A지구 a건물지 발굴전경 (북서에서)



머 리 말

法華寺址에 대한 발굴조사는 1982년 서울 명지대학교박물관의 金鴻植교수팀에 의해 1차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통해 고려시대 후기 금당지라고 추정되는 건물지를 확인하는 성과를 올렸지만, 법화사 전체 가람배치에 대해서는 충분한 자료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로부터 8년후 서귀포시는 법화사 九品蓮池 추정 구역에 대한 발굴조사의 계획을 세우고, 이를 우리 제주대학교박물관에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1990－1992년의 2차에 걸친 연지추정지구에 대한 발굴조사를 통해 연지시설을 적극적으로 인정할만한 고고학적 자료는 확인하지 못하였지만, 『新增東國輿地勝覽』의 기록에 보이듯 고려당시 연꽃 있는 물이 법화사 남쪽에 있음은 확인하였습니다.

연지추정지구에 대한 발굴조사 성과를 검토하면서, 발굴지도위원들은 기본적으로 전체 가람배치에 대한 전면적이고도 체계적인 발굴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1982년 지표조사를 통해 건물지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 추정된 금당지 북쪽 구역을 중심으로, 1992년 3차 발굴조사가 실시되었습니다.

그 결과 조선시대 전기의 건물지가 확인되고, 「重創十六年己卯畢」銘 기와와 雲龍文·鳳凰文 막새기와 등의 귀중한 유물이 다량 수습되었습니다. 결국 법화사는 고려후기에 중창되고, 조선시대에 지속적으로 증개축되었음이 고고학적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아울러 건물지와 기와보도 등의 부속시설이 서쪽으로 연장됨으로 법화사의 전체 가람과 그 변천과정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서쪽으로 발굴면적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금번 보고서는 3차에 걸친 이러한 발굴성과를 정리한 것으로, 金元龍, 尹武炳, 金正基, 張慶浩, 吳輝泳 지도위원과 崔夢龍, 高昌錫, 金鴻植, 尹德香, 玄海男 조사위원의 발굴지도와 자문이 토대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崔永禧, 韓炳三 선생님은 물론, 趙由典, 孫秉憲, 金龍善 교수의 교시가 금번 발굴보고서를 내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발굴조사를 진행함에 禹瑾敏 도지사를 비롯하여 서귀포시 金仁圭시장과 康昌洙 前시장, 그리고 道문화예술담당관실, 市문화공보실 金眞秀실장과 金相彦계장의 협조와 법화사 주지 是夢스님, 신도회 金平允 회장, 그리고 邊聖根 先生의 성원이 있었습니다.

제주대학교에서는 金瀅玉 총장과, 前박물관장 姜通源 교수를 비롯한 박물관 운영위원의 격려와 박물관 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는바, 이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발굴현장의 책임을 맡고, 보고서 사진촬영과 원고작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康昌和를 비롯하여 제주대학교 사학과 학생들의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자리를 빌어 고마움을 표합니다.

1992년 11월 일

제주대학교박물관장 李 淸 圭

목 차

題 字: 素菴 玄 中 和

발간사 / 5
머리말 / 7

제 1 장 조사개요 / 21
제 1 절 조사기간과 조사단구성 / 21
제 2 절 조사경과 / 23

제 2 장 유적의 위치와 역사적 배경 / 26
제 1 절 유적의 위치와 환경 / 26
제 2 절 역사적 배경 / 26

제 3 장 조사내용 / 31
제 1 절 A지구 조사 / 33
제 2 절 B지구 조사 / 61
제 3 절 C지구 조사 / 73
제 4 절 주변조사 / 86

제 4 장 출토유물 / 88
제 1 절 기와 / 88
제 2 절 도자기 / 142

제 5 장 고찰 / 195
제 1 절 유구 / 195
제 2 절 유물 / 198

제 6 장 맺음말 / 211

도판 / *212*

도 면 목 차

도면 1 법화사지 위치도 / 25
도면 2 법화사지 전체 발굴구획도 / 32
도면 3 법화사지 A지구 발굴구획도 / 35
도면 4 A지구 발굴유구 실측도 / 37
도면 5 A지구 담장지 북쪽 단면 층위도 / 39
도면 6 A지구 a건물지 실측도 / 41
도면 7 A지구 a건물지 남쪽 기단석렬 부근 실측도 / 43
도면 8 A지구 a건물지 동쪽 기와보도 실측도 / 44
도면 9 A지구 b건물지 실측도 / 46
도면 10 A지구 b건물지 북쪽 기와보도·아궁이시설 실측도 / 48
도면 11 A지구 c건물지 내부 瓦積 온돌부속시설 / 50
도면 12 A지구 c건물지 실측도 / 51
도면 13 A지구 階段狀 遺構 실측도 /54
도면 14 A지구 階段狀 遺構 서북쪽 기와보도 실측도 / 55
도면 15 A지구 담장지 실측도 / 57
도면 16 A지구 북쪽 담장지 주변 실측도 / 58
도면 17 A지구 군숙영지 잡석보도 실측도 / 59
도면 18 법화사지 B지구 발굴구획도 / 62
도면 19 B지구 금당지 추정 건물지 실측도 / 64
도면 20 B지구 2구역 階段狀 遺構 주변 실측도 / 69
도면 21 B지구 2구역 층위 단면도 / 70
도면 22 B지구 3구역 군숙영지 보도 실측도 / 70
도면 23 B지구 4구역 남북트렌치 단면 층위도 / 71
도면 24 B지구 5구역 남북트렌치 유구 실측도 / 71
도면 25 B지구 6구역 테스트 핏트 실측도 / 72
도면 26 법화사지 C지구 1-3구역 발굴구획도 / 74
도면 27 법화사지 C지구 1-3구역 층위도 / 77
도면 28 법화사지 C지구 4구역 발굴구획도 / 81
도면 29 C지구 4구역 남북트렌치 단면 층위도 / 82
도면 30 C지구 4구역 동서트렌치 단면 층위도 / 83
도면 31 C지구 4구역 확장핏트 생토바닥 실측도 / 85
도면 32 야산지구 동서트렌치 평면도 / 87
도면 33 야산지구 동서 트렌치 단면 층위도 / 87
도면 34 A지구 출토 숫막새(1) / 91
도면 35 A지구 출토 숫막새(2) / 92
도면 36 A지구 출토 암막새 / 93
도면 37 A지구 출토 암막새·평기와 / 94
도면 38 A지구 출토 樹枝文 평기와(1) / 99
도면 39 A지구 출토 樹枝文 평기와(2) / 100
도면 40 A지구 출토 樹枝文 평기와(3) / 101
도면 41 A지구 출토 樹枝文 평기와(4) / 102
도면 42 A지구 출토 樹枝文 평기와(5) / 103
도면 43 A지구 출토 樹枝文·格子文 평기와 / 104
도면 44 A지구 출토 복합문 평기와(1) / 113

도면 45 A지구 출토 복합문 평기와(2) / 114
도면 46 A지구 출토 복합문 평기와(3) / 115
도면 47 A지구 출토 복합문 평기와(4) / 116
도면 48 A지구 출토 복합문 평기와(5) / 117
도면 49 A지구 출토 복합문 평기와(6) / 118
도면 50 A지구 출토 복합문 평기와(7) / 119
도면 51 A지구 출토 복합문 평기와(8) / 120
도면 52 A지구 출토 복합문 평기와(9) / 121
도면 53 A지구 출토 평기와·異形기와 / 122
도면 54 A지구 출토 異形기와(1) / 124
도면 55 A지구 출토 異形기와(2) / 125
도면 56 A지구 출토 명문기와(1) / 130
도면 57 A지구 출토 명문기와(2) / 131
도면 58 A지구 출토 명문기와(3) / 132
도면 59 A지구 출토 명문기와(4) / 133
도면 60 A지구 출토 명문기와(5) / 134
도면 61 A지구 출토 명문기와·특수기와·전 / 136
도면 62 C지구 출토 기와(1) / 139
도면 63 C지구 출토 기와(2) / 140
도면 64 C지구 출토 기와(3) / 141
도면 65 A지구 출토 청자(1) / 148
도면 66 A지구 출토 청자(2) / 149
도면 67 A지구 출토 청자(3) / 150
도면 68 A지구 출토 청자(4) / 151
도면 69 A지구 출토 상감분청(1) / 155
도면 70 A지구 출토 상감·인화분청 / 156
도면 71 A지구 출토 조선청자와 조화·철화·귀얄분청 / 159
도면 72 A지구 출토 덤벙분장분청(1) / 162
도면 73 A지구 출토 덤벙분장분청(2) / 163
도면 74 A지구 출토 기타 분청(1) / 170
도면 75 A지구 출토 기타 분청(2) /171
도면 76 A지구 출토 기타 분청(3) / 172
도면 77 A지구 출토 기타 분청(4) / 173
도면 78 A지구 출토 백자(1) / 182
도면 79 A지구 출토 백자(2) / 183
도면 80 A지구 출토 백자(3) / 184
도면 81 A지구 출토 백자(4) / 185
도면 82 A지구 출토 백자(5) / 186
도면 83 A지구 출토 陶器 /187
도면 84 A지구 출토 후기 백자·상평통보·돌확 / 189
도면 85 C지구 4구역 출토 청자·분청사기 / 193
도면 86 C지구 4구역 출토 백자 / 194

도 판 목 차

도판 1
①법화사지 A지구 원경(북에서)
②법화사지 A지구 근경(북서에서)

도판 2
①A지구 발굴 중간 상태(남동에서)
②A지구 발굴 유구 노출 상태(남동에서)

도판 3
①A지구 a건물지와 b건물지의 중복 지점(북동에서)
②A지구 a건물지 남쪽 기단석렬(남에서)

도판 4
①A지구 a건물지 북쪽 내부 노출상태(남서에서)
②A지구 a건물지 북쪽 생토암반·瓦積 상태(남동에서)
③A지구 a건물지 북쪽 주춧돌 놓임 상태 (남에서)
④A지구 a건물지 원형 주춧돌 구덩이와 초석

도판 5
①A지구 a건물지 남쪽 기단석렬 중앙 埋石 시설물
②A지구 a건물지 동쪽 기단석렬 내부 瓦積상태
③A지구 a건물지 서쪽 기와 온돌부속시설

도판 6
①A지구 a건물지 동쪽 기와보도
②A지구 a건물지 동쪽 기와보도내 기와편 깔림상태
③A지구 a건물지 북쪽 배수시설

도판 7
①A지구 b건물지 (북서에서)
②A지구 b건물지 (동에서)
③A지구 b건물지 북쪽 기단석렬·주춧돌·아궁이시설

도판 8
①A지구 b건물지 배수시설
②A지구 b건물지 북쪽 기와보도
③A지구 b건물지 북쪽 아궁이시설

도판 9
①A지구 c건물지 (북동에서)
②A지구 c건물지 (서에서)

도판 10
①A지구 ac건물지 기단석렬 중복상태
②A지구 c건물지 내부 방형 기와 온돌부속시설
③A지구 c건물지 내부 기와 온돌부속시설 노출상태
③A지구 c건물지 내부 기와 온돌부속시설 축조상태

도판 11
①A지구 c건물지 주춧돌
②A지구 c건물지 주춧돌 積心상태
③A지구 c건물지 내부 적석시설

도판 12
①A지구 c건물지 북쪽 階段狀 遺構 (남에서)
②A지구 c건물지 북쪽 階段狀 遺構 (서에서)

도판 13
①A지구 階段狀 遺構 축조상태
②A지구 階段狀 遺構 테스트 핏트 적석상태
③A지구 階段狀 遺構 북쪽 주춧돌·적석시설

도판 14
①A지구 군숙영지 잡석보도 노출상태(북서에서)
②A지구 군숙영지 잡석보도 노출상태(동에서)

도판 15
①A지구 군숙영지 잡석보도 노출작업 광경
②A지구 군숙영지 보도 잡석 다짐상태
③A지구 군숙영지 보도 테스트핏트

도판 16
①A지구 階段狀 遺構 북서쪽 기와보도(위에서)
②A지구 階段狀 遺構 북서쪽 기와보도(동에서)

도판 17
①A지구 階段狀 遺構 북서쪽 기와보도 세부
②A지구 階段狀 遺構 북서쪽 기와보도내 막새 출토상태
③A지구 階段狀 遺構 북서쪽 기와보도 테스트 핏트

도판 18
①A지구 기와보도내 雲龍文 암막새 출토상태
②A지구 기와보도내 雲鳳文 숫막새 출토상태(1)
③A지구 기와보도내 雲鳳文 숫막새 출토상태(2)
④A지구 기와보도내 雲鳳文 숫막새 출토상태(3)
⑤A지구 기와보도내 雲鳳文 숫막새 출토상태(4)

도판 19
①A지구 남북 담장지
②A지구 동서 담장지와 적석상태
③A지구 동서 담장지내 기와 구덩이·주춧돌

도판 20
①A지구 동서 담장지 북쪽 단면 층위(1)
②A지구 동서 담장지 북쪽 단면 층위(2)
③A지구 동서 담장지 북쪽 단면 층위(3)

도판 21
①B지구 2구역 階段狀 遺構 (남에서)
②B지구 2구역 階段狀 遺構 (서에서)

도판 22
①B지구 2구역 배수시설·적석시설(1)
②B지구 2구역 적석시설(2)
③B지구 2구역 청자편 출토상태

도판 23
①B지구 2구역 단면 층위
②B지구 2구역 적석시설·테스트핏트

도판 24
①B지구 3구역 군숙영지 보도(서에서)
②B지구 3구역 군숙영지 보도(북에서)

도판 25
①B지구 3구역 군숙영지 보도내 계단시설
②B지구 3구역 군숙영지 보도내 테스핏트
③B지구 3구역 군숙영지 보도 다짐상태
④B지구 3구역 테스트핏트 층위

도판 26
①B지구 4구역 남북트렌치(남에서)
②B지구 4구역 남북트렌치(북에서)

도판 27
①B지구 4구역 남북트렌치 서쪽단면 층위
②B지구 4구역 동서트렌치 동쪽단면 층위

도판 28
①B지구 5구역 남북트렌치(남에서)
②B지구 5구역 남북트렌치내 적석노출상태

③B지구 5구역 남북트렌칫내 현대기와 배수시설
④B지구 6구역 테스트핏트
도판 29
①법화사지 C지구 원경(북에서)
②법화사지 C지구 근경(남에서)
도판 30
①C지구 1구역 발굴전 상태
②C지구 1구역 발굴 광경
③C지구 1구역 북쪽 담장 트렌치조사 광경
도판 31
①C지구 2구역 발굴 광경(남서에서)
②C지구 2구역 발굴 광경(북서에서)
③C지구 2구역 S4E6핏트 단면 층위
도판 32
①C지구 3구역 남북·동서트렌치 발굴광경(북에서)
②C지구 3구역 남북트렌치(남에서)
③C지구 3구역 남북트렌치 발굴단면 층위
③C지구 3구역 남북트렌치 남쪽 생토암반
도판 33
①C지구 2구역 남북트렌치 중앙 기와 매립지 원경(남서에서)
②C지구 2구역 남북트렌치 중앙 기와 매립지 근경
도판 34
①C지구 3구역 서쪽경계 테스트핏트
②C지구 1구역 지질관정 조사
③C지구 4구역 지질관정 조사
도판 35
①C지구 4구역 남북트렌치(1) 조사광경(남에서)
②C지구 4구역 동서트렌치(1) 조사광경(서에서)
도판 36
①C지구 4구역 남북트렌치(2) 조사광경(북에서)
②C지구 4구역 확장핏트 전경(북동에서)
③C지구 4구역 확장핏트 전경(북서에서)
도판 37
①C지구 4구역 바닥노출 전경(북에서)
②C지구 4구역 경계석축 부근 바닥 노출상태(1)
③C지구 4구역 경계석축 부근 바닥 노출상태(2)
도판 38
①C지구 4구역 경계석축 축조상태(남서에서)
②C지구 4구역 경계석축 축조상태
도판 39
①C지구 4구역 바닥 노출 구덩이(1)
②C지구 4구역 바닥 노출 구덩이(2)
③C지구 4구역 경계석축 단면 테스트핏트
도판 40
①C지구 4구역 남북트렌치(2) 중앙 테스트핏트
②C지구 4구역 남북트렌치(2) 중앙 테스트핏트 단면층위
③C지구 4구역 트렌치내 논경계 돌담
도판 41
①A지구 남쪽 도로 서북벽 단면
②야산지구 트렌치 조사광경
③야산지구 트렌치 동쪽 층위단면
도판 42 A지구 출토 숫막새(1)
도판 43 A지구 출토 숫막새(2)
도판 44 A지구 출토 암막새
도판 45 A지구 출토 암막새·평기와
도판 46 A지구 출토 樹枝文 평기와(1)
도판 47 A지구 출토 樹枝文 평기와(2)
도판 48 A지구 출토 樹枝文 평기와(3)
도판 49 A지구 출토 樹枝文 평기와(4)
도판 50 A지구 출토 樹枝文 평기와(5)
도판 51 A지구 출토 樹枝文,격자문 평기와
도판 52 A지구 출토 복합문 평기와(1)
도판 53 A지구 출토 복합문 평기와(2)
도판 54 A지구 출토 복합문 평기와(3)
도판 55 A지구 출토 복합문 평기와(4)
도판 56 A지구 출토 복합문 평기와(5)
도판 57 A지구 출토 복합문 평기와(6)
도판 58 A지구 출토 복합문 평기와(7)
도판 59 A지구 출토 복합문 평기와(8)
도판 60 A지구 출토 복합문 평기와(9)
도판 61 A지구 출토 평기와·異形기와
도판 62 A지구 출토 異形기와(1)
도판 63 A지구 출토 異形기와(2)
도판 64 A지구 출토 명문기와(1)
도판 65 A지구 출토 명문기와(2)
도판 66 A지구 출토 명문기와(3)
도판 67 A지구 출토 명문기와(4)
도판 68 A지구 출토 명문기와(5)
도판 69 A지구 출토 명문와·특수와·전
도판 70 C지구 출토 기와(1)
도판 71 C지구 출토 기와(2)
도판 72 C지구 출토 기와(3)
도판 73 A지구 출토 청자(1)
도판 74 A지구 출토 청자(2)
도판 75 A지구 출토 청자(3)
도판 76 A지구 출토 청자(4)
도판 77 A지구 출토 상감분청(1)
도판 78 A지구 출토 상감·인화분청
도판 79 A지구 출토 조선청자와 조화·철화·귀얄분청
도판 80 A지구 출토 덤벙분장분청(1)
도판 81 A지구 출토 덤벙분장분청(2)
도판 82 A지구 출토 기타 분청(1)
도판 83 A지구 출토 기타 분청(2)
도판 84 A지구 출토 기타 분청(3)
도판 85 A지구 출토 기타 분청(4)
도판 86 A지구 출토 백자(1)
도판 87 A지구 출토 백자(2)
도판 88 A지구 출토 백자(3)
도판 89 A지구 출토 백자(4)
도판 90 A지구 출토 백자(5)
도판 91 A지구 출토 陶器
도판 92 A지구 출토 후기 백자
도판 93 A지구 출토 청자·분청사기
도판 94 A지구 출토 기타 백자

원　고：李淸圭·金東栓·康昌和
　　金貞善·朴容範
도　면：梁允豪·金慶柱·高禎敏
　　李尙美·吳蓮淑·金宗燦
　　姜東善
사　진：康昌和

제 1 장 조사개요

이 보고서는 1990년부터 3회에 걸쳐 제주대학교박물관에서 제주도 서귀포시 하원동 소재 법화사지를 발굴조사한 내용을 정리 보고한 것이다. 법화사지에 대한 1차 발굴조사는 1982년 명지대학교박물관 金鴻植교수팀에 의해 이루어져, 고려후기 금당지가 확인된 바 있다. 제주대학교박물관에 의한 발굴조사중 1, 2차는 구품연지로 추정된다고 하는 구역, 3차는 금당지 북쪽 부속건물지와 주변 지역에 대한 발굴조사였다. 각 발굴조사마다 조사단 구성과 조사경과의 개략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1 절 조사기간과 조사단구성

1. 1차 조사

1) 조사기간

1990년 12월 11일－1991년 1월 21일

2) 조사비

19,580,000원

3) 조사단구성

단　　장 : 姜通源 (제주대학교 박물관장)
지도 위원 : 尹武炳 (원광대학교 교수)
吳輝泳 (한양대학교 교수)
조사 위원 : 高昌錫 (제주대학교 교수)
玄海男 (제주대학교 교수)
조사책임자 : 李淸圭 (제주대학교 교수)
조 사 원 : 高光敏 (제주대학교 박물관 학예연구사)
姜彰彦 (제주대학교 박물관)
康昌和 (영남대학교 대학원)
張齊根 (국립광주박물관)
高才元 (한양대학교 대학원)
행정 간사 : 金大彦 (제주대학교박물관)
조사보조원 : 梁允豪, 宋京錫, 姜京宜, 金美成 (제주대 사학과 2년)
金美京, 吳眞榮 (제주대 사학과 1년)

2. 2차 조사

1) 조사기간

1991년 12월 31일－1992년 2월 29일

2) 조사비

3) 조사단구성

지도 위원 : 尹武炳 (원광대학교 교수)
吳輝泳 (한양대학교 교수)
조사 위원 : 金鴻植 (명지대학교 교수)
高昌錫 (제주대학교 교수)
조사 단장 : 李淸圭 (제주대학교 박물관장)
조 사 원 : 高光敏 (제주대학교 박물관 학예연구사)
姜彰彦 (제주대학교 박물관)
康昌和 (영남대학교 대학원)
행정 간사 : 朴景弘 (제주대학교 박물관)
조사보조원 : 梁允豪 (제주대 사학과 3년)
金貞善 (제주대 사학과 2년)
朴容範, 李尙美, 吳蓮淑, 金宗燦, 高禎敏 (제주대 사학과 1년)

3. 3차조사

1) 조사기간

1991년 12월 31일－1992년 11월 30일

2) 조사비

69,890,000원

3) 조사단구성

지도 위원 : 金元龍 (한림대학교 교수)
尹武炳 (원광대학교 교수)
金正基 (한림대학교 교수)
張慶浩 (문화재연구 소장)
조사 위원 : 高昌錫 (제주대학교 교수)
崔夢龍 (서울대학교 교수)
金鴻植 (명지대학교 교수)
尹德香 (전북대학교 교수)
조사책임자 : 李淸圭 (제주대학교 박물관장)
조 사 원 : 高光敏 (제주대학교 박물관 학예연구사)
姜彰彦 (제주대학교 박물관)
康昌和 (영남대학교 대학원)
高才元 (한양대학교 대학원)
金東栓 (제주대학교 강사)
행정 간사 : 朴景弘 (제주대학교 박물관)

조사보조원 : 梁允豪 (제주대 사학과 4년)
金貞善 (제주대 사학과 3년)
金慶柱, 朴容範, 金宗燦, 吳蓮淑, 李尙美, 高禎敏, 李水美, 邊盛勳 (2년)
姜東善, 康마리아, 張恩實, 金永心, 李美子, 梁宰赫 (1년)

제 2 절 조사 경과

1. 이전의 조사경과

1982년 7월 16일부터 1983년 1월 26일까지 명지대학교 박물관에서 실시한 법화사지 1차조사에서는 법화사를 중심으로 동서남북 능선안에 들어오는 대략 2만평에 해당하는 범위 전체를 대상으로한 지표조사와, 슬레트건물의 현대 대웅전 주변 경내에 대한 트렌치 발굴조사가 시행되었다. 발굴조사된 지점은 하원동 1071번지와 1066번지로, 1071번지 대웅전 건물이 들어선 지점에서 長大石으로 이어 나간 건물지 기단시설을 확인하였다.

이 발굴조사의 보고서는 1983년 출간되었는데, 보고서 종합고찰에 요약된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발굴된 건물지는 기단 면적 100평이상인 대단히 큰 건물임을 알 수 있다. 발굴된 기단부는 대략 복원할 수 있는 상태이고 상부 건물도 현 대웅전을 들어내고 정밀발굴을 한다면 초석자리를 찾아내어 복원설계가 가능하다고 믿어진다.

2) 지표조사를 통해 수습된 龍과 鳳이 새겨진 암막새, 숫막새의 발견은 우리나라에서 그 유례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게다가 2단으로 만들어진 地臺石 공법자체도 특이하다.

3) 법화사지는 수습된 도자기 파편과 기와조각으로 미루어 볼 때 고려전기인 10-12세기 사이에 지어진 사찰로 추측되며, 건물지에서 발굴된 운룡문 암막새와 운봉문 숫막새는 사찰 경영에 힘을 기울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우수한 작품으로 추정된다. 아직 연구자료가 부족해서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지만 중국기법의 기와일 수도 있으며, 왕실과 관계를 갖는 건물일 가능성도 부인 할 수 없다.

4) 사찰배치의 핵심인 탑지라든가 중문지 등도 찾아내지 못하였고 현 지표상에 노출된 초석들 조차도 발굴하지 못한 상태이다. 제주도문화의 핵심을 이루는 法華寺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서는 반드시 2, 3차 발굴이 뒤따라야 되겠다.

한편 1987년에 앞서 발굴하여 금당지로 추정한 건물지에 대웅전을 복원하기 위해 슬레트건물의 대웅전을 철거하면서, 미처 조사못한 부분에 대한 약식조사가 실시되었다. 발굴은 같은 해 7월 20일부터 23까지 4일간 제주대학교박물관팀에 의해 행하여졌다.

그 결과 동서 22m, 남북 16.3m의 구역의 대웅전건물의 기초가 생토층까지 파들어갔으며, 주춧돌 등을 포함한 유구 시설물이 남아 있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1982년도 발굴에서 확인되지 않은 서쪽의 기단석의 흔적을 찾기 위해 동북쪽에까지 트렌치를 설치 조사하였다. 기단석은 없어지고, 다만 생토층을 파서 기단석을 묻었던 굴광선만을 확인하는데 그쳤다.

2. 1990년도 조사경과

이 조사는 1990년 12월 11일부터 1991년 1월 21일까지 40여일간 실시한 발굴조사로, 法華寺에 딸린 연지로 추정되는 구역을 발굴하여 연지의 존재와 규모를 확인하는 것이었다. 조사대상지는 하원동 1090번지 일대 5,108㎡이다.

남북과 동서의 긴 트렌치조사와 바둑판식 발굴방법을 병행하여 실시한 조사 결과, 발굴대상지 전 구역에서 표토층 아래에 할석과 통나무편등이 포함된 매립토층이 확인되었다. 매립토층 아래로는 막바로 물이 스며드는 砂質粘土層과 風化岩盤層으로 이어짐을 확인하는데 그쳤으며, 연못 퇴적층이나 연못 湖岸境界施設 유구는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연지가 있다면 동 발굴지점 남쪽의 늪지가 조성된 1091번지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지역에 대한 지질관정조사를 하였다.

3. 1991년도 조사

이 발굴은 전년도에 이은 연지 2차 발굴로, 조사 대상지는 전년도에 지질관정조사를 하여 퇴적층을 확인한 하원동 1091번지 1,500평 넓이의 늪지이다. 전년도에 발굴한 1076번지내 폭 2m의 남북 트렌치를 남으로 계속 연장하여 연지구역의 남북 전체 층위및 유구를 확인하고, 늪지의 동서 전체 층위와 연지시설을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 지역은 법화사 서북쪽 水源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모여, 얼마 전까지만 해도 水田으로 이용되었던 곳이었다.

발굴조사 결과 이 구역의 서쪽 끝 가장자리를 둘러가며 밭담의 축석이 생토층 바닥에까지 내려간 것이 확인되었다. 이 축담시설이 늪지의 석축역할을 하고 있었으나, 늪지 바닥에서는 일정한 시설물과 유물이 거의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트렌치에서 확인된 층위를 통해 완만하게 중심부가 움푹 들어간 늪지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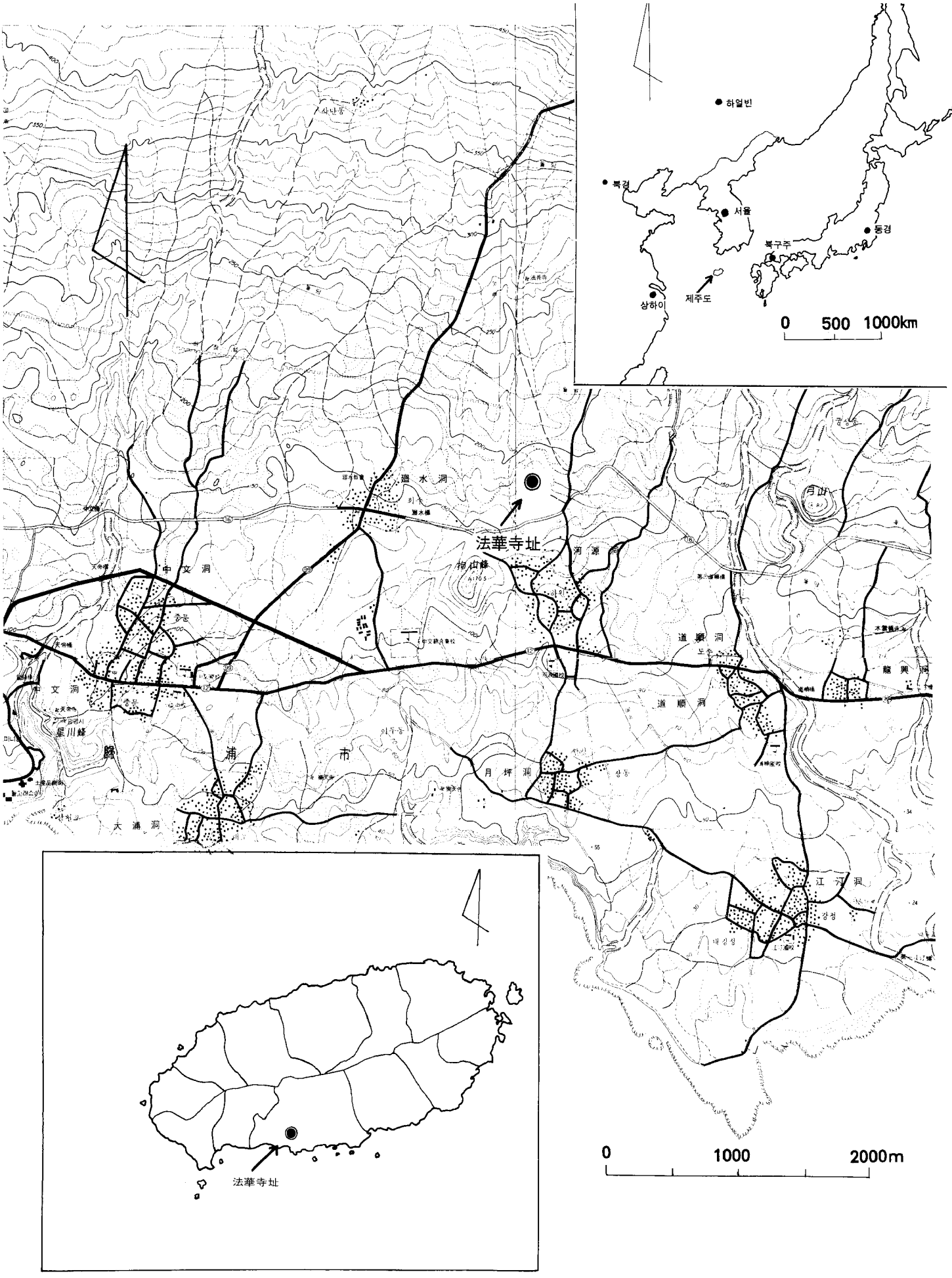
이 유구에 대한 성격 규명은 법화사 가람배치와 시설의 전체 규모를 파악하는 발굴조사가 된후 이루어질 것으로 이해된다.

4. 1992년도 조사

1982년도 발굴했던 하원동 1076번지 서북편 밭인 1062번지, 1062−1번지, 1062−2번지 총 3,988㎡에 대한 전면발굴과 1045번지와 현 법화사 경내에 1982년 당시 미처 조사하지 못한 구역에 대한 트렌치조사를 실시하였다. 발굴을 통해 금당지 서북편 1062 번지에서 건물지 3동, 계단상유구 2지점, 步道 4개 지점, 排水施設 2개, 기와매립구덩이 2개, 담장지 1개소를 확인하였다.

건물지 a는 현 金堂址 서북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노출된 基壇석렬의 길이는 동서 17.2m, 남북 12m이상으로 正面 5칸 側面 3칸 이상의 건물로 추정된다. 건물지 b는 a건물지의 후면 기단을 파괴하고 놓여 있었다. 건물지 c는 a건물지 동편을 파괴하고 시설되었으며 주초석이 동서로 2열씩 11개가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건물지 a를 파괴시키면서 북편과 동편에서 각각 b, c 건물지가 같은 지점에 겹쳐 들어서 있음을 확인하였다.

보도는 50년대 군숙영지 보도를 포함하여 점토층을 다진 보도와 기와보도 그리고 瓦積보도로 나누어진다. 와적 보도는 건물지 기단과 동일한 방향으로 시설되어 있음이 특징적이다. 계단상 유구는 할석과 잡석 그리고 기와, 전으로 단을 약 30cm 높이로 쌓아 만들어졌다.


하얼빈
북경
서울
동경
북구주
제주도
상하이
0 500 1000km
法華寺址
梧山峰
河源洞
道順洞
中文洞
月坪洞
大浦洞
江汀洞
月山
星川峰
0 1000 2000m
法華寺址

도면 1 법화사지 위치도

제 2 장 유적의 위치와 역사적 배경

제 1 절 위치와 환경

법화사는 구중문면 하원리에 위치하며,현 행정구역으로는 서귀포시 하원동 1071번지이다. 하원동은 서귀포에서 서쪽으로 11km지점에 있다. 유적은 하원동 일주도로에서 북쪽으로 1.5km 지점에 자리하고 있다.

유적이 자리한 지점의 표고는 160-170m이다. 뒷편 220m 높이의 구릉에서 능선이 동서로 뻗어 내려 온 안에 동서 260m, 남북 500m의 완만한 지형에 자리 잡고 있다. 현재 법화사 남쪽으로 서귀포시 신시가지와 일주도로의 중문 서쪽 지점을 연결하는 2차선도로가 개설중에 있다. 하원동 마을은 이 도로 남쪽에 조성되어 있다. 이 법화사에서 가장 가까운 대포리 해안과의 거리는 4km정도 떨어져 있으며, 해발 165m의 구산봉과 앞 능선이 바다를 가리고 있다.

사지 서쪽 1km지점으로 건천이 자리하고 있고 현 금당지 뒷편과 서편에 용천수가 있다. 서쪽의 용천수는 하원동 주민의 식수로 이용될 정도로 수량이 풍부하다. 이 용천수는 금당지 남쪽 앞으로 흘러 내려 1091번지에 늪지를 형성하여 논농사를 가능하게 해주고 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이 곳에서 논농사를 하였다고 전하며, 법화사 주변의 야산은 밀감과수원이 모두 조성되어 있다.

법화사 조사 구역은 남쪽과 동쪽이 낮고 북쪽과 서쪽이 높으며, 경내에 1982년 발굴된 금당지에서 남쪽으로 2m 낮아진 늪지가 5,108㎡ 넓이로 형성되었고, 이 구역을 대상으로 추정연지의 발굴조사가 1, 2차 이루어진 것이다.

대포리 해안에는 법화사 금당지에서 확인된 주춧돌과 같은 양식과 크기의 주춧돌 1기가 해수면 아래에 놓여 있다. 이 주춧돌은 법화사 건물을 지을 당시 다른 지역에서 채석 가공하고 법화사로 운반하다가 떨어진 것일 가능성이 많다. 아울러 해발 1,210m의 서귀포시 하원동 1번지에는 조선전기 양식의 부도와 건물지가 확인되고 있다. 이 건물터에 대해서는 동국여지승람등의 기록에 나오는 존자암터로 추정되고 있는데, 법화사와의 관계에 대해서 전하는 속설로는 법화사는 중원, 이 존자암은 상원 그리고 대포리 근처에 하원의 절터가 있다는 것이 전한다.

대체로 법화사에 가까운 포구로는 대포리가 있어 외지에서 법화사를 올 경우 이 대포리를 이용할 가능성이 많다.

제 2 절 역사적 배경

法華寺는 일반적으로 水精寺, 元堂寺와 함께 고려후기 제주지방의 대표적인 사찰로 전해지고 있으며, 창건연대가 통일신라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보는 의견도 있기는 하나, 그 창건연대를 알 수 있는 事蹟記나 문헌기록은 전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의 여러 문헌기록을 토대로 미루어 보건데, 이 사찰이 부각되기 시작한 시기는 원의 탐라총관부가 제주에 설치된 충렬왕 원년(1275) 이후의 일로 생각된다.

『高麗史』·『高麗史節要』·『元史』 등에는 법화사에 대한 기록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따라서 현존 문헌 중에 법화사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太宗實錄』으로 추정되는 바, 태종 6년(1406) 4월 경진조에,

임금이 (태평)관에서 연회를 열었다. 술이 취한 (黃)儼은 취한 것을 핑계대어 먼저 방으로 들어갔다. (韓)帖木兒가 말하기를 '제주의 법화사에 있는 彌陀三尊은 원나라 때 良工이 만든 것입니다. 저희들이 곧바로 가서 取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회롱하여 말하기를 '정말 마땅하다. 다만 부처님의 귀에 물이 들어갈까 두렵다' 하였더니 帖木兒 등이 모두 크게 웃었다. (중략) 黃儼 등이 친히 제주에 가서 銅佛像을 맞이하려 하였다. 혹자가 말하기를 '황제(명나라의 황제)가 黃儼 등으로 하여금 탐라의 형세를 보게하는 뜻이 있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걱정하여 군신과 의논하고 급히 金道生과 司直 朴謨를 宣差하여 제주에 급히 가서 법화사의 동불상을 가져오게 하였다. 대개 말하기를 만약 불상이 먼저 나주에 이르면 黃儼 등이 제주에 들어갈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1]

라 하였다. 즉, 제주도 법화사에 안치하고 있는 彌陀三尊 불상은 원나라 때 良工이 만든 것으로, 명나라에서는 이를 가져가기 위해 黃儼·韓帖木兒 등을 사신으로 파견하였었다. 이때 황엄 등은 직접 제주에 들어가서 銅佛像을 가져 오려고 하였다. 그러나 태종은 황엄 등이 이를 핑계로 탐라의 형세를 파악하고자 하는 명나라 황제의 다른 의도가 있다는 주위의 권고에 따라 급히 金道生과 朴謨를 宣差하여 제주 법화사에 가서 동불상을 가져오게 하였다. 이는 불상이 羅州에 도착하게 되면 황엄 등이 제주에 갈 필요가 없게 되고, 따라서 제주도의 사정이 명나라에 소상하게 알려질 염려가 없기 때문이었다.

명나라에서는 고려말 이래로 마필 등과 관련하여 제주도 귀속문제를 여러차례 거론하여 왔다. 결국에 가서는 탐라에 대한 지배권이 고려로 결정되었고, 이후 고려는 조선왕조로 교체되었다. 따라서 태종은 이러한 문제가 다시 제기될 것에 대비하여 사전에 예방책을 취한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이리하여 태종 6년 6월 27일 朴謨 등은 제주 법화사에서 銅佛 3軀를 싣고 해남현에 도착하였다.[2]

황엄·한첩목아 등이 나주에서 기다리다가 법화사의 동불상 3坐를 받들고 서울로 돌아온 것은 동년 7월 16일이었다. 그 行列의 규모는 성체를 모시는 방 15개에 佛像·火光·蓮臺·坐具를 나누어 안치하고, 또 방에다 흙을 담아 牡丹·芍藥·黃葵 등의 기이한 꽃을 심었다. 櫃를 만들었는데 판자 1천장, 철 6백근, 麻 7백근을 사용하였다. 그 佛像과 火光을 모신 방이 셋인데, 높이와 폭이 각각 7척쯤이며, 안에는 간막이용으로 白紙 2만 8천장과 棉花 2백근을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행렬에 동원된 짐꾼만도 수천여인에 이르렀다고 한다.[3] 이들은 얼마간 한양에 머물다가 동월 22일 동불상 3좌를 받들고 명나라로 떠남으로써 제주 법화사에 안치되었던 동불상 문제는 일단락 되었다.[4]

여기서 우리는 법화사에 안치되었던 銅佛像 3坐가 원나라 양공이 만들었다는 이유로 明에 귀속되어졌다는 사실이 그 후 법화사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을까 하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 또한 明이 굳이 법화사에 있는 동불상을 가져간 이유는 무엇일까. 물론 이에 대한 해답들을 분명히 확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여기에는 제주도에 남아 있는 원의 영향을 배제할려는 명의 의도가 내포되어 있지 않았나 생각된다. 설사 그렇지 않다하더라도 원의 영향하에서 교세를 떨쳤던 법화사가 阿彌陀三尊佛像을 明에게 넘겨준 이후 교세가 점차 약화되었을 것이라는 추정은 가능하다.

다음으로 水正(精)寺와 함께 法華寺에 소속된 노비의 수를 대대적으로 줄이고 있음을 알 수 있는 태종 8년(1408)의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기록에 의하면,

의정부에서 제주의 법화사와 수정사의 두 절에 있는 노비의 수를 정하도록 아뢰었다. '제주목사의 呈文에 따르면, 州境에 裨補寺刹이 두 곳이 있는데 수정사에는 현재 노비가 130명이 있고 법화사에는 현재 노비가 280명이 있다고 합니다. 바라건대 두 절의 노비를 다른 사찰의 예에 따라 각각 30명만 주고, 그 나머지 382명은 典農(寺)

에 부치십시요' 하니, 왕은 그대로 따랐다.[5]

라 하여 나라를 수호하는 裨補寺刹이 제주에는 법화사와 수정사 두 곳이 있는데, 여기에는 각각 노비가 280명, 130명이 있었다. 그러나 태종 8년(1408)에 다른 지역의 예에 따라 노비를 각각 30명만 두고 나머지는 典農寺에 소속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태종 6년(1406) 제2차 사찰정리에 기인한 것이었다. 다시 말해서 제2차 사찰정리의 결과, 界首官(大邑) 지역외의 사찰의 경우 收租地 60결, 노비 30명을 남겨두고 모두 혁파하였다.[6] 제주의 경우는 2년 뒤인 태종 8년에 와서야 이와 같은 조치가 취해졌던 것이다. 典農寺에 소속된 382명의 노비들은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제주도에서도 屯田 경작에 사역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태종 8년 이전의 경우, 노비수에서만 보더라도 제주도에서는 수정사보다도 법화사가 거대한 사찰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사찰에 예속된 노비수의 감소와 더불어 모든 사찰에는 노비수에 준하는 승려들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승려의 감소도 필수적으로 뒤따랐을 것으로 보인다.

어떻든 태종 8년 이후 수정사와 함께 법화사도 숭유억불 정책에 의하여 점차 쇠퇴의 길을 걸었던 것 만큼은 확실하다. 이러한 현상은 세종의 강력한 抑佛策의 시행 즉, 寺刹 노비의 혁거 屬公, 禪敎兩宗으로의 종파 병합, 寺刹, 寺田, 常住僧 등의 액수를 재정리함으로써 가속화되어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속에서도 민간 차원에서의 불교는 제주지역의 경우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강하게 유지되지 않았나 싶다. 이는 세종 9년(1427) 제주도 察訪 金爲民이 제주지방의 폐단을 아뢰는 조목 중에 帶妻僧들의 폐단을 지적하고 있는 사실에서 엿볼 수 있다. 즉,

> 僧徒가 妻를 얻는 것은 (大明)律에 죄가 정해져 있고, 六典에서도 금지하는 바입니다. 제주의 승도들은 공공연히 처를 취하여 寺刹을 집으로 삼고, 그 弟子를 使役케 하여 그 妻子를 양육합니다. 대략 官家의 부역은 없으니 앉아서 배부르고 따뜻하게 지냅니다. 그러니 육지의 승도들도 역시 모두 소문을 듣고 연못에 고기가 모이듯 (제주로) 몰리어 풀들이 바람에 쏠리듯 그 모양을 따르지만, 官에서는 이를 보고서도 예사로 알아 또한 금지하지 않으니 실로 폐풍이 됩니다. 청컨대 제주의 帶妻僧徒를 일일이 모두 조사하여 牧子로 만들거나 혹은 軍額에 보충하십시요.[7]

라 하여, 僧徒가 妻를 얻는 것을 國法으로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의 승도들은 처를 거느리는 것이 보편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소문을 들은 전국의 승려들은 제주로 몰려들기 시작하였고, 오히려 양민들은 國役을 피하기 위하여 승려가 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였다. 이는 곧 國役 담당자가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였다. 따라서 태종의 윤허에 따라 중앙정부는 이들을 조사하여 牧子 혹은 軍額에 보충하였다. 그렇지만 도첩제에 의해 국가에 일정한 액수를 지불하고 합법적으로 승려가 된 자들이 처자식을 부양하기 위해 제주로 입도하는 현상은 끊이지 않았을 것이다. 제주의 속어에 '당오백 절오백'이라는 것도 이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조선시대에 접어들어 점차 쇠퇴되어진 법화사는 언제 廢寺되었을까 하는 점이 다음의 관심일 것이다. 이에 대해 다소의 실마리를 제공해 주고 있는 사료가 『新增東國輿地勝覽』과 『耽羅志』의 내용이다. 『新增東國輿地勝覽』은 중종 25년(1530)에 편찬된 문헌이다. 이 책이 편찬될 당시 이미 없어진 사찰의 경우 「今廢寺」하는 식으로 밝혀 놓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법화사의 경우,

법화사는 대정현의 동쪽 45리에 있는데, 僧 慧日의 詩에, '법화암가에 물화가 그윽하니, 대를 끌고 솔을 휘두르며 홀로 스스로 논다. 만일 세상 사이에 항상 머무르는 모양을 묻는다면, 배꽃은 어지럽게 떨어지고 물은 달아나 흐른다.'[8]

라 하여 「今廢寺」란 기록이 없다. 따라서 일단 법화사는 1530년대까지는 존속되지 않았나 생각된다.[9] 僧 慧日의 詩는 어떠한 기록을 보고 옮겨 놓은 것에 불과하다. 혜일은 고려시대 正言을 지낸 李穎의 숙부이다. 李穎은 『東文選』에 의하면 충렬왕때 사망하였다.[10] 이로 미루어 혜일의 생존시기도 대략 13세기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는 이 시기에 법화사가 이미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해 주기도 한다.

한편, 효종 4년(1653) 이원진에 의해 편찬된 『耽羅志』 大靜縣 佛宇條에,

법화사는 (대정)현 동쪽 45리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다. 절터와 羅漢殿 자리의 주춧돌과 섬돌을 살펴보면 모두 크고 정밀하게 다듬은 석재를 사용하였으니 그 전성시에는 굉장하였을 것임을 생각할 수 있다. 지금은 단지 초가암자 몇 간만 있다. 그 서쪽에 물맛이 좋은 샘이 있는데 절 앞 논에 물을 댄다.[11]

라 하여, 1653년경에는 이미 법화사가 廢寺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오늘날 세간에서 이형상 목사가 법화사를 毁寺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은 잘못이다. 위의 기록처럼 법화사는 효종 4년 이전에 이미 혁파되었으니 이형상 목사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또한 그 절터 및 羅漢殿 자리의 주춧돌과 섬돌을 살펴보면 모두 크고 정밀하게 다듬은 석재를 사용하고 있어 전성시대에는 법화사의 규모가 굉장했을 것이나, 지금은 단지 초가암자 몇 채만 남아 있고, 그 서쪽에는 단샘(감천)이 있어서 절 앞 논에 물을 대고 있다고 하여 당시의 상황을 알려주고 있다.

두 사료의 내용을 정리하면, 법화사의 廢寺는 1530년에서 1653년에 이르는 시기인데, 전후사정을 고려해 볼 때 16세기 후반이 아닌가 생각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1601년 8월 蘇德裕·吉雲節 역모사건을 수습하기 위하여 어사로 제주에 파견되었던 金尙憲이 이듬해 2월 王에게 복명하기까지 그가 제주에서 보고 돌은 내용을 기록한 『南槎錄』에 법화사에 관한 내용이 전혀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끝으로 이번 발굴과정에서 출토된 기와의 명문 중에 [始重創十六年己卯畢]의 명문 해석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이는 앞 부분이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해석이 가능하겠으나, 먼저 16년을 왕의 재위 16년으로 볼 때 기묘년과 일치하는 것은 조선의 高宗 16년 기묘 즉, 1879년 하나 뿐이다. 그러나 이 연대는 당시 제주도의 전반적인 불교상황을 고려해 볼 때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16년을 年號로 파악하면 至元 16년 기묘 즉, 고려 충렬왕 5년인 1279년이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앞서 서술한 내용들을 통해 미루어 볼 때 이와 같이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법화사가 와당 명문에서와 같이 1279년에 중창되었다면, 왜 하필 그 시기에 법화사가 중창되었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는 아마 충렬왕 원년(1275) 탐라총관부의 설치와 관련지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즉 법화사는 원의 탐라총관부가 설치되기 이전 언제인가 창건되어 있다가 탐라총관부가 설치되면서 제주에 대한 정치적 비중이 변화되고, 그에 따라 법화사도 중창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고 추정된다.

결론적으로 법화사는 원의 탐라총관부가 설치되기 이전 언제인가 창건되어 있다가 1279년 원에 의해 중창되어 더욱 교세를 떨치게 되었다. 그 후 태종 6년(1406)에는 법화사에 안치되었던 彌陀三尊 불상을 明에게 넘겨주면서 교세가 약화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현상은 태종·세종대에 걸친 억불책에 의해 더욱 가속화 되었다. 그 결과 16세기 후반에는 廢寺되어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17세기에는 초가암자 몇 채만으로 佛道의 명맥을 유지해 오다가 18세기 초에는 그것마저 사라졌다. 그 후 여기에 다시 佛道가 미치기 시작한 것은 제주읍 화북리 출신 安蓬盧觀尼師가 1908년 관음사 창건으로 제주불교를 중흥시킨 후, 安道月禪師가 유서깊은 이 곳에 布教所를 창건하면서이다.

---

*註

1)『太宗實錄』卷11, 太宗 6年 4月, 庚辰條.

「 上至官設宴 酒酣 儼辭以醉先入室 帖木兒曰 濟州法華寺彌陀三尊 元朝時良工所鑄也 某等當徑往取之 上戱曰 固當但恐水入耳 帖木兒等皆大笑(중략) 儼等 欲親至濟州 迎銅佛像 或曰 帝使儼等 觀耽羅形勢 意有所在 上憂之 謀諸群臣 急遣宣差金道生司直朴謨 馳往濟州 以法華寺銅佛像來 盖謂若佛像先至羅州 則儼等不必入濟州也」

2)당시 朴謨·金道生 등이 서울을 떠나 제주에 와서 법화사의 동불상을 갖고 해남현에 도착하는데 소요된 기간은 불과 17일이었다. 이에 조정에서는 이들의 민첩성을 가상히 여겨 박모를 護軍, 김도생을 通禮門 奉禮郎으로 삼았다. (『太宗實錄』 太宗 6年 6月 乙酉條)

3)『太宗實錄』, 太宗 6年 7月, 癸卯條.

「 黃儼 韓帖木兒 楊寧 奇原 至目羅州……儼等奉銅佛像三座來 用龕十五 分盛佛像

火光蓮臺坐具 且將牧丹芍藥黃葵等異花 盛土於龕以種之 作櫃用板千葉鐵六百斤麻七百 斤其佛像火光之龕三 崇廣各七尺許 內用隔白紙二萬八千張 綿花二百斤 擔夫數千餘人」

4)앞의 책, 太宗 6年 7月, 己酉條.

「 黃儼等 奉銅三座 還京師」

5)「 議政府 啓定濟州法華修正二寺奴婢之數 啓曰 據濟州牧使呈州境裨補二處修正寺見有奴婢一百三十口 法華寺見有二百八十口 乞將兩寺奴婢 依他寺社例 各給三十口 其餘三百八十二口屬田農 從之 」

이 자료 말미에 있는 '나머지 382명'의 노비는 당시 제주에 존재하고 있던 다른 사찰의 노비를 일부 포함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왜냐하면 양 사찰에 있던 노비의 수는 410명이고, 그 중 60명을 제외하면 남은 노비의 수는 350명이어야 하는데, 32명의 노비가 남아 돌고 있기 때문이다.

6)앞의 책, 太宗 6年 3月, 丁巳條.

7)『世宗實錄』, 세종 9年 6月,丁卯條.

8)『新增東國輿地勝覽』, 大靜縣 佛宇條.

「 法華寺:在縣 東四十五里僧慧日詩法華庵畔物華幽曳竹揮松獨自遊若問世間常住相 梨花亂落水奔流 」

9)1601년 吉雲節 역모사건을 수습하기 위하여 御使로 제주에 파견된 金尙憲의 저서『南槎錄』에서 沖庵의 水精寺 重修記가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金尙憲,『南槎錄』권 1, 9월 22일조). 충암 金淨은 1520년 8월부터 1521년 10월까지 제주에 유배되었던 인물이다. 따라서 이 기간에 수정사가 중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초 제주에는 비보사찰이 수정사와 법화사 두 곳임을 감안할 때, 1520년대에 수정사의 중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상대적으로 법화사의 존재도 인정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10)이와 같은 사실은 현재 법화사 내에 있는「 曹溪宗大宗師晦明誌漢拏山南法華寺再建故蓬廬觀尼師功蹟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즉, 이 비문 우측면에'高麗正言李穎之叔慧日'이라 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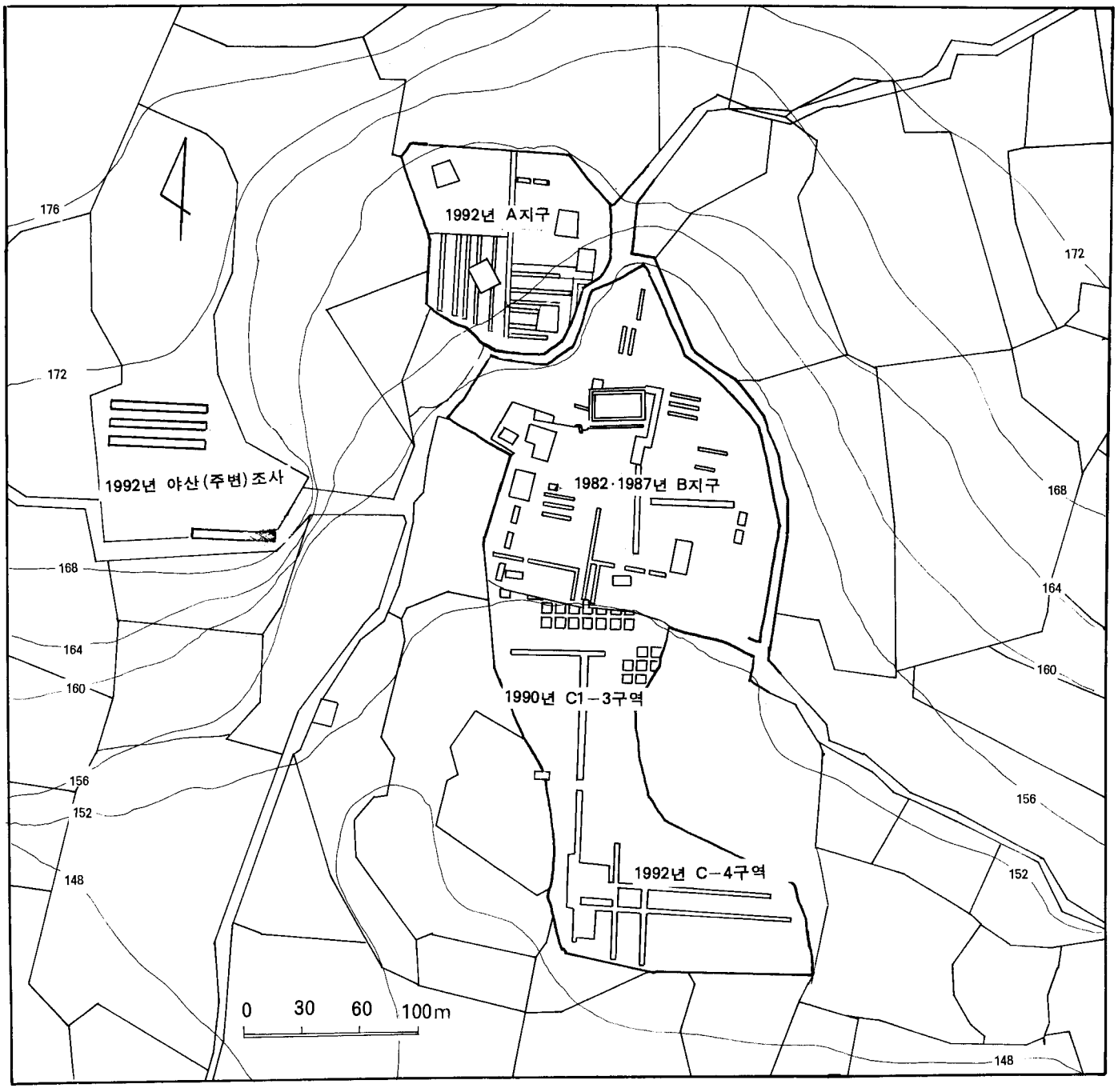
11)李元鎭,『耽羅志』, 大靜縣 佛宇條.

「 法華寺在縣東四十五里 今廢 觀其寺基 及羅漢殿基 柱礎階砌 皆用大熱石 全盛時雄壯可想 今只有茅菴數間 西有甘泉 溉于前稻田 」

제 3 장 조사 내용

3차에 걸친 발굴조사구역은 법화사경내와 그 주변의 하원동 1047, 1062, 1071, 1076, 1091번지이다. 1990-1992년 1, 2차 조사한 연지추정지구는 1076, 1091번지, 1992년 조사한 금당지 뒷편의 건물지 구역은 1062, 1071번지이다. 하원동 1045번지는 서쪽 야산으로 트렌치조사를 통해 유구의 유무를 확인한 지점이다. A, B, C지구의 명칭은 발굴의 시간적 순서를 따르지 않고 지대가 높은 북쪽에서 남쪽아래로 내려오면서 부여하였다.(도면2) 그렇게 함으로써 금후 조사확대 예정지역인 서북쪽 구역을 포함해서, 명칭을 부여하는 데 일관성을 갖기 위해서이다. A지구는 1992년 발굴된 금당지 서북쪽 지역으로 이 지역에서는 여러 채의 건물지가 확인되었다. B지구는 1982년 발굴조사에 의해 확인된 금당지와 그 주변이며, C지구는 1990년 이후 발굴조사된 연지추정지역이다. 각 지구의 세분 명칭과 발굴기간 그리고 발굴내용을 표로 작성하면 다음과 같다.

지 구 명	구 역 명	발 굴 구 획	발 굴 기 간	발 굴 내 용
A지구		TR-1	1992. 3	토층확인
1062		TR-2	1992. 4	토층확인
1071		EWTR-1, 2, 3, 4, 5, 6	1992. 5-7	건물지, 보도, 담장지 확인
번지		NSTR-1, 2, 3, 4, 5, 6	1992. 6-7	건물지, 계단상유구, 보도확인
B지구	B-1	'82년'가'발굴부	1982. 7	금당지 추정 건물지 확인
1071	B-2	TR-1,2,3	1992. 8	1951년 군숙영지 보도,
번지	B-3	TR-1,2,3	1992. 7	계단상유구 확인
	B-4	NSTR·EWTR	1992. 6	층위 확인
	B-5	TR-1	1992. 9	적석매립부 확인
	B-6	TEST PIT	1992. 9	생토층확인
C지구	C-1	방형 PIT	1990. 12	늪지층확인
1076		16개 구획	1990. 12	늪지층확인
1091	C-2	방형 PIT	1990. 1	늪지층확인
번지	C-3	EWTR		군숙영지 관련유물포함층,
		NSTR		기와매립층 일부 확인
		TEST PIT	1992. 1	생토암반층 확인
	C-4	NSTR-EWTR	1992. 1	자연 늪지층·경계석축 확인
		확장발굴		늪지 바닥 확인
야산지구		TR-1	1992. 10	토층확인
1047번지		TR-1,2,3	1992. 10	토층확인



도면 2 법화사지 전체 발굴구획도



(발굴지역지적도)

제 1 절 A지구 조사

1. 발굴전 현상(도면 2-2, 도판 1-①)

발굴대상지 1062, 1071번지는 귤밭이다. 5-10년생 귤나무가 주변 방풍림으로 에워싸여 2m 간격으로 들어서 있었다. 발굴대상지를 포함한 이 일대 밭은 북고남저의 심한 경사때문에 계단식으로 조성되어 있었다. 밭 경계마다 축담을 쌓아 4개의 계단밭이 각각 평탄면을 유지하고 윗밭의 흙이 아래밭으로 내려오는 것을 막았다.

발굴대상지 밭의 면적은 대략 1500평정도로 남북 55.7m, 동서 44.7m이다. 남과 북쪽 끝의 표고차는 8.5m이며, 아래밭(하원동 1071)과의 표고차는 5m이상 된다. 급격히 떨어지는 지점은 1071번지와 1062번지를 구분짓는 폭 3m의 도로 남쪽 부분이다. A지구내에는 돌담에 둘러싸인 무덤이 4군데 자리하고 있고 동쪽, 1062-1번지에는 귤저장용 창고로 사용된 콘크리트 건물이 시설되어 있다.

발굴에 앞서 대상지 밭에 대한 지표조사를 통해, 1062번지내 첫번째 밭경계 축담 중앙하단에 주춧돌 1기가 확인되었고, 1062번지 동쪽 장방형 무덤돌담 앞에 1기의 주춧돌이 지표위에 놓여 있었다. 첫번째 밭경계축담열과 1062번지 동쪽 무덤돌담 앞 석축에서 다량의 기와편과 청자,분청사기편을 수습 할 수 있었다. 1062번지와 1062-1, 2번지를 경계짓는 축담은 높이가 2.5m이고, 높이 3m이상의 삼나무방풍림이 동서 축담과 맞물려 조성되어 있었다. 이 축담열 중 동쪽 아래 바닥부분에는 이미 사지 잡석담장지 석렬이 바닥에 노출되어 있었다. 즉, 이 부분은 조선시대 사찰의 담장지석렬을 기반으로 이용하여 그 위에 현 밭경계축담을 쌓아 올린 것이다.
1062번지의 지표에서는 다량의 유물이 수습되었으나 1062-1, 2번지에서는 거의 확인되지 않았다.

2. 발굴 방법(도면 3, 도판 1-②)

1) 발굴대상지내의 귤나무를 전부 베고, 지표에 있는 짚, 귤나무잎,각종 거름(퇴비)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난후, 발굴대상지 중심지점에 기준점(D.P.)을 설정하였다. 기준점은 해발 160m(B.L.M. 160 m)이다.(도면 3, 4의 D.P.참조)

2) 기준점을 중심으로 대상지 밭의 중앙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길이 50m, 폭 1m의 중심둑(BAULK)을 구획하였다. 이 중심둑을 경계로 하여 1062번지구역을 폭 4m, 길이 10m트렌치를 남북방향과 동서 방향으로 구획하여 일차 탐색조사를 하였다.

3) 동쪽구역 동서트렌치를 2m간격으로 6개 두고, 서쪽구역은 남북 트렌치를 6군데 구획발굴하였으며, 트렌치내 노출된 유구 부위는 필요한 둑만을 남기고 전면 확장 발굴을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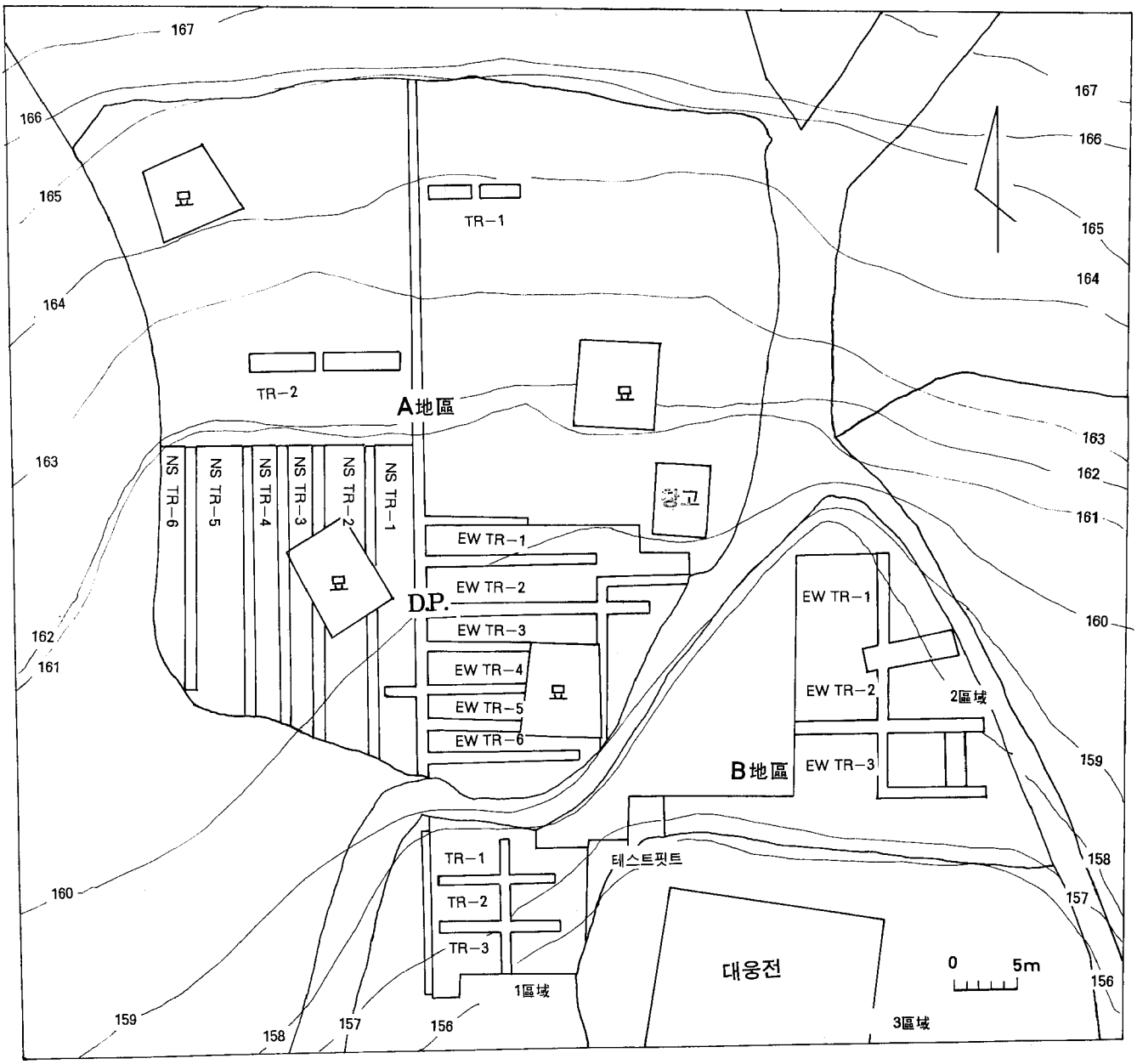
4) 1062-1번지에 한해서는 부분적으로 테스트핏트를 넣어 유구와 층위를 확인하였다.

3. 층 위

A지구 층위를 종합하는데는 階段狀 遺構 북쪽 기와보도 층위와 c건물지 내부성토층위(c건물지 내부 성토층 기술내용 참조)가 중요하다. 이 지점의 층위에서 두번에 걸친 사찰관련시기의 층과 그 이후 퇴적층의 변천과정을 파악할 수 있다.

조선전기이전에 해당하는 층위는 계단상유구 북편 기와보도 VI층과 a건물지 동편 기와보도 II층, 잡석보도하층인 II층에서 나타나며, 조선전기에 해당하는 층위는 계단상유구 북편 기와보도의 IV층과 담장지 IV층, 각 건물지 내부층위에 해당한다.

건물지 주변 층위는 부식표토층이 20-40cm가량 형성되고 막바로 생토암반층과 연결된다. c건물지만이 표토층 아래에 건물지 성토층으로 황갈색 점토다진층이 10-15cm두께로 나타난다. 건물지내부 층위를 제외한 각 지점의 층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각 건물지의 내부층위와 건물지 주변 유구의 층위는 해당 유구부분에 기술하였다.



도면 3 법화사지 A·B지구 발굴구획도

가. 담장지 북쪽 지점 동서 단면 층위 (도면 5-①, 도판 20)

이 층위는 1062번지, 1062-1번지의 밭경계 축담이 있었던 부분으로, 사찰 폐기 이후 상당량의 토층이 매립된 부분이다. 담장지 발굴후 이 부분에 대한 토층을 조사하였다.

층 위	깊 이 (cm)	색 깔	층 위 내 용
표토층	0-14	흑갈색	경작토층
Ⅰ	14-32	암갈색	경작시 매립된 사질점토층 (잡석무더기 및 현대유물 포함)
Ⅱ-1	32-37	암갈색	순수점토질퇴적층(간층)
Ⅱ-2	32-53	흑갈색	자갈포함 퇴적층
Ⅲ	53-102	명갈색	C구역 계단상유구 북쪽 적석유구 와 관련된 점토퇴적층(조선전기 문화층)
Ⅳ	103-121	황갈색	조선전기 문화층 이전에 형성된 점토성분 퇴적층. 밑으로 황색생토암반층이 연결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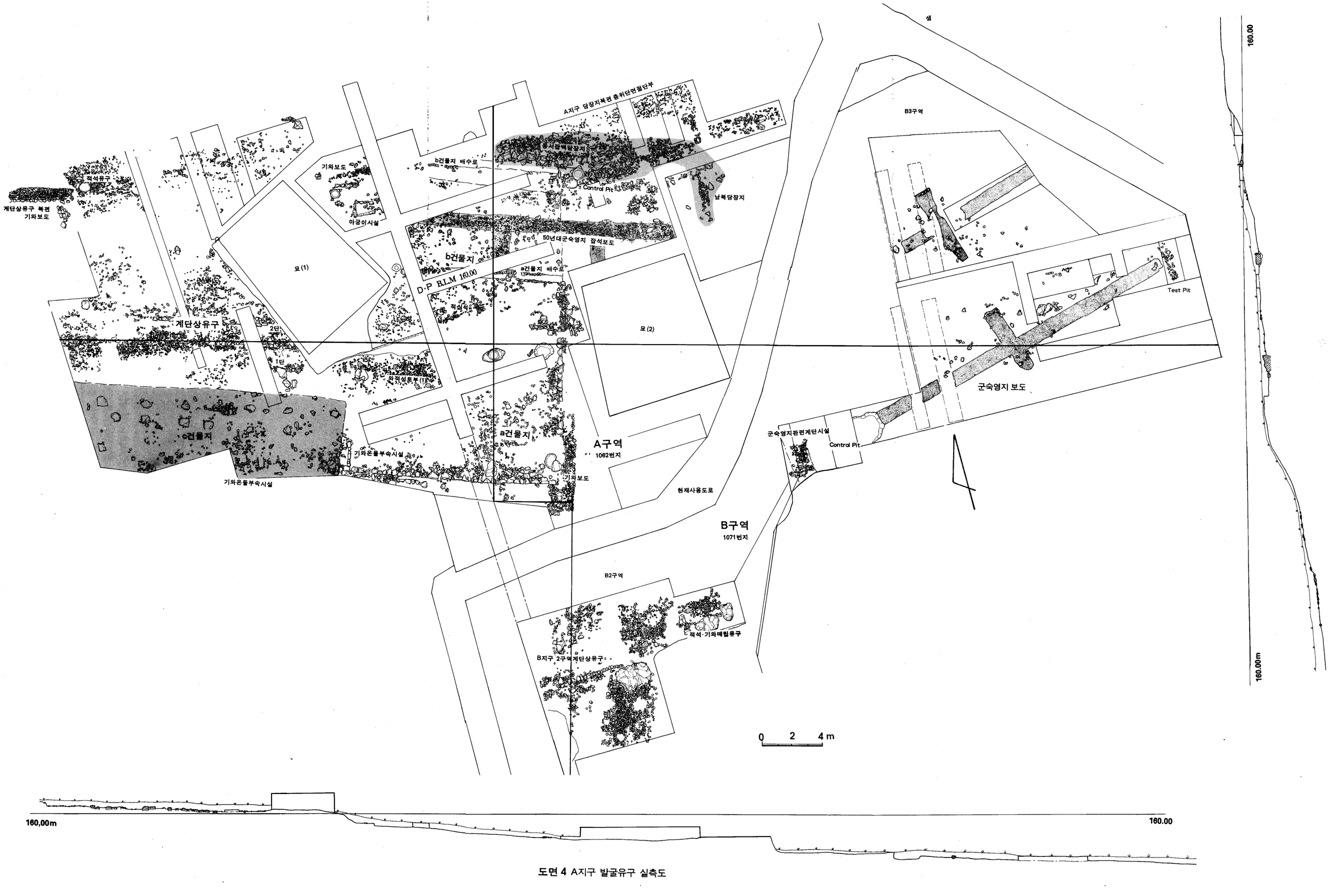
동서단면은 수평층위를 형성하고 있으나 남북단면(도면5-②,도판 20-②)은 Ⅲ층이 생략된 채 막바로 생토암반층이 연결되며 층위도 흑갈색자갈점토층 레벨부터 급격히 경사져 내려간다.

나. 계단상 유구 북쪽 기와보도 위층 층위(도면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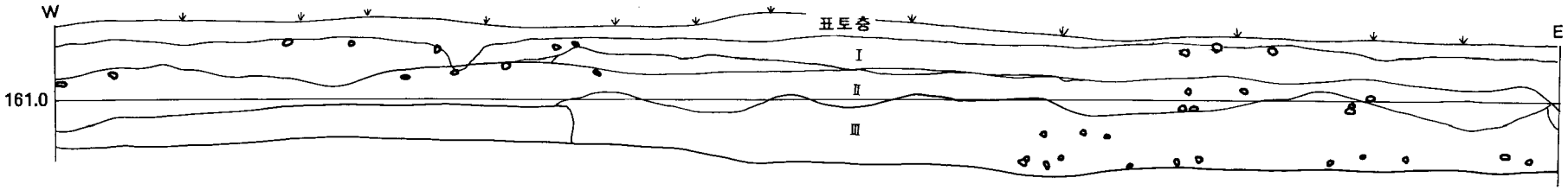
층위 확인지점은 1062번지 밭의 서북쪽 끝부분이며, 1062-2번지와의 밭경계축담이 형성되어 있었다.

층 위	깊 이 (cm)	색 깔	층 위 내 용
표토층	0-24	흑갈색	최근경작토층
Ⅰ	24-42	암갈색	경작시 매립된 사질점토층 (잡석무더기와 현대유물 포함)
Ⅱ-1	42-51	암갈색	순수점토성분의 퇴적층
Ⅱ-2	51-63	흑갈색	자갈포함의 점토 퇴적층
Ⅲ	63-78	암갈색	자갈·소토등을 포함하는 1950년 군숙영지층
Ⅳ	78-128	명갈색	A구역 계단상유구 북쪽 적석유구와 관련된 점토성분의 퇴적층(조선전기이후 문화층)
Ⅴ	78-97	황갈색	입자가 매우 고운 점토성분의 퇴적층
Ⅵ	97-127	황갈색	잡석·소토·기와등 포함 점토층 (조선전기문화층) 밑으로 생토암반층이 연결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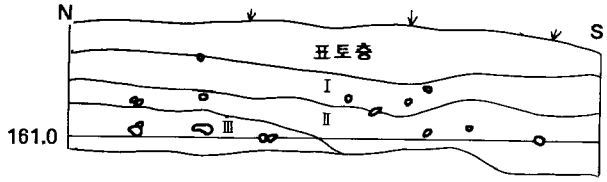
IV층은 V층에서 생토층까지 파고 들어가 있으며, 이 층은 계단상유구 제6단의 서북쪽 적석유구와 관련된 층위이다. 조선전기 사찰이후 형성된 또하나의 문화층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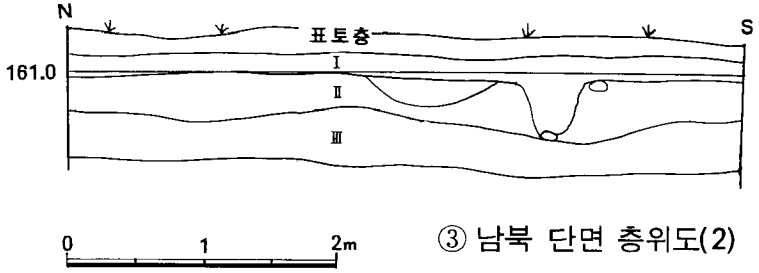
도면 4 A지구 발굴유구 실측도



① 동서 단면 층위도



② 남북 단면 층위도(1)



③ 남북 단면 층위도(2)

도면 5 A지구 담장지 북쪽 단면 층위도

다. 군숙영지 잡석보도 내부 층위(도면 17 도판 15-③)

층 위	깊 이 (cm)	색 깔	층 위 내 용
Ⅰ	25-38	흑갈색	부식 점토층, 두께7cm 미만의 보도층포함 (자잘한 잡석, 기와, 유리, 탄피포함)
Ⅱ	32-49	황갈색	잔잡석과 점토로 구성된 층으로 A건물지 기와보도의 2층과 동일한 층

Ⅰ층 윗면에는 표토층이 형성되어 있으며, 24-25m 두께로 경작부식토층이다. Ⅱ층 밑으로 잡석층이 약해지면서 황색계통의 점토층(Ⅲ층)이 나타난다. 이 층위 밑으로 생토암반층(Ⅳ층)이 연결된다.

4. 遺 構 (도면 4, 도판 2)

가. a 건물지(도면 6, 도판 3, 4, 5, 6)

1) 내부 층위와 성토

경작토층(흑갈색부식토층)은 두께가 25-30cm로, 이 토층 아래로 풍화암반생토층이 연결된다. 건물지의 내부는 기와편과 잡석으로 성토다짐을 해 놓았다. 이러한 성토다짐은 건물지 북서쪽의 생토암반 하강면과 동쪽 기단 석렬 안쪽에서 확인된다.
(도판 4-②, 5-②)

2) 기단과 주춧돌

① 기단석렬(도면 7, 도판 3)

건물지의 기단석렬은 동서장축방향의 건물지 남쪽 기단 동서 17.2m, 동쪽 기단 남북 12.7m가 확인되었다. 남북기단석렬의 방향은 N30°E이다. 기단으로 이용한 할석은 모두 제주도 현무암을 치석한 것으로, 대부분 생토암반층위에 축조되어 있다. 다만 북동쪽 석렬은 생토암반을 평평하게 깎아내어 시설하였다. 기단석렬의 서쪽은 c건물지 동쪽 기단석렬이 축조되면서 파괴되었고, 북서쪽은 무덤을 만들면서 파괴된 것으로 짐작된다. 북동쪽 모서리에도 북쪽 혹은 동쪽 기단석렬의 축조상태를 알 수 있는 시설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는 북쪽으로 생토암반층이 경사져 올라가 훼손 가능성이 높아, b건물지 북쪽 석렬부분이 파괴했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② 주춧돌(도판 4-③, ④)

건물지 내부의 주춧돌은 2기가 확인되었다. 주춧돌은 心礎石위에 놓인 것과 생토암반층을 둥글게 파서 놓은 두가지 형태가 나타난다. 확인된 주춧돌구덩이는 4군데이며, 주춧돌간의 간격은 282-312cm이다.(도판16-④) 현재 원상대로 놓여있는 주춧돌은 1기가 확인되며(도판 16-3), 이 주춧돌은 생토암반층을 파들어가 시설하였다. 주춧돌은 정사각형의 주춧돌 脚部에 한단 높게 礎頭를 둥근 형태로 만들어 윤곽을 뚜렷하게 하였고, 다시 둥근 초두면안에 동심원 혹은 얕은 홈을 파서 柱坐없이 기둥을 안치할 자리만 표시한 형식이다. 주춧돌 하단 각부는 이미 파괴되어 있고, 초두 윗면 역시 마멸상태가 심하다. 초두 주좌원의 직경은 56cm이다. 초두 주좌원을 따라 외곽으로 암키와가 겹쳐 돌려져 있다. 건물지 남동쪽 주춧돌 1기는 원상에서 약간 이탈되어 확인되었다. 이 주춧돌은 전자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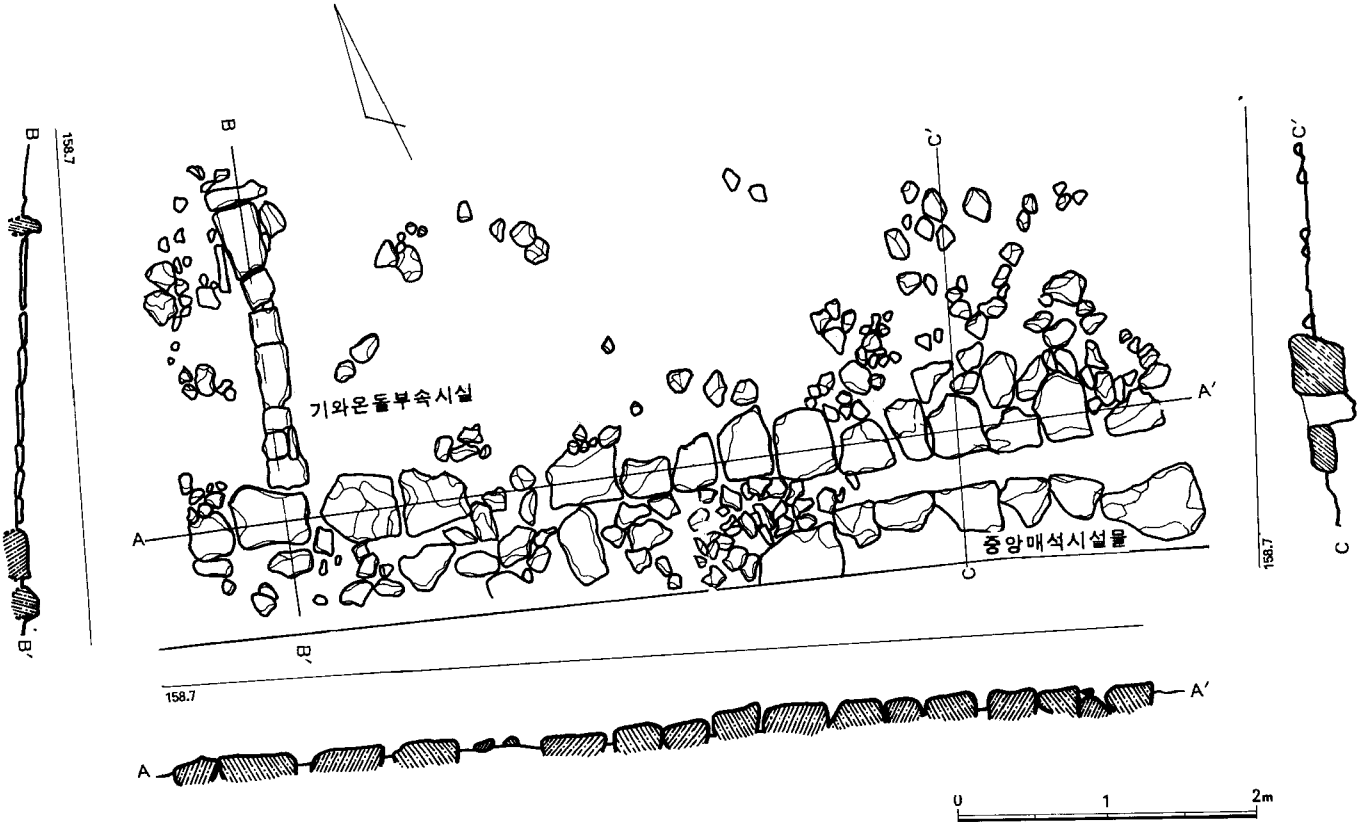
도면 6 A지구 a건물지 실측도

주춧돌과는 달리 제주도 현무암을 주좌면만을 적당히 다듬어 사용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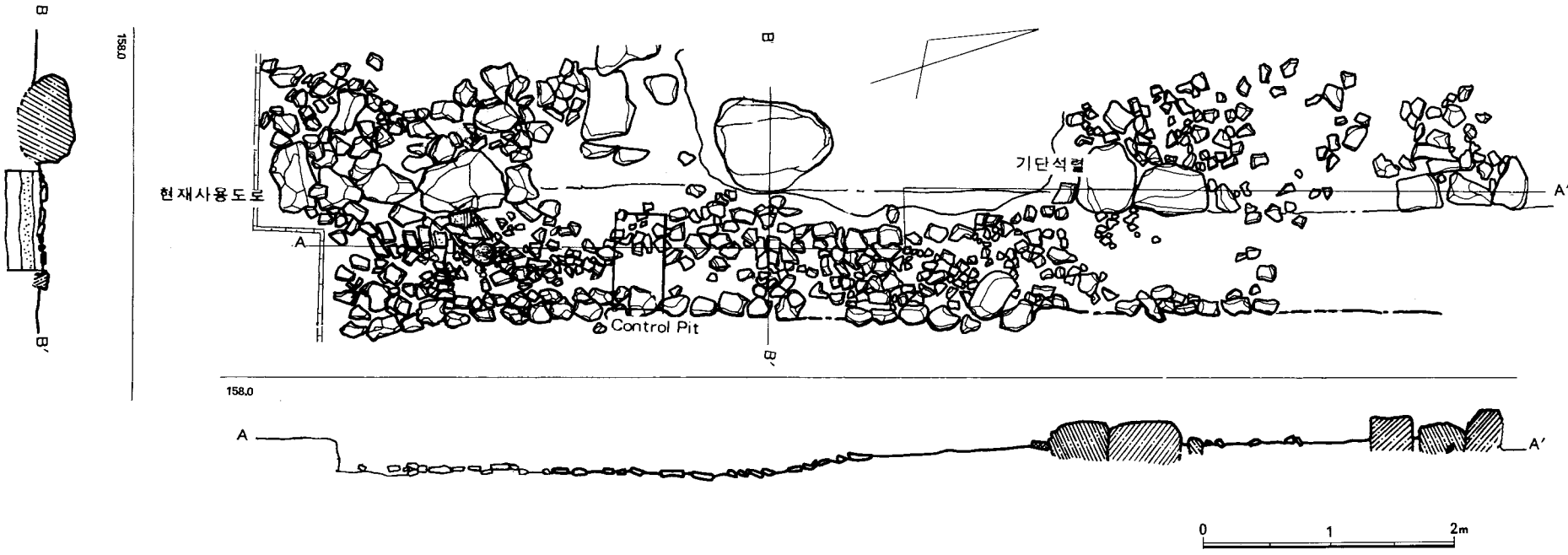
전자 주춧돌은 1982년 발굴의 금당추정지 주변에서 확인된 것과 같은 형식의 잘 다듬어진 것으로, A지구 세 건물지의 주춧돌 대부분이 적당히 다듬은 부정형인 것과는 다르다. 금당추정지 건물이 고려 후기 것으로 추정되었던 만큼 이 주춧돌도 이 시기에 만들어진 것이 후대에 A지구 이 건물지에 재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3) 내부시설 (도면 7, 도판 5-③)

건물지 내부 동서 기단의 서쪽으로 평기와를 겹쳐서 남북으로 일렬로 시설하고, 북쪽 끝을 판석형 할석을 세워 막은 시설이 확인되었다. 폭 20cm, 두께 2.1cm의 기와를 사용하여 7장을 겹쳐 놓였으며, 연결된 기와의 길이는 1.95m이다. 기와는 건물 내부쪽으로 다소 경사져 올라가며, "ㄷ"자형으로 판석상 할석을 사용하여 마감하였다. 기와열이 시작되는 기단석렬 앞쪽에서 확인된 다량의 목탄과 재층이 불땐 흔적이라고 보아, 온돌부속시설로 추정된다.



도면 7 A지구 a건물지 남쪽 기단석렬 부근 실측도



도면 8 A지구 a건물지 동쪽 기와보도 실측도

4) 외부 시설

① 기와 보도(도면 8, 도판 6-①, ②)

건물지 동쪽 기단석렬에 바로 붙어 동일한 방향으로 시설되었다. 현재 남아 확인된 보도의 규모는 길이 6.8m, 폭 1m이다. 기와보도의 양쪽 경계 중 서쪽 경계는 기단 벽선을 그대로 이용하였고, 동쪽 경계는 크고작은 자연할석을 1열 혹은 2열로 축조하였다.

보도의 축조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보도내의 테스트핏트 조사결과, 3개의 층위가 확인되었다. 1층은 기와 보도를 다진 층위, 2층은 황갈색 잡석층, 맨 아랫층은 생토암반층으로 연결된다. 기와보도의 토층 두께는 10-12cm이다. 보도는 잔 잡석과 황갈색 점토, 기와편을 섞어 하층을 다지고 그 위에 기와편을 서로 겹쳐 평평하게 깔아 놓았다. 보도내부 윗면에는 운봉문 숫막새와 이형의 홈줄무늬 기와등이 깔려 있다 (도판6-②). 이 기와보도는 남쪽으로 계속 연장되는 것이 확인되었으나, 현재 사용하는 도로가 중간에 자리하고 있어 더 이상 발굴조사를 못했다.

② 배수시설(도면 6, 도판 6-③)

건물지 북쪽 뒷편에서 확인되었다. 작은 자연할석을 이용하여 건물지 방향과 동일하게 시설된 배수시설이다. 북서쪽이 높고 남동쪽이 완만하게 경사져 내려오는 생토면위에 시설되어 있어 자연적으로 배수하게 되어 있다. 노출된 배수로의 길이는 11.2m, 폭은 45-52cm이다. 현재 이 배수로는 다음 시기에 축조된 b건물지의 내부에 자리하고 있으며, 배수로의 양끝은 후대의 경작층으로 파괴되거나, b건물지 축조시 파괴된 것으로 추정된다.

③ 기타 시설(도면 7, 8, 도판 5-①, 6-①)

건물지의 남쪽 구역에서는 타원형으로 돌아가는 매석시설과 보도와 병행해 가는 남북으로 축조된 석렬, 기와와 잡석을 이용하여 둥글게 돌린 시설물 등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모든 유구가 작은 도로와 아랫밭(하원동 1064-1번지)으로 들어가 있어 금후 이 지역에 대한 확대 발굴조사시 확인될 필요가 있다.

나. b 건물지(도면 9, 도판 7-①, ②)

a건물지의 북쪽에 일부 겹쳐 위치하고 있다. 이 건물지 남쪽 기단석렬은 a건물지 뒷편 기단석렬을 파괴하고 시설되었다.

1) 내부 층위와 성토

자연암반층의 경사면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부분적으로 성토 다짐을 한 것으로 여겨진다. 성토다짐방식은 깊이 24-28cm의 경작부식토층 밑으로 생토암반층을 5-10cm정도 파들어가 자잘한 잡석과 흑갈색 부식토를 섞어 다졌다. 이러한 성토다짐방식은 건물지 북쪽에서 확인된다. 발굴과정에서 기단석렬 안쪽으로 황색점토층을 파내려가 성토한 자갈층이 주변 평면토층과 구분선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반면 건물지 남쪽면은 북쪽뒷면보다 자연암반 경사가 심하게 나타나 이 부분에 한해 다른 부분보다 기와와 잡석을 사용하여 한단 높게 성토하였다.

2) 기단과 주춧돌의 축조

① 기단 석렬 (도판 3-①, 7-③)

159.5
A
A′
B
B′
0
1
2m
구상유구
기와무도열
주혈군 (1)
주혈군 (2)
묘 (1)
묘 (2)
배수시설
석실묘
석실묘 추정지
석실묘 추정지
석실묘 추정지

현재 석렬이 남아 있는 부분은 건물지 남동쪽부분과 북서쪽 일부이다. 다른 부분은 50년대 군숙영지보도와 경작으로 인해 모두 파괴되었다. 석렬의 서쪽은 묘가 자리하고 있어 확인이 어려운 상태이다. 일부 확인되는 남동쪽 석렬의 방향은 a건물지와 동일한 N30°E이며, 석렬의 축조상태는 a건물지보다는 정연하지 못하다. 기단이 없어진 부분은 성토시 생토를 굴착한 선과 잡석 성토층 범위를 통하여 추정할 수 있었는 바, 기단석렬의 범위는 남북 10.6m이고 동서는 12m이상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② 주춧돌(도판 7-③)

주춧돌은 건물지 남북에 1기만이 남아 있으며 두군데의 心礎石群이 확인되었다. 주춧돌은 건물지 기단렬과 거의 붙어 있다. 북쪽 주춧돌은 안산암제 四角몸통에 둥근모양의 柱座를 만들고 주좌안에 원을 음각한 형식이고 남쪽의 주춧돌은 현무암제로 사각형모양을 간단히 치석한 것이다. 心礎石의 주춧돌 자리는 현재 노출된 2기의 주춧돌보다 안쪽으로 들어와 시설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건물지의 주된 주춧돌자리라기 보다는 보조 주춧돌의 자리일 가능성이 있다. 心礎石群이라고 생각되는 부정형 적석군이 남쪽 중앙기단석렬에서 안쪽으로 1.2m정도 들어와 시설되어 있다. 이 지점은 자연 암반층이 경사져 내려가는 부분으로 a건물지의 북쪽기단석렬이 축조된 부위로 생각되는 지점이다. 부정형 적석군의 간격은 2.4m이다.

3) 내부 시설(도면 10, 도판 8-③)

건물지 서북쪽에 동서장축의 장방형 아궁이 시설이 확인되었다. 이 시설의 규모는 동서장축이 1.52m, 남북단축이 1.1m이고, 깊이는 35cm이다. 북벽은 사각형 할석 4매를 붙여 세웠고 서벽은 다듬지않은 부정형 자연석을 북벽과 직각으로 2매를 세워 시설하였다. 남벽은 사각판석 1개만이 남아있으나, 서벽과 연결되는 2매이상의 판석이 후대에 빠져나간 것으로 여겨진다. 아궁이 바닥에서 황갈색 점토를 단단하게 다져진 층이 확인되었다. 다진층 위로 길이 20cm, 두께 2cm의 판석 1매가 깔려있었다. 아궁이 시설은 동쪽으로 트여 있고, 이 입구 부분에서 다량의 재층이 나타났다. 건물지 동쪽부분과는 레벨차가 다소 있다. 아궁이 입구 방향으로 보아, b건물지와는 별개의 또다른 건물지의 부속시설일 가능성도 있다. b건물지의 전체 윤곽과 건물지 서쪽부분의 확실한 유구 파악은 건물지 서쪽부위에 들어서있는 10평정도의 무덤부분을 조사한 후에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4) 외부 시설

① 기와 보도 (도면 10, 도판 8-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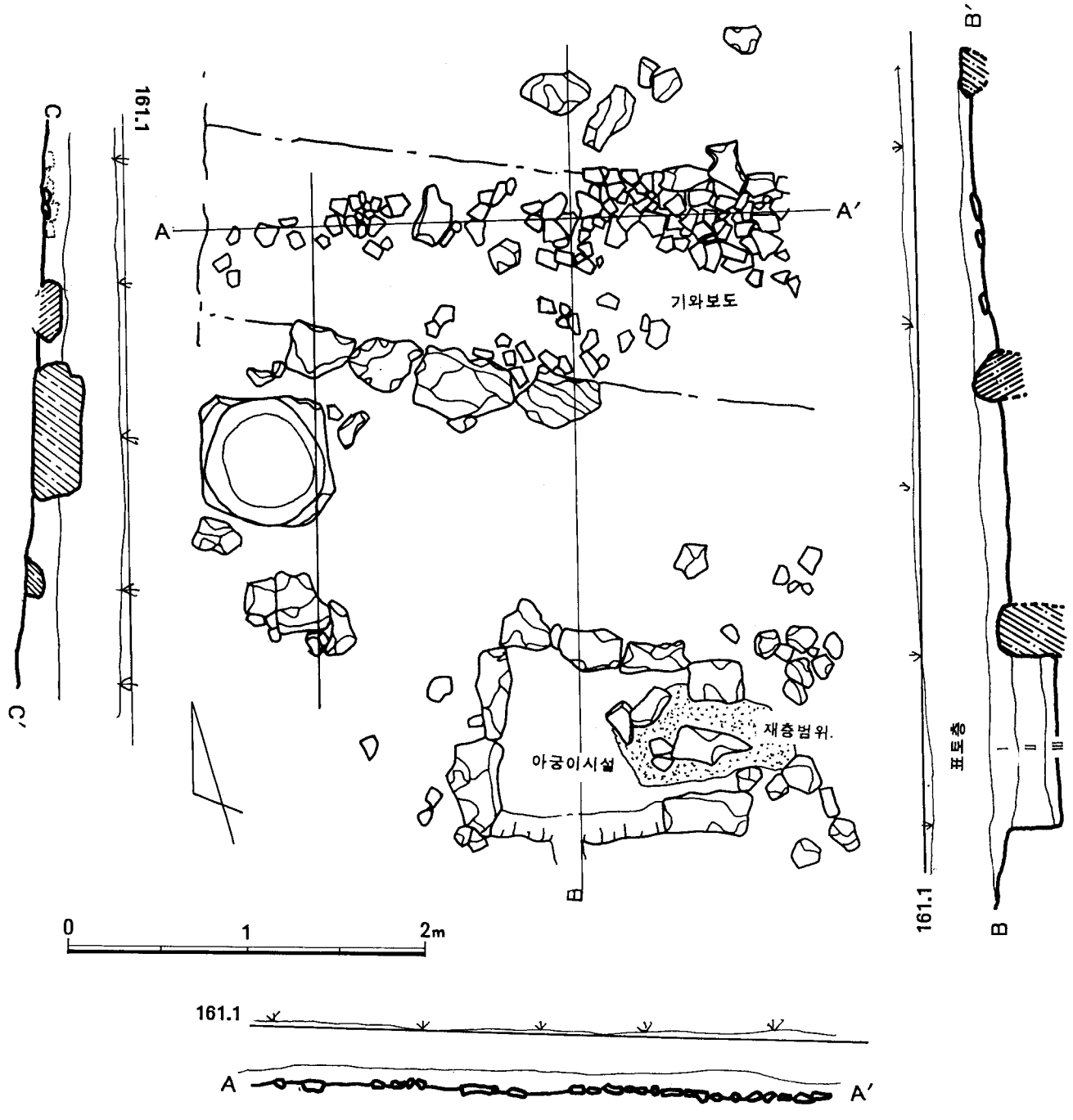
b건물지 북쪽 기단 석렬과 동일한 방향으로 위치해 있다. 확인된 보도의 규모는 길이 3.2m, 폭 45-55cm이다. 기와보도의 동쪽부분은 보도의 원래 끝부분으로 조사되었고, 서쪽은 후대에 경작과 묘를 축조하면서 유실된것으로 보여진다. 기와보도는 현재 북쪽경계만 남아 있고 남쪽에는 보이지 않는데 이는 후대 경작에 의해 유실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확실치는 않지만 남쪽은 건물지의 기단석렬을 그대로 이용하였으며 북쪽 끝선은 기와를 일렬로 깔아서 축조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후술할 계단상 유구 북쪽 기와보도의 예를 미루어 알 수 있다. 내부는 잔자갈과 기와를 사용하여 하층을 다지고 그 위에 기와를 평평하게 깔아 축조하였다. 보도내부에 운용문 암막새 파편과 운봉문 숫막새 파편등이 깔려있다.

② 배수시설(도면 7-①, 도판 8-①)

건물지 북쪽 기단석렬과 1m의 사이를 두고 평행하게 시설되어 있다. 배수로 석렬의 폭은 37-42cm이다. 배수로 석렬은 생토암반층 위에 축조되었다. 석렬동쪽은 북쪽의 담장지 남쪽석렬과 맞물려 지나가며(도면 29, 도면 26-①), 배수로 북쪽석렬은 발경계축담을 만들면서 거의 없어졌다.

③ 기타 유구

건물지의 남동쪽 모서리 부분에서 일련의 적석군이 확인되나 현재 墓가 자리하고 있어 확인되지 못했다.



도면 10 A지구 b건물지 북쪽 기와보도·아궁이시설 실측도

다. c 건물지 (도면 12, 도판 9)

a 건물지의 기단석렬 서쪽을 파괴하고 들어섰으며 (도판10-①), 건물지의 남쪽과 서쪽은 이웃한 1046-1번지의 과수원으로 연장되어 확인되지 못했다.

1) 내부 층위와 성토

내부층위는 3개의 층위, 두께 45-72cm로, 표토층-다진층-성토층-생토암반층으로 연결된다. 표토층은 최근 경작토층으로 약 20cm가량 덮여있었다. 이 표토층을 제거하고 나니 5-7cm 두께의 다져진 층이 나타났다. 이 층은 1950년대 군숙영지와 관련된 보도층으로, 주춧돌렬 바로 윗면에 붙어 형성되 있었다. 성토층은 점토와 붉은 마사토, 목탄, 기와부수러기등을 섞어 단단하게 다진층이었다. 이 층의 두께는 북쪽이 10cm내외이고 남쪽이 40cm이상된다. 이로보아, 경사져 내려가는 생토암반층 위에 남쪽을 두텁게 성토함으로서 건물지 성토윗면을 수평으로 맞추었음을 알 수 있다.

2) 기단과 주춧돌의 축조

① 기단석렬 (도판 9,10-①)

기단석렬의 방향은 a건물지의 방향과 동일한 방향이다. a건물지의 서쪽 기단석렬을 완전히 파괴하고 동쪽 기단석렬을 만들었다. 현재 노출된 기단 석렬의 범위는 동서 17.4m이상, 남북 5.8m이상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생토암반층위에 바로 놓여있는 기단석은 동쪽석렬과 북쪽석렬 일부가 남아있고, 서쪽과 남쪽은 하원동 1064-1,1064번지 밭으로 들어가 있어 금번 조사에서 확인할 수 없었다. 기단석은 모두 부정형의 할석이다. 축조된 석렬의 맞물림상태는 a건물지보다 정연하지 못하다.

② 주춧돌(도판 11-①, ②)

주춧돌의 방향은 동서로 2열씩 11개가 노출되어 있다. 양주춧돌간의 남북 폭은 75-80cm이며 柱間隔은 255-380cm인데, 노출된 동쪽에서 부터 柱間隔은 295cm, 그 다음 칸이 255cm, 3칸이 380cm이며 4칸이 255cm, 5칸이 295cm이다. 제5칸 북쪽 주춧돌과 남쪽 주춧돌이 나란히 놓이지 않고 남쪽 주춧돌이 건물지 안쪽으로 들어와 설치되어 있다. 대신에 북쪽 주춧돌의 남쪽에 직각방향으로 320cm 간격을 두어 주춧돌이 놓여있다. 이는 제3칸이 중심기둥이 되고, 제1칸 맨우측 주춧돌과 제5칸 북쪽 주춧돌이 건물지 모서리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북쪽 기단석렬의 잔존부분과 주춧돌간의 간격이 1m이내이므로, 결국 이 건물의 동서길이는 20m이내인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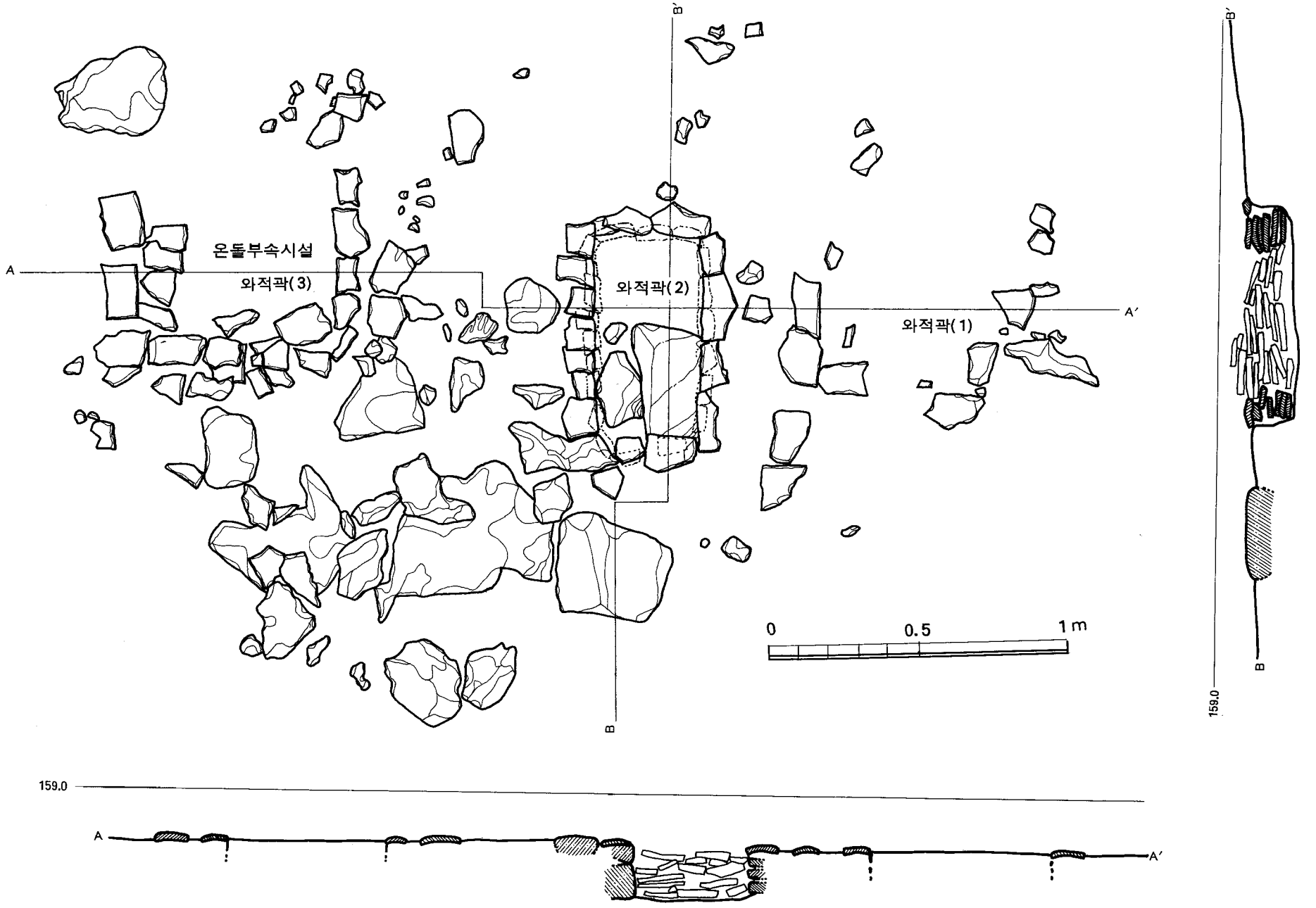
주춧돌은 모두 心礎石위에 놓여있는데 심초석은 기와와 작은 할석 무더기로 이루어졌다. 제5칸 남쪽 안산암 주춧돌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형 현무암 주춧돌이다. 맨동쪽 1칸 남쪽 주춧돌은 군숙영지 적석시설로 인해 없어졌음을 조사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3) 내부 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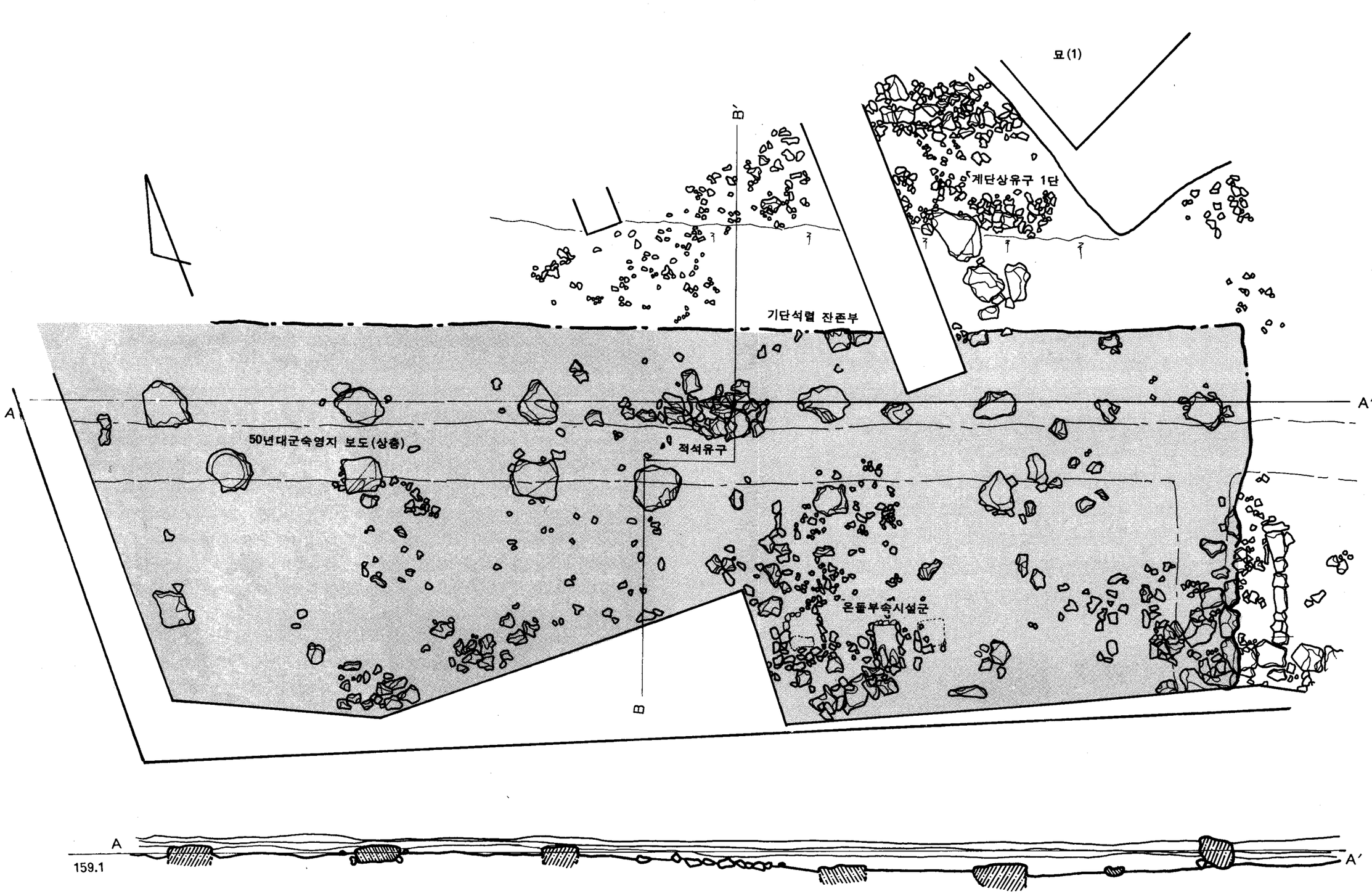
건물지내부 시설로 온돌부속시설과 장방형 적석시설이 확인되었다.

① 온돌부속시설 (도면 11, 도판 10-②, ③)

이 온돌부속시설은 건물지 남쪽성토층에 시설되어 있다. 남북장축의 장방형 테두리를 기와로 쌓아서 槨을 만들었다. 槨의 크기는 長軸이 82cm, 短軸 37cm, 깊이 27cm이다. 槨은 건물지 성토면을 파고 들어가 시설하였는데, 기와편을 사용하여 7단이상 쌓아 벽면을 축조하였다. 곽의 바닥시설은 남



도면 11 A지구 c건물지 내부 瓦積 온돌부속시설



도면 11 A지구 C건물지 실측도

0 1 2m

쪽에 치우쳐 판석쪽 2매를 깔아 놓았으며 내부에서는 붉은 흙이 나왔다. 현재 건물지 내부에 노출된 이와 같은 시설은 최소 4개 이상이다.

② 장방형 적석시설(도면 11, 도판 11-③)

앞서 기술한 제3칸 주춧돌 사이에서 확인되었다. 할석을 사용하여 장방형으로 적석한 이 시설물의 크기는 동서장축 160cm, 남북단축 75cm이다. 이 시설물은 툇마루 기둥간에 만들어진 시설물로 판단된다.

라. 계단상 유구 (도면 13, 도판 12)

c건물지 기단선과 동일한 방향으로 축조되어 있으며, 건물지 기단석렬에서 북쪽으로 3.4m 떨어져 있다. 계단석렬은 현재 서쪽 밭과 동쪽 무덤으로 인해 완전 노출이 안된 상태이다.

1단석렬(도판 13-①)은 길이 16.4m가 노출되어 있고, 2단 석렬과의 거리간격은 1.82m이다. 석렬의 축조상태를 보면 생토암반을 "ㄴ"자형으로 파고, 파낸 면에 직각으로 길이 15-25cm 크기의 돌을 동서열로 짜맞춰 놓았다. 석렬윗면과 같은 높이로 기와와 자잘한 잡석을 동일 높이로 깔아 놓았다. 석렬밑으로는 기와와 도자기가 무더기로 경사져 흩어져 있는데, 석렬윗면에서 내려온 것으로 파악된다. 1단 석렬윗면은 흑갈색부식토와 섞인 기와층이 10cm정도 두께로 덮혀 있었고, 막바로 생토암반층과 연결되나 석렬 앞부분은 부식토층이 30cm이상 된다. 1단 석렬 중간 지점에 한해 테스트핏트조사를 실시한 결과, 생토암반층위에 크고 작은 할석을 폭 50cm이상 적석하여 단을 만들었음을 확인하였다(도판 13-②).

2단석렬은 밑의 단보다 축조상태가 양호하지 못하다. 현재 남아있는 기단석렬은 동에서부터 8.66m가 남아 있다. 석렬 상단은 바로 생토층과 연결된다. 윗면의 고르기도 수평을 유지못하고 10도 이상의 경사를 보인다. 석렬의 서쪽에 장방형의 주춧돌 1기가 맞물려 놓여 있다. 제3단 석렬은 산담 모퉁이에 1m정도를 제외하고 완전 파괴되었다. 3단의 다른 부분은 생토를 파서 석렬을 배치했던 堀壙線이 확인되었다.

3단 석렬도 거의 파괴되었다. 남아있는 부위의 축조상태를 보면 생토암반층을 파서 석렬을 맞춰 끼워 놓고 그 위에 할석 3매를 이용하여 수평으로 만들었다. 석렬계단의 폭은 80cm이다.

4단, 5단은 석렬부근이 완전히 파괴되어 그 축조상태를 기술할 수는 없으나 생토암반층을 파내어 시설했던 堀壙線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방향은 앞서 계단석렬 방향과 동일하며 굴광선간의 간격은 1.6m-1.82m이다. 6단은 5단과의 거리간격이 3.06m이다. 이 부위는 맨 북쪽에 해당하는 마지막 계단석렬로 모두 자그마한 잡석으로 되어 있었다. 계단석렬 서쪽에 치우쳐 적석군이 형성되었는데(도판 13-③), 이 적석군으로 인하여 계단석렬 일부가 파괴 되었다. 적석부에서 타원형 주춧돌 1기가 확인되었고 적석군 하단에서 조선전기 기와보도가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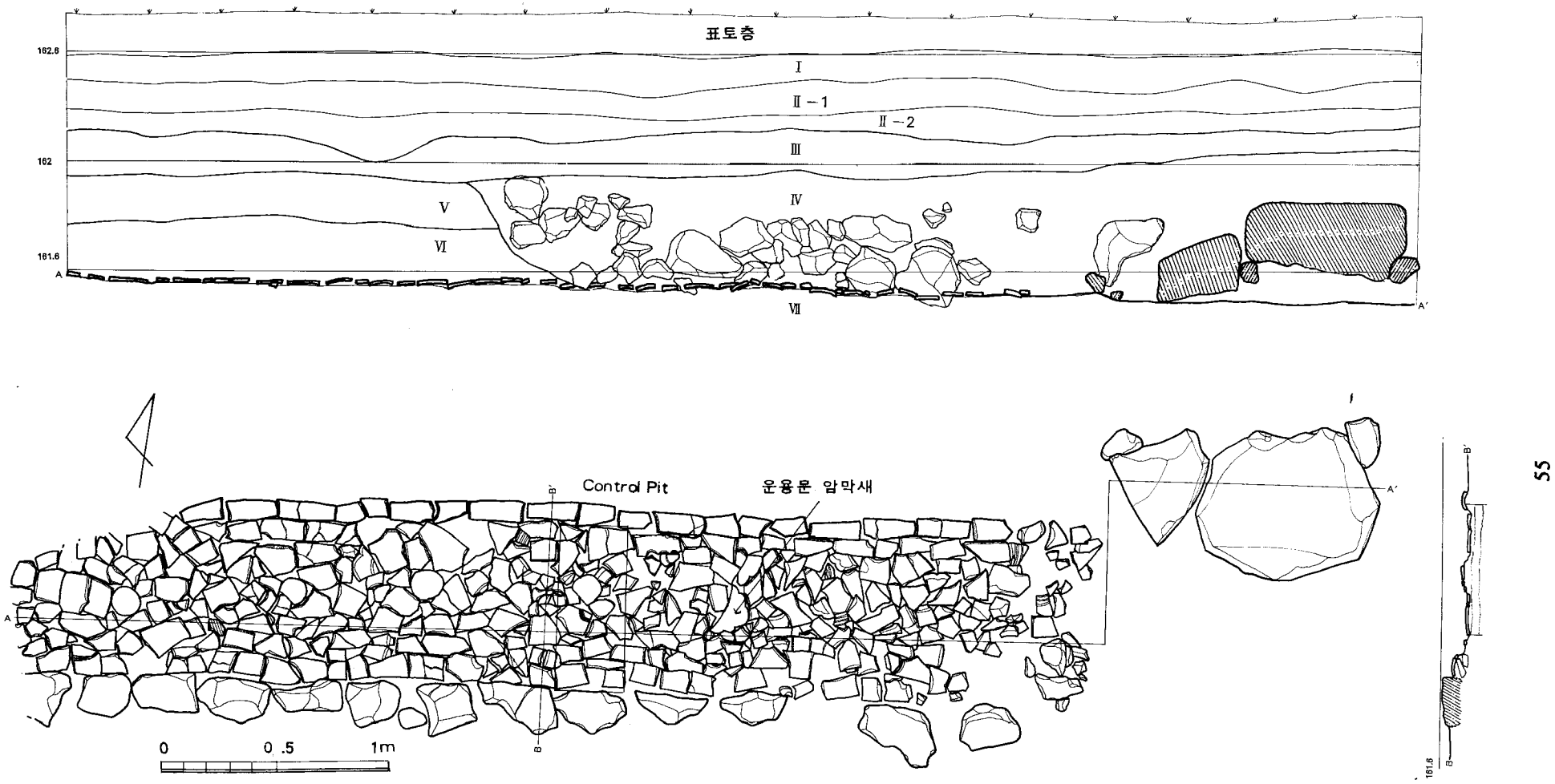
제1단, 2단, 3단은 현재 기와편이 깔려있어 확인할 수 없었으나 제4단에서 6단까지의 생토면에서 크고 작은 원형 굴광선이 확인되었다. 이는 아마도 화초나 채소등을 심었던 부분일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미루어 이 계단시설물은 사람이 왕래를 위한 계단이라기 보다 경사져 내려가는 당시 구지표에 각단을 두어 사찰에 필요한 화초나 채소를 심었던 장소로 추정된다.

마. 계단상 유구 북쪽 기와보도(도면 14, 도판 16, 17, 18)

계단상 유구 북서쪽에서 확인되었다. b건물지 북쪽 기와보도와 동일한 방향으로 축조되어 있다. 현재 노출된 보도의 규모는 길이 9.4m, 폭 1.6m로 확인되었다. 보도의 경계석렬 축조방법에 있어,



도면 13 A지구 階段狀 遺構 실측도



도면 14 A지구 階段狀 遺構 서북쪽 기와보도 실측도

북쪽 경계는 숫기와를 일렬로 깔아 사용하였고 남쪽은 할석을 사용하여 축조하였다.

보도의 내부를 보면 생토암반층 위로 자갈, 소토, 황갈색 점토를 다져 놓았고(도면 14의 B-B′ 단면, 도판 17-③), 그위로 평기와와 막새기와를 한단으로 겹쳐 공간없이 수평으로 깔아놓았다.

특징적인 것은 운봉문숫막새, 운용문암막새를 일정한 간격을 두어 배치했다는 점이다.(도판 17-①) 현재 기와보도에는 운봉문숫막새 4점과 운용문암막새 2점이 노출되어 있다.(도판 18-③, 30) 깔린 막새의 간격은 65-72cm이다. 보도의 동쪽은 후대의 경작으로 인해 유실된 것으로 보이며 서쪽은 서쪽밭(하원동 1046번지)으로 이어지고 있어 차후 조사에 의해 기와보도의 전체가 밝혀질 것이다.

바. 담장지(도면 15-①, ② 도판 19-①,②)

1) 북쪽 담장지 (도면 15-①, 도판 19-②)

1950년대 군숙영지 자갈보도 북쪽으로 4.5m 떨어져 확인되었다. 방향은 건물지 방향과 동일하고, 길이 14.7m가 확인되었다. 이 담장지는 크고 작은 자연 할석을 이용하여 하단부를 구축한 후에 할석을 외벽선에 맞게 끼워 올려 축조하였다. 밭경계 담장지처럼 하부 담장석렬만을 뚜렷하게 축조한 후 상단을 잡석으로 채워 올려 축조한 것이다. 잡석 내부에는 할석이외에 기와편, 자기편이 확인된다. 담장지 중간 부분에 원형 기와구덩이와 주춧돌이 있으며, 남쪽 담장 벽과 같은 방향으로 B건물지의 배수로가 지나간다.

2) 동쪽 담장지 (도면 15-②, 도판 19-①)

1950년대 군숙영지 자갈보도 동쪽끝에서 0. 8m 떨어져 확인되었다. 남북방향으로, 길이 7.3m, 폭 0.7m가 확인되었다. 이 담장지도 생토암반층위에 자연석을 이용하여 축조하였으며, 앞서 북쪽 담장지와 직각으로 맞물려 있다. 담장지의 남쪽은 墓와 경작으로 인해 없어진 상태이다.

사. 기타유구

1) 기와매립구덩이(도면 16, 도판 19-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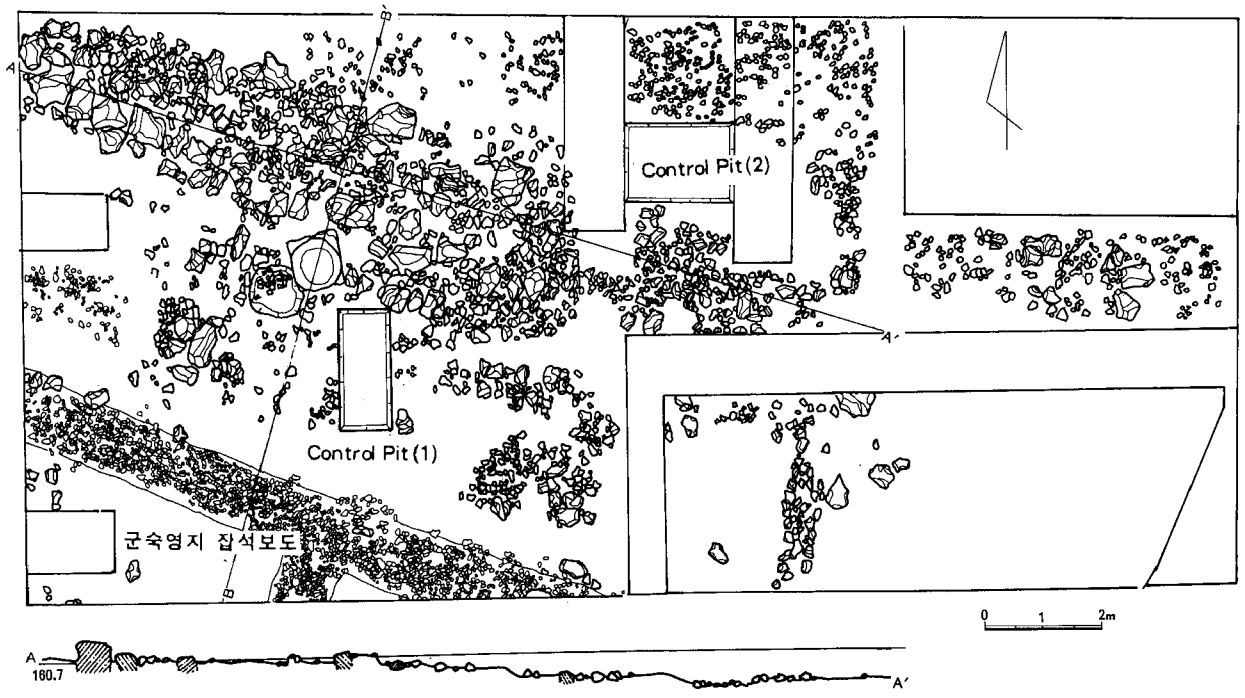
b건물지 북쪽 담장지 중앙부에 있는 주춧돌 옆에서 확인되었다. 현재 노출된 구덩이의 지름은 1m, 깊이 25-27cm이며 구덩이 내부에는 기와로 메워져 있었다. 흑갈색 부식토를 파고 들어가 기와를 매립하고, 그밑으로 명갈색 점토층이 연결되고 있다. 구덩이는 b건물지의 배수로를 파괴하고 시설되어 있다. 담장지 서북쪽에도 이와 같은 구덩이가 보이고 있으나 교란이 심하다.

2) 군숙영지 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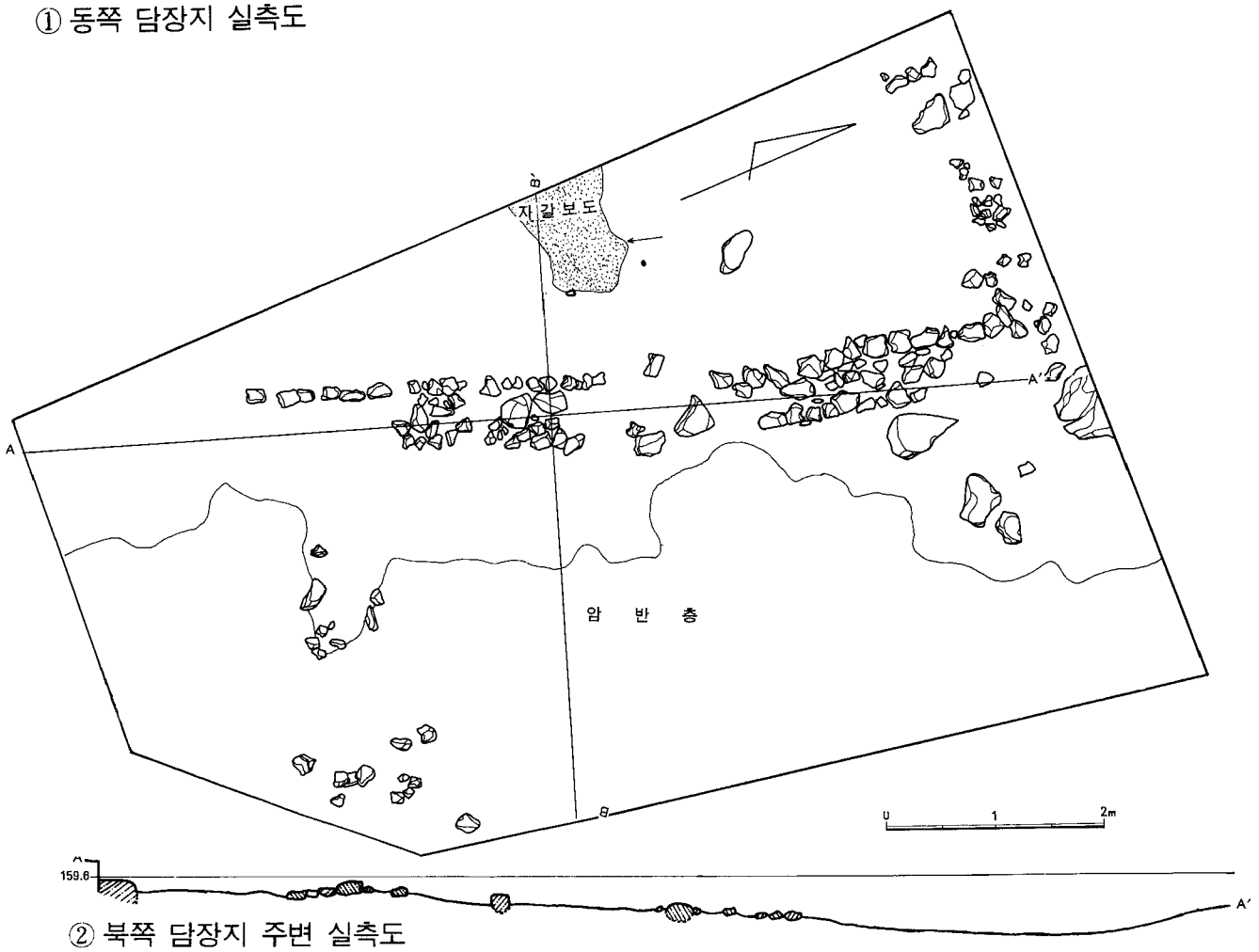
① b건물지 상층 보도(도면 11)

이 보도는 c건물지 주춧돌 노출과정에서 확인되었다. c건물지의 주춧돌列 상층에서 주춧돌열 방향과 동일한 방향으로 시설되어 있었다. 노출된 보도는 길이 17m, 폭 1m이었다. 보도의 구성물은 흑갈색점토와 잔자갈, 기와부스러기등이 함께 다져져 있었다. 그 아래로 c건물지 내부성토층이 연결된다. 이 보도는 a건물지와 b건물지 중첩부분에서 직각으로 꺾여 남쪽으로 연결되면서, a건물지 서쪽 내부로 이어지고 있었다. 보도층에서 확인되는 유물중 탄피와 軍衣 단추가 있다.

② 잡석 보도 (도면 17, 도판 14,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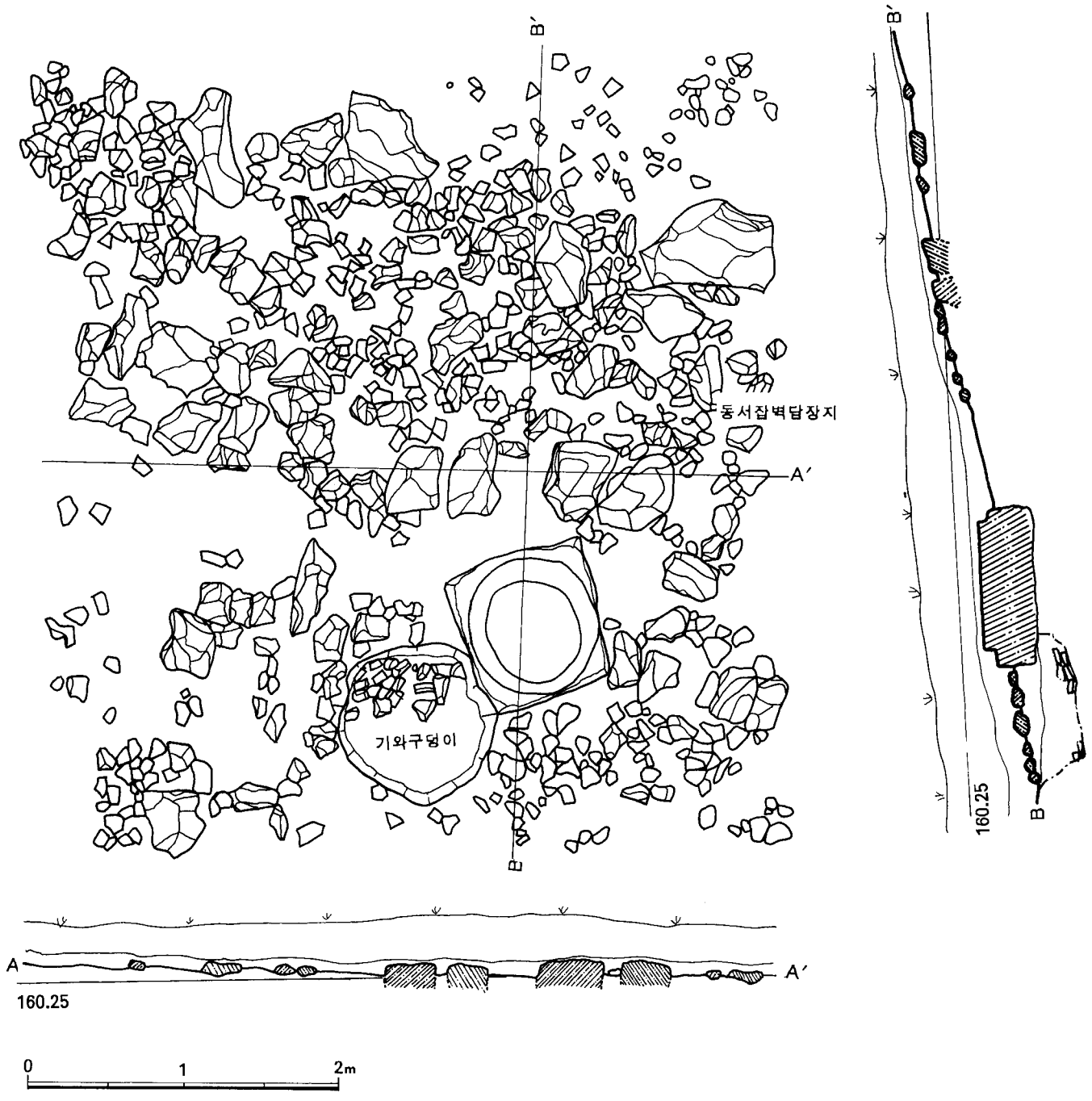


① 동쪽 담장지 실측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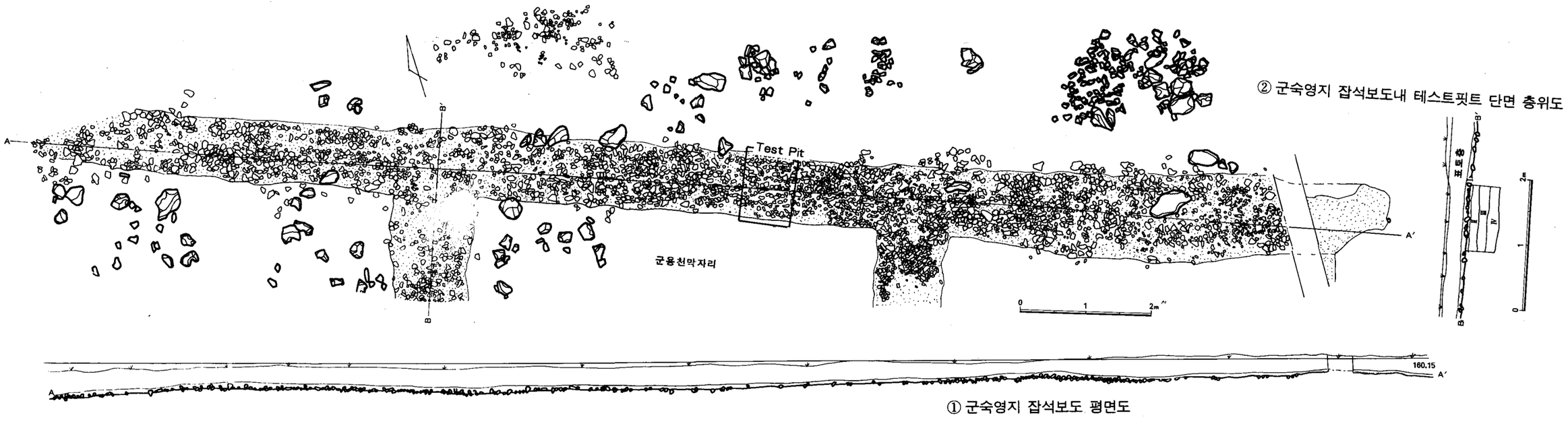


② 북쪽 담장지 주변 실측도

도면 15 A지구 담장지 실측도



도면 16 A지구 북쪽 담장지 주변 실측도



② 군숙영지 잡석보도내 테스트핏트 단면 층위도

① 군숙영지 잡석보도 평면도

도면 17 A지구 군숙영지 잡석보도 실측도

담장지와 a건물지의 중간부분에서 확인되었다. 방향도 담장지와 동일하다. b건물지 내부 성토층을 파괴하고 들어가 만들어졌다. 현재 노출된 보도의 규모는 길이 20.7m, 폭 1m로 확인되었으며, 보도의 구성물은 잔자갈과 모래등으로 이루어졌다. 특징적인 것은 5.9m 간격으로 동서보도에서 직각으로 꺾여 내려가는 또다른 보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예는 앞서 서술한 c건물지상층보도와 B지구 3구역내 군숙영지 보도에서도 나타났다. 보도의 소속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보도의 중간에 테스트 핏트 조사를 실시한 결과(도면 19, 도판 15-③), 자갈보도층이 5-7㎝의 두께로 나타났고 유리와 탄피를 포함하고 있었다. 보도 아래층은 황갈색 자갈층으로 기와와 소량의 소토를 포함하는 사찰시기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따라서 1950년대 당시에 군숙영 야전막사를 설치하여 막사사이에 군인들이 왕래를 용이하게 하고, 우천시 물고임이 없게 하기위해 자갈을 깔아 시설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제 2 절 B지구 조사

이 지구는 크게 6개의 구역으로 나누어진다. 1992년도 발굴한 추정금당지를 1구역, 서쪽을 2구역, 북쪽을 3구역으로 구분하고 발굴하였다. 또한 금당지 남쪽 경내를 4구역으로하여, 남북과 동서의 십자 트렌치를 구획 층위확인조사를 하였다. 1071번지 서쪽 현재 요사채 남쪽 5구역, 동쪽 요사채쪽을 6구역으로 정하여 트렌치 조사를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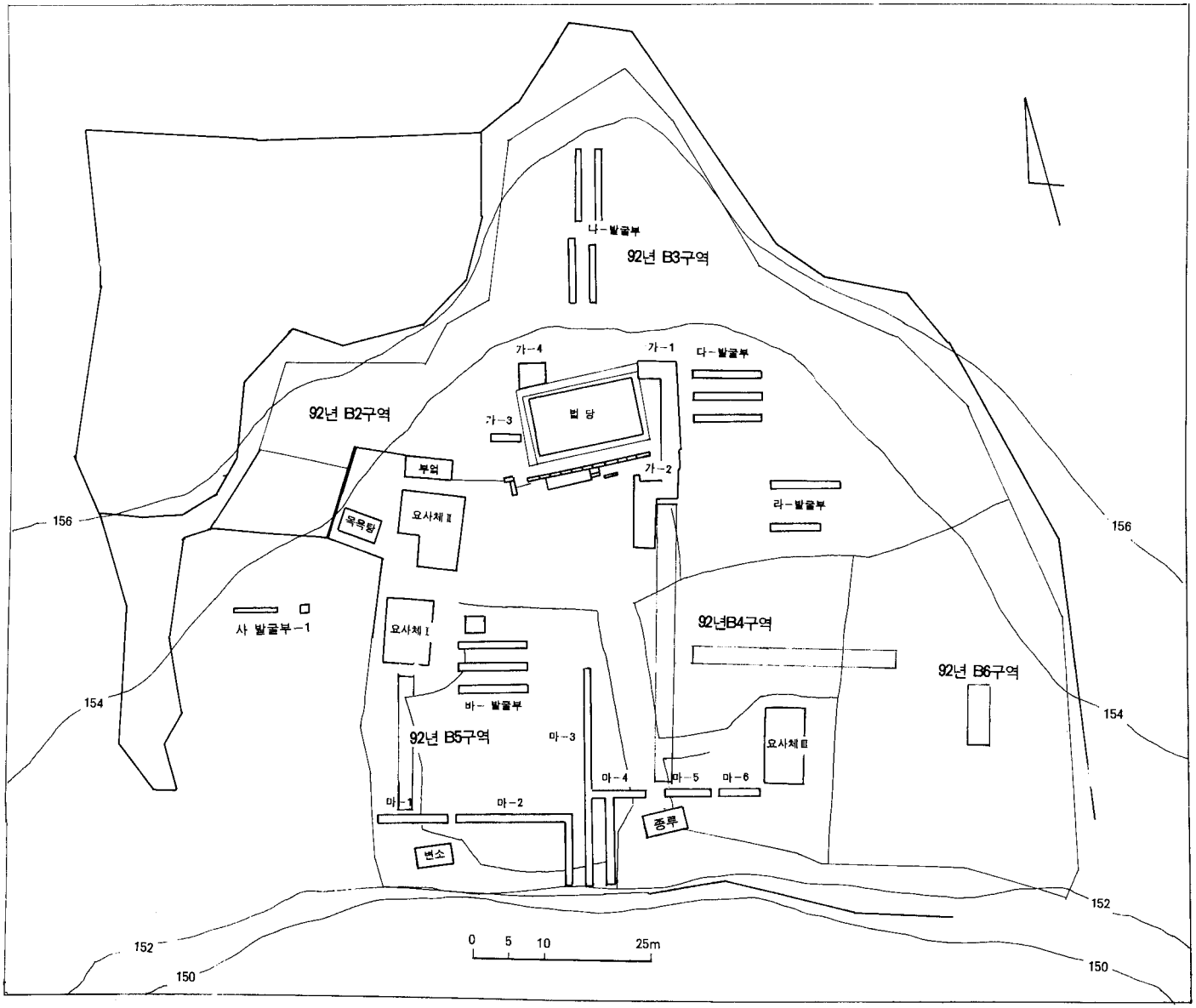
1. B지구 1982년 조사

가. 발굴전 현상

1982년도 명지대박물관에서 1차 발굴할 당시에는 작은 마당이 있었고 주변에는 밀감과수원이 조성되어 있었다(삽도 1). 1987년도에 1960년대에 만들어진 스레이트지붕의 소규모 대웅전을 헐고 현 대웅전을 복원할 당시, 1071번지 북쪽과 서쪽 일부를 제외한 부분의 귤나무가 제거되고 경내 대웅전 남쪽에 정지작업이 이루어졌다. 대웅전 남쪽과 서쪽은 비교적 가파른 경사면을 이룬 밀감 과수원이 조성되어 있었다.



삽도 1 1982년 발굴전 법화사 유적



도면 18 법화사지 B지구 발굴구획도

나. 발굴방법

1) 1982년 발굴에서는 5군데의 發掘部로 나누어 폭 1m의 트렌치를 구획 조사하였고, 건물지 유구가 나타난 "가"발굴부(삽도1참조)에 대해서는 확장 발굴을 실시하였다.(도면18,19)

2) 트렌치구획 발굴은 귤나무와 밭경계축담의 제한을 받아 일정한 방향으로 구획하지 못하고, 각 發掘구역 사정에 따라 방향을 설정, 트렌치를 구획하여 발굴하였다.

3) 1987년 구대웅전 철거 자리는 전면지상 노출방법으로 약식발굴조사를 하였다.(도면 19, 삽도 3)

다. 층위 (도면 19의 A-A단면)

층위는 동쪽 기단부에 구획된 트렌치에서 확인되었다. 전 층위는 5개의 층위로 1층은 흑색부식토층, 2층은 무수한 할석편과 기와, 전돌편이 다수 포함된 층이며 그 아래 3층은 기와, 전돌편이 다수 포함된 층, 4층은 구지표층이다. 그 밑으로 석비레층(생토암반층)이 연결된다. 제2층과 3층은 각각 할석편, 기와편 위주로써 서로 구분된다. 제2층의 높이는 건물 기단부 지대석위에 면석과 갑석을 복원한 높이와 같아 이러한 할석편이 건물지의 최종 성토면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건물지의 주춧돌 외곽면은 할석편으로 깔았을 가능성이 짙다. 한편 1987년 약식발굴에 의해서 확인된 건물지 내부층위는 표토교란층 아래로 막바로 생토암반층이 연결되는 단순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

층 위	깊 이 (cm)	색 깔	층 위 내 용
표토층	0-36	흑 색	유기물 부식 표토층
Ⅰ	36-83	흑갈색	할석편 위주의 매립토층
Ⅱ	84-116	암갈색	기와편 위주의 매립토층
Ⅲ	116	명갈색	점토 암반층

라. 유 구 (도면 19, 삽도 1, 2, 3,)

1) 金堂 推定 건물지(B-1구역 건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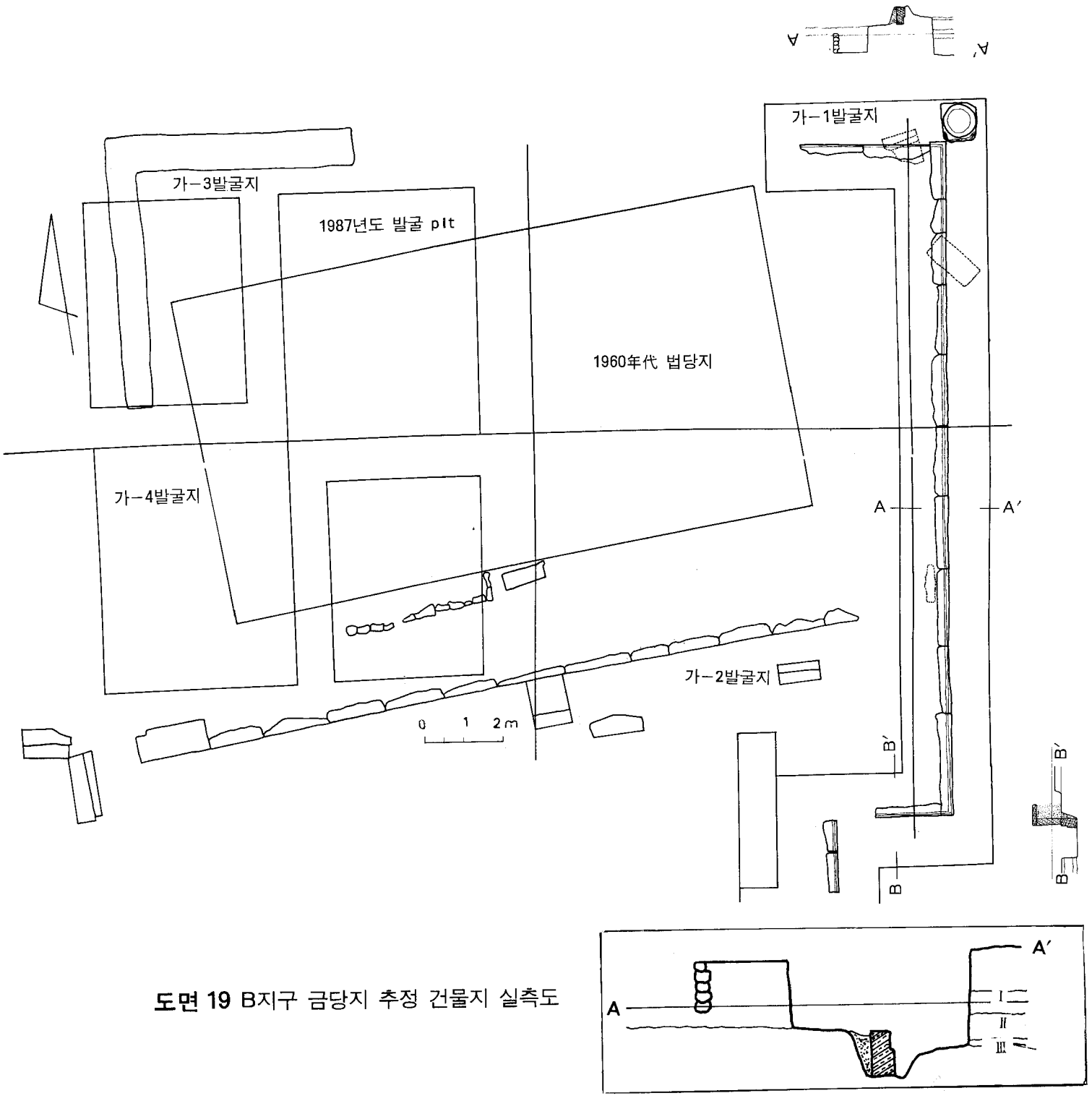
① 기단부의 축조

기단부는 남, 북모서리와 동쪽부분이 남아 있다. 동쪽 기단부는 모두 10매로 이루어져 있고, 길이는 16.4m이다. 동쪽기단부는 북, 남쪽모서리에서 완전히 직각으로 꺾여 만난다. 남쪽의 남아있는 지대석은 1매로 그 길이가 1.8m이다. 북쪽의 남아있는 지대석은 2매로 길이가 3.2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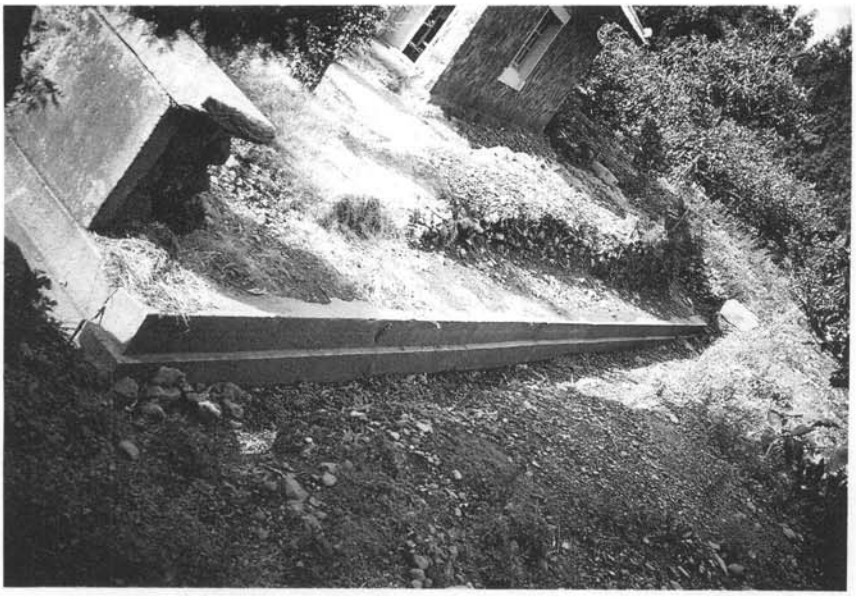
기단지의 지대석은 모두 면석이 걸칠 수 있도록 평균 폭 50mm, 높이 5mm의 턱이 돌출되어 있지만 계단지에 쓰여진 지대석 2기는 걸침턱이 없고 단지 그 위치에 오목줄을 파 경계만 구별하고 있을 뿐이다.

제자리에 놓인 면석과 갑석은 하나도 출토된 것이 없고, 단지 북동 모퉁이와 건물지 동쪽변에서 출토된 면석과 갑석이 이 기단 구성에 사용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 건물의 기단부 축조와 성토는 생토암반층을 파서 기단부 하단인 지대석을 놓고 그위에 면석과 갑석을 올려 건물지면을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삽도 2)



도면 19 B지구 금당지 추정 건물지 실측도



삽도 2 1982년 발굴 추정금당지 동남쪽 기단부 복원 상태

② 성토와 건물지 윗면

기단 안의 석비레층 높이는 대략 지대석 윗면과 일치하며 면석이 세워지는 부분은 치석 후 남은 조각들로 흙과 함께 다져서 성토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건물 북쪽 뒷면의 기단부는 석비레층과는 동일 높이로 연결되면서 정면은 기단부 일부가 지면에 묻히지만 면석과 갑석이 올라가 시설됨으로서 지면보다 1m이상 기단부가 높이 형성되었다.

③ 규　　모

남아있는 이중 지대석 13매로 확인되는 건물지 동북, 남동의 기단부 모서리와 동벽기단부 그리고 서북에서 확인된 생토암반층을 파들어가 지대석을 설치했던 지점을 미루어 살펴 볼 때, 건물지 기단의 규모는 가로 21m, 세로 16m, 면적 348㎡(105평)가 나온다. 건물지의 방향은 N11°E이다. 기단 시설 내부의 조사에서 주춧돌 혹은 적심석은 확인되지 않았다.



삽도 3 1987년 추정금당지 노출상태

2. B지구 1992년 조사

1992년의 B지구 발굴조사에서는 2구역에서 사찰과 관련된 계단상유구 1개소와 매립유구를 확인했고 5구역에서 적석매립유구 일부를 확인했을 뿐이다. 다른 구역은 토층조사와 사찰과 관련없는 시기의 유구를 확인하는 데 그쳤다.

가. 발굴전 현상

1987년에 현 대웅전이 복원될 당시, 법화사 입구로부터 대웅전 마당의 모든 나무를 제거하고 지면을 고르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현재는 1983년 발굴조사에 의해 확인된 金堂推定 건물지에 대웅전이 복원되고 대웅전 동편으로 남순당 건물과 화장실, 목욕탕 등의 요사채가 현대식으로 지어졌다. 대웅전 마당 남쪽의 종루에서 서쪽 20m지점에는 대웅전 복원시 사용했던 나무절단용 기기가 시설된 길이 4m,깊이 2.5m의 사각형 구덩이에 있다. 서쪽 주변에는 높이 3m이상의 흙무더기가 남아있고 대웅전 마당의 서남쪽은 물을 빼기위한 웅덩이와 야채등의 경작장소로 쓰여지고 있다. 대웅전 서쪽은 식수용 물탱크가 높이 4m의 철탑위에 시설되어 있고 그 옆으로 과수원이 조성되어 있었다. 대웅전 북쪽은 북고남저의 경사면을 이루면서 12-13년생 귤나무가 밀집되어 있었다.

나. 발굴 방법(도면 3, 18, 19, 21, 22, 23, 24, 도판 21, 24, 26, 28)

1) 1992년 동 지구에 대한 전체적인 발굴조사 1982년도 발굴지점인 1구역을 제외하고, 조사대상지를 5개 구역으로 세분하여, 폭2m 혹은 4m의 트렌치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트렌치 발굴을 통해 유구가 발견된 부분은 전면 확장 발굴을 실시하며, 발굴 구역중 퇴적층이 형성된 부분에 한해 테스트핏트 조사를 병행하였다.

2) 2구역은 50cm의 남북 중심둑을 기준선으로 하여 동서로 4m 폭의 트렌치를 넣어 발굴하였다. 유구가 노출되어 남북중심둑만을 남기고 전면발굴을 실시하였다.(도면 3, 도판 21)

3) 3구역은 50cm의 동서 중심둑을 두어 남북으로 4m폭의 트렌치를 구획, 발굴하였다. 보도가 노출되어 동서 중심둑과 일부 필요한 둑을 남기고 전면 발굴을 실시하였다. 토층확인을 위한 1개의 테스트핏트 조사를 실시하였다. (도면 3, 도판 24)

4) 4구역은 1982년도에 발굴했던 현 금당지 동쪽 모퉁이를 기준으로 하여 폭 2m, 길이 23m의 남북 트렌치와 남북트렌치 중간 지점에서 동쪽으로 폭 2m, 길이 10m의 동서 트렌치를 구획하고, 금당지 추정건물지와 관련된 유구 및 기타 시설물과 문화층 형성 여부를 조사하였다.(도면 18, 도판 26)

5) 5구역은 1982년도에 발굴했던 "마"발굴부이며 조사당시 적석매립유구가 확인되어 이 부위에 대한 전면 발굴이 필요하다고 지적되었던 지점이다. 요사채 남쪽에 폭 2m, 길이 14m의 트렌치를 N30° W방향으로 구획, 발굴하였다.(도면18, 도판 28-①)

6) 6구역에서는 현 법화사 화장실과 목욕탕 사이에 폭 2m, 길이 6m의 트렌치 조사를 실시하였다. (도면 18, 도판 28-④)

다. 층 위

1) B-2구역 계단지 동쪽 부분(도면 21, 도판 23-①)

층 위	깊이(cm)	색 깔	층 위 내 용
표토층	0-22	흑갈색	경작 표토층으로 귤나무·채소를 경작한 층.
Ⅰ	22-34	암갈색	부식토층
Ⅱ	34-44	암갈색	매립토층. 크고 작은 할석과 괴석등이 적석된 점토층이며 하단은 보다 점성이 무름.
Ⅲ	44-57	명갈색	기와, 소토가 소량 함유된 문화층으로 밑으로 생토암반층이 연결됨. 金堂推定건물지 기단 축조층위와 연결되는 시기의 층. (사찰과 관련된 고려후기 구지표층)

2) B-3구역 군숙영지 보도내 TEST PIT 층위(도면 22, 도판 25-②,④)

층 위	깊이(cm)	색 깔	층 위 내 용
표토층	25-30	흑갈색	경작 표토층. 귤나무가 조성되었던 층. (1950년대 이후 퇴적층)
Ⅰ	27-35	암갈색	다진층. 1951년도 군숙영지 당시 지표층. 잔자갈과 모래등이 섞여 굳게 다져진 층.
Ⅱ	35-42	흑갈색	잡석층. 부식토층이며 구역내 부분적으로 나타남. 인위적인 매립층으로 여겨짐.
Ⅲ	47-52	명갈색	적석매립층. 점성이 매우 부드러우며 습기가 배어 있는 층. 잡석이 무질서하게 매립되어 있음. 생토암반층이 바로 연결됨.

3) B-4구역 금당 추정건물지 남쪽 층위(도면 23, 도판 27)

층 위	깊이(cm)	색 깔	층 위 내 용
표토층	0-31	흑 색	현대매립토층. 87년이후 대웅전마당 정리작업시 최상층에 해당하는 지표층. 단단하게 다져진 층이며 현대유물이 포함됨.
Ⅰ	31-72	흑 색	매립층(1). 대웅전 복원시 주변의 할석편, 기와, 전돌등을 섞어 매립한 토층으로, 대웅전 마당정리시 매립하여 다진층.
Ⅱ	72-102	흑갈색	매립층(2). 金堂推定건물지 층위중 1층에 해당하는 층위와 동일 높이임. 할석이 약간 섞인 층.
Ⅲ	102-187	황갈색	잡석포함점토층으로 金堂推定건물지와 관련있는 단단한 점성의 구지표층. 이 층 밑으로 생토층이 연결됨

4) B- 5구역 현 요사체 남쪽 트렌치 층위(도면 24, 도판 28-①, ②, ③)

층 위	깊 이 (cm)	색 깔	층 위 내 용
표토층	0-12	흑 색	현대매립층. 대웅전 신축시 매립한 토층.
Ⅰ-1	12-15	흑 색	점토층. 소수의 기와편이 함유되어 있고 흙이 단단함. (교란된 현대토층)
Ⅱ-2	15-18	흑 색	일시에 부어 형성된 재층, 일부분에 한해 나타남. (두께 2cm내외의 간층)
Ⅲ	18-33	흑갈색	부식토층. 적석매립층. (사찰관련 문화층) 매립층 밑으로 생토층이 연결됨

5) B-6구역 테스트핏트 층위(도면 25, 도판 28-4)

층 위	깊 이 (cm)	색 깔	층 위 내 용
표토층	0-42	흑 색	부식토층으로 퇴적층위.
생토층	42-	황 색	생토암반층. 암반면 상태 고르지 못함.

라. 유 구

1) 계단상 유구(도면 20, 도판 21, 22, 23)

B지구 2구역에서 확인되었으며, 金堂推定건물지 서쪽 30m지점에 위치한다. 계단 석렬은 2단만이 발견되었고, 첫단은 길이 5.2m가 노출되어 있다. 크고 작은 할석과 괴석을 이용하여 계단을 만들었으며, 현재 높이는 35cm이다. 서쪽부분의 계단축조석렬이 동쪽보다 잘 맞춰져 있다. 동쪽석렬 부분에는 불규칙한 대형 암반이 돌출되어 있다. 이 암반 부분에서 동서석렬이 북으로 꺾여 올라간다. 꺾여 올라가는 부분이 동쪽 계단 측면으로 생각된다. 또한 서쪽 석렬 끝부분은 A구역 a건물지 동쪽 기와보도와 연결된다. 계단지 2단은 일부만이 남아 있다. 1단 턱 중간 부분에서 85cm 북으로 4개의 괴석이 동서로 놓여 있어, 계단지간의 간격은 80cm로 여겨진다. 계단지 밑으로 얇은 할석과 기와가 밀집되어 놓여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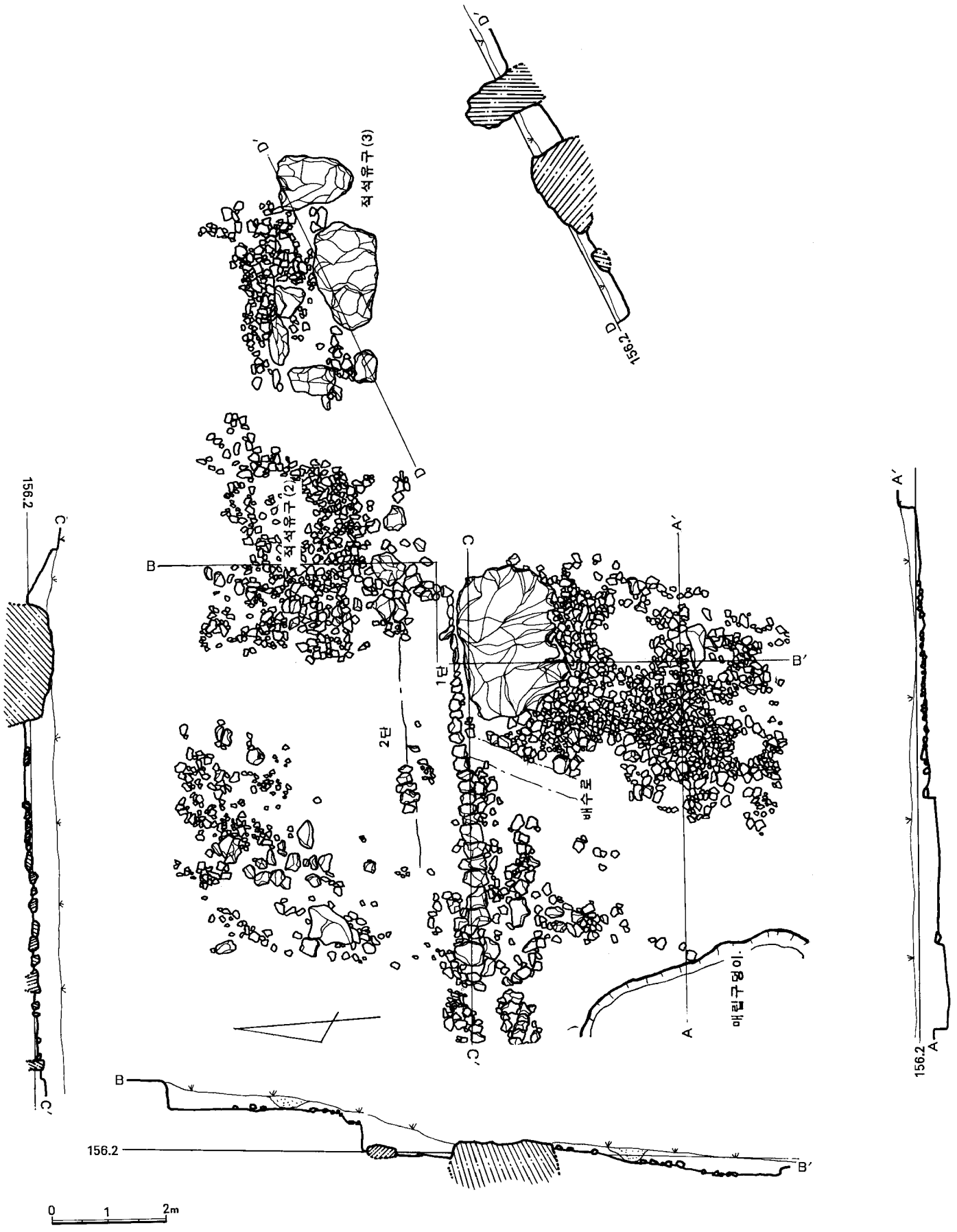
대형 암반 돌출부분 남쪽으로 자잘한 괴석무더기가 형성되어 있다. 이 괴석들은 흑갈색부식토층 내에 적석되어 있다. 계단지는 이 흑갈색 부식토층밑인 생토암반층 위에 형성되어 있어, 적석군과 계단지와는 시기적인 차이를 보인다. 대형암반 북쪽으로 또다른 적석군이 형성되어 있다. 계단지 북쪽으로 기와를 지면에 평평하게 깐 유구가 나타났다.

2) 1951년도 군숙영지 시설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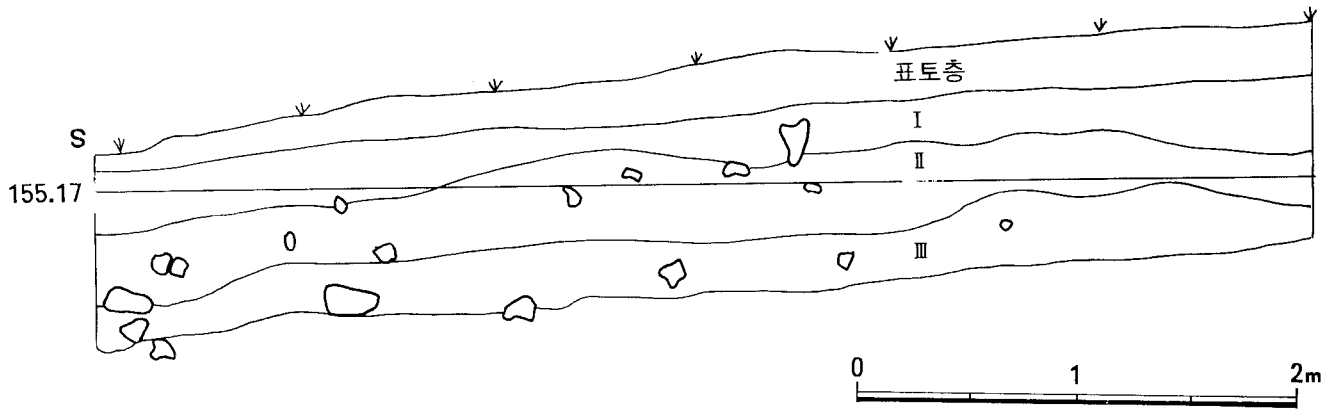
① 계단지(도면 22, 도판 23-②)

金堂推定건물지 서북쪽으로 5m지점에 위치한다. 경사진 생토 암반위에 만들어진 유구이다. 맨 밑단은 "ㄷ"자 형으로 생토를 굴착하여 깬돌을 직각면에 맞춰 세웠으며, 그 상단으로 잡석이 적석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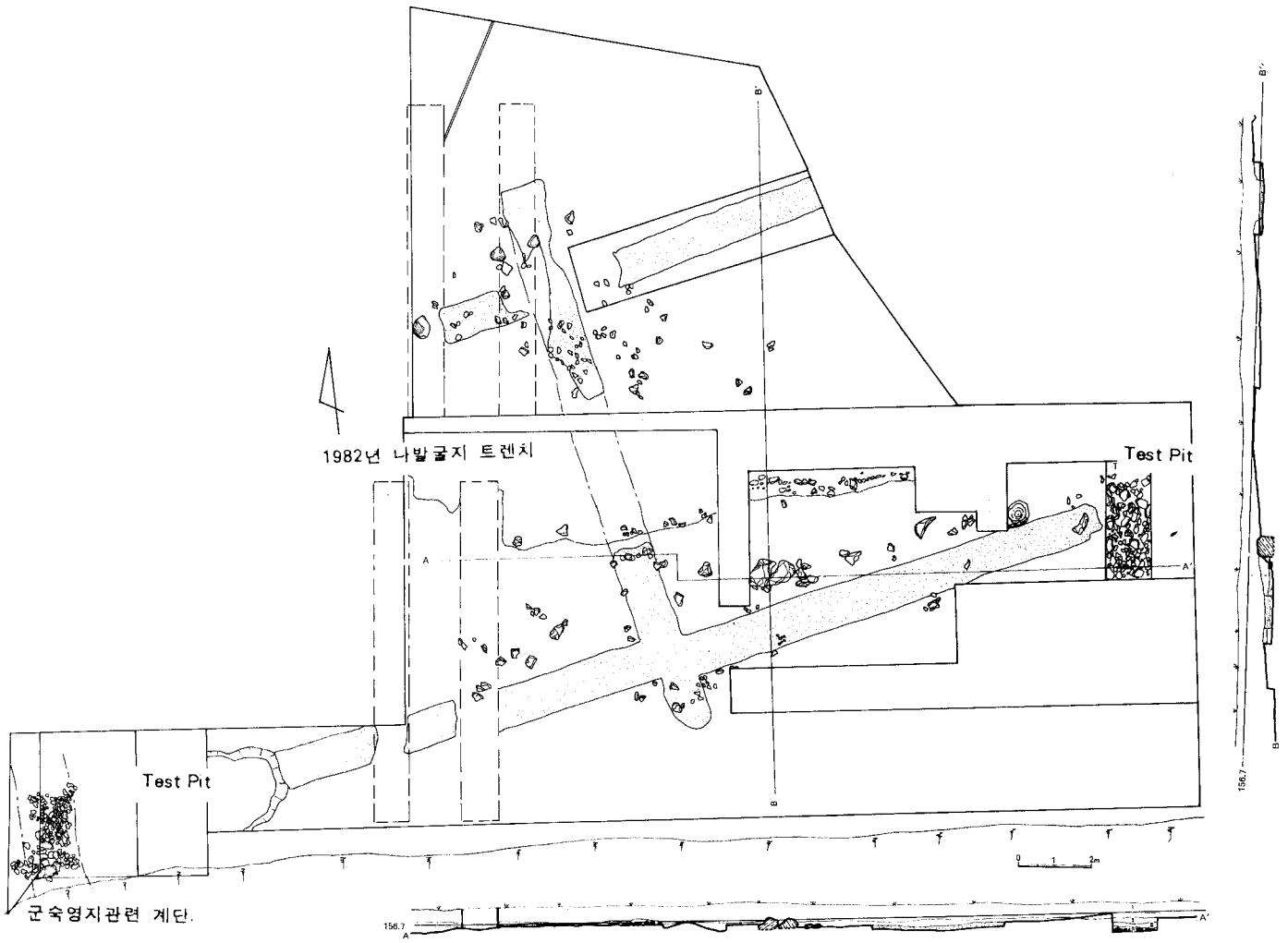
이 적석 아래로 일정하게 축조된 석렬이 나타났다. 현재 노출된 계단은 3단이고 계단간격은 35cm, 각단의 폭은 110-205cm이다. 계단지의 북쪽은 최근 수도관에 의해 파괴되었다. 계단지 석렬 옆으로 흑갈색 다진 층이 부분적으로 확인되고, 맨 상단의 적석층에서도 동일한 다진층이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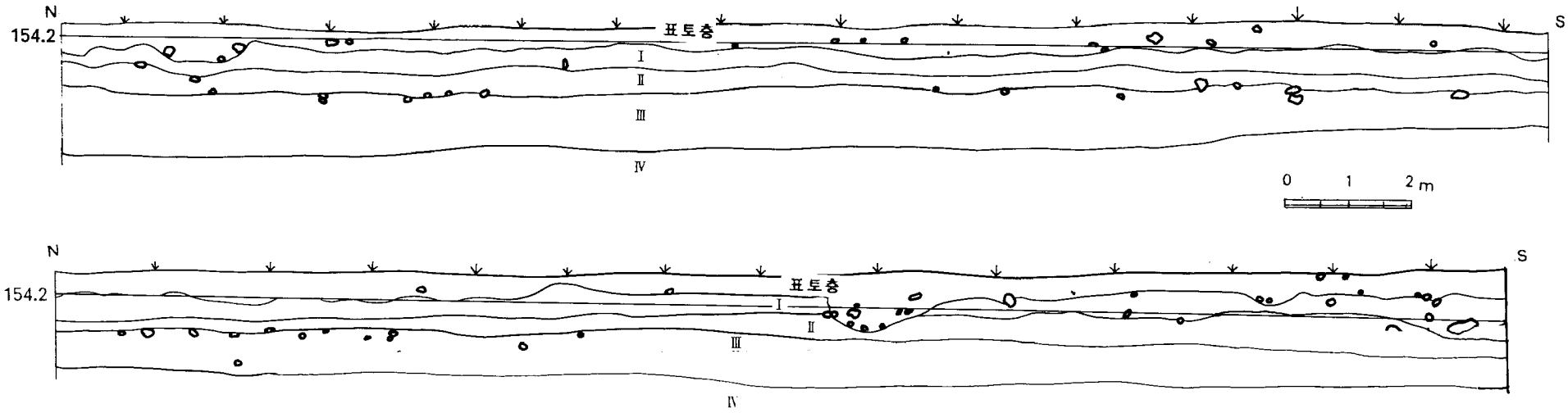
도면 20 B지구 2구역 階段狀 遺構 주변 실측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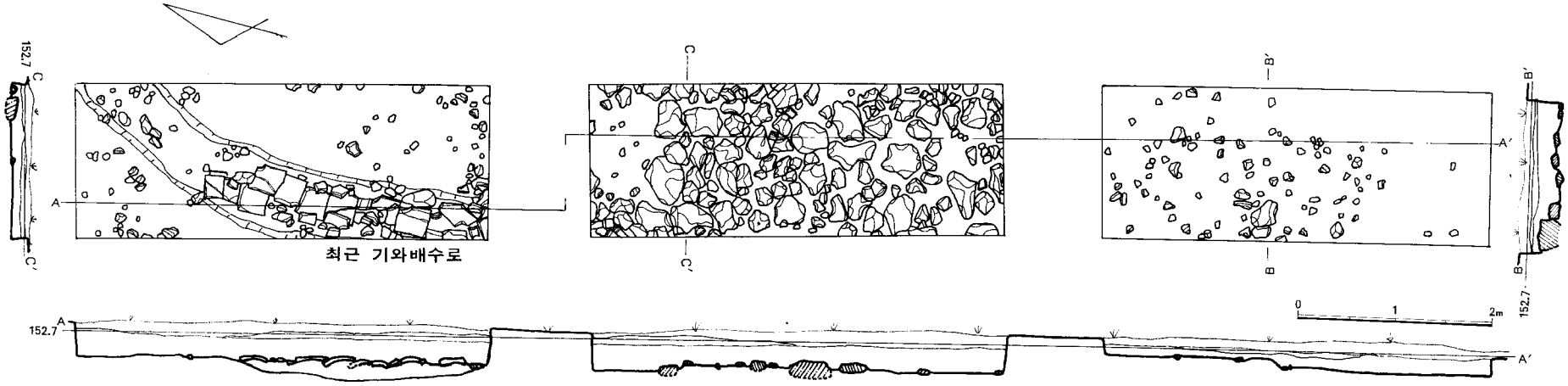
도면 21 B지구 2구역 층위 단면도



도면 22 B지구 3구역 군숙영지 보도 실측도



도면 23 B지구 4구역 남북트렌치 단면 층위도



도면 24 B지구 5구역 남북트렌치 유구 실측도



도면 25 B지구 6구역 테스트 핏트 실측도

② 보 도(도면 22, 도판 24, 25)

金堂推定건물지의 정북쪽에서 확인되었는데, 일부분을 제외하고 생토 암반층위에 형성되어 있다. 동서로 연결되는 두개의 보도는 중간 부위에서 남북보도와 서로 만난다. 동서 두 보도는 평행하며 두 보도의 간격은 9.15m이고 보도 폭은 98-110cm이다. 동서보도 중 남쪽의 것은 흑갈색 부식토가 매우 단단하게 다져진 상태로 나타났다. 동서보도 중 북쪽의 것은 흙의 다짐상태가 남쪽 보도보다 못하다. 남북으로 연결된 보도 역시 5-7cm정도로 흑갈색 점토가 다져진 상태이다. 이 보도의 중간부와 북쪽 끝부분에 크기 15cm미만의 잡석을 이용하여 한단 높인 자리가 발견된다. 그 높이는 15-18cm이다. 다진 토층의 성분을 보면 주변 잔자갈과 기와소편, 탄피, 군용단추 등이 함께 섞여 있다. (도판 25-③) 남쪽 동서보도의 끝부분에서 50cm정도 떨어져 나와 폭1m, 길이 2m의 핏트조사를 실시하였다.(도면 22의 A-A′단면, 도판 25-②) 맨 아래층에서 잡석무더기 매립층이 생토암반층위에 놓여 있으며 고려말 금당추정 건물지와 관련된 매립유구로 판단되나 그 성격은 알 수 없다. 남북보도 중앙 서쪽에 황갈색 생토암반층을 평평하게 깎은 흔적이 보인다. 이 부근에서 탄피 및 미군 비상식량 봉지가 출토된다. 또한 남쪽 동서보도 맨 서쪽 끝부분에서 잡석구덩이가 확인되었는데 전자의 보도가 이 부근에서 잘리는 것으로 보아 최근에 판 구덩이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B-3구역은 1951년도 군숙영시설을 만들었던 장소로, 이 내부에서 확인되는 잡석 무더기와 각종 굴광선, 생토암반을 평평하게 깎아내린 면은 숙영 텐트 내부의 시설로 쓰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3) 기타 구역 유구

①B-4구역에서 금당추정건물지와 관련된 주변유구를 찾았으나 확인하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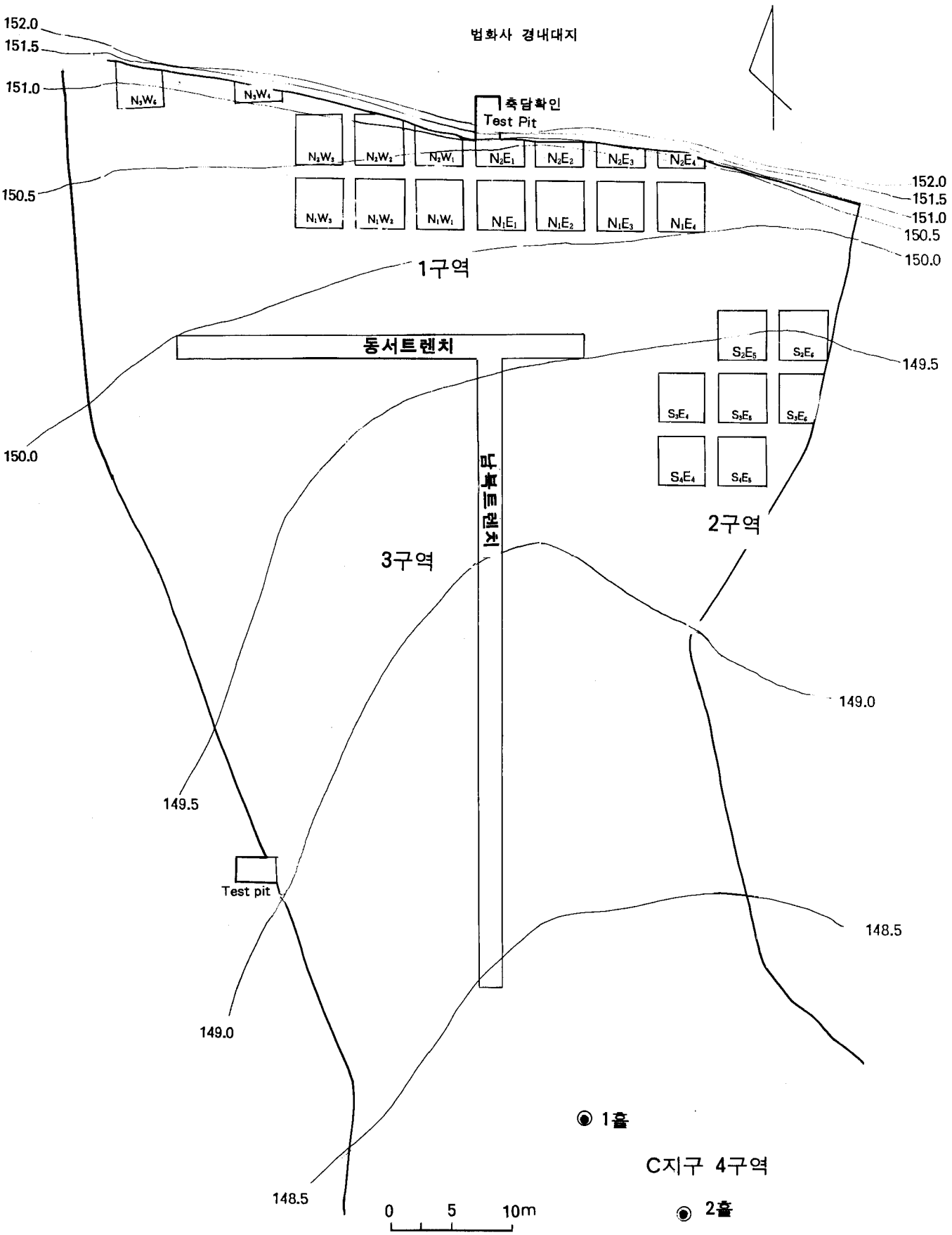
②B-5구역 남북트렌치의 북쪽에서 1960년대의 요사채와 관련된 기와배수시설이 확인되었다 (도판 25-③). 확인된 배수시설은 회청색 무문암키와를 서로 겹쳐 12열을 연결하여 만들었다. 이 수로 밑으로 적석시설이 연결된다. 트렌치의 중간부분에서는 잡석을 인공적으로 같은 높이로 메꾼 매립적석유구가 확인되었다(도판 28-②). 이 매립유구의 깊이는 50cm이상이다. 이 매립유구는 1982년도 "마"발굴부에서 나타났던 매립유구와 연결되는 것으로, 이 부분은 사찰 건물을 만들기 위해 주변의 지표보다 한단을 더 높여 시설했던 유구로 여겨진다.

③B-6구역에서는 흑갈색 표토층 아래로 생토암반층이 연결되어있다.

제 3 절 C지구 조사

늪지 발굴조사는 4개 구역으로 나누어 실시되었다. 1990년의 조사구역은 현재 법화사 경내 대지 남쪽으로 바로 붙은 아랫밭(1076-1번지)을 1구역으로 하고, 동쪽을 2구역(하원동1076-2), 남쪽을 3구역(1077번지)으로 하였다. 제4구역(1091번지)은 1992년도에 발굴된 지점으로 앞서 3구역의 남쪽 늪지이다.

1-3구역 에서는 1950년 군숙영지와 관련된 매립층을 확인했을 뿐이고, 연지시설은 확인하지 못했다. C-4구역은 트렌치와 확장 발굴을 통해, 자연늪지 서쪽에 간단한 석축시설을 확인하였다.



도면 26 법화사지 C지구 1–3구역 발굴구획도

1. C지구 1990년 조사

가. 발굴전 현상 (도면 2, 도판 29)

1990년 발굴지역인 C-1, 2, 3구역은 현 법화사경내 대지 남쪽의 아랫부분으로, 법화사 대지와의 등고차는 1.45-2.1m에 이른다. 경내의 낭떠러지는 돌담이 조성되었으며, 동쪽 둔덕은 돌담이 없다. (도판 30-③) 발굴대상지는 과거 水田地였으나, 지금은 遊休地이다. 경사면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밋밋하게 내려가고 있고, 0.7-1.0m 높게 주변 과수원지대가있다. 법화사 뒷쪽 水源에서 흘러 나오는 물이 이곳으로 스며들거나 모여 늪지를 형성하고 있었다. 밭경계 돌담열이 군데 군데 남아 있었다.

나. 발굴 방법 (도면 26, 도판 30-②, 31-②, 32-①)

1) 차후 실시되는 발굴조사를 고려, 금번 조사 대상지와 조사 예정지 전체 범위를 4×4m의 방형 핏트를 단위로 하고 핏트 사이 둑을 1m폭으로 하여 구획을 하였다.

2) 조사 대상지가 연지로 추정되므로 연지 시설에 필수적인 경계 호안석축 등을 일차 확인하고자 현재 법화사 경내 대지와 동쪽 과수원과 고저차이가 심한 1076-1번지 남쪽(1구역)과 동쪽(2구역) 가장자리부터 발굴을 하되, 연못 경계가 석축이 되지 않은채 경사질 수 있으므로 핏트별 바둑판식 발굴을 하여 핏트마다 층위 양상이 달라지는 것을 면밀히 관찰하였다.

3) 유적의 전체 범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발굴 대상지 중심부를 2m 폭의 +자형 트렌치로 길게 구획하여 발굴을 하고, 남서쪽 과수원 1090번지(속칭 섬밭)의 경계지 단면을 확인하기 위해 2m 폭의 트렌치를 구획 발굴하였다.

4) 물이 많이 나와 발굴이 어려운 C-1구역 서쪽 가장자리(제1홀) 남쪽 1091번지 두 지점(제2홀, 3홀)에서 5cm직경의 지질관정 조사를 실시하여 토양을 각 층위별로 채취, 그 성분을 분석하여 연못 퇴적층을 판정하였다.

다.구역별 층위와 조사내용

1) C-1구역 (도판 30)

① 층 위 (도면 27-①)

層 位	깊이(cm)	색 깔	內 容
Ⅰ	0-13	10YR3/2	표토층
Ⅱ	13-40	10YR3/4	매립층
Ⅲ	40-45	10YR3/2	매립층(잡석·기와)
Ⅳ	45-70	10YR4/3	매립층
Ⅴ	70-85	7.5YR4/2	사질점토층(물이스며든 층)
Ⅵ	85-105	10YR5/1	암반풍화토

② 조사내용

총 15개 핏트를 깊이 50-100cm내외 깊이로 발굴 조사하였으며, 표토층 아래로 청자편과 기와편을 포함하고 큰 할석이 깔린 층이 전면에 드러난다. 이 층은 법화사 축조 당시 조성되었거나 아니면 연못을 후대에 매립한 층위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제를 하고 발굴하였다. 바로 밑층부터 물이 스며들어 곧 물이 찼으며, 유물은 전혀 나오지 않았다. 그 아래로는 색깔과 성분이 다른 풍화암반토층이 막바로 연결되었다. 절 경내 경계의 축담을 헐어 트렌치 조사하여, 경내 지표 두께 2m 정도가 매립한 층임을 확인하였다. 일정한 시설물이나 연못 퇴적층인 점토층은 확인되지 않았다.

2) C-2 구역 (도판 31-①)

① 층 위 (도면 27-②, 도판 31-③)

층 위	깊 이 (cm)	색 깔	내 용
Ⅰ	0-30	7.5YR3/2	표토층
Ⅱ	30-60	5YR4/4	매립점토층
Ⅲ	60-80	10YR3/2	사질점토층(물이 스며든 층)
Ⅳ	80-120	10YR5/3	풍화암반토층

② 조사 내용

이 구역은 총 9개의 핏트를 50-120cm 깊이로 발굴 조사하였다. 표토층이 제거된 후 작은 할석이 매립된 층위가 확인되었으며, 일부 핏트에서 그 아래로 얇게 물고인 점토층이 확인되었다. 그 아래로 C-1구역과 마찬가지로 물이 스며든 층위가 있거나 굵은 모래층이 확인되었다. 다시 그 아래로는 풍화암반층으로 연결되었다. 일정한 시설물은 확인되지 않았다.

3) C-3구역 동서 트렌치 (도면 27, 도판 32)

① 층 위(도면 27-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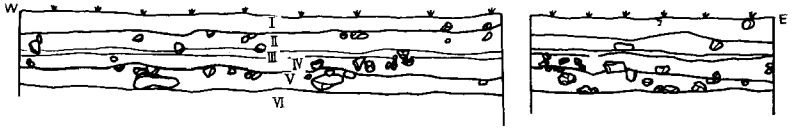
층 위	깊 이 (cm)	색 깔	내 용
Ⅰ	0-40	10TR3/2	표토층
Ⅱ	40-50	7.5YR/2	매립점토층
Ⅲ	50-65	10YR4/2	사질점토층(물이 스며드는 층)
Ⅳ	65-105	10YR5/1	암반층화토층

② 조사 내용

길이 34m의 트렌치를 깊이 100cm로 발굴하였다. 표토층 아래로 숙영지 조성당시의 매립층이 확인이 되었는데, C-1, C-2구역과 달리 할석 대신 시커먼 유기물과 통나무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 아래로 물이 많이 스며든 사질토층 그리고 그 아래로 풍화암반토층이 확인이 되었는데 이 두개의 층에서는 전혀 유물이 확인되지 않았다. 일정한 시설물은 물론 연못 퇴적층으로 인정할 만한 점토층은 확인되지 않았다.

4) C-3구역 남북 트렌치 (도판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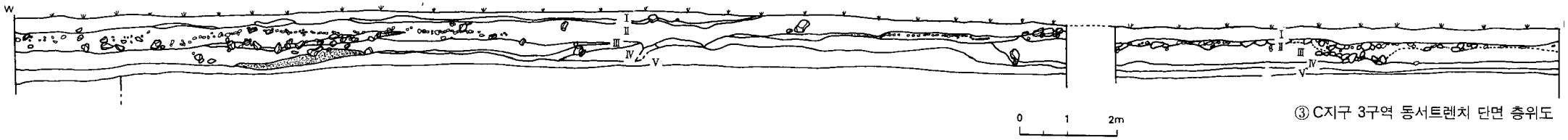
① 층 위(도면 27-④, 도판 32-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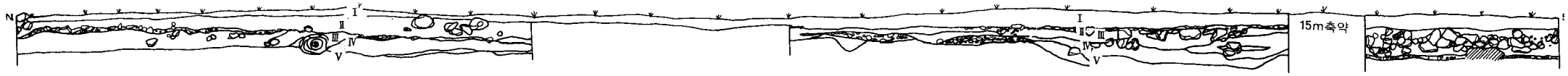
① C지구 1구역 층위도



② C지구 2구역 층위도



③ C지구 3구역 동서트렌치 단면 층위도



④ C지구 3구역 남북트렌치 단면 층위도

도면 27 법화사지 C지구 1–3구역 층위도

층 위	깊이 (cm)	색 깔	내 용
Ⅰ	0−30	10YR3/2	표토층
Ⅱ	30−45	7.5YR4/2	매립토층(잡석·기와 포함층)
Ⅲ	45−65	10YR4/2	매립토층
Ⅳ	65−85	5YR4/1	사질점토층(물이 스며든 층)
Ⅴ	85−115	10YR3/2	풍화암반토층

② 조사 내용

표토층 아래로 큰 할석과 다량의 기와편이 포함된 층위가 확인되었다. 이 층위 아래로는 대부분이 앞서의 동서 트렌치처럼 물이 스며든 점질점토와 풍화암반토층이 확인되었으며, 남쪽 끝 쪽으로는 사질점토층 없이 막바로 암반층으로 이어졌다.(도판 32−④) 이 트렌치에서도 연못의 퇴적층은 확인되지 않았다.

1992년에 남북트렌치의 중간 기와매립층에 대한 조사에서 상당량의 기와편 및 건물 석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 매립층위의 두께는 29−32cm였다. (도판 33)

5) 기타 구역(도판 34−①)

속칭 섬밭이라고 하는 1090번지 과수원 서쪽 가장자리를 2×4m의 트렌치로 구획하였다. 깊이 100−200cm로 발굴한 바, 표토층 바로 아래에서 자연 암반층이 노출되었다.

라. 각 층위에 대한 성분분석

이 조사는 발굴조사된 각 지점의 층위의 성격을 보완분석하고, 물 때문에 발굴이 이루어지기 곤란했던 부분에 대한 추가조사로서 각 구역의 층위별 토양분석을 실시하였다.

1) C−1 구역(도판 34−②)

① 층위별 특성

토양 깊이 및 층위 특성	PH	유기물 함량 (%)	Ca (me/100 g)	Mg (me/100 g)	K (me/100 g)	Na (me/100 g)
0−50cm	6.3	23.0	1.9	0.8	0.4	0.3
50−80	6.4	1.1	2.8	1.2	0.9	0.5
80−140	6.4	0.6	3.7	2.1	0.9	0.7
140−170	6.6	0.6	5.1	2.9	1.2	1.2
300 이하	6.8	0.2	6.5	2.6	1.4	1.0

② 분 석

토양 PH는 전 토층을 통하여 거의 中性을 나타내고, 표토는 Ca, Mg 등의 염기 함량이 낮으나, 토심이 깊어질수록 PH가 높아지고 동시에 Ca, Mg 등의 염기의 함량이 많아지는 것으로 보아 鹽基性 玄武岩이 자연 풍화작용을 받아 형성된 토양, 표토는 경작 등의 인위적 요인에 의하여 성질이 변한 것으로 생각된다. 유기물함량은 토심 0−50cm사이에는 높은 편이나, 토심 50cm이하 부터는 극히 낮아졌다.

2) C-2 구역

① 층위별 특성

토양깊이 및 층위특성	PH	유기물 함량(%)	Ca (me/100 g)	Mg (me/100 g)	K (me/100 g)	Na (me/100 g)
0-30cm	5.6	7.7	7.7	2.6	0.3	0.6
30-50	5.5	3.6	6.6	2.3	0.5	0.7
60-80	5.7	4.3	5.5	1.9	0.5	0.7
80-120	6.2	1.4	4.7	2.3	0.5	1.0

② 분 석

토양 PH는 약산성에 속하며, 토심이 깊어질수록 점차 높아지고 있다. 유기물 함량은 토심이 깊어질수록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이는 일반 밭토양의 특성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

3) C-3 구역 남북 트렌치 중앙

① 층위별 특성

토양깊이 및 층위특성	PH	유기물 함량(%)	Ca (me/100 g)	Mg (me/100 g)	K (me/100 g)	Na (me/100 g)
0-20cm	5.3	7.6	5.0	1.8	0.4	0.8
30-40	5.8	6.5	8.5	3.2	0.3	0.6
80-90	6.5	0.6	4.4	2.2	0.5	1.6
110-120	6.7	0.6	5.2	2.3	0.9	1.3

② 분 석

표토의 토양 PH는 약간 酸性을 띠고 있으나 심토의 PH가 거의 중성이고 Ca, Mg, K와 Na의 함량이 높은 것으로 미루어 보아 鹽基性 玄武岩을 母材로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표토 40cm이내의 유기물 함량이 약간 높기는 하지만 火山灰性 土壤이 表土를 덮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생각된다.

4) C-4구역 1번 홀(사진 34-④)

① 층위별 특성

토양깊이 및 층위특성	PH	유기물 함량(%)	Ca (me/100 g)	Mg (me/100 g)	K (me/100 g)	Na (me/100 g)
0-100cm	6.6	16.7	6.0	2.1	0.3	0.8
100-140	6.7	0.7	5.3	2.3	0.3	1.5
140-180 (층)	6.4	8.6	6.0	2.7	0.4	0.8
140-180 (층사이)	6.6	0.2	6.0	2.5	0.6	1.2
180-210	6.3	0.5	4.9	2.5	0.3	0.6
210-250	6.5	0.3	5.5	2.6	0.4	0.6

② 분석

토양 PH는 전 토층을 통하여 거의 중성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다른 발굴지 토양과 유사하다. 토심 100cm 까지의 유기물 함량은 매우 높은 것으로 보아 식물체 등의 유기물이 매립되어 생성된 층으로 생각된다. 토심 100-140cm 까지의 토양은 점토 함량이 높고, 유기물함량은 극히 낮아 일반 생토의 특성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 토심 140-180cm 사이에는 퇴적층으로 보이는 0.2-0.3cm의 흑색층과 외부로부터 유입된 것으로 보이는 2-3cm토층이 형성되어있었고, 층의유기물함량은 8.6%로 높으며, 층사이의 유기물함량은 0.2%로 매우 낮았다. 이는 매몰 이전에 유기물이 약간 쌓여 層을 이룬 후에 다시 외부로부터 유입된 생토가 쌓이고 다시 유기물이 퇴적된 것과 같은 모양을 나타내고 있다(이와 같은 현상은 2번 홀에서도 나타남). 180cm 이하의 토양층의 유기물함량은 극히 낮았는데, 이는 퇴적층 이하의 생토로 생각된다.

5) C-4구역 남쪽 늪지 2번 홀 (도판 34-③)

① 층위별 특성

토양깊이 및 층위특성	PH	유기물 함량 (%)	Ca (me/100 g)	Mg (me/100 g)	K (me/100 g)	Na (me/100 g)
0-90cm	6.4	18.8	5.5	2.0	0.3	0.4
90-220	-	-	-	-	-	-
220-280	6.7	0.5	5.9	2.7	0.8	1.9
280-310	6.8	12.5	5.8	1.5	0.4	0.7

① 분석

토양 PH는 전 토층을 통하여 거의 中性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다른 발굴지 토양과 유사하다. 토심 90cm 까지의 유기물함량은 매우 높아 식물체 등의 유기물이 쌓여서 형성된 층으로 생각된다. 토심 90-220cm 사이의 토양은 물과 유기퇴적물, 점토가 혼합되어 현탁액을 이루고 있어서 토양 채취가 곤란한 곳이었다. 토심 220-280cm 사이의 토양은 점토함량이 높고, 유기물함량이 매우 낮았으며, 이 층위는 일반 생토의 특성을 지니고 있었다. 토심 280cm 이하의 토양은 흑색을 띠고 있었으며, 유기물함량이 높고 탄화된 흔적이 있었다.

마. 분석내용 종합

위의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본 발굴지역은 토양 PH가 높은 鹽基性 玄武岩을 母材로 생성된 토양으로 생각된다. C-1, 2, 3 세 지점의 하층부의 유기물 함량은 매우 낮아 유기물질이 퇴적된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다. C-4구역 2번홀은 토심 140-180cm 사이에 유기 퇴적물과 토양이 서로 겹겹이 쌓인 층을 이루고 있으며, 100-140cm 사이에는 외부로부터 (지상으로 또는 지하수의 흐름으로 인한 점토의 퇴적) 점토함량이 높은 토양이 퇴적되어 있으며, 토심 100cm까지는 유기퇴적물이 다량 쌓여 있었다. 남쪽 3번 홀은 토심 280cm 이하에 유기물이 퇴적된 것으로 보이는 흑색의 탄화층이 형성되어 있으며, 토심 220-280cm 사이에는 외부로부터 유입되어 퇴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토층이 형성되어 있었다.

2. 1992년 조사 C지구

가. 발굴전 현상 (도면 2, 도판 35)

발굴대상지로 설정된 하원동 1091번지 (1500평)는 법화사 뒷쪽 水源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스며들거나 모여, 얼마 전까지만 해도 水田地로 이용되었던 곳이다. 그러나 발굴시에는 휴경으로 인해 水草가 무성하게 자라 있는 상태였다. 발굴지 서편 150여평의 밭은 수전을 행한 흔적이 없고, 이 밭과 동쪽의 늪지를 경계 짓는 축담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었다. 수전지 남쪽에는 폭 1m의 소로가 있었고 수전시 밭경계로 사용된 돌담이 남아 있었다. 표고현상은 주변 테두리가 가운데보다 약 70-80cm가량 높다. 주변의 밀감과수원들보다 발굴지의 지면높이가 1m이상 낮기 때문에 지형상 자연히 이곳으로 물이 모일 수 밖에 없다.

나. 발굴방법 (도면 28, 도판 35,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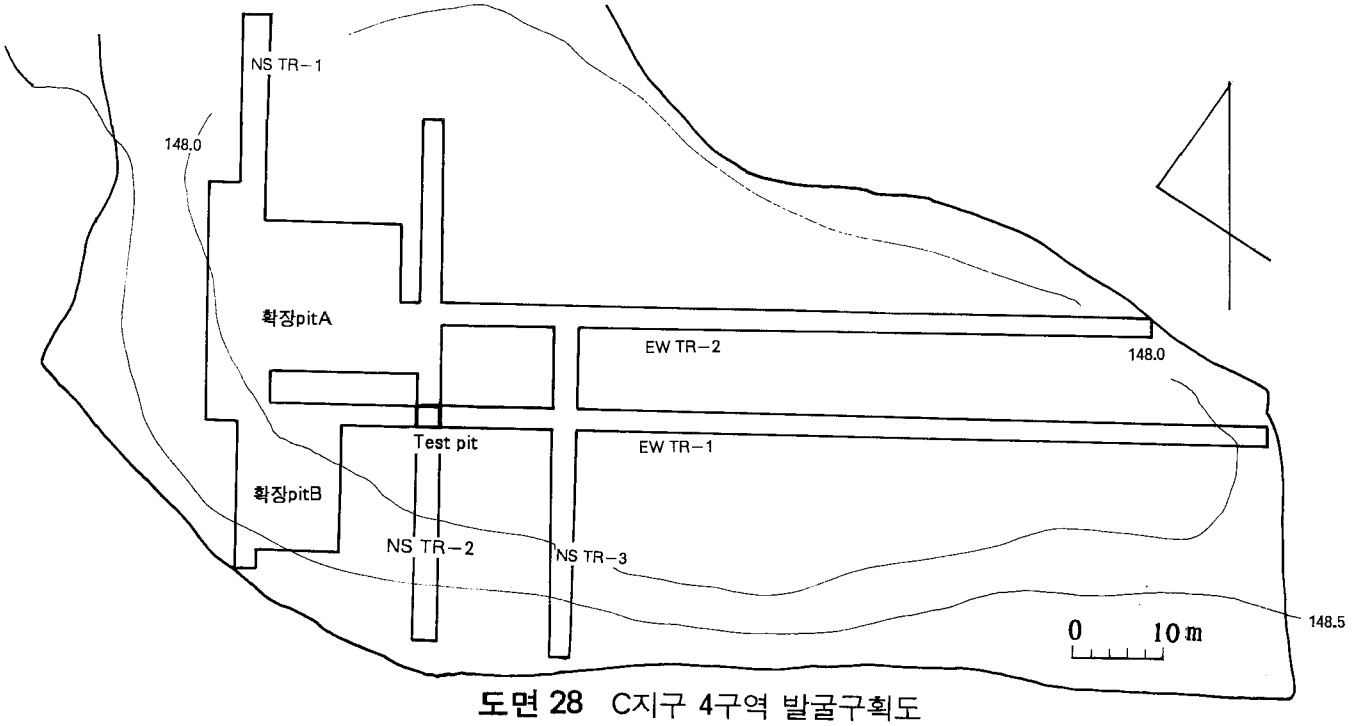
1) 전년도에 발굴한 1076번지내 폭 2m의 남북트렌치를 남으로 계속 연장하여 남북으로 이어지는 전체 층위와 유구를 확인하고,

2) 남북트렌치①의 연장선에서 교차하는 방향으로 동서트렌치①를 구획, 발굴하여 1091번지 늪지의 동서방향의 전체 층위와 유구를 조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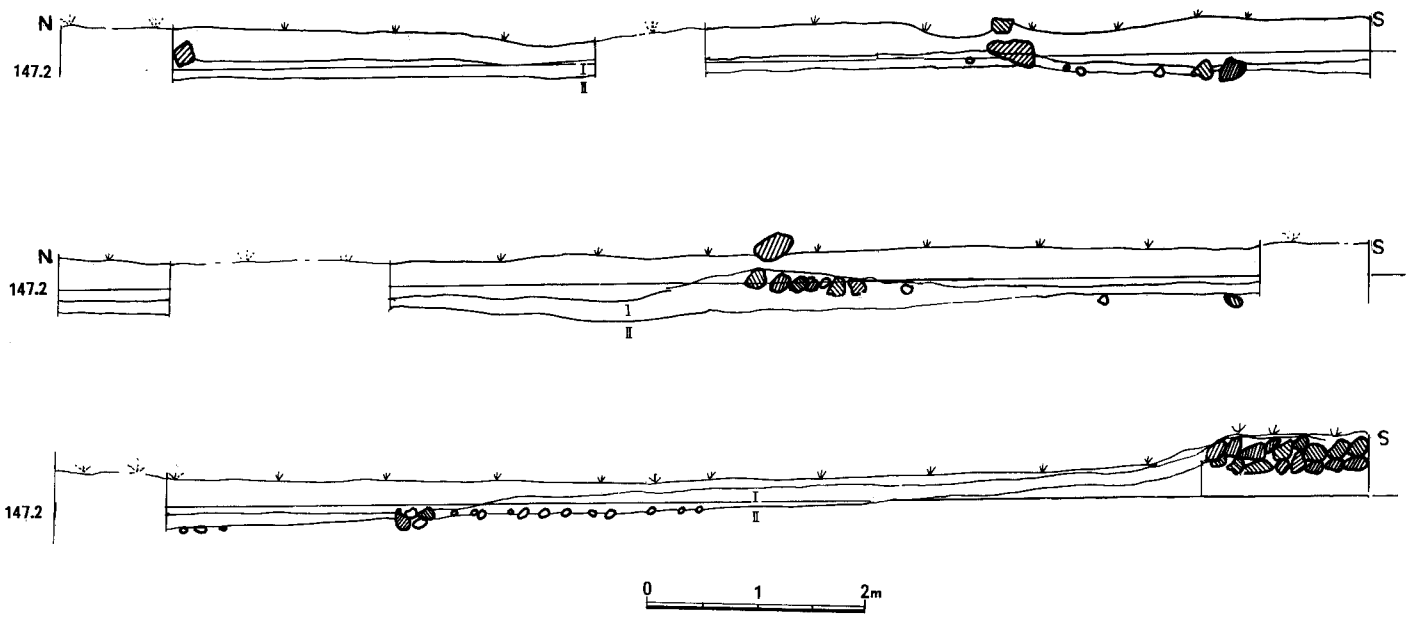
3) 남북트렌치①에서 동쪽으로 각각 10m 간격으로 폭 2m의 남북트렌치, 남북 트렌치③를 두고 동서트렌치①에서 다시 북으로 10m간격을 두어 동서트렌치②을 추가로 구획 발굴하여 조사구역 전체의 층위와 유구를 확인하였다.

4) 남북트렌치①와 남북트렌치 사이에서 적석 무더기층이 드러나 전면적으로 표토층을 제거하여 유구의 성격과 범위를 확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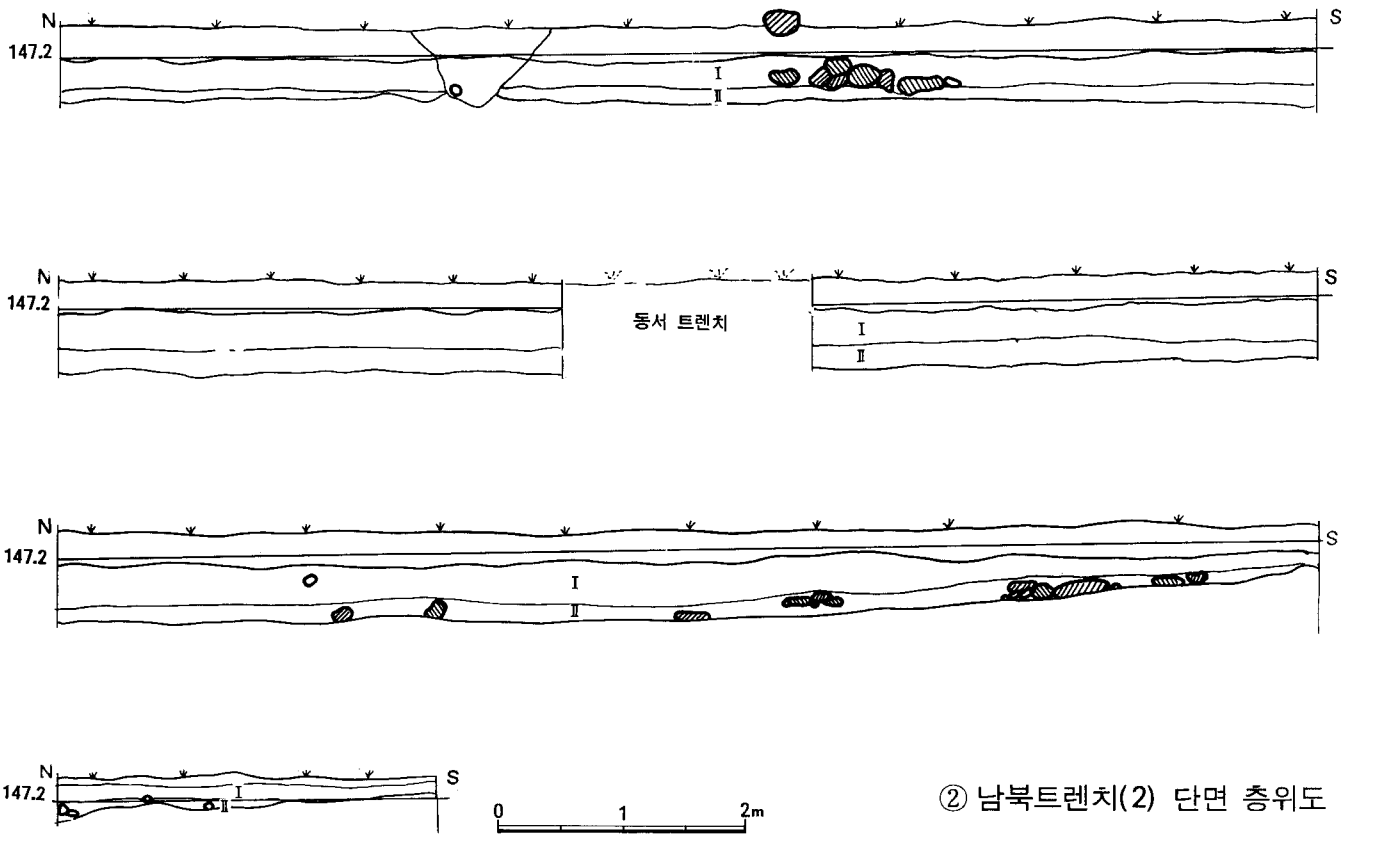
5) 전년도 지질관정을 실시했던 남북-동서 트렌치의 교차지점에 깊이 3m의 TEST PIT를 구획 발굴하여 경작층, 늪지층, 생토층의 층위상태를 관찰하였다.



도면 28 C지구 4구역 발굴구획도



① 남북트렌치(1) 단면 층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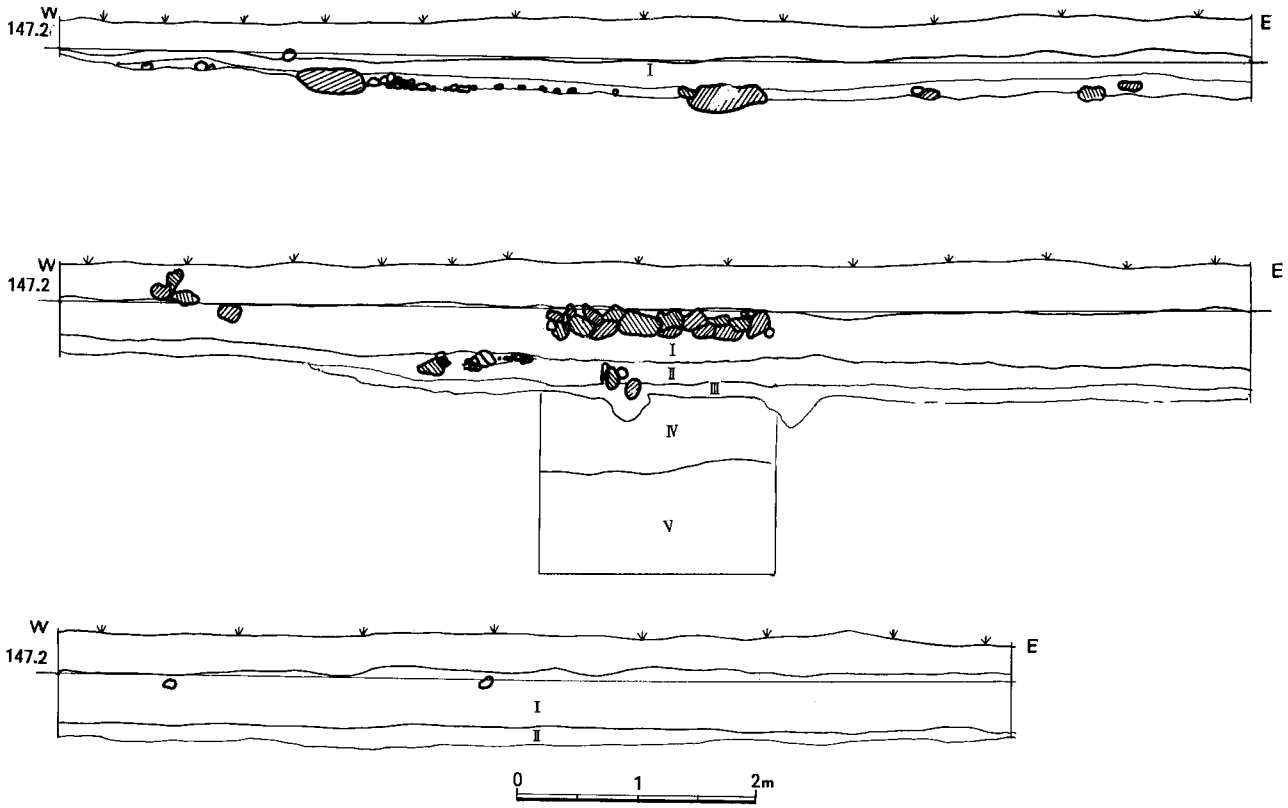
② 남북트렌치(2) 단면 층위도

도면 29 C지구 4구역 남북트렌치 단면 층위도

다. 층 위 (도면 29, 30, 도판 40-①, ②)

늪지 내부토층은 동서트렌치①와 남북트렌치① 교차점 TEST PIT의 층위(도면 30, 도판 40-①, ②)로 이 구역 층위를 종합할 수 있다. 발굴 구역내의 층위는 늪지와 관련된 발굴구역의 성격을 밝히는 주 자료가 된다.

층 위	깊이 (cm)	색 깔	층 위 내 용
표토층	0-32	갈 색	水田으로 이용한 경작층으로 푸석푸석 하며 유기물 함량이 가장 높음.
Ⅰ	32-70	갈 색	경작층이지만 단단한 점토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부 잡석을 포함하고 있음. 밭경계 돌담이 토층내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누대에 걸쳐 水田으로 이용된 층으로 판단됨.
Ⅱ	70-95	황 색	사질토층. 굵직한 황색모래가 주 성분이며 목탄및 깬 할석이 포함되어 있어 주문화층임을 알 수 있음.(耕作以前의 文化層)
Ⅲ	95-112	황 색	니질점토층. 건조한 지점의 황색점토(생토)가 장기적으로 습지에 있을 때 형성되는 층.
Ⅳ	112-167	회 색	니질점토층(생토층). 점토에 물이 항상 고여 있을 때 형성되는 층.
Ⅴ	167이하	보라색	니질점토층(생토층). 대형암반 포함.



도면 30 C지구 4구역 동서트렌치 단면 층위도

각 트렌치 발굴시에 전반적으로 표토층과 Ⅰ층 까지는 동일하게 나타났으나 Ⅱ층은 발굴구역 중앙부에만 집중적으로 깔려있었다(도면 29-①, ②, 30). Ⅲ, Ⅳ층의 경우 늪지에서 벗어난 지점의 단단한 황색점토(생토)와 동일한 성격의 층위로 , 이 층위의 레벨차로 인해 물이 고이게 되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생토레벨이 南-西便에서 東으로 완만하게 "U"字形 경사를 이루어 가운데 부분이 늪지를 형성하게 된 것이다.

라. 조사 내용

남북트렌치①와 동서트렌치① 조사에 축담列과 동쪽으로 내려가는 경사진 황색생토위에 자잘한 잡석무더기군이 확인되었다. 남북트렌치·동서트렌치 ②,③조사에서는 늪지 중앙으로 경사져 내려가는 생토레벨과 밭경계 돌담이 확인되었다. 남북트렌치①에서 확인된 잡석무더기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한 확장 핏트조사에서 회색모래층 과 황색생토층을 파고 들어간 불규칙한 구덩이군이 확인되었다.

1) 각 트렌치 조사 내용

① 남북트렌치

전년도에 발굴했던 남북 트렌치를 남으로 연장하여 구획한 트렌치로, 지표하 50cm까지 파들어 갔다. 트렌치 북쪽에서 부터 작은 괴석과 냇돌을 인공적으로 깔아놓은 잡석 무더기군과 동으로 경사져 내려가는 황색 생토레벨이 확인되었다.

② 동서트렌치 ①

길이 80m,폭 2m의 트렌치로, 트렌치 중앙부에서 인공적으로 판 구덩이군 과 밭경계 돌담적석군이 확인되었다. 앞서 남북트렌치①에서 나타난 황색 생토의 레벨이 동으로 갈수록 경사져 내려가고 있는데 이러한 지형상의 특징으로 인해 자연적으로 물이 고이는 현상을 파악하였다.

③ 남북트렌치②,③

남북트렌치①에서는 밭경계 돌담적석군이 확인되었고 북쪽층위는 각층이 수평층위를 형성하고 있는 반면 남쪽층위는 황색 생토레벨이 트렌치중앙으로 갈수록 심히 경사져 내려갔다. 급히 경사져 내려가는 생토레벨부위에서 크고 작은 잡석군이 확인되었다.
남북트렌치③에서는 남북트렌치②와 마찬가지로 생토층이 남으로 갈수록 경사져 내려갔다. 북쪽에서 밭경계 돌담 적석군(도판11-③)이 확인되었다.

④ 동서트렌치②,③

생토레벨 층위는 동서트렌치①와 동일하게 나타났고 트렌치 서쪽에 치우쳐 인공적인 구덩이군과 이중으로 쌓인 적석군이 확인되었다.

2) 확장 핏트 조사(도면 29, 31, 도판 36, 37, 38, 39)

확장 발굴의 목적은 황색 생토바닥의 전체범위 확인및 잡석무더기의 범위와 성격 확인, 그리고 인공적으로 파들어간 구덩이군의 범위와 성격확인에 있었다.확장 발굴을 실시한 지점은 동서트렌치②와 동서트렌치 그리고 남북트렌치②사이 부분(A부분), 4×10m크기의 동서, 남북트렌치①교차점 부분(B부분)이다.



도면 31 C지구 4구역 확장핏트 생토바닥 실측도

가) 확장핏트A(도면31, 도판37-②,③, 38-①,②, 39)

① 축담석렬(도판 38-①. ②)

남북 장축 축담석렬의 동쪽에 잇대어 크고 작은 할석이 2중으로 쌓인 잡석 무더기군이 확인되었다. 축담석렬은 그 축조방법상 2종류로 나누어 지는데, 30m 길이의 남쪽축담열은 작은 괴석을 이용하여 4단 수평쌓음 방식을 이용하여 만들어졌고, 북쪽부39) 축담열은 비교적 큰 할석을 사용하여 2단으로 만들어져 있다. 남쪽축담은 일직선 방향으로 정연하게 만들어졌으나, 북쪽축담은 활처럼 휘어져 돌아간다. 양 축담의 만나는 지점에서 북쪽축담이 남쪽 축담밖으로 겹쳐져 있으며, 자연적으로 경사진 생토면 위에 그대로 축조한 남쪽축담과 생토층 한층위에 있는 흑갈색점토층을 깎고 축조한 북쪽축담의 토층관계로 보아 남쪽축담이 먼저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② 잡석무더기(도판 37-②, ③, 39-③)

축담석렬 동쪽으로 바로 잇대어 나타나는 잡석무더기군도 2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경사진 생토레벨면에 나타나는 자잘한 괴석무더기군과 그 상면에 2중으로 쌓여있는 잡석무더기군이다. 전자는 남쪽축담과 관련되어진 유구로 판단되며 축담과의 거리는 동쪽으로 2m가량 떨어져 형성되어 있다. 반면 후자의 잡석무더기군은 남·북축담 교차점 북쪽으로만 나타나는데 전자의 괴석 무더기 상면으로 농여있는 것으로 보아 남쪽축담이 북쪽축담에 의해 허물어지면서 형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③ 구덩이(도판 39-①, ②)

잡석무더기군의 동쪽으로 크고 작은 크기의 구덩이군이 확인되었는데 동쪽에 치우친 구덩이는 생토레벨을 파고 들어간 반면 북쪽에 있는 구덩이들은 회색 사질토층을 파고 들어갔다. 구덩이 내부에는 목탄과 자잘한 할석이 섞여 출토되었다. 이 구덩이중 앞서 이중으로 쌓인 잡석무더기군 밑에서 확인된 구덩이가 있는데 이는 잡석무더기가 형성되기 이전에 이 구덩이군이 만들어졌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나) 확장핏트B(도면31, 도판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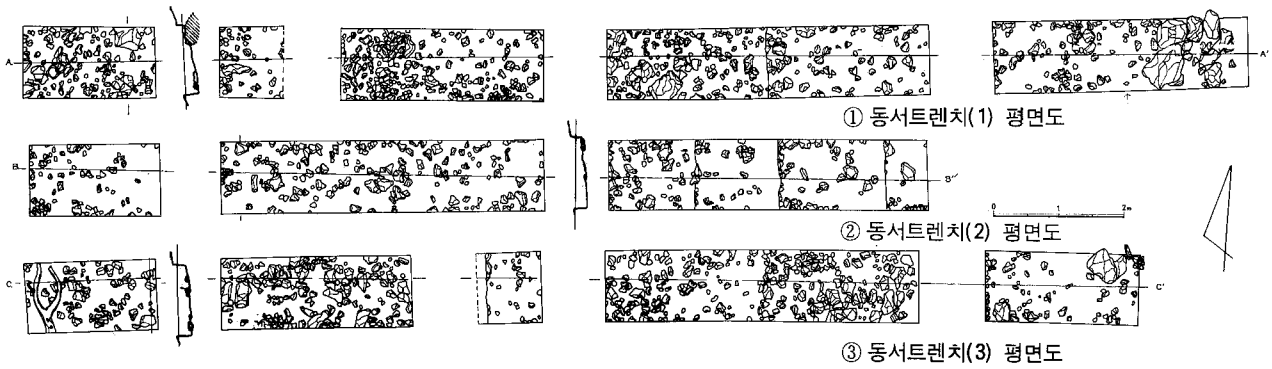
서쪽에서 동쪽으로 경사져 내려오는 생토레벨이 갑자기 5-7cm 깊이로 뚝 떨어지면서 폭 2-3m의 자잘한 괴석무더기군이 나타난다. 이 괴석무더기군과 남북트렌치②, ③남쪽부분에서 나타나는 괴석무더기군과 연결되는 것으로 보인다.

제 4 절 주변지역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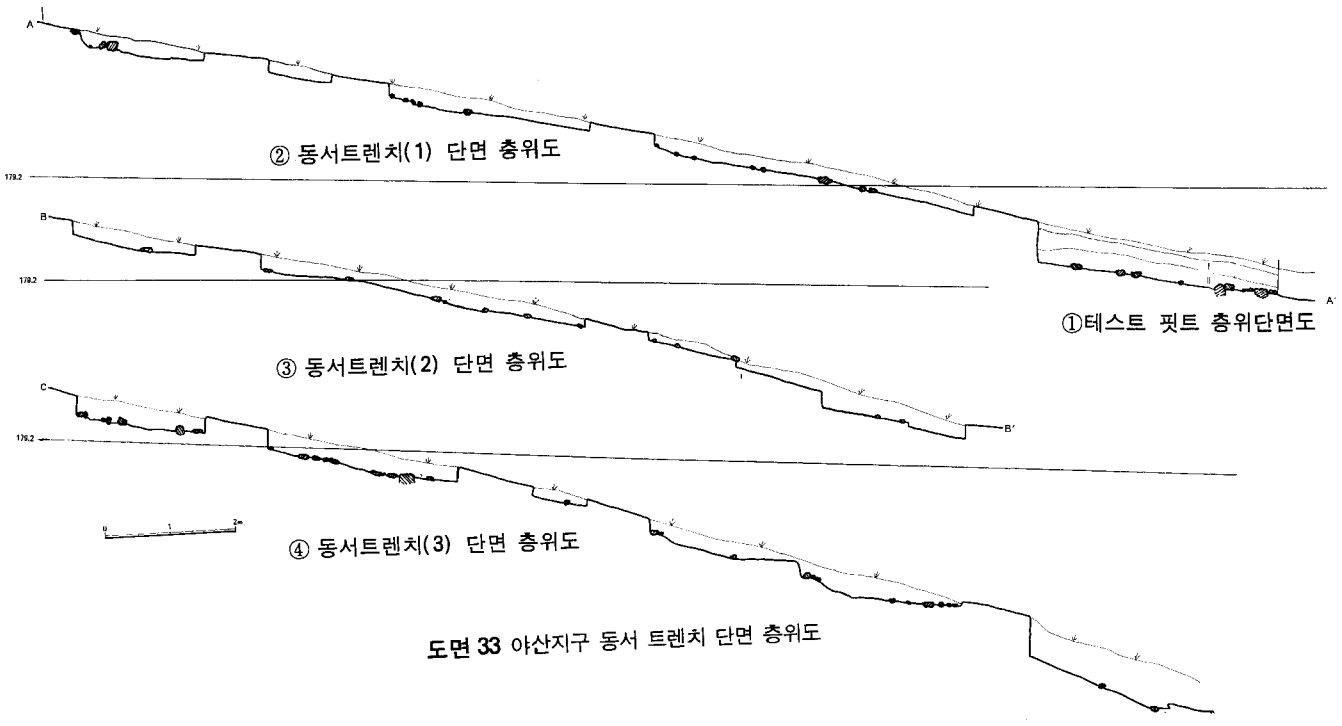
조사지점은 법화사 서편의 완만한 野山의 일부로 남동에서 서북으로 경사져 올라가는 곳에 해당한다. 발굴지점의 표고는 해발 173.5m이다. 지번상으로는 하원동 1047번지이다. 현재 이 지점은 소나무가 울창하게 들어서 있다. 사지 능선에 어떤 일정한 시설물이나 이와 관련된 사찰문화층을 확인하기 위해 2개지점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제1지점(도면 2, 도판 41-①)은 1044, 1045번지와 1047번지 사이의 야산 길 부분이다. 길 우측단면을 택하여 동서 10m길이의 층위토층을 확인하였다. 토층 조사결과, 표토층으로 30cm의 흑갈색퇴적층이 연결되고 아무런 문화층없이 바로 황색생토암반층으로 연결되었다.

제2지점(도면 2, 32, 도판41－②)은 1047번지 야산 중심부에 폭1m의 트렌치를 2m간격으로 3개 구획발굴하였다. 트렌치 표토레벨은 서고남저로 레벨차이가 3.2m이상 되었다.(도면33－②, ③, ④) 조사결과, 토층은 흑갈색표토층－연한갈색점토층－황색암반층으로 연결되며 문화층은 확인되지 않았다(도면33－① 도판41－③). 생토암반층의 레벨도 동쪽이 남쪽보다 3.6m정도 낮게 나타났다.



도면 32 야산지구 동서트렌치 평면도



도면 33 야산지구 동서 트렌치 단면 층위도

제 4 장 출토유물

제 1 절 기 와

1. 막 새

법화사에서 출토된 막새는 많은 양의 평기와에 비해 6종 밖에 출토되지 않았고 운봉문 숫막새와 운룡문 암막새를 제외하면 각기 1편씩 밖에 출토되지 않았다.

가. 숫막새

숫막새는 모두 두 종류가 확인되었는데 운봉문과 귀면문이다. 운봉문은 A지구 a건물지 동편 기와보도에서와 a건물지내부, A구역 계단상유구 북편 기와보도에서 출토되었다. 귀면문 숫막새는 지표에서 수습되었다.

1) 운봉문숫막새

운봉문숫막새의 막새부는 원형이며 지름이 대략 12-13cm 에 이른다. 봉황의 모습이 양각되어진 부분은 약 8cm내외이며 운봉문이 시문된 중앙부와 기와가장자리 사이에는 0.2cm의 음각선 한줄이 원형으로 둘러있다.

막새부의 봉황문 중앙에는 구멍이 각기 크기가 다르게 삼각형꼴로 뚫려있다. 막새부와 기와부를 따로 만들어 부착했음을 알 수 있는 흔적이 남아있다.

일련번호	도면번호	도판번호	특징	규격 (cm)	출토위치
1	34-1	42-1	운봉문숫막새. 회색. 내림새가 파손된 부분에 대칼을 사용하여, 접합용이하게 한 흔적. 뒷면에 물손질. 燒性度가 낮음.	두께:1.6 직경:1.2	A지구 a건물지 동쪽
2	34-2	42-2	운봉문숫막새. 회청색. 내림새가 파손된 부분에 대칼을 사용하여, 접합을 용이하게 한 흔적. 기와 뒷면에 물손질과 빗질. 소성도는 높음.	두께:1.8 직경:12.4	A지구 계단상유구 북쪽기와 보도
3	34-3	42-3	운봉문숫막새. 회색. 내림새 파손 부분에 대칼 사용 흔적. 기와 뒷면에 물손질과 빗질 흔적. 소성도가 낮음. 태토양호.	두께:1.7 직경:12.4	A지구 계단상유구 북쪽기와 보도

4	35-1	43-1	운봉문숫막새. 회청색. 기와 뒷면에 물손질과 빗질 흔적. 소성도가 낮으나 태토 양호.	두께:1.7 직경:12.4	A지구 계단상유구 북쪽기와 보도
5	35-2	43-2	운봉문숫막새. 회색. 몸체는 내림새와 직각. 기와뒷면에 손누름 흔적. 소성도 낮음.	두께:1.8 직경:12.6	A지구 계단상유구 북쪽기와 보도
6	35-5	43-5	운봉문숫막새. 회갈색. 기와 뒷면에는 빗질 흔적. 소성도가 낮으나 태토 양호.	두께:1.5 직경:12.2	〃
7	35-3	43-3	운봉문숫막새. 회색. 기와 뒷면에 빗질흔적. 소성도 낮음. 태토 양호.	두께:1.5	〃

2) 귀면문 숫막새

귀면문 숫막새는 A지구 발굴전 밀감나무 벌목과정에서 확인된 것이다. 막새의 문양은 양각되어 돌출된 정도가 심하고 주연부 문양요면의 굴곡이 심하다. 양 눈으로 추정되는 문양 사이에는 귀면의 코로 여겨지는 부분이 있다. 막새의 두께는 음각된 부분이 대략 0.6cm이고 양각된 눈 부분은 1.8cm이다.

일련번호	도면번호	도판번호	특징	두께(cm)	출토위치
8	35-4	43-4	귀면문숫막새. 회청색. 태토는 불순물이 전혀없는 점토질. 소성도는 낮음.	1.1	지표채집

나. 암막새

암막새는 운룡문, 연화문, 당초문, 양각이형막새 4종류가 출토되었다. 운용문 암막새는 A구역 계룡단상유구 북편기와보도에서, 연화문 막새는 계단상유구에서 출토되었고 당초문 암막새는 c건물지에서 출토되었다. 양각이형 암막새는 a건물지 내부의 기와적석에서 출토되었다.

1) 운룡문 암막새

주로 기와보도에서 깔려 출토된다. 완형은 단 한점 뿐이다. 전체의 문양은 6개의 원호로 이루어진 화두형이다. 외곽띠 가운데에 한줄의 음각선을 돌려 조각면을 더욱 선명하게 하였다. 주연부의 폭은 9.8-10m이고 길이는 21cm이다. 뒷면의 주연부 내림새부분과 기와부의 접합부가 결실되어 있는데 그 부분의 단면을 보면 운봉문 숫막새와 같이 기와부와 주연부를 따로 만들어 제작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일련번호	도면번호	도판번호	특징	규격(cm)	출토위치
9	36-1	44-1	운룡문암막새. 회색. 내림새 부분과 접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대칼흔. 기와뒷면에 물손질과 빗질흔. 소성도 낮음. 태토양호.	두께:1.6 직경:23.0	A지구 계단상유구 북쪽 기와보도
10	36-2	44-2	운룡문암막새. 회색. 뒷면에 물손질과 빗질흔. 연질. 태토양호.	1.8	〃
11	36-3	44-3	운룡문암막새. 회색. 뒷면에 물손질흔. 연질.	1.6	〃

2) 당초문암막새

일련번호	도면번호	도판번호	특징	두께(cm)	출토위치
12	36-4	44-4	당초문암막새. 암회색. 반파된 상태. 기와 표면처리가 매우 양호. 소성도 높음.	2.2	A지구 c건물지

2) 연화문암막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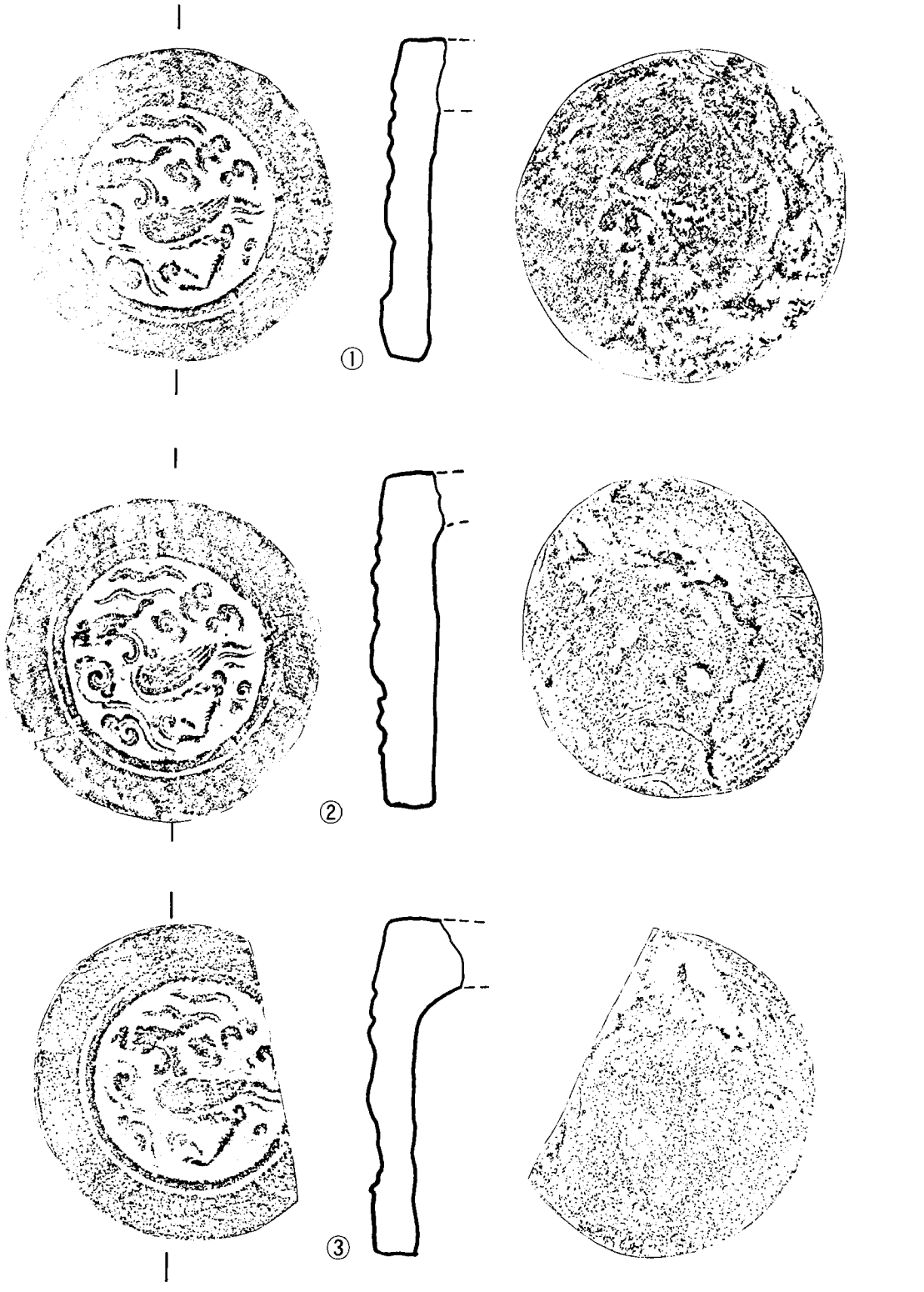
막새는 반파된 상태이다. 주연부내림새 부분은 온전하게 남아 있는데 막새와 수직을 이루고 있다. 주연부 중앙은 연꽃모양이 양각되어있다. 주연부 외각선은 음각이 아닌 양각이다. 내림새 윗부분은 포를 대었던 흔적이 군데군데 보이며 내림새가 휘어져 내려간 부위에는 포를 대지 못함으로서 남겨진 거친면이 있다.

일련번호	도면번호	도판번호	특징	두께(cm)	출토위치
13	37-1	45-1	연화문암막새. 회청색. 막새는 반파된 상태. 기와 뒷면에 포흔, 물손질, 대칼흔. 소성도가 높음. 태토양호.	1.4	A지구 계단상유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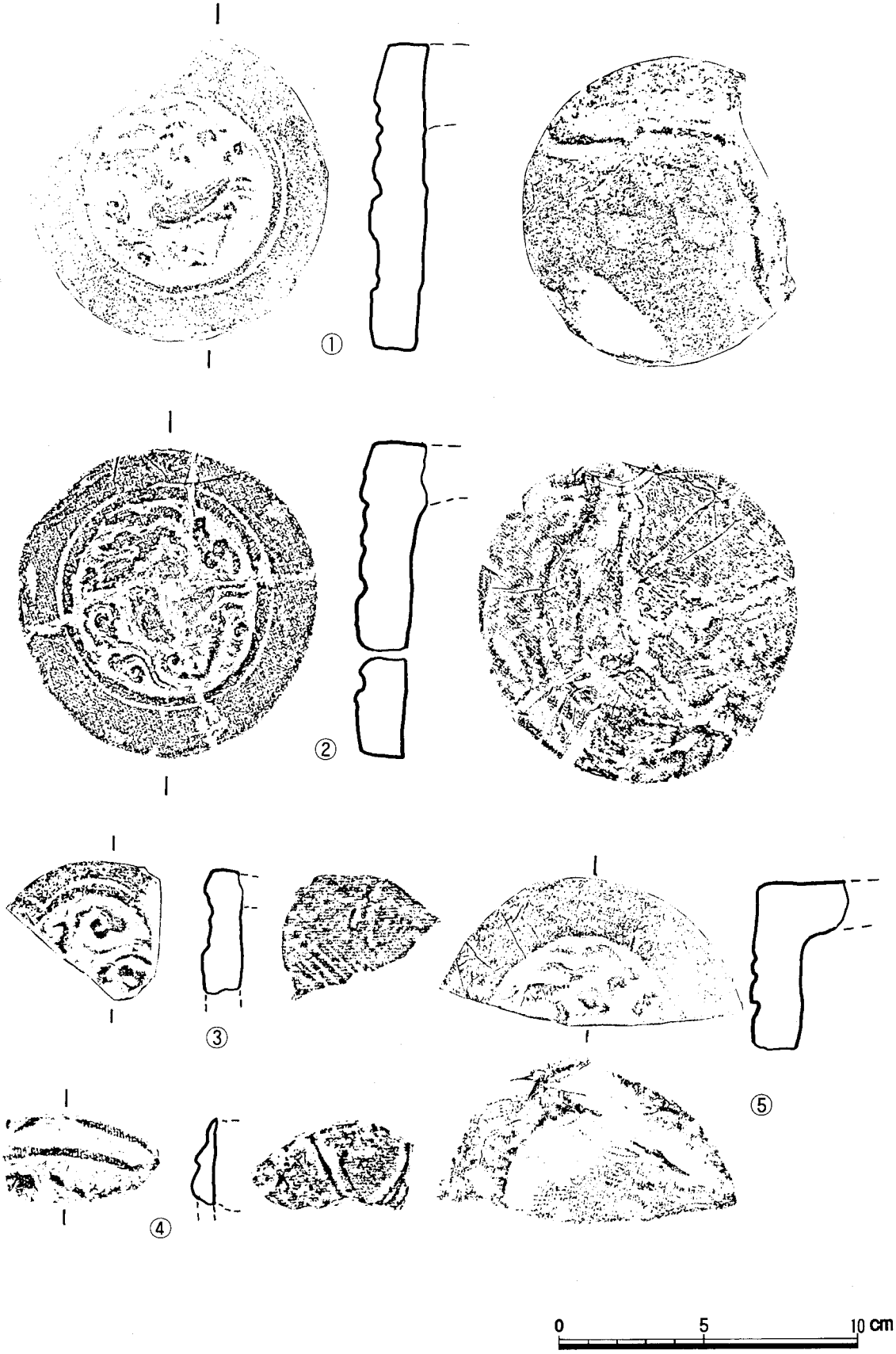
4) 양각이형 암막새

a건물지 내부의 기와 무더기 사이에서 출토되었다. 화초문으로 양각된 기와면의 두께는 1cm에 이른다. 내림새가 붙어있지 않아, 내림새의 각도, 성형수법등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태토는 미사립이 혼합된 점토질이고 소성도는 약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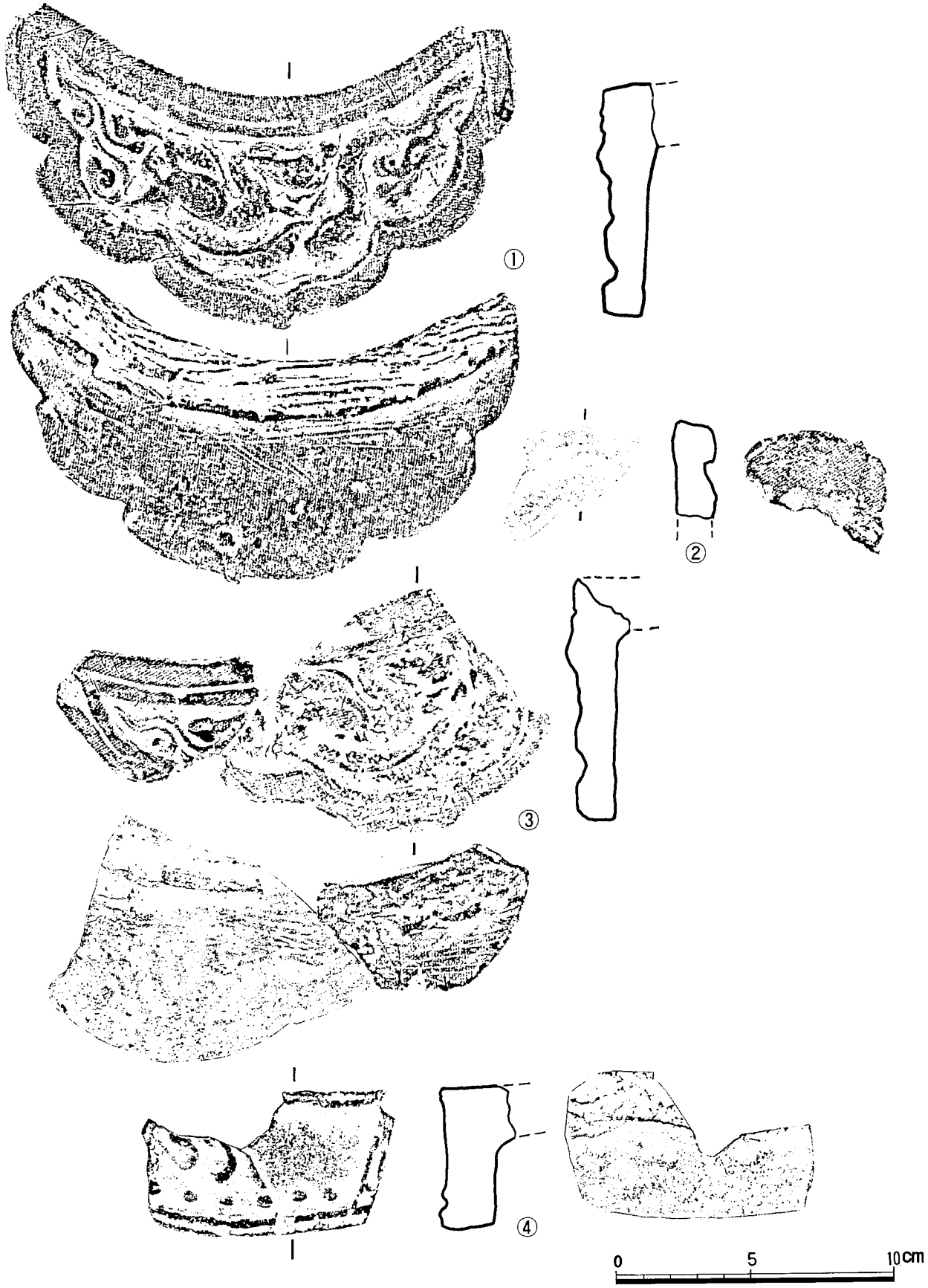
일련번호	도면번호	도판번호	특징	두께(cm)	출토위치
14	37-2	45-2	양각이형암막새. 회색. 반파된 상태. 뒷면에 물손질과 빗질흔. 경질. 태토양호.	3.5	A지구 건물지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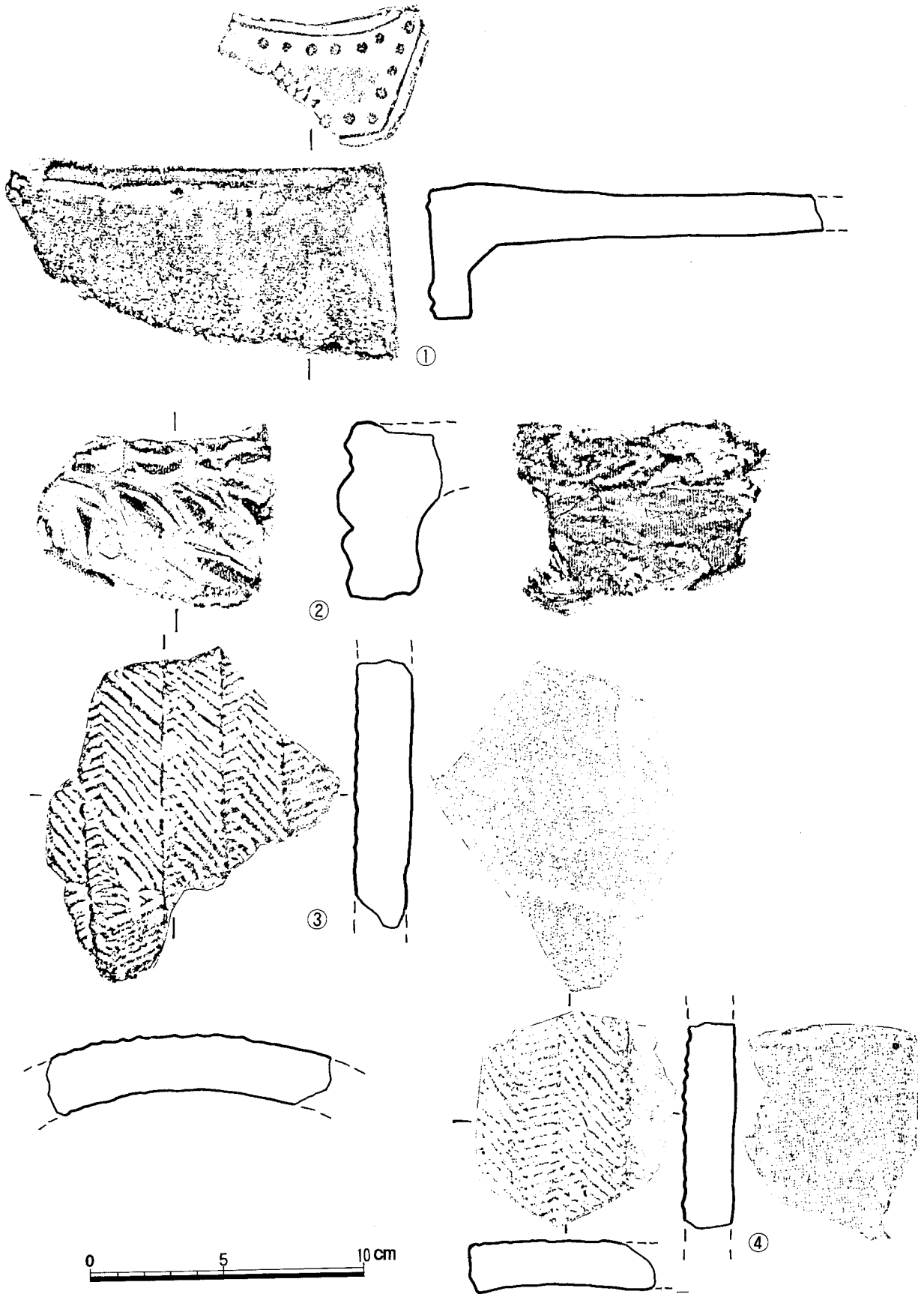
도면 34 A지구 출토 숫막새(1)



도면 35 A지구 출토 숫막새(2)



도면 36 A지구 출토 암막새



도면 37 A지구 출토 암막새·평기와

2. 평기와

가. 수지문

발굴구역 전 범위에서 출토되는 가장 기본적인 기와이다. 기와의 문양 분류는 중심가지의 폭과 수지문의 방향, 시문정도에 따라 구분하였다. 특징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수지문이 좌·우가지의 길이와 대칭으로 배치된 것, 비대칭인 것, 한 쪽으로만 수지문이 시문된 것을 들 수 있다.

1) 수지문 A

선의 굵기는 0.2−0.3cm, 선간격은 0.2−0.4cm이다. 중심가지의 간격은 2.9−3.5cm이다. 기와의 중심부에서 다시 밑으로 가지를 시문하였다. 좌측의 가지가 우측의 가지보다 더 길게 시문되었다.

일련번호	도면번호	도판번호	특징	두께(cm)	출토위치
15	37−3	45−3	수지문평기와. 황갈색. 뒷면에 가는 포흔과 깊게 패인 대칼흔 연질이며 태토는 양호.	1.4	A지구 a건물지내부
16	37−4	45−4	수지문평기와. 갈색. 뒷면에 자잘한 포흔. 경질이나 태토 불량.	1.8	A지구 계단상유구
17	38−1	46−1	수지문평기와. 회청색. 뒷면에 포흔과 두꺼운 도자흔. 연질. 태토 양호.	1.6	A지구 a건물지내부

2) 수지문 B

선의 굵기는 0.2−0.3cm, 선간격은 0.2−0.3cm이다. 중심가지의 간격은 4..1cm이다.
특이하게도 한쪽으로만 가지가 시문되었는데 좌측의 가지는 확인할 수 없다. 수지문 중에서도 확인이 드문 형식중의 하나다.

일련번호	도면번호	도판번호	특징	두께(cm)	출토위치
18	38−2	46−2	수지문평기와. 회청색. 전면에 물손질. 뒷면에 자잘한 포흔. 경질. 태토 양호.	2.4	A지구 a건물지내부
19	38−3	46−3	수지문평기와. 갈색. 뒷면에 포흔. 경질. 태토양호.	1.5	A지구 a건물지내부

3) 수지문 C

선의 굵기는 0.1−0.2cm, 선간격은 0.1−0.2cm이다. 중심가지의 간격은 3.8−4.4cm이다. 중심가지의 배치간격은 일정하지 못하다. 기와 앞면에 세선이 많이 보인다.

일련번호	도면번호	도판번호	특징	두께(cm)	출토위치
20	38-4	46-4	수지문평기와. 회청색. 뒷면에 포흔, 물손질, 대칼흔. 경질. 태토 양호.	1.6	A지구 담장지
21	39-1	47-1	수지문평기와. 회색. 완형기와. 뚜렷한 포흔. 내면에 물손질, 대칼흔, 빗질흔. 연질. 태토 양호.	길이 : 42.6 폭 : 2.6	A지구 a건물지내부
22	39-2	47-2	수지문평기와. 회청색. 뒷면에 포흔과 빗질흔. 경질·태토양호.	1.9	A지구 계단상유구
23	39-3	47-3	수지문평기와. 황갈색. 뒷면에 포흔, 대칼 흔적. 경질. 태토 양호.	2.0	〃
24	39-4	47-4	수지문평기와. 회색. 포흔과 일부에는 손누름흔. 경질. 태토양호.	2.0	〃
25	40-1	48-1	수지문평기와. 회갈색. 표면 마모가 심함. 측면의 도자흔. 앞면에 물손질. 경질. 태토 양호.	2.0	B-2구역 계단상유구

4) 수지문 D

선의 굵기는 0.1-0.2cm, 선간의 간격은 0.2-0.4cm이다. 중심가지의 간격은 2.7-3.5cm이다. 내려 그은 가지는 모두 세선으로 처리되었다. 수지문 A와 비슷하나, 세선처리와 경도, 소성도가 매우 높은 점이 다르다.

일련번호	도면번호	도판번호	특징	두께(cm)	출토위치
26	40-2	48-2	수지문평기와. 회청색. 뒷면에 미세한 포흔과 부분적인 물손질, 손누름흔적. 경질. 태토양호.	1.9	B-2구역 계단상유구
27	40-3	48-3	수지문평기와. 회색. 측면의 도자흔이 뚜렷함. 뒷면에 미세한 포흔. 깊은 대칼흔. 물손질흔. 경질. 태토 양호.	2.2	B-2구역 계단상유구
28	40-4	48-4	수지문평기와. 회색. 포흔과 손누름 자국. 경질. 태토 양호.	1.8	B-2구역 계단상유구

29	40−5	48−5	수지문평기와. 적갈색. 뒷면에 입자가 굵은 포흔, 물손질흔. 연질. 태토 양호.	1.8	A지구 a건물지내부
30	41−1	49−1	수지문평기와. 회갈색. 뒷면에 포흔, 대칼흔, 빗질흔. 연질. 태토양호.	2.0	A지구 a건물지내부

5) 수지문 E

선의 굵기는 0.1−0.3cm이며 중심가지의 간격은 4.8cm이다. 가지가 나가는 방형이 좌우가 대칭되며 동일한 방향으로 횡선이 두줄 시문되어 있다.

일련번호	도면번호	도판번호	특징	두께(cm)	출토위치
31	41−2	49−2	수지문평기와. 회색. 뒷면 대칼흔. 연질. 태토양호.	1.9	B−2구역 계단상유구
32	41−3	49−3	수지문평기와. 회색. 뒷면에 도자흔, 빗질흔, 주름진 포흔. 태토. 경질, 불량.	2.2	〃
33	41−4	49−4	수지문평기와. 회청색. 뒷면에 입자가 가는 포흔, 손누름 자국. 경질. 태토 양호.	2.1	〃
34	41−5	49−5	수지문평기와. 회청색 뒷면에 포흔, 물손질, 빗질 흔. 경질. 태토 양호.	1.9	A지구 계단상유구
35	41−6	49−6	수지문평기와. 황갈색. 앞면 문양은 일부만 남아 있음. 뒷면에 포흔과 대칼흔은 거의 지워짐. 연질. 태토 불량.	1.6	A지구 a건물지내부
36	42−1	50−1	수지문평기와. 회청색. 뒷면에 포흔, 도자흔. 경질. 태토양호.	1.7	A지구 계단상유구
37	42−2	50−2	수지문평기와. 황갈색. 뒷면에 빗질흔. 연질. 태토 양호.	1.8	A지구 a건물지내부

6) 수지문 F

선이 굵기는 0.3−0.5cm, 선간격은 0.1−0.3cm이다. 중심가지의 간격은 3cm내외이다. 수지문 기와중 가장 태선이다. 상대적으로 선 사이 간격이 좁아져, 중심선인 경우는 뻗어나가다 끝이 희미하게 처리된다. 기와는 연질이고 갈색의 색깔을 띤다. 뒷면에는 포흔이 있고 종으로는 폭14cm와 5cm의 깊은 대칼, 도자흔이 보인다. 중앙부에는 횡방향과 사선방향으로 솔질자국이 잘 남아 있다.

일련번호	도면번호	도판번호	특징	두께(cm)	출토위치
38	42-3	50-3	수지문평기와. 숫기와. 뒷면에 포흔, 대칼흔, 손누름, 빗질흔. 연질. 태토 양호.	2.2	B-2구역 계단상유구
39	42-4	50-4	수지문평기와. 회청색. 뒷면에 굵은 포흔과 대칼흔. 경질. 태토 불량.	2.5	〃
40	42-5	50-5	수지문평기와. 회청색. 앞면에 문양 밑으로 확인이 안되는 명문 흔. 측면에 도자흔. 뒷면에 포흔과 대칼흔, 손누름, 빗질흔. 경질. 태토 양호.	2.4	〃
41	43-1	51-1	수지문평기와. 회청색. 뒷면에 포흔과 대칼흔, 손누름 자국. 경질. 태토 양호.	2.6	A지구 c건물지

7) 수지문 G

선의 굵기는 1cm내외이며 선간격은 1-2cm이다. 중심가지의 간격은 2-2.8cm이다. 수지문의 시문간격은 폭이 매우 넓으며, 앞면에는 태토가 불량하여 기포가 형성되어 있다.

일련번호	도면번호	도판번호	특징	두께(cm)	출토위치
42	43-2	51-2	수지문숫기와. 회청색. 측면 도자흔. 뒷면에 포흔, 손누름 흔적. 경질. 태토 불량.	2.1	B-2구역 계단상유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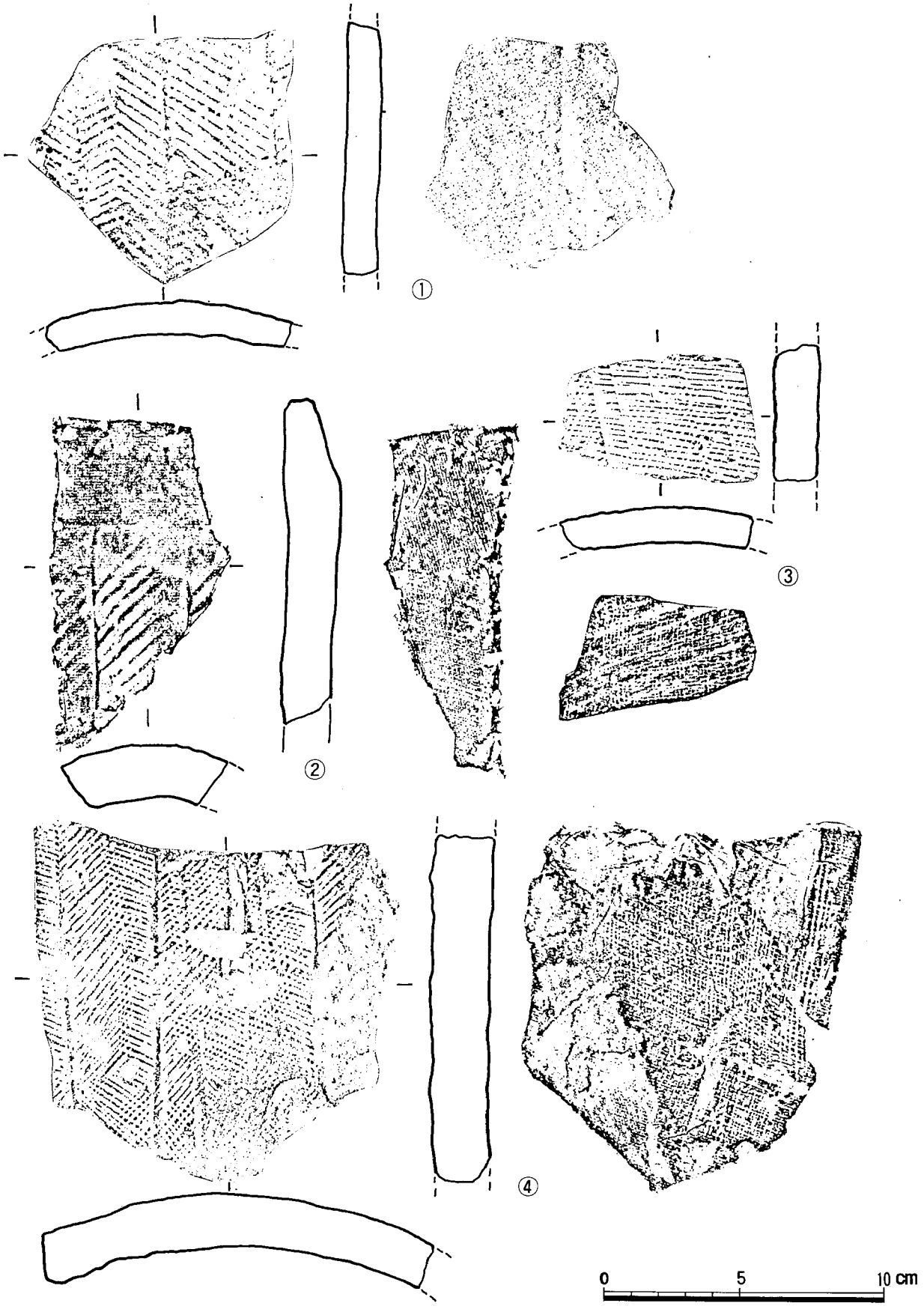
나. 격자문

출토된 격자문은 제격자문이나, 편의상 격자문으로 구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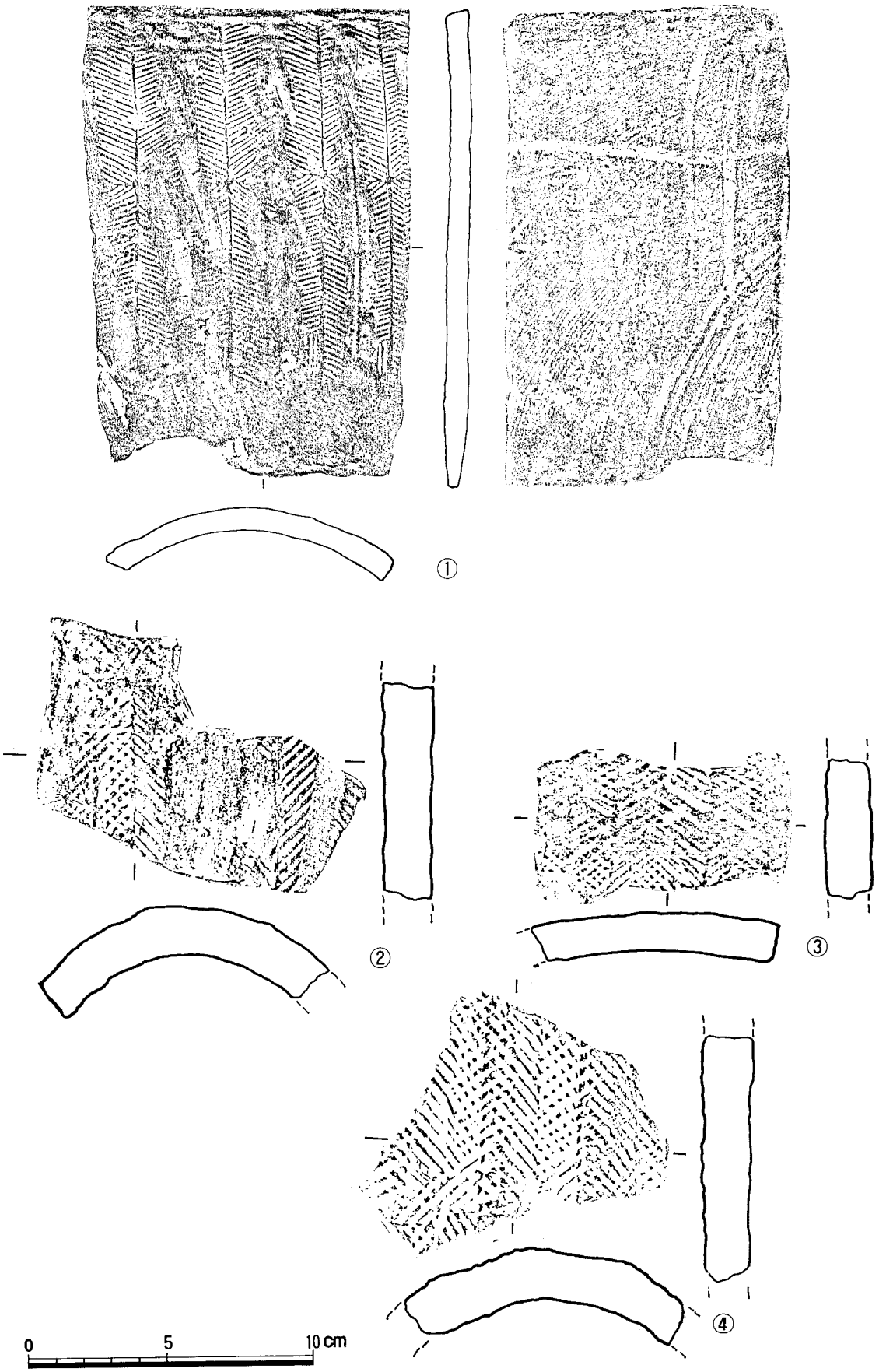
1) 격자문 A

격자문의 크기는 1-1.5cm이며 선분의 굵기는 0.2cm-0.3cm이다. 마름모의 형태가 일정치 않으며 문양은 마모되어 있다. 앞면과 뒷면의 색깔이 다르게 나타나 있다. 앞면은 회색, 뒷면은 갈색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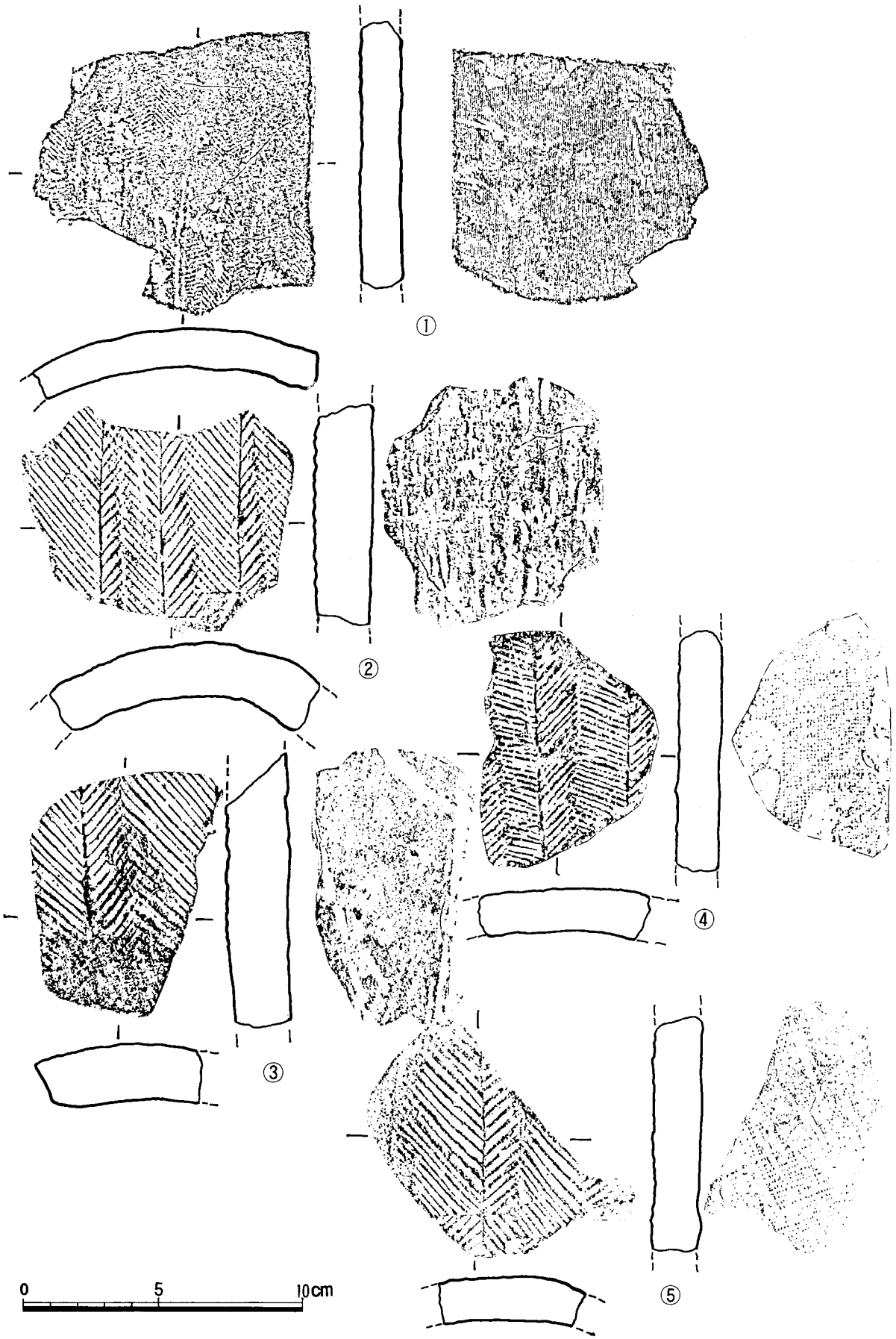
일련번호	도면번호	도판번호	특징	두께(cm)	출토위치
43	43-3	51-3	격자문평기와. 회청색 뒷면에 포흔과 대칼흔, 빗질흔. 경질. 태토 양호.	2.2	A지구 a건물지내부
44	43-4	5-4	격자문평기와. 뒷면에 모래 받침 사용 흔적. 연질. 태토 불량.	2.1	A지구 a건물지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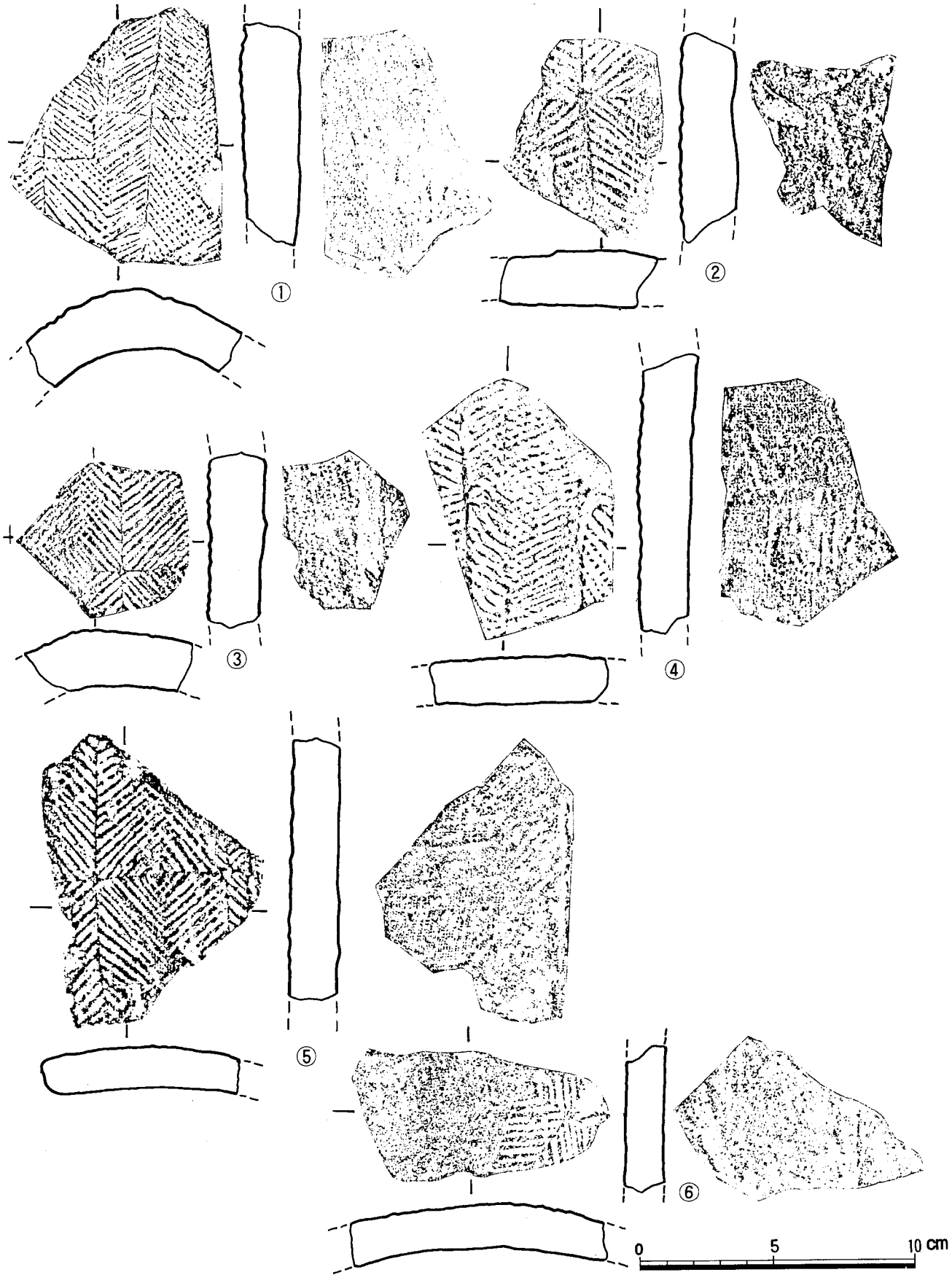
도면 38 A지구 출토 樹枝文 평기와(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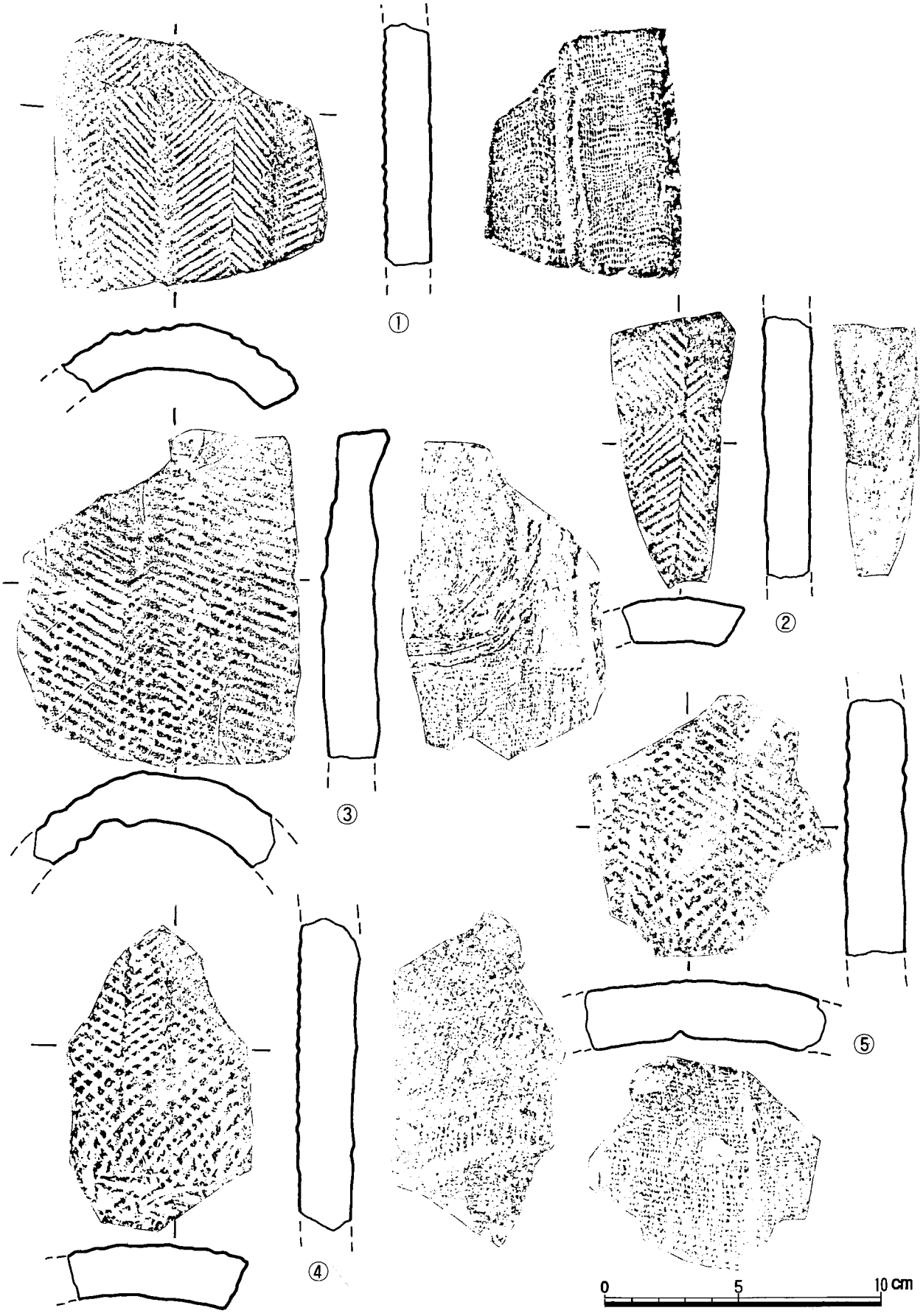
도면 39 A지구 출토 樹枝文 평기와(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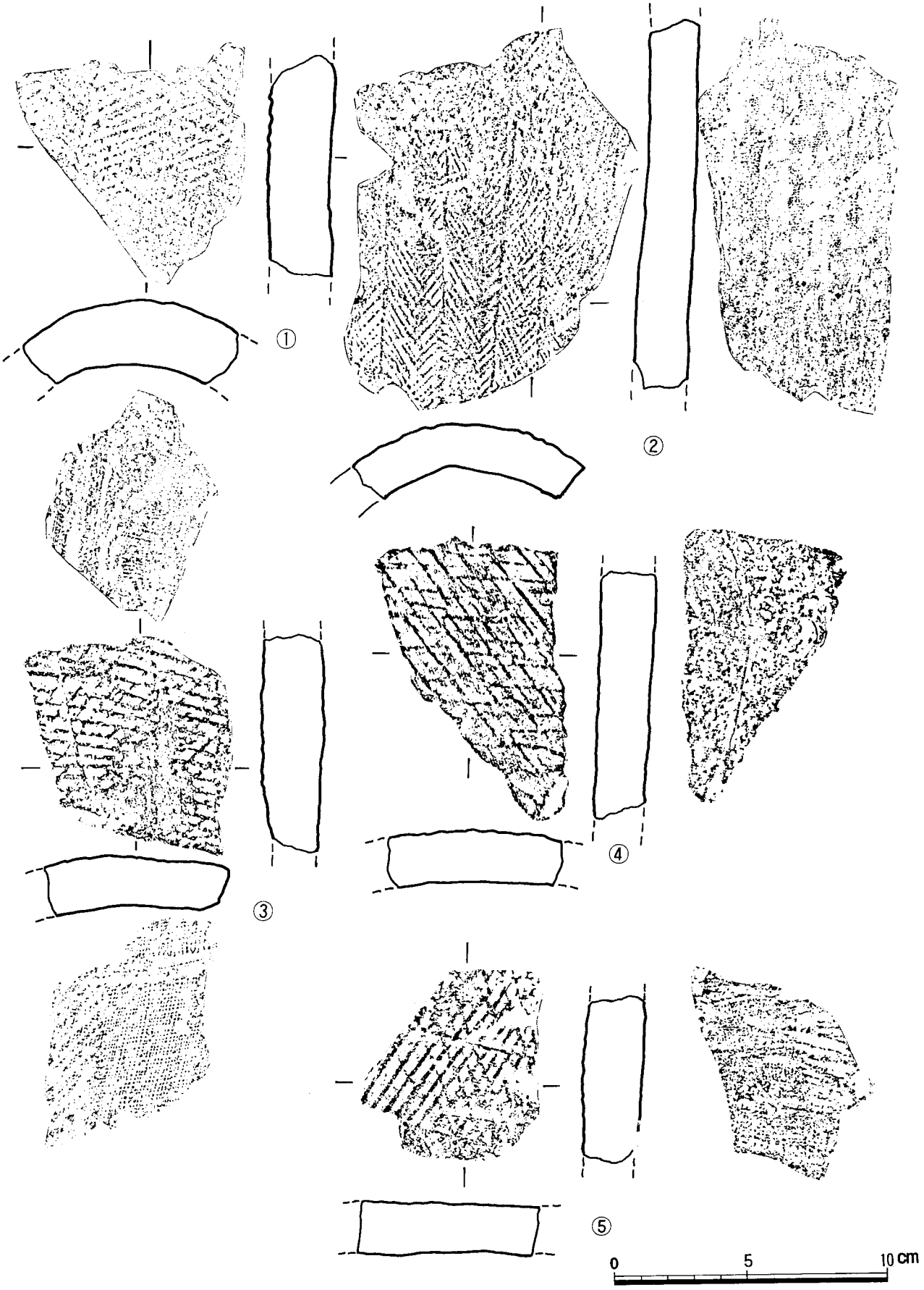
도면 40 A지구 출토 樹枝文 평기와(3)



도면 41 A지구 출토 樹枝文 평기와(4)



도면 42 A지구 출토 樹枝文 평기와(5)



도면 43 A지구 출토 樹枝文·格子文 평기와

2) 격자문 B

격자의 크기는 0.4－0.7cm이며 선분의 굵기는 0.2cm이다. 마름모의 크기가 거의 일정하게 배치되어 있으며 어린문과 비슷하다. 격자문 A와는 종으로 내려가는 선의 간격이 다르다.

일련번호	도면번호	도판번호	특징	두께(cm)	출토위치
45	43－5	51－5	격자문평기와. 황갈색. 뒷면에 포흔과 대칼흔, 빗질흔. 경질. 태토 양호.	2.1	A지구 a건물지내부

나. 복합문

법화사에서 출토된 기와중에서 복합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수지문에 버금가는데 동일한 양식의 복합문인 경우의 수가 극히 적다. 복합문인 경우 크게 대분하면 수지문에 다른 문양을 시문한 것과 기하학적인 도안을 한것 두가지가 있다.

1) 복합문 A

수지문에 장방형 테두리를 연속 시문한 형식이다. 수지문의 굵기는 01.－0.3cm이며 선간격은 4.3cm 내외이다. 수지문인 경우는 중심가지가 두줄로 시문되어 있고 그 폭은 0.5cm이다. 수지문의 좌·우 가지는 대칭을 이루고 장방형의 문양은 수지문 중심에서 아래로 역 시문하여 복합시켰다. 장방형의 문양이 가로의 길이는 3.8cm이고 세로는 5.3cm이다. 가로 3줄, 세로 4줄로 연속 시문되었고 굵기는 0.1－0.3cm이다. 바깥쪽의 선이 훨씬 굵게 시문되었고, 내부로 갈수록 선이 위축되고 방형의 테두리안에는 3조의 선으로써 서로 엇갈리게 배치되었다.

일련번호	도면번호	도판번호	특징	두께	출토위치
46	44－1	52－1	복합문숫기와. 회청색. 뒷면에 미세한 포흔과 대칼흔적, 손누름자국. 경질. 태토 양호.	1.8	A지구 a건물지내부
47	44－2	52－2	복합문평기와. 갈색. 전면에 2줄의 음각턱. 뒷면에 포흔, 전반적인 물손질, 대칼흔적. 연질. 태토불량.	1.8	〃
48	44－3	52－3	복합문평기와. 회청색. 뒷면에 포흔, 손누름으로 흔적. 태토 불량.	1.9	〃
49	44－4	52－4	복합문평기와 회청색. 뒷면에 포흔, 부분적인 손누름. 경질. 태토 불량.	1.9	A지구 a건물지내부
50	44－5	52－5	복합문평기와. 회청색. 뒷면에 포흔, 손누름 자국. 태토 불량.	1.9	A지구 a건물지내부

51	45−1	53−1	복합문평기와. 전면에 3줄의 음각선 존재. 측면에 도자흔. 뒷면에 포흔, 대칼, 물손질, 빗질흔적. 연질. 태토 양호.	1.7	A지구 a건물지내부
52	45−2	53−2	복합문평기와. 회청색. 뒷면에 깊게 포흔, 대칼흔. 경질. 태토 양호.	1.5	A−2구역 계단상유구
53	45−3	53−3	복합문평기와. 회청색. 뒷면에 포흔, 손누름자국으로 보이는 눌림 흔적. 경질 . 태토 양호.	1.9	A지구 a건물지내부

2) 복합문 B

수지문에 원문을 더한 형식이다. 수지문의 굵기는 0.1−0.3cm이며 선간격은 0.2−0.3cm이다. 중심가지의 간격은 4.3cm이며 중심가지가 끝나는 지점으로부터 원이 시문되었다. 추가된 원문은 4겹으로 시문되었고 가장 안쪽 원의 지름이 1.5cm이고 바깥쪽의 지름이 4.2cm이다. 원안에는 수지문의 중심가지와 대칭으로 횡선을 한줄 더 시문하였다.

일련번호	도면번호	도판번호	특징	두께(cm)	출토위치
54	45−4	53−4	복합문숫기와. 황갈색. 앞면에 지워짐이 심함. 뒷면에 미세한 포흔과 대칼수법, 손누름 흔. 연질. 태토 불량.	2.8	A지구 a건물지내부
55	46−1	54−1	복합문평기와. 회청색. 앞면에 균열이 심함. 뒷면에 포흔. 경질. 태토 불량.	2.0	〃
56	46−2	54−2	복합문평기와. 갈색. 뒷면은 마모가 심하고 대칼수법이 보임. 연질. 태토 양호.	2.3	A지구 a건물지내부

3) 복합문 C

수지문에 마름모 모양을 덧시문한 기와이다. 수지문의 굵기는 0.1cm이고 선간격은 0.2cm이다. 중심가지의 간격은 2.2cm이며 겹가지가 만나는 지점에 세로운 선을 추가하였다. 마름모의 크기는 2.1×2.5cm이며 4−5개의 선이 겹쳐서 시문되었다. 마름모와 수지문 사이에는 직경 2cm의 띠가 둘러져 있다.

일련번호	도면번호	도판번호	특징	두께(cm)	출토위치
57	46−3	54−3	복합문숫기와. 갈색. 뒷면에 포흔, 물손질수법. 연질. 태토 양호.	1.6	A지구 a건물지내부

58	46−4	54−4	복합문평기와. 회청색. 뒷면에 포흔과 대칼, 손누름 흔적. 경질. 태토 양호.	1.8	A지구 a건물지내부

4) 복합문 D

수지문에 방패연 무늬가 시문된 형식이다. 수지문의 굵기는 0.1−0.3cm이고 선간격의 폭도 비슷하다. 중심가지의 간격은 3cm이다. 방패무늬는 3겹으로 시문되었는데 굵기는 0.1−0.3cm이고, 그 모양은 일정치 않다.

일련번호	도면번호	도판번호	특징	두께(cm)	출토위치
59	46−5	54−5	복합문평기와. 회갈색. 뒷면에 포흔. 연질. 태토 불량.	2.7	A지구 a건물지내부

5) 복합문 E

수지문에 세로로 선문이 추가 시문된 형식이다. 수지문인 경우는 선의 굵기가 0.1−0.3cm이고 선간격은 0.2−0.4cm이다. 중심가지의 간격은 3.2−3.5cm이다. 선문은 굵기가 0.15−0.4cm이며 선간격의 시문폭은 0.2−0.4cm이다. 선문은 상당히 지워져 있으며, 선문의 시문 방향으로 폭 1.2cm의 골이 패여 있다. 솔질을 한 흔적이 보인다.

일련번호	도면번호	도판번호	특징	두께(cm)	출토위치
60	47−1	55−1	복합문평기와. 황갈색. 뒷면에 포흔, 도자흔. 연질. 태토 양호.	2.1	A지구 a건물지내부
61	47−2	55−2	복합문평기와. 갈색. 앞면상태가 불량. 뒷면에 포흔, 빗질흔, 연질. 태토 양호.	1.7	A지구 b건물지내부
62	47−3	55−3	복합문평기와. 회청색. 기와앞면에 걸친 균열. 뒷면에 포흔과 도자흔. 경질. 태토 불량.	2.2	A지구 a건물지 동쪽 기와보도
63	47−4	55−4	복합문평기와. 전면에 종 방향으로 음각된 턱. 뒷면에 포흔, 빗질흔. 경질. 태토 불량.	1.7	A지구 b건물지 북쪽 기와보도
64	47−5	55−5	복합문평기와. 회청색 뒷면에 포흔, 대칼, 빗질흔. 연질. 태토 양호.	2.4	B−2구역 계단상유구

6) 복합문 F

수지문에 나무잎사귀 모양의 무늬가 첨가된 형식이다. 수지문의 굵기는 0.1-0.2cm이며 선간격은 0.3cm이고 중심가지의 간격은 2cm이다. 가지와 가지가 서로 겹쳐지지 않도록 중간부위에 분할선이 시문되었다. 대나무 잎사귀모양은 가로 2.2cm와 세로 6.8cm의 직사각형안에 불규칙하게 사선방향으로 시문되었다. 내면 처리는 포흔과 잔주름 흔적이 보이며 기와의 색깔은 회청색 위주다.

일련번호	도면번호	도판번호	특징	두께(cm)	출토위치
65	48-1	56-1	복합문평기와. 회갈색. 모든면에 걸쳐 심한 마모. 부분에 따라 두께의 극심한 차이가 남. 뒷면에 물손질과 빗질흔적. 태토 양호.	1.9	B-2구역 계단상유구
66	48-2	56-2	복합문평기와. 회청색. 뒷면에 포흔, 조밀한 빗질흔적. 경질. 태토 양호.	1.5	B-2구역 계단상유구

7) 복합문 G

수지문과 격자문의 복합된 형태이다. 수지문의 굵기는 0.2-0.5cm이고 선간격은 0.2-0.4cm이며 중심가지는 2줄로 시문되어있다. 중심가지의 간격은 4.6cm이다. 격자문은 수지문의 윗부분에 시문되었는데, 격자의 크기는 가로 4.9cm, 세로 5cm로 정격자문이며 수지문의 중심가지에 이어진 부분에는 격자가 없다.

일련번호	도면번호	도판번호	특징	두께(cm)	출토위치
67	48-3	56-3	복합문평기와. 회청색. 앞, 뒷면 모두 한쪽으로 쓸어내린 빗질 자국. 뒷면에 포흔. 연질. 태토 양호.	2.0	A지구 c건물지내부

8) 복합문 H

수지문이 상하로 시문되고 중앙부에 마름모가 중복 시문된 형식이다. 수지문의 굵기는 0.1cm내외로 가늘게 세선처리되 있다. 선간격은 2.5-4.0cm이다. 중간부분의 마름모 문양은 한변의 길이가 약 2cm정도이고 내부에는 선을 교차시켜서 다시 네등분 구획한 것과 횡 혹은 사선방향으로 연속적인 빗금처리를 한 것이 있다.

일련번호	도면번호	도판번호	특징	두께(cm)	출토위치
68	48-4	56-4	복합문평기와. 회청색. 뒷면에 태토불량으로 인한 균열흔과 포흔, 손누름 흔적. 경질.	2.5	A지구 c건물지내부

69	49－1	57－1	복합문평기와. 회청색. 뒷면에 걸친 균열. 앞면에 세로로 도자흔. 뒷면에 미세한 포흔, 물손질, 도자흔. 경질. 태토 불량.	2.0	A지구 a건물지내부
70	49－2	57－2	복합문평기와. 회청색. 뒷면에 미세한 포흔, 손누름 흔적. 경질. 태토 불량.	1.8	A지구 a건물지내부

9) 복합문 I

수지문에 굵은 태선이 종방향으로 첨가되어진 형식이다. 수지문의 굵기는 0.1－0.3cm, 선간격은 0.2－0.3cm, 중심가지의 간격은 1.5－2.5cm이다. 線條文의 경우는 복합문 E와는 달리 수지문과 중간 경계선을 기준으로 밑으로 시문되었다. 선의 굵기는 0.2－0.3cm이며 선 간격은 0.1－0.4cm이다.

일련번호	도면번호	도판번호	특징	두께(cm)	출토위치
71	49－3	57－3	복합문숫기와. 회색. 뒷면에 미세한 포흔, 대칼, 손누름 흔적. 경질. 태토 양호.	2.0	B－2구역 계단상유구
72	49－4	57－4	복합문숫기와. 회청색. 뒷면에 종방향으로 긴 주름, 정연한 포흔. 경질. 태토 양호.	1.7	A지구 b건물지내부

10) 복합문 J

복합문에서 가장 특이한 문양인데, 창모양의 시문부 밑으로 좌우로 파장이 퍼져나가는 문양이나, 간간히 횡으로 선문이 시문된 형태이다.

부분적으로 시문된 선문의 경우에는 선의 굵기가 1cm를 넘지 못하고 있고 선과 선사의 간격도 2cm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또한 선문은 창문양과 한줄의 횡선을 경계로 시문되었는데 횡선의 굵기는 0.1－0.2cm이다.

일련번호	도면번호	도판번호	특징	두께(cm)	출토위치
73	50－1	58－1	복합문평기와. 회청색. 뒷면에 포흔. 경질. 태토양호.	2.3	A지구 b건물지내부

11) 복합문 K

수지문에 제선문이 복합되어진 형식이다. 수지문의 굵기는 0.1－0.3cm, 선간격은 0.2－0.3cm이다. 중심가지의 간격은 대부분이 지워져 있어서 그 크기를 알 수가 없다. 제선문의 굵기는 0.2－0.3cm이며,

시문된 중앙부에는 손누름 흔이 남아있다.

일련번호	도면번호	도판번호	특징	두께(cm)	출토위치
74	50-2	58-2	복합문평기와. 회청색. 앞면 일부에 손눌림 자국, 포흔. 뒷면에 포흔, 물손질, 대칼흔. 경질. 태토 양호.	2.3	A지구 a건물지내부
75	50-3	58-3	복합문평기와. 회청색. 뒷면에 포흔과 손누름, 대칼흔. 경질. 태토 양호.	1.8	A지구 a건물지내부
76	50-4	58-4	복합문평기와. 황갈색. 뒷면에 미세한 포흔과 대칼 흔적이 보이나 소성도가 낮음으로 인해 심한 마모상태. 태토 양호.	2.3	A-2구역 계단상유구
77	51-1	59-1	복합문평기와. 회색. 뒷면에 미세한 포흔과 대칼 흔적. 연질. 태토 양호.	2.4	A지구 담장지
78	51-2	59-2	복합문평기와. 회청색. 뒷면에 미세한 포흔. 소성도가 매우 높음. 경질. 태토양호.	2.7	A지구 a건물지내부

12) 복합문 L

線條文과 格子文이 복합된 형식이다. 선조문은 중앙부에 일정간격으로 수지문에서 볼 수 있는 중심가지와 같은 간선을 시문하였는데, 그 간격은 3.8cm이다. 격자문은 선조문 사이에서 끼워진 형태인데 약 5cm 범위내에 시문되었다. 문양이 뚜렷하고 격자간의 간격도 일정하게 나타난다. 배면 처리는 날카로운 시문구를 사용하여 한쪽 방향으로 긁어 내렸다.

일련번호	도면번호	도판번호	특징	두께(cm)	출토위치
79	51-3	59-3	복합문평기와. 회색. 뒷면 미세한 포흔, 손누름 자국. 경질. 태토 양호.	1.9	A지구 a건물지내부

13) 복합문 M

수지문이 시문된 기와 중앙부를 중심으로 'A'字형태의 문양을 연속으로 배치한 기와이다. 수지문의 중간가지 간격은 4.8cm이고 선의 굵기는 0.1-0.2cm, 선간격은 0.2-0.3cm이다. 'A'자 문양이 시문된 중앙부 테두리는 5cm가량 된다. 시문된 문양의 두께는 0.3-0.5cm이다. 'A'字는 기와면을 따라 계속옆으로 배치되고 밑부분은 역으로 시문되었다.

일련번호	도면번호	도판번호	특징	두께(cm)	출토위치
80	51-4	59-4	복합문평기와. 회청색. 뒷면에 미세한 포흔, 물손질, 손누름, 빗질흔적. 경질, 태토 불량.	2.7	A지구 a건물지내부
81	51-5	59-5	복합문평기와. 회청색. 뒷면에 포흔, 손누름 흔적. 경질. 태토 불량.	2.1	A지구 a건물지내부
82	52-1	60-1	복합문평기와. 회색. 측면 정연하게 절단. 뒷면에 대칼흔, 손누름 흔적. 연질. 태토 양호.	2.8	A지구 a건물지내부
83	52-2	60-2	복합문평기와. 회청색. 뒷면에 포흔과 종방향의 대칼흔, 일부 물손질. 경질. 태토 양호.	2.0	A지구 a건물지동쪽 기와보도

14) 복합문 N

수지문기와의 중심가지에 자그마한 원을 돌린 형태이다. 이러한 원은 수지문이 곁가지와 만나는 부분에도 시문되었다. 수지문의 중심가지 간격은 3.8cm이며 선의 굵기는 0.1cm내외이다. 원의 지름은 0.7cm이다. 시문 깊이가 얇아 조잡한 느낌을 준다.

일련번호	도면번호	도판번호	특징	두께(cm)	출토위치
84	52-3	60-3	복합문평기와. 회청색. 뒷면에 불규칙한 포흔. 경질. 태토불량.	2.3	A지구 계단상유구

15) 복합문 O

수지문에 파상문이 혼합된 형식이다. 완전한 원문이 아니며 기와의 소성도가 약하다. 수지문의 굵기는 0.1-0.3cm이며 선간격은 0.3-0.4cm내외이다. 중심가지의 간격은 3.2-3.8cm이고 중심가지의 두께는 0.1-0.2cm이다. 가지가 한편으로만 시문된 예도 있다. 파상문은 3-4겹으로 씌워져 있는데 방향이 일정하지 않다. 파상문이 시문된 두께는 0.2-0.3cm이며 간격은 0.3-0.4cm내외이다.

일련번호	도면번호	도판번호	특징	두께(cm)	출토위치
85	52-4	60-4	복합문평기와. 황갈색. 뒷면에 미세한 포흔, 깊은 대칼흔. 연질. 태토 불량.	2.4	A지구 a건물지내부
86	52-5	60-5	복합문평기와. 적갈색. 뒷면에 포흔, 손톱으로 찍어 누른 흔적. 태토 불량.	2.3	A지구 a건물지내부

87	52-6	60-6	복합문 숫기와 갈색. 앞, 뒷면 심한 마모. 뒷면에 포흔, 빗질흔. 연질. 태토 불량.	2.0	A지구 담장지

16) 복합문 P

수지문이 시문된 기와의 중간부분에 3-4겹의 횡선을 찍어 누르듯이 시문한 형식이다. 수지문이 완성된 이후에 의도적으로 날카로운 쇠줄과 같은 용구로 덧시문한 것으로 파악된다. 수지문의 굵기는 0.3-0.5cm이며, 선간격은 불규칙하게 되어 있다. 반면, 중앙부의 횡선은 폭 0.2cm 정도로 일정하게 3-4줄 시문되어 있다. 기와 뒷면에는 횡선과 동일한 방향으로 도자흔이 길게 두줄이 있고 수직방향으로는 한줄의 빗질흔적이 있다.

일련번호	도면번호	도판번호	특징	두께(cm)	출토위치
88	53-1	61-1	복합문평기와. 회청색. 앞면 일부에 손누름 자국. 뒷면에 포흔, 대칼흔, 빗질흔적. 연질. 태토 불량.	2.5	A지구 a건물지내부
89	53-2	61-2	복합문평기와. 회색. 뒷면에 미세한포흔, 깊은 대칼자국, 빗질흔. 경질. 태토 양호.	2.0	A지구 a건물지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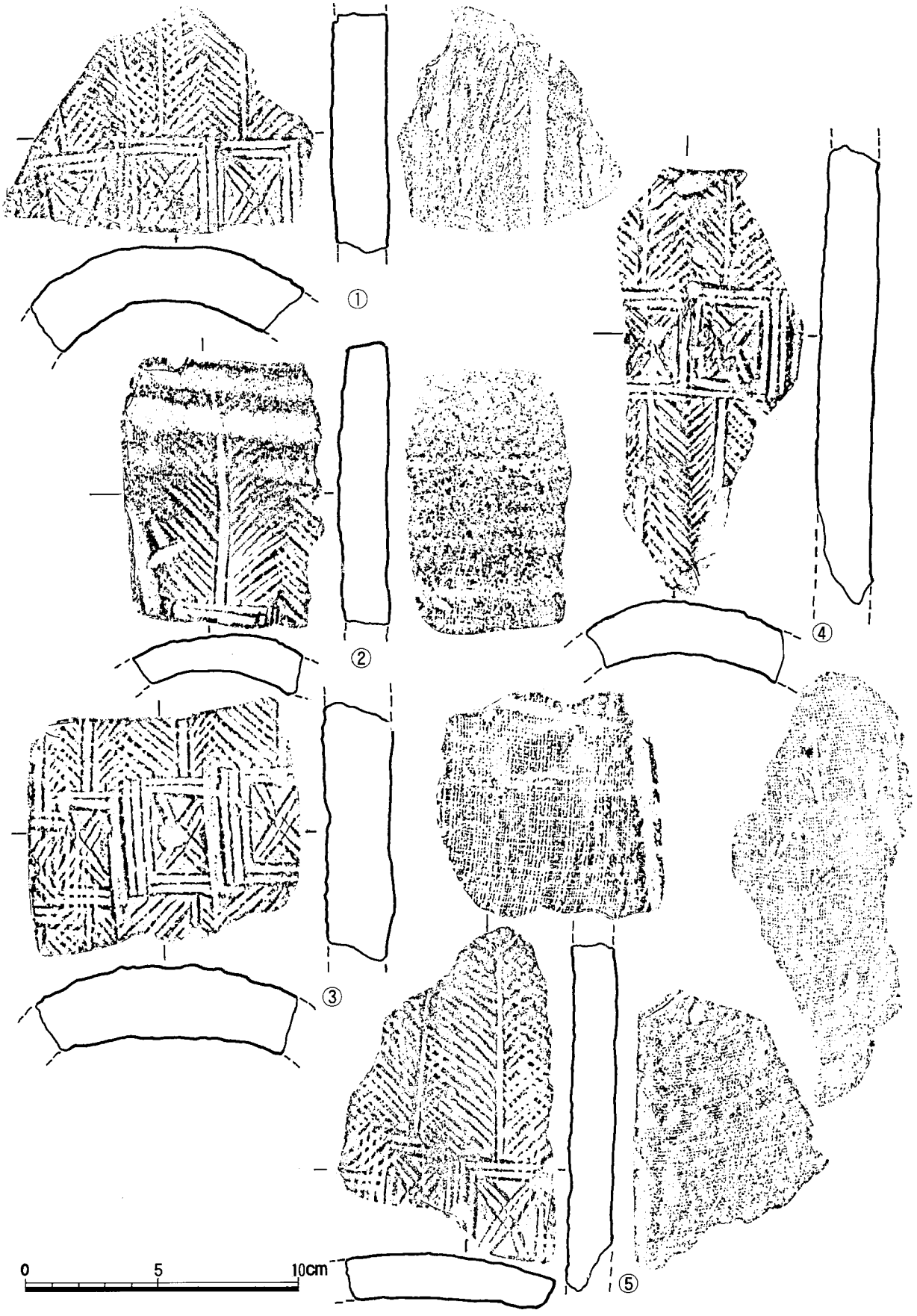
17) 복합문 Q

복합문 N과 같은 방식으로 수지문에다 'X'字 모양의 홈집을 낸 형식이다. 수지문의 굵기는 0.1-0.2cm, 선간격은 0.4-0.5cm, 중심가지 간격은 4.0-4.6cm로 수지문 A의 형식이다. X자 모양의 홈집은 0.2cm의 깊이로 수지문의 중심가지와 교차하게 시문되어 있다. 뒷면에는 전반적으로 포흔이 보이며 수직방향으로 폭 0.7-0.8cm의 골이 패어 있고 횡방향으로는 솔로 쓸어낸 자국과 같은 찰과흔이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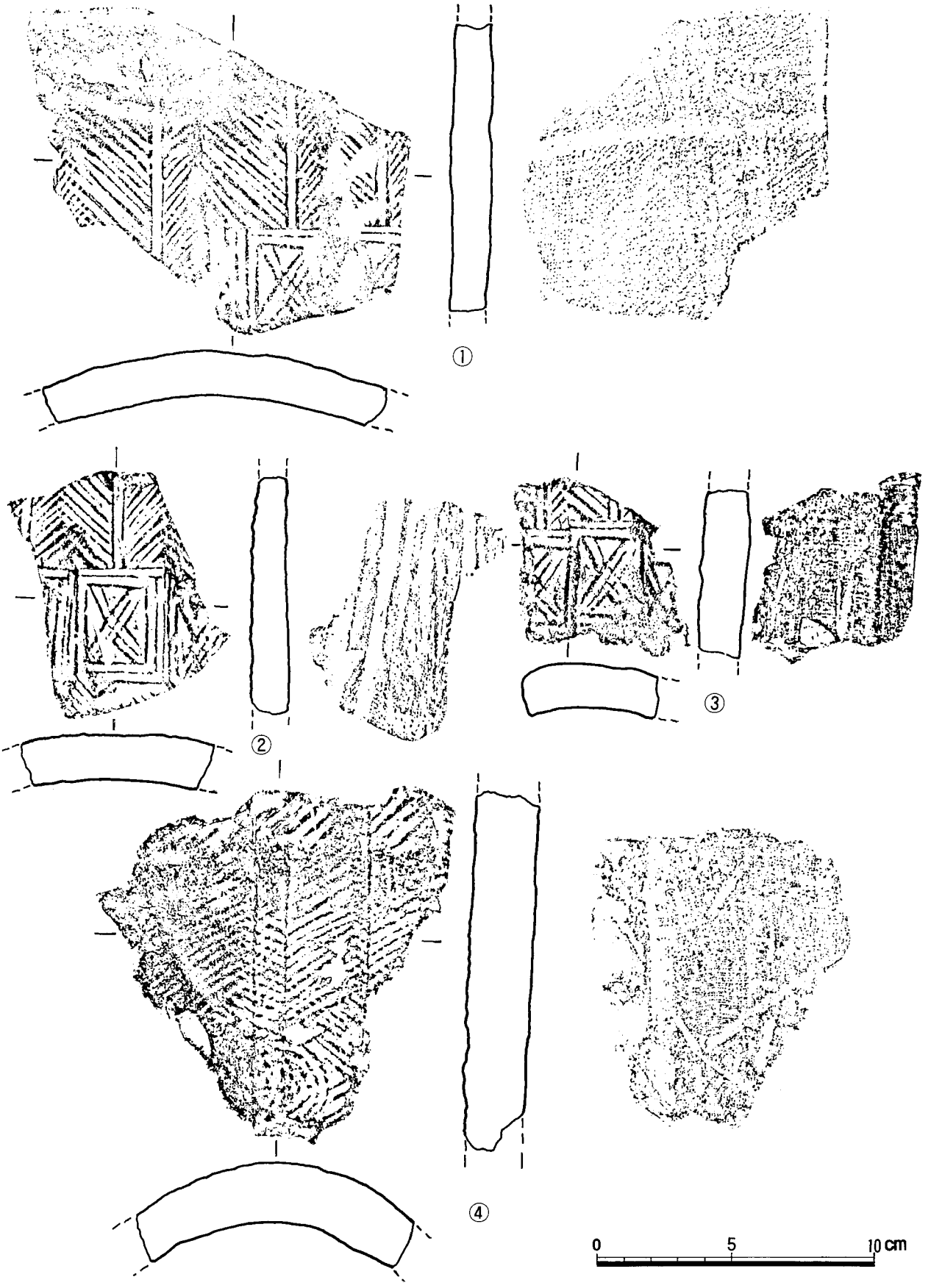
일련번호	도면번호	도판번호	특징	두께(cm)	출토위치
90	53-3	61-3	복합문숫기와. 회청색. 뒷면에 미세한 포흔, 대칼흔, 물묻은 빗으로 여러 번 쓸어내린 흔적. 경질. 태토 불량	1.9	B-2구역 계단상유구

4. 異形기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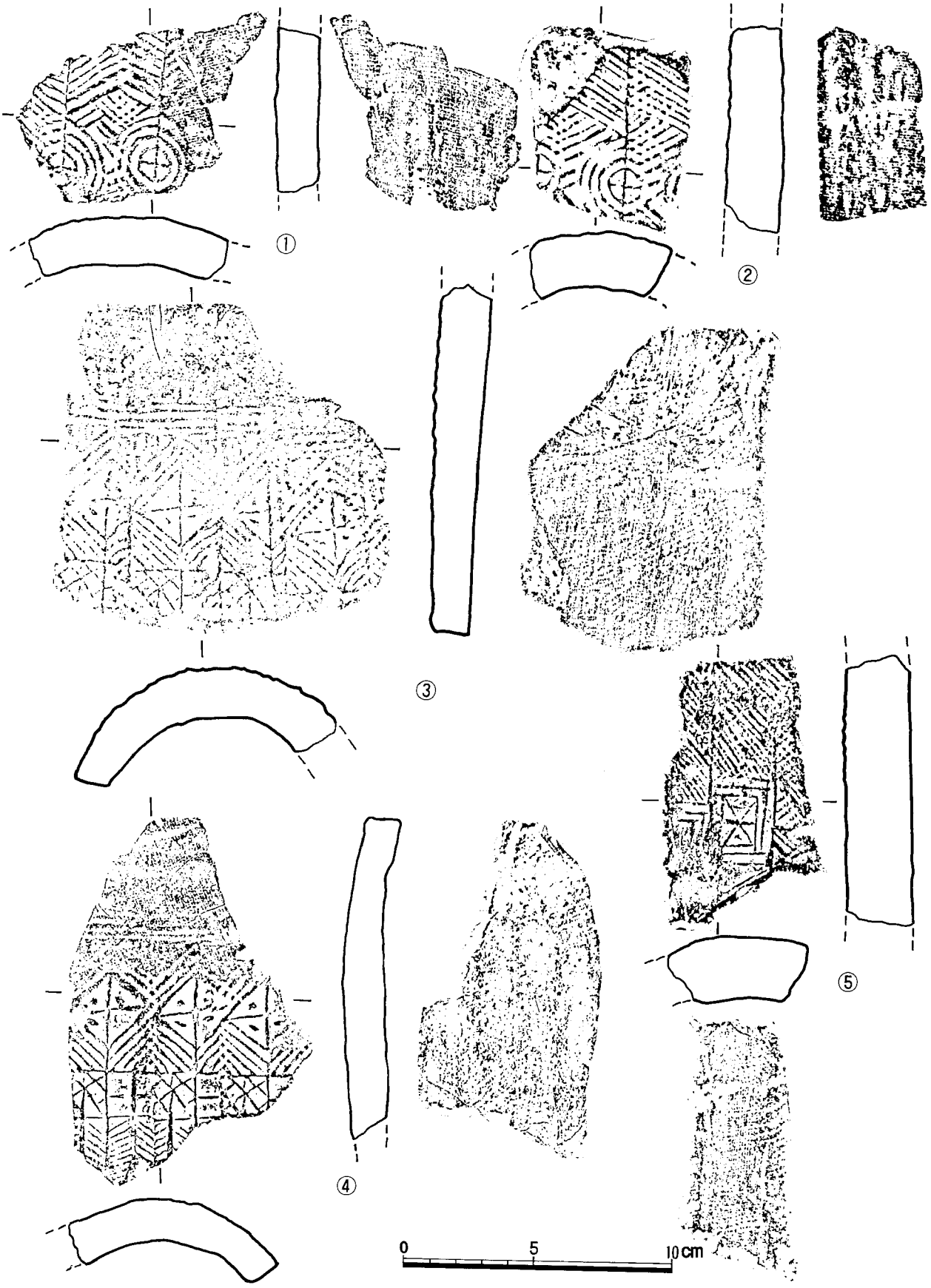
기와의 틀을 전반적으로 평기와에 속하나 문양상 다른 수지문·복합문·격자문과 비교되어 이형기와로 분류한 것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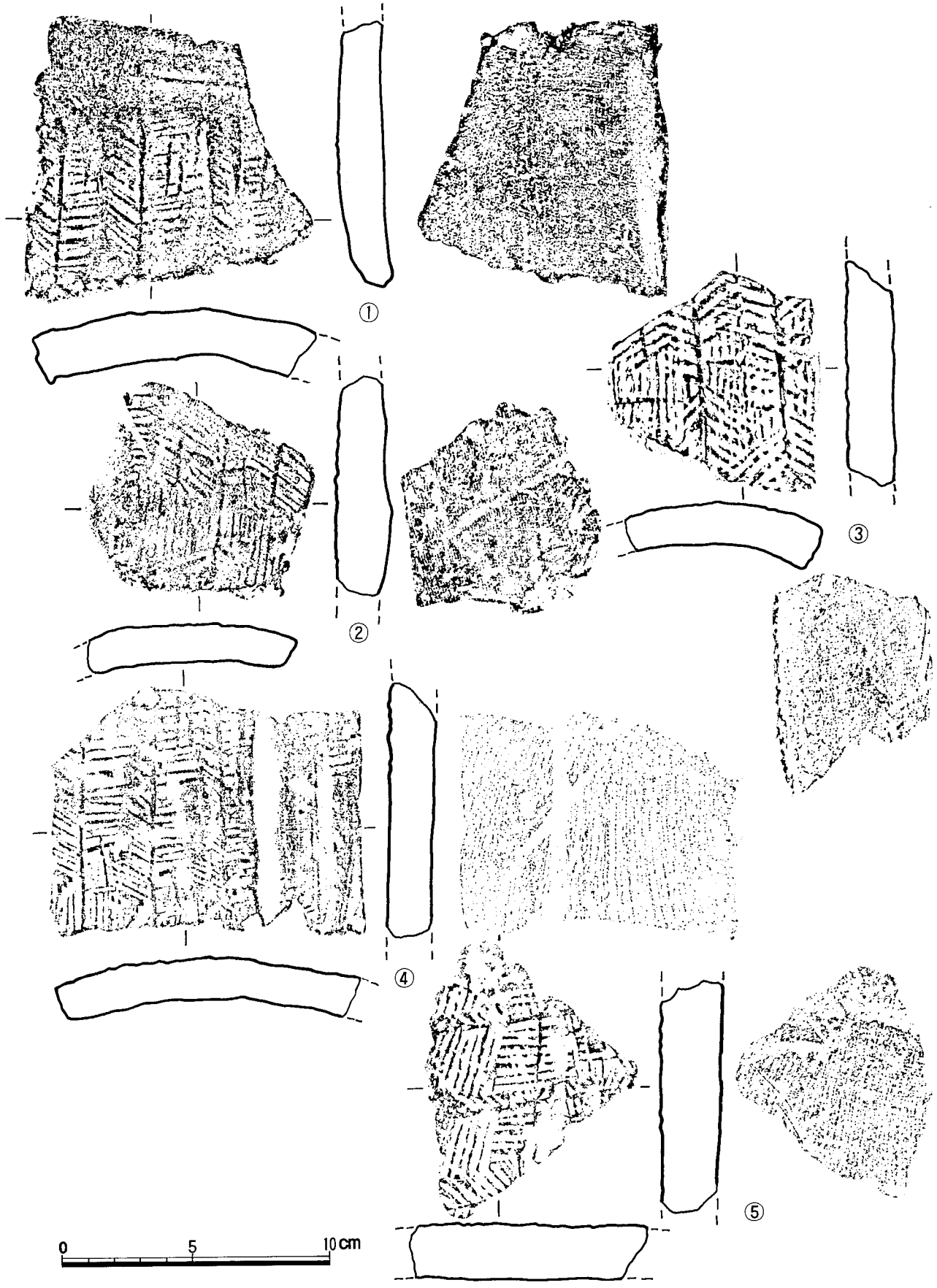
도면 44 A지구 출토 복합문 평기와(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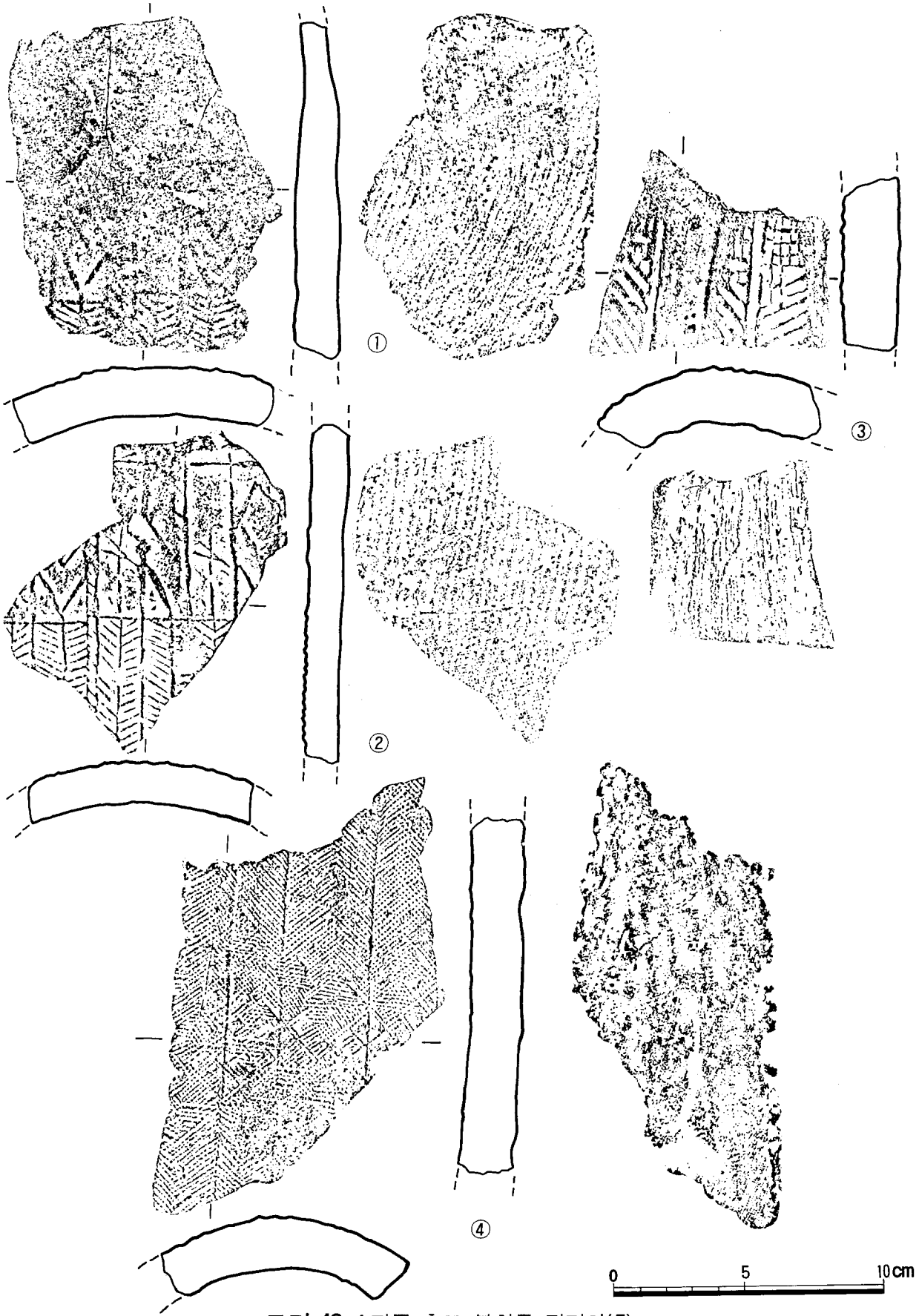
도면 45 A지구 출토 복합문 평기와(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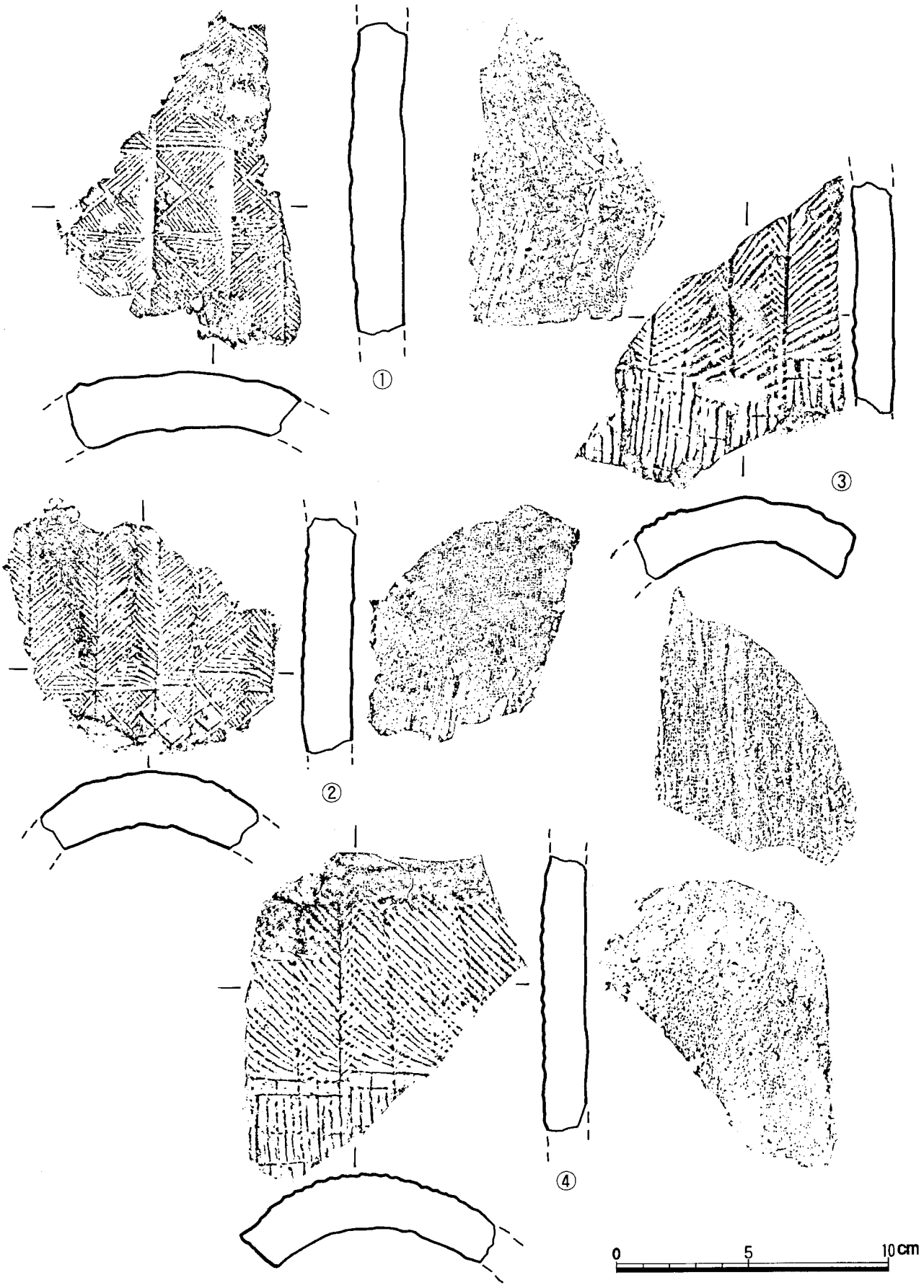
도면 46 A지구 출토 복합문 평기와(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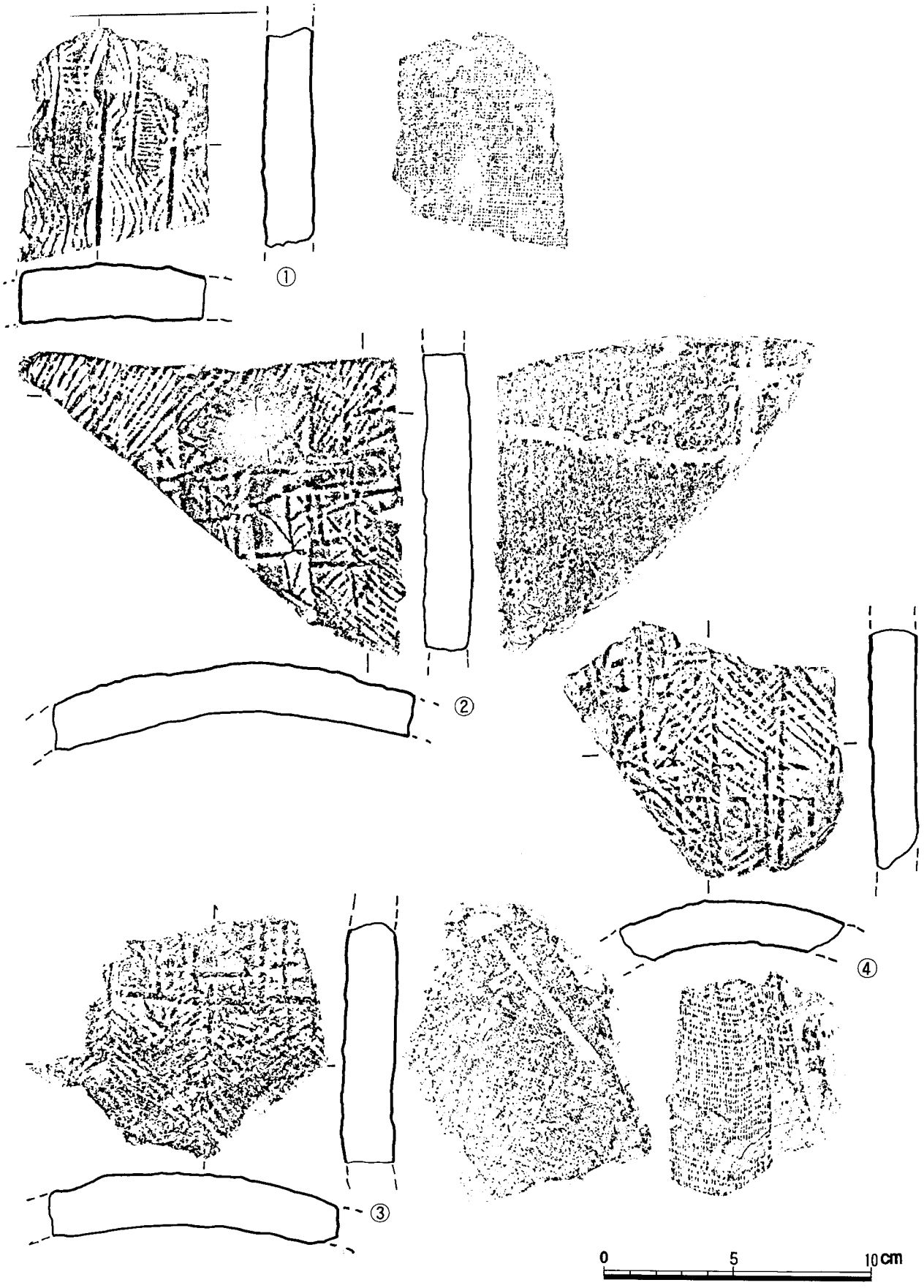
도면 47 A지구 출토 복합문 평기와(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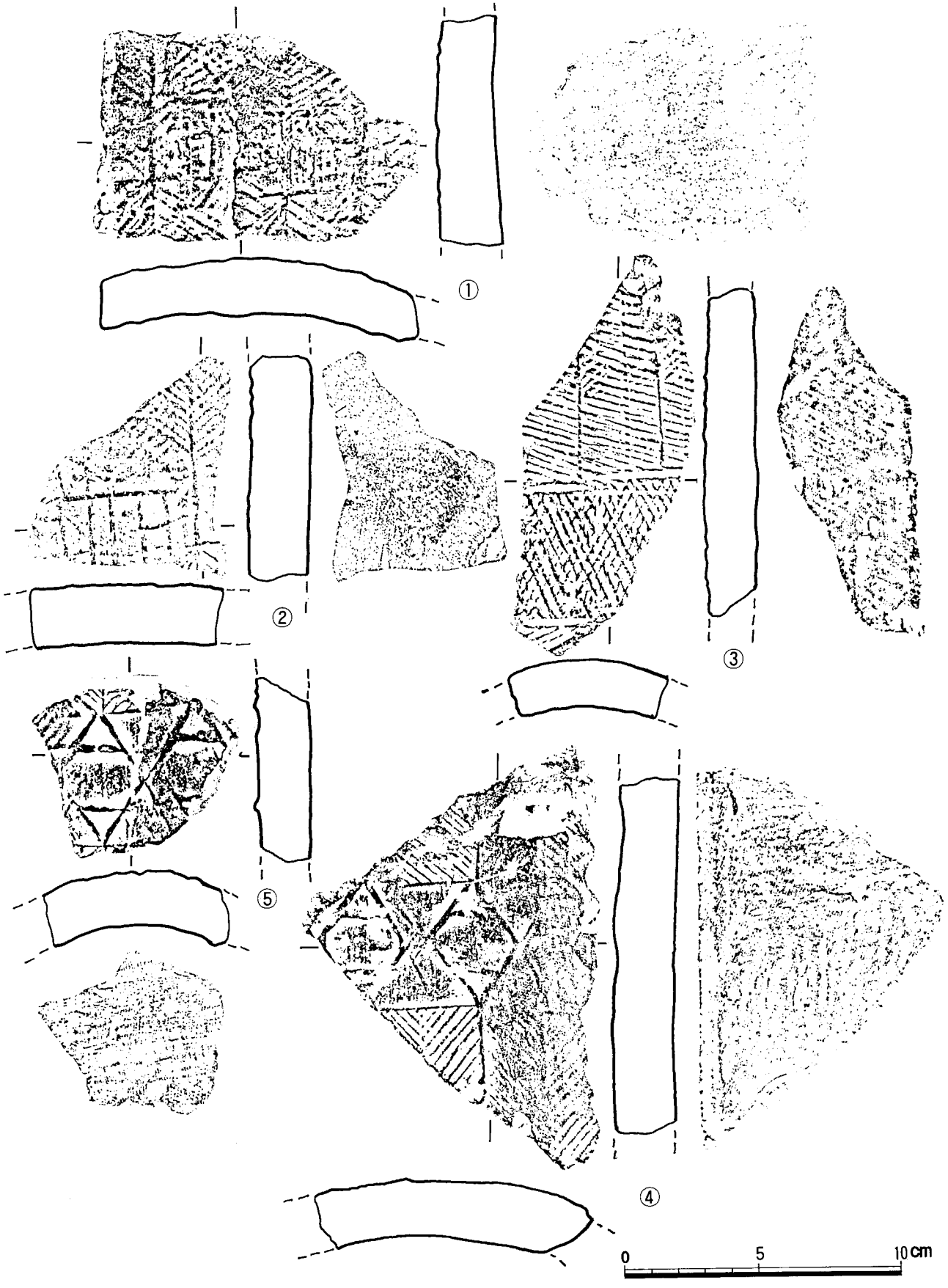
도면 48 A지구 출토 복합문 평기와(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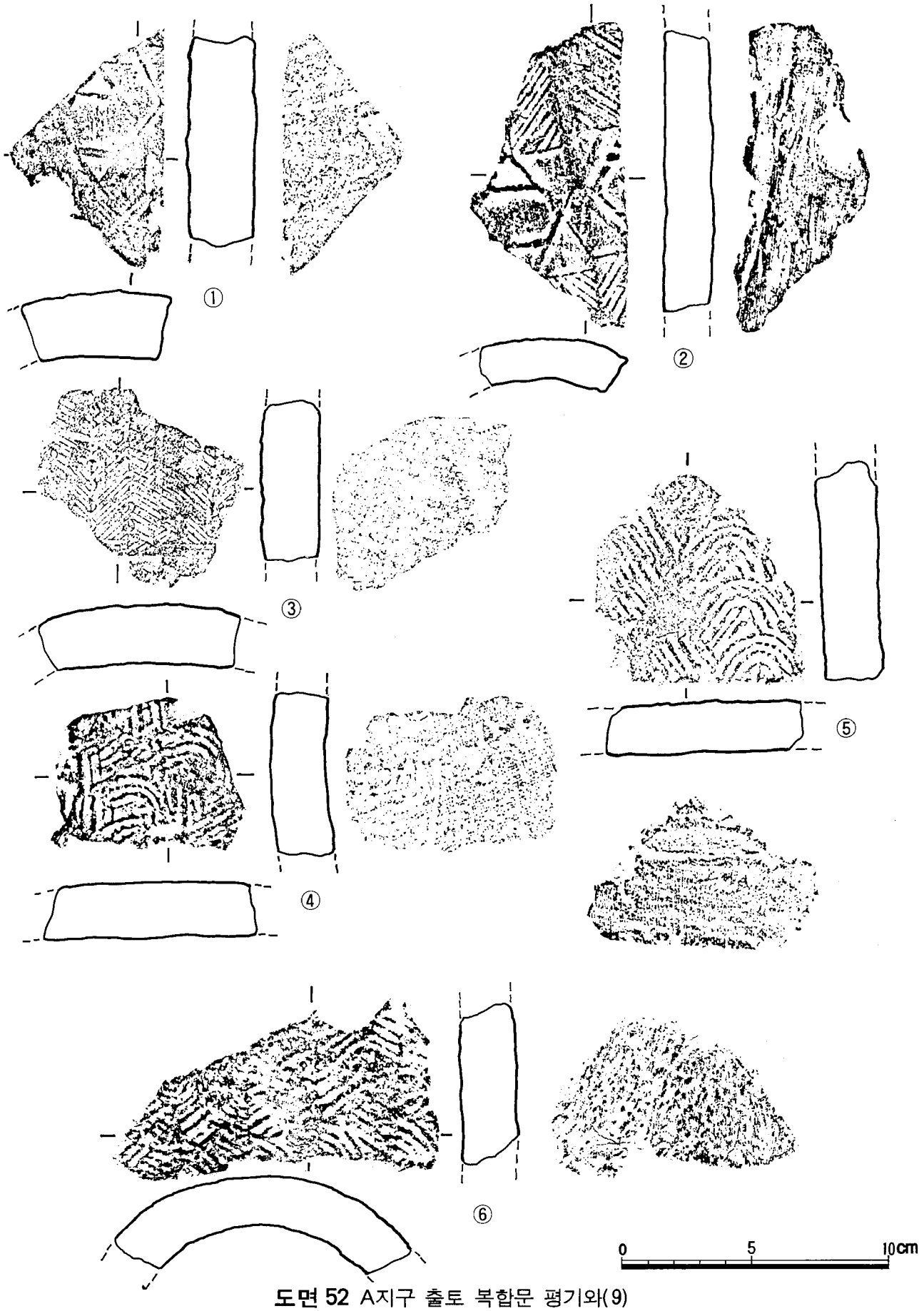
도면 49 A지구 출토 복합문 평기와(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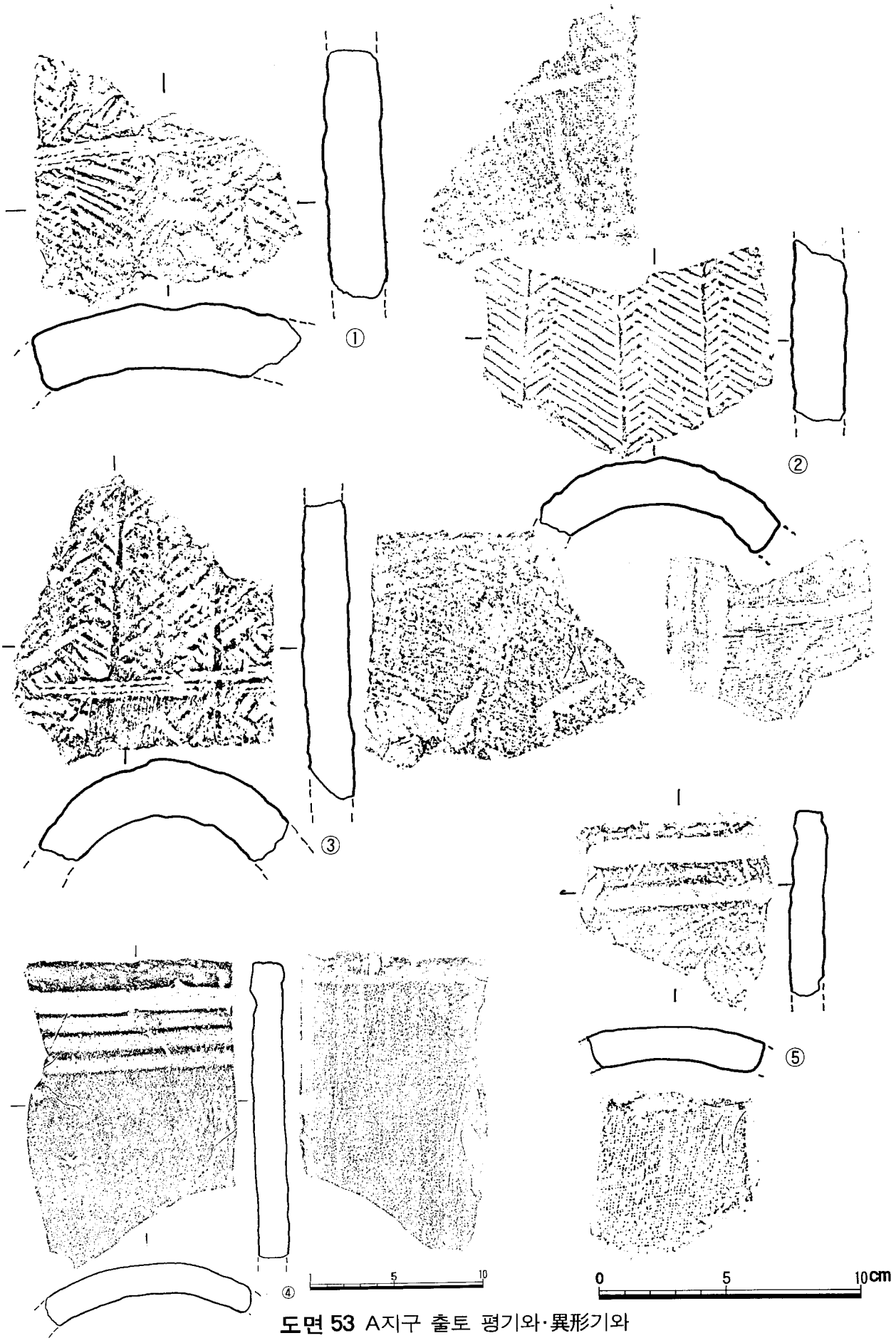
도면 50 A지구 출토 복합문 평기와(7)



도면 51 A지구 출토 복합문 평기와(8)



도면 52 A지구 출토 복합문 평기와(9)



도면 53 A지구 출토 평기와·異形기와

1) 주름무늬 기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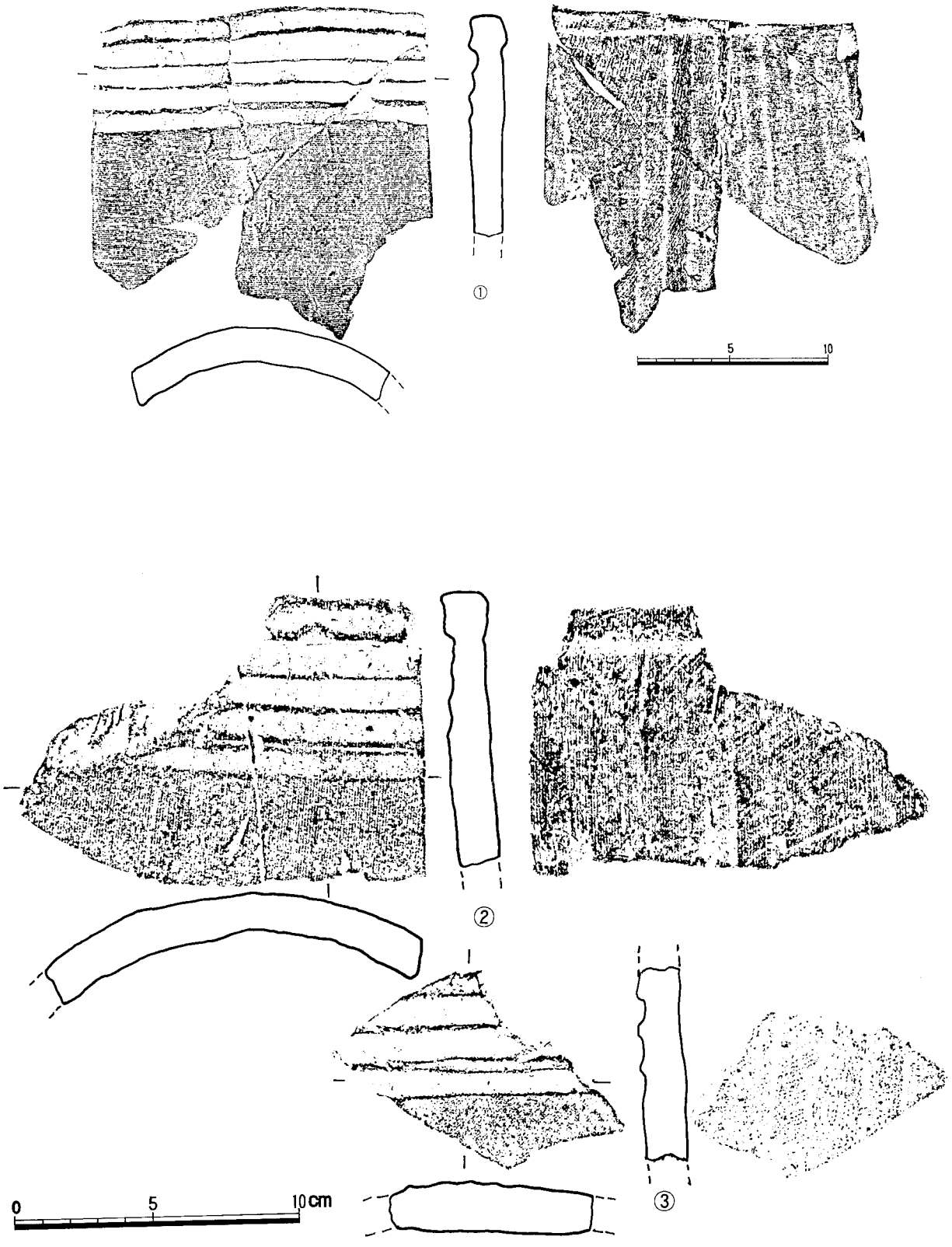
기와의 윗면 2cm까지는 턱이 져 있고, 바로 밑으로 잇대어서 폭 1.3cm의 음각선 4줄을 상하로 시문하였다. 기와의 윗면에 턱이 진 부분까지 포함한 두께는 약 2cm정도이다. 음각선이 지나가는 사이사이에 1-2cm의 간선이 시문되었는데 부분적으로 지워진 곳도 보이며 주름이 잡힌 곳도 보인다. 다른 기와의 옆면에 나타나는 도자흔은 찾아볼 수가 없다. 기와 뒷면에 보이는 특징적이라 할수있는 것은 옆면에 나타나는 턱진 부분이 반대편에 동일한 방향으로 횡선을 의도적으로 시문한 점을 들 수 있다. A구역 a건물지 동편 기와보도와 계단상 유구 북편 기와보도에서 출토된다.

일련번호	도면번호	도판번호	특징	두께(cm)	출토위치
91	53-4	61-4	이형기와. 회갈색. 앞면에 물손질 수법. 뒷면에 미세한 포흔, 대칼, 빗질흔. 연질. 태토 양호.	1.6	A지구 a건물지동쪽 기와보도
92	53-5	61-5	이형기와. 회색. 무문. 뒷면에 물손질, 포흔, 빗질흔. 연질. 태토 양호	1.9	A-2구역 계단상유구
93	54-1	62-1	이형기와. 회색. 무문. 기와 전체면에 물손질. 뒷면에 포흔, 대칼, 빗질흔. 연질. 태토 양호.	1.8	A지구 a건물지동쪽 기와보도
94	54-2	62-2	이형기와. 회갈색. 기와 전체면에 물손질. 뒷면에 포흔, 대칼, 빗질흔. 연질. 태토 양호.	1.9	A지구 a건물지동쪽 기와보도
95	54-3	62-3	이형기와. 회색. 무문. 뒷면에 포흔, 대칼흔. 연질. 태토 양호.	1.8	A지구 a건물지내부
96	55-1	63-1	이형기와. 회색. 앞면 일부에 포흔과 대칼흔, 타날흔. 뒷면에 미세한 포흔, 대칼, 물손질, 손누름흔적. 연질. 태토 양호.	1.9	A지구 a건물지동쪽 기와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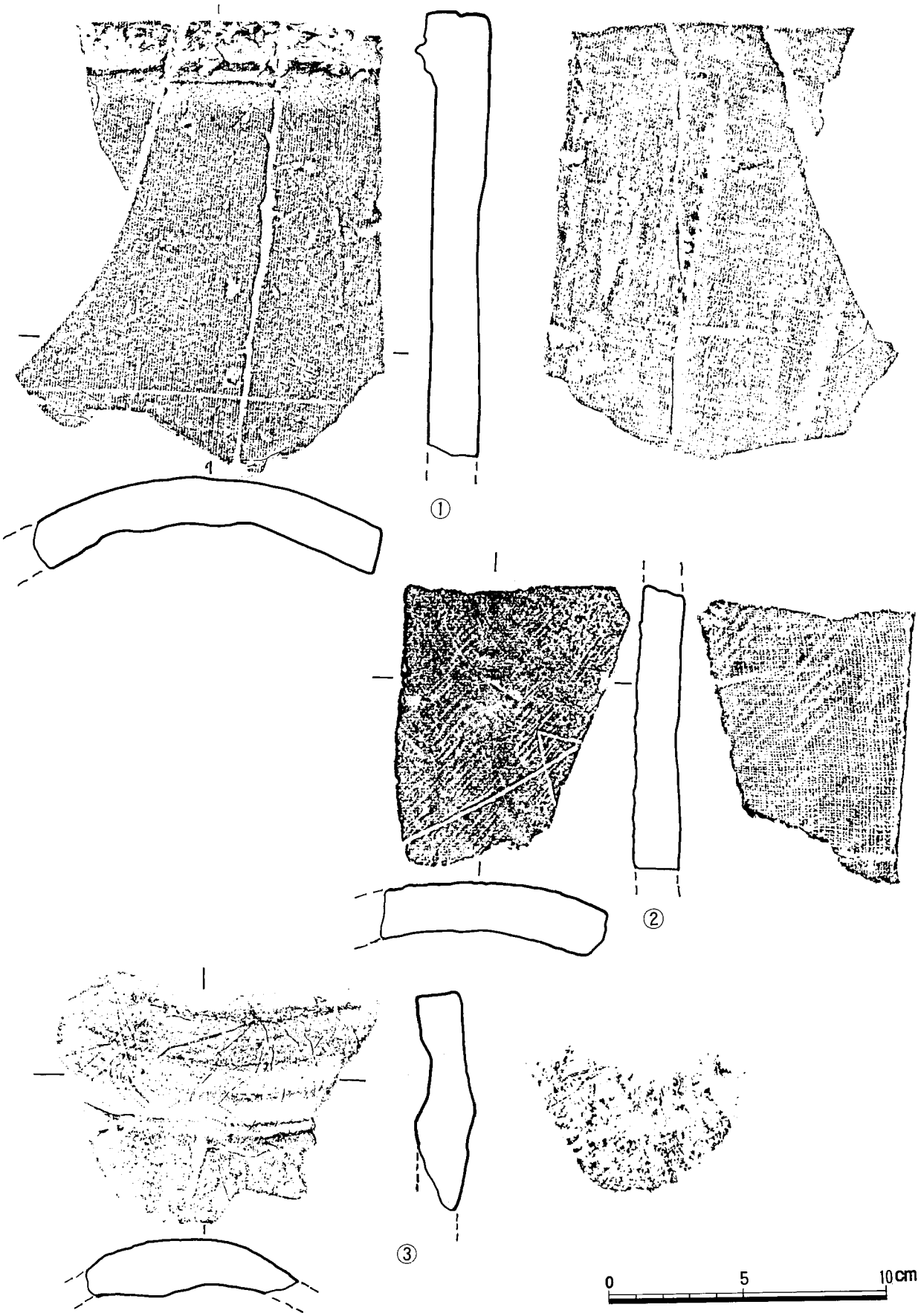
2) 기타 표시기와

이 기와는 겉으로 보기에 무문이지만 선문이 시문되었던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1차 시문된 문양을 지우고 다시 그위에 문양을 시문 한 것으로 여겨진다. '4'字 모양의 표시는 기와의 윗면과 약 75°정도 어긋난 방향으로 시문되어 있다.

일련번호	도면번호	도판번호	특징	두께(cm)	출토위치
97	55-2	63-2	이형기와. 회청+적갈색. 앞면에 규칙적인 폭으로 빗질흔. 뒷면에 뚜렷한 포흔. 경질. 태토 양호.	2.2	B-2구역 계단상유구



도면 54 A지구 출토 異形기와(1)



도면 55 A지구 출토 異形기와(2)

3) 언강이 긴 숫기와

1982년도 발굴조사시 확인 되었던 기와이며, 언강의 길이가 5.2cm에 이르고 두께는 2.0cm이다. 언강과 몸통이 만나는 부분의 두께는 1.3cm이고, 곧바로 몸통과 언강이 수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원만한 곡선을 이루며 만난다. 기와 상단으로부터 2.5cm정도 밑부분에 0.8cm정도의 음각 골이 횡방향으로 희미하게 패여 있다.

일련번호	도면번호	도판번호	특징	두께(cm)	출토위치
98	55-3	63-3	이형기와. 회색. 언강부분. 앞면에 전체적인 물손질, 대칼흔. 뒷면에 심한 마모. 연질. 태토 양호.	2.1	A지구 a건물지내부

6. 銘文기와

1)"大"銘기와

수지문 C형식 기와의 중앙부에 마름모를 구획하고는 내부에 글자를 넣었다. 수지문의 중심가지가 끝나는 곳에서 마름모의 양끝이 서로 마주치게 되어있다. "大"銘은 테두리인 마름모가 횡방향으로 길게 늘어 배치되어 있어 명문도 열을 지어서 시문되었다. 이 명문기와는 법화사지 발굴구역 전범위에서 상당량 출토되었다. 기와내면에는 포흔과 제선방향으로 지나가는 도자흔이 남아 있다. 기와의 측면을 따라 홈이 불규칙하게 패여 있다.

일련번호	도면번호	도판번호	특징	두께(cm)	출토위치
99	56-1	64-1	명문기와. 회청색. 앞면에 손누름 흔적, 마모부분 확인. 뒷면에 포흔, 일정 간격의 도자흔. 경질. 태토불량.	2.1	B-2구역 계단상유구
100	56-2	64-2	명문기와. 회청색. 앞면 일부 빗질흔. 측면 도자흔. 경질. 태토불량.	2.1	A지구 계단상유구
101	56-3	64-3	명문기와. 회청색. 뒷면에 물손질 정면, 대칼흔, 손누름자국. 경질. 태토 양호.	2.4	A지구 a건물지내부
102	57-1	65-1	명문기와. 회청색. 뒷면일부에 포흔과 모래 받침 흔적으로 생각되는 자잘한 흔적. 경질. 태토 불량.	2.0	B-2구역 계단상유구

2) "順"銘기와

수지문 D가 시문된 기와의 중앙부에 명문이 시문된 형식이다. 중앙부에 길게 4cm의 띠를 돌린 마름모 모양이 시문되어 있다. 그 안에 명문이 시문되었다. 마름모의 크기는 1.8×2.2cm이다. "大"銘 기와와 마찬가지로 수지문의 중심가지가 끝나는 곳에서 마름모를 서로 붙여 놓았고, 마름모의 외부와 띠가 돌려져있는 사이에는 수지문의 중심가지와 엇갈리게 대칭되는 선을 조그맣게 표시했다. "順"銘은 시문된 깊이가 얇아 명문의 밑부분에 있는 "八"字는 희미하게 남아 있을 뿐이다.

일련번호	도면번호	도판번호	특징	두께(cm)	출토위치
103	57-2	65-2	명문기와. 회청색. 뒷면에 미세한 포흔, 물손질, 손누름 흔적. 경질. 태토양호.	2.6	A지구 계단 상유구

3) "忠"銘기와

樹枝文에 장방향의 테두리를 두르고 그 내부에 시문을 한 형식이다. 수지문은 H 형식이며 중심가지의 간격은 8.5cm, 비교적 넓게 시문되어 있다. 장방형 테두리 크기는 5.0×6.0cm이다. "忠"銘은 횡으로 시문되어 있고 "中"字아래 "心"字가 희미하게 서로 중복되어 있다. 기와의 뒷면에는 수지문대와 동일한 방향으로 일정한 간격을 두어 대칼자국이 보인다.

일련번호	도면번호	도판번호	특징	두께(cm)	출토위치
104	57-3	65-3	명문기와. 적갈색. 뒷면은 대칼흔, 일정방향으로 빗질흔. 연질. 태토불량.	2.7	A지구 담장지
105	57-4	65-4	명문기와. 회청색. 뒷면에 포흔, 물손질. 연질. 태토양호.	2.7	A지구 건물지북쪽 기와보도
106	57-5	65-5	명문기와. 황갈색. 뒷면에 물손질, 대칼, 빗질흔. 연질. 태토 양호.	3.0	A지구 b건물지내부
107	58-1	66-1	명문기와. 회갈색.완형. 앞면 일부에 빗질흔, 물손질. 뒷면에 포흔, 도자흔, 물손질, 손누름, 한방향으로 규칙적인 빗질흔. 연질. 태토불량.	3.0	A지구 b건물지내부

4) "万戶"銘기와

수지문 C형식에 장방형으로 길게 구획된 내부에 명문이 시문되어 있다. 수지문은 중심가지가 2줄

로 시문된 부분도 있다. 명문을 둘러싼 장방형 구획은 수지문의 중심가지를 그대로 이어 외각선을 이루고 있으나 가로방향의 외곽선은 일정한 규칙이 없어서 높낮이가 일정치 못하다. 가로선은 2.2cm 이고 세로선의 길이는 확인이 되지 않는다. 명문은 右書로 되있고 부분적으로 확인할수 있는것까지 포함해서 도합 6글자가 시문되었는데 각기 위치가 다르다. 뒷면에는 주름흔과 포흔이 있으며 일부분에 한해 기와 눌림으로 인해서 생긴 자국이 있다. 태토는 깨끗한 점토를 사용하였다. "戶高00德" 명문이 시문된 것도 있다.

입련번호	도면번호	도판번호	특징	두께(cm)	출토위치
108	59-1	67-1	명문기와. 회색. 뒷면에 포흔. 경질. 태토 양호.	2.0	A지구 a건물지내부
109	59-2	67-2	명문기와. 회청색. 뒷면에 포흔, 대칼흔. 경질. 태토양호.	2.2	B-2구역 계단상유구
110	59-3	67-3	명문기와. 회색. 뒷면에 포흔, 물손질 흔적. 경질. 태토양호.	2.0	B-2구역 계단상유구

5) "奉"銘기와

기와가 파손되어진 정도가 심하다. 명문은 양각이며 명문과 명문사이에는 구분선을 두어 글자를 서로 배치하였으며 명문은 대체로 선이 굵고 기와가 겹눌림으로 해서 조잡한 느낌을 준다. 뒷면에는 천부착 정면흔이 뚜렷하게 남아 있다.

일련번호	도면번호	도판번호	특징	두께(cm)	출토위치
111	59-4	67-4	명문기와. 회청색. 뒷면에 주름진 포흔. 경질. 태토양호.	2.1	A지구 b건물지내부
112	59-5	67-5	명문기와. 회청색. 뒷면에 포흔, 대칼흔. 경질. 태토양호	1.9	지표채집
113	60-1	68-1	명문기와. 회청색. 전면일부에 시멘트가 부착. 뒷면 입자가 뚜렷한 포흔. 경질. 태토양호.	2.4	A지구 a건물지내부

6) "重創十六年己卯畢"銘기와

이 기와는 기와 상하부로 시문된 직사각형의 2중 테두리 안에 명문이 양각되어 있다. 물손질수법에 의해 기와 앞면을 손질했고, 뒷면은 포흔이나 찰과흔을 찾을 수 없다. 태토는 순수 점토질계통으

로 입자가 곱다. 글자는 가로확대가 된 글씨체로 양각 상태가 매우 뚜렷하다.

일련번호	도면번호	도판번호	특징	두께(cm)	출토위치
114	59-6	67-6	명문기와. 회청색. 앞면에 손누름 흔적. 뒷면에 모래받침 사용 흔적. 경질. 태토양호.	2.1	A지구 a건물지내부

7) "寅吉"銘기와

0 수지문 I 형식이 시문된 중앙에 마름모 띠를 두르고 그 안에 명문이 있다. 수지문은 띠를 중심으로 위, 아래로 대칭을 이루고 있다. 명문이 시문된 구획선이 두께는 2.2cm이며, 그 안에 다시 1.4×1.7cm 크기의 마름모 내부에 "寅吉"銘이 右書로써 시문되어져 있다.

일련번호	도면번호	도판번호	특징	두께(cm)	출토위치
115	60-2	68-2	명문기와. 회청색. 전면에 손누름 흔적. 뒷면에 미세한 포흔, 대칼흔, 물손질흔적. 경질. 태토불량.	2.1	A지구 c건물지내부

8) "○玉○自"銘 기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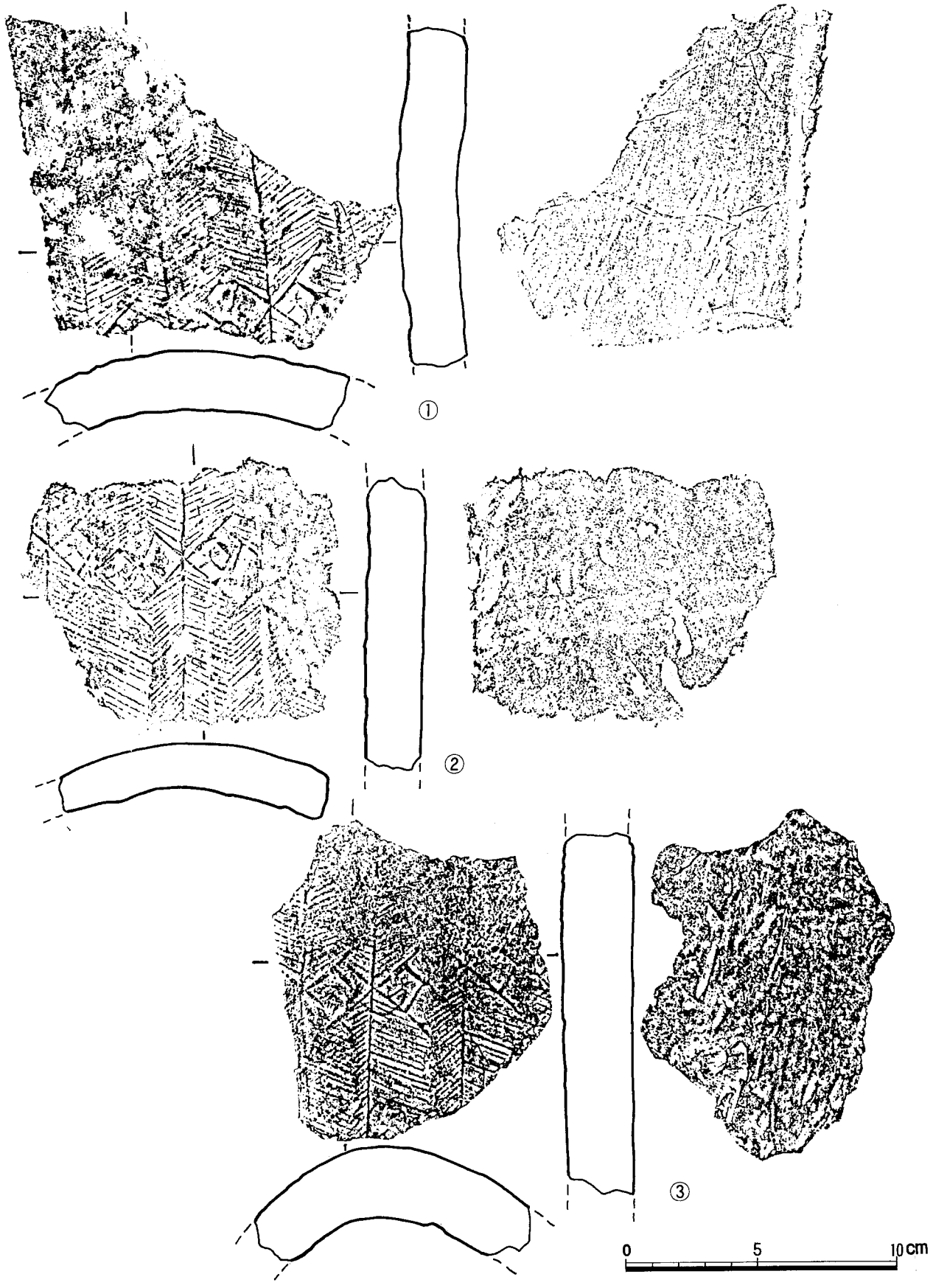
명문 기와이나 글자를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는 상태이다. 상당부분이 지워져 있고 글자체도 매우 엉성하며 여러번 중복되어 시문을 했기 때문에 '玉'字와 '自'字 자체도 판독하기 어렵다.

일련번호	도면번호	도판번호	특징	두께(cm)	출토위치
116	60-3	68-3	명문기와. 회청색. 전면에 심한 파모. 뒷면에 포흔, 균열흔. 경질. 태토 불량.	2.5	A지구 a건물지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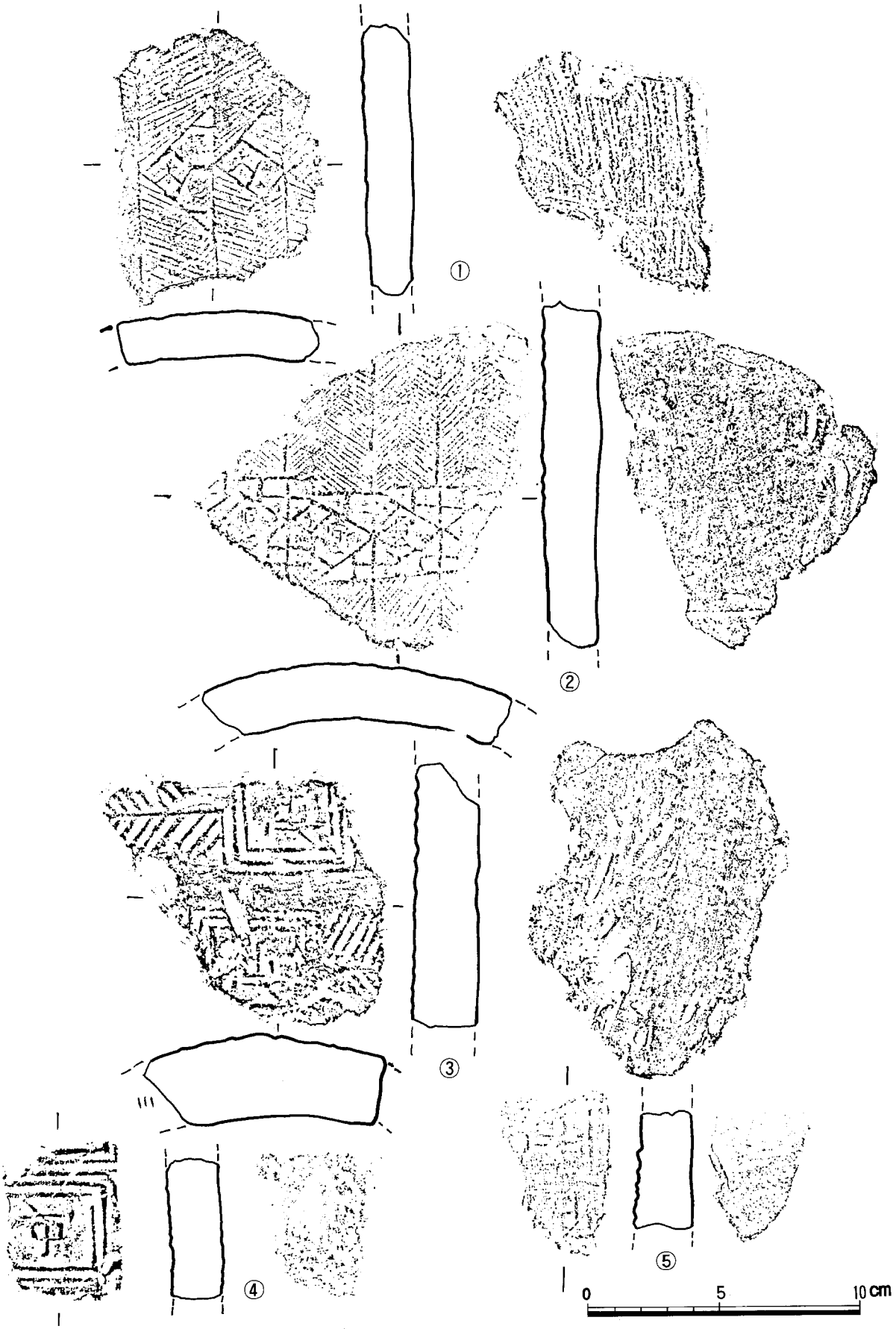
9) "高內"銘기와

발굴지역의 거의 전범위에서 골고루 확인되는 명문기와로, 수지문 I의 형식에 테두리를 두르고 그 내부에 명문을 시문한 형식이다. 테두리의 폭은 약 2.7cm이고 명문은 기와의 옆방향으로 쓰여져 있다. 0.1cm의 가느다란 선으로 처리된 右書로써 "高內"라고 양각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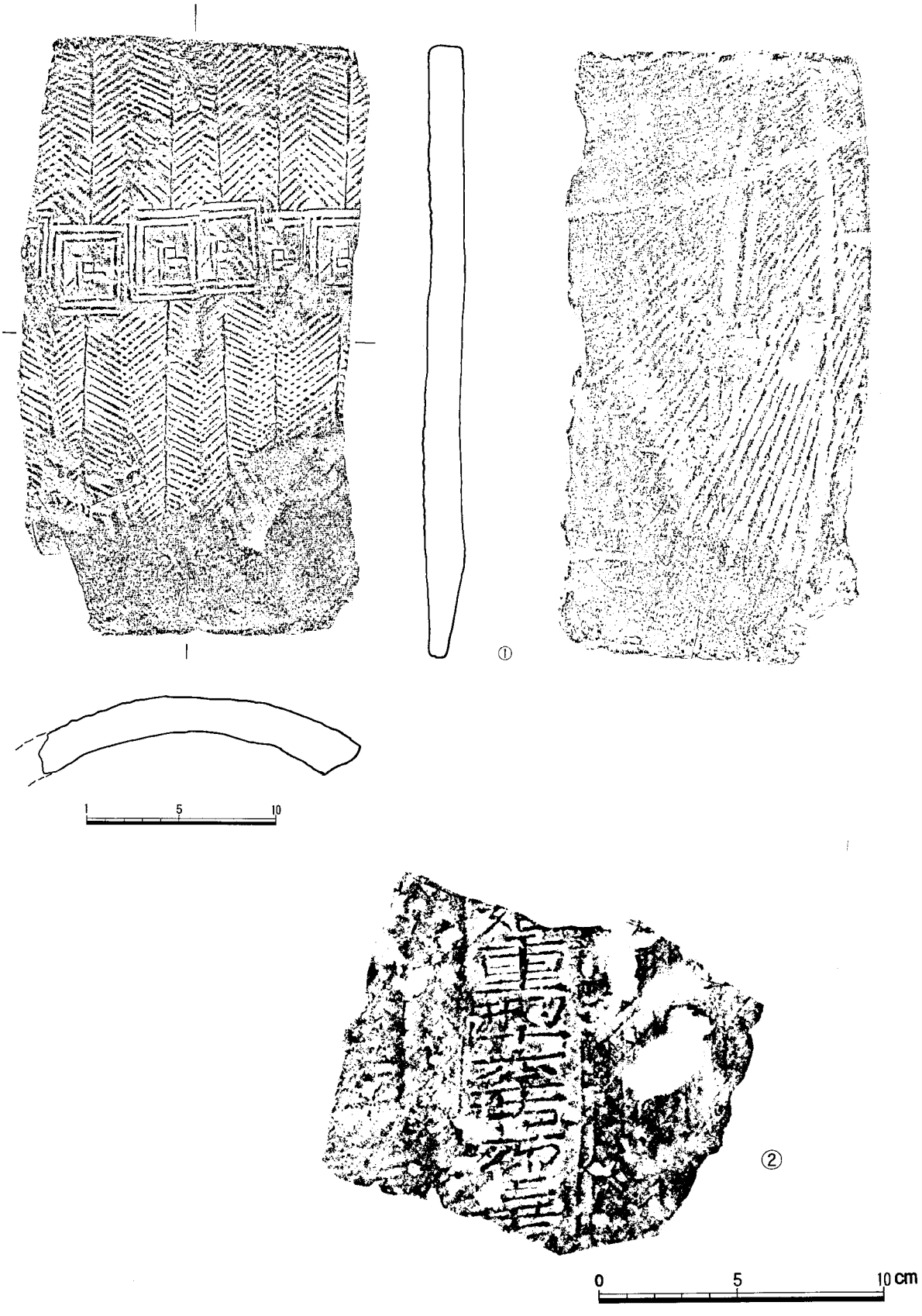
일련번호	도면번호	도판번호	특징	두께(cm)	출토위치
117	61-1	69-1	명문기와. 회청색. 숫기와. 뒷면에 미세한 포흔, 대칼흔, 손누름 흔적. 경질. 태토불량.	2.4	A지구 계단상유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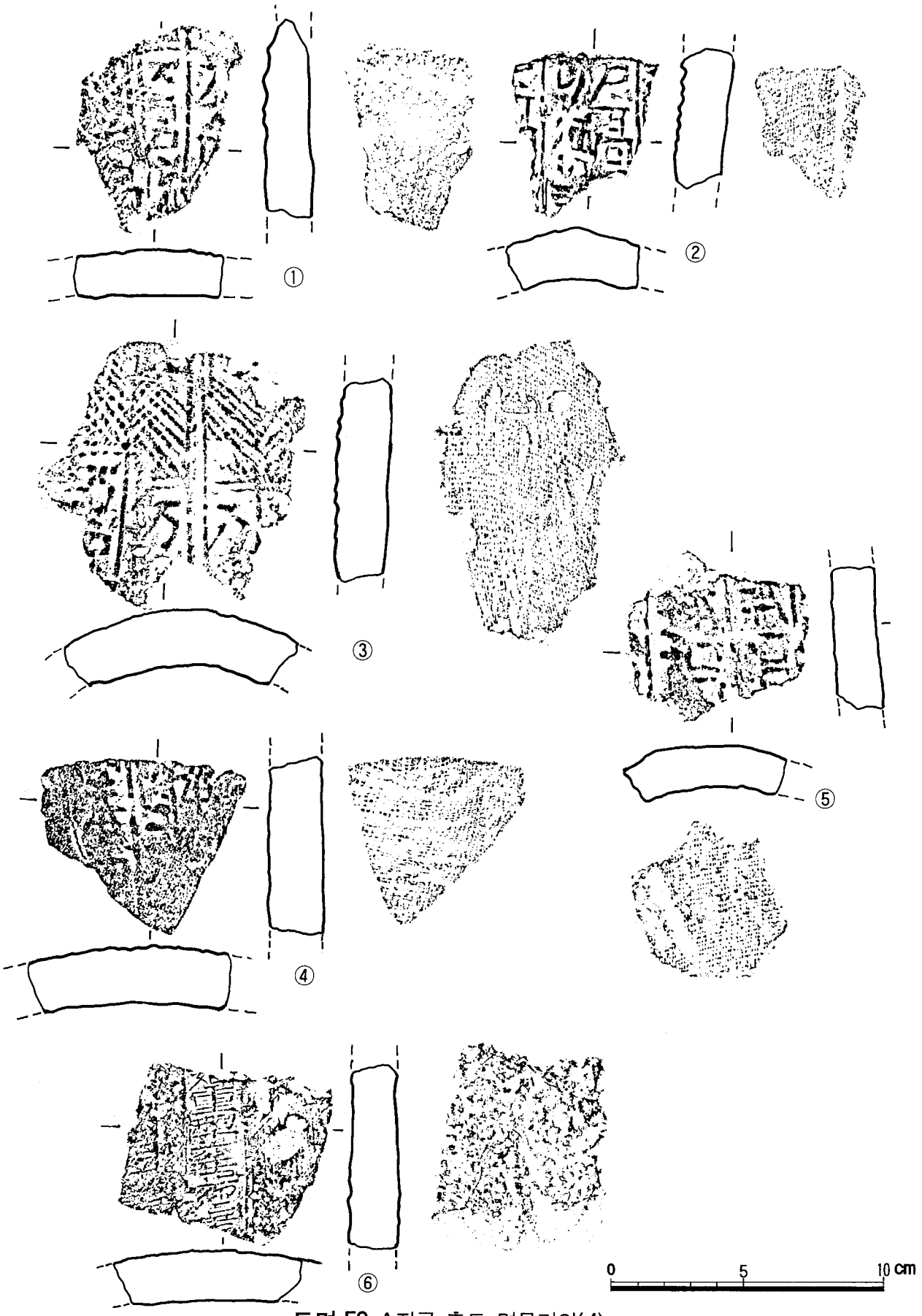
도면 56 A지구 출토 명문기와(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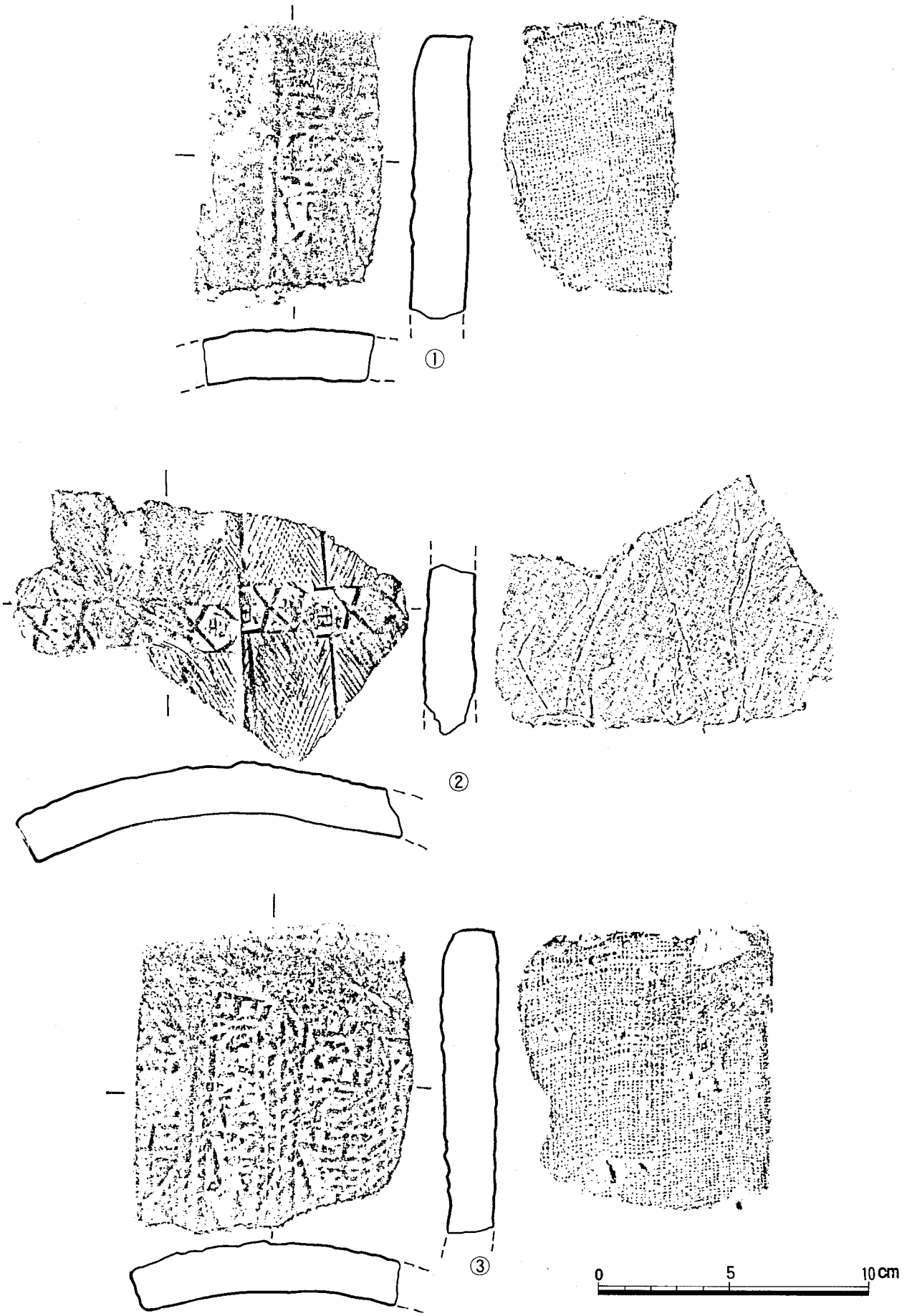
도면 57 A지구 출토 명문기와(2)



도면 58 A지구 출토 명문기와(3)



도면 59 A지구 출토 명문기와(4)



도면 60 A지구 출토 명문기와(5)

118	61-2	69-2	명문기와. 회색. 숫기와. 뒷면에 미세한 포흔, 대칼흔. 경질. 태토불량.	2.6	A지구 계단상유구
119	61-3	69-3	명문기와. 회청색. 숫기와. 뒷면에 미세한 포흔, 대칼흔, 손누름. 경질. 태토불량	2.6	A지구 계단상유구

5. 기타

가. 투공기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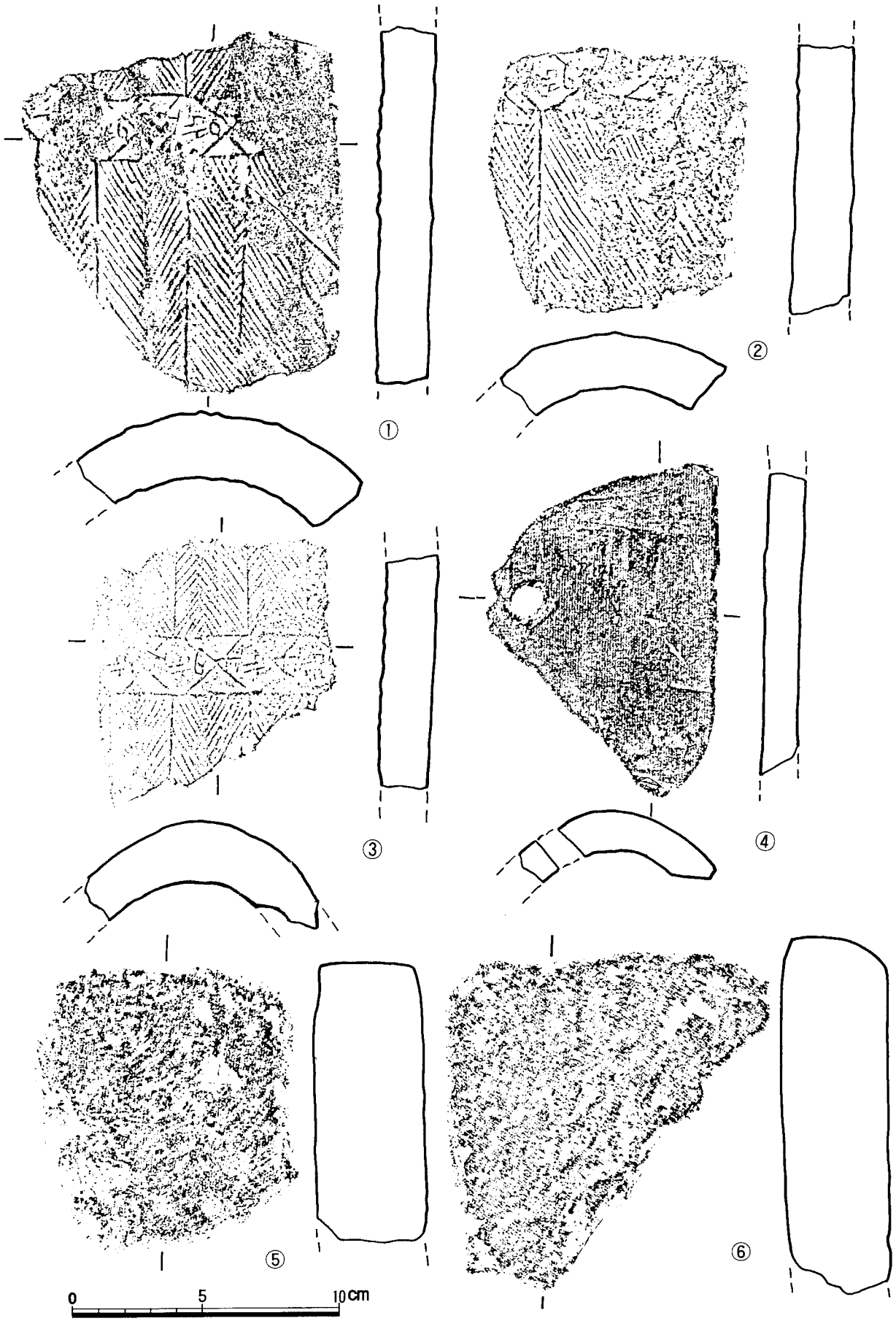
A구역 계단상유구 북서쪽 기와보도의 북쪽 기와벽사이에서 확인 되었다. 숫기와 몸통 중간부분 모서리에 지름 1.5cm미만의 구멍이 1개 뚫여 있다. 기와 내면은 전부착 정면흔이 뚜렷하게 보이며, 기와 문양은 무문이며 외면은 물손질이 잘 되어 있다.

일련번호	도면번호	도판번호	특징	두께(cm)	출토위치
120	61-4	69-4	특수기와. 회청색+회색. 숫기와. 앞면에 친 물손질. 옆면에 도자흔. 뒷면은 미세한 포흔, 대칼흔. 기와 중앙에 직경 1cm의 구멍. 연질. 태토양호.	1.5	A지구 계단상유구 북쪽 기와보도

나. 塼

법화사지에서 출토 기와의 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양이 발견되었다. 전은 A지구 담장지 내부 잡석틈과 a건물지상층 북편기와 매립지에서 출토되었다. 확인된 전은 전부가 무문이며 2점 모두 方形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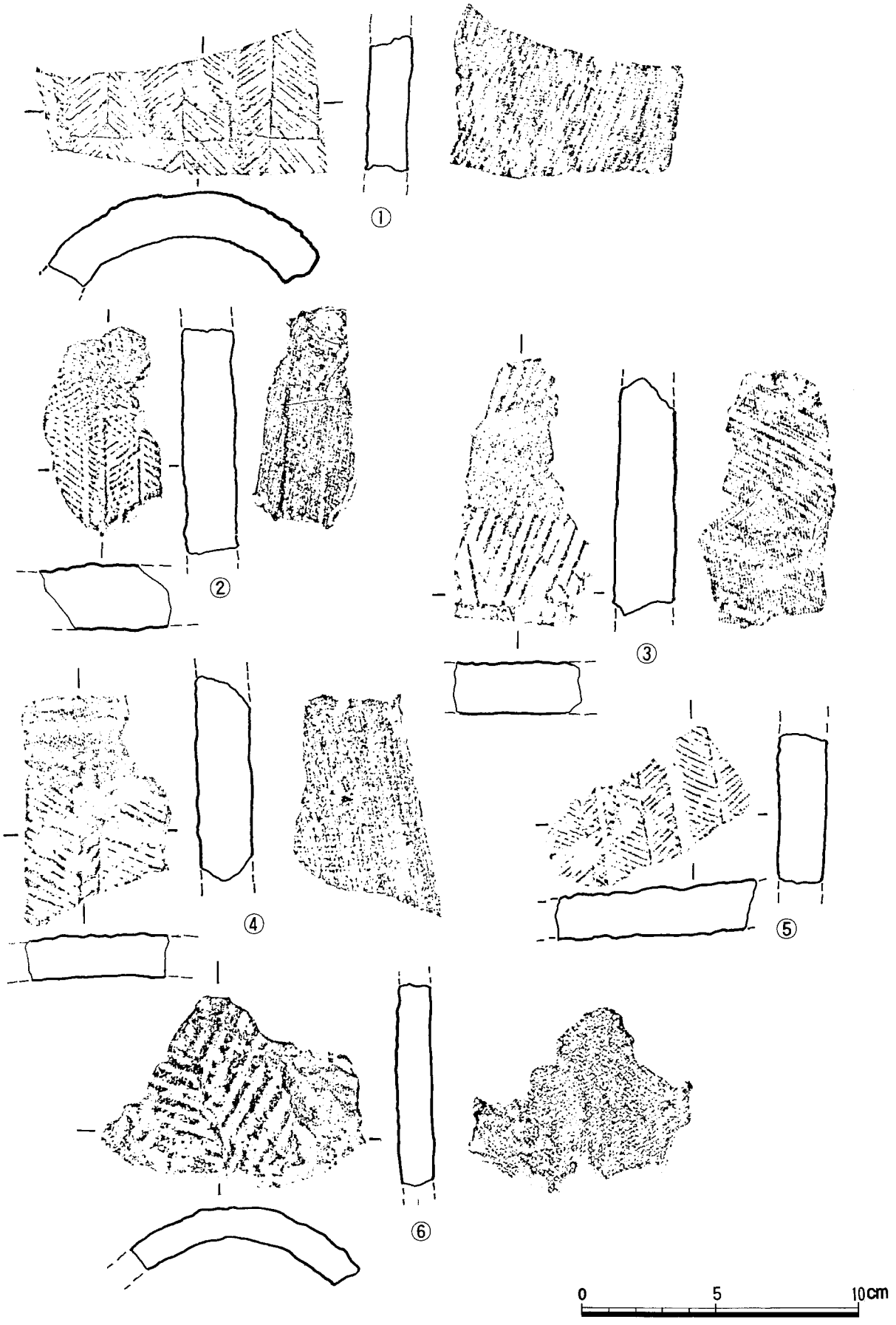
일련번호	도면번호	도판번호	특징	두께(cm)	출토위치
121	61-5	69-5	전. 황갈색. 연질. 태토불량.	5.0	A지구 a건물지내부
122	61-6	69-6	전. 회청색. 연질. 태토불량.	5.0	A지구 a건물지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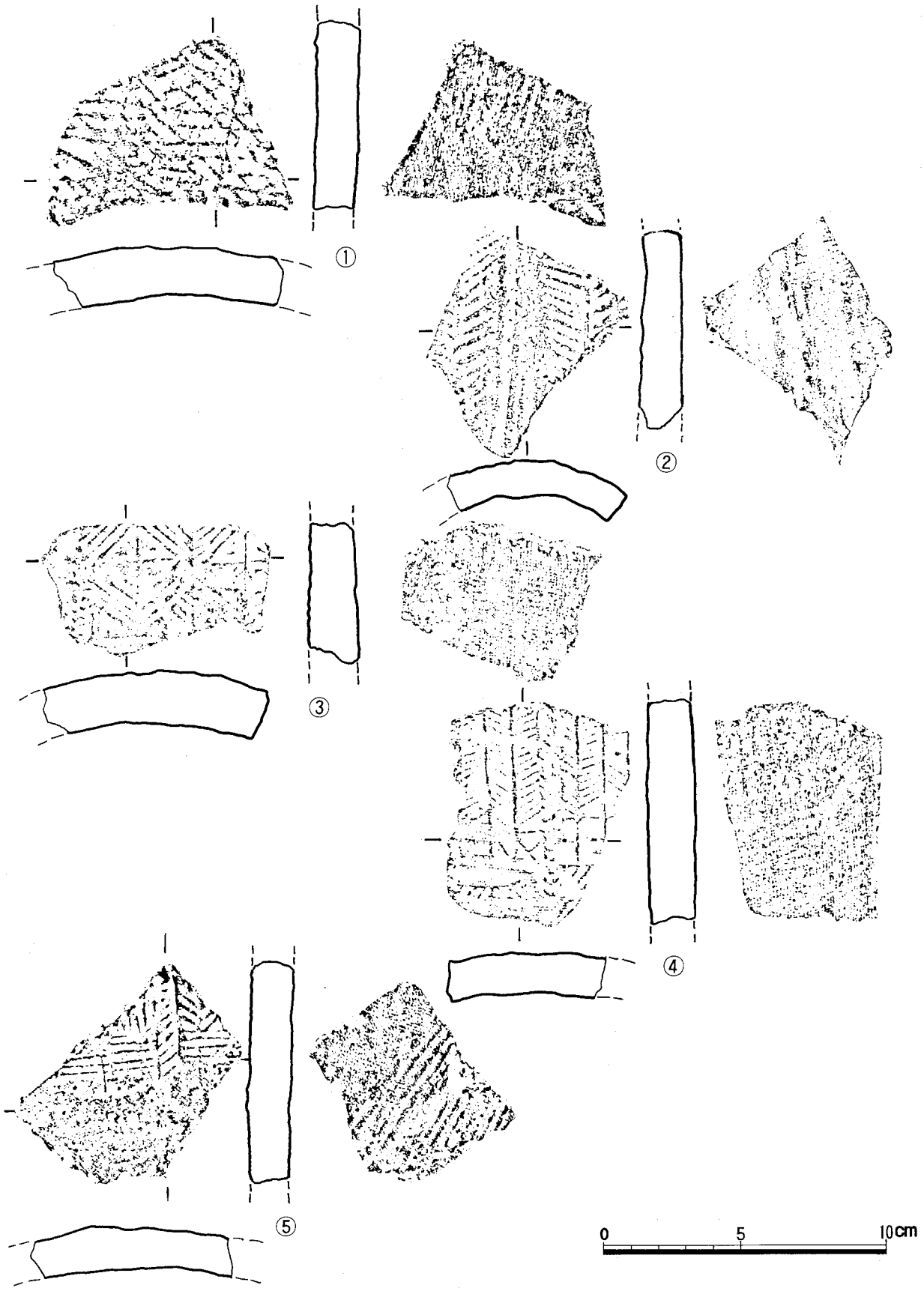
도면 61 A지구 출토 명문기와·특수기와·전

일련번호	도면번호	도판번호	특징	두께(cm)	출토위치
123	62-1	70-1	수지문평기와. 회청색. 숫기와. 앞면일부에 물손질한 빗질흔. 측면 도자흔은 반쯤 정연하게 외반. 뒷면 전반에 걸친 대칼흔. 경질. 태토양호.	2.3	C지구출토
124	62-2	70-2	수지문평기와. 회색. 앞면 문양사이로 한줄의 도자흔이 존재. 측면 도자흔은 정연. 측면과 뒷면이 만나는 부분에 도자로 자른 흔적. 뒷면에 뚜렷한 포흔. 경질. 태토양호.	2.4	C지구 출토
125	62-3	70-3	수지문평기와. 황갈색. 앞면 중앙부에 마모가 심함. 뒷면에 포흔, 대칼흔, 빗질흔. 연질. 태토양호.	2.3	C지구출토
126	62-4	70-4	수지문평기와. 회색. 앞면 일부에 손누름 자국. 측면 도자흔은 남아있지 않음. 뒷면에 포흔, 손누름자국. 뒷면에 심한 마모. 연질. 태토양호.	1.7	C지구출토
127	62-5	70-5	수지문평기와. 황갈색. 앞면 손누름 자국. 측면 균열. 뒷면에 심한 마모. 연질. 태토 불량.	3.3	C지구출토
128	62-6	70-6	수지문평기와. 회청색. 앞면 일부에 손자국. 뒷면에 뚜렷한 포흔. 경질. 태토불량.	2.2	C지구출토
129	63-1	71-1	격자문평기와. 회색. 앞면은 다소 마모. 뒷면에 포흔과 대칼흔. 연질. 태토양호.	2.1	C지구출토
130	63-2	71-2	복합문평기와. 회청색. 숫기와 앞면 중앙부에 빗질흔. 측면에 도자흔. 뒷면에 물묻은 포자국과 손누름자국, 빗질흔, 경질. 태토양호.	1.5	C지구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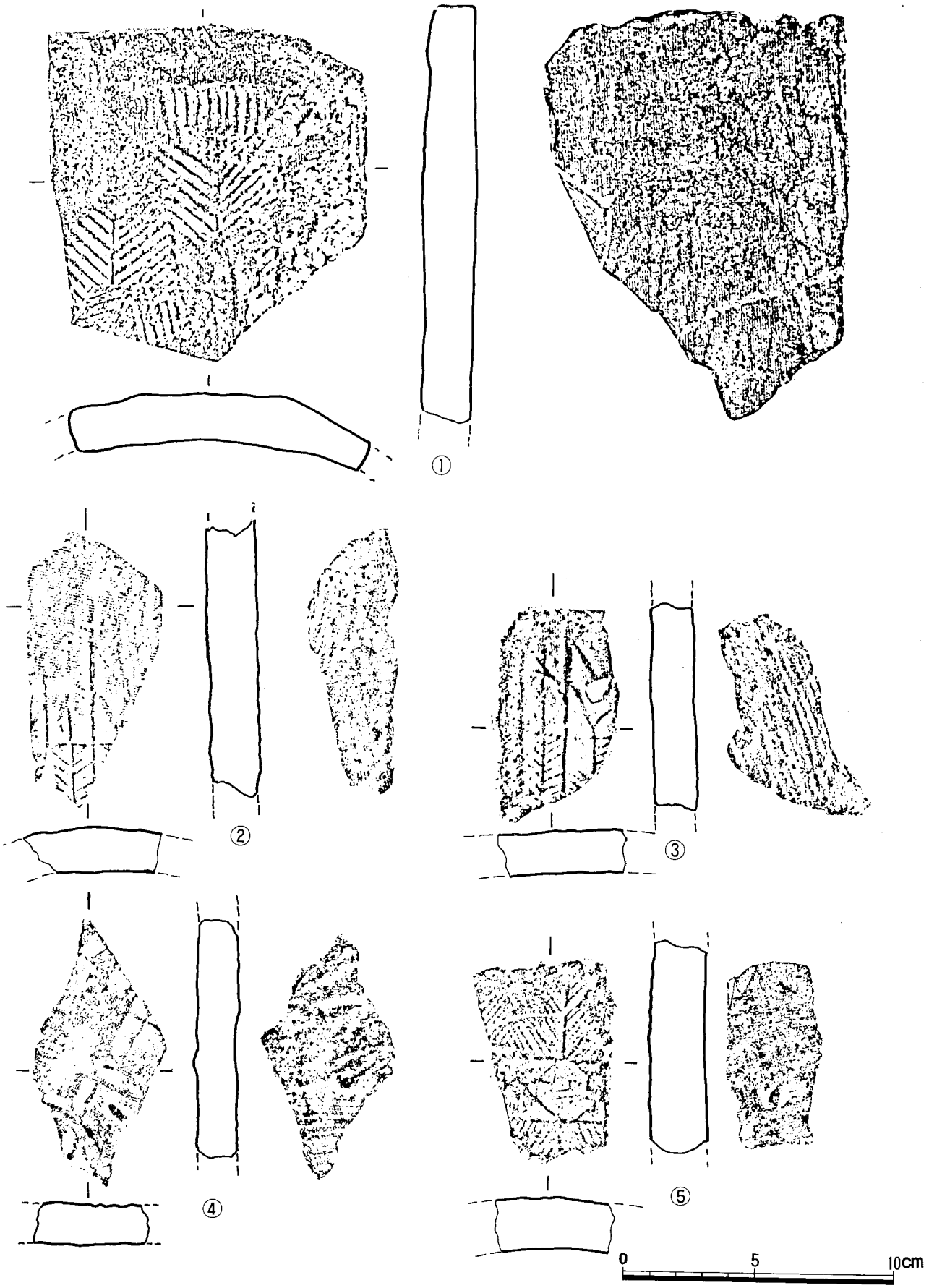
131	63-3	71-3	복합문평기와. 회갈색. 앞면 중앙을 횡으로 지나는 빗질흔적과 미세한 균열. 뒷면에 뚜렷한 포흔과 일부에 원형의 타날흔. 연질. 태토양호.	1.9	C지구출토
132	63-4	71-4	복합문평기와. 황갈색. 앞면 일부분 물손질. 뒷면에 포흔, 난잡한 대칼흔.	1.7	C지구출토
133	63-5	71-5	복합문평기와. 적갈색. 앞면 문양밑으로 물손질. 뒷면에 포흔과 동일한 방향의 대칼흔. 연질. 태토불량.	1.6	C지구출토
134	64-1	72-1	복합문평기와. 회청 황갈색. 앞면에 물손질, 손누름. 뒷면은 물손질. 연질. 태토양호.	2.2	C지구출토
135	64-2	72-2	복합문평기와. 갈색. 앞면은 심한 마모. 뒷면은 포흔, 일정방향의 대칼흔. 연질. 태토양호.	1.9	C지구출토
136	64-3	72-3	복합문평기와. 적갈색. 앞면은 심한 마모. 뒷면은 규칙적인 대칼흔. 연질. 태토양호.	1.8	C지구출토
137	64-4	72-4	복합문평기와. 황갈색. 숫기와. 앞면에 손누름자국, 빗질흔. 뒷면은 미세한 포흔과 대칼흔. 연질. 태토불량.	1.7	C지구출토
138	64-5	72-5	명문기와. 회청색. 앞면은 미세한 균열. 뒷면에 미세한 포흔, 손톱흔적. 경질. 태토불량.	2.4	C지구출토



도면 62 C지구 출토 기와(1)



도면 63 C지구 출토 기와(2)



도면 64 C지구 출토 기와(3)

제 2 절 도자기

1. 고려靑磁

A地區 出土 靑磁片은 발굴 조사된 전구역에서 출토되었으나 A지구 계단상유구와 B지구 계단상유구의 매립 토층에서 주로 확인되었다. 靑磁片의 器種은 대접, 접시, 뚜껑, 화병, 항아리이다. 성형수법은 象嵌, 陰刻, 透刻, 押出등이다. 發色은 주로 암녹색과 청녹색이며, 번조받침은 규사눈 받침, 내화토 받침, 모래 받침이 있다. 이들 靑磁片은 寺刹 일상용기와 제사용기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번호	도면번호	도판번호	특징	규격 (cm)	출토위치
1	65-1	73-1	청자상감국화무늬전접시저부편. 암녹색. 외면바닥에만 약간의 빙렬. 기표면-세로의 음각선으로 동체부를 8등분하고 그 사이사이에 국화무늬를 흑백상감함. 굽바닥 부분부분에 내화토 자국이 있고, 굽테부분에 모래가 엉켜 있음.	現 高:3.7 推定口徑:14.7 굽 直徑:7.2 굽 高:0.8 굽 幅:0.4	A지구 a건물지 동쪽벽
2	65-2	73-2	청자꽃모양전접시구연부편. 암녹색. 약간의 빙렬. 동체에서 직각으로 전이 있고, 그 전을 꽃모양으로 오려서 성형.		지표채집
3	65-3	73-3	청자꽃모양접시구연부편. 청녹색. 약간의 빙렬. 구연을 꽃모양으로 오리고, 오려진 부분에서 동체부쪽으로 세로의 음각선을 넣음. 굽은 외면바닥에서 한단 파들어간 형태. 굽바닥에 규사받침 흔적.	現 高:3.0 推定口徑:9.0	A지구 계단상유구
4	65-4	73-4	청자꽃모양전접시구연부편. 녹색. 시유상태 양호. 외면 동체부는 매끄럽게 성형하고 내면은 올록볼록하게 꽃모양 효과를 냄. 동체부에서 직각으로 꺾어 전이 있는데 전이 꽃모양으로 오려짐. 태토-양호.	推定口徑:11.0	A지구 계단상유구 서쪽
5	65-5	73-5	청자상감대접구연부편. 암녹색. 빙렬있음. 작은 종지형태. 외면 동체부에 학무늬가 흑백상감됨.	現 高:3.5 推定口徑:7.8	A지구 북서편보도
6	65-6	73-6	청자상감대접구연부편. 암녹색. 빙렬보임. 태토-양호 내외면에 무늬 백상감됨.		지표채집
7	65-7	73-7	청자대접구연부편. 열은 녹색. 시유상태 양호.	推定口徑:14.5	A지구 계단상유구

8	65－8	73－8	청자접시구연부편. 내면－암녹색. 외면－청녹색. 굽은 내만형. 내외면 바닥에 규사눈 받침 흔적.		B－3구역
9	65－9	73－9	청자음각꽃모양찻잔저부편. 암녹색. 빙렬있음. 기형이 꽃모양으로 성형됨. 내면 바닥부분에 꽃무늬를 양각하여 동체와 구분. 외면－볼록하게 튀어나온 꽃잎부분마다 꽃무늬를 음각하였고 굽언저리에는 두줄의 음각선으로 잔주위를 둘렀다. 잔다리와 바닥도 꽃모양으로 오려서 성형. 규사받침 자국.	現 高:2.8 굽 直徑:3.8	A지구 c건물지내부
10	65－10	73－10	청자상감대접저부편. 청녹색. 성긴빙렬. 내면－바닥에서 동체쪽으로 급하게 경사짐. 동체부에 무늬 백상감. 굽에 규사 받침, 모래받침 흔적.	現 高:3.5 굽 直徑:4.4 굽 高:0.8 굽 幅:0.3	A지구 a건물지 성토층
11	65－11	73－11	청자상감국화무늬대접저부편. 회녹색. 빙렬있음. 기내면－벽면을 돌아가며 이중원이 있고 그 안에 국화무늬가 흑백상감됨.	現 高:3.5 굽 直徑:4.4 굽 高:0.4 굽 幅:0.5	B－2구역
12	66－1	74－1	청자상감구연부편. 녹색빛이 도는 암회색. 구연을 꽃모양으로 오려서 성형. 외면－구연의 오목하게 오려진 부분마다 동체에 한줄의 세로선을 음각하고 선으로 나눠진 각면마다 국화무늬를 흑백상감함.		B－2구역
13	66－2	74－2	청자상감국화무늬접시구연부편. 암녹색. 빙렬있음. 내면－바닥과 동체의 구분 뚜렷. 바닥 중앙에 이중원을 두고 그 안에 국화무늬 상감. 나눠진 각면마다 국화무늬를 흑백상감함.	現 高:3.4 굽 直徑:6.6	B－2구역
14	66－3	74－3	청자상감대접저부편. 녹색이였으나, 외면에는 탈색되어 황백색을 띰. 내면에 성긴 빙렬. 기형은 굽에서 급하게 올라간 형태. 굽에 내화토 자국.	現 高:3.5 굽 直徑:4.4 굽 高:0.6 굽 幅:0.2	A지구 c건물지내부
15	66－4	74－4	청자접시구연부편. 원래는 암녹색유가 시유되었는데 탈유되어 황백색의 색조를 띰.	推定口徑:9.6	A지구 계단상유구

			기표면에 기포 형성. 굽과 내면 바닥에 내화토 자국.		
16	66－5	74－5	청자음각당초무늬뚜껑편. 내면－녹색. 약간의 빙렬. 외면－황녹색. 뚜껑 가장자리에 두줄 음각선을 두르고 그 안에 당초무늬를 음각함. 그릇의 두께는 1.3㎝정도로 두꺼운 편.		A지구계단상유구
17	66－6	74－6	청자음각대접구연부편. 황갈색. 시유상태 양호. 미세한 빙렬. 내면 구연부에 세줄의 음각선.	推定口徑:11.0	A지구 b건물지내부
18	66－7	74－7	청자항아리구연부편. 황녹색. 시유상태 양호. 가는 빙렬. 목부분이 따로 설정되지 않고 구연이 약간 외반됨.		A지구서북편보도상층
19	66－8	74－8	청자접시구연부편. 녹색. 부분부분 산화되어 황백색을 띰. 빙렬 보임. 외면 동체부에 길쭉한 도구로 누른 흔적.	推定口徑:9.8	A지구 b건물지
20	66－9	74－9	청자음각대접구연부편. 녹색. 시유상태 양호. 내면－무늬음각. 외면－물레자국.		B－2구역 계단상유구
21	66－10	74－10	청자음각대접구연부편. 성긴 빙렬. 외면 구연부에 한줄의 굵은 음각선.	推定口徑:15.6	지표채집
22	66－11	74－11	청자음각접시저부편. 암녹색. 빙렬 있음. 내면 바닥에 한줄의 선무늬가 음각. 굽과 내면 바닥에 내화토 자국.	現　高1.5 굽　直徑:7.2 굽　高:0.4 굽　幅:0.5	A지구a건물지 동쪽석렬
23	66－12	74－12	청자음각접시저부편. 암녹색. 발색이 일정치 않음. 내면 바닥에 한줄의 선무늬가 음각. 굽과 내면 바닥에 내화토 자국.	現　高:1.0 굽　直徑:6.8	A지구 계단상유구 남서편
24	66－13	74－13	청자항아리구연부편. 짧은 목부분에서 약간 외반된 작은 항아리의 구연부편. 반투명한 암녹색. 성긴 빙렬. 태토－불량.	推定口徑:6.6	B－2구역 기와매립층
25	66－14	74－14	청자전접시구연부편. 암녹색. 표면이 고르지 않음.		A지구 계단상유구

26	66－15	74－15	청자전접시구연부편. 녹색. 외면은 산화되어 황백색을 띰.		B－2구역 계단상유구
27	67－1	75－1	청자잔편. 암녹색. 부분부분 황백색. 전면에 빙렬. 외면－동체부를 돌아가며 세로로 음각선. 구연부에 모양이 확실하지 않은 무늬가 백상감됨. 굽바닥에 모래받침 자국. 잔 모양.	現 高:8.1 推定口徑:6.8 굽 直徑:4.0 굽 高:0.7 굽 幅:0.4	A지구 계단상유구
28	67－2	75－2	청자접시저부편. 녹색유로 비교적 두껍고 고르게 시유. 성긴 빙렬. 굽바닥에 내화토 자국.	現 高:8.1 굽 直徑:7.8 굽 高:0.4 굽 幅:0.2	A지구 a건물지 동쪽석렬
29	67－3	75－3	청자화병편. 담청색. 약간의 빙렬 보임. 대마디굽. 굽마디의 윗부분까지만 시유됨.	現 高:5.2 굽 直徑:7.0 굽 高:1.4 굽 幅:0.3	A건물지 a건물지 동쪽석렬.
30	67－4	75－4	청자상감꽃무늬뚜껑편. 암녹색. 빙렬보임. 외면가장자리에 한줄의 음각선을 두르고, 그 안쪽으로 두줄의 선과 꽃무늬가 백상감됨. 태토－비교적 양호.		A지구 c건물지내부
31	67－5	75－5	청자상감번개무늬뚜껑편. 청녹색. 산화되어 부분적으로 황백색을 띰. 빙렬보임. 주연상면을 돌아가며 번개무늬가 백상감됨.	現 高:1.9 蓋部直徑:8.6 드림直徑:6.6	A지구 b건물지내부 보도
32	67－6	75－6	청자상감구연부편. 암녹색. 탈유되어 약간 황색을 띰. 구연을 꽃잎모양으로 오리고, 오려진 부분밑으로 외면에 한줄의 세로 음각선을 시문. 나눠진 각면마다 국화무늬가 흑색 상감됨.		A지구 b건물지
33	67－7	75－7	청자상감구연부편. 암녹색. 빙렬보임. 내면－구연에서 일정한 간격을 두고 두줄의 선을 백상감하고, 그 아래로 다시 같은 형식으로 시문됨. 태토－불순물.	推定口徑:22.0	A지구 계단상유구
34	67－8	75－8	청자상감전접시구연부편. 암녹색 . 빙렬보임. 전 가장자리에 한줄의 선과 그 쪽으로 무늬가 백상감됨. 외면－전 바로 밑부분에 두줄의 음각선이 그릇을 돌아가며 시문.	現 高:3.4 推定口徑:13.2	B－3구역

35	67－9	75－9	청자상감당초무늬대접구연부편. 내면－녹색. 외면－황녹색. 내외면－백토로 당초문 상감.		A지구 계단상유구
36	68－1	76－1	청자전접시저부편. 녹색유였으나 탈색되어 황백색을 띰. 내면 동체부를 꽃모양으로 성형. 전은 동체에서 직각에 가깝게 꺾임. 굽은 바닥에서 파들어간 형태. 내화토 자국.	現　高:0.7 推定口徑:10.8 굽　直徑:7.4	A지구 계단상유구
37	68－2	76－2	청자접시저부편. 내면－청녹색. 성긴 빙렬. 외면－암녹색. 굽바닥에 내화토받침 흔적. 굽－내만형.	現　高:0.7 굽　直徑:6.6	A지구 b건물지동쪽
38	68－3	76－3	청자접시저부편. 녹색. 시유상태 비교적 양호. 성긴 빙렬. 굽부분에 규사눈 받침 흔적.	現　高:2.3 굽　直徑:6.4 굽　高:7.6 굽　幅:0.5	A지구 a건물지 동쪽석렬
39	68－4	76－4	청자접시저부편. 내면－청녹색. 빙렬없음. 외면－암녹색. 굽속에 모래받침 흔적.	現　高:2.8 굽　直徑:7.6 굽　高:0.6 굽　幅:0.5	B－3구역
40	68－5	76－5	청자저부편. 내면－황색빛이 도는 암회색. 가는 빙렬. 외면－암회색. 파편의 기형으로 봐서 필통이나 합일 가능성. 굽안쪽으로 모래받침 흔적. 굽은 바닥에서 파들어간 형태.	現　高:3.2 굽　直徑:10.4 굽　幅:1.1	A지구 a건물지 남쪽석렬앞
41	68－6	76－6	청자대접저부편. 산화되어 황녹색을 띰. 약간의 빙렬. 굽에 모래받침 자국.	現　高:1.4	지표채집
42	68－7	76－7	청자대접저부편. 원래는 전면에 밝은 녹색유약이 시유됐으나, 외면은 탈유되어 황색을 띰. 빙렬없음.	現　高:2.8 굽　直徑:7.0 굽　高:0.6 굽　幅:0.5	A지구 계단상유구 남서편
43	68－8	76－8	청자대접저부편. 녹색. 탈유되어 황백색을 띰. 굽폭이 일정치 않음.	現　高:2.1 굽　直徑:5.0 굽　高:0.6 굽　幅:0.5	A지구 b건물지
44	68－9	76－9	청자양각꽃무늬대접구연부편. 투명한 녹색. 성긴 빙렬.	推定口徑:16.8	A지구 a건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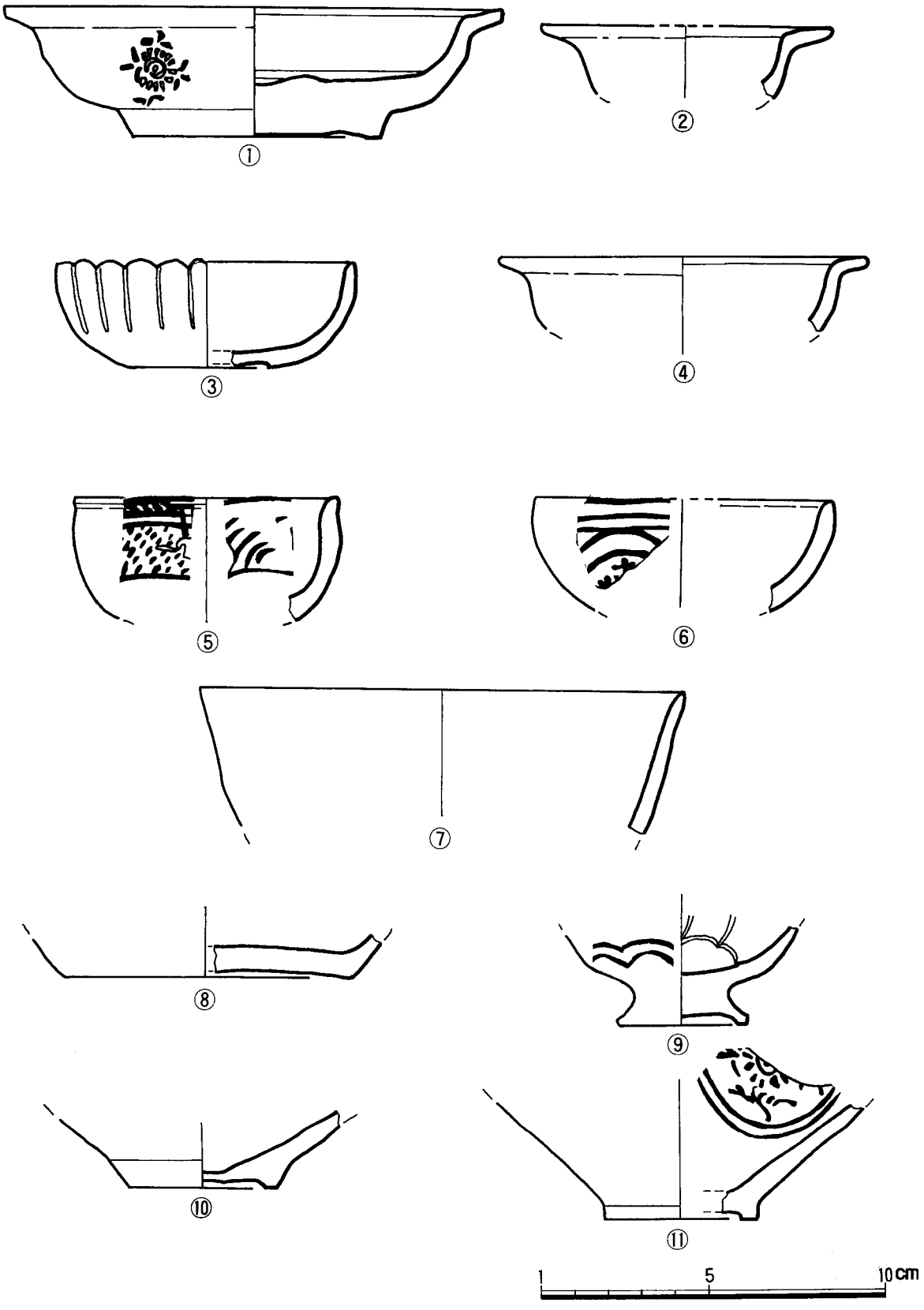
			내면 동체부에 꽃무늬 양각.		서북편내부
45	68－10	76－10	청자양각국화무늬접시저부편. 녹색. 성긴 빙렬. 내면바닥에 두줄의 양각원이 있고 그 안에 큰 국화무늬가 양각됨. 굽안에 규사받침 흔적.	現 高:1.0 굽 直徑:10.8 굽 高:0.4 굽 幅:0.2	A지구 계단상유구
46	68－11	76－11	청자양각꽃무늬접시저부편 내면바닥에 큰 꽃무늬가 양각됨. 굽은 바닥에서 한단 파들어간 형태. 굽바닥에 물레자국.	現 高:0.8 굽 直徑:5.2	A지구 계단상유구
47	68－12	76－12	청자양각꽃무늬접시저부편. 청녹색. 굽속까지 시유됨. 가는 빙렬. 굽바닥에 규사받침 흔적.	現 高:1.4 굽 直徑:6.8 굽 高;0.4 굽 幅:0.5	B－2구역 계단상유구
48	68－13	76－13	청자양각꽃무늬접시저부편. 내면－암녹색. 빙렬 있음. 외면－청녹색. 내면 바닥 중앙에 이중원과 그 안에 꽃무늬가 양각됨.	現 高:1.6 굽 直徑:9.2 굽 高:0.5 굽 幅:0.5	A지구 계단상유구
49	68－14	76－14	청자양각꽃무늬접시저부편. 내면－청녹색. 전면에 희미하게 꽃무늬 양각. 내외면에 성긴 빙렬. 굽바닥에 내화토 받침 자국.	現 高:1.8 굽 直徑:6.2 굽 高:0.8 굽 幅:0.2	A지구 계단상유구
50	68－15	76－15	청자대접저부편. 어두운 황색. 전면에 그물상의 빙렬. 내면과 외면굽에 모래받침 흔적.	現 高:2.8 굽 直徑:5.2 굽 高:0.5 굽 幅:0.5	B－2구역

2. 粉靑砂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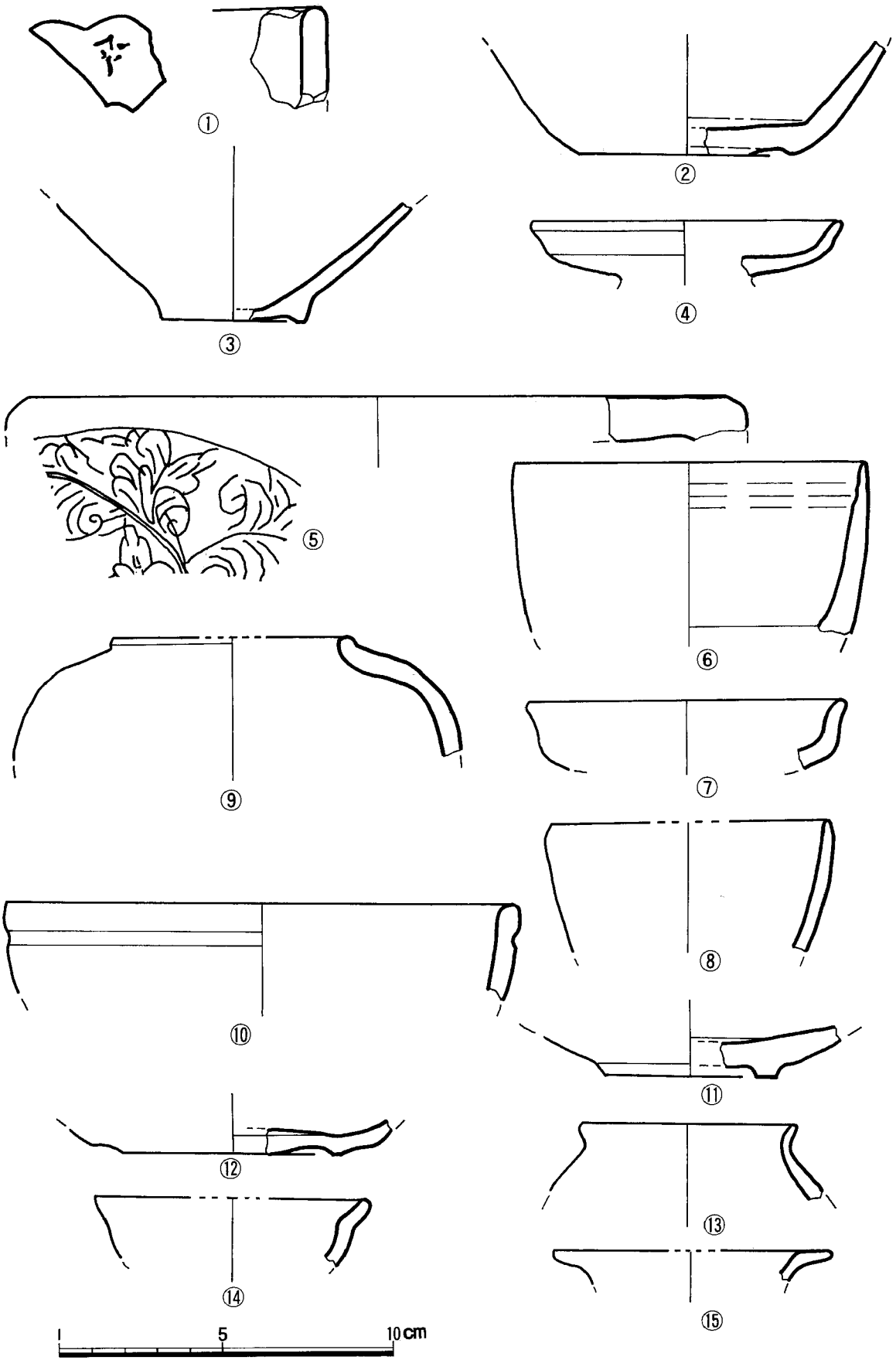
法華寺止 出土 陶磁器片중에서 가장 많은 양이 出土되었다. 出土된 粉靑砂器에서 볼 수 있는 수법은 象嵌, 印花, 彫花, 鐵畵, 덤벙, 귀얄수법등이다. 발굴 조사된 寺址의 전역에서 골고루 出土되었다.

가. 象嵌粉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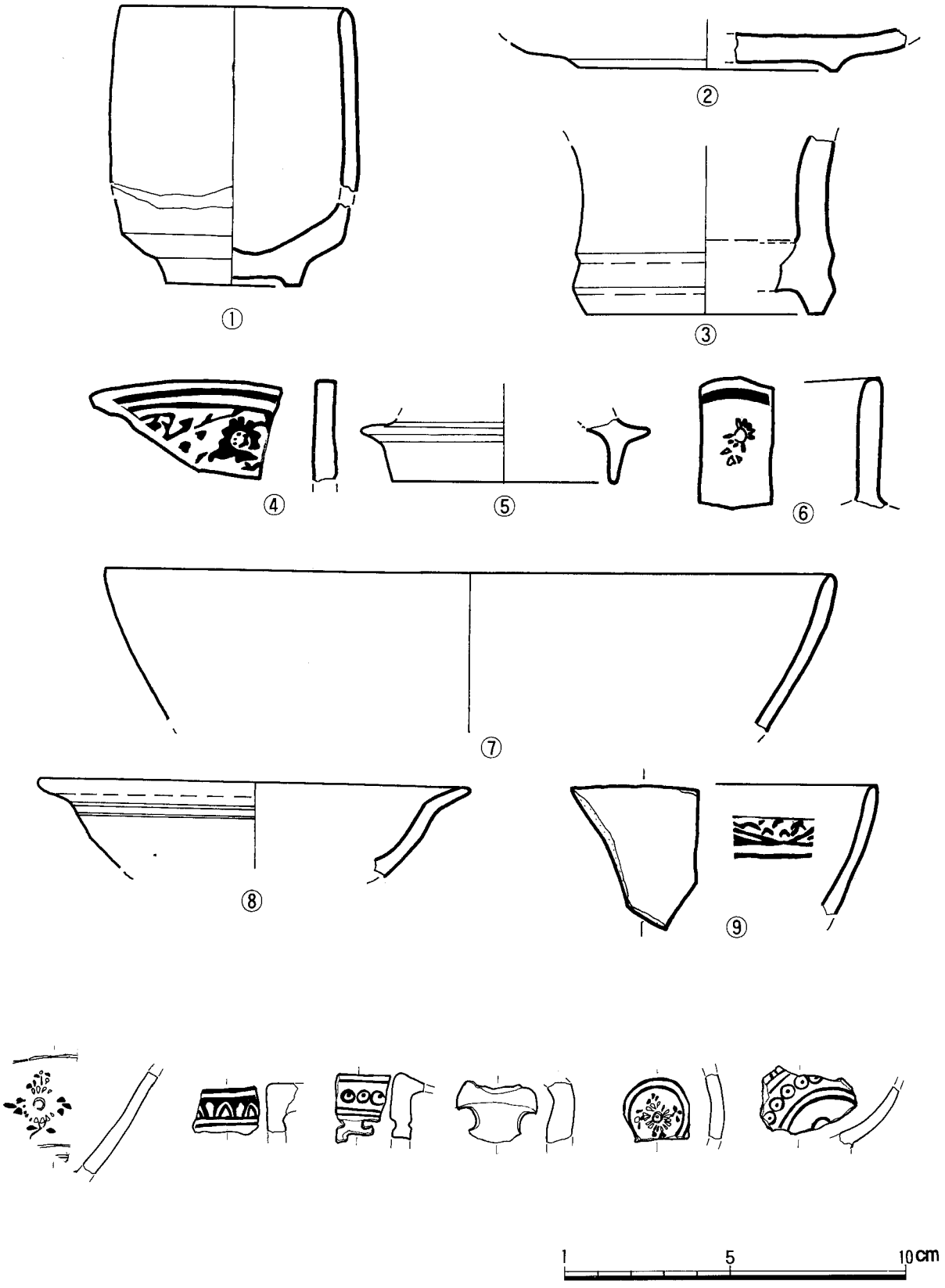
出土된 象嵌粉靑片은 몇점의 黑白象嵌片을 제외하고는 白象嵌片이 다수이다. 象嵌粉靑片에서 볼 수 있는 무늬는 菊花무늬, 連瓣, 唐草무늬, 如意頭무늬, 線무늬등이다. 釉藥의 색조는 크게 암녹색과 녹색으로 나눌 수 있으며, 회청색을 띠고 있는 것도 있다. 거의 모든 磁器片에 가는 빙렬이 보인다. 번조 받침으로는 모래 받침과 태토빚음 받침이 사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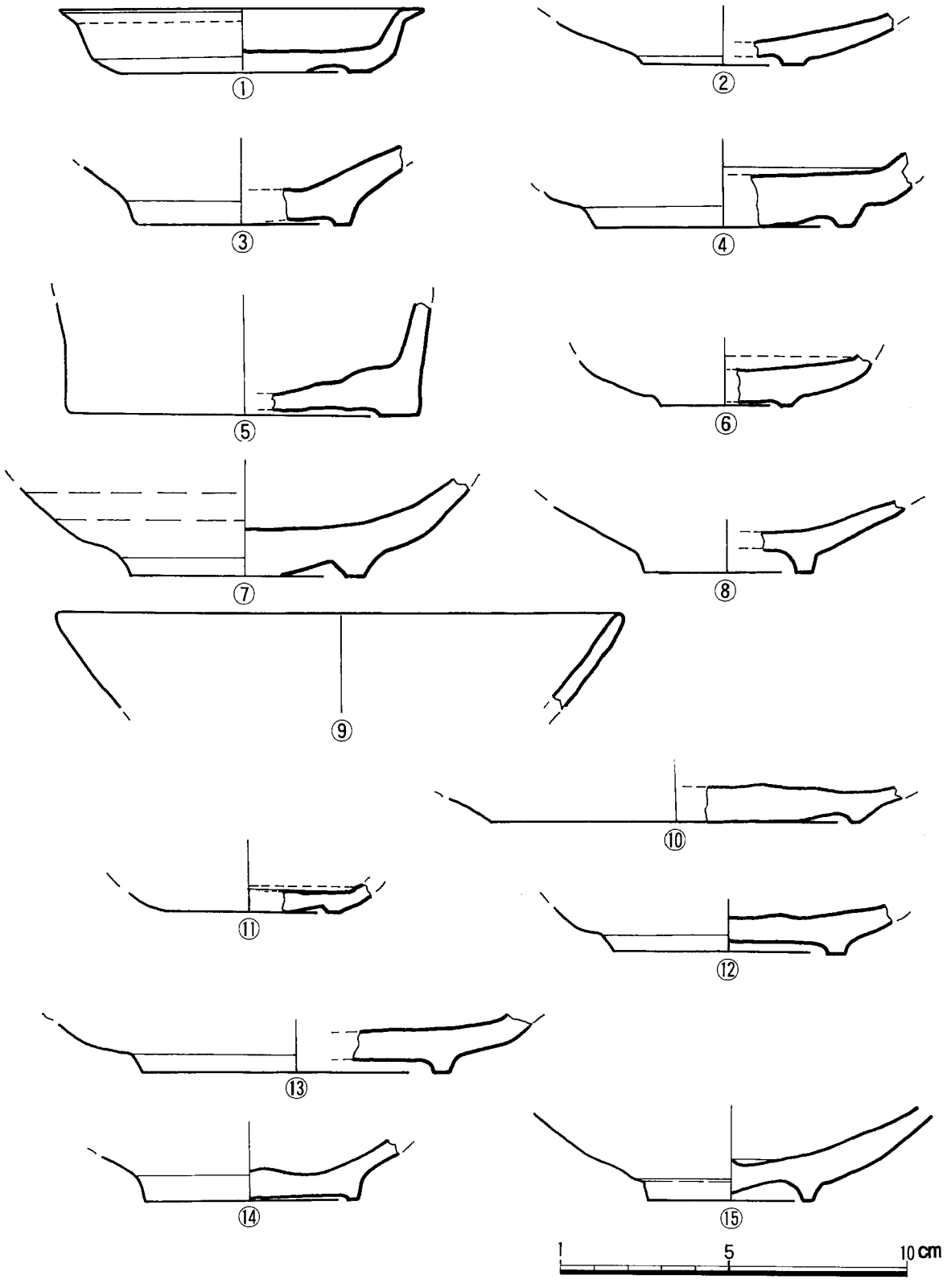
도면 65 A지구 출토 청자(1)



도면 66 A지구 출토 청자(2)



도면 67 A지구 출토 청자(3)



도면 68 A지구 출토 청자(4)

번호	도면번호	도판번호	특징	규격 (cm)	출토위치
1	69-1	77-1	분청상감대접구연부편 황갈색. 미세한 빙렬. 내외면에 각각 세줄과 한줄의 선이 백상감. 태토-불순물.	推定口徑:13.0	A지구 a건물지 남동쪽
2	69-2	77-2	분청상감대접구연부편. 암녹색. 빙렬보임. 내외면에 무늬 백상감.		A지구 b건물지동쪽
3	69-3	77-3	분청상감연판무늬항아리저부편. 황녹색. 기내면에는 시유되지 않음. 빙렬있음. 외면-굽언저리에 연판무늬가 백상감. 굽에 모래받침 흔적.	現 高:1.9 굽 直徑:8.8 굽 高:0.5 굽 幅:1.0	지표채집
4	69-4	77-4	분청상감접시저부편. 녹회색. 내면바닥에 풀무늬 상감. 태토 빗음 받침 흔적. 외면-물레자국. 태토-불순물.	現 高:2.3 굽 直徑:6.5 굽 高:0.8 굽 幅:0.4	A지구 a건물지 우측보도
5	69-5	77-5	분청상감여의두무늬접시저부편. 암녹색. 가는 빙렬. 내면중앙에 두줄의 선을 두고 그 밖에 여의두무늬 상감. 굽바닥에 태토빗음 받침 흔적.	現 高:2.4 굽 直徑:4.4 굽 高:0.6 굽 幅:0.4	B-2구역 계단상유구
6	69-6	77-6	분청상감여의두무늬접시저부편. 암녹색. 미세한 빙렬. 내면-바닥중앙에 이중원 무늬가 있고 그 둘레에 여의두 무늬 상감. 굽주변에 모래받침 자국.	現 高:1.3 굽 直徑:2.9 굽 高:0.4 굽 幅:0.4	B-2구역
7	69-7	77-7	분청상감꽃무늬접시저부편. 녹색. 내면-중앙에 원무늬와 그 주위에 꽃무늬가 상감됨. 굽테부분과 굽안쪽에 모래받침 흔적.	現 高:1.8 굽 直徑:6.2 굽 高:0.6 굽 幅:0.6	A지구 a건물지내부
8	69-8	77-8	분청상감접시저부편. 내면-명녹색. 성긴 빙렬. 외면-암녹색. 내면-바닥을 중심으로 벽면에 세로로 물결모양의 선을 백상감. 굽테에 규사눈 받침 자국.	現 高:1.8 굽 直徑:5.6 굽 高:0.5 굽 幅:0.4	A지구 a건물지내부
9	69-9	77-9	분청상감풀무늬대접저부편.	現 高:3.0	B-2구역

			내면－바닥중앙에 이중원무늬와 동체부에 풀무늬가 백상감됨. 기형은 굽에서 완만하게 올라가다가 위로 꺽인 형태.	굽 直徑:5.8 굽 高:0.3 굽 幅:0.3	계단상유구
10	69－10	77－10	분청상감대접저부편. 암녹색. 내면－바닥에 작은 내저원으로 동체와 경계. 모래받침 흔적. 동체부에 세겹의 선이 백상감.	現 高:1.8 굽 直徑:4.6 굽 高:0.3 굽 幅:0.2	A지구 a건물지 동쪽석렬
11	69－11	77－11	분청상감대접저부편. 녹색. 외면은 심하게 탈유되어 황백색을 띰. 바닥과 동체의 구분 뚜렷. 바닥 중앙과 동체부에 무늬 백상감. 굽바닥에 내화토 받침 흔적.	現 高:2.6 굽 直徑:6.4 굽 高:0.4 굽 幅:0.5	A지구 계단상유구
12	70－1	78－1	분청상감국화무늬접시저부편. 전면에 걸쳐 심하게 탈유됨. 내면－바닥중앙에 이중원무늬가 있고, 주무늬대에 국화무늬가 상감됨. 굽에 모래받침 흔적.	現 高:2.7 굽 直徑:5.6 굽 高:0.5 굽 幅:0.8	A지구 b건물지 서북편
13	70－2	78－2	분청상감대접저부편. 녹색. 미세한 빙렬. 동체와 내면바닥의 경계가 뚜렷. 내면벽에 한줄의 선이 상감되고, 외면에 두 줄의 선이 음각됨. 굽속에 모래받침자국.	現 高:2.4 굽 直徑:4.6 굽 高:0.5 굽 幅:0.5	B－2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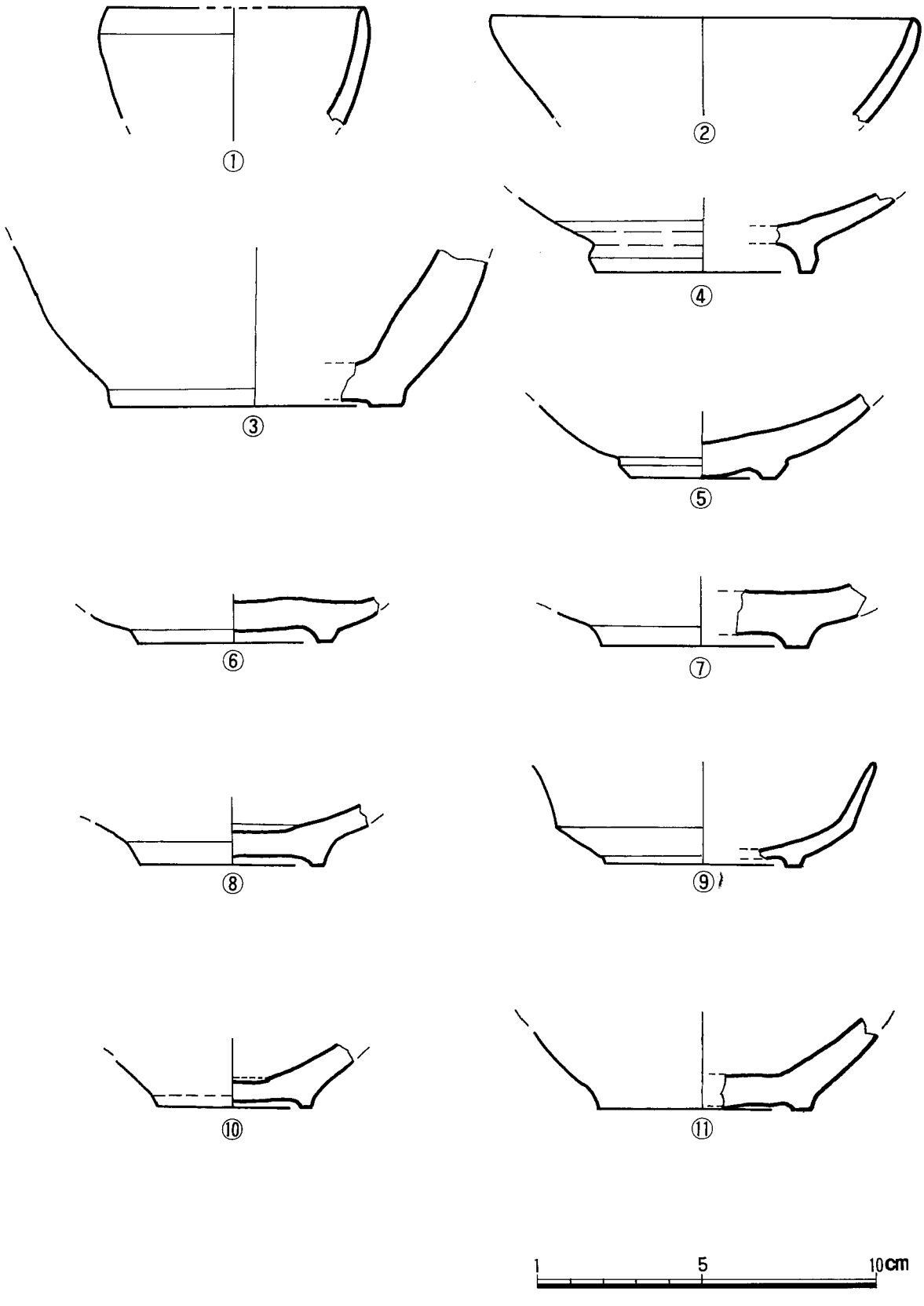
나. 印花粉靑

印花기법이 사용된 粉靑片에 가장 많이 쓰인 무늬는 菊花무늬이며, 雨點무늬, 와선무늬등도 있다. 대부분 회청색에 가까운 색조를 띠며, 시유상태가 고르지 못하다. 무늬는 집단 무늬로 기면을 거의 메우고 있는 것과 내면에만 시문된 것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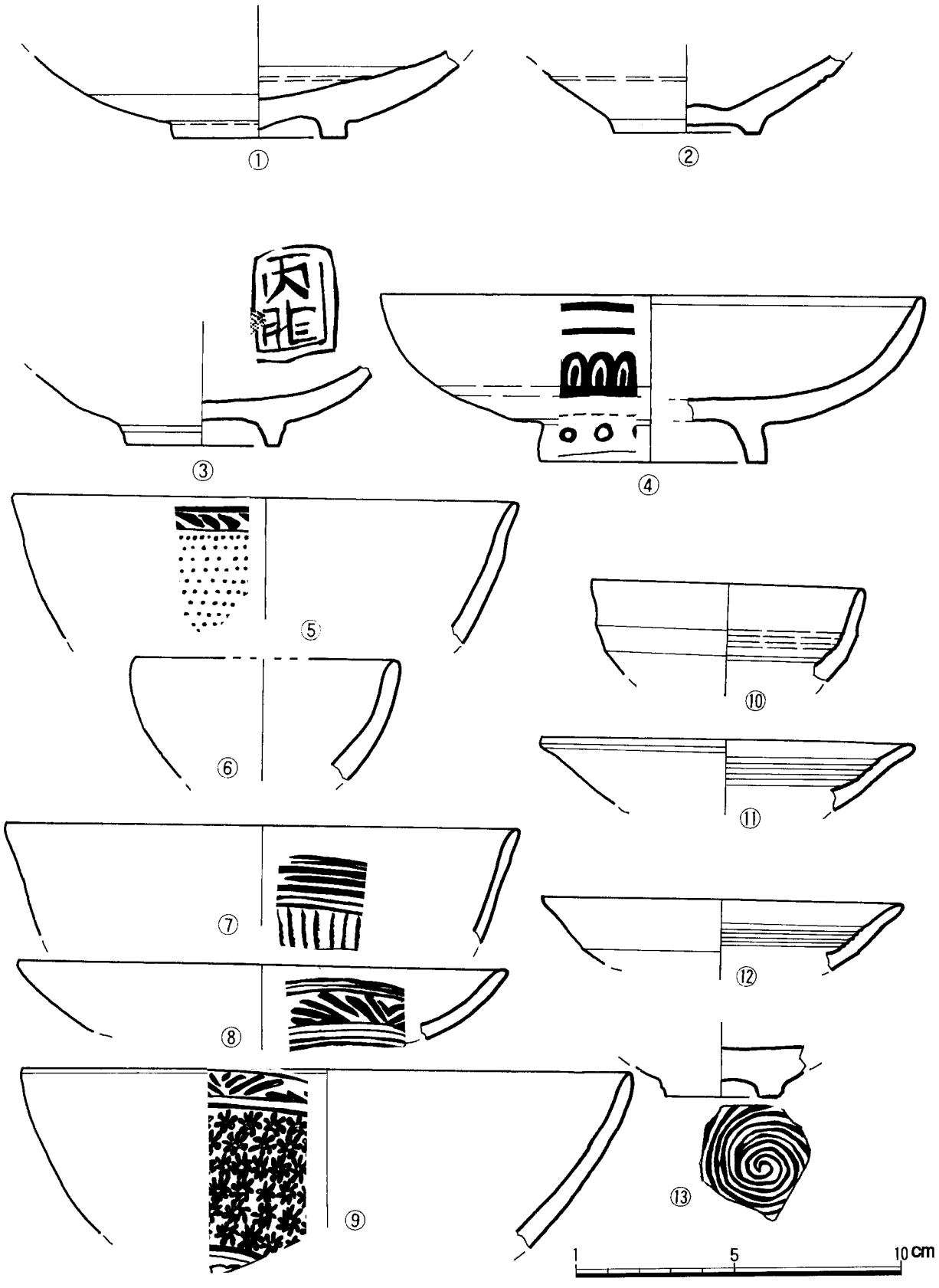
印花粉靑片 중에 "內贍"銘이 압인된 접시片이 한점 出土 되었는데 白土 감입상태나 시유상태가 좋지 못하다.

번호	도면번호	도판번호	특징	규격 cm	출토위치
1	70－3	78－3	분청인화내섬명접시저부편. 암녹색. 시유상태가 고르지 못함. 내면－바닥중앙에 큰 국화무늬가 있고 그 둘레를 "內贍"명이 새겨진 장방형의 도장으로 압인. 태토빚음받침 흔적.	現 高:2.5 굽 直徑:5.0 굽 高:0.7 굽 幅:0.5	B－2구역 계단상유구

2	70-4	78-4	분청인화국화무늬접시편. 내면-안바닥중앙에 큰 국화무늬를 중심으로 나비무늬, 연판무늬, 단독국화무늬대가 설정. 외면-굽언저리에 연판무늬대와 그 위에 단독국화무늬대가 설정됨. 굽다리를 돌아가며 연주무늬가 압인. 전면에 탈색 심함.	現 高:5.1 推定口徑:17.2 굽 直徑:7.2 굽 高:1.2 굽 幅:0.5	A지구 c건물지내부
3	70-5	78-5	분청인화무늬대접구연부편. 회백색유였으나 산화되어 황색을 띰. 가는빙렬. 내외면의 무늬대가 동일. 구연부에 풀무늬, 동체부에 집단연권무늬대 설정.	推定口徑:16.0	지표채집
4	70-6	78-6	분청인화국화무늬대접구연부편. 투명한 녹색. 약간의 빙렬. 내외면에 같은 무늬대 설정-구연에서 차례로 풀무늬, 단독국화무늬. 백토감입상태 비교적 양호.		지표채집
5	70-7	78-7	분청인화무늬대접구연부편. 투명한 녹회색. 표면에 물레자국. 내면동체부에 꾸불꾸불한 선무늬가 압인됨.	推定口徑:16.4	A지구 계단상유구
6	70-8	78-8	분청인화무늬접시구연부편. 회백색. 거의 탈유됨. 내면 구연부에 풀무늬와 그 아래에 와선무늬가 압인됨.	推定口徑:15.6	지표채집
7	70-9	78-9	분청인화국화무늬대접구연부편. 투명한 녹황색. 빙렬 있음. 내외면 문양대가 같게 설정됨-구연부에 풀잎무늬, 주무늬대에 국화무늬, 중앙에 큰 국화무늬대가 설정. 백토감입상태 양호.	推定口徑:19.4	A지구 계단상유구 내부
8	70-10	78-10	분청인화무늬대접구연부편. 암회색. 시유상태 불량. 대접이라기보다 작은 종지 형태. 내면에 와선무늬. 백토감입상태 불량.	推定口徑:8.6	A지구 계단상유구
9	70-11	78-11	분청인화와선무늬접시구연부편. 회색이 약간 들어간 암녹색. 내면 동체부에 와선문늬가 시문되고 그 위에 백토를 얇게 씌움. 태토불량으로 표면에 잡티 및 기포 형성.	推定口徑:11.8	A지구 b건물지
10	70-12	78-12	분청인화무늬접시구연부편. 암녹색.	推定口徑:11.4	B-2구역 계단상유구



도면 69 A지구 출토 상감분청(1)



도면 70 A지구 출토 상감·인화분청

			내면동체부에 와선무늬 시문후 백토 입힘. 표면에 잡티 및 물레자국.		
11	70-13	78-13	분청인화와선무늬대접저부편. 내면바닥에 와선무늬 시문. 굽에 태토빚음받침 흔적.	現 高:1.6 굽 直徑:3.6 굽 高:0.5 굽 幅:0.5	A지구 계단상유구

다. 彫花粉靑

彫花粉靑은 그릇표면에 백토 분장한 후 唐草무늬를 陰刻하였다. 표면에 가는 빙렬이 있다.

번호	도면번호	도판번호	특징	규격(cm)	출토위치
1	71-2	79-2	분청조화당초무늬큰그릇구연부편. 투명한 녹색. 내외면에 빙렬 보임. 표면에 백토를 얇게 입힌 후 당초무늬를 음각함. 구연 외반됨.	推定口徑:30.0	A지구 a건물지

라. 鐵畫粉靑

鐵畫粉靑片은 A지구 계단상유구에서 두점이 수습되었다. 두점 모두 甁片이며, 표면에 귀얄로 白土를 바른 후 唐草무늬를 그렸다. 한점은 녹색빛이 도는 투명유가 시유되었고 가는 빙렬이 있으며, 다른 한점은 탈유되어 표면에 윤기가 없다. 태토는 비교적 양호하였다.

번호	도면번호	도판번호	특징	규격(cm)	출토위치
1	71-3	79-3	분청철화당초무늬병동체부편. 투명한 녹색. 외면에 가는 빙렬. 표면에 귀얄로 백토 칠한 후 당초무늬를 그림. 태토-비교적 양호.		A지구 계단상유구
2	71-4	79-4	분청철화당초무늬병동체부편. 탈유되어 표면이 거침. 귀얄로 백토 칠한 후 당초무늬 그림.		A지구 계단상유구

마. 귀얄粉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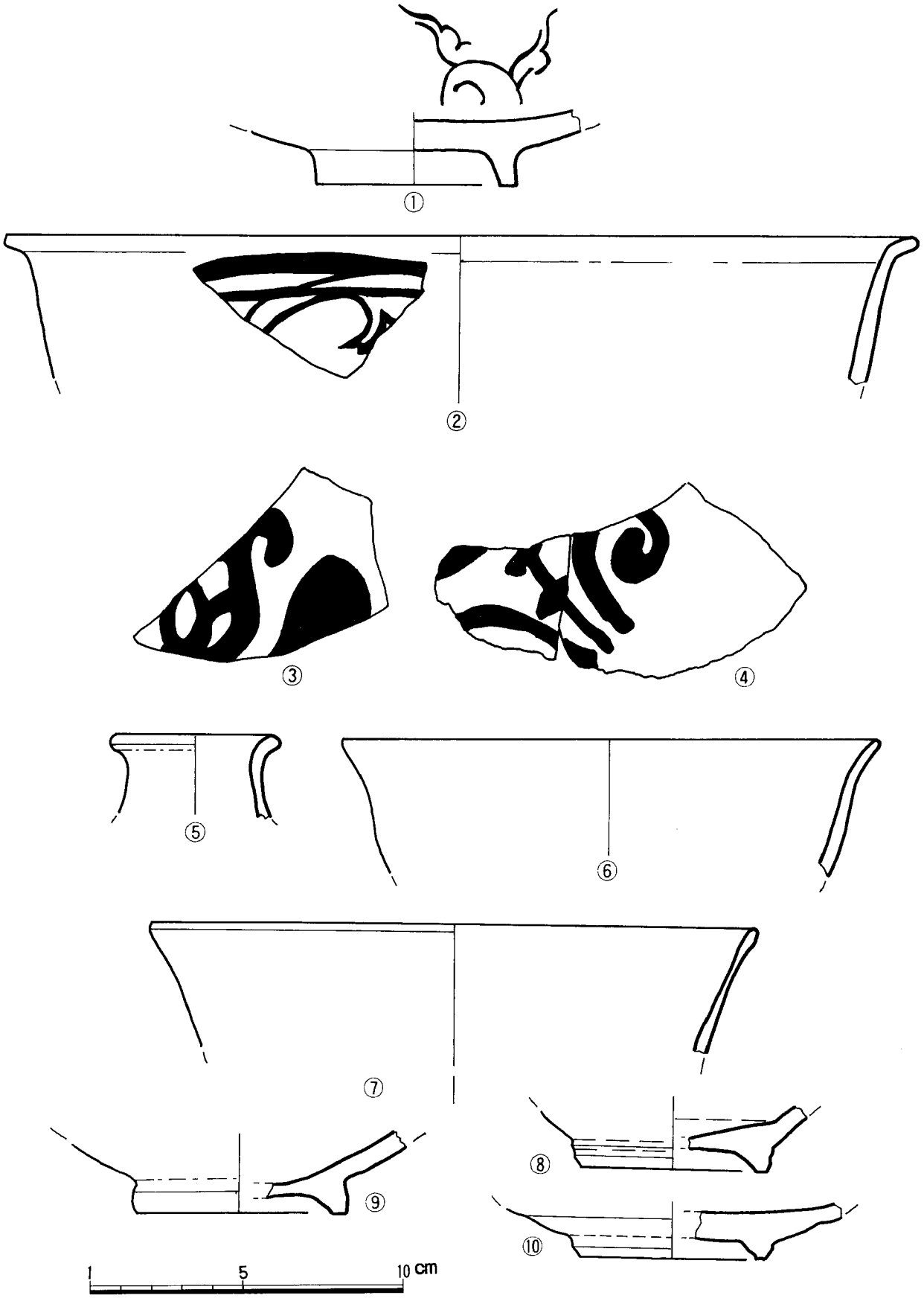
그릇 전면에 순수하게 귀얄수법만 사용된 粉靑片은 몇점 안되고, 귀얄로 백토를 바른후 陰刻수법이나 鐵畫수법이 함께 쓰인 것이 많다. 녹색을 머금은 투명유가 시유되었다.

번호	도면 번호	도판 번호	특징	규격 (cm)	출토 위치
1	71-5	79-5	분청귀얄병구연부편. 투명한 암녹색. 약간의 빙렬. 외면에 귀얄자국. 구연 외반.	推定口徑:5.2	A지구 a건물지 동쪽석렬
2	71-6	79-6	분청귀얄대접구연부편. 황백색. 외면은 거의 탈유됨.	推定口徑:17.6	A지구 a건물지
3	71-7	79-7	분청귀얄대접구연부편. 녹색. 내면에는 산화되어 황백색을 띰. 빙렬 보임. 내면에 귀얄자국. 태토-불순물.	推定口徑:20.0	A지구 b건물지
4	71-8	79-8	분청귀얄대접저부편. 회청색. 내외면에 얇게 시유. 내면 동체부에 귀얄자국. 내면 바닥에 음각원을 두어 동체와 구분. 바닥에 내화토 자국. 태토의 거친 면이 그대로 드러남.	現 高:2.1 굽 直徑:6.2 굽 高:0.8 굽 幅:0.4	A지구 a건물지 동쪽석렬
5	71-9	79-9	분청귀얄대접저부편. 투명한 녹색. 내면에 귀얄자국. 내화토 받침 자국.	現 高:2.7 굽 直徑:6.9 굽 高:1.2 굽 幅:0.4	A지구 a건물지 동쪽석렬
6	71-10	79-10	분청귀얄접시저부편. 암녹색. 시유상태불량. 표면에 기포형성. 내면-귀얄자국. 태토받침자국. 탈유 심하여 표면 거침.	現 高:1.9 굽 直徑:6.0 굽 高:0.6 굽 幅:0.2	A지구 a건물지 남쪽석렬 앞

바. 덤벙粉靑

덤벙분장된 粉靑砂器片은 전면에 분장된 것과 내면에만 분장된 두종류가 出土되었다. 분장된 白土의 두께는 비교적 얇고, 가는 빙렬이 있다. 底部가 남아있는 粉靑片 내면에 포개어 구웠던 흔적이 있고, 태토에는 불순물이 섞여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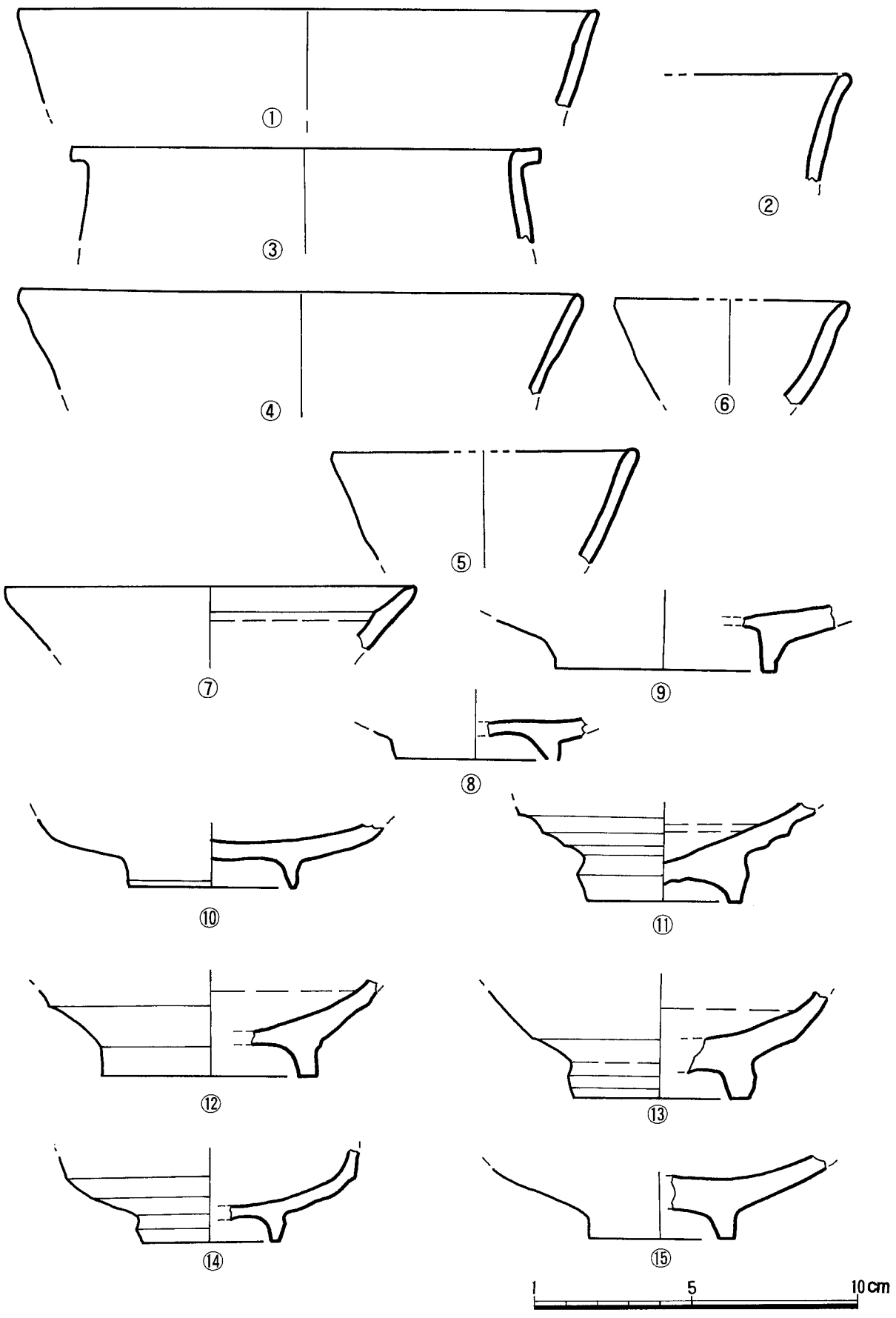
번호	도면 번호	도판 번호	특징	규격 (cm)	출토 위치
1	72-1	80-1	분청덤벙분장대접구연부편. 투명한 암녹색. 시유상태 불량. 성긴 빙렬.	推定口徑:18.6	A지구 계단상유구
2	72-2	80-2	분청덤벙분장대접구연부편. 황백색. 미세한 빙렬.		A지구 계단상유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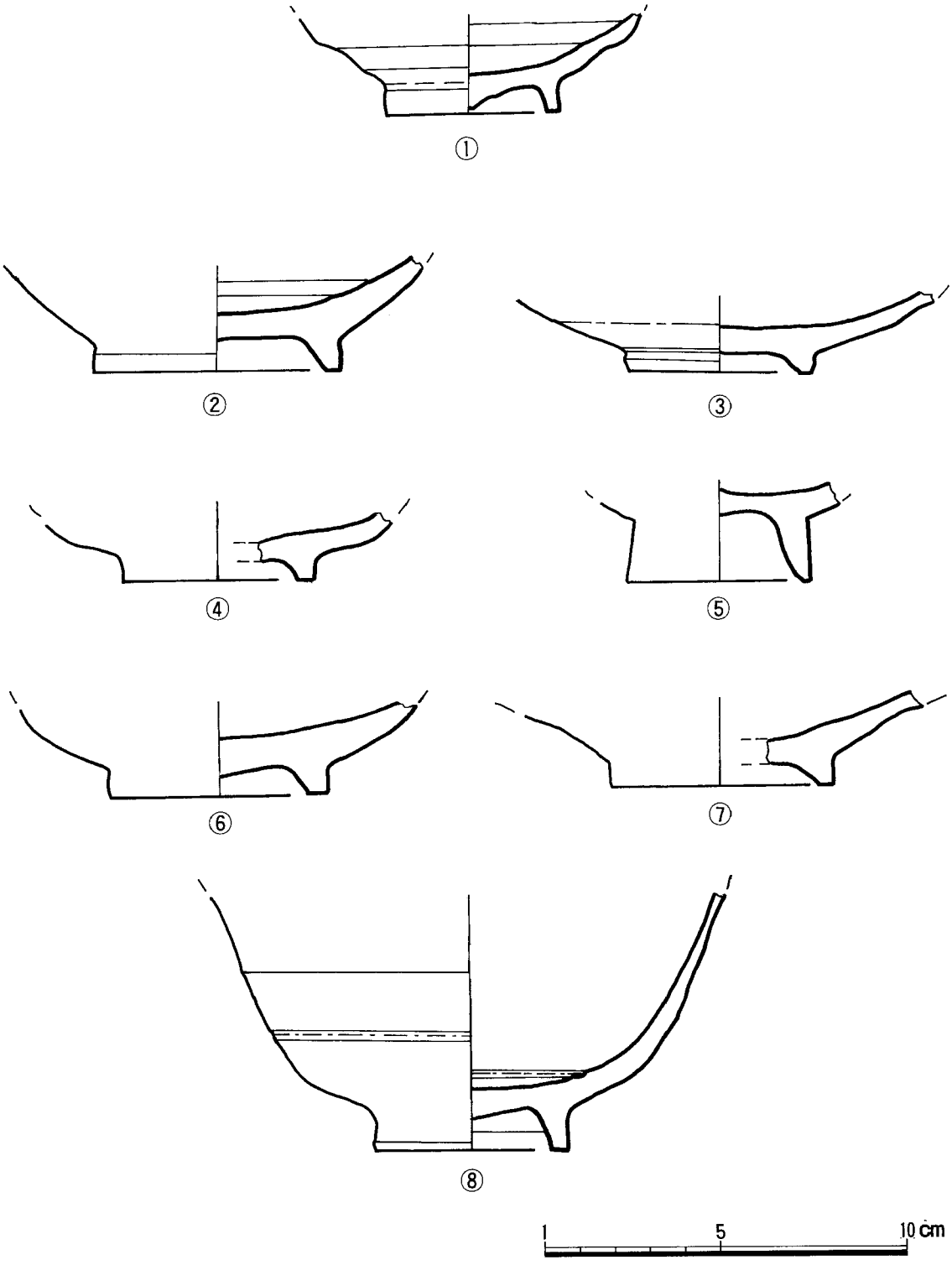


도면 71 A지구 출토 조선청자와 조화·철화·귀얄분청

			내외면에 백토분장.		
3	72-3	80-3	분청덤벙분장항아리구연부편. 백토분장된 위로 푸른빛이 도는 투명유를 시유. 미세한빙렬 보임. 구연부가 넓은 항아리형으로 목부분이 따로 설정되어 있지 않고 구연에서 직각으로 외반됨.	推定口徑:15.0	A지구 계단상유구
4	72-4	80-4	분청덤벙분장대접구연부편. 투명한 청색. 가는 빙렬. 내면과 외면 구연부까지 백토 분장됨. 태토 불량.	推定口徑:18.0	A지구 a건물지내부
5	72-5	80-5	분청덤벙분장대접구연부편. 투명한 청색. 외면 구연부와 내면이 두껍게 백토분장됨. 빙렬보임.		B-2구역 계단상유구
6	72-6	80-6	분청덤벙분장대접구연부편. 투명한 청회색. 약간의 빙렬. 내면에만 백토분장됨. 외면에 선명한 물레자국.		B-3구역
7	72-7	80-7	분청덤벙분장접시구연부편. 투명한 녹색. 약간의 빙렬. 백토분장상태 불량.	推定口徑:13.2	A지구 c건물지내부
8	72-8	80-8	분청덤벙분장대접저부편. 투명한 청색. 빙렬보임. 내면-바닥에 백토분장됨. 태토빚음받침 흔적. 태토-불순물.	現 高:1.3 굽 直徑:6.2 굽 高:0.6 굽 幅:0.3	A건물 b건물지
9	72-9	80-9	분청덤벙분장접시저부편. 내면-백토를 얇게 입히고, 녹색빛이 도는 투명유 시유. 외면-태토위에 암녹색유 시유. 태토의 거친면과 물레자국. 내면바닥과 굽에 내화토 받침자국. 태토-불량.	現 高:2.1 굽 直徑:7.0 굽 高:0.9 굽 幅:0.4	A지구 계단상유구
10	72-10	80-10	분청덤벙분장접시저부편. 회백색. 빙렬보임. 내면바닥에 포개어 구웠던 번조받침 흔적. 태토-불량	現 高:2.0 굽 直徑:5.4 굽 高:0.9 굽 幅:0.2	A지구 계단상유구
11	72-11	80-11	분청덤벙분장대접저부편. 내면-백토분장하고 녹색빛이 도는 투명유 시유. 미세한 빙렬 보임. 바닥에 내화토 받침 자	現 高:3.1 굽 直徑:6.0 굽 高:1.5	A지구 계단상유구

			국. 외면－심하게 탈유됨. 굵고 뚜렷한 물레자국.	굽 幅:0.4	
12	72－12	80－12	분청덤벙분장대접저부편. 약간의 빙렬. 내면－백토를 씌운 후 녹색빛이 도는 유약 시유. 바닥에 태토 빚음 받침 흔적. 외면－태토위에 그대로 암녹색유 시유. 물레자국.	現 高:3.0 굽 直徑:7.0 굽 高:0.9 굽 幅:0.6	A지구 계단상유구
13	72－13	80－13	분청덤벙분장대접저부편. 투명한 녹색. 빙렬 있음. 내면에는 백토를 두껍게 분장하였고, 외면에는 태토위에 그대로 유약 시유. 외면에 물레자국. 대마디굽. 굽과 내면바닥에 태토빚음받침 흔적.	現 高: 3.4 굽 直徑:5.8 굽 高:1.2 굽 幅:0.6	A지구 계단상유구
14	72－14	80－14	분청덤벙분장대접저부편. 내면－백토를 입힌 후 청색빛이 도는 투명유를 시유. 외면－태토위에 그대로 유약 시유. 굽주위에 모래받침 자국.	現 高:2.9 굽 直徑:4.4 굽 高:0.9 굽 幅:0.3	A지구 계단상유구
15	72－15	80－15	분청덤벙분장접시저부편. 유약이 굽언저리에서 동체부쪽으로 흐른 자국. 기표면에 기포 형성. 내면바닥에 태토빚음받침 흔적	現 高:2.6 굽 直徑:4.7 굽 高:0.9 굽 幅:0.5	A지구 계단상유구
16	73－1	81－1	분청덤벙분장대접저부편. 내면－백토분장후 투명유 시유. 빙렬 있음. 외면－유약이 얇아서 물레자국이 뚜렷하게 남아 있고 기포가 형성됨. 굽폭이 일정하지 않음.	現 徑:2.7 굽 直徑:5.0 굽 高:0.9 굽 幅:0.3	A지구 계단상유구
17	73－2	81－2	분청덤벙분장대접저부편. 투명한 녹색. 내면에만 백토 분장됨. 태토－불량.	現 高:3.2 굽 直徑:6.8 굽 高:0.8 굽 幅:0.3	B－2구역 기와 매립층
18	73－3	81－3	분청덤벙분장대접저부편. 청백색. 가는 빙렬. 내면바닥에 태토빚음받침 흔적.	現 高:2.3 굽 直徑:5.2 굽 高:0.6 굽 幅:0.4	A지구 계단상유구
19	73－4	81－4	분청덤벙분장대접저부편. 투명한 청녹색. 가는 빙렬. 내외면에 백토분장. 굽언저리에서 동체쪽으로 백토 흘러 뭉침.	現 高:1.8 굽 直徑:5.4 굽 高:0.6 굽 幅:0.4	A지구 a건물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1
5
10cm



도면 73 A지구 출토 덤벙분장분청(2)

			내면 바닥에 태토빚음받침흔적. 태토－불량.		
20	73－5	81－5	분청덤벙분장대접저부편. 푸른빛이 도는 회백색. 가는 빙렬. 내면 바닥에 태토빚음받침 흔적. 굽언저리에는 시유되지 않음. 비교적 높은 굽.	現 高:2.7 굽 直徑:6.2 굽 高:1.8 굽 幅:0.3	A지구 a건물지내부
21	73－6	81－6	분청덤벙분장접시저부편. 탈유되어 표면이 매끄럽지 못함. 빙렬있음. 기표면에 기포 형성.	現 高:2.4 굽 直徑:6.2 굽 高:0.8 굽 幅:0.4	A지구 a건물지
22	73－7	81－7	분청덤벙분장접시저부편. 내면－백토를 얇게 입힌후 녹색빛이 도는 투명유 시유. 빙렬 보임. 태토빚음받침 자국. 외면－시유상태 불량. 물레자국.	現 高:2.5 굽 直徑:6.4 굽 高:0.8 굽 幅:0.4	A지구 a건물지
23	73－8	81－8	분청덤벙분장대접저부편. 청색빛이 도는 회백색. 외면에 그물상의 빙렬. 내면 바닥에 한줄의 음각원. 굽다리 부분에 손으로 잡고 담궜던 흔적이 보이고, 동체부쪽으로 유약이 흘러서 뭉쳐짐. 굽안쪽에 물레자국이 보임.	굽 直徑:5.6 굽 高:1.2 굽 幅:0.4	A지구 a건물지

사. 기타 분청사기 및 조선청자

出土된 분청사기片 중에서 형태를 알 수 있는 破片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것은 태토위에 그대로 유약을 시유한 粉靑片이다. 釉의 색조는 암녹색, 녹색, 황갈색, 청색을 머금은 회백색등 다양하게 보인다. 시유상태는 대체로 불량하고, 태토에 불순물이 섞여있는 것은 표면이 매끄럽지 못하고 잡티가 보인다. 빙렬이 있는 것이 많고, 釉가 산화되어 황백색을 띠는 것도 있다. 높은 굽에 속하는 粉靑片은 없고 아주 낮거나 보통 높이의 굽들이다.

朝鮮靑磁는 접시片으로 내면바닥에 구름무늬가 陰刻되었다.

번호	도면번호	도판번호	특징	규격 (cm)	출토위치
1	74－1	82－1	분청대접구연부편. 반투명한 암녹색. 성긴 빙렬.	推定口徑:13.8	B－2지구 계단상유구
2	74－2	82－2	분청대접구연부편. 청녹색. 시유상태 불량. 약간의 빙렬. 태토－불순물. 외면에 희미한 물레자국. 구연이 외반됨.	推定口徑:15.2	A지구 b건물지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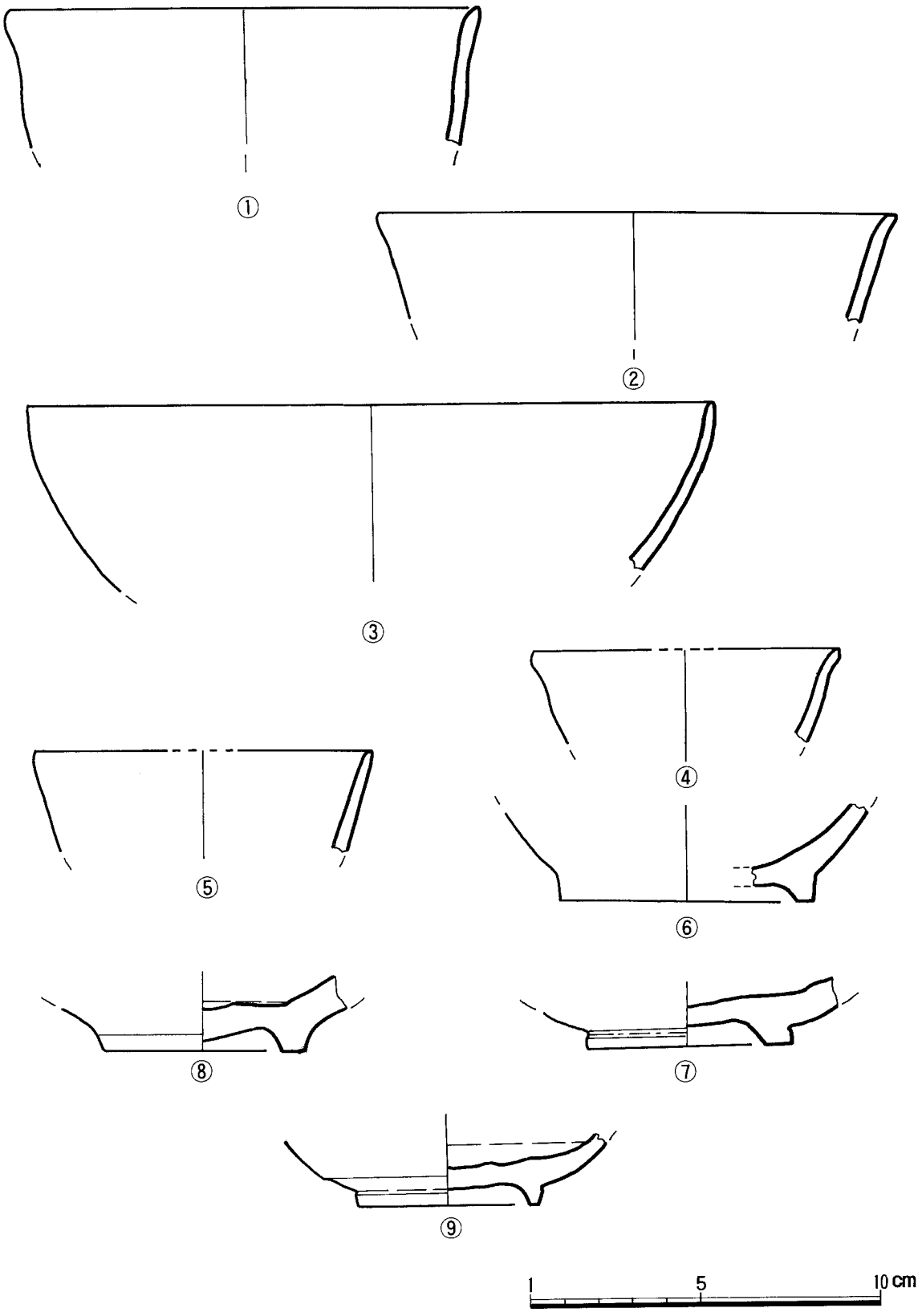
3	74−3	82−3	분청대접구연부편. 녹황색. 가는 빙렬. 표면에 물레자국.	推定口徑:20.2	A지구 계단상유구
4	74−4	82−4	분청대접구연부편. 회청색. 가는 빙렬.		지표채집
5	74−5	82−5	분청대접구연부편. 청녹색. 시유상태가 고르지 못함. 성긴 빙렬.		지표채집
6	74−6	82−6	분청대접저부편. 암녹색. 시유상태불량. 부분적으로 산화되어 황백색을 띰.	現 高:2.8 굽 直徑:7.4 굽 高:0.8	A지구 c건물지
7	74−7	82−7	분청접시저부편. 암녹색. 부분부분 산화. 빙렬 보임. 내면−바닥에 음각원을 두어 동체와 구분. 태토빚음받침 흔적.	現 高:0.4 굽 幅:1.9 굽 直徑:6.0 굽 高:0.5 굽 幅:0.8	A지구 c건물지
8	74−8	82−8	분청접시저부편. 황색빛이 도는 암녹색. 빙렬 보임. 내면−바닥과 동체의 경계 뚜렷. 내화토 받침자국. 외면−굽에 네군데의 내화토 받침자국. 태토불량으로 기포 형성.	現 高:2.3 굽 直徑:6.0 굽 高:0.6 굽 幅:0.7	A지구 a건물지 남쪽중앙
9	74−9	82−9	분청대접저부편. 암녹색. 부분적으로 탈유되어 황색을 띰. 굽언저리에 기포 형성. 빙렬 없음.	現 高:2.1 굽 直徑:5.4 굽 高:0.6 굽 幅:0.3	A지구 a건물지내부
10	75−1	83−1	분청대접저부편. 녹회색. 가는빙렬.	現 高:2.1 굽 直徑:5.9 굽 高:0.7 굽 幅:0.3	지표채집
11	75−2	83−2	분청대접저부편. 암녹색. 탈유되어 황색을 띰. 태토−불량. 굽과 바닥에 내화토 받침 흔적.	現 高:1.8 굽 直徑:6.0 굽 高:0.6 굽 幅:0.5	B−3구역
12	75−3	83−3	분청대접저부편. 청녹색. 탈유되어 황백색. 태토−불량. 미세한 빙렬. 내면 바닥에 내화토 받침 흔적.	現 高:2.5 굽 直徑:4.8 굽 高:1.0 굽 幅:0.3	A지구 c건물지내부

13	75-4	83-4	분청접시저부편. 암녹색이었으나 탈유되어 황백색을 띰. 내면-바닥에 내화토 받침자국. 미세한 빙렬 보임.	現 高:1.9 굽 直徑:7.0 굽 高:0.8 굽 幅:0.4	A지구 c건물지내부
14	75-5	83-5	분청대접저부편. 암녹색. 탈유되어 부분적으로 황색을 띰. 내면바닥에 태토빚음받침 자국.	現 高:3.0 굽 直徑:5.0 굽 高:0.5 굽 幅:0.3	B-2구역 계단상유구
15	75-6	83-6	분청대접저부편. 황녹색. 가는 빙렬. 표면에 물레자국. 태토-불량. 내면과 굽에 번조받침 흔적.	現 高:2.9 굽 直徑:6.0 굽 高:0.6 굽 幅:0.4	지표채집
16	75-7	83-7	분청대접저부편. 암녹색. 내면에 빙렬. 굽에 모래받침자국. 태토-불량.	現 高:2.2 굽 直徑:5.6 굽 高:0.8 굽 幅:0.4	B-3구역
17	75-8	83-8	분청접시구연부편. 투명한 청회색. 빙렬 있음. 내면-바닥과 동체부를 가르는 음각원. 바닥에 모래받침 흔적. 태토에 잡물.	推定口徑:2.3	B-2구역 기와매립층
18	75-9	83-9	분청대접저부편. 황녹색. 가는 빙렬. 내면바닥에 태토빚음받침 자국. 태토-불량.	現 高:2.3 굽 直徑:6.0 굽 高:0.9 굽 幅:0.3	B-3구역
19	75-10	83-10	분청접시저부편. 암녹색. 전면에 고르게 시유. 내면바닥에 넓은 음각원. 바닥과 굽에 모래받침 자국.	現 高:1.9 굽 直徑:6.4 굽 高:0.2 굽 幅:0.4	B-3구역
20	75-11	83-11	분청대접저부편. 투명한 녹색. 선명한 물레자국. 내면바닥에 태토빚음받침자국. 굽정리 상태 불량.	現 高:1.9 굽 直徑:5.6 굽 高:1.0 굽 幅:0.5	B-2구역 동편보도
21	75-12	83-12	분청접시저부편. 암녹색. 고르게 시유. 내면바닥과 굽에 모래받침자국. 태토-불순물.	現 高:1.8 굽 直徑:6.2 굽 高:0.5 굽 幅:0.3	B-3구역
22	75-13	83-13	분청대접저부편.	現 高:1.7	B-3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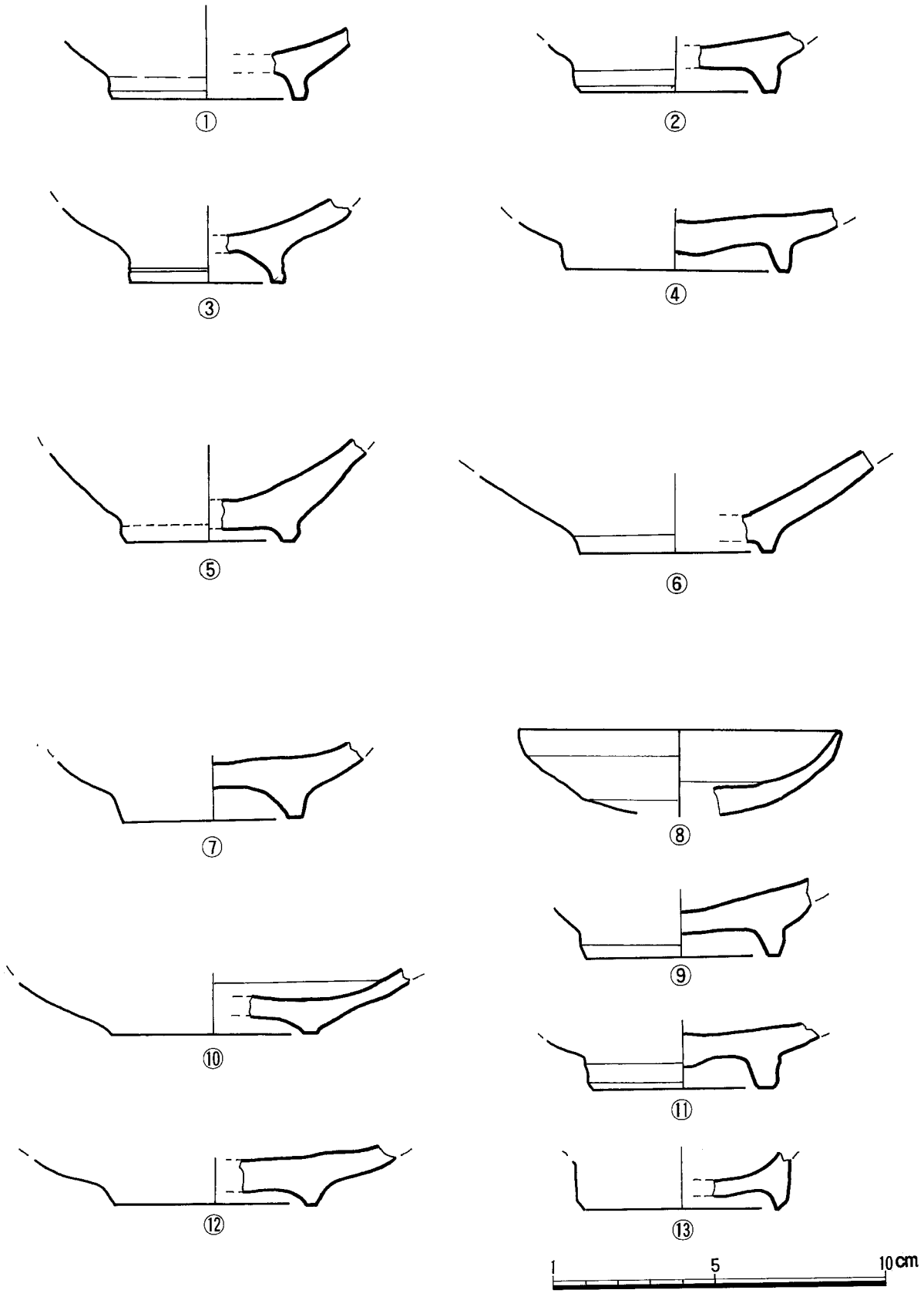
			회청색. 태토불량으로 표면에 기포. 내면 바닥에 태토빚음받침 자국.	굽 直徑:6.0 굽 高:1.4 굽 幅:0.1	
23	76−1	84−1	분청대접저부편. 암녹색. 성긴 빙렬. 굽에 내화토받침 자국.	現 高:2.3 굽 直徑:6.2 굽 高:0.5 굽 幅:0.6	B−2구역
24	76−2	84−2	분청대접저부편. 암녹색. 외면은 산화되어 황백색을 띰. 가는 빙렬. 굽안쪽에 내화토 받침 흔적.	現 高:1.8 굽 直徑:5.6 굽 高:0.6 굽 幅:0.4	A지구 계단상유구
25	76−3	84−3	분청대접저부편. 암녹색. 빙렬보임. 외면에 물레자국. 굽이 파손되어 굽높이 추정곤란. 태토−불순물.	굽 直徑:5.6	A지구 계단상유구
26	76−4	84−4	분청접시저부편. 원래는 녹색유였으나 탈유되어 황백색의 유조를 띰. 내면바닥과 굽에 내화토 받침 흔적. 표면에 기포 형성.	現 高:1.3 굽 直徑:4.9 굽 高:0.2 굽 幅:0.5	A지구 계단상유구
27	76−5	84−5	분청접시저부편. 청녹색. 시유상태불량. 가는 빙렬.	現 高:1.9 굽 直徑:5.8 굽 高:0.8 굽 幅:0.6	A지구 a건물지 동쪽석렬
28	76−6	84−6	분청접시저부편. 암녹색. 산화되어 황백색을 띰. 가는 빙렬. 내면바닥과 굽에 내화토 받침 자국.		지표채집
29	76−7	84−7	분청접시저부편. 청녹색. 시유상태 불량. 내면바닥에 네군데의 태토빚음받침 흔적. 굽정리 상태 불량. 외면에 유약이 흘러 뭉친 곳이 보임. 기표면에 물레자국.	現 高:3.3 推定口徑:15.3 굽 直徑:5.2 굽 高:0.5 굽 幅:0.6	A지구 a건물지 동쪽벽
30	76−8	84−8	분청대접저부편. 담청색. 빙렬 보임. 내면바닥과 동체의 경계가 뚜렷. 내면과 굽에 모래받침 자국.	現 高:1.2 굽 直徑:4.6 굽 高:0.5 굽 幅:0.4	B−2구역 기와매립층
31	76−9	84−9	분청접시저부편. 암녹색. 미세한 빙렬. 낮은 굽.	現 高:1.5 굽 直徑:4.8	지표채집

			굽에 모래받침자국.	굽 高:0.1 굽 幅:0.6	
32	76－10	84－10	분청대접저부편. 암녹색. 미세한 빙렬. 태토－불량.	現 高:2.2 굽 直徑:7.0 굽 高:0.8 굽 幅:0.7	A지구 a건물지 동쪽석렬
33	76－11	84－11	분청접시저부편. 옅은 녹색.미세한 빙렬. 내면－바닥에 내화토 받침 자국. 포개어 구웠던 굽이 녹아 내면바닥에 붙음.	現 高:2.9 굽 直徑:5.4 굽 高:0.9 굽 幅:0.4	A지구 계단상유구
34	76－12	84－12	분청접시저부편. 회녹색. 굽속을 제외한 전면에 시유됨. 드문드문 빙렬. 내면바닥에 태토빚음받침 흔적.	現 高:1.7 굽 直徑:5.4 굽 高:0.6 굽 幅:0.4	B－3구역
35	76－13	84－13	분청대접저부편. 녹색. 시유상태 불량. 내면바닥에 태토빚음받침 흔적. 외면에 선명한 물레자국.	現 高:2.2 굽 直徑:6.2 굽 高:1.1 굽 幅:0.5	B－2구역
36	77－1	85－1	분청대접저부편. 회녹색. 약간의 빙렬. 내면바닥에 태토빚음받침 흔적. 태토－불순물.	現 高:1.7 굽 直徑:4.9 굽 高:0.5 굽 幅:0.3	B－3구역
37	77－2	85－2	분청대접저부편. 암회색. 부분부분 황색. 가는 빙렬. 굽에 모래받침 흔적.	現 高:2.9 굽 直徑:5.4 굽 高:0.4 굽 幅:0.6	A지구 a건물지
38	77－3	85－3	분청대접저부편. 청녹색유였으나 산화되어 황갈색을 띰. 내화토 받침 자국.	現 高:1.4 굽 直徑:5.3 굽 高:0.8 굽 幅:0.3	지표채집
39	77－4	85－4	분청대접저부편. 암녹색. 태토－불량.	現 高:1.7 굽 直徑:5.2 굽 高:0.8 굽 幅:0.3	B－3구역
40	77－5	88－5	분청대접저부편. 청녹색. 약간의 빙렬. 태토－불량. 내면바닥에 내화토자국.	現 高:1.6 굽 直徑:6.4 굽 高:0.5 굽 幅:0.5	지표채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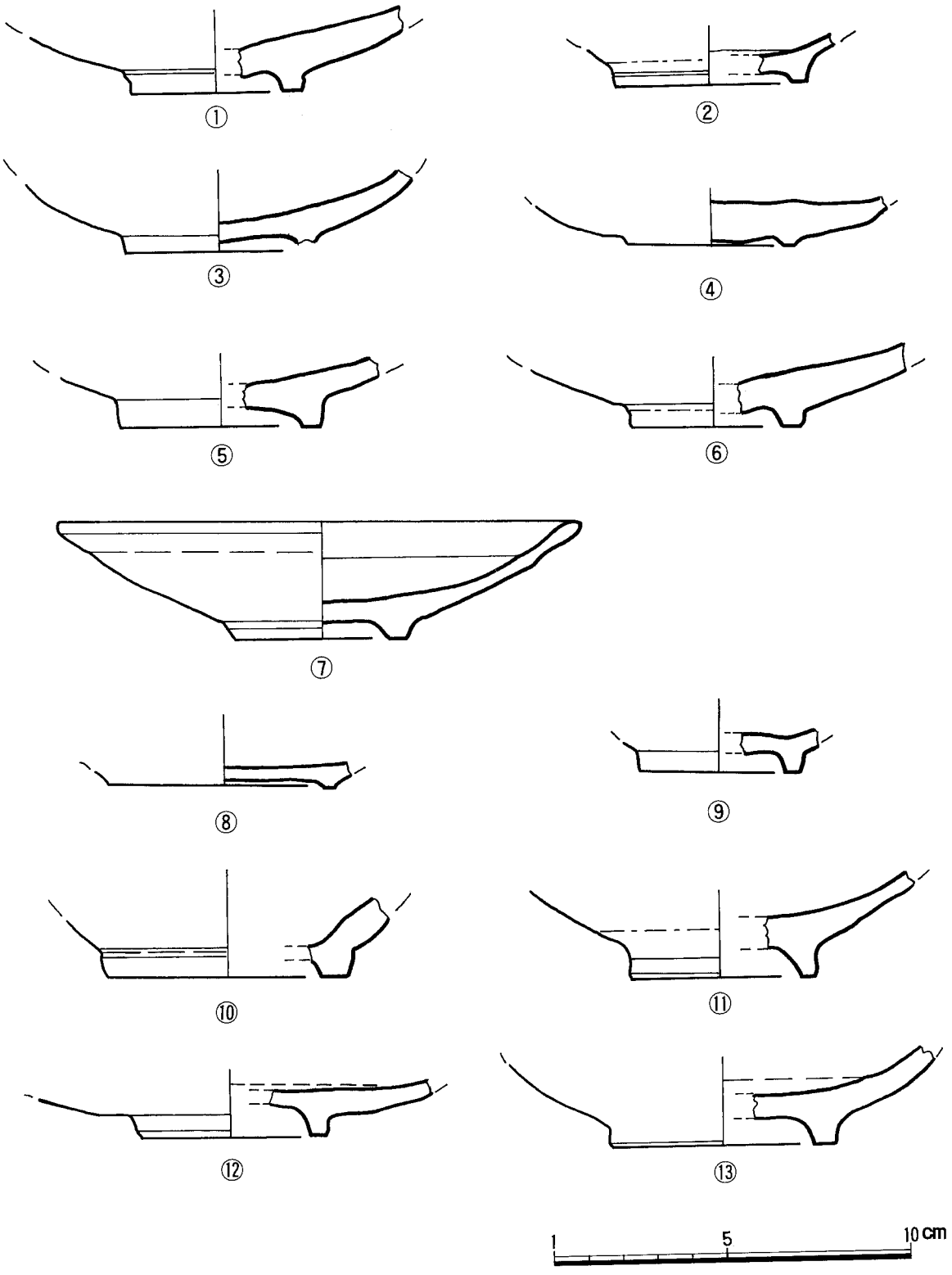
41	77－6	85－6	분청접시저부편. 암녹색. 빙렬보임. 굽에 태토빚음받침 흔적.	現 高:1.9 굽 直徑:4.8 굽 高:0.5 굽 幅:0.5	A지구 b건물지 북서편보도
42	77－7	85－7	분청대접저부편. 암녹색. 굽언저리 시유 안됨. 빙렬없음. 내면바닥과 동체의 구분 뚜렷. 태토 불량.	現 高:3.2 굽 直徑:6.0 굽 高:0.8 굽 幅:0.4	A지구 계단상유구
43	77－8	85－8	분청대접저부편. 암녹색. 내면바닥과 동체 구분 뚜렷. 굽정리상태 양호. 내면과 굽바닥에 모래받침 자국.	現 高:2.4 굽 直徑:6.0 굽 高:0.6 굽 幅:0.4	B－2구역 기와매립층
44	77－9	85－9	분청대접저부편. 옥색. 시유상태 불량. 물레자국. 태토－불량. 내면에 태토빚음받침자국. 굽에 모래받침 자국.	現 高:2.6 굽 直徑:6.0 굽 高:0.8 굽 幅:0.4	지표채집
45	77－10	85－10	분청대접저부편. 청녹색. 내면바닥과 굽에 내화토 받침 자국. 굽언저리에 한줄의 음각선이 얕게 시문됨.	現 高:3.5 굽 直徑:5.9 굽 高:1.1 굽 幅:0.5	A지구 a건물지 남쪽석렬 앞
46	77－11	85－11	분청대접저부편. 암녹색. 부분적으로 산화되어 회백색을 띰. 빙렬 보임. 내면－바닥에 내화토 받침자국. 바닥을 구분하는 한줄의 음각선. 굽폭 일정치 않음.	現 高:2.6 굽 直徑:4.8 굽 高:0.5 굽 幅:0.4	A지구 b건물지 서북편
47	77－12	85－12	분청대접저부편. 투명한 푸른색. 외면의 시유상태 불량. 내외면에 물레자국. 미세한 빙렬. 내면바닥에 태토빚음 받침 자국.	現 高:2.8 굽 直徑:6.4 굽 高:0.6 굽 幅:0.6	A지구 계단상유구 남서편
48	77－13	85－13	분청대접저부편. 투명한 청색. 내면은 회미한 황색. 미세한 빙렬보임. 내면바닥에 태토빚음받침 흔적. 굽속이 고르지 못함. 굽바닥에 손누름자국 보임.	現 高:1.5 굽 直徑:6.0 굽 高:0.6 굽 幅:0.4	A지구 계단상유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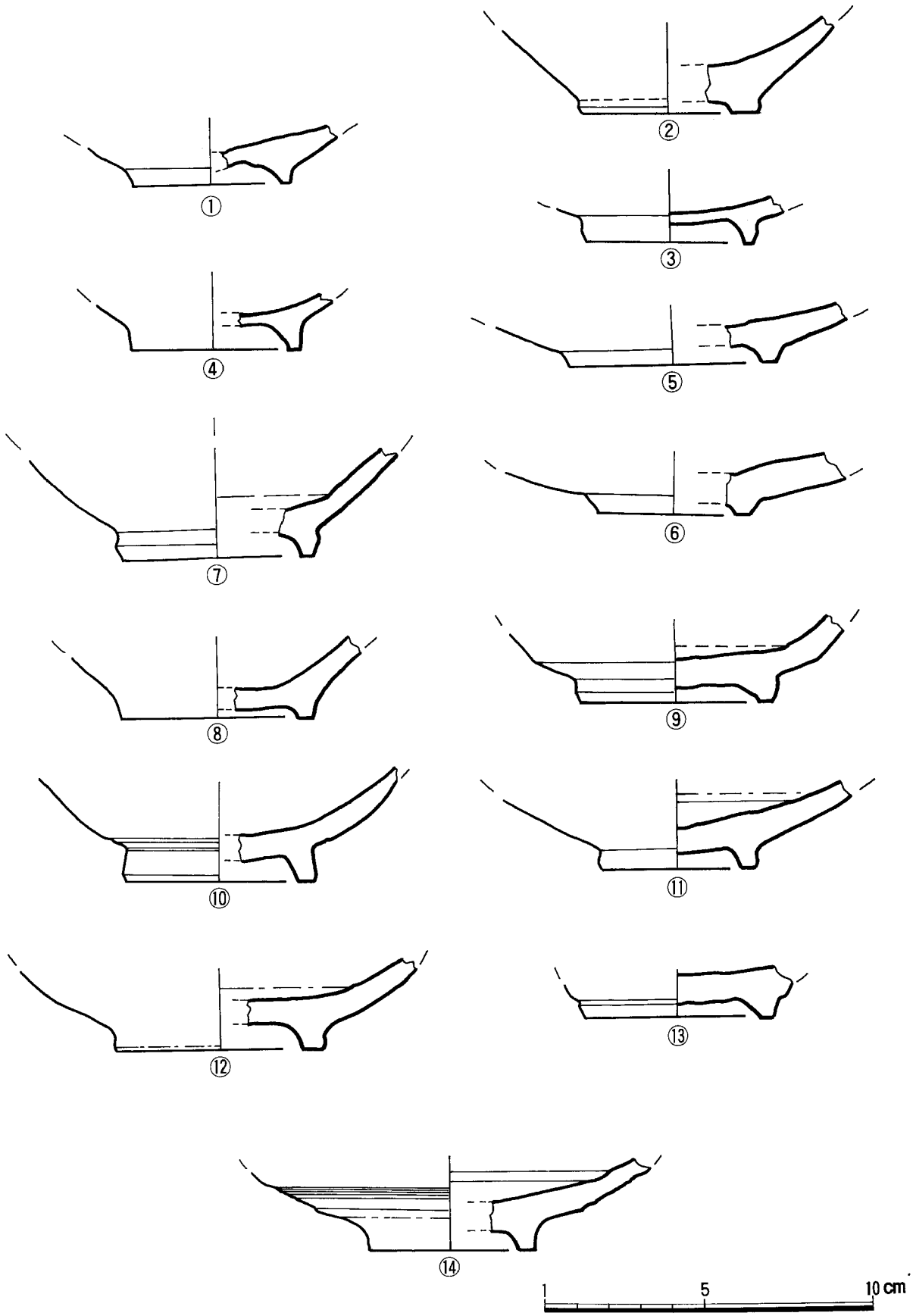
도면 74 A지구 출토 기타 분청(1)



도면 75 A지구 출토 기타 분청(2)



도면 76 A지구 출토 기타 분청(3)



도면 77 A지구 출토 기타 분청(4)

49	77－14	85－14	분청접시저부편. 황색빛이 도는 회백색. 태토－불량. 표면에 기포형성. 내면 동체부에 한줄의 음각선. 내면바닥과 굽에 내화토 받침 흔적. 내외면에 선명한 물레자국.	現 高:2.9 굽 直徑:5.2 굽 高:0.8 굽 幅:0.4	A지구 a건물지내부
50	71－1	79－1	청자음각구름무늬접시저부편. 황녹색. 가는 빙렬. 내면 바닥에 구름무늬 음각. 비교적 높은 굽으로 정리가 잘됨. 모래 받침 흔적.	現 高:2.4 굽 直徑:6.6 굽 高:1.1 굽 幅:0.5	A지구 b건물지내부

이상 서술한 바와 같이 法華寺址에서 出土된 분청사기를 보면 대접류와 접시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약간의 盞類와 甁類, 뚜껑류가 있다. 번조받침은 태토빚음받침, 내화토받침, 모래받침등이 있고, 그릇 내면에 포개어 구웠던 흔적이 있는 것이 많다. 불순물이 섞인 태토를 사용하여 성형한 그릇이 많이 보이며, 出土된 대부분의 粉青片에 가는 빙렬이 있다.

3. 白磁

분청사기片과 거의 비슷한 양이 出土된 白磁片은 발굴조사된 寺址의 전역에서 발견되었는데, 주로 건물지 내부와 계단지 주변에서 다량 발견되었다. 白磁片의 기형은 대접류, 접시류, 잔류로 구분할 수 있는데 대접류가 가장 많은 편이고 盞片은 a건물지 주위에서 단 한점이 발견되었는데 그다지 정교하지 못하다.

번조받침은 형태에 따라 구분되는데 가는 모래받침, 태토빚음받침, 내화토받침으로 세분된다. 그 중에서 태토받침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은 모래받침과 내화토받침순이다. 거의 대부분의 底部片 내부 바닥에 포개어 구웠던 흔적이 남아있다.

釉藥은 유백색, 어둡거나 밝은 회백색, 청백색, 그리고 녹색빛이 도는 투명유등으로 분리되는데 회백색을 띠는 白磁片이 가장 많고 그중에 산화되어 붉은 빛을 내는 磁器片도 있다.

釉藥의 시유상태는 대체적으로 불량한 편으로, 고르고 두껍게 시유된 몇 점을 제외하고는 出土된 대부분의 白磁片이 유약이 얇아서 成形時 물레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거나, 동체부의 부분부분에 시유되지않거나, 器表面에 유약이 흘러서 뭉쳐진 것이다. 그리고, 탈유되어 표면이 거칠고 윤기가 없는 것도 있다.

굽의 종류는 대마디굽, V자형굽으로 접지면적이 좁은굽, 접지면적이 넓은굽, 굽속이 오목한 굽등, 다양하며, 상당수의 굽에 번조받침 흔적이 지저분하게 남아있고 굽 언저리에 시유되지않은 白磁片도 있다.

회백색을 띠는 白磁片은 태토와 유약이 분리되지 않고 빙렬도 없는 것이 많으나, 유백색을 띠거나 그 외의 색조를 보이는 白磁片은 대부분 가는 빙렬이 있고 태토와 유약의 접착상태가 그다지 좋지않다.

대부분의 태토에 불순물이 섞여 있으며, 器表面에 잡티가 드러나거나 氣泡가 형성된 磁器片도 있다.

번호	도면번호	도판번호	특징	규격 (cm)	출토위치
1	78-1	86-1	백자대접구연부편. 녹색빛이 도는 암회색. 시유상태 불량. 물레자국. 태토불량으로 표면에 잡티 및 기포 형성. 대접구연부의 작은 파편으로 구연직경 추정곤란.		A지구 a건물지 서북편보도
2	78-2	86-2	백자대접구연부편. 암회백색. 시유상태 불량. 표면에 물레자국. 구연이 외반된 상태.	推定口徑:15.4	A지구 계단상유구
3	78-3	86-3	백자대접구연부편. 유백색. 빙렬보임. 태토불량으로 표면에 잡티. 회미한 물레자국.	推定口徑:16.0	A지구 계단상유구 남서편
4	78-4	86-4	백자대접구연부편. 회색빛이 약간 도는 백색. 표면에 물레자국. 태토-불순물.	推定口徑:15.0	A지구 계단상유구
5	78-5	86-5	백자대접구연부편. 암회색유였으나 산화되어 붉은 빛을 띰. 회미한 물레자국. 시유상태 불량. 표면에 구멍보임. 속이 깊지 않은 대접형.		A지구 계단상유구 남서편
6	78-6	86-6	백자대접구연부편. 유백색. 가는빙렬. 태토-불순물.		지표채집
7	78-7	86-7	백자대접구연부편. 회백색. 부분적으로 산화되어 붉은 빛을 띰. 약간의 빙렬. 태토-불량. 속이 깊은 발 형태.	推定口徑:12.0	A지구 a건물지내부
8	78-8	86-8	백자대접구연부편. 황백색. 미세한 빙렬보임.	推定口徑:16.0	A지구 a건물지 내부
9	78-9	86-9	백자대접구연부편. 청백색. 유약이 얇아서 물레자국 보임. 가는 빙렬. 태토-잡물.		A지구 계단상유구

10	78－10	86－10	백자대접구연부편. 푸른빛이 도는 백색. 빙렬 없음.	推定口徑:14.0	A지구 계단상유구
11	78－11	86－11	백자대접구연부편. 회백색. 표면에 물레자국. 태토－불순물. 기벽의 두께는 얇은편	推定口徑:14.7	A지구 계단상유구
12	78－12	86－12	백자대접구연부편. 황백색. 표면에 물레자국.	推定口徑:10.2	A지구 계단 상유구
13	78－13	86－13	백자대접구연부편. 암회색. 내면에는 고르게 시유되었으나 외면에는 시유상태 불량. 외면에 물레자국. 태토－불순물. 작은 종지 형태.	推定口徑:9.0	A지구 계단상유구 남서편
14	78－14	86－14	백자대접저부편. 암회색. 물레자국. 내면바닥과 동체구분 뚜렷. 태토빚음받침 자국.	現　高:3.2 굽　直徑:4.0 굽　高:0.8 굽　幅:0.3	A지구 계단상유구 남서편
15	78－15	86－15	백자대접저부편. 암회색. 시유상태 양호. 태토－양호.	現　高:2.3 굽　直徑:6.4 굽　高:1.3 굽　幅:0.2	B－2구역 계단상유구
16	79－1	87－1	백자대접저부편. 청백색. 내면바닥과 굽에 내화토자국.	現　高:2.4 굽　直徑:6.4 굽　高:0.9 굽　幅:0.3	지표채집
17	79－2	87－2	백자대접저부편. 회백색. 외면에는 산화되어 황백색을 띰. 내면에 성긴 빙렬.	現　高:2.0 굽　直徑:4.0 굽　高:0.6 굽　幅:0.5	A지구 계단상유구
18	79－3	87－3	백자대접저부편. 회백색. 시유상태 불량. 표면에 기포 형성.	現　高:2.1 굽　直徑:5.0 굽　高:0.9 굽　幅:0.5	B－2구역
19	79－4	87－4	백자접시저부편. 투명한 청백색. 가는 빙렬. 굽과 내면바닥에 태토빚음받침 흔적.	現　高:2.5 굽　直徑:7.0 굽　高:0.7 굽　幅:0.4	B－2구역

20	79-5	87-5	백자접시저부편. 회백색. 가는 빙렬. 굽과 내면 바닥에 지저분한 모래받침 자국.	굽 直徑:5.0 굽 高:0.8 굽 幅:0.4	지표채집
21	79-6	87-6	백자대접저부편. 녹색빛이 도는 암회색. 빙렬없음. 굽에 포개어 구웠던 그릇의 태토가 붙음.	現 高:2.2 굽 直徑:6.4 굽 高:1.2 굽 幅:0.3	B-3구역
22	79-7	87-7	백자대접저부편. 황백색. 미세한 빙렬. 내면바닥에 내화토 자국. 굽폭이 일정치 않음.	現 高:1.7 굽 直徑:4.6 굽 高:0.7 굽 幅:0.3	A지구 b건물지내부
23	79-8	87-8	백자대접저부편. 청백색. 부분부분 산화되어 황백색을 띰. 내면바닥에 태토빛음받침 자국.	現 高:2.0 굽 直徑:6.6 굽 高:0.7 굽 幅:0.4	A지구 a건물지 동쪽석렬
24	79-9	87-9	백자접시저부편. 투명한 녹색빛이 도는 황백색. 전면에 미세한 빙렬. 내면바닥과 굽에 내화토받침 흔적. 굽정리상태 양호. 태토-불량.	現 高:2.3 굽 直徑:7.0 굽 高:0.9 굽 幅:0.3	A지구 계단상유구
25	79-10	87-10	백자대접저부편. 푸른빛이 도는 백색. 빙렬 보임. 내면 바닥과 굽에 태토빛음받침 흔적.	現 高:3.1 굽 直徑:5.0 굽 高:1.0 굽 幅:0.3	A지구 a건물지내부
26	79-11	87-11	백자대접저부편. 청백색. 내면에 빙렬. 표면에 기포 형성.	現 高:1.8 굽 直徑:5.4 굽 高:0.9 굽 幅:0.5	B-3구역
27	79-12	87-12	백자대접저부편. 암회색. 태토-불량. 내저원이 있어 동체와 구분 뚜렷. 내면 바닥과 굽에 내화토 받침 자국. 표면에 구멍.	現 高:3.0 굽 直徑:4.4 굽 高:0.6 굽 幅:0.3	A지구 b건물지
28	79-13	87-13	백자대접저부편. 녹색빛이 도는 회백색. 빙렬 없음. 굽과 굽언저리에는 시유되지 않음. 선명한 물레자국.	現 高:2.4 굽 直徑:5.0 굽 高:0.9 굽 幅:0.2	A지구 계단상유구 남서편

29	79－14	87－14	백자대접저부편. 황백색. 미세한 빙렬. 내면바닥에 태토빚음받침 흔적. 태토불량으로 표면에 기포 형성.	現 高:2.0 굽 直徑:5.4 굽 高:1.0 굽 幅:0.2	B－2구역 계단상유구
30	79－15	87－15	백자접시저부편. 회색. 태토－불순물. 내면－바닥에 태토빚음받침 흔적. 바닥과 동체의 구분 뚜렷.	現 高:2.9 굽 直徑:5.2 굽 幅:0.3	지표채집
31	80－1	88－1	백자대접저부편. 투명한 청색. 전면에 빙렬. 내면바닥에 모래받침자국. 굽과 동체부가 만나는 부분에 한줄의 음각선. 굽부분에 지저분한 모래받침 자국.	現 高:3.3 굽 直徑:6.4 굽 高:1.3 굽 幅:0.4	A지구 계단상유구 남서편
32	80－2	88－2	백자접시저부편. 회백색. 약간의 빙렬. 내면바닥에 태토빚음받침 자국. 굽정리상태 양호.	現 高:2.6 굽 直徑:6.3 굽 高:1.0 굽 幅:0.5	B－2구역 계단상유구
33	80－3	88－3	백자접시저부편. 황색빛이 도는 백색. 빙렬 있음. 내면바닥에 태토빚음받침 흔적.	現 高:2.6 굽 直徑:6.6 굽 高:0.6 굽 幅:0.8	B－2구역 기와매립층
34	80－4	88－4	백자접시저부편. 황백색. 태토의 붉은 빛이 드러남. 물레자국. 태토－불량. 표면에 구멍.	現 高:2.7 굽 直徑:4.0 굽 高:0.8 굽 幅:0.3	B－3구역
35	80－5	88－5	백자대접저부편. 황백색. 가는 빙렬. 탈유됨. 내면에 태토빚음받침 흔적. 태토－불량.	現 高:2.9 굽 直徑:6.6 굽 高:0.9 굽 幅:0.4	A지구 계단상유구
36	80－6	88－6	백자대접저부편. 엷은 푸른빛이 도는 백색. 가는 빙렬. 굽과 내면 바닥에 태토빚음받침 흔적. 굽정리 양호.	現 高:3.0 굽 直徑:7.0 굽 高:1.1 굽 幅:0.7	A지구 b건물지
37	80－7	88－7	백자대접저부편. 암회색이었으나 탈유되어 황백색을 띰. 표면이 매끄럽지 못함. 내면 바닥에 태토빚음받침 자국. 태토－불량.	現 高:2.3 굽 直徑:6.4 굽 高:0.8 굽 幅:0.2	B－3구역

38	80－8	88－8	백자대접저부편. 푸른빛이 도는 백색. 부분적으로 탈유되어 거친면이 드러남. 내면바닥과 굽에 태토빚음받침 흔적. 태토가 불량하여 표면에 기포 형성.	現 高:2.7 굽 直徑:6.6 굽 高:1.3 굽 幅:0.4	A지구 계단상유구 내부
39	80－9	88－9	백자대접저부편. 유백색. 미세한 빙렬. 바닥과 굽에 태토빚음받침 흔적. 드문드문 기포 형성.	現 高:3.1 굽 直徑:6.6 굽 高:1.0 굽 幅:0.4	A지구 b건물지
40	80－10	88－10	백자대접저부편. 녹색이 섞인 회백색. 심하게 탈유됨. 내면바닥에 내화토 받침 흔적. 태토－불량.	現 高:2.3 굽 直徑:6.0 굽 高:1.2 굽 幅:0.9	B－2구역
41	81－1	89－1	백자대접저부편. 청회색. 굽언저리에는 시유 안됨. 물레자국. 태토－불량.	現 高:3.2 굽 直徑:6.0 굽 高:1.9 굽 幅:0.3	B－3구역
42	81－2	89－2	백자접시저부편. 녹색빛이 도는 회백색. 성긴 빙렬. 내면바닥에 내화토받침 자국. 태토－불량	現 高:2.6 굽 直徑:5.0 굽 高:1.3 굽 幅:0.4	A지구 a건물지 내부
43	81－3	89－3	백자접시저부편. 투명한 녹색. 전면에 가는 빙렬. 굽과 내면바닥에 내화토 받침 흔적. 태토－불순물.	現 高:2.2 굽 直徑:5.0 굽 高:0.7 굽 幅:0.5	지표채집
44	81－4	89－4	백자대접저부편. 어두운 회백색. 내면－바닥에 뚜렷한 내저원을 두어서 동체와 구분. 태토빚음받침 흔적.	現 高:4.2 굽 直徑:5.8 굽 高:0.8 굽 幅:0.3	A지구 계단상유구
45	81－5	89－5	백자접시저부편. 회백색. 성긴 빙렬. 내면바닥과 굽에 모래받침 자국.	現 高:2.8 굽 直徑:6.8 굽 高:0.7 굽 幅:0.5	B－2구역 기와매립층
46	81－6	89－6	백자접시저부편. 청백색. 빙렬 없음. 내면바닥에 약간의 태토빚음받침 흔적과 넓은 내저원.	現 高:2.4 굽 高:0.9 굽 幅:0.7	A지구 a건물지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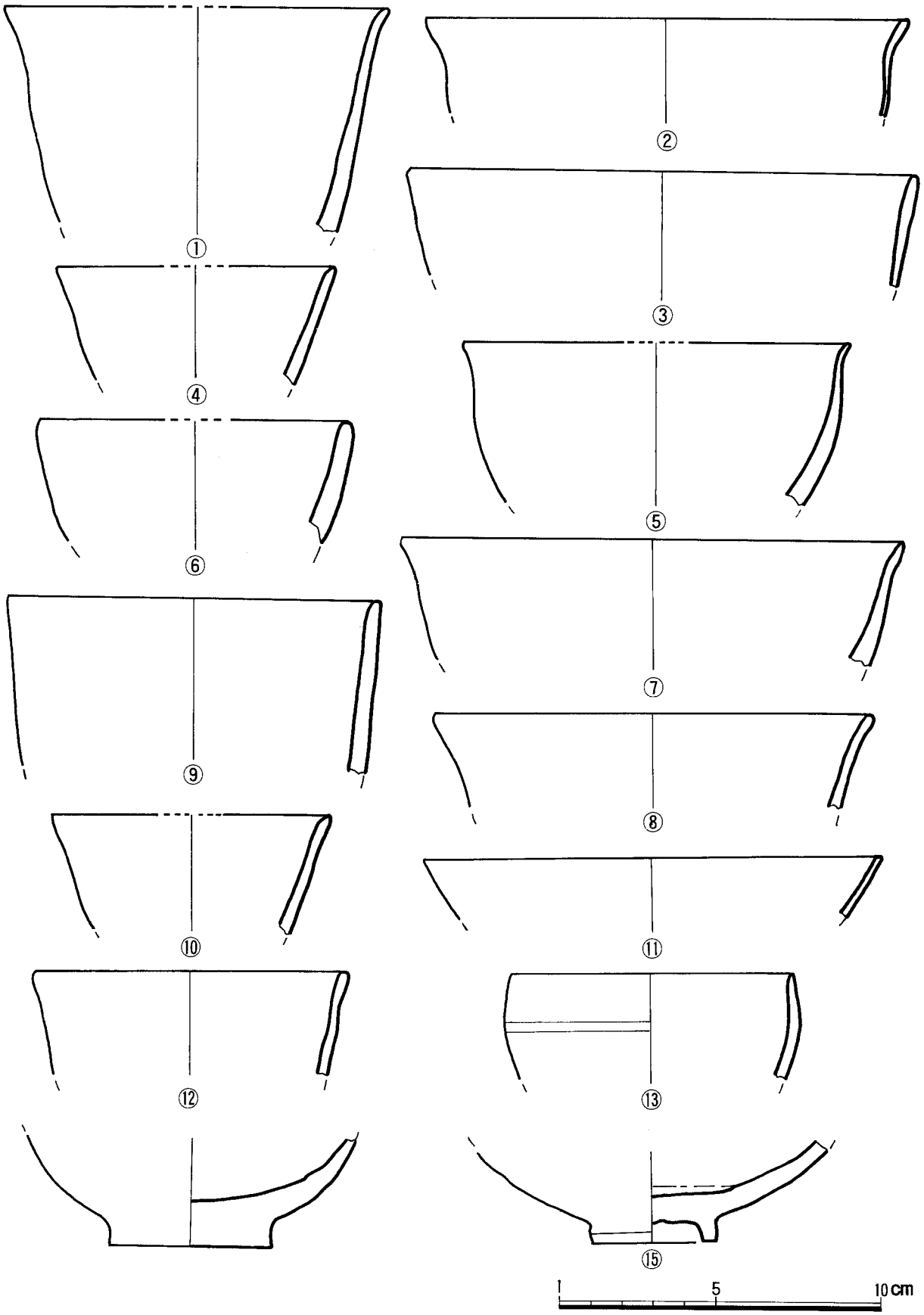
			굽-대마디굽.		
47	81-7	89-7	백자대접저부편. 회백색유약으로 내면에는 얇게, 외면에는 두껍게 시유. 빙렬 없음. 굽에 모래받침 흔적.	現 高:2.0 굽 直徑:4.4 굽 高:0.9 굽 幅:0.3	B-2구역
48	81-8	89-8	백자접시저부편. 유백색. 빙렬 없음. 내면바닥과 굽에 모래받침 자국.	現 高:1.7 굽 直徑:6.6 굽 高:0.5 굽 幅:0.3	A지구 b건물지 북서편 보도
49	81-9	89-9	백자대접저부편. 유약의 두께가 고르지 않아서 유약이 얇은 곳은 청백색, 두꺼운 곳은 황색의 색조를 띰. 내면 바닥에 한줄의 음각선으로 동체와 구분. 태토빚음받침 흔적.	現 高:3.3 굽 高:1.3	A지구 계단상유구 내부
50	81-10	89-10	백자접시저부편. 황백색. 빙렬보임. 내면바닥과 굽에 내화토 자국.	現 高:2.5 굽 直徑:6.8 굽 高:0.6	A지구 a건물지 남동쪽
51	81-11	89-11	백자대접저부편. 청백색. 약간의 빙렬. 내면바닥과 굽에 모래받침 흔적. 태토는 비교적 잘 정선됨. 유약이 얇게 시유된 곳에 물레자국 보임.	現 高:2.3 굽 直徑:5.0 굽 高:0.8 굽 幅:0.4	A지구 b건물지 북서편 보도
52	82-1	90-1	백자저부편. 유백색. 가는 빙렬. 시유상태 고르지 못함. 굽은 외면 바닥에서 한단 파들어가 형성. 태토-불순물.	現 高:4.1 굽 直徑:5.0 굽 幅:0.5	A지구 a건물지 남동쪽
53	82-2	90-2	백자접시저부편. 회백색. 내면-바닥에 내화토자국. 넓은 내저원. 외면-굽에 내화토자국. 물레자국. 표면에 지저분하게 기포 형성.	現 高:3.2 굽 直徑:6.0 굽 高:1.9 굽 幅:0.3	A지구 a건물지
54	82-3	90-3	백자접시저부편. 청색빛이 도는 백색이었으나 탈색되어 황색을 띰. 내면에 미세한 빙렬. 내면 바닥에 태토빚음받침 흔적.	現 高:2.3 굽 直徑:5.6 굽 高:0.9 굽 幅:0.4	B-2구역 기와매립층
55	82-4	90-4	백자접시저부편. 유백색. 미세한 빙렬.	現 高:2.6 굽 直徑:7.0	B-2구역 기와매립층

			내면바닥에 태토빚음받침 자국. 굽의 폭이 일정치 않음. 태토가 정선되지 않아서 기표면에 구멍이 보임.	굽 高:0.7 굽 幅:0.5	
56	82-5	90-5	백자대접저부편. 원래는 청백색이었으나 탈유가 심하여 본래의 유색을 거의 찾아 볼 수 없음. 내면바닥에 굽 둘레와 비슷한 내저원.	現 高:4.6 굽 直徑:7.5 굽 高:1.5 굽 幅:0.4	A지구 계단상유구
57	82-6	90-6	백자접시저부편. 투명한 녹색. 유의 두께가 일정치 않음. 빙렬 있음. 내면 바닥과 동체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음. 굽에 모래받침 자국.	現 高:2.9 굽 直徑:7.0 굽 高:0.7 굽 幅:0.3	B-2구역 기와매립층
58	82-7	90-7	백자접시저부편. 회백색. 시유상태가 고르지 못함. 내면-한줄의 음각원. 태토빚음받침 흔적. 외면-유약이 흘러서 뭉쳐진 곳이 보임. 굽다리에 한줄의 가는 음각선.	現 高:3.3 굽 直徑:6.8 굽 高:1.5 굽 幅:0.2	B-2구역
59	82-8	90-8	백자대접저부편. 청백색. 내면에 빙렬. 내면바닥과 굽에 모래받침 흔적. 물레자국.	現 高:3.3 굽 高:1.0 굽 幅:0.4	A지구 계단상유구
60	82-9	90-9	백자대접저부편. 원래는 회백색이었으나 탈색되어 붉은 색조를 띰. 성긴 빙렬. 내면바닥과 굽언저리에 모래받침흔적. 기표면에 구멍 보임.	現 高:4.2 굽 直徑:7.2 굽 高:0.7 굽 幅:0.3	A지구 계단상유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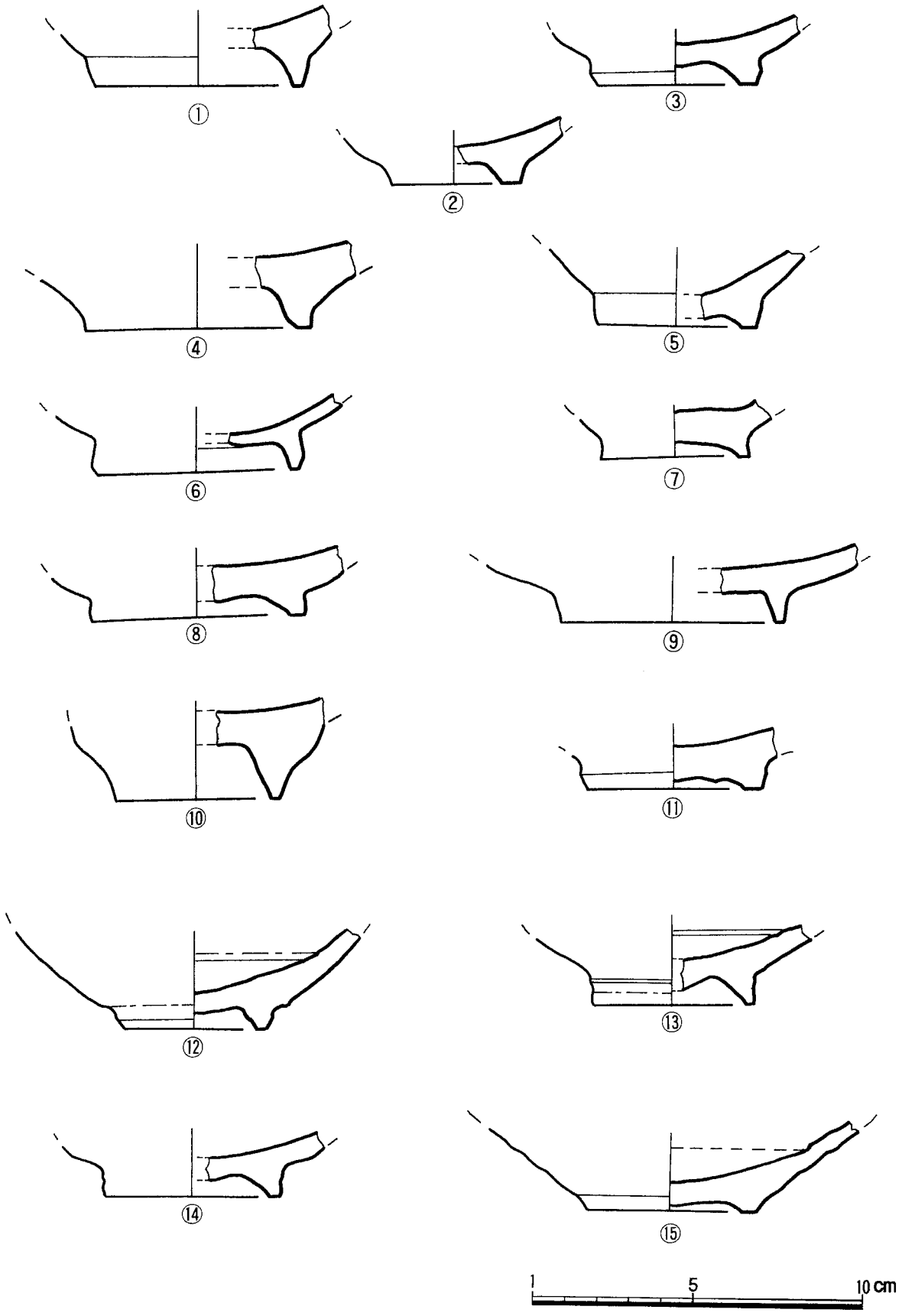
4. 도기

C地區 出土 질그릇片은 모두 硬質 陶器로 胎土는 그다지 좋지 못하다. 器形은 항아리, 缸, 甁, 施釉된 접시類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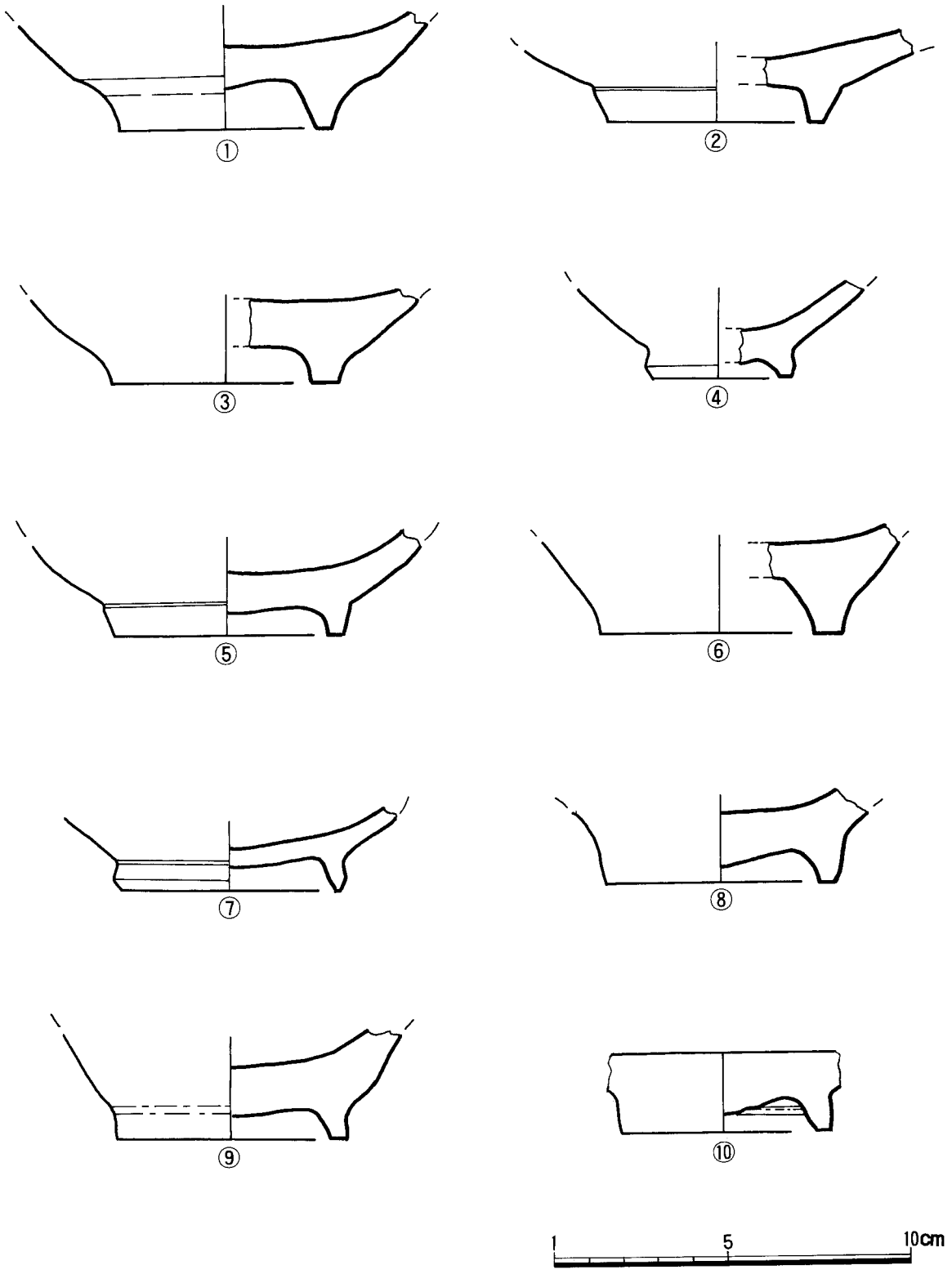
번호	도면번호	도판번호	특징	규격 (cm)	출토위치
1	83-1	91-1	질그릇항아리구연부편. 경질도기.	推定口徑:17.0 굽 直徑:7.2 굽 高:0.7 굽 幅:0.3	A지구 계단상유구 남서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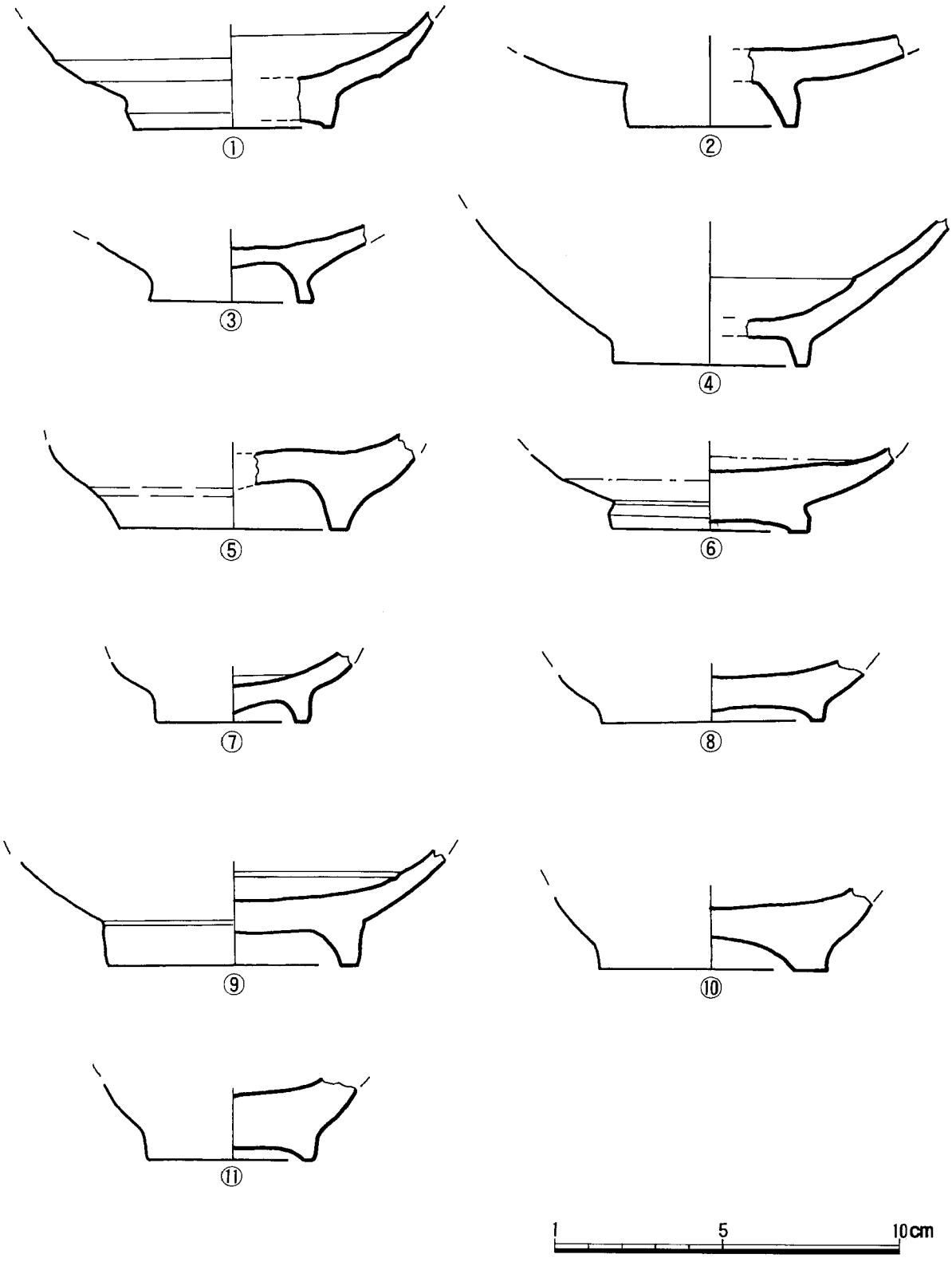
도면 78 A지구 출토 백자(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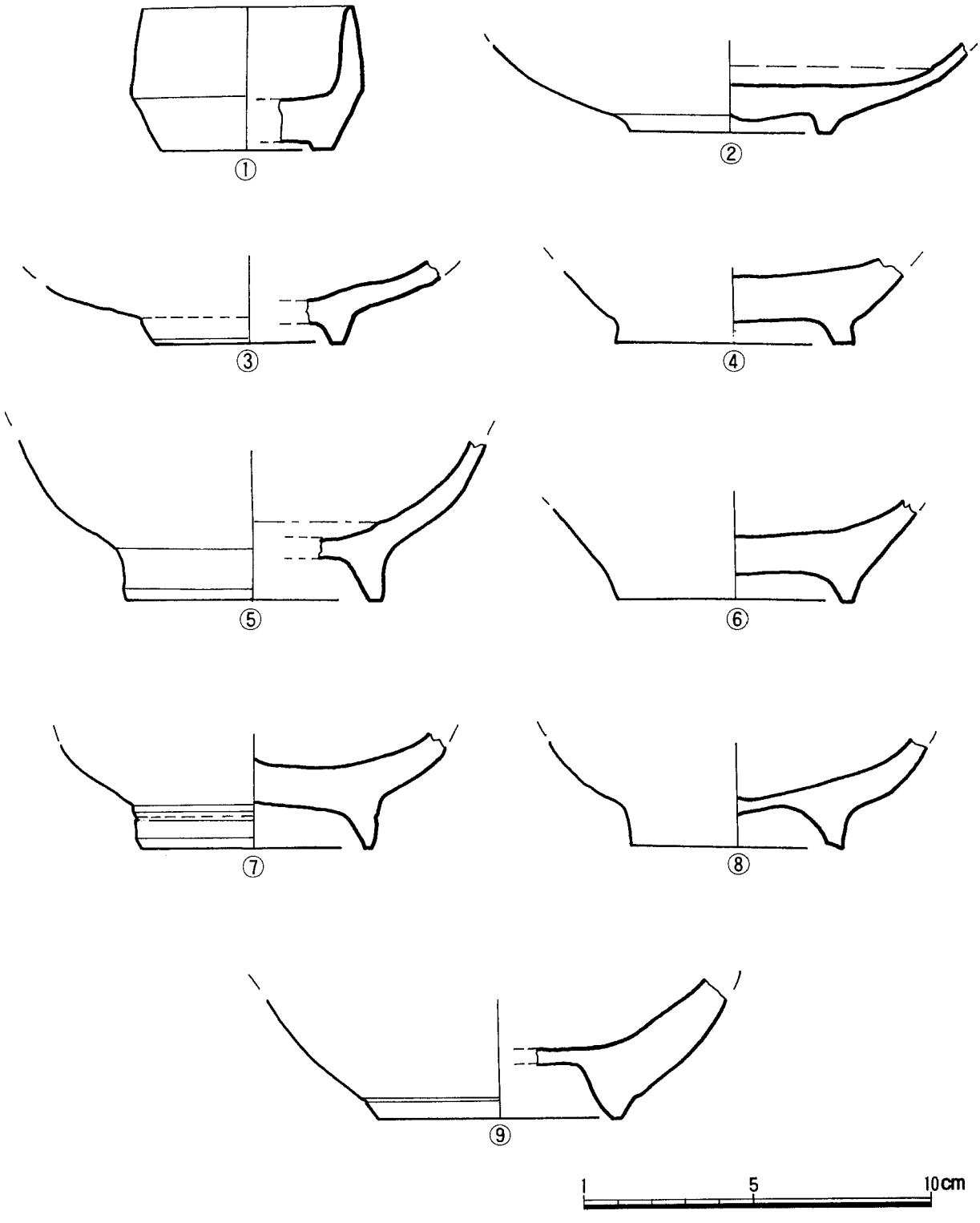
도면 79 A지구 출토 백자(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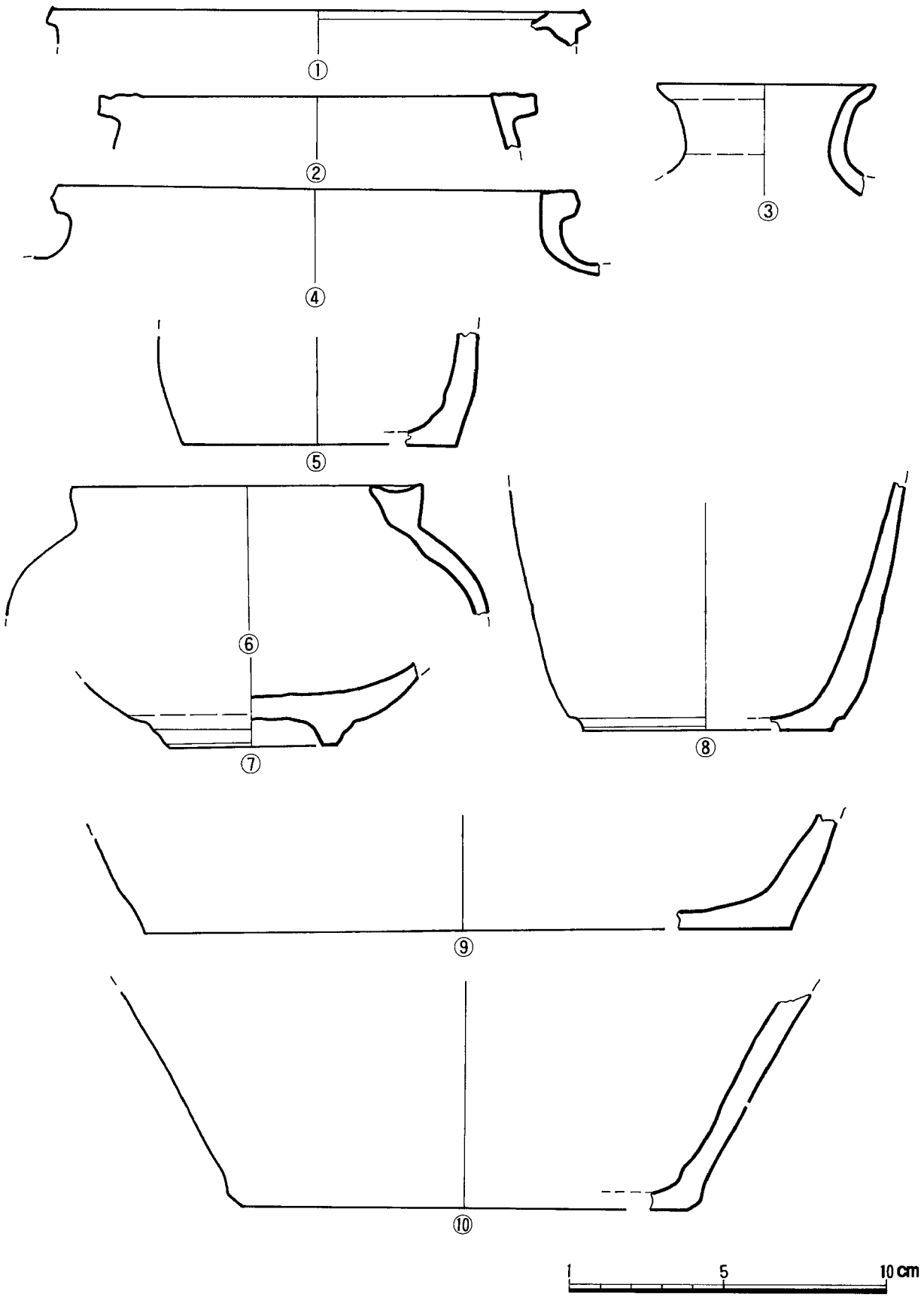
도면 80 A지구 출토 백자(3)



도면 81 A지구 출토 백자(4)



도면 82 A지구 출토 백자(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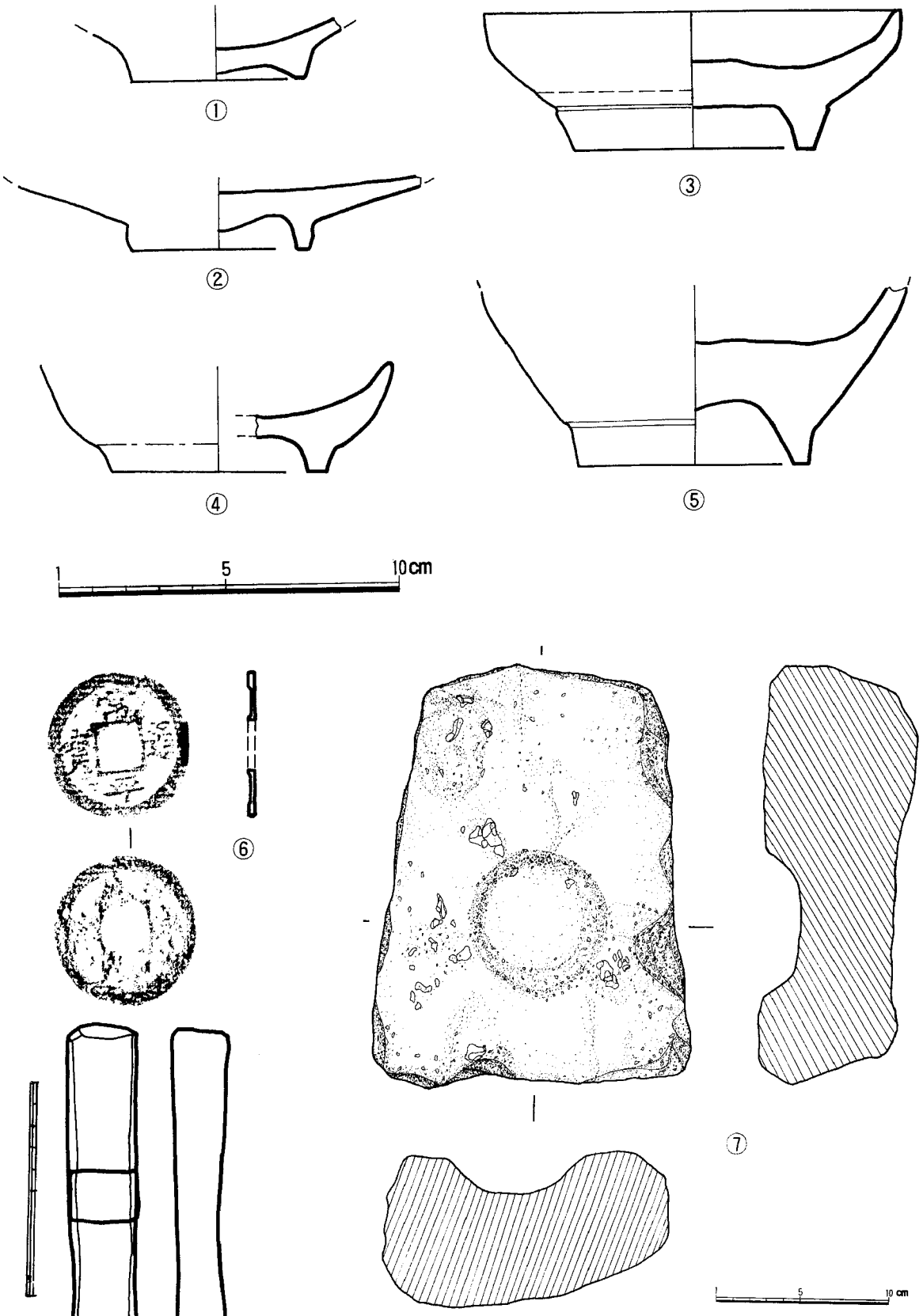


도면 83 A지구 출토 陶器

2	83-2	91-2	질그릇항아리구연부편. 경질도기.	推定口徑:14.0	A건물지 a건물지 내부
3	83-3	91-3	질그릇병구연부편. 경질도기. 외면은 산화되어 황백색. 보통 높이의 목에서 구연이 밖으로 말린 형태.	推定口徑:7.2	B-2구역 계단상유구
4	83-4	91-4	질그릇항아리구연부편. 경질도기. 구연이 넓은 항아리. 짧은 목에서 외반됨. 회청색. 표면에 물레자국.	推定口徑:16.8	A지구 a건물지 계단상유구
5	83-5	91-5	질그릇병저부편. 적갈색 경질도기. 납작바닥. 표면에 작은 알갱이가 드러남.	굽 直徑:9.0	A지구 계단상유구
6	83-6	91-6	질그릇항아리구연부편. 경질도기. 표면 산화되어 황색을 띰.	推定口徑:11.4	B-2구역
7	83-7	91-7	질그릇 접시저부편. 경질도기. 표면에 잡물. 물레자국. 굽에 번조받침 흔적.	굽 高:2.6 굽 直徑:5.4 굽 高:0.8 굽 幅:0.3	B-2구역
8	83-8	91-8	질그릇항아리저부편. 회청색 경질도기. 납작바닥. 표면에 윤기 없음. 표면을 빗같은 도구로 쓴 흔적.	굽 高:7.6 굽 直徑:8.2	B-3구역
9	83-9	91-9	질그릇항아리저부편. 경질도기. 납작바닥. 바닥에서 동체로 이어지는 부분에 한줄의 음각선. 내외면에 써리질자국.	現 高:7.6 굽 直徑:8.2	A지구 b건물지 북서편 보도
10	83-10	91-10	질그릇항아리저부편. 경질도기. 납작바닥. 외면에 세로로 긁힌 자국. 바닥에 밑가쇠로 자른 흔적.	現 高:6.7 굽 直徑:14.6	A지구 계단상유구

5. 근대백자

C지구에서 출토된 後期 白磁片은 대체로 두껍게 施釉되었고 表面에 氷裂이 있다. 內外面에 번조받침흔적이 뚜렷이 남아 있는 陶磁器片이 많으며 대부분 태토빛음받침을 사용하였다.



도면 84 A지구 출토 후기 백자·상평통보·돌확

번호	도면번호	도판번호	특징	규격 (cm)	출토위치
1	84-1	92-1	백자접시저부편. 밝은 회백색유약이 두껍게 시유됨. 약간의 빙렬. 내면바닥과 굽안쪽에 태토받침 흔적.	굽 高:1.7 굽 直徑:5.2 굽 高:0.8 굽 幅:0.2	B-2구역 계단상유구
2	84-2	92-2	백자접시저부편. 회백색. 성긴 빙렬. 내면바닥에 태토빚음받침 흔적.	굽 高:2.2 굽 直徑:5.4 굽 高:0.8 굽 幅:0.4	A지구 b건물지내부
3	84-3	92-3	백자접시저부편. 회백색. 시유상태 불량. 빙렬 있음. 내면바닥과 굽에 태토빚음받침 흔적. 외면에 약간의 물레자국.	굽 高:3.1 굽 直徑:6.6 굽 高:0.7 굽 幅:0.6	A지구 b건물지 동쪽
4	84-4	92-4	백자대접저부편. 회백색. 시유상태 고름. 빙렬 있음. 내면바닥과 굽에 태토빚음받침 흔적. 외면에 약간의 물레자국.	現 高:5.1 굽 直徑:6.6 굽 高:0.7 굽 幅:0.6	B-2구역 계단상유구
5	84-5	92-5	백자대접저부편. 회백색이었으나 산화되어 붉은색을 띰. 성긴 빙렬. 내면바닥에 열군데의 태토빚음받침 흔적. 기표면에 군데군데 구멍보임.	現 高:5.1 굽 直徑:7.0 굽 高:1.2 굽 幅:0.5	A지구 계단상유구

6. C-4지구 出土 陶磁器

C-4지구에서 出土된 陶磁器片은 그 수가 많지 않으므로 일괄로 묶어서 서술하겠다. C-4지구出土 陶磁器片은 靑磁片, 粉靑片, 白磁片으로 나눌 수 있으며, 기형은 대접류와 접시류로 구분된다. 서술한 陶磁器片은 口綠部와 底部가 주이다. 靑磁片에는 白象嵌수법으로 시문되었고, 표면은 산화되어 부분적으로 황백색을 띤다. 粉靑片의 釉는 대부분 發色이 좋지 못하고 완전히 산화되어 釉色을 알 수 없는 破片도 있다. 白磁片은 시유상태가 좋고, 태토의 입자도 매우 곱다. 內底圓이 있는 白磁片도 있다.

번호	도면번호	도판번호	특징	규격 (cm)	출토위치
1	85-1	93-1	청자상감대접저부편. 황갈색. 미세한 빙렬. 내면 바닥 중앙에 큰 국화무늬 백상감됨.	現 高:2.2 굽 直徑:6.0 굽 高:0.6 굽 幅:0.6	C-4지구

2	85-2	93-2	청자상감여의두무늬접시저부편. 암녹색. 가는 빙렬. 내면에 이중원과 둘레에 여의두무늬 백상감. 굽속에 모래받침 흔적.	現 高:1.4 굽 直徑:6.0 굽 高:0.4 굽 幅:0.4	〃
3	85-3	93-3	분청상감대접저부편. 전면에 탈유가 심하여 황백색을 띰. 내면에 무늬가 상감됐으나 뚜렷한 무늬를 알기가 어렵다. 내면바닥과 굽에 태토빚음받침 흔적. 태토-비교적 양호.	現 高:3.3 굽 直徑:6.0 굽 幅:0.4	〃
4	85-4	93-4	분청상감여의두무늬접시저부편. 녹황색. 희미하게 여의두무늬 백상감됨. 태토-비교적 양호.	現 高:3.1 굽 直徑:6.0 굽 高:1.2 굽 幅:0.4	〃
5	85-5	93-5	분청접시저부편. 암회색. 가는 빙렬. 굽에 모래받침 흔적.	現 高:1.8 굽 直徑:5.0 굽 高:0.4 굽 幅:0.4	〃
6	85-6	93-6	분청대접저부편. 암녹색. 빙렬 보임. 표면에 물레자국. 굽정리 잘됨. 태토-비교적 양호.	現 高:4.0 굽 直徑:6.0 굽 高:0.8 굽 幅:0.6	〃
7	86-1	94-1	백자접시저부편. 회백색. 내면-암회색. 표면 거침. 굽에 모래받침 자국.	現 高:1.5 굽 直徑:4.0 굽 高:0.6 굽 幅:0.3	C-4지구
8	86-2	94-2	백자대접저부편. 회백색. 시유상태 양호. 태토-양호. 내면바닥에 굽둘레와 비슷한 내저원. 굽둘레에 한줄의 가는 음각선. 내면바닥과 굽에 지저분한 모래받침 흔적.	現 高:2.7 굽 直徑:5.2 굽 高:0.7 굽 幅:0.4	〃
9	86-3	94-3	백자접시저부편. 청색빛이 도는 암회색·가는 빙렬. 내면에 굽둘레보다 넓은 내저원. 표면에 물레자국. 태토-양호. 태토빚음받침 흔적.	現 高:1.9 굽 直徑:6.0 굽 高:0.9 굽 幅:0.4	〃
10	86-4	94-4	백자대접저부편. 회백색. 외면은 유약이 얇아서 선명한 물레자국. 작은 대접형. 빙렬 있음.	現 高:2.7 굽 直徑:5.0 굽 高:0.7 굽 幅:0.3	〃

11	86-5	94-5	백자접시저부편. 청회색. 시유상태 불량. 선명한 물레자국. 내면에 태토빚음받침 흔적.	現 高:1.8 굽 直徑:5.0 굽 高:0.7 굽 幅:0.7	〃
12	86-6	94-6	백자대접저부편. 청회색. 빙렬 보임. 내저원. 태토빚음받침 흔적. 태토-양호	現 高:3.4 굽 直徑:7.0 굽 高:0.9 굽 幅:0.5	〃
13	86-7	94-7	백자접시저부편. 회백색. 미세한 빙렬. 시유상태 양호. 굽정리 잘됨. 태토 비교적 양호.	現 高:2.1 굽 直徑:5.0 굽 高:0.8 굽 幅:0.2	〃
14	86-8	94-8	백자접시저부편. 청색빛이 도는 회백색. 선명한 물레자국. 표면에 잡티. 내면에 태토빚음받침 흔적.	現 高:3.6 굽 直徑:14.7 굽 高:0.7 굽 幅:0.6	〃

7. 기타유물

1). 상평통보(도면 84-6 도판 9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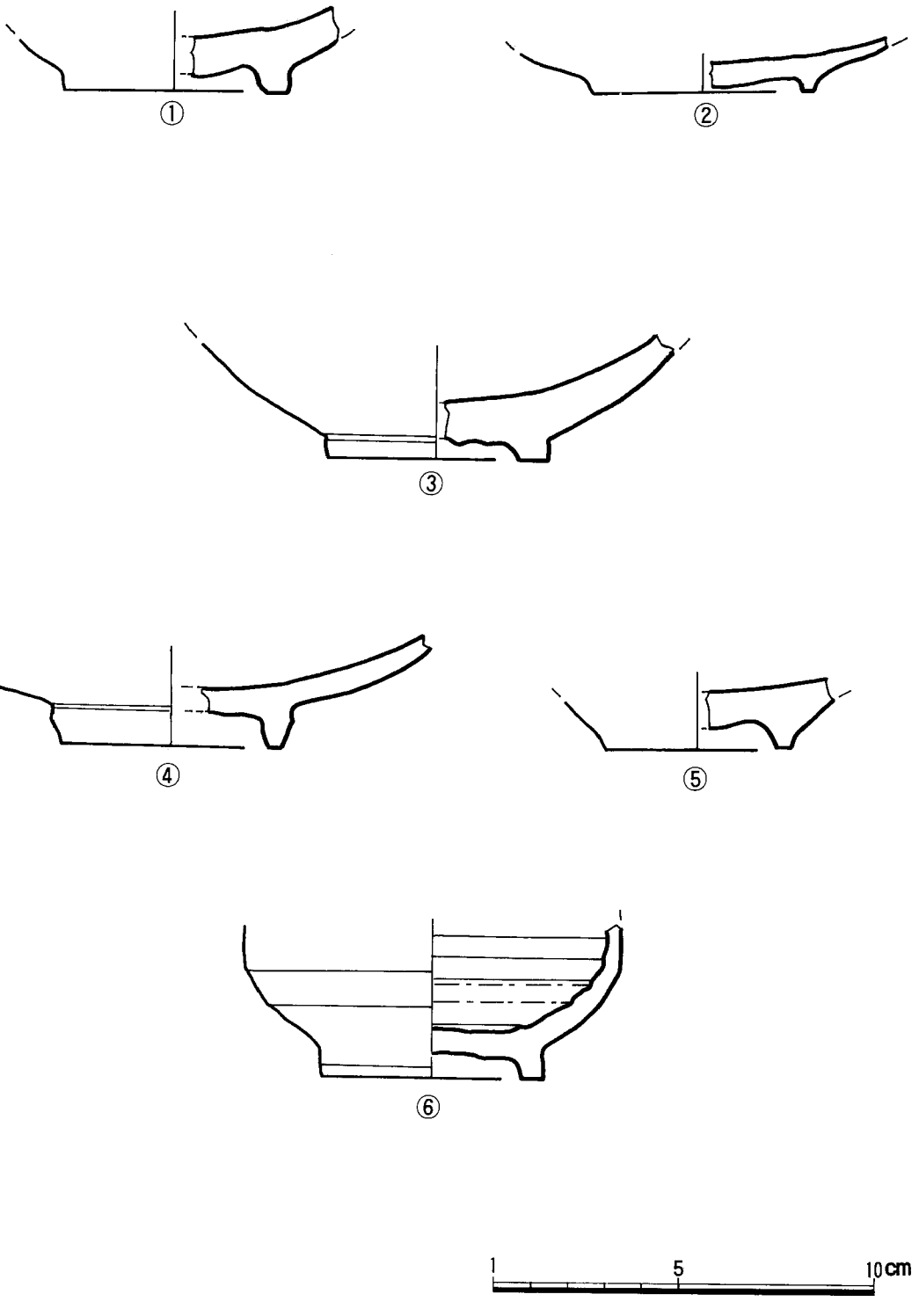
肅宗4년(1678)이후의 화폐인 常平通寶 1개가 B지구 2구역 적석매립부 상층에서 수습되었다. 완형이며 약간의 사용흔이 보인다. 앞면은 상하로 '常平', 좌우로 '通寶'자가 배치되어 있다. 뒷면은 중앙 상단에 '常'자만이 있을 뿐 다른 곳은 마멸이 매우 심하고 녹이 형성되어 있다. 지름 3cm, 두께 0.25cm.

2). 돌확(도면 84-7 도판 9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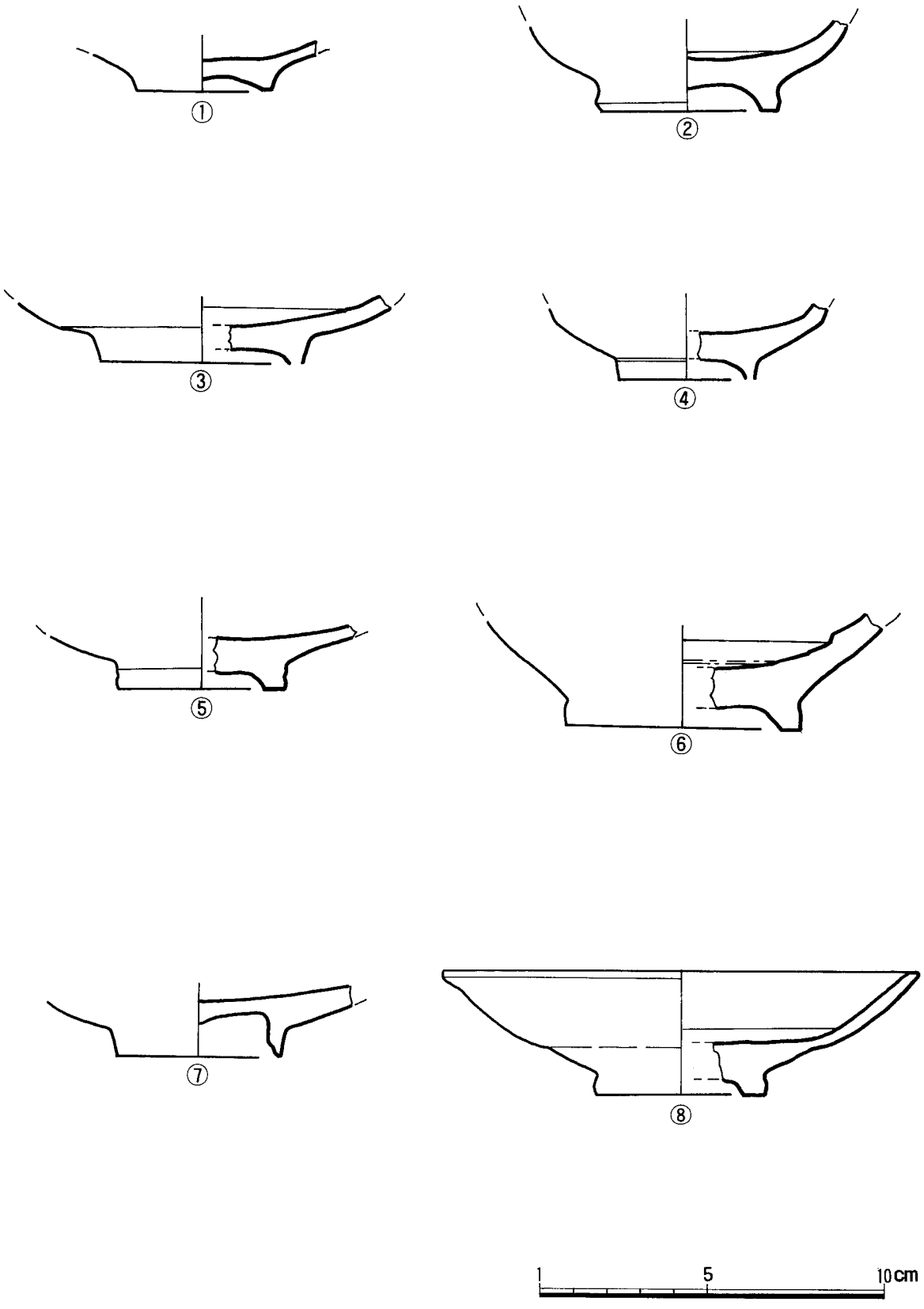
이 돌확은 A지구 동서담장지 서쪽 끝부분에 해당하는 지표에서 수습되었다. 제주도 현무암을 4면을 치석하여 방형꼴로 몸체를 만들고 중앙에서 약간 내려와 지름7.8cm의 둥근 홈이 패여 있다. 이 돌확은 하늘내기(구황식물)를 몸체 중앙부위에 놓고 공이로 빻거나 갈아 둥근 홈안으로 식물의 즙을 고이게 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라 한다. 길이 29.2cm, 두께 8.2cm.

3) 숫돌 (도면 84-8 도판 92-8)

A지구 50년대 군숙영지 잡석보도 중앙 다진층에서 확인되었다. 회백색 편암제로 사각을 모두 사용하였고 특히 장방형몸체의 긴면은 활처럼 패여있다. 길이 18.7 cm, 너비 5.67 cm.



도면 85 C지구 3구역 출토 청자·분청사기



도면 86 C지구 3구역 출토 백자

제 5 장 고 찰

제 1 절 유 구

법화사지는 1982년부터 1992년까지 4차에 걸친 발굴조사를 통해 7000여평에 해당하는 면적을 발굴하였다. 발굴지점은 건물지구역과 연지추정구역으로 나누어지며 그 조사내용을 정리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1. 건물지 구역

가. 金堂推定 건물지

추정금당지(B-1구역의 건물지)는 1982,1987년에 조사되고 1992년에 건물지 주변을 조사하였다. 건물지의 규모는 정면 5칸, 측면 4칸 100평이상의 건물이다. 생토암반층을 파고 들어가 하단기단부를 만들고 그 위에 면석과 갑석을 얹어 2중 기단부를 만들었다. 건물지내부 성토층 조사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으나 성토상면은 주변의 치석을 깔아 수평을 만들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내부 주춧돌은 모두 없어졌으나, 기단부 동북편에 1기가 이탈된 채 확인되었다. 비교적 입자가 고운 석재를 정다듬하여 만든 기단부 석재와 주춧돌은 제주도 현무암을 이용한 주변 건물지와는 대조가 된다. 이 건물지는 1992년 확인된 A지구 건물지와 그 건축기술이 다르며 건물축조시 상당한 공을 들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 건물이 없어진 후에, 주춧돌들은 A지구 각 건물지 주춧돌로 재사용되었으며 지붕에 사용한 雲龍文·雲鳳文막새들도 후대 건물의 보도에 사용되었다. 1992년도 금당지 주변조사(B-2, 3, 4, 5구역)에서 이 건물지와 관련된 부속시설(계단지, 문지, 담장지등)을 확인할 수 없었다.

나. A지구 a건물지

축조시기는 조선전기로 여겨지는데, 고려후기 건물지의 주춧돌과 기와등을 재이용하여 신축하였다. 건물지 내부 성토층에서 雲鳳文 숫막새가 수습되었고 청자편도 섞여있다.생토면의 굴곡상태가 매우 심하여 기와를 기단부의 상면 높이까지 채워 성토하였다. 주춧돌은 현재 2기만이 존재한다. 주춧돌은 모두 생토암반을 둥글게 파서 시설하였다. 확인된 건물지의 기단석렬은 동서 17.5m 이상, 남북 12.7m 이상이다. 柱間의 간격은 9자(285cm)정도된다. 건물지방향은 N30°E이다.

현재 건물지 북쪽 기단부는 완전 파괴되어 정확한 전체건물지 규모를 파악하기는 어려우나,건물내 주춧돌의 간격을 고려해 볼때 정면 5칸,측면 3칸이상의 건물로 추정된다.

북편에 이 건물지와 관련된 배수 시설이 만들어졌다. 이 건물지는 당시 자연 경사면을 그대로 이용하여 조성되었다. 건물 내부 시설로는 암키와를 일렬로 연결하여 만든 온돌 부속시설이 확인되며, 건물지 기단 동쪽으로 폭 1m, 길이 5m의 기와보도가 시설되어 있다.

다. A지구 b건물지

a건물지의 북쪽을 완전 파괴하고 경사진 자연암반층을 이용하여 건물지를 시설하였다. 건물지 기단석렬은 남동쪽과 북서쪽에 일부 잔존한다. 현재의 건물지 규모는 남북석렬이 10m이고 동서석렬

은 파괴가 심하여 그 길이를 파악할 수 없었다. 1950년대 군숙영지 시설물로 인하여 건물지 내부가 거의 교란되었다. 현재 확인된 바에 의하면 건물지 내부 성토는 a건물지와는 달리 자잘한 잡석을 점토와 섞어 다졌다. 건물지 내부 주춧돌은 2기만이 있으며, 적심석이라고 생각되는 돌무더기 일부가 남쪽에 남아 있다. 자연 암반층위에 기와와 잡석을 둥글게 쌓아 만든것이다. 건물지 서북쪽에 기와보도와 장방형 아궁이시설이 확인되었다. a건물지와 유사한 배수시설이 북편에서 기단석렬과 동일한 방향으로 시설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아궁이시설과 기와보도등의 건물지 서북편 유구가 동편보다 30㎝가량 높게 시설되어 있어, 또 다른 건물지 시설의 일부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라. A지구 c건물지

앞서 a건물지의 서편 기단석렬을 완전 파괴하고 기단석렬을 만들었는데, 동서 17.4m이상,남북 5.8m이상으로 추정된다. 건물지 중 상당부분이 금번 발굴대상지에서 벗어난 서,남쪽 밭(하원동 1046번지)으로 들어가 있어 주변 시설물의 정확한 면적을 알 수 없다. 확인된 주춧돌은 12기이며 최소 4개 이상의 온돌부속시설이 있다. 건물지의 주춧돌 시설은 장타원형 주춧돌이 80cm 간격으로 2개가 나란히 놓여, 동서로 길게 배치되어 있다. 柱間隔은 주변 2칸은 8자(255cm)이고, 중심柱間隔이 12자(380cm)이다. 이 부분은 긴 마루시설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내부에서 확인된 시설로 길이82-85cm, 폭3-427cm크기의 장방형꼴로, 기와를 7단이상 쌓아 만든 槨모양의 시설이 있다. 이 槨은 온돌부속시설로 판단되는데 바닥까지의 깊이는 현재 27-30cm이고 바닥은 평평한 판석이 앞쪽에 깔려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확인된 2기의 온돌부속시설이 같은 남북방향으로 놓여 있는데, 그 간격은 87cm이다. 이 건물지의 내부 성토는 앞서 a,b건물지와는 달라서 황갈색점토와 기와편, 소토를 섞어 단단하게 다져 높였다. 주춧돌 하단의 積心시설이 확실하게 만들어졌다. 전체적인 성격으로 보아 앞뒤 툇마루를 둔 僧房址로 추정되며, 유구의 중복관계로 볼 때 b건물지와는 동일시기에 존재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마. 階段狀 遺構

A구역과 B-2구역에서 각 1개소 승방지북편에서 1개소가 확인되었다. A지구의 계단상 유구는 c건물지(승방지)의 기단석렬과 동일한 방향에서 북쪽으로 3.4m에 위치한다. 경사져 내려오는 생토암반층을 깎아내어 계단석렬을 만들었다. 계단석렬은 모두 6단으로, 1단에서 3단까지는 계단석렬이 확인되었으나, 4단부터 6단까지는 그대로 자연암반층을 파서 단을 만든 堀壙線만이 확인되었다. 이 계단상 유구는 건물지 사이를 연결하는 용도의 계단이라기 보다 화초나 혹은 채소등을 경작했을 가능성이 많다.

B-2구역의 계단상유구는 A구역 a건물지와 관련이 있는 계단상 유구로 현재 남아있는 계단상 유구의 길이는 5.2m이고, 各段間隔은 0.85m이다. 이 계단상 유구는 급격히 경사지는 생토암반위에 석렬이 놓여 있다. a건물지(법당지)옆 기와보도가 내려와 이 계단상 유구와 연결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바. 기와보도

A지구의 a건물지, b건물지 그리고 계단상유구 서북편에서 확인되었다. a건물지 기와보도는 건물지 동쪽석렬과 맞대어 남북으로 축조되었고 b건물지 기와보도는 북쪽기단 석렬에 붙여 지나간다.

방향은 동서방향이다. 계단상유구 북편 기와보도는 앞서 기와보도와 마찬가지로 건물지 입구 기와보도로 파악된다. 동서로 놓인 이 기와보도의 동편은 계단상유구에 의해 파괴되고 서편부분은 서쪽(하원동 1046번지)으로 연장되는데, 보도의 폭은 1.1-1.3m이다. 따라서 법화사지 조선전기 건물신축시 어떤 방향으로든 한개 지점이상 건물지 기단과 붙여 기와보도를 시설했음을 알수 있다.

사. 담장지

b건물지가 자리하고 있었을 때 축조된 것으로 파악되는 데, b건물지 동쪽과 북쪽에 자리잡고 있다. 북쪽담장지는 북편 기단석렬과 동일한 방향으로 축조되어있다. 동서 방향의 담장지가 남북방향의 담장지와 직각으로 교차되어 나타나 있다. 모두 생토층위에 막바로 시설하였다. 담장지의 동편과 북편의 테스트핏트조사와 트렌치조사를 통해, 이 담장지는 법화사지의 동북편 끝 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아. 1950년대 군숙영지 유구

현 법화사 일대는 1950년대 당시 대정읍 모슬포와 더불어 군숙영지가 자리했던 지점이다. 숙영지와 관련된 시설물로 야전용 텐트 사이사이에 만들어진 잡석보도와 각종 쓰레기 매립구덩이 등이 확인된다. 보도는 B-3구역에서 1개소와 A지구 c건물지 상층에서, 그리고 담장지 남쪽에서 확인되었다. 매립구덩이는 A지구 계단상유구 1단 앞과 5단 뒷편에서 확인되었다. 그밖에 군숙영지와 관련된 유구흔적은 B-1, 2, 3구역에서 조사되었다.

2. 연지추정 구역

『新增東國與地勝覽』大精縣 佛宇條에 실린 高麗末 慧日禪師의 싯귀 중 '法華庵畔物華幽'(법화암 물가 언덕에 물화가 그윽하고)라는 귀절이 있으므로 고려말 당시 法華寺 주변에 어떤 형태로든 물 고인 지형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 법화사 경내나 주변에서 물 고인 지형은 C지구 뿐이다.

C-1. 2. 3 구역에 대한 1989년도 발굴조사에서는 거의 전지역의 표토층 아래에 할석과 통나무편 등이 포함된 매립토층이 확인되었다. 매립토층 아래로 연못 퇴적층이나 연못 호안경계시설은 노출되지 않고 막바로 물이 스며들어 변색된 사질점토층으로 이어진다.특히, 남북 트렌치 중앙부에서 확인되는 적석군은 전체 층위양상에서 제 2,3층의 매립층에 속하여 군 숙영지 매립시 적석된 것으로 여겨진다.

C-4구역에 대한 1992년 발굴조사는 연못의 경계 석축으로 단정할만한 시설은 확인하지 못하였다. 다만 조사구역 서편에서 밭담경계의 축담석렬이 연지 가장자리일 가능성을 조사하였으나, 층위적으로나 유구의 성격상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초로 거슬러 올라가는 시설물로 판정하기는 곤란하다. 조사구역내에 트렌치내의 층위와 물의 고임상태로 보아 완만한 물웅덩이가 형성되었으리라고 추정되나, 인공적으로 조성된 연지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는 퇴적층과 출토유물 등의 고고학적 증거로 보아 어렵다.

결국 연지추정 발굴지에는 주변지형보다 낮은 지형적인 여건에 의해 북쪽 구릉의 수원지에서 흘러온 물이 계속해서 고이게 되었고, 이로 인해 C-4구역을 중심으로 점토층자체가 泥質化된 늪지층이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제 2 절 유 물

1. 기 와

가. 형식과 속성

1) 형 식

A, B, C지구에서 수습한 기와는 크게 막새와 평기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막새기와에는 숫막새로는 운봉문, 귀면문 2종이고, 암막새로 운용문, 당초문, 연화문 그리고 양각이형 4종이 있다. 평기와에는 암, 숫기와을 묶어 문양 형식을 분류하였다. 평기와의 문양은 수지문, 격자문, 복합문으로 나누고 다시 세분하여 수지문 7종, 격자문 2종, 복합문 18종으로 정리하였다. (표2 기와문양참조)

2) 속 성

본 보고서에 서술된 136개의 기와를 문양, 색깔, 두께, 내면처리, 태토상태에 따라 기와 속성을 정리해 보았다.

(표1.법화사지 출토기와 속성표)

** 「법화사지 출토기와 속성표」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 작성되었다.

가. 기와의 문양은 '법화사지 출토기와 문양 분류표'를 참조.

나. 기와의 내면처리수법은 ① 천(布) 부착정면, ② 물손질, ③ 예새(대칼), ④ 손누름, ⑤ 빗질흔, ⑥ 주름, ⑦ 타날흔, ⑧ 손톱자국, ⑨ 모래받침 등으로 분류하였다.

다. 기와의 색조는 ① 회청색, ② 황갈색, ③ 적갈색, ④ 회색, ⑤ 회백색, ⑥ 회갈색, ⑦ 암회색 등으로 분류하였다.

라. 기와 두께는 기와편의 중심부 단면을 기준으로 하였다.

마. 경도는 물 세척시 마모되는 정도에 따라 연질, 경질로 구분하였다.

바. 태토상태는 양호한 것과 불량한 것으로 구분하였다.

사. 기와의 출토위치는 ① A-a 건물지 내부, ② A-b 건물지 내부, ③ A-c 건물지 내부, ④ A-a 건물지 동쪽기와보도, ⑤ A-b 건물지 북쪽기와보도, ⑥ A지구 계단상유구 북쪽 기와보도, ⑦ A지구 계단상유구, ⑧ A지구 담장지, ⑨ B-2구역 계단상유구, ⑩ C지구 , 지표로 구분하였다.

순 번	도면 번호	도판 번호	문 양	색 조	두 께 cm	내면처리수법	경도	태토	출토위치
1	34-1	42-1	숫막새 A	⑥	1.6	②	연질	좋음	④
2	34-2	42-2	숫막새 A	①	1.8	②⑤	경질	좋음	⑥
3	34-3	42-3	숫막새 A	④	1.7	②⑤	연질	좋음	⑥
4	35-1	43-1	숫막새 A	①	1.7	①③	연질	좋음	⑥
5	35-2	43-2	숫막새 A	④	1.8	④	연질	좋음	⑥
6	35-5	43-5	숫막새 A	⑥	1.5	⑤	연질	좋음	⑥
7	35-3	43-3	숫막새 A	⑥	1.5	⑤	연질	좋음	⑥

8	35−4	43−4	숫막새 B	①	1.1	?	연질	좋음	지표
9	36−1	44−1	암막새 A	④	1.6	②⑤	연질	좋음	⑥
10	36−2	44−2	암막새 A	④	1.8	②⑤	연질	좋음	⑥
11	36−3	44−3	암막새 A	④	1.6	②	연질	좋음	⑥
12	36−4	44−4	암막새 B	④	2.3	②	경질	좋음	⑦
13	37−1	45−1	암막새 C	①	1.4	①②③	경질	좋음	①
14	37−2	45−2	암막새 D	④	2.5	②④	경질	좋음	①
15	37−3	45−3	수지문 A	②	2.1	①	경질	나쁨	⑦
16	37−4	45−4	수지문 A	②	1.8	①	경질	나쁨	①
17	38−1	46−1	수지문 A	①	1.6	①③	경질	좋음	①
18	38−2	46−2	수지문 B	①	2.0	①	경질	좋음	①
19	38−3	46−3	수지문 B	②	2.5	①⑤	경질	좋음	①
20	38−4	46−4	수지문 C	①	1.6	①②③	경질	좋음	⑧
21	39−1	47−1	수지문 C	④	2.0	①②③④⑤	연질	좋음	①
22	39−2	47−2	수지문 C	①	1.9	①⑤	경질	좋음	⑦
23	39−3	47−3	수지문 C	②	2.0	①③	경질	좋음	⑦
24	39−4	47−4	수지문 C	④	2.0	①④	경질	좋음	⑦
25	40−1	48−1	수지문 C	①②	2.0	②	경질	좋음	⑨
26	40−2	48−2	수지문 D	①	1.9	①②	경질	좋음	⑨
27	40−3	48−3	수지문 D	④	2.2	①③	경질	좋음	⑨
28	40−4	48−4	수지문 D	④	1.8	①④	경질	좋음	⑨
29	40−5	48−5	수지문 D	③	1.8	①	연질	좋음	①
30	41−1	49−1	수지문 D	⑥	2.0	①③⑤	연질	좋음	①
31	41−2	49−2	수지문 E	④	1.9	③	연질	좋음	⑨
32	41−3	49−3	수지문 E	④	2.2	①③⑥	경질	나쁨	⑨
33	41−4	49−4	수지문 E	①	2.1	①⑤	경질	좋음	⑨
34	41−5	49−5	수지문 E	①③	1.9	①②⑤	경질	좋음	⑦
35	41−6	49−6	수지문 E	②	1.6	①③	연질	나쁨	①
36	42−1	50−1	수지문 E	①	1.7	①③⑥	경질	좋음	⑦
37	42−2	50−2	수지문 E	②	1.8	⑤	연질	좋음	①
38	42−3	50−3	수지문 E	④	2.2	①③④⑤	연질	좋음	⑨
39	42−4	50−4	수지문 F	①	2.5	①③	경질	나쁨	⑨
40	42−5	50−5	수지문 F	①④	2.5	①③④⑤	경질	좋음	⑨
41	43−1	51−1	수지문 F	①	2.6	①③④	경질	좋음	③
42	43−2	51−2	수지문 G	①	2.1	①④	경질	나쁨	⑨
43	43−3	51−3	격자문 A	①②	2.1	⑧	연질	나쁨	①
44	43−5	51−5	격자문 B	②	2.1	①③⑤	경질	좋음	①
45	43−4	51−4	격자문 A	①	2.2	①③⑤	경질	좋음	①

46	44-1	52-1	복합문 A	①	2.2	①③④	경질	좋음	①
47	44-2	52-2	복합문 A	②	1.8	①②③	연질	나쁨	①
48	44-3	52-3	복합문 A	②	2.8	①	연질	나쁨	①
49	44-4	52-4	복합문 A	①	1.9	①④	경질	나쁨	②
50	44-5	52-5	복합문 A	①	1.9	①④	연질	나쁨	①
51	45-1	53-1	복합문 A	①④	1.7	①②③⑤	연질	좋음	②
52	45-2	53-2	복합문 A	④	1.5	①③	경질	좋음	⑨
53	45-3	53-3	복합문 A	①	1.9	①④	경질	좋음	②
54	45-4	53-4	복합문 B	②	2.8	①③④	연질	좋음	①
55	46-1	54-1	복합문 B	①	2.0	①	경질	나쁨	①
56	46-2	54-2	복합문 B	②	2.3	③	연질	좋음	③
57	46-3	54-3	복합문 C	②	1.6	①②	연질	좋음	③
58	46-4	54-4	복합문 C	①	1.8	①③④	경질	좋음	①
59	46-5	54-5	복합문 D	⑥	2.7	①	연질	좋음	①
60	47-1	55-1	복합문 E	②	2.1	①③	연질	좋음	①
61	47-2	55-2	복합문 E	②	1.7	①⑤	연질	좋음	②
62	47-3	55-3	복합문 E	①	2.2	①③	경질	나쁨	①
63	47-4	55-4	복합문 E	①④	2.7	①⑤	경질	나쁨	②
64	47-5	55-5	복합문 E	①	2.4	①③⑤	연질	좋음	⑨
65	48-1	56-1	복합문 F	②④	1.9	②⑤	연질	좋음	⑨
66	48-2	56-2	복합문 F	①	1.5	①⑤	경질	좋음	⑨
67	48-3	56-3	복합문 G	①	2.0	①	연질	좋음	③
68	48-4	56-4	복합문 H	①	2.5	①④	경질	나쁨	③
69	49-1	57-1	복합문 H	①	2.0	①②③	경질	나쁨	①
70	49-2	57-2	복합문 H	①	1.8	①④	경질	나쁨	①
71	49-3	57-3	복합문 I	④	2.0	①③④	경질	좋음	⑨
72	49-4	57-4	복합문 I	①	1.7	①⑥	경질	좋음	②
73	50-1	58-1	복합문 J	①	2.3	?	경질	좋음	②
74	50-2	58-2	복합문 K	①	2.4	①②③	경질	좋음	②
75	50-3	58-3	복합문 K	①	1.8	①③④	경질	좋음	①
76	50-4	58-4	복합문 K	②	2.3	①③	경질	좋음	⑨
77	51-1	59-1	복합문 K	④	2.4	①③	연질	좋음	⑧
78	51-2	59-2	복합문 K	①	2.7	①	경질	좋음	①
79	51-3	59-3	복합문 L	④	1.9	①④	경질	좋음	①
80	51-4	59-4	복합문 M	②	2.7	①②④⑤	경질	나쁨	①
81	51-5	59-5	복합문 M	①	2.1	①④	경질	나쁨	①
82	52-1	60-1	복합문 M	④	2.8	③④	연질	좋음	①
83	52-2	60-2	복합문 M	①	2.0	①②③	연질	좋음	④

84	52−3	60−3	복합문 N	①	2.3	①	경질	나쁨	⑦
85	52−4	60−4	복합문 O	②	2.4	①③	연질	나쁨	①
86	52−5	60−5	복합문 O	③	2.3	①⑧	연질	나쁨	①
87	52−6	60−6	복합문 O	②	2.0	①⑤	연질	나쁨	⑧
88	53−1	61−1	복합문 P	①④	2.5	①③⑤	연질	나쁨	①
89	53−3	61−2	복합문 Q	①	2.0	①③⑤	경질	나쁨	⑨
90	53−2	61−3	복합문 P	④	1.9	①③⑤	경질	좋음	①
91	53−4	61−4	이형기와 A	⑥	1.6	①③⑤	연질	좋음	④
92	53−5	61−5	이형기와 A	④	1.9	①②⑤	연질	좋음	⑨
93	54−1	62−1	이형기와 A	④	1.8	①③⑤	연질	좋음	④
94	54−2	62−2	이형기와 A	⑥	1.9	①③⑤	연질	좋음	④
95	54−3	62−3	이형기와 A	④	1.8	①③	연질	좋음	①
96	55−1	63−1	이형기와 E	④	1.9	①②③④	연질	좋음	④
97	55−2	63−2	이형기와 C	①③	2.2	①	경질	좋음	⑨
98	55−3	63−3	이형기와 D	④	2.1	?	연질	좋음	①
99	56−1	64−1	명문기와 A	①	2.1	①③	경질	나쁨	⑨
100	56−2	64−2	명문기와 A	①	2.1	①⑤	경질	나쁨	⑦
101	56−3	64−3	명문기와 A	①	2.4	②③④	경질	좋음	①
102	57−1	65−1	명문기와 A	①	2.0	①⑧	경질	좋음	⑨
103	57−2	65−2	명문기와 B	①	2.6	①②④	경질	좋음	⑦
104	57−3	65−3	명문기와 C	③	2.7	③⑤	연질	나쁨	⑧
105	57−4	65−4	명문기와 C	①	2.7	①②	연질	좋음	⑤
106	57−5	65−5	명문기와 C	②	3.0	①③⑤	연질	좋음	②
107	58−1	66−1	명문기와 C	④⑥	2.7	①②③④⑤	연질	나쁨	①
108	59−1	67−1	명문기와 D	④	2.0	①⑥	경질	좋음	①
109	59−2	67−2	명문기와 D	①	2.2	①③	경질	좋음	⑨
110	59−3	67−3	명문기와 D	④	2.0	①②	경질	좋음	⑨
111	59−4	67−4	명문기와 E	①	2.1	①⑥	경질	좋음	②
112	59−5	67−5	명문기와 E	①	1.9	①③	경질	좋음	지표
113	60−3	68−3	명문기와 H	①	2.5	①	경질	나쁨	①
114	59−6	67−6	명문기와 F	①	2.1	⑨	경질	좋음	①
115	60−2	68−2	명문기와 G	①	2.1	①②③	경질	나쁨	③
116	60−1	68−1	명문기와 E	①	2.4	①	경질	좋음	①
117	61−1	69−1	명문기와 I	①	2.4	①③④	경질	나쁨	⑦
118	61−2	69−2	명문기와 I	④	2.6	①③	경질	나쁨	⑦
119	61−3	69−3	명문기와 I	①	2.3	①③④	경질	나쁨	⑦
120	61−4	69−4	투공기와 A	①④	1.5	①③	연질	좋음	⑥

121	62-1	70-1	수지문	①	2.3	③	경질	좋음	⑩
122	62-2	70-2	수지문	④	2.4	①③	경질	좋음	⑩
123	62-3	70-3	수지문	②	2.0	①③⑤	연질	나쁨	⑩
124	62-4	70-4	수지문	④	1.7	①④	연질	나쁨	⑩
125	62-5	70-5	수지문	②	3.3		연지	나쁨	⑩
126	62-6	70-6	수지문	①	2.2	①	연질	나쁨	⑩
127	63-1	71-1	격자문	④	2.1	①③	연질	좋음	⑩
128	63-2	71-2	복합문	①	1.5	①④⑤⑥	경질	좋음	⑩
129	63-3	71-3	복합문	⑥	1.9	①⑦	연질	좋음	⑩
130	63-4	71-4	복합문	②	1.7	①③	연질	좋음	⑩
131	63-5	71-5	복합문	③	1.6	①③	연질	나쁨	⑩
132	64-1	72-1	복합문	①②	2.2	②	연질	좋음	⑩
133	64-2	72-2	복합문	②	1.9	①③	연질	좋음	⑩
134	64-3	72-3	복합문	③	1.8	③	연질	좋음	⑩
135	64-4	72-4	복합문 R	②	1.7	①③	연질	나쁨	⑩
136	64-5	72-5	명문기와 I	①	2.4	①⑧	경질	나쁨	⑩

표에 나타난 각 기와별 속성을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① 숫막새A(운봉문숫막새)는 색조에 있어 회청색, 회색, 명갈색으로 나누어진다. 내면처리는 모두 천부착정면흔이 나타나며 부분적으로 손누름, 빗질흔이 보인다. 태토상태는 매우 좋으며 막새부의 지름은 13cm, 두께는 1.6cm가 평균치이다. 내림새가 떨어져나간 부위에서 기와부와 막새부를 따로 만들어 부착했음을 알 수 있다.

② 암막새A(운용문암막새)는 전부 회색의 색조를 띠고 있다. 평균두께는 1.6cm이다. 물손질과 막새부와 기와부의 접합을 쉽게 하기 위한 날카로운 빗질을 하였다. 암막새 B와 C는 크기나 색조면에서 차이가 있다. 막새부와 기와부가 직각을 이룬다는 사실과 모두 경질이라는 공통성을 보인다.

③ 수지문 평기와는 회청색, 회색, 황갈색이 주류를 이루고 평균두께는 2.0cm 이다. 수지문 A는 전반적으로 태토가 불량하다. 수지문 평기와의 내면 처리수법에서 공통적인 특징은 천부착정면이다. 다른 형식의 수지문기와와는 달리 수지문 C형식기와는 물손질, 대칼질, 빗질흔적등이 간간히 첨가되었다. 수지문 F형식도 C형식과 처리수법이 비슷하나 물손질 수법은 보이지 않는다.

④ 격자문 평기와는 평균두께가 2.1cm이며 황갈색과 회청색 색조가 있다. 내면 처리수법은 천부착정면, 대칼질수법, 빗질수법에서 공통점을 보이나 아무런 내면처리도 하지 않은것도 한점 있다.

⑤ 복합문 평기와는 A형식은 평균 두께가 1.9cm 이고 연질과 경질이 각각 반수의 비율로 존재한다. 색조는 회청색과 황갈색이 주를 이룬다. 내면처리는 천부착정면, 대칼수법, 손누름수법, 빗질흔수법이 주로 사용되었다. 복합문 B는 황갈색, 소성도는 연질이 주를 이루고 천부착정면과 대칼수법을 주로 사용하였다. 복합문 E형식은 회청색, 황갈색이 주종을 이루고 평균두께가 2.1cm 이며 내면처리수법은 천부착정면과 대칼질, 빗질수법이 공통적으로 사용됐다. 태토상태와 소성도에서는 반반의 비율로 존재한다. H형식 기와의 색조는 회청색과 회색이 있으며 내면 처리수법은 천부착정면과 손누름수법은 사용하였고 대칼흔적이 있는 것도 한편이 확인됐다. K형식 기와는 회청색, 황갈색, 회색의 색조가 있으며 평균 2.3cm의 두께이다. 내면 처리수법은 천부착정면, 대칼수법을 주로 사용하

였고 물손질, 손누름수법을 한 기와도 각기 한편씩 발견되었다. 거의가 경질이며 태토상태는 전부가 양호하다. M형식 기와는 회청색이 주를 이루며 회색이 한 편 있다. 내면 처리수법은 천부착정면과 손누름수법을 보이며 간간히 물손질과 대칼질, 빗질수법을 한 것이 보인다. 태토상태와 소성도에서는 양호한 것과 불량한 것이 반수로 존재한다. O형식기와는 황갈색과 적갈색 색조이며 내면 처리수법은 천부착정면에서만 공통점을 보이나 전부가 소성도가 약하며 태토상태도 불량하였다.

⑥ 이형기와 A(주름무늬 기와)는 색조는 회색이 주류를 이룬다. 평균두께는 1.9㎝ 이다. 내면 처리수법은 천부착정면, 대칼수법, 빗질수법에서 공통성을 보이나 물손질한 기와도 한 편이 확인되었다. 전부가 소성도가 약하나 태토상태는 이에 비해 양호한 상태이다.

⑦ 명문기와는 거의 모든 기와가 회청색, 회색의 색조를 띤다. 단지 예외가 있는 기와가 C형식(患)기와인데 이 기와는 황갈색과 적갈색의 색조도 확인된다. 명문기와의 소성도는 거의가 경질이었는데, 여기서도 C형식기와가 예외를 보였다. A형식(大)기와의 평균 두께는 2.5㎝ 이며 내면 처리수법에서는 천부착정면, 대칼수법이 공통적으로 확인되고 손누름과 빗질수법도 간혹 보인다. C형식기와는 평균두께가 2.7㎝ 이다. 내면 처리수법은 천부착정면, 대칼수법, 빗질수법이 주로 사용되었고 물손질과 손누름수법도 간혹 보인다. D형식기와와 E형식기와는 회색이 주를 이룬다. D형식기와의 평균 두께는 2.0㎝ 이나 E형식기와는 불규칙한 두께를 가진다. 두 형식의 기와는 천부착정면수법을 주요 처리수법으로 하나 물손질, 대칼, 손누름, 빗질등의 처리수법에서는 각기 차이를 보이며 태토 상태는 좋은 편이다. F형식기와는 내면 처리수법이 특이하게도 천부착정면이 보이지 않으며 모래자국과 같은 입자가 큰 구멍흔적이 있었다. I형식기와는 평균 2.4㎝ 의 두께를 가진다. 내면 처리수법은 천부착정면, 대칼질, 손누름수법을 사용하였다. 소성도는 좋으나 태토상태는 거칠다.

나. 유구별 출토상황

금번 발굴에서 수습된 기와를 A, B, C지구의 각 유구별로 정리하여,[1] 유구의 개별적 시기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각 유구별 출토기와 집계표 는 다음과 같다.

(표2. 법화사지 각 유구별 출토 기와 집계표)

기와형태 \ 유구	A 지구 a건물지	b건물지	c건물지	a동쪽건물지 기와보도	b북쪽건물지 기와보도	계단상유구 북쪽 기와보도	계단상유구	담장치	B지구 B계	단 2상 구유역구	문합양별계
운봉문숫막새	1			1		3					5
운용문암막새	1					3					4
당초문암막새							1				1
연화문암막새			1								1
양각이형암막새	1										1
수지문 A	87	6		5	6	4	86	9	6		209
수지문 B	43	4	2	2	4	8	57	3	4		127

수 지 문 C		11	8	3	6	2	9	60	25	11	135
수 지 문 D		62	2	6	1	3	1	11	6	42	134
수 지 문 E		50	3	3	2				9	23	90
수 지 문 F		6	2	7	4		3		3		25
격 자 문 A		2			2	11		7			22
격 자 문 B		3			2	3		8			16
복 합 문 A		15	1		3		1	24	3	3	50
복 합 문 B		4	1	2				3		8	18
복 합 문 C		5	2		2			19			28
복 합 문 D		1						2			3
복 합 문 E		2	1	8	1	2	2	12	1	4	33
복 합 문 F										2	2
복 합 문 G										1	8
복 합 문 H		1		1	11						13
복 합 문 I			2			7					9
복 합 문 J			1								1
복 합 문 K		16				8					24
복 합 문 L		2									2
복 합 문 M		32	2	3					4		41
복 합 문 N								1			1
복 합 문 O		6									6
복 합 문 P		1				4					5
복 합 문 Q		1				2					3
이 형 기 와 A		3			3	2					8
이 형 기 와 C										1	1
'대' 명 기 와		8					1	4	2		22
'순' 명 기 와						7		1			1
'층' 명 기 와		4								3	7
'만 호' 명 기 와		3								4	7
'봉' 명 기 와		2							1	2	5
'중 창 …' 명 기 와		1									1
'○옥○자' 명 기 와		1									1
'인 길' 명 기 와				1				2			3
'고 내' 명 기 와		2		1			1	8	2	4	18
유 구 별 합 계		377	35	38	45	61	36	313	68	118	1091

① 운봉문숫막새의 출토유구는 A지구 추정법당지(a건물지)와 법당지 동편기와보도, 계단상유구 북편기와보도에서 출토된다.

② 운용문암막새는 A지구 추정법당지와 계단상유구 북편 기와보도에서 확인되며 연화문, 양각이형암막새 각 1편은 a건물지 동북편 기단석렬건물지 사이의 상층돌무지에서 발견되었다. 당초문암막

새는 A지구 계단상유구에서 출토되었다.

③ 수지문 평기와는 수량에 있어 A-C-D-B-E-F형식순으로 적어지며, 유구별로는 A지구 추정법당지와 계단상유구에서 다량으로 출토된다. 상대적으로 b건물지와 c건물지 (승방지), 기와보도에서의 출토량이 매우 적다. 수지문 F형식이 계단지와 기와보도에서 확인되지 않았고 A형식의 경우 c건물지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④ 격자문은 복합문, 수지문보다 그 출토양이 매우 적다. 주로 출토되는 지점은 A지구 계단상유구와 b건물지 기와보도이며, B지구 계단상유구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⑤ 복합문 평기와는출토수량면에서 A-M-C-E-K-B-I-H-G-P-D, Q-F-J, N,형식 순으로 출토된다. 복합문 A, C, E, H 형식은 A구역 계단상유구가 집중 출토되며 복합문 K, M형식은 추정법당지(a건물지)에서 다른 유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다. 복합문 O형식은 a건물지에서만 출토된다. 복합문 G, H, I형식은 주로 A지구 계단상유구에서 출토되며 B구역 계단상유구에서 출토되는 형식은 B, F, P, Q형식이다.

⑥ 이형와A(주름무늬와)는 A건물지(추정법당지)와 기와보도, A지구 계단상유구 북편 기와보도에서만 출토된다.

⑦ 명문와는 수량면에서 '大'-'高內'-'忠'-'万戶'-'奉' 銘瓦순으로 출토되며 주로 출토되는 지점이 A지구 추정법당지 상층이다. '始重創十六年己卯畢'명문기와 역시, 추정법당지 북서편 상층 돌무지에서 출토되었다. 다만 '高內'명문와는 A지구 계단상유구에서 주로 출토된다.

다. 편년과 성격

1) 편년

기와의 편년은 기와의 속성을 자체 분석하고 유구의 중복관계를 가지고 출토상황을 고려한다면 가능하다.

A지구 유구중 가장 이른 유구가 a건물지(추정법당지)와 계단상유구 북편의 기와보도이다. 이 건물지의 북편, 서편기단석렬은 b건물지와 c건물지(승방지)에 의해 파괴되어 있다. 이 건물지의 동편기단석렬과 붙여 기와보도가 시설되어 있다. 주변 토층조사와 기와보도 서벽의 축조상태로 보아 a건물지와 동일시기에 축조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기와보도에 깔린 기와와 건물지 내부성토에 사용한 기와는 a건물지 축조 이전의 시기것임을 알게한다. 이와 동일한 축조수법에 의해 만들어진 기와보도로 A지구 계단상유구 북서편의 기와보도가 있다. 이 기와보도 역시 b, c건물지 시기의 적석군에 의해 동편보도가 파괴된 상태이다. 보도에 깔린 기와는 보도와 관련된 건물이 시설되기 이전의 것임을 감안할 때, 두지점의 각종기와의 공반상은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발굴결과 a건물지의 주춧돌과 내부출토 청자편 그리고 계단상유구 북편기와보도 내부에 깔린 상감청자편들로 보아, 이들 유구는 조선전기에 축조되었고 유물은 그 이전 시기의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앞서 제시한 유구별 출토 기와 집계표를 보면 두 지점에서 공반되는 기와는 운용문, 운봉문막새와 평기와로 주름무늬 암기와, 수지문 A, B, C, F와 복합문 A, C, E가 있다. 또한 절대연대와 그 시기를 알 수 있는기와로 '重創十六年己卯畢'기와를 들 수 있다. 적어도 고려말에 해당하는 기와편이다.

이러한 유구내 기와조합상과 앞서 제시한 [법화사지 출토기와 속성표]를 참조하여 법화사 출토기와의 시기적 소속관계와 기와 특성을 고찰해 보면 표와 같다.

(표3. 법화사지 출토기와의 시기구분과 특성)

시 기	조선전기이전기와 (13~14세기)	조선전기기와 (15~17세기)
막 새	운봉문 숫막새 운용문 암막새 양각이형 암막새	당초문 암막새 연화문 암막새
막새特徵	소성도 연질 막새와 기와접합부분에 접합을 쉽게 하기 위한 대칼흔 회색. 회색 색조.	소성도 경질 막새와 기와는 직각으로 접합. 회청색 색조.
평 와 (명문기와 포함)	수지문 A 수지문 B 수지문 C 수지문 F 복합문 A 복합문 C 복합문 E, 복합문 H 주름무늬 기와[2] 언강이 긴기와 '重創十六年己卯畢'명평기와	수지문 D 수지문 E 복합문 B 복합문 D 복합문 F 복합문 G 복합문 I 복합문 J 복합문 I 복합문 N
평와의製作手法/特徵	소성도가 주로 낮음. 연질과 경질 혼합. 측면 도자흔 곧바르게 나감.	소성도가 높음 경질위주 측면 도자흔 밖으로 빗겨나감

막새는 고려말기와 조선전기 형식이 뚜렷하게 구분이 간다. 고려막새는 회색계열을 띠고 소성도가 약한 반면 조선전기막새는 회청색계열에 경질이다. 그러나 평기와를 보면 같은종류 기와사이에서도 소성도나 색조가 다른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기와는 앞시기의 문양모티브을 모방하여 그후에도 계속하여 소성도를 달리하면서 제작하였다고 생각된다.

2) 성 격

① 명문기와

명문기와와 법화사지에서 출토되는 명문기와는 10종류에 이른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출토량을 보이는 것은 '大'명문기와이다. 이 명문기와는 수지문이나 혹은 복합문 중앙에 상하부로 직사각형을 음각한후 그 안에 글자가 배치되어 있다. 이러한 시문양식은 '順' '寅吉' '高內' 명문기와에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이 명문기와의 뒷면은 모두 천부착 정면을 하였다.

'大 '명문 기와는 '大天'이라는 글자로 제주시 삼양동 원당사지에 발견되며,[3] '卍'명문기와는 과거 제주시 외도동 수정사지에서 채집된 바 있으나 법화사에서 출토되는 '卍'명문기와는 수정사에서 출토된 기와와는 달리 수지문가지의 밑에 여러번 중복되게 시문된 관계로 명문기와로 구분하지 않았다.[4] '万戶', '戶高口德'명문기와는 제주시 삼도동 제주목관아지에서 발견되는 '同願此處官萬戶兼牧

使' 명문기와와는 대조가 된다. 만호의 '萬'자가 서로 다르고 글씨체 자체가 관아지 명문기와는 가늘고 세련되게 시문되었으나[5] 동 사지 명문기와는 두텁고 매우 거칠다. 제주도에 萬戶部가 설치된 것은 고려 충렬왕 27년(1301년)에 설치된 바 있으며 牧使도 이 해에 파견된다. 이시기로 부터 제주도는 만호와 목사가 겸직하게 되는데, 朝鮮 成宗이후에 萬戶는 하급군관으로 몰락하면서 목사와 겸직할 수 없는 직책이 된다. 따라서 만호라는 명칭은 고려후기에서 조선전기에 해당하는 시기의 것이라 추정된다. 이 명문와도 그러한 방향에서 소속시기를 해석해도 무리가 없으리라 생각한다. '戶高 口德'명문의 後字 '高'는 성씨와 관련이 있는 듯 싶다. '高內'명문기와는 제주도 옛 사찰과 제주목 관아지에서 확인된 바 있는데, '高內'는 마을지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始重創十六年己卯畢'銘瓦는 A지구 a건물지내부의 성토층 상면 적석군에서 출토되었다. 이 기와는 법화사의 연혁를 파악할 수 있는 절대연대 자료로서 매우 중요하다. 앞서 명문기와의 예와 같이 기와 상하부로 음각된 직사각형안에 명문이 새겨져 있다. 이 명문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의 해석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 (?? 年에) 중창을 시작하여 16년만인 기묘년에 마쳤다."

㉯ "(?? 王 ?? 年에) 중창공사를 시작하여 (??王) 16년 기묘년에 마쳤다."

㉰ "(…… <年號名>년에) 중창을 시작하여 (?? 왕) 기묘년에 마쳤다."

㉮의 해석은 重創자체가 始에 걸려 해석되는 한문문법상구조에서 잘못 해석되는 것으로 문장해석상 무리가 있으며 ㉯의 해석은 ??왕의 재위 16년이 己卯년과 일치하는 경우를 찾으면 된다. 조선시대 高宗16년 己卯 즉 1879년 하나 뿐이다. 그러나 이 시기에 해당하는 유물이 발견되지 않으며 이원진의 쓴 <탐라지> (1651년)에 이미 '今廢寺'라 쓰여있어,[6] 이 연대는 가능성이 희박하다. ㉰의 해석은 이에 해당하는 年號를 찾아본 결과 바로 至元 16년 기묘 , 즉 원 세조 16년이며 고려 충렬왕 5년 1279년에 해당하였다. 이 명문은 제주에 원의 탐라총관부가 설치되는 고려충렬왕 원년(1275년) 이후 어떤 형태로든 이곳 법화사에 건물중창과 관련된 事迹을 파악하는 좋은 자료이다.

② 막 새

법화사 출토 막새는 雲鳳文숫막새와 雲龍文 암막새가 대표된다. 운봉문 숫막새는 주연부직경이 13㎝ 미만이고 1㎝ 안으로 음각원문을 돌리고 그안에 구름과 봉황을 양각하였다. 작은 구멍이 삼각형꼴로 투공되어 있다. 배면은 물손질흔적과 빗질흔,천부착정면이 나타난다. 운용문암막새는 6개의 원호로 이루어진 화두형모양으로 내림새 주연부 직경이 21㎝이며 주연내에 외곽띠를 돌려 조각면을 부각시켰다. 배면은 예새로 정면했고 주연부와 기와부를 따로 만들어 부착했다. 출토지점은 모두 기와보도에서 깔려 확인되었다. 이 막새는 한반도의 일반사찰 건물지에서 발견된 바 없다. 이 시대와 관련된 類似 막새는 고려 도읍지인 개성 만월대에서 발견된다.[7] 현재 이 막새가 사용된 건물은 고려말에 지어졌다고 생각되는 B지구의 추정법당지 건물로 파악하고 있다.

이 막새류는 줄무늬기와와 공반하고 있으며 연화문, 귀면문, 당초문막새와는 앞서서 서술했던 바처럼 시기적인 차 혹은, 건물지 용도상의 차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③ 평기와

법화사지 출토 평기와는 거의 모두가 수지문을 기본문양으로 하고 있고 복합문인 경우는 다른 문양을 그위에 덧시문한 것이다. 이런 점으로 볼때 다른 사찰과 마찬가지로 수지문이 가장 많이 쓰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가지 중요한 사실은 이번 발굴구역 가운데서 가장 앞선 시기에 조영된

A지구 계단상 유구 북쪽 기와보도에서 출토되는 기와들은 대부분 무늬가 없는 기와 라는 사실이다. 이 기와들은 전부가 소성도가 약한 기와였다. 무늬가 있는 기와로는 수지문 C형식 기와와 복합문 H형식 기와였다. a건물지 내부에 화덕시설로 이용된 기와는 수지문 C 형식이었다. 이들 유구의 축조 시기를 고려할때, 무문기와, 수지문C, 복합문H형식 기와는 적어도 조선전기 이전의 기와라고 보아도 무리가 없을 듯 싶다.

법화사지내에서 발견된 조선시대 평기와는 [표3. 법화사지 기와의 시기구분과 특성]에서 보듯이 전대의 기와문양을 유지하면서 소성도, 내면처리수법, 태토상태가 전대보다 발전한 기와를 사용하고 있다.

2. 도 자 기

가. 고려청자

고려청자편의 기형은 대접과 접시가 주류를 이루며, 그밖에 잔, 다잔, 항아리, 뚜껑 등이 있다. 출토 지역은 A구역 계단지와 건물지 주변에 주로 집중되어 있지만, 조선시대 도자기편에 비해 수량이 훨씬 적은 편이다. 유약의 색조는 청녹색, 녹색, 암녹색, 황녹색으로 다양하고, 번조받침으로는 규사눈과 내화토 받침 흔적이 보이며 모래받침 흔적도 있다. 청자편에 사용된 수법은 상감, 음각, 양각, 투각등이다.

청자접시편은 전접시와 구연을 꽃모양으로 오려서 성형한 꽃접시편이 있는데, 이들 접시류의 굽을 보면 아주 낮은 굽이거나 외면바닥을 한단 파서 성형하였다. 이러한 접시편은 12세기경부터 만들어져 14세기경까지 나타난다. 13세기 중반에서 14세기 후반에는 청자의 무늬가 사실적인 무늬에서 점차 단순화되고 상감수법도 몇줄의 선으로 무늬를 구성하는 등 간략해진다. A지구 출토 청자편은 이시기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질이 좋은 몇점의 청자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태토에 불순물이 많이 섞여있고, 무늬의 구성도 단순화되고 백상감수법이 주로 사용되었다. 상감수법이 사용된 청자편 중 백토, 자토의 감입상태가 좋지않아서 무늬가 확실치 않은 것도 있다. 이시기의 청자 가마터가 제주도와 거리상 가까운 전라도 지방에 상당수가 편중되어 있다는 점은 고려할 만하다.

출토된 도자기편 중에서 중국자기가 한점 출토되었는데, 저부편이라서 그 확실한 기형은 알 수 없지만 신안 바다에서 인양된 원나라의 자기중 청자첩국화당초문화병과 기형이 거의 유사하다. 기형의 유사성이나 역사적 사실로 볼때 한점 출토된 중국자기편은 원나라자기로 추측된다.

나. 분청사기

사용된 수법도 다양하고 출토량도 많은 분청사기편은 발굴 조사된 사지의 전역에서 출토되었다. 상감분청편은 백토의 감입상태가 불량하며, 시유상태도 고르지 못하다. 인화분청편은 내면에만 시문되거나 내외면에 시문된 것으로 나눌 수 있다. 내면에만 시문된 인화분청편은 백토 감입이 깨끗하지 않다. 내외면에 시문된 것은 여러 무늬대를 설정하여 표면을 거의 메우고 있다. 인화분청편에 사용된 유약은 주로 녹색빛이 약간 도는 투명유이다. '內贍'銘이 압인된 인화분청편이 B-2구역 계단상 유구에서 한점 출토되었는데, 압인된 위에 엷게 백토를 입힌 뒤 잘 닦아내지 않아서 뚜렷하지 않고, 시유상태도 불량하다.

출토된 소량의 조화분청편 중 기형을 파악할 수 있는 파편은 한점 출토되었는데, 표면에 백토를

얇게 입힌 후 당초무늬를 음각하였다. 발굴 조사된 전구역에서 단 두점이 출토된 철화분청편은 모두 병 동체부편으로 A지구 계단상유구에서 수습되었다. 표면에 귀얄로 백토를 입힌후 철분이 섞인 안료를 사용하여 당초무늬를 그렸다. 태토는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순수하게 귀얄수법이 사용된 분청편은 소량으로 투명유가 시유되었고, 태토에는 불순물이 섞여있다. 출토 위치는 a건물지 주변이다. 덤벙분장기법이 사용된 분청편은 내면에만 분장된 것과 내외면에 분장된 두종류가 있다. 태토에 불순물이 섞여 있는 것이 표면에 그대로 드러났다. 저부가 남아있는 파편의 대부분에 포개어 구웠던 자국이 남아있다.

그밖에 무늬가 없고 태토위에 그대로 유약을 입힌 것을 기타 분청사기편으로 분류하였다. 대접류와 접시류가 대부분이다. 유가 얇아서 물레자국이 드러난 예도 많다. 이상과 같이 A지구 출토 분청편을 보면 대체로 무늬가 뚜렷하지 않고, 태토에 불순물이 많이 섞여있다. 그리고 인화분청편과 같은 경우에는 압인 상태가 고르지 못하고, 백토감입상태도 지저분하다. 철화분청편과 같이 특수하게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분청편을 제외하고는 법화사지 출토의 분청편은 대체로 15세기 후반에서 16세기 전반에 걸쳐 생산활동이 이루어졌던 전라남도 고흥군 두원면 운대리가마와 연관지울 수 있다.[8)]

출토된 자기편 중에 조선시대 청자편이 한점 있는데 암녹색의 색조를 띤다. 내면바닥에 구름무늬가 음각되어 있다. 굽은 정리가 잘된 비교적 높은 굽으로 모래받침 흔적이 남아있다. 이러한 조선청자편의 하한 연대는 보통 17세기 후반까지로 보지만 법화사지에서 출토된 한점의 조선청자편은 음각 구름무늬가 시문된 점이나 태토로 볼 때, 문양이 사라지는 15세기 후반을 그 하한 연대로 삼을 수 있다.

다. 백자와 도기

분청사기편과 거의 비슷한 양이 출토된 백자편은 거의 순백자편이며, 몇점은 후기 백자편으로 구분할 수 있다. 백자편에 보이는 기형은 대접, 접시 그리고 잔류가 있다. 백자편은 유백색의 연질 태토를 사용하여 유백색 유약을 입힌 것과 회백색 계통의 경질 태토에 회색, 회백색, 청백색 계통의 유약을 입힌 두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는 그물상의 빙렬이 뚜렷하게 나타난 예가 대부분이고, 후자는 빙렬이 없거나 성긴 빙렬이 있다. 두종류 모두 태토에 불순물이 섞여 있어서 표면에 기포가 형성되거나 잡티가 그대로 드러나 법화사지 출토 백자편이 중·하품임을 짐작할 수 있다. 유약이 얇아서 물레자국이 선명하며, 저부가 남아있는 파편의 내면바닥에는 지저분하게 포개어 구웠던 흔적이 남아있다. 번조받침은 주로 태토빚음받침을 사용하였고 내화토받침과 모래받침을 사용한 흔적도 있다.

후기 백자편은 유가 두껍고, 빙렬도 뚜렷하게 보인다. 내외면에 크고 뚜렷한 태토빚음받침 흔적이 남아있다. 태토의 입자가 고르지 않아 표면에 기포가 형성되었다. 이상과 같은 백자편은 주로 조선초의 특징을 보인다. 연질의 태토를 사용하고 빙렬이 있으며 번조시 유약과 태토가 밀착되지 않은 것이 있는데 이것을 고려 백자의 영향을 받아 조선초에 제작된 것이고, 다른 한 종류인 유약이 얇아서 물레자국이 보이고 대체로 견고한 백자편은 원말명초 도자기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C지구 출토 질그릇편은 모두 경질도기이며 저부편이 남아있는 질그릇편은 납작바닥이 거의 대부분이다. 태토에 불순물이 섞여있어 기표면에 작은 알갱이가 그대로 드러났다. 시유된 접시편도 한점 수습되었다.

라. 유물 출토 상황

출토된 도자기편을 보면, 표토층 바로 밑이나 각 건물지의 중첩지역, 혹은 기와 매립층 등에서 출토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출토상황으로는 확실한 층위를 말하기 어렵다.[9] 그러나 청자편은 A지구 a 건물지의 성토층, 계단상유구의 하층, B-2구역 계단상유구등지에서 주로 출토되었다.

(표4.법화사지 각 유구별 출토 磁器 집계표) ( ) : 교란층 내부 출토

유물명 / 출토 유구	청자	분청				사기			백자	계
		상감	연화	조화	철화	귀얄	덤벙	기타분청		
A지구 추정 법당지	7 (2)	5 (1)		1		5 (2)	6 (3)	8 (2)	9 (4)	41 (14)
A지구 b건물지	5 (4)	2	1			1	1	3 (3)	6 (2)	19 (9)
A지구 승방지	3 (1)	1	1				1	2		8 (1)
A지구 계단상유구	16 (2)	2	4		2		12 (2)	10 (2)	22 (10)	68 (16)
A지구계단상 유구 북편 기와보도	2								1 (1)	3 (1)
B지구 계단상유구	9 (1)	4	2				2	8 (2)	11 (6)	36 (9)
B지구3구역	2							1	9	12
지표채집	4	1	3					9	5	22
계	48 (10)	15 (1)	11	1	2	6 (2)	22 (5)	41 (9)	63 (23)	209 (50)

---

*註

1) 이 집계표는 유구내의 층위를 고려하여 집계한 것이 아니고 일괄 작성한 것이다. 단, 건물지와 계단상유구의 경우, 내부 성토층과 계단상유구 석렬 틈새에서 발견되는 것은 별도 서술하였다. 수지문평기와 G 한편은 表에서 제외되었다.

2) 이 기와는 무문양에, 물손질 수법이 아주 발달되어 있다. A지구 계단상유구 북편 기와보도에 깔린 기와의 주류는 무문양이다. 이로 볼때 무문양 기와 역시 조선전기 이전의 기와에 속한다 할 것이다.

3) 「修精寺·元堂寺地表調査報告」, 1988, 濟州大學校博物館遺蹟調査報告 3輯, P. 47, 74.

4) ————, P. 57.

5) 『朝鮮時代濟州文物展』,1992, 濟州大學校開校40週年紀念特別展圖錄.

6) 李元鎭, 『耽羅志』 大靜縣 佛宇條.

「 法華寺在縣東四十五里 今廢 觀其寺基 及羅漢殿基 柱礎階砌 皆用大熱石 全盛時雄壯 可想 今只有茅菴數間 西有甘泉 溉于前稻田」

7) 사회과학원고고학연구소, 1989, 『조선 고고학 개요』, 도서출판 새날, P. 301, 칼라화보 54-②.

8) 강경숙, 1992, 『한국도자사』, 일지사, PP. 333-334.

9) 「表4」는 각 유구별 층위를 구분하지 않고 집계된 것이다. 층위별 구분이 어려웠던 점은 ①경작토 바로 밑으로 유구가 연결된다는 점 ②廢寺이후 상당한 교란이 진행되어 왔고 ③1950년대 군숙영지 시설이 유구 곳곳에 들어서 있었다는 점 ④최근 밀감나무 식수시 파낸 구덩이가 일부 유구를 파손시켰다는 점이다.

제 6 장 맺 음 말

지금까지 기술한 발굴조사 내용과 유물출토 상황을 종합해서 법화사 건물지 변천과정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1) 금번 발굴한 건물지구역은 크게 세번에 걸쳐 건물이 축조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첫번째는 B지구 금당 추정 건물지와 관련된 시기로 고려말기이며, 두번째는 A지구 추정법당지가 존재했던 시기인 조선전기, 마지막 세번째는 승방 추정 건물지가 있었던 조선전기말경이다.

2) 첫번째 시기는 사찰축조의 초기에 해당하는 시기이다. 발굴지에서 출토된 유물로 보아 13세기 중엽이전의 건물지가 있을 것으로 여겨지나, 현재의 발굴 내용으로는 이 시기 이전과 관련된 사찰 건물지를 확인하지 못했다. 지금까지 발굴한 유구와 「重創十六年己卯畢」銘기와를 종합해 볼 때, 이 시기의 건물은 제주에 元의 지배가 이루어지고 이에 따른 탐라총관부가 설치(고려 충렬왕 원년, 1275)된 직후 축조되었음을 추측케 한다. 발견되는 용과 봉황문 막새, 원나라 청자, 섬세한 정다듬으로 柱座刻圓를 만든 礎石, 二重基壇石은 조선초 濟州牧官衙址(제주시 삼도일동)의 건물지에서 볼 수 없는 것들이다. 이 시기에 만들어진 사찰건물이 B지구 금당 추정건물지라고 추정된다.

3) 두번째 시기는 고려후기 사찰건물이 허물어진 다음 시기로, 이 건물의 기와와 주춧돌등을 이용하여 건물을 신축하였다. 기단석렬의 석재, 건물지의 방향, 그리고 내부성토상태가 앞 시기와는 전혀 다르다. 이 시기의 유구로 A지구 추정법당지와 계단상유구 북편 건물지 입구 기와보도가 있다. 기단석렬은 제주도에 흔한 현무암석재를 치석하여 사용하였고, 건물지, 기와보도 방향은 모두 N30° E이다. 내부성토는 암반층상면의 굴곡면에 기와 적석다짐을 하고 주춧돌은 적심석없이 생토암반층을 둥글게 파서 시설하였다. 이 건물은 문헌과 건물지내부 유물출토상황으로 미루어, 조선조의 성립시기에 신축되고 분청사기의 전성시기까지 존속했으리라 짐작된다.

4) 세번째 시기의 건물은 조선전기 건물이 허물어진 후에 만들어진 것이다. 이 건물들은 사찰의 말기단계인 16세기말-17세기초까지 존속했으리라 추측된다. A지구 승방추정 건물지와 계단상유구, 담장지, 배수시설이 이시기에 해당하는 유구이다. 이들 유구는 앞서 추정법당지의 기단석렬 방향과 동일하게 시설되어 있다.

이상의 건물지는 전체가람의 일부에 한정되는 것인바, 법화사 전체가람의 배치와 그 변천과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역을 확대하여 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된다. 실제로 보면 A지구(하원동 1062번지)에서 발굴된 건물지와 그 부속시설의 전체적인 방향이 서쪽으로 이어지고 있다. 승방추정건물지의 일부가 하원동 1064-1번지로 들어가 있고, 계단상유구, 계단상유구 북쪽기와보도는 하원동 1046번지로 연결된다. 따라서 각 유구의 전모와 건물지의 성격을 파기하기 위해서는 차후발굴이 서쪽구역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① 법화사지 A지구 원경(북에서)

② 법화사지 A지구 근경(북서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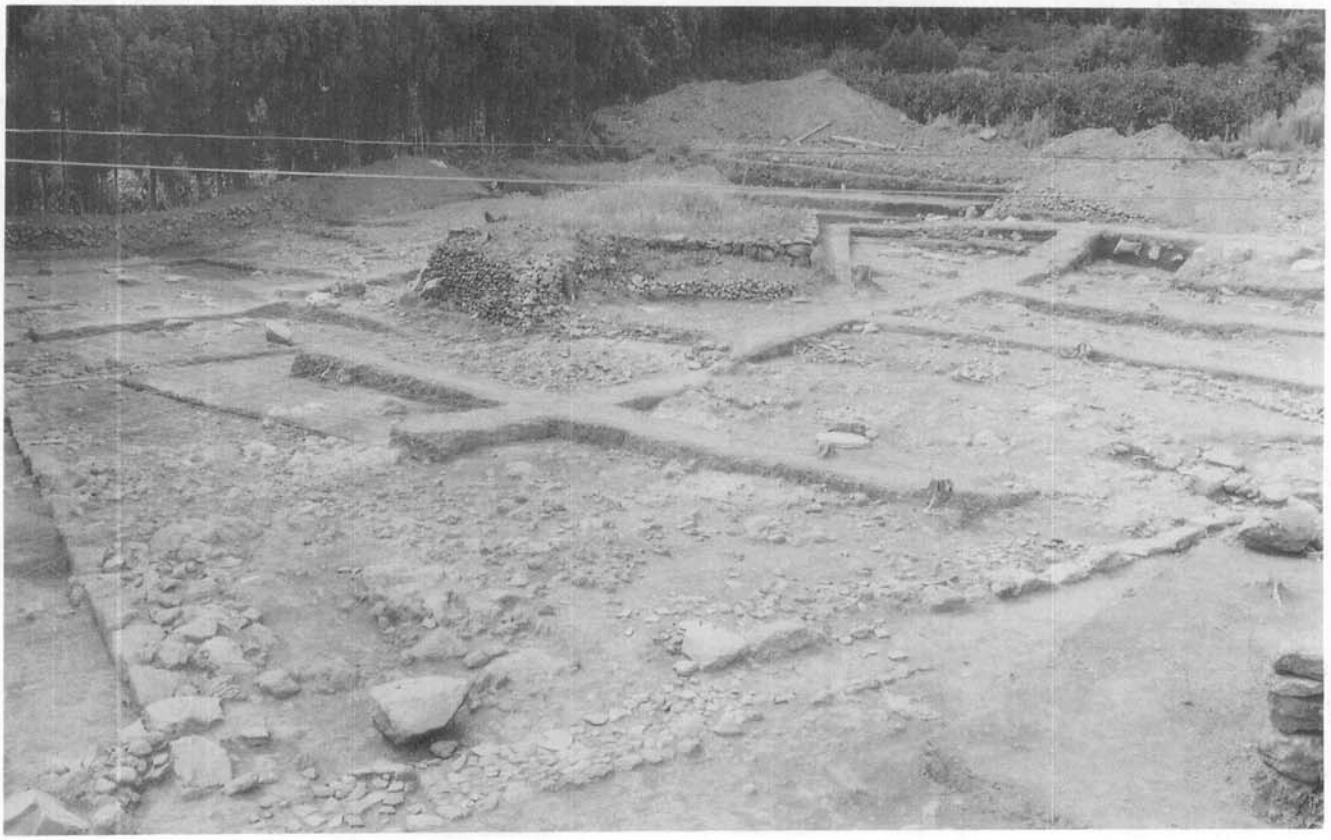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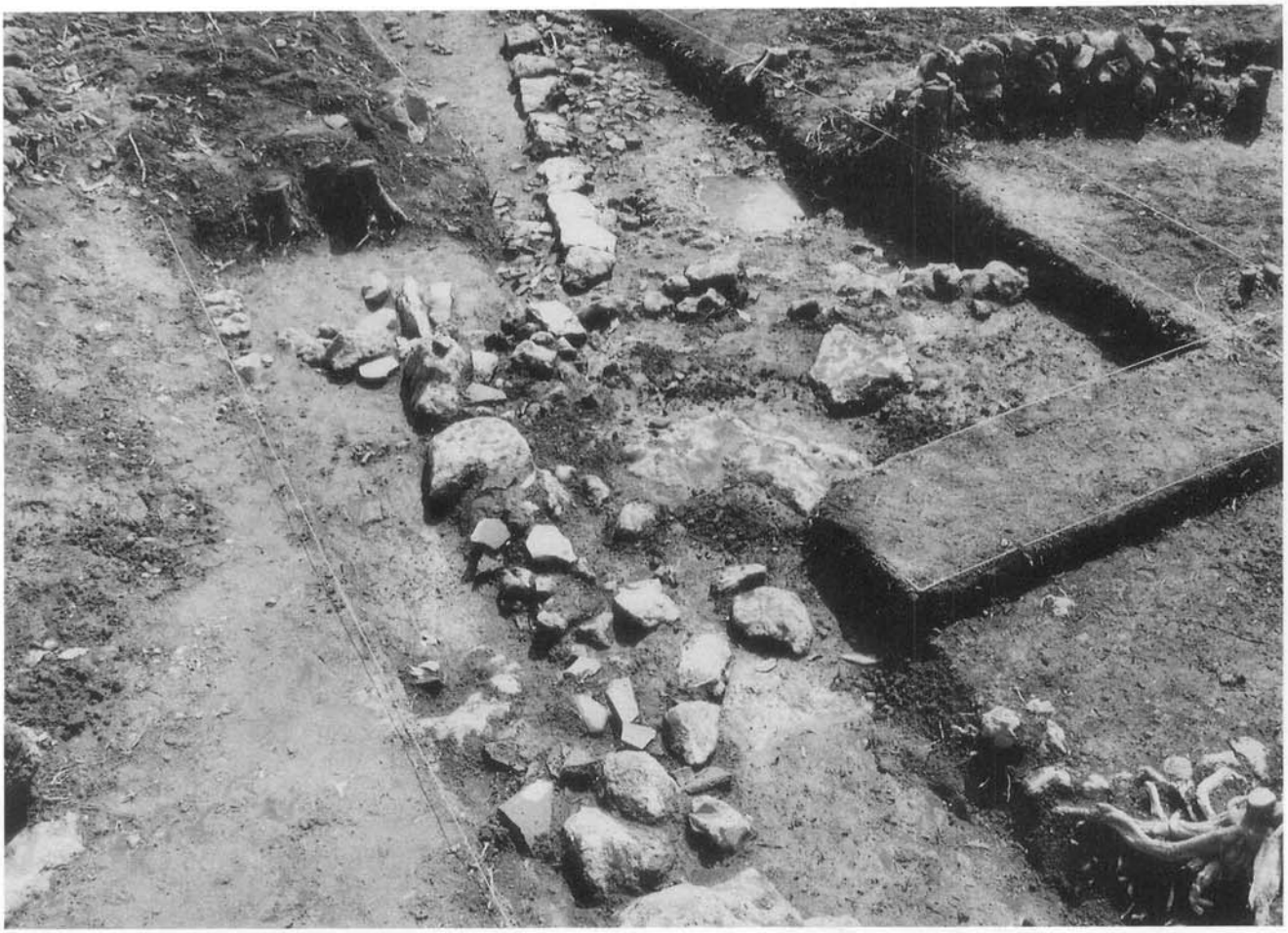
도판 2



① A지구 발굴 중간 상태(남동에서)

② A지구 발굴 유구 노출 상태(남동에서)





① A지구 a건물지와 b건물지의 중복 지점(북동에서)

② A지구 a건물지 남쪽 기단석렬(남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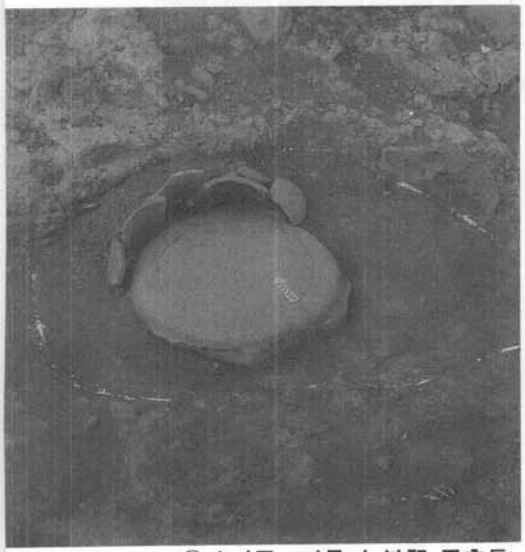
도판 4



① A지구 a건물지 북쪽 내부 노출상태(남서에서)



② A지구 a건물지 북쪽 생토암반·瓦積 상태(남동에서)



③ A지구 a건물지 북쪽 주춧돌 놓임 상태 (남에서)



④ A지구 a건물지 원형 주춧돌 구덩이와 초석



① A지구 a건물지 남쪽 기단석렬 중앙 埋石 시설물



② A지구 a건물지 동쪽 기단석렬 내부 瓦積상태



③ A지구 a건물지 서쪽
기와 온돌부속시설

도판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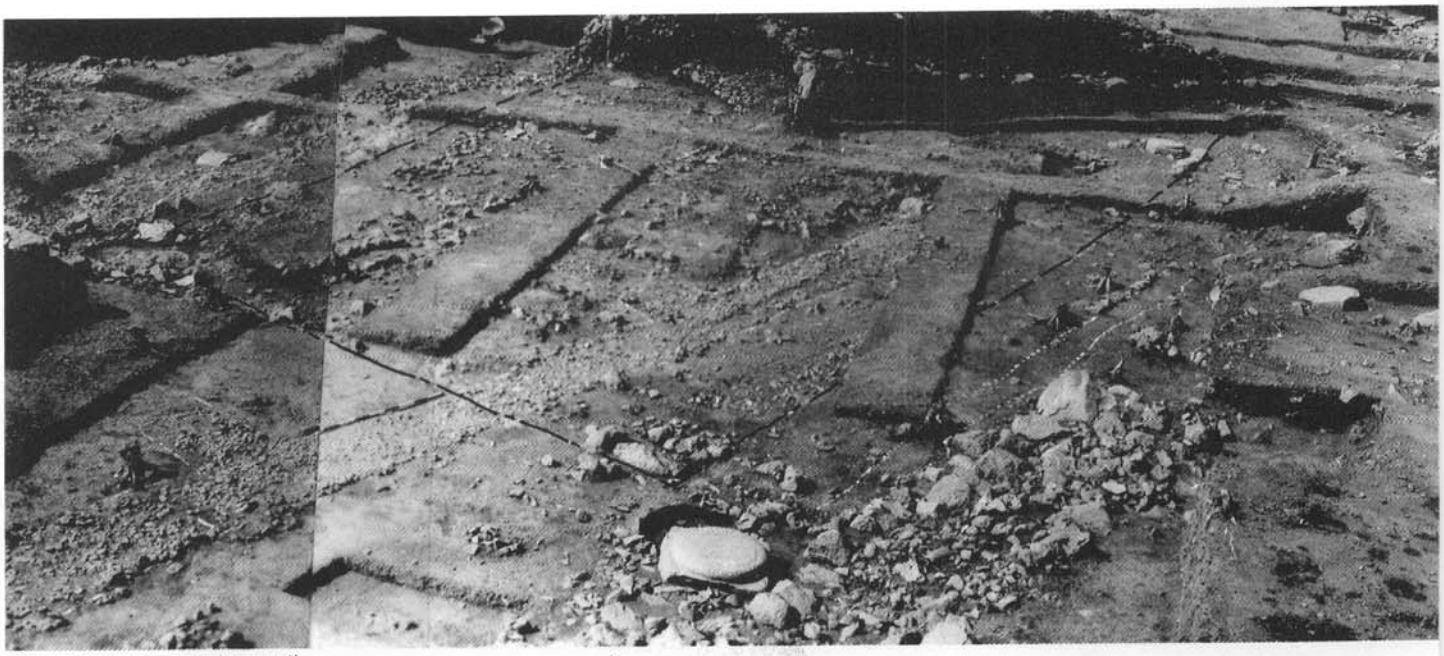
① A지구 a건물지 동쪽 기와보도



③ A지구 a건물지 북쪽 배수시설

② A지구 a건물지 동쪽 기와보도내 기와편 깔림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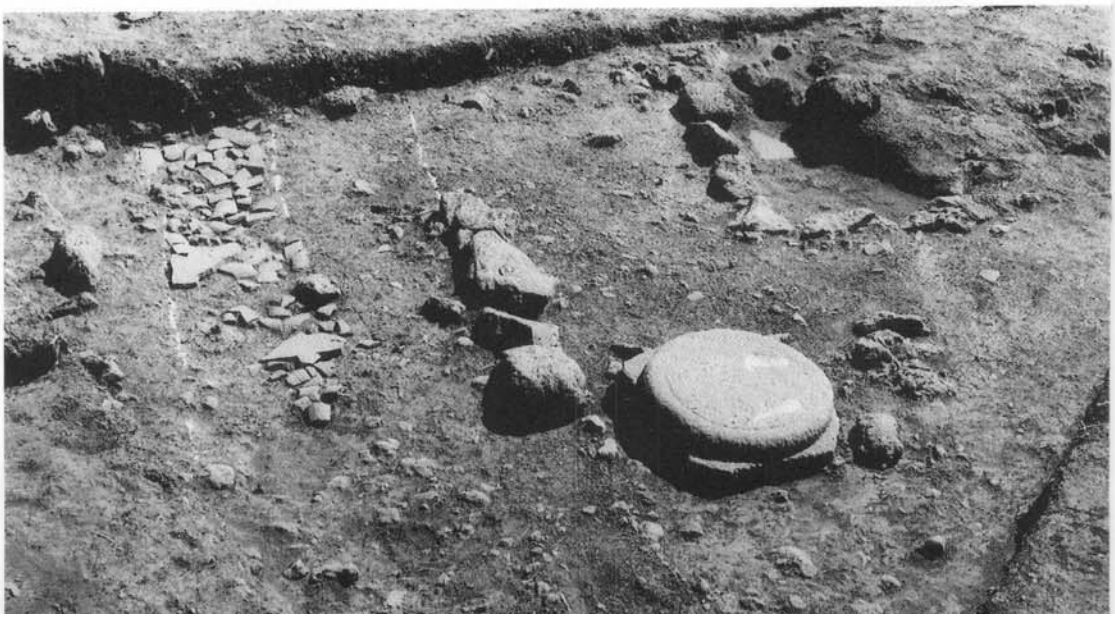




① A지구 b건물지 (북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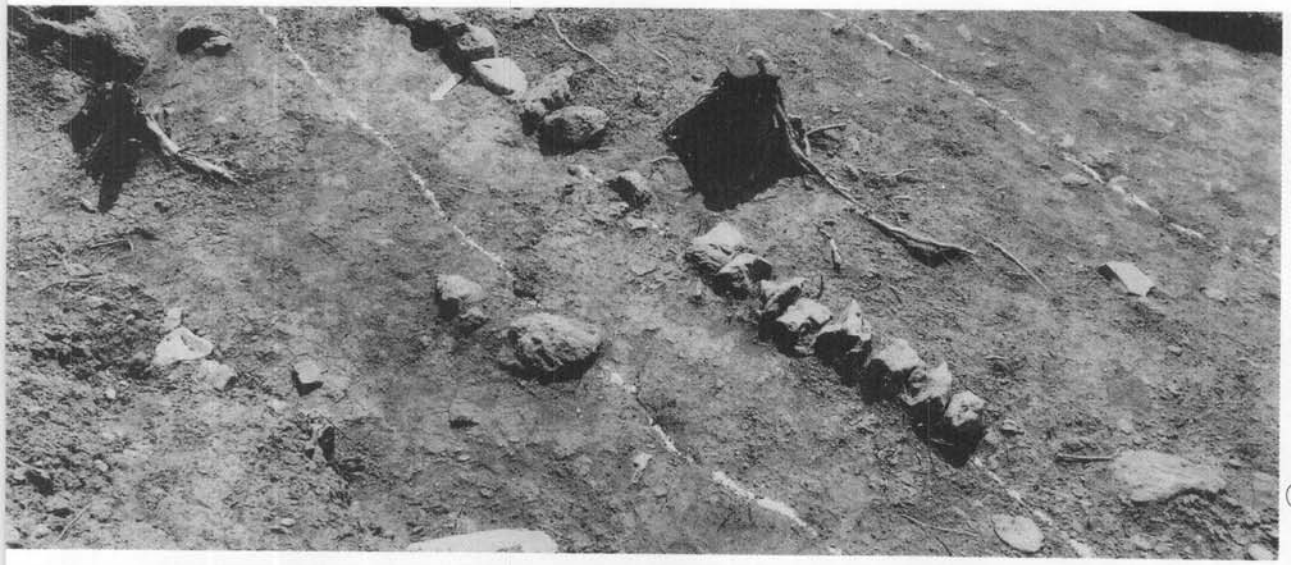


② A지구 b건물지 (동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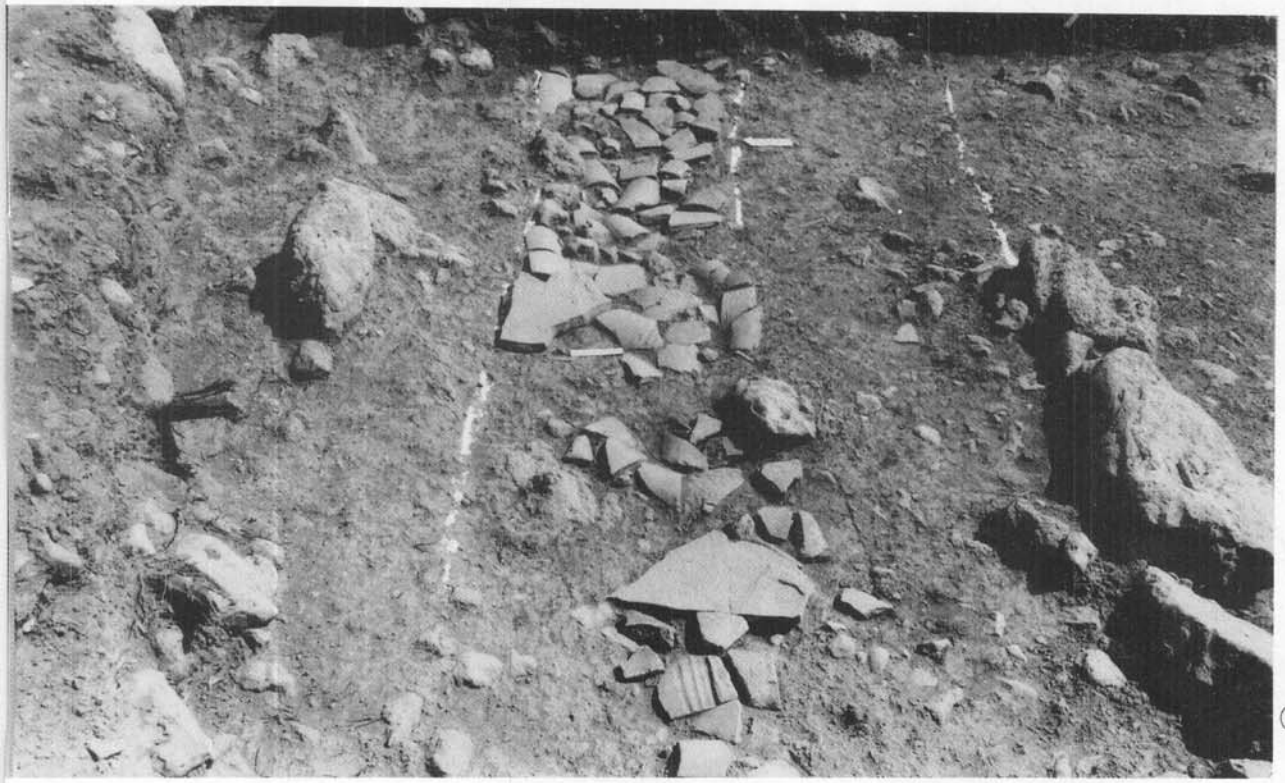


③ A지구 b건물지 북쪽
기단석렬·주춧돌·아궁이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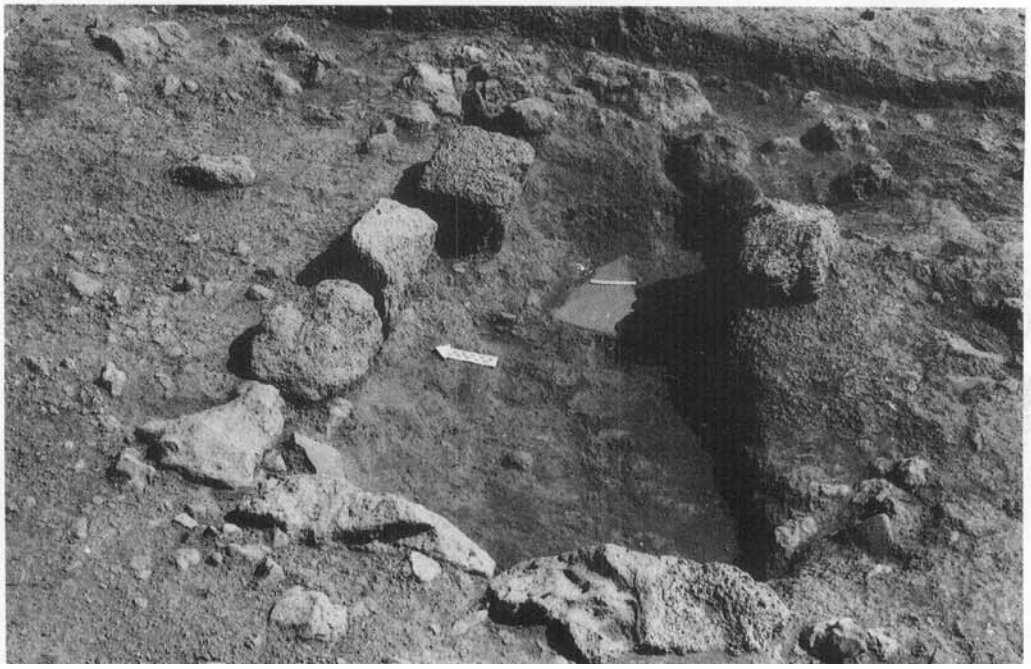
도판 8



① A지구 b건물지
배수시설



② A지구 b건물지
북쪽 기와보도



③ A지구 b건물지
북쪽 아궁이시설



① A지구 c건물지 (북동에서)

② A지구 c건물지 (서에서)



도판 10



① A지구 a.c건물지
기단석렬 중복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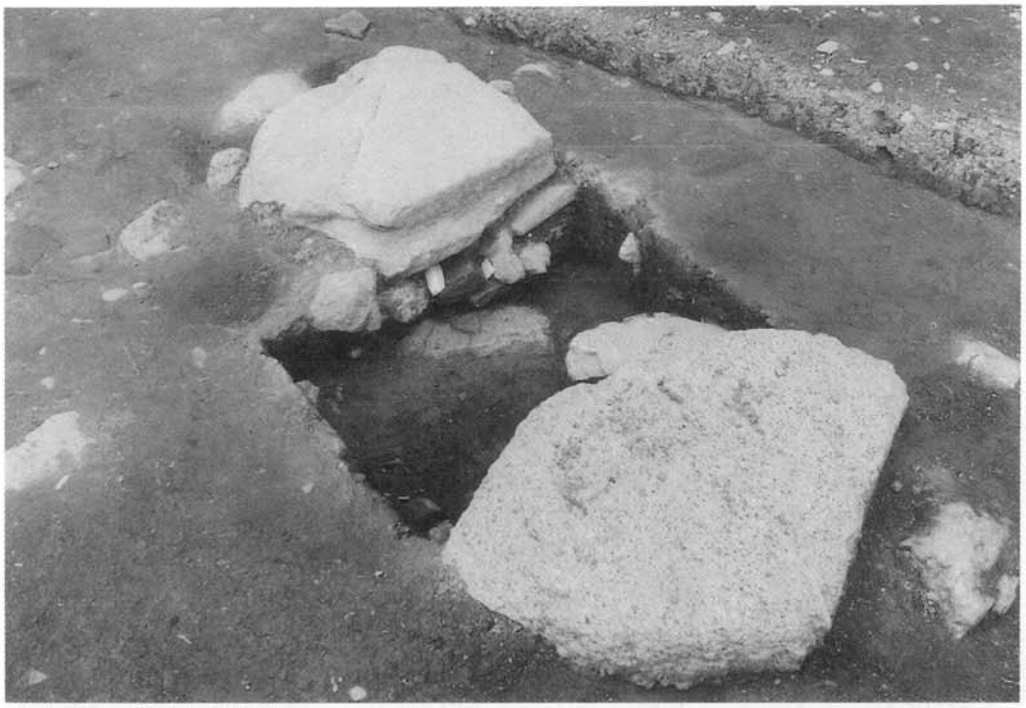
② A지구 c건물지 내부
방형 기와 온돌부속시설

③ A지구 c건물지 내부
기와 온돌부속시설 노출상태



④ A지구 c건물지 내부 기와 온돌부속시설 축조상태





① A지구 c건물지 주춧돌



② A지구 c건물지 주춧돌 積心상태



③ A지구 c건물지 내부 적석시설

도판 12



① A지구 c건물지 북쪽 階段狀 遺構 (남에서)

② A지구 c건물지 북쪽 階段狀 遺構 (서에서)





② A지구 階段狀 遺構
테스트 핏트 적석상태



① A지구 階段狀 遺構 축조상태

③ A지구 階段狀 遺構 북쪽 주춧돌·적석시설



도판 14



① A지구 군숙영지 잡석보도 노출상태(북서에서)

② A지구 군숙영지 잡석보도 노출상태(동에서)





① A지구 군숙영지
잡석보도 노출작업 광경



② A지구 군숙영지 보도 잡석 다짐상태



③ A지구 군숙영지 보도 테스트핏트



① A지구 階段狀 遺構 북서쪽 기와보도(위에서)

② A지구 階段狀 遺構 북서쪽 기와보도(동에서)





① A지구 階段狀 遺構 북서쪽 기와보도 세부

② A지구 階段狀 遺構 북서쪽 기와보도내 막새 출토상태





③ A지구 階段狀 遺構 북서쪽
기와보도 테스트 핏트

도판 18



① A지구 기와보도내 雲龍文 암막새 출토상태

② A지구 기와보도내 雲鳳文 숫막새 출토상태(1)



③ A지구 기와보도내 雲鳳文 숫막새 출토상태(2)



④ A지구 기와보도내 雲鳳文 숫막새 출토상태(3)



⑤ A지구 기와보도내 雲鳳文 숫막새 출토상태(4)





① A지구 남북 담장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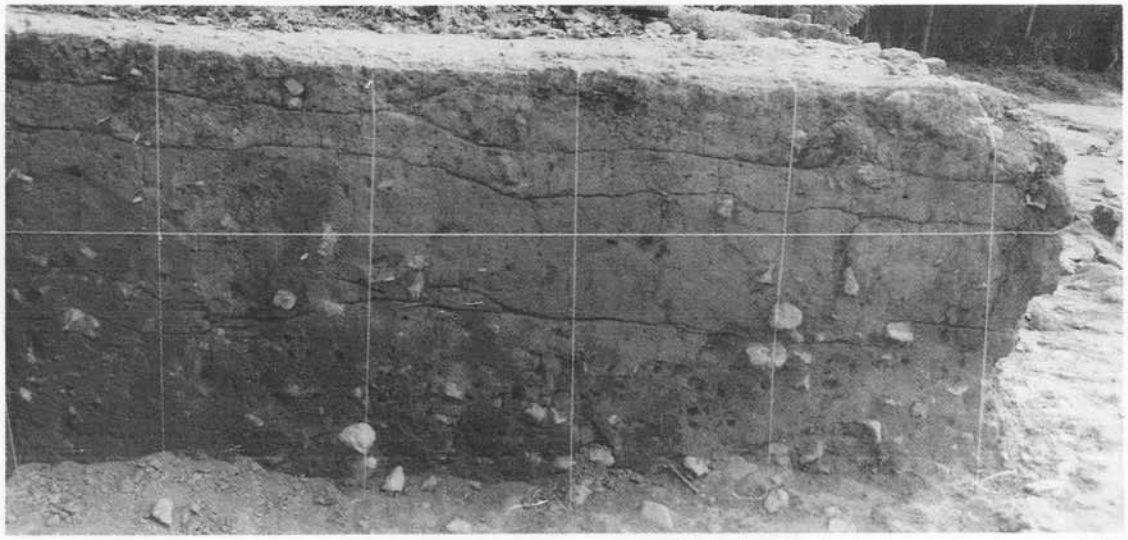
② A지구 동서 담장지와 적석상태

③ A지구 동서 담장지내 기와 구덩이·주춧돌





① A지구 동서 담장지 북쪽 단면 층위(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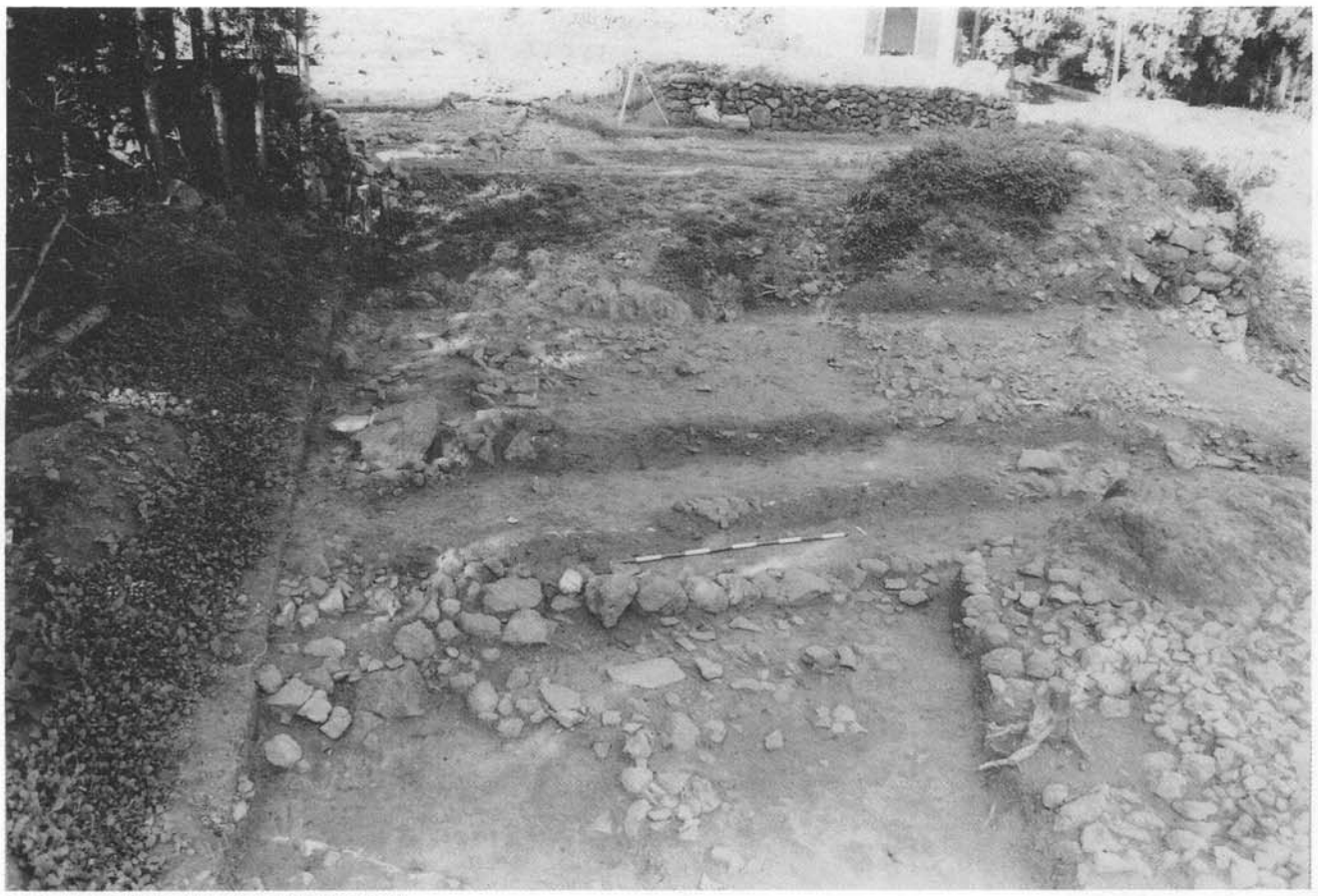


③ A지구 동서 담장지 북쪽 단면 층위(3)

② A지구 동서 담장지 북쪽 단면 층위(2)



도판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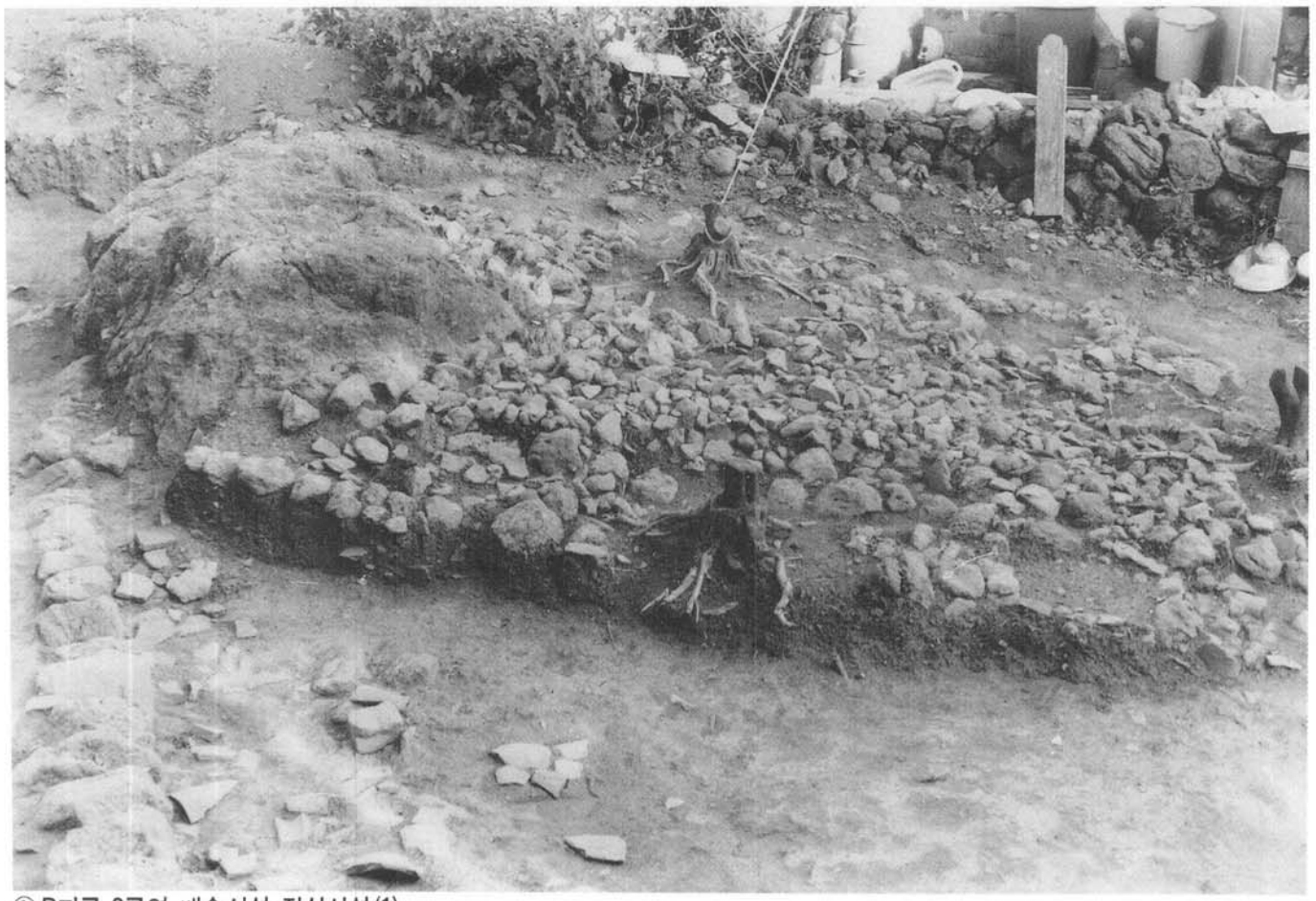


① B지구 2구역 階段狀 遺構 (남에서)

② B지구 2구역 階段狀 遺構 (서에서)



도판 22



① B지구 2구역 배수시설·적석시설(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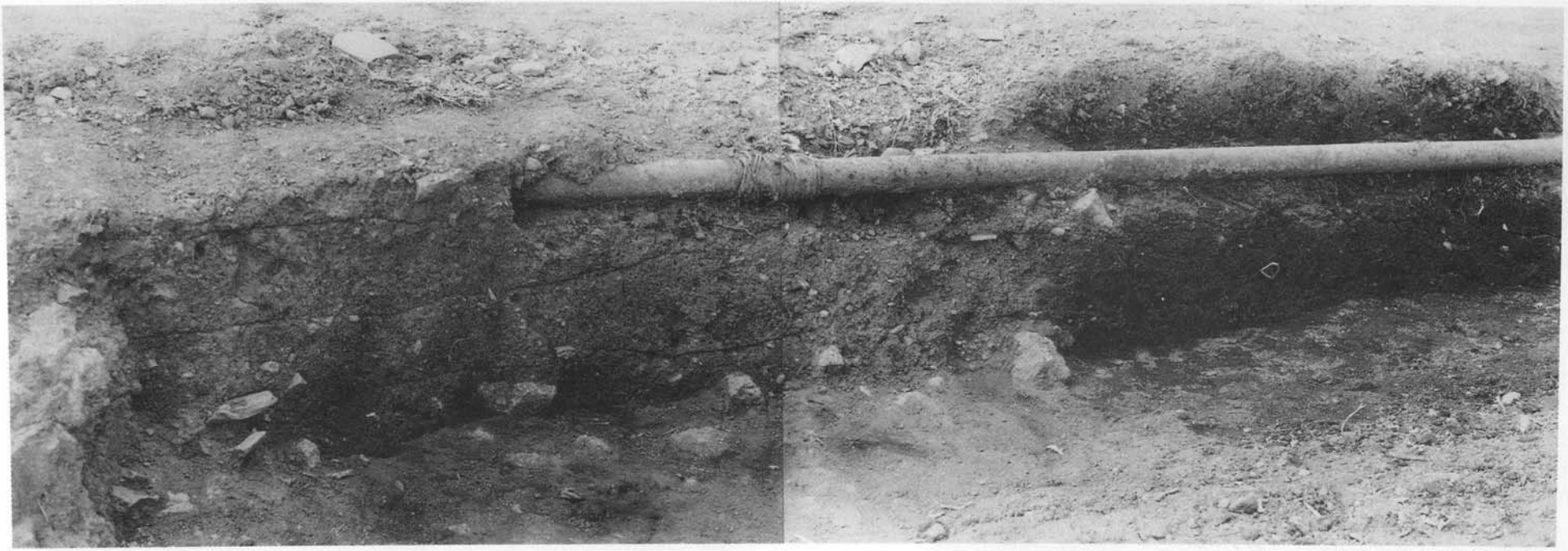


② B지구 2구역 적석시설(2)



③ B지구 2구역
청자편 출토상태

도판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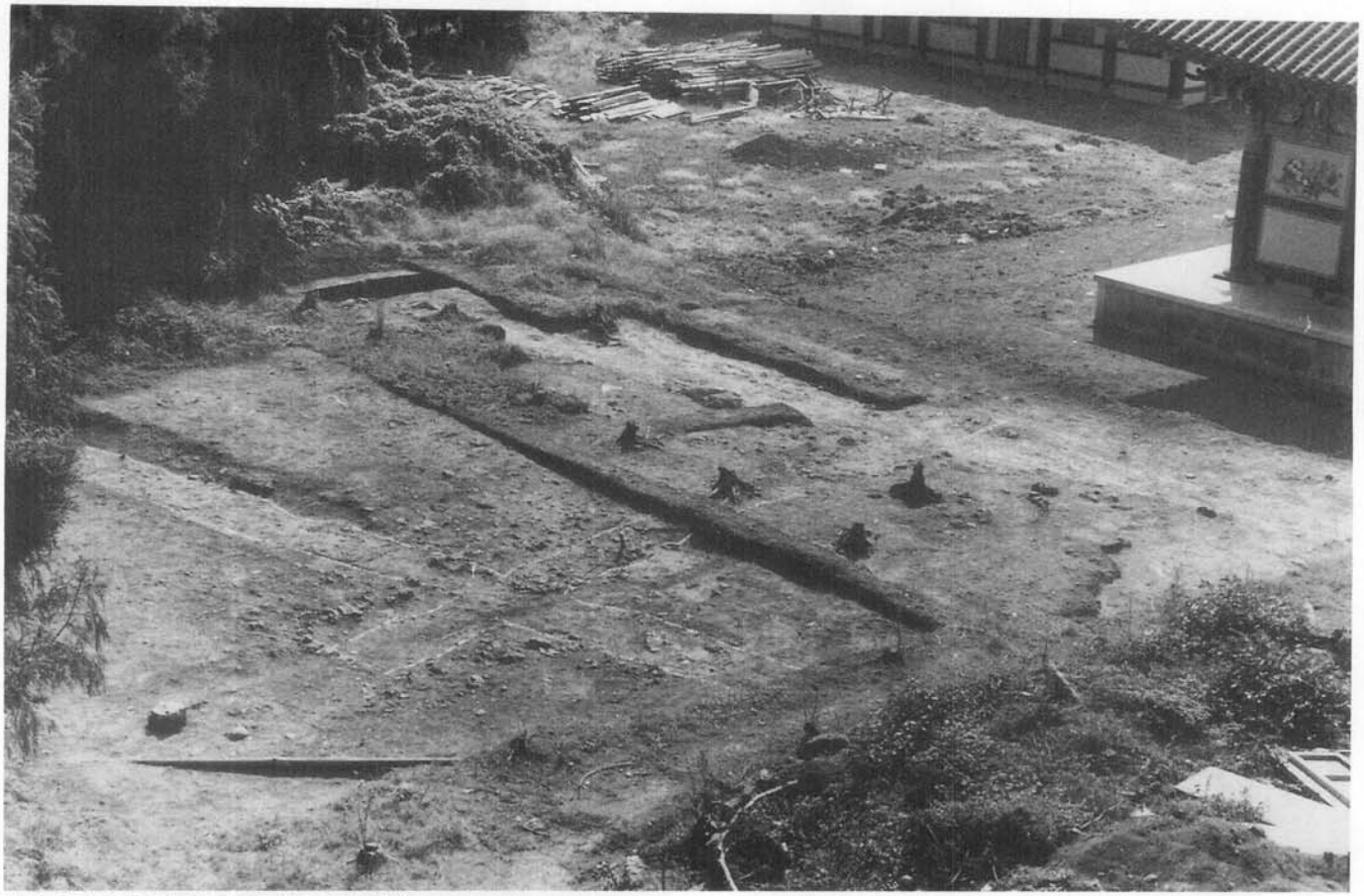


① B지구 2구역 단면 층위



② B지구 2구역
적석시설·테스트핏트

도판 24



① B지구 3구역 군숙영지 보도(서에서)

② B지구 3구역 군숙영지 보도(북에서)





① B지구 3구역 군숙영지
보도내 계단시설



② B지구 3구역 군숙영지
보도내 테스핏트

③ B지구 3구역 군숙영지 보도 다짐상태



④ B지구 3구역 테스트핏트 층위



도판 26



① B지구 4구역 남북트렌치(남에서)

② B지구 4구역 남북트렌치(북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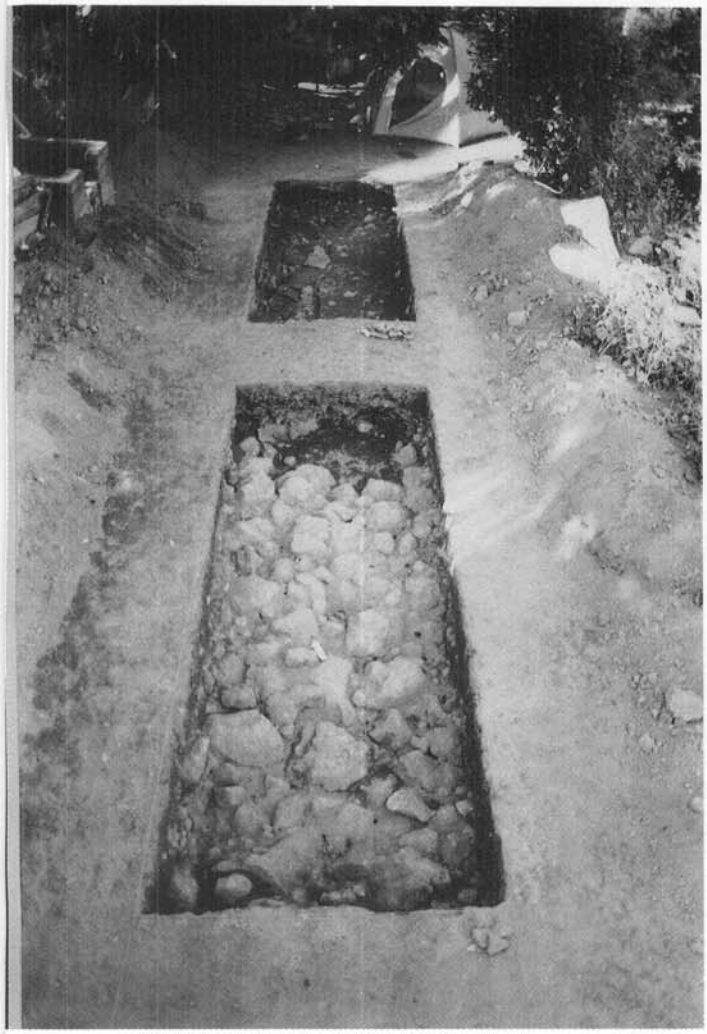


① B지구 4구역 남북트렌치 서쪽단면 층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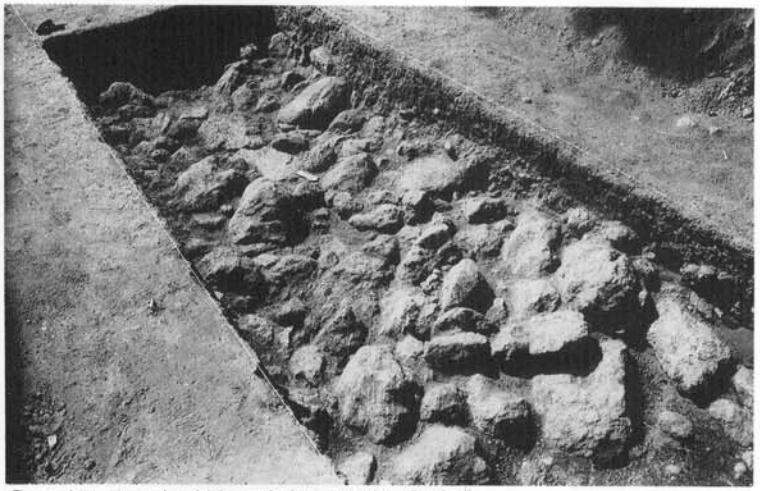
② B지구 4구역 동서트렌치 동쪽단면 층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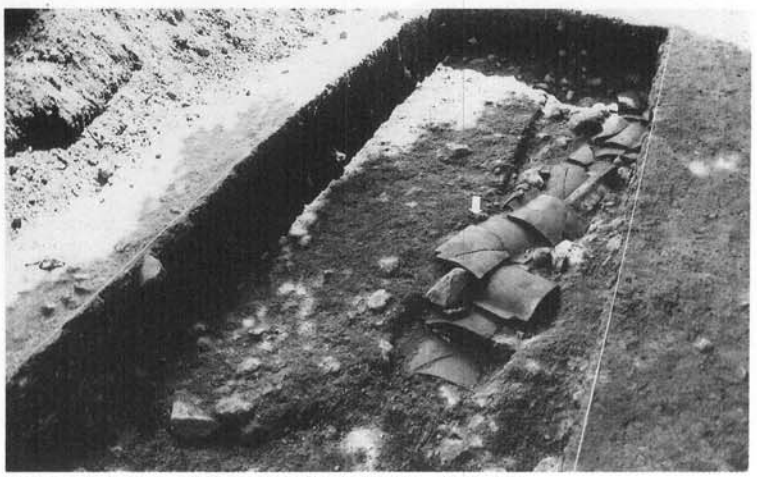
도판 28



① B지구 5구역 남북트렌치(남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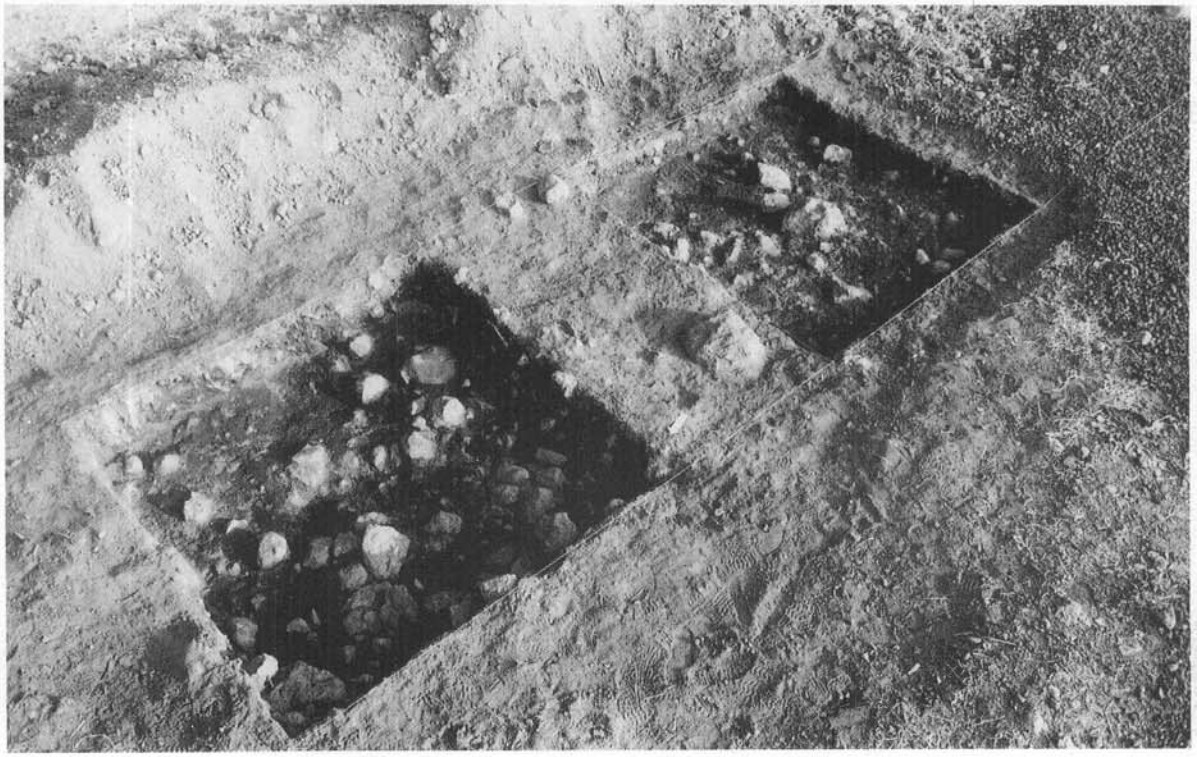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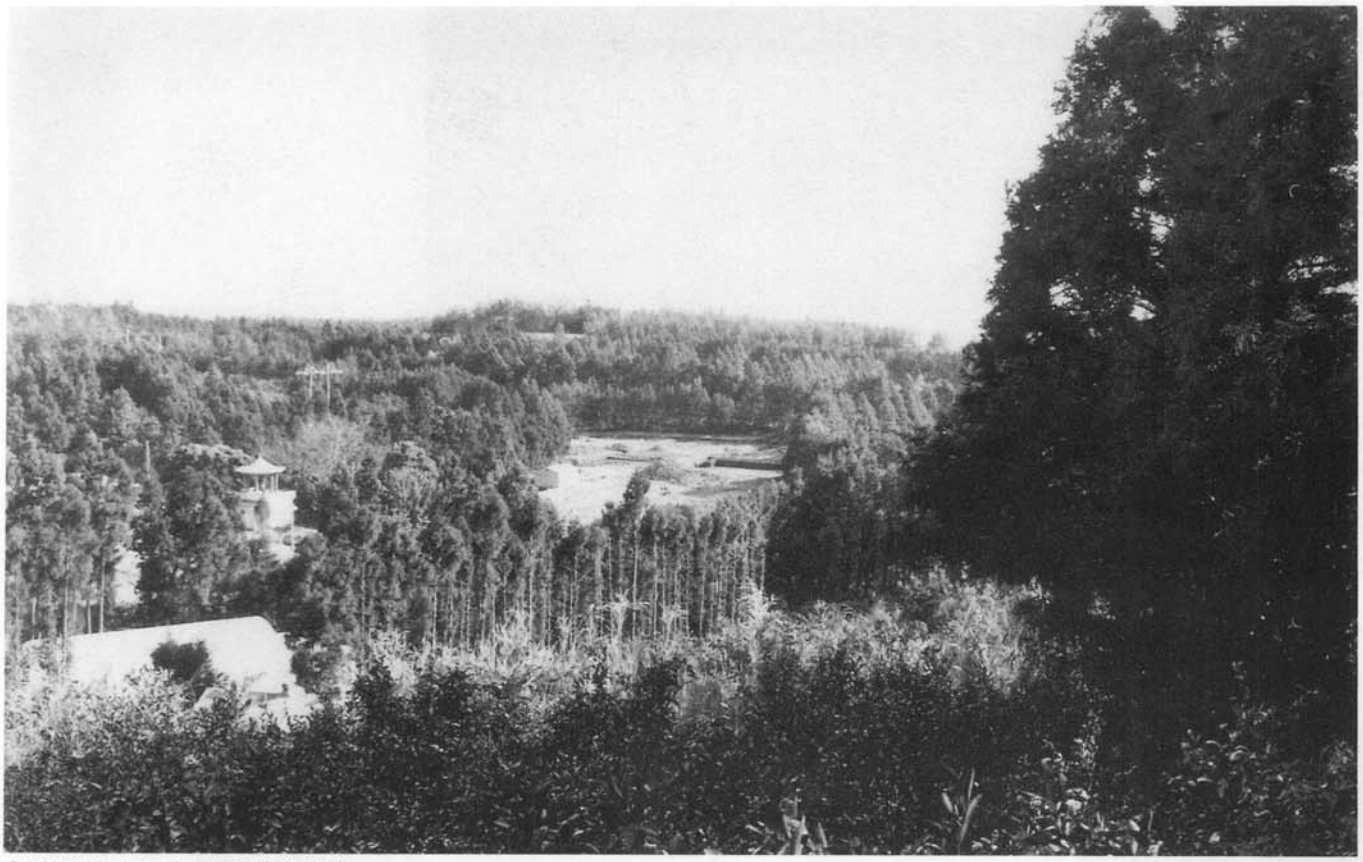
② B지구 5구역 남북트렌치내 적석노출상태



③ B지구 5구역 남북트렌치내 현대기와 배수시설

④ B지구 6구역 테스트핏트





① 법화사지 C지구 원경(북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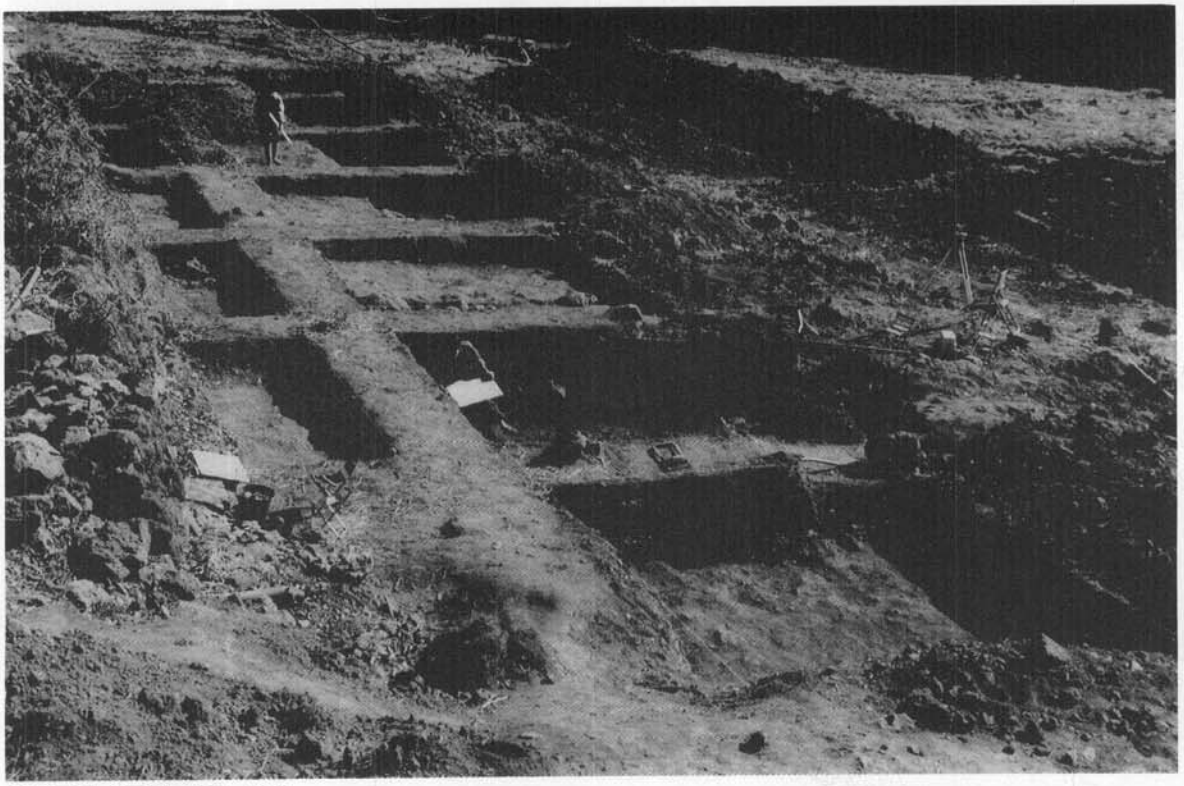
② 법화사지 C지구 근경(남에서)



도판 30



① C지구 1구역 발굴전 상태



② C지구 1구역 발굴 광경

③ C지구 1구역 북쪽 담장 트렌치조사 광경





① C지구 2구역 발굴 광경(남서에서)



② C지구 2구역 발굴 광경(북서에서)

③ C지구 2구역 S4E6핏트 단면 층위



도판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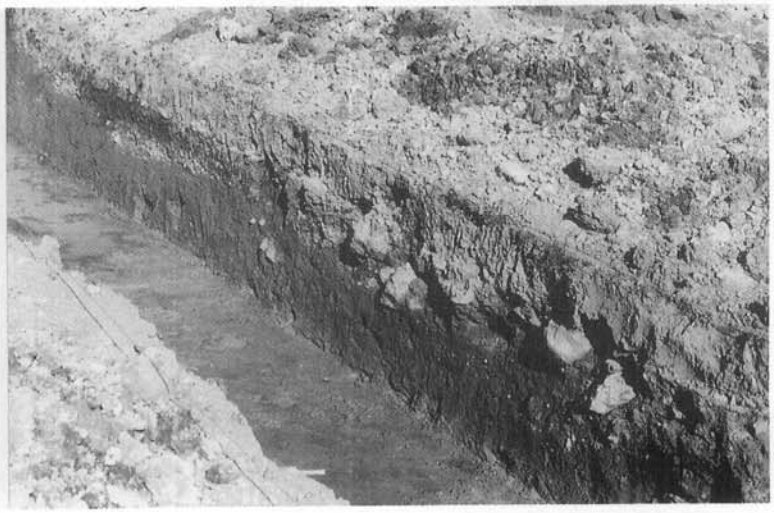


① C지구 3구역 남북·동서트렌치
발굴광경(북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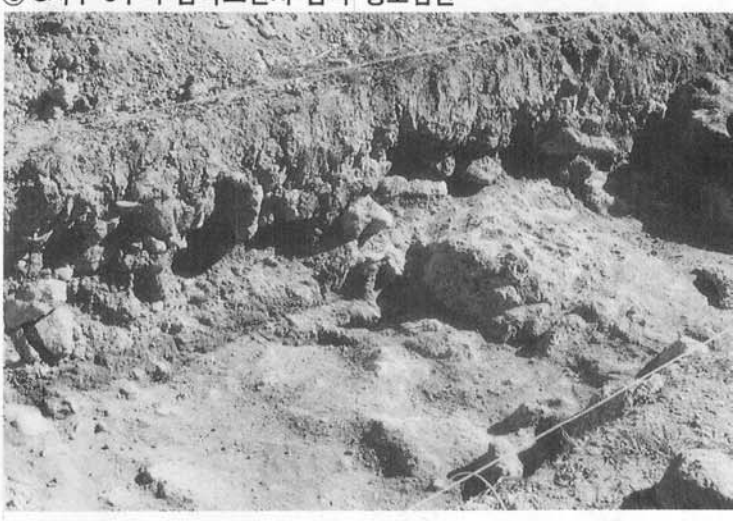


② C지구 3구역
남북트렌치(남에서)

③ C지구 3구역 남북트렌치 발굴단면 층위



④ C지구 3구역 남북트렌치 남쪽 생토암반





① C지구 3구역 남북트렌치 중앙 기와 매립지 원경(남서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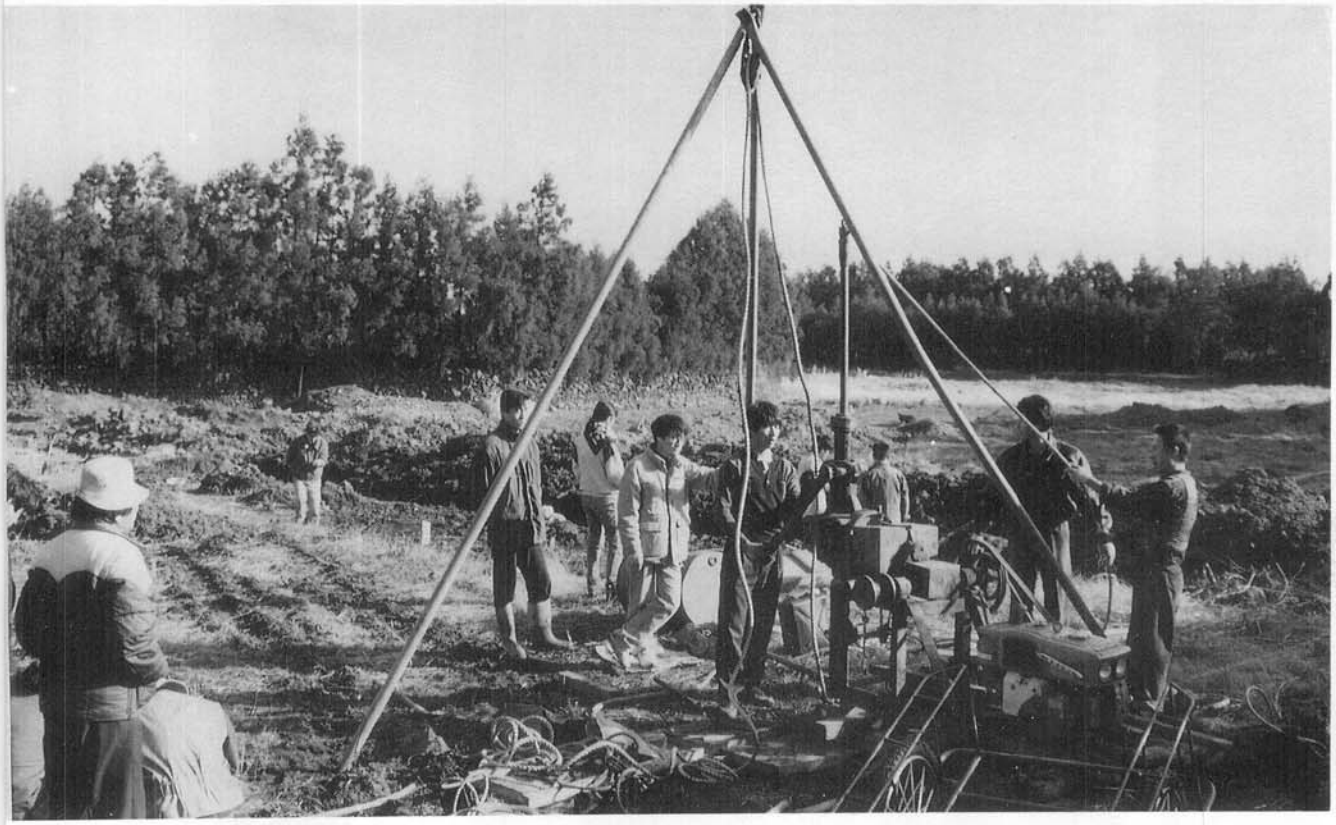
② C지구 3구역 남북트렌치 중앙 기와 매립지 근경



도판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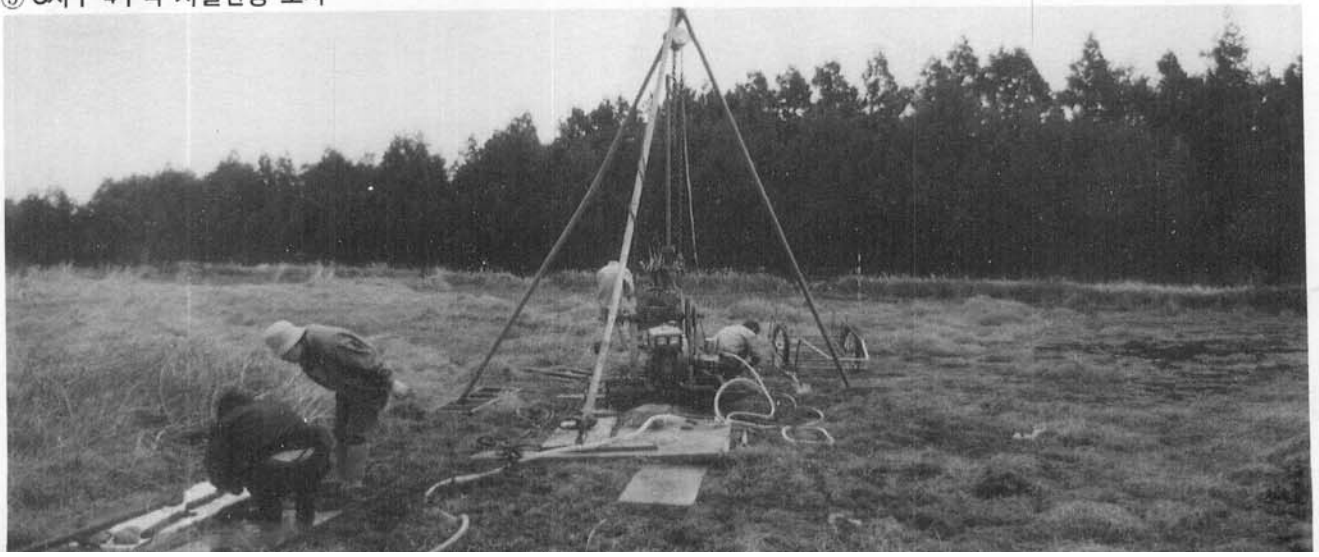


① C지구 3구역 서쪽경계
테스트핏트



② C지구 1구역
지질관정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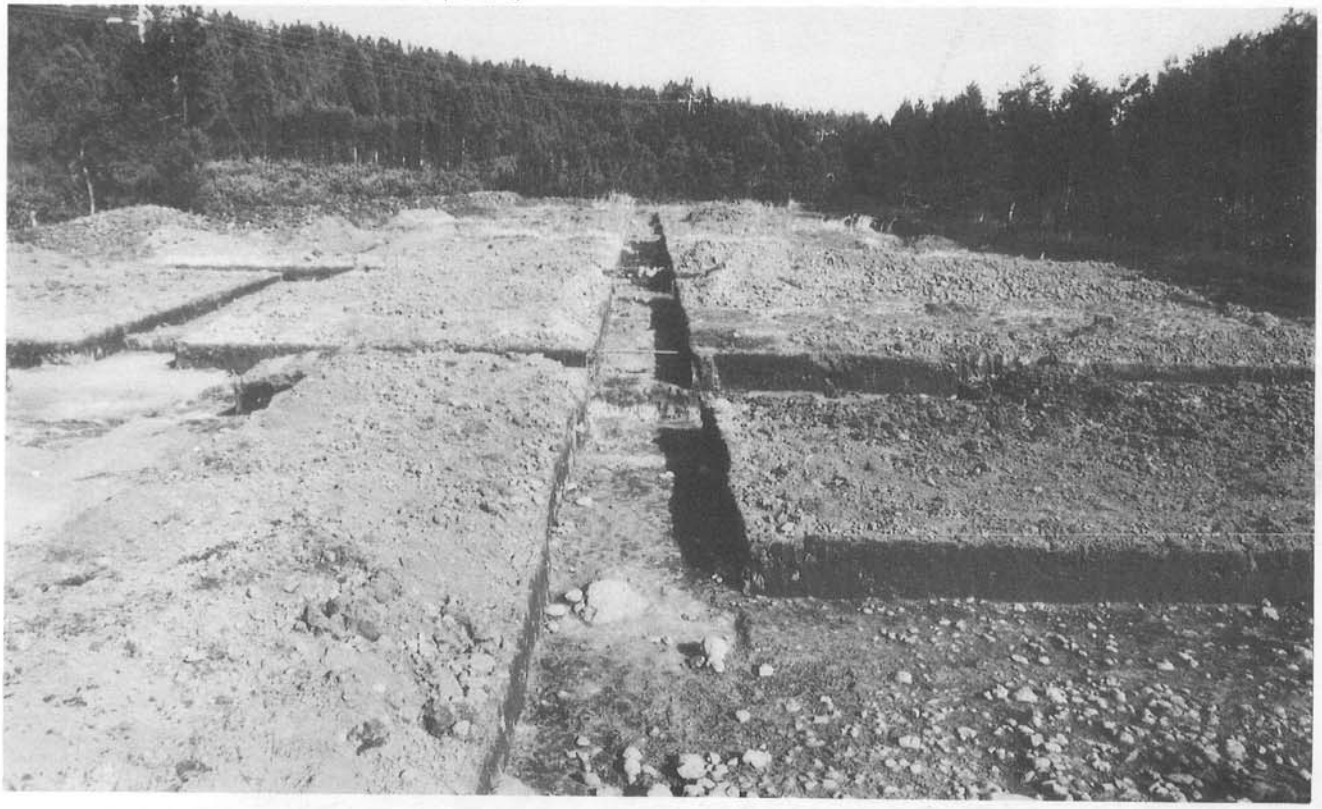
③ C지구 4구역 지질관정 조사





① C지구 4구역 남북트렌치(1) 조사광경(남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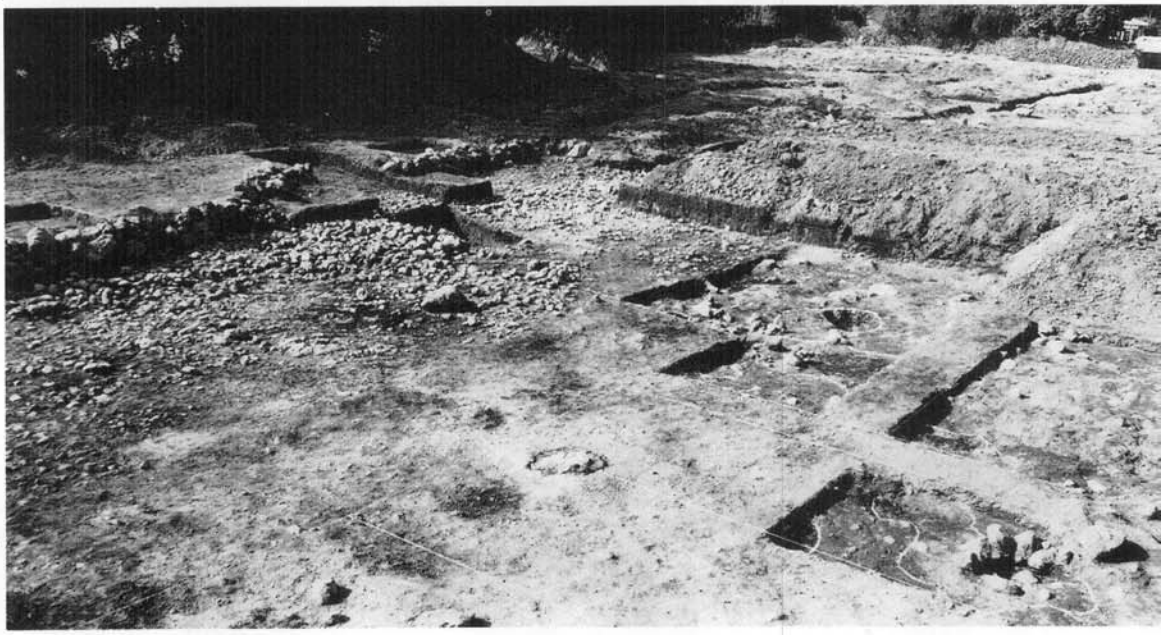
② C지구 4구역 동서트렌치(1) 조사광경(서에서)



도판 36



① C지구 4구역 남북 트렌치(2) 조사광경(북에서)



② C지구 4구역 확장핏트 전경(북동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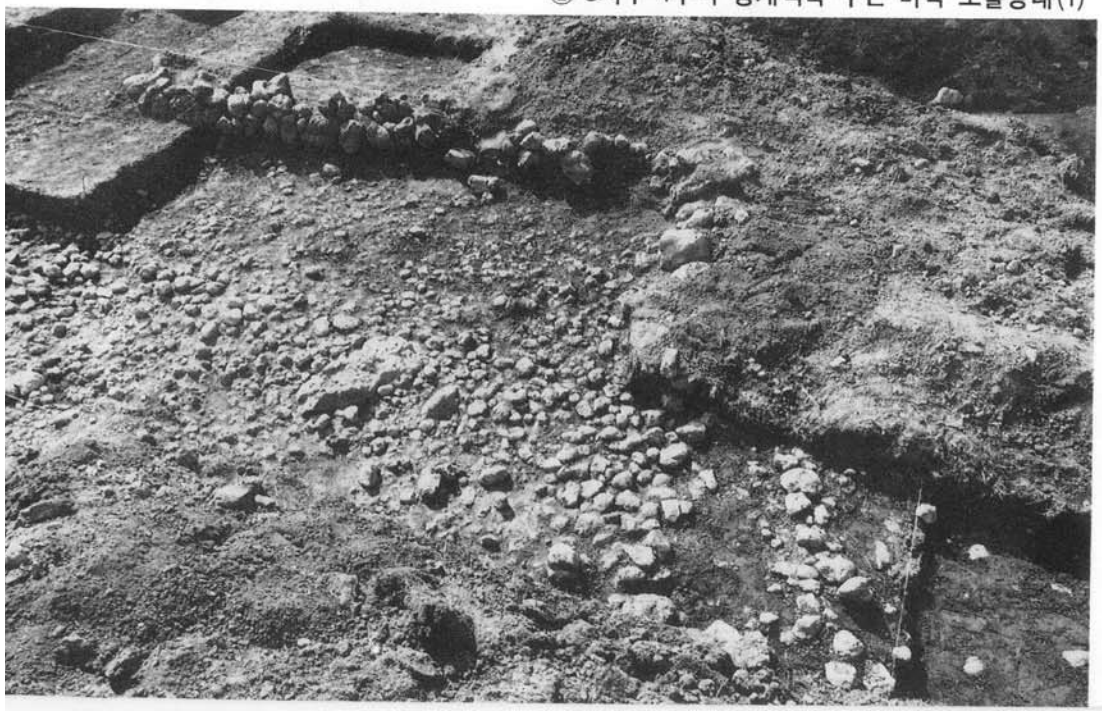


③ C지구 4구역 확장 핏트 전경(북서에서)



① C지구 4구역 바닥노출 전경(북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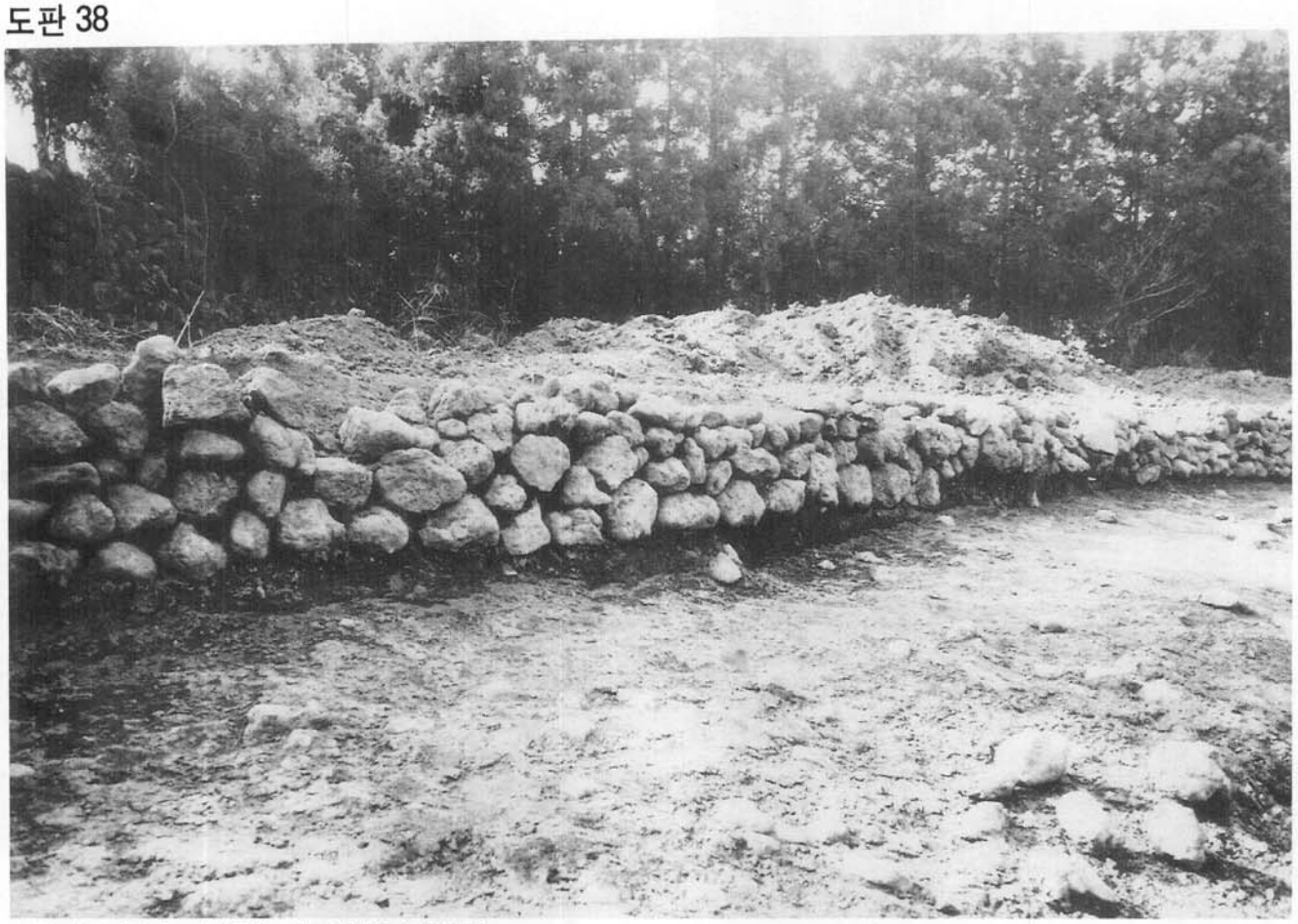
② C지구 4구역 경계석축 부근 바닥 노출상태(1)



③ C지구 4구역 경계석축 부근 바닥 노출상태(2)



도판 38



① C지구 4구역 경계석축 축조상태(남서에서)

② C지구 4구역 경계석축 축조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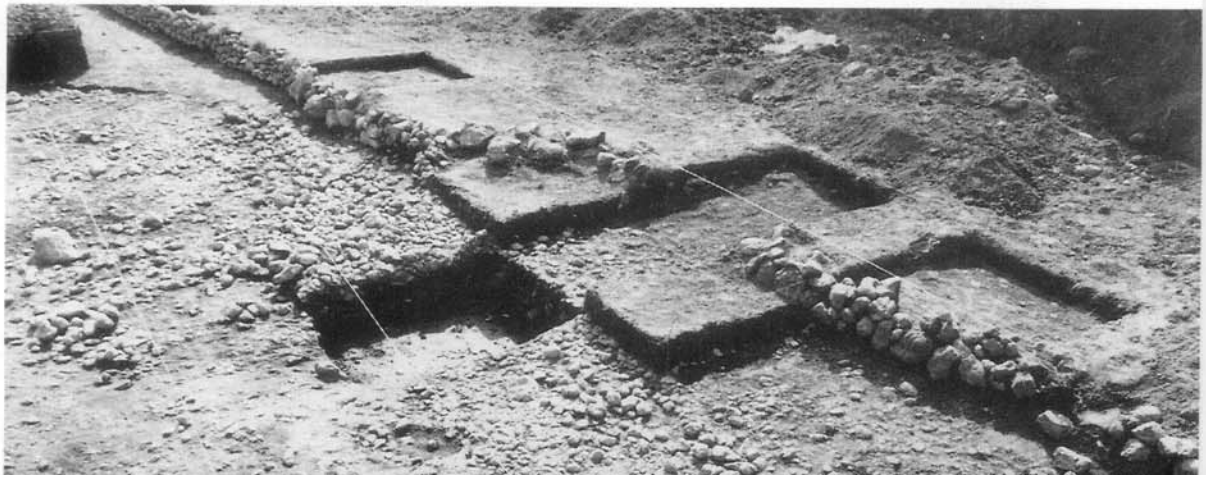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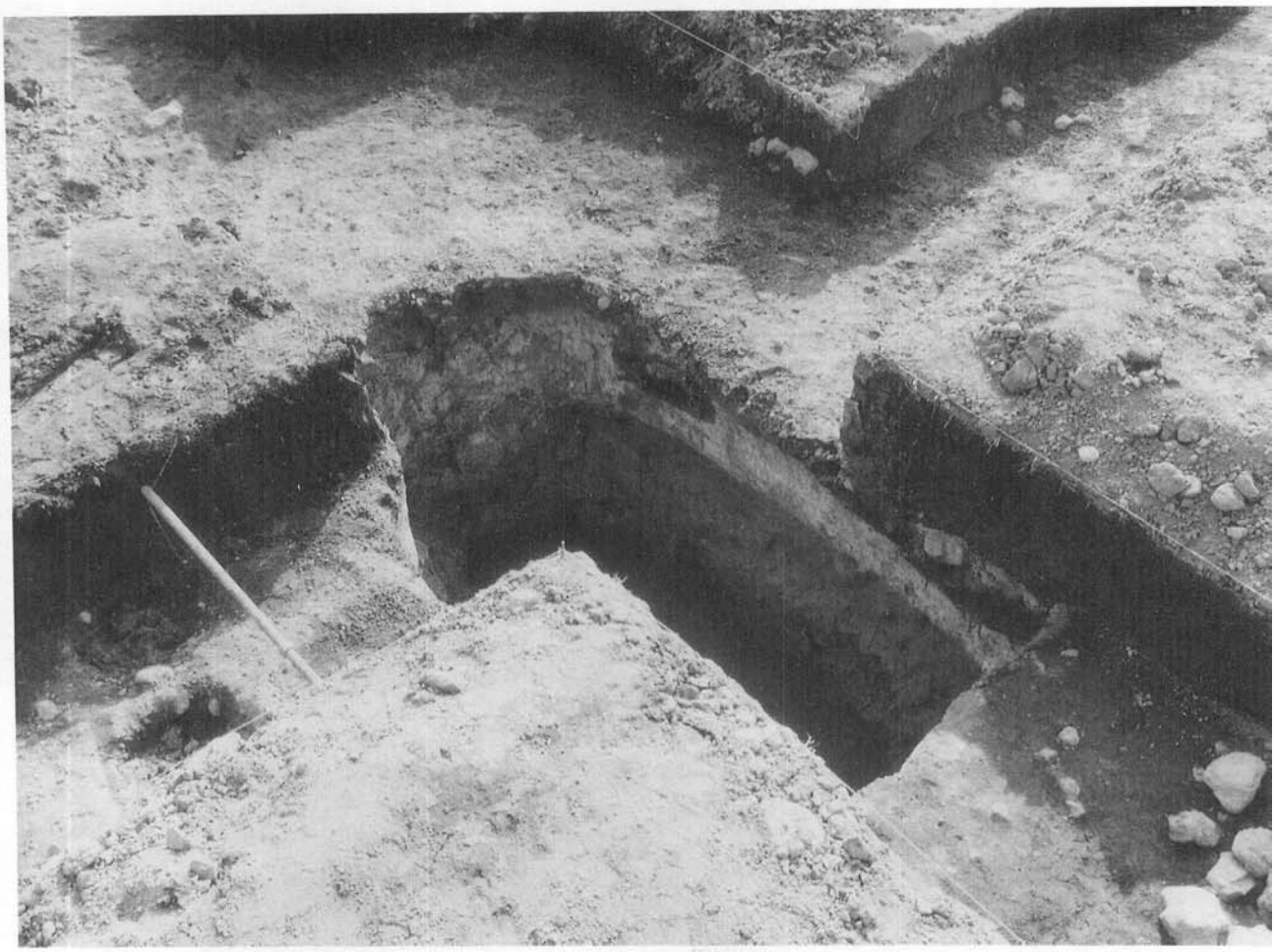
① C지구 4구역 바닥 노출 구덩이(1)



② C지구 4구역 바닥
노출 구덩이(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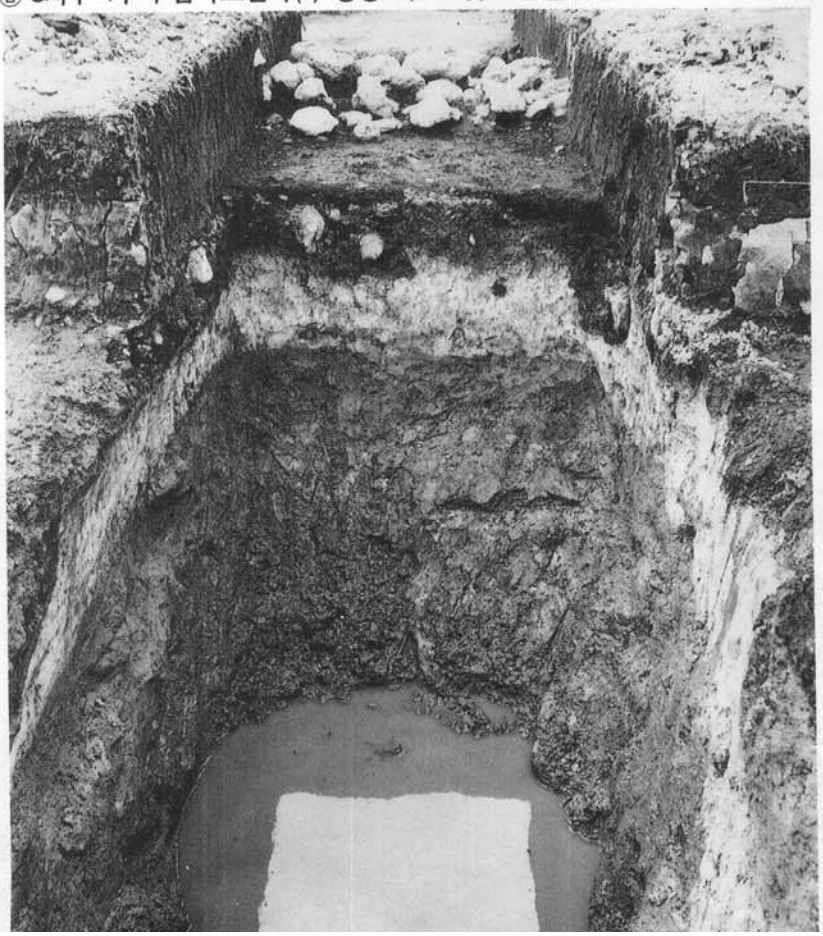
③ C지구 4구역 경계석축 단면 테스트핏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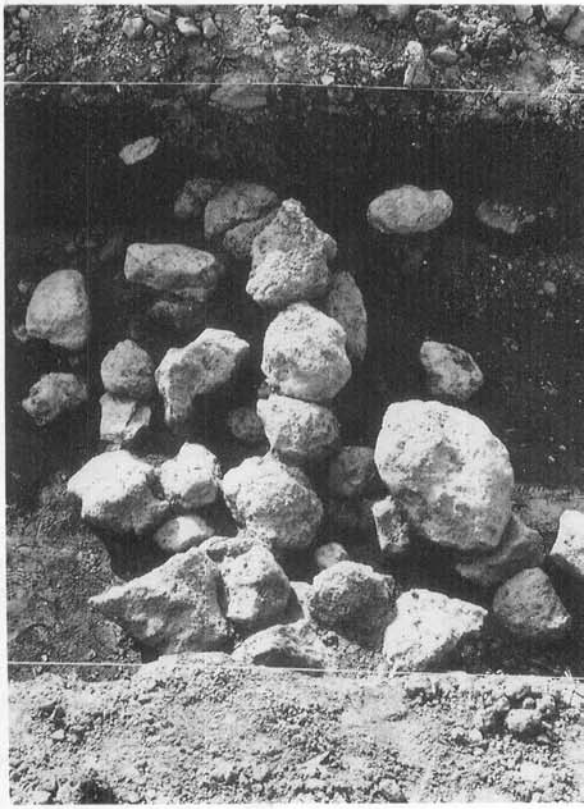




① C지구 4구역 남북트렌치(2) 중앙 테스트핏트

② C지구 4구역 남북트렌치(2) 중앙 테스트핏트 단면층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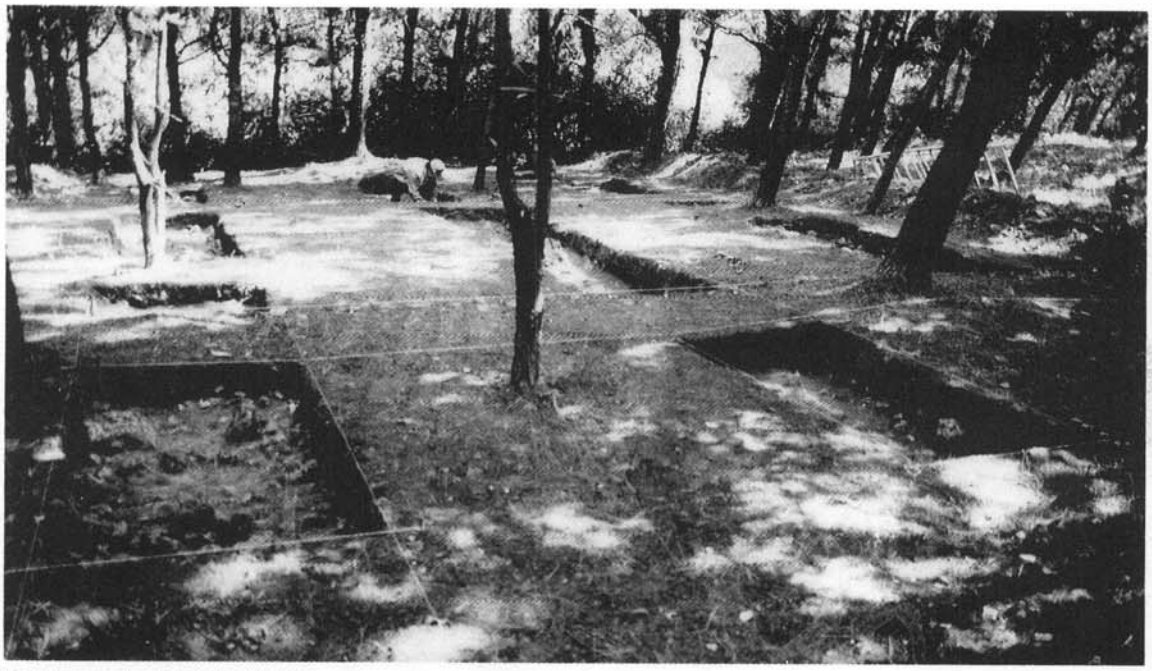




③ C지구 4구역 트렌치내 논경계 돌담



① A지구 남쪽 도로 서북벽 단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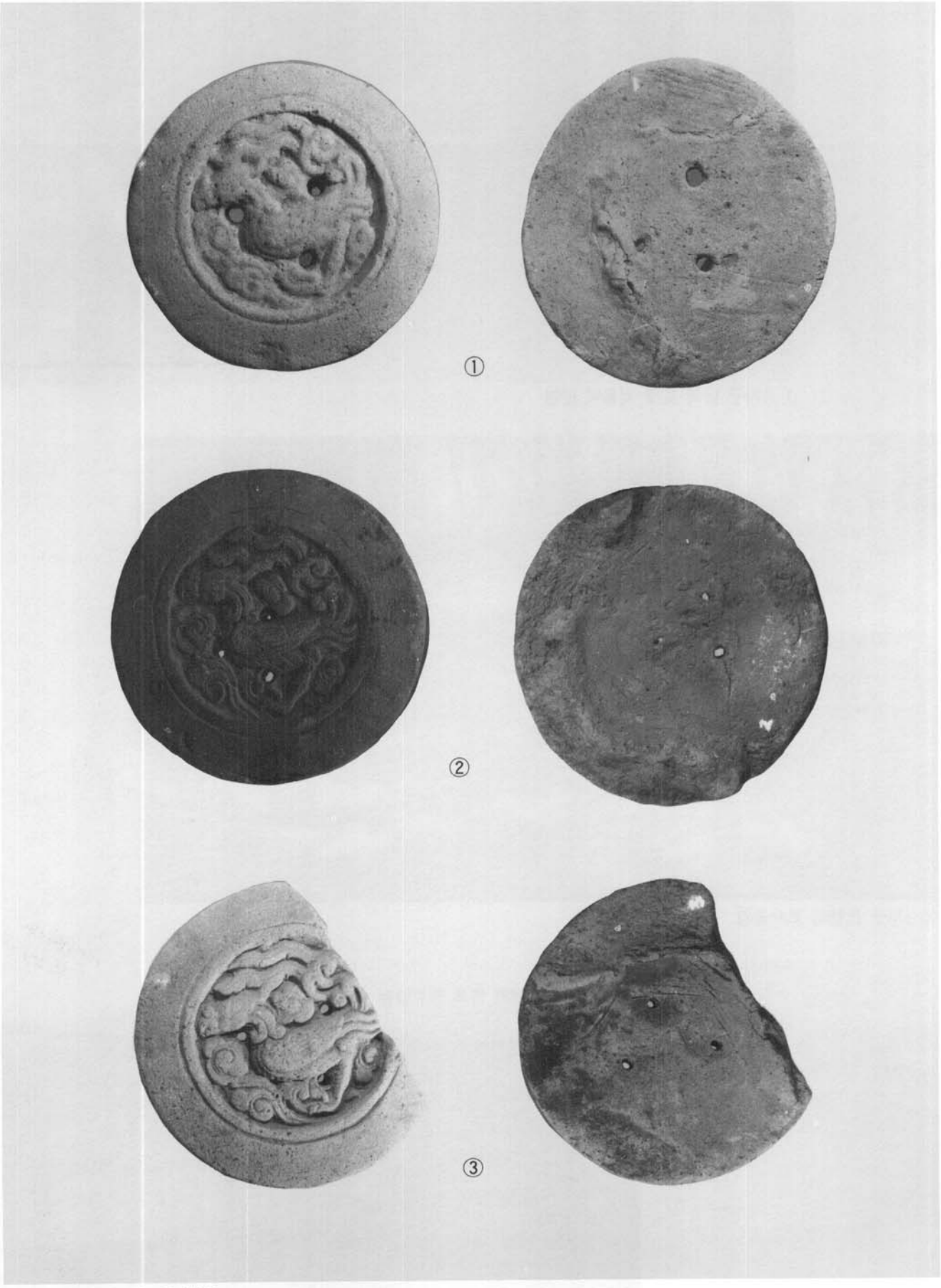


② 야산지구 트렌치 조사광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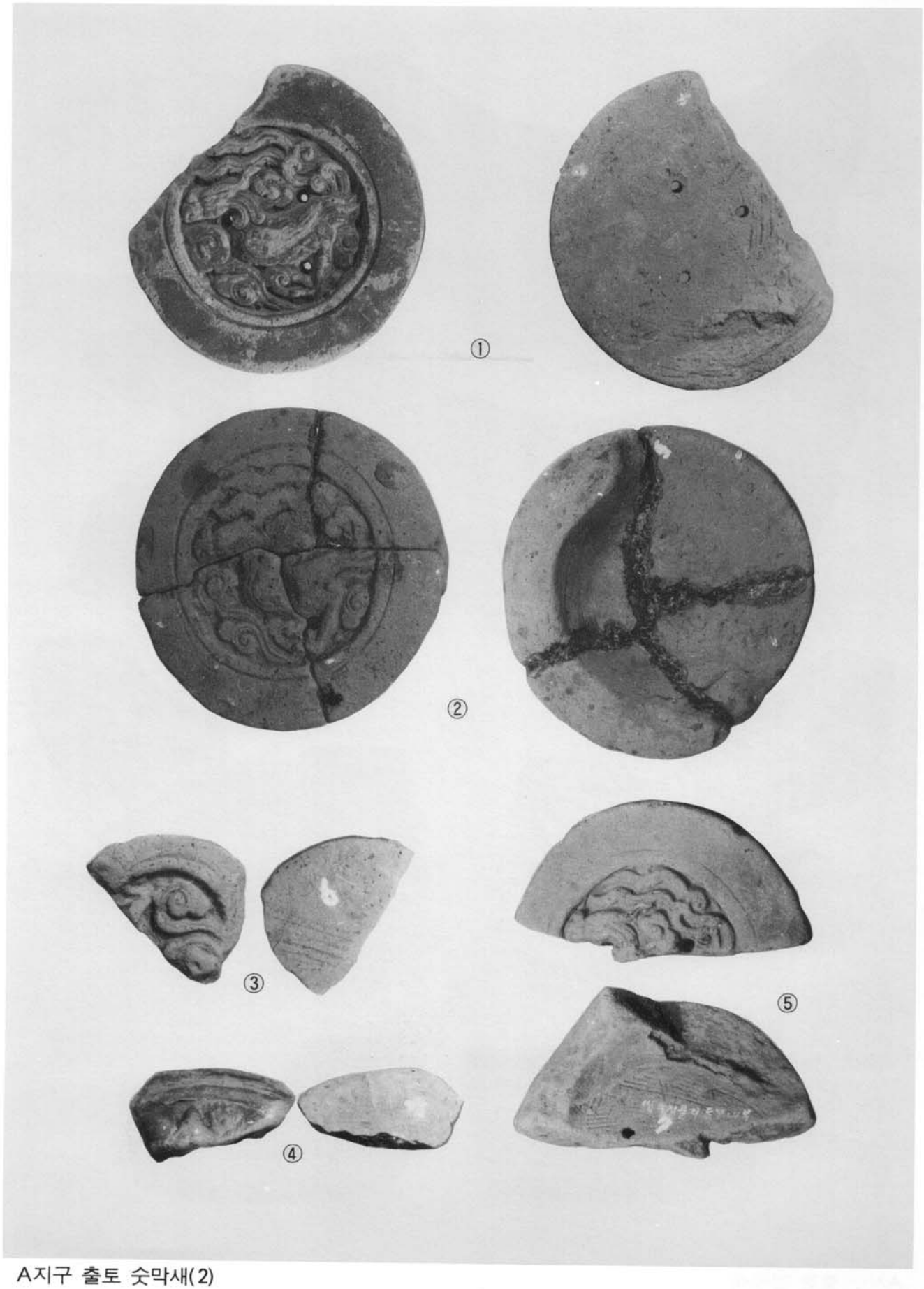
③ 야산지구 트렌치 동쪽 층위단면



도판 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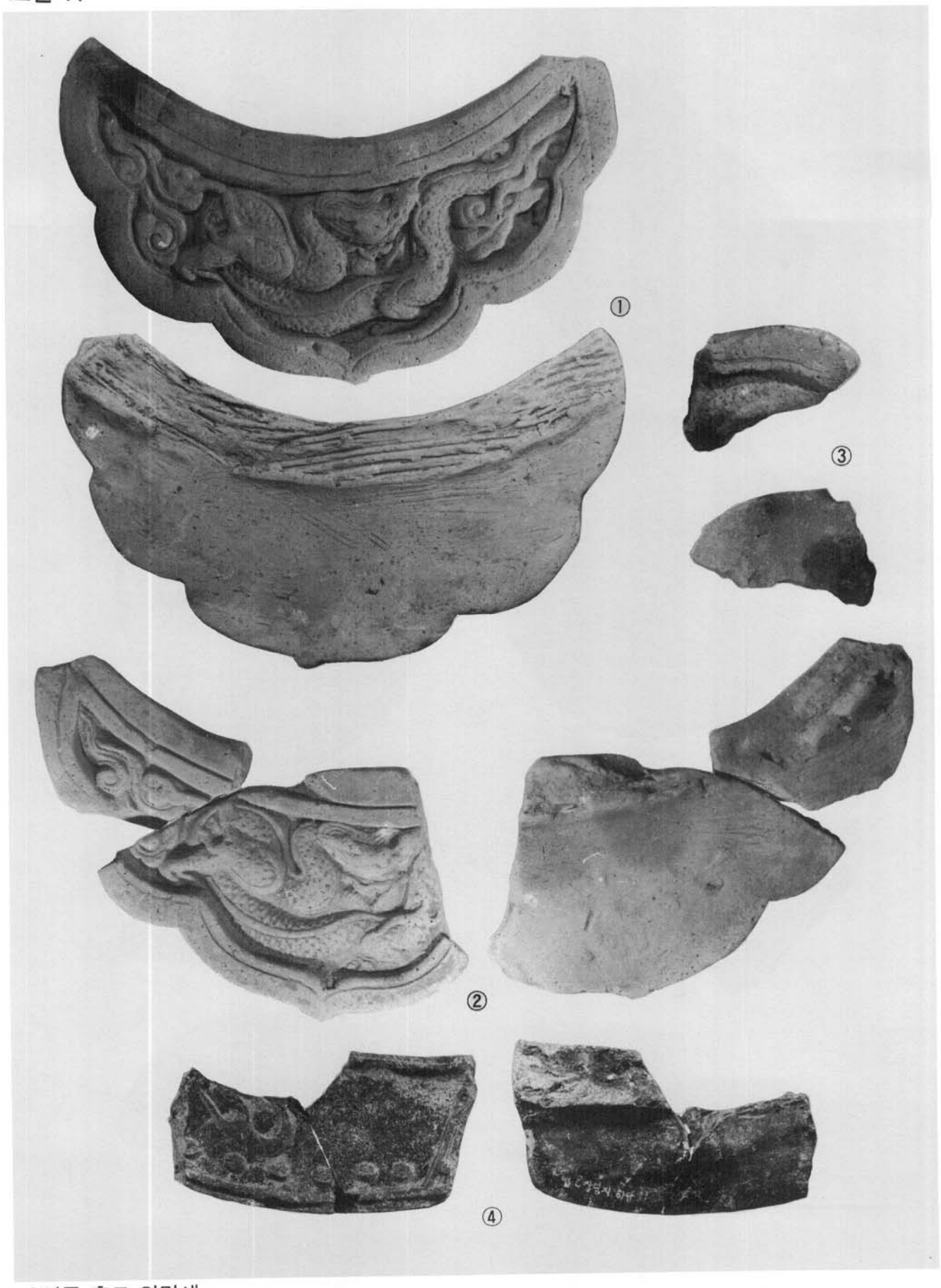


A지구 출토 숫막새(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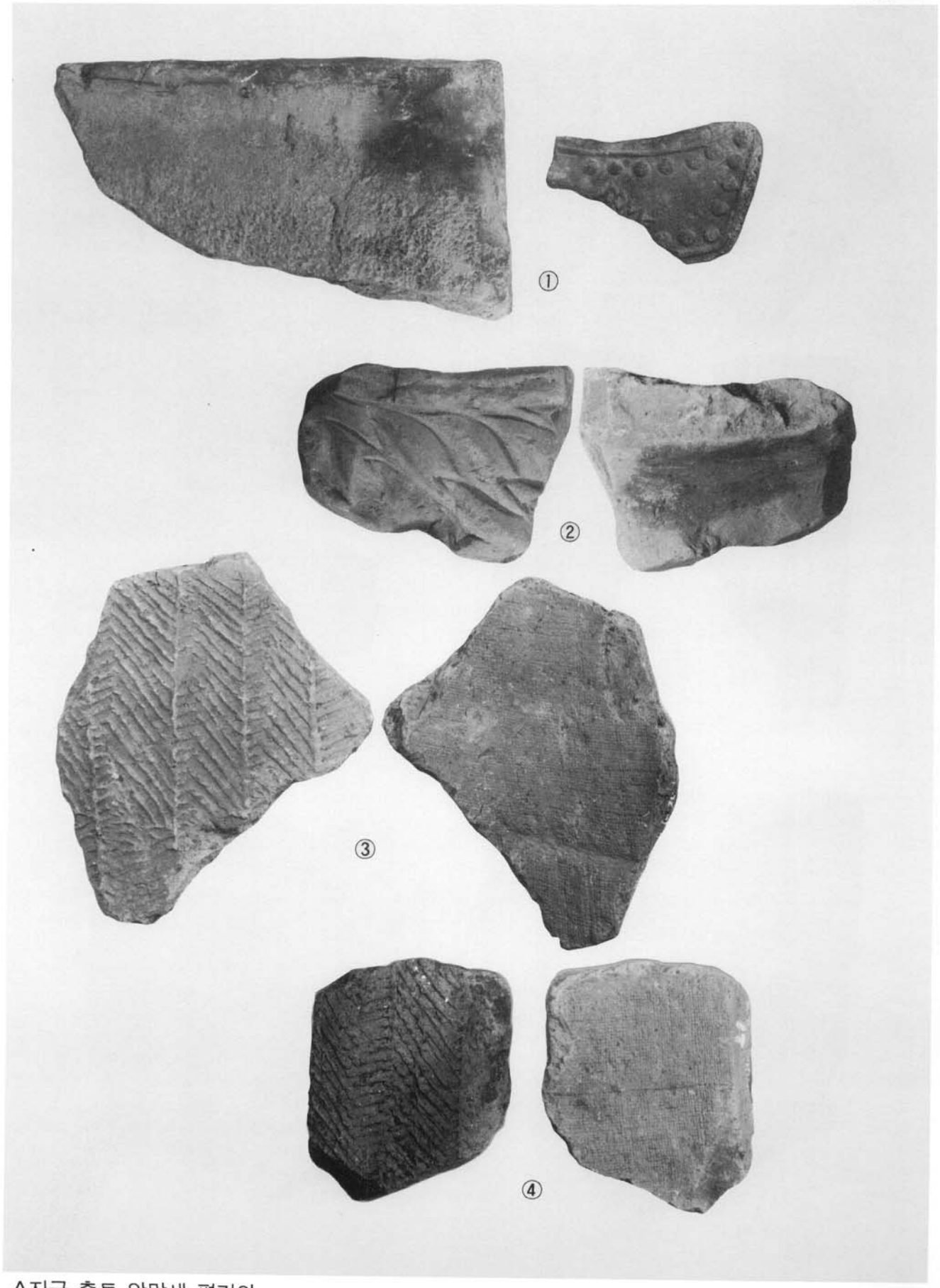


A지구 출토 숫막새(2)

도판 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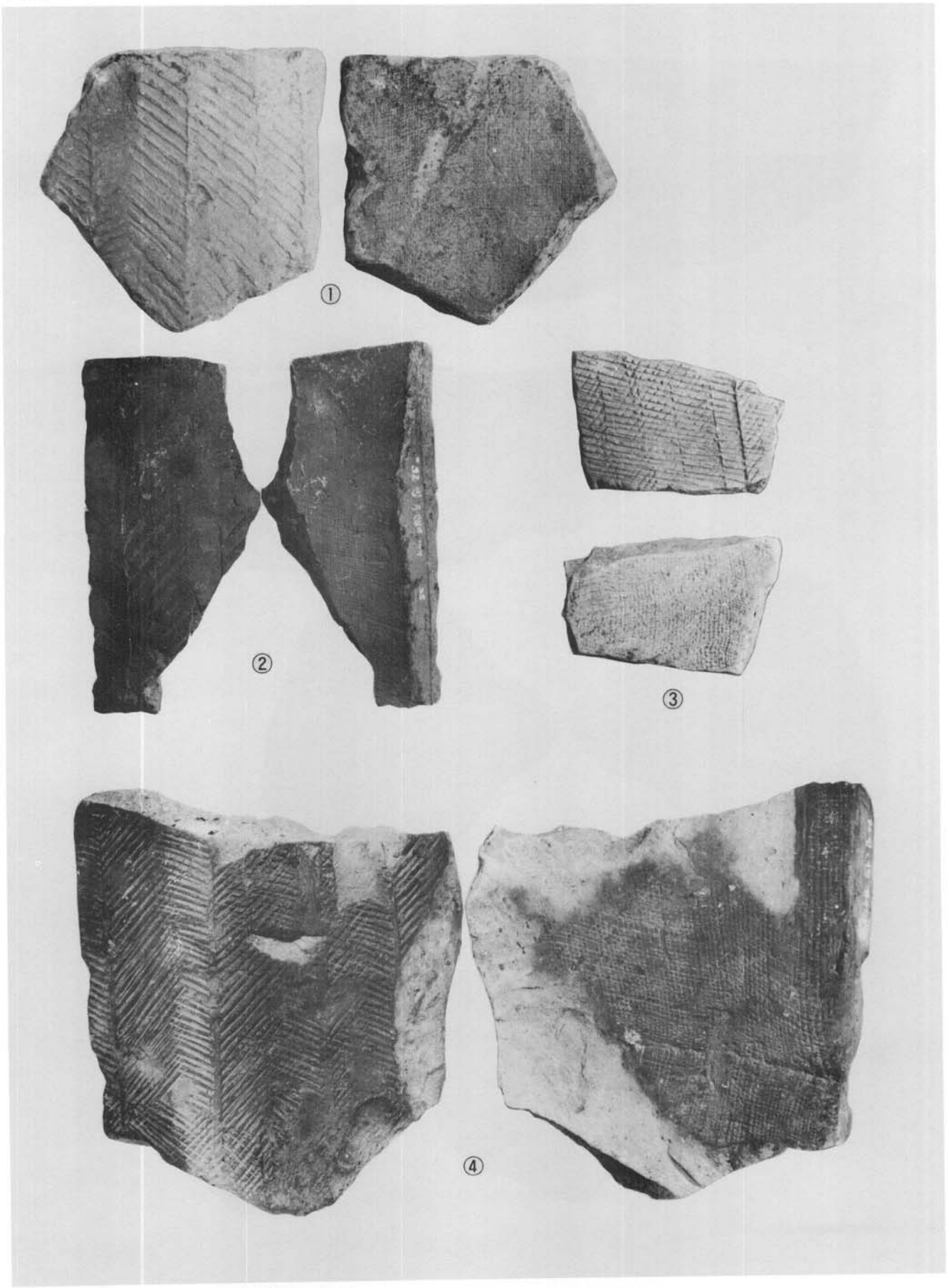


A지구 출토 암막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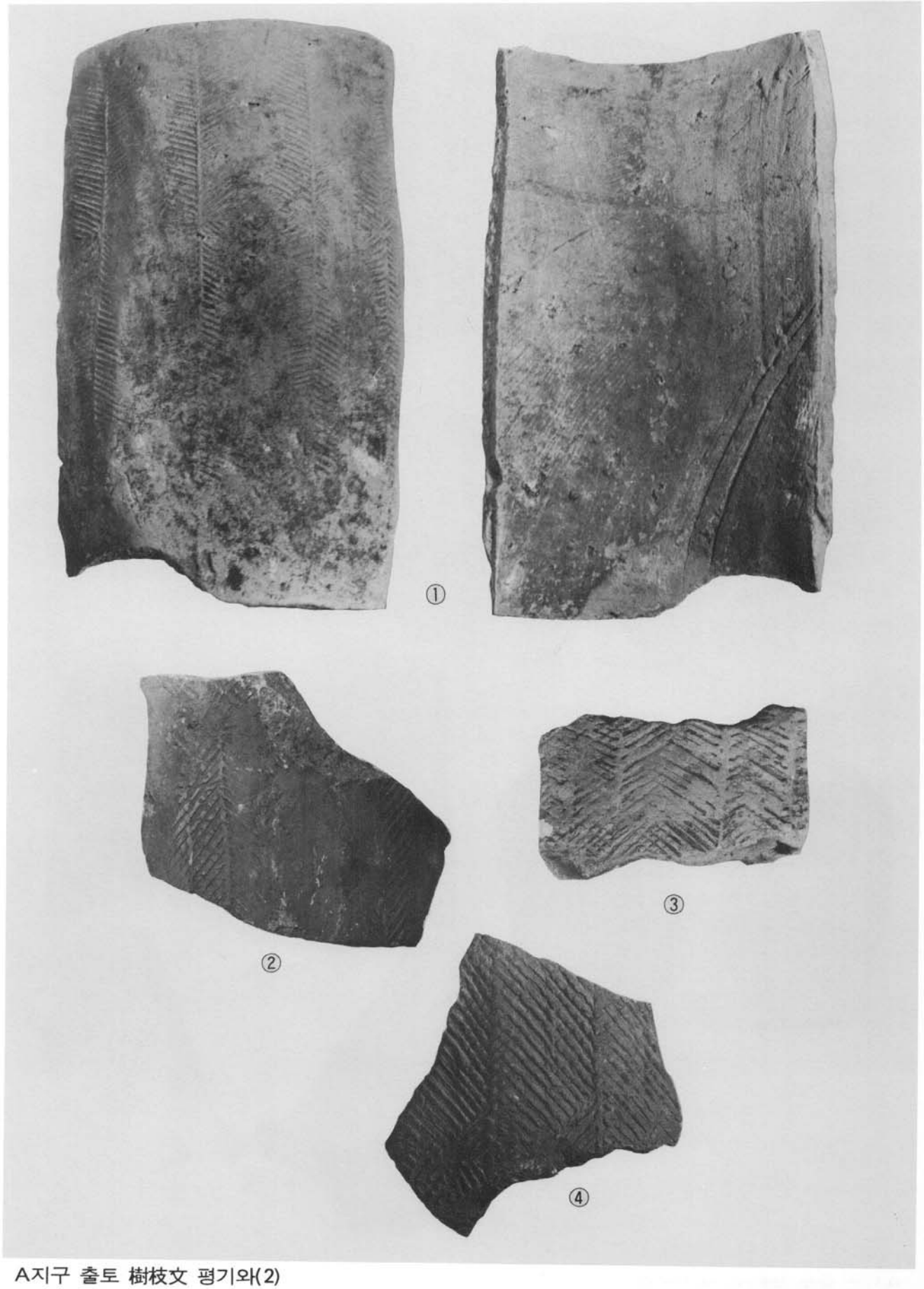


A지구 출토 암막새·평기와

도판 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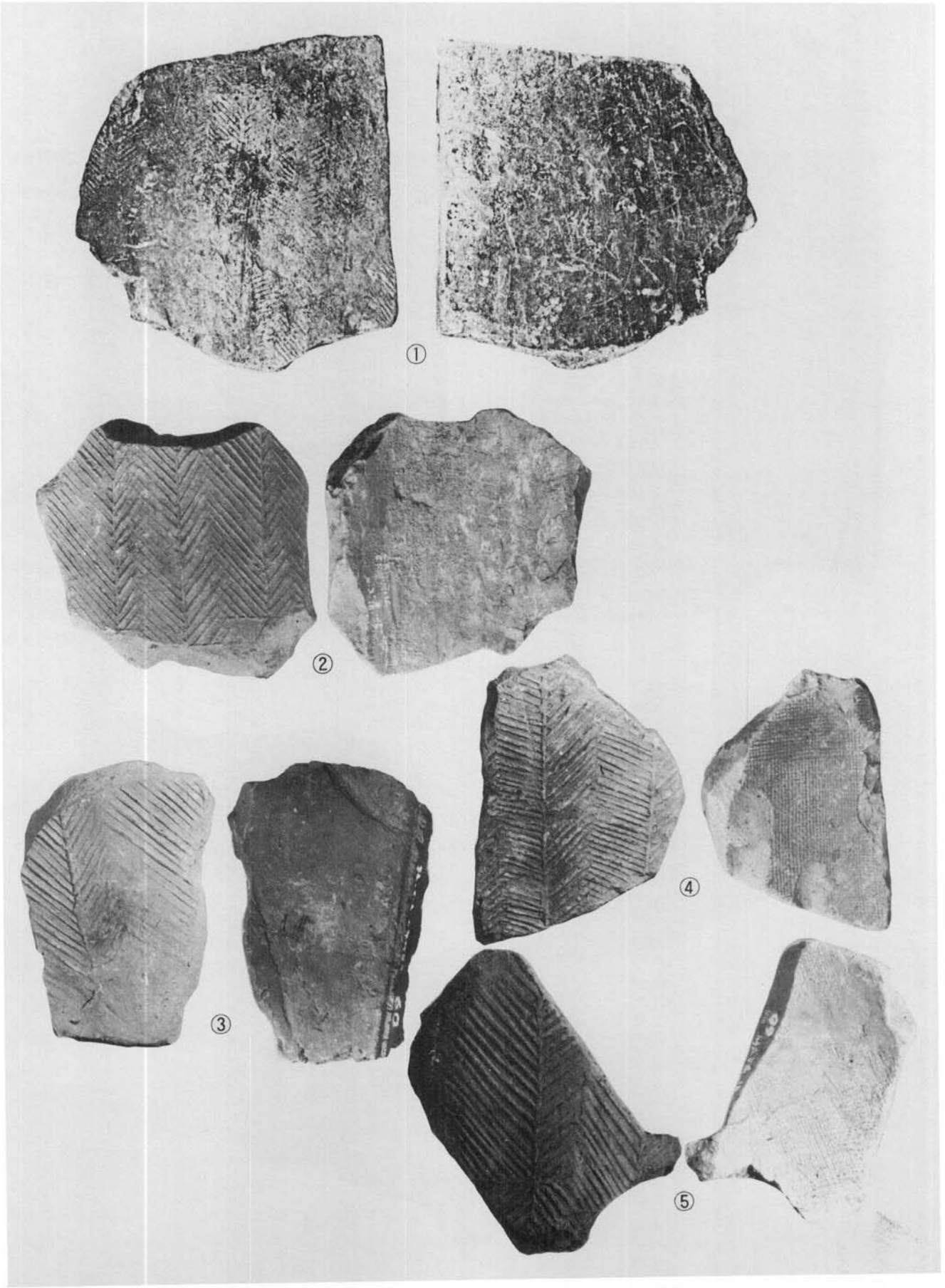


A지구 출토 樹枝文 평기와(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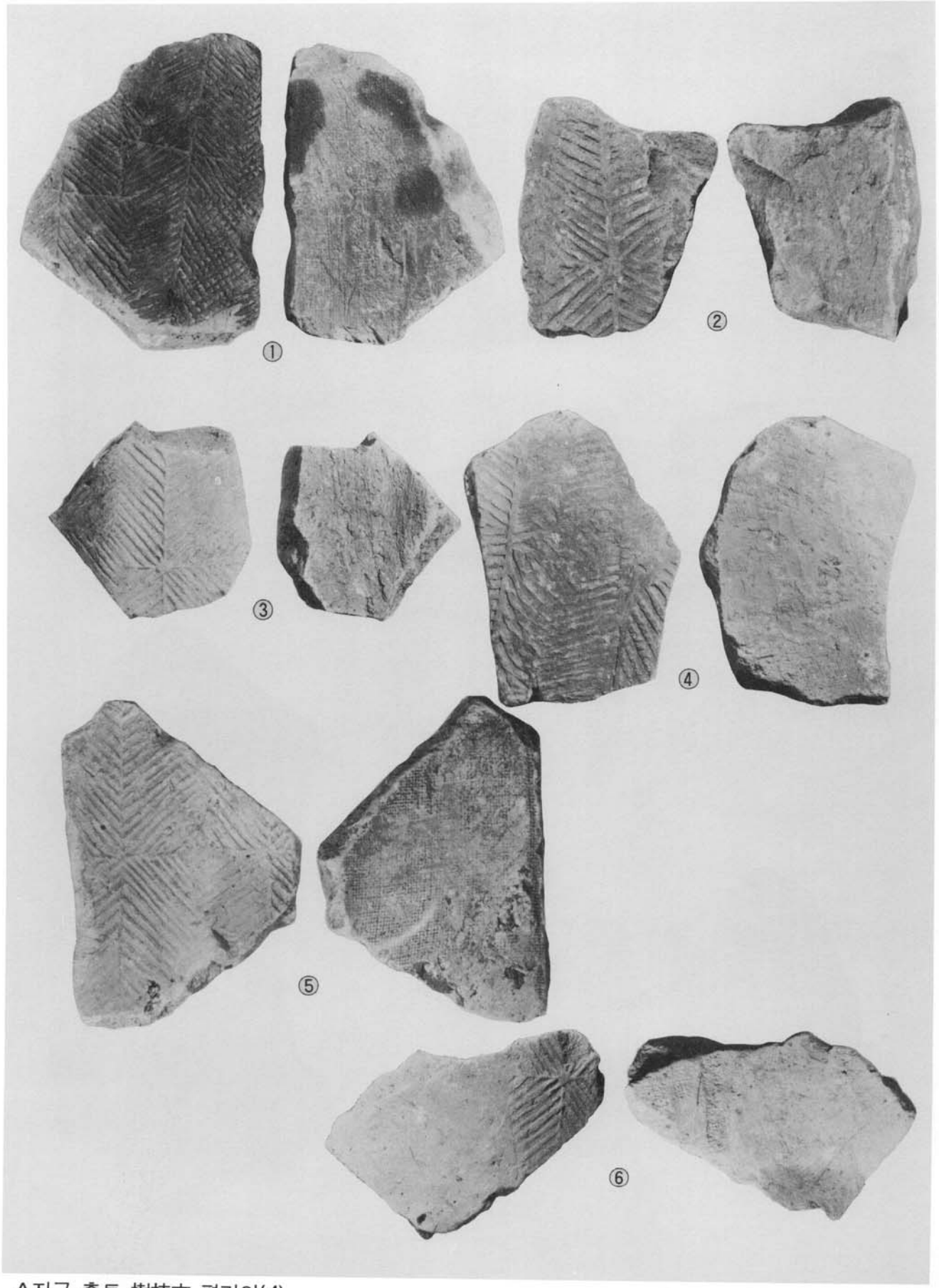


A지구 출토 樹枝文 평기와(2)

도판 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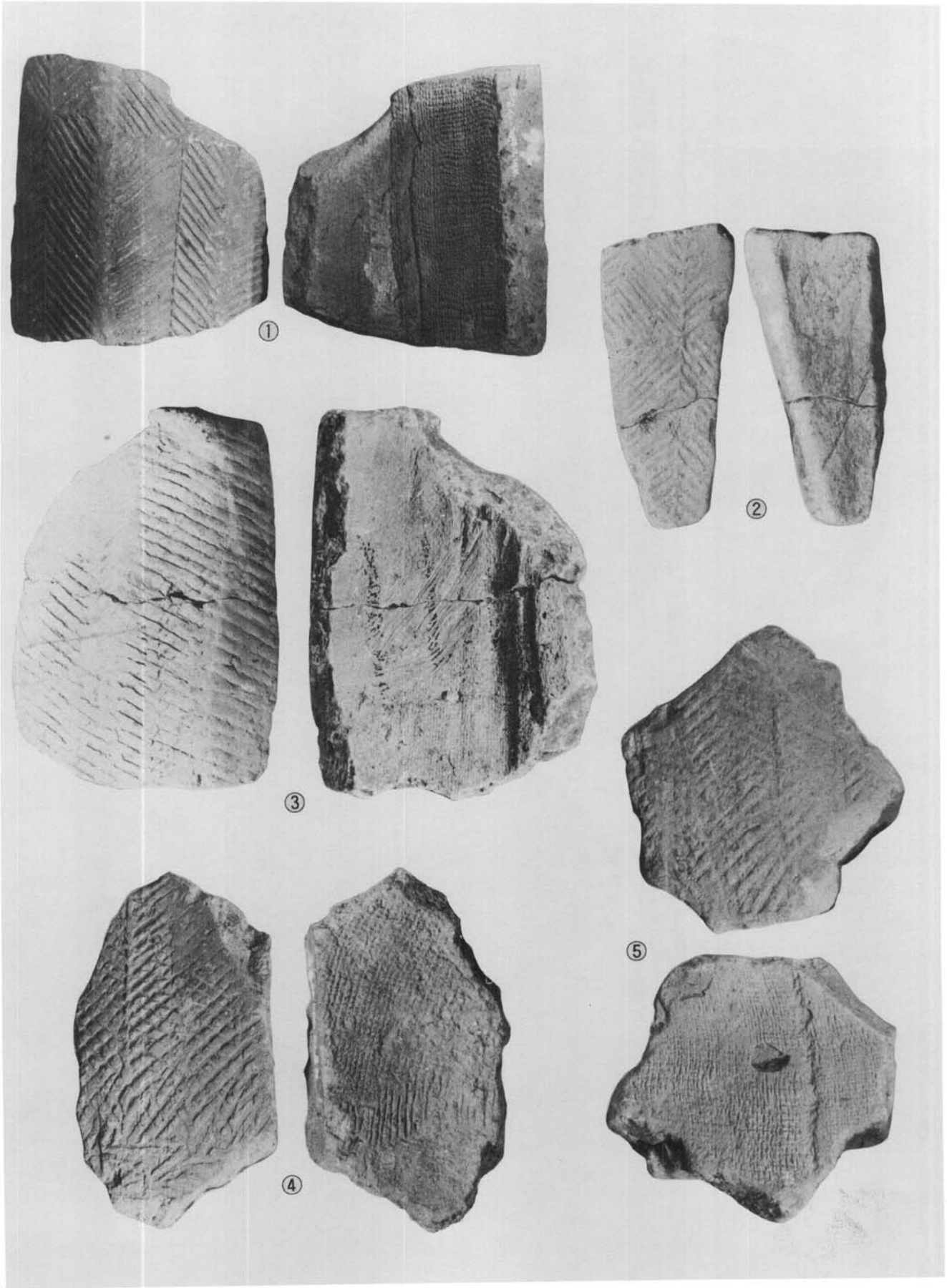


A지구 출토 樹枝文 평기와(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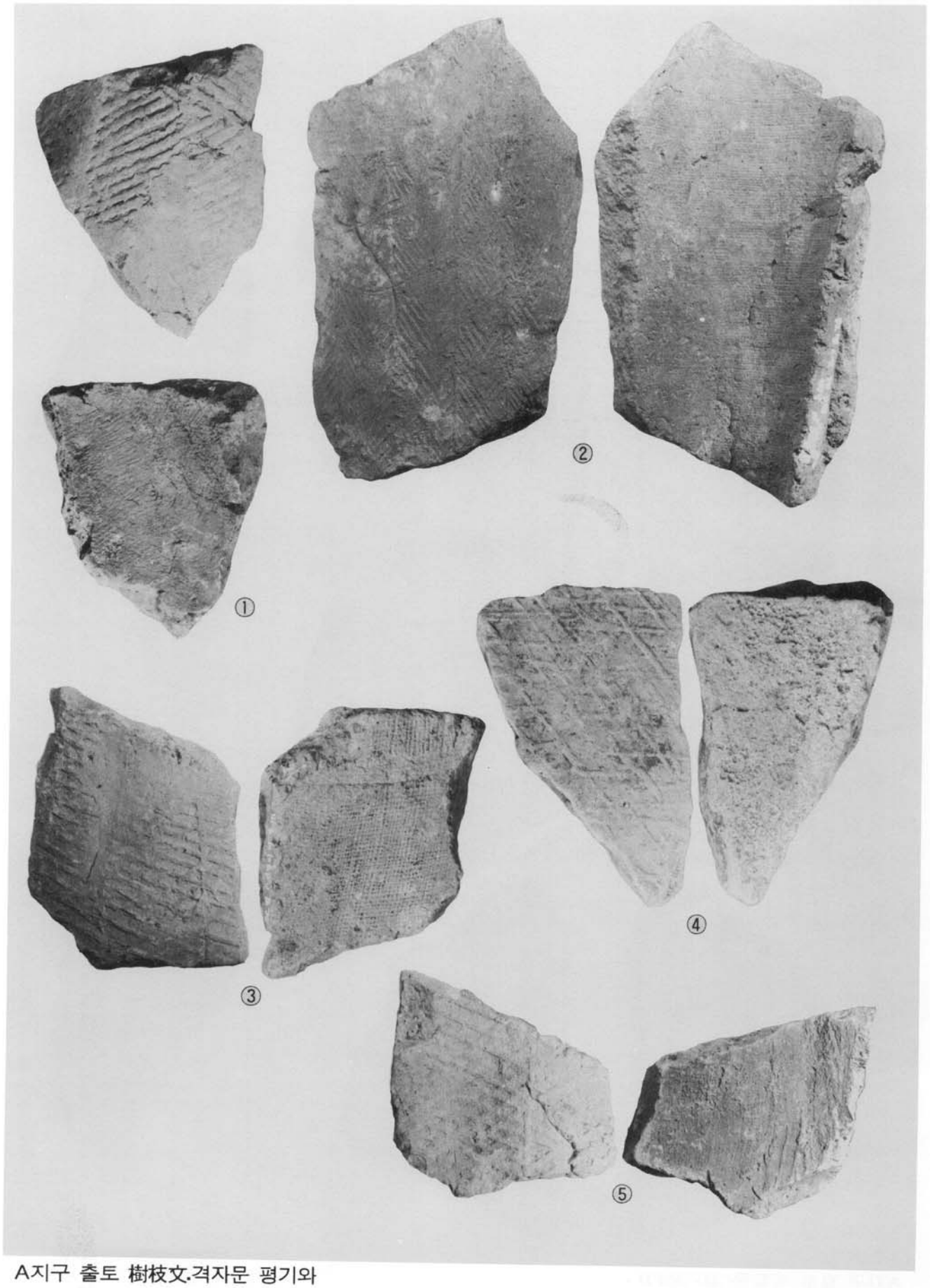


A지구 출토 樹枝文 평기와(4)

도판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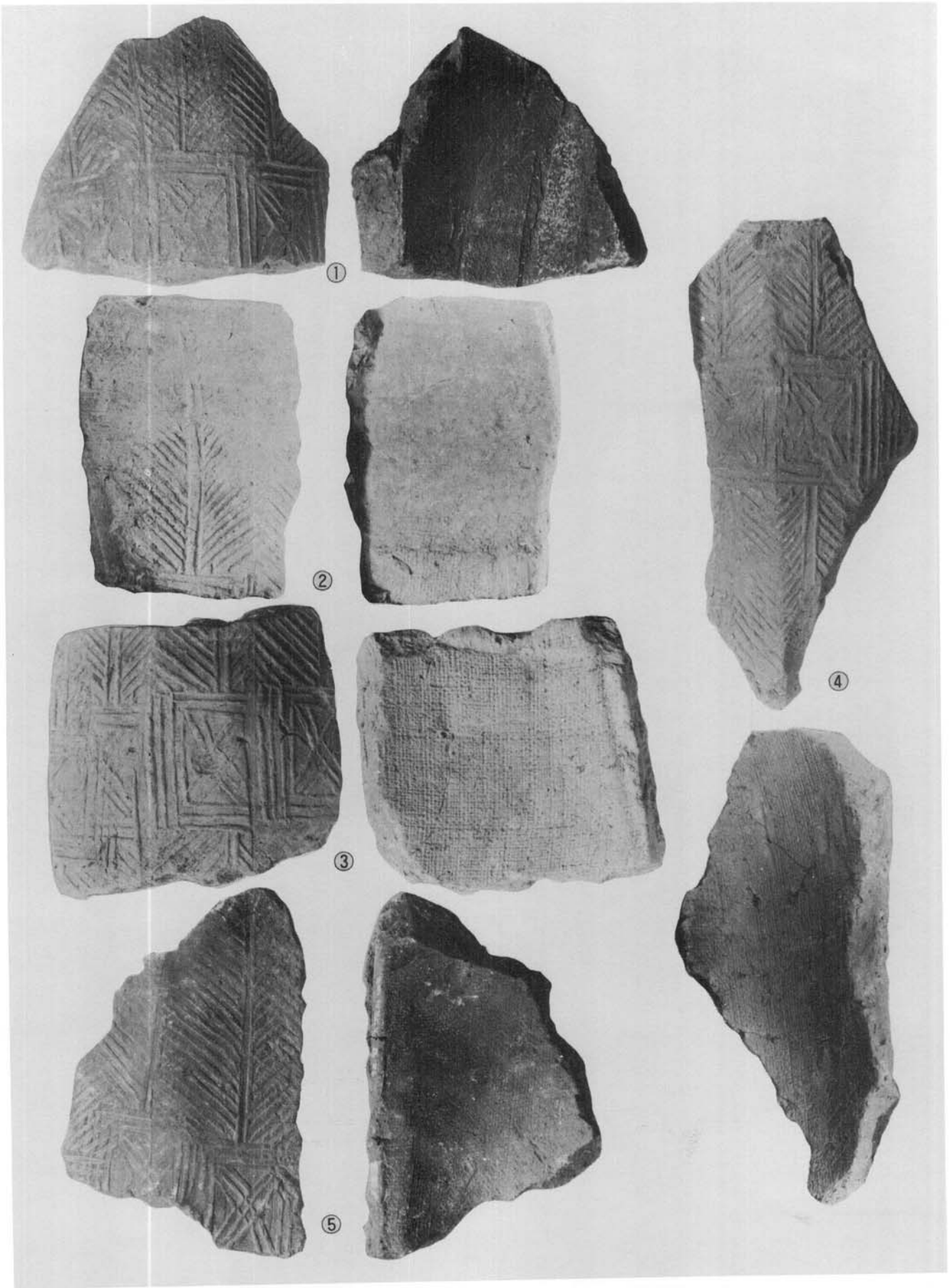


A지구 출토 樹枝文 평기와(5)



A지구 출토 樹枝文.격자문 평기와

도판 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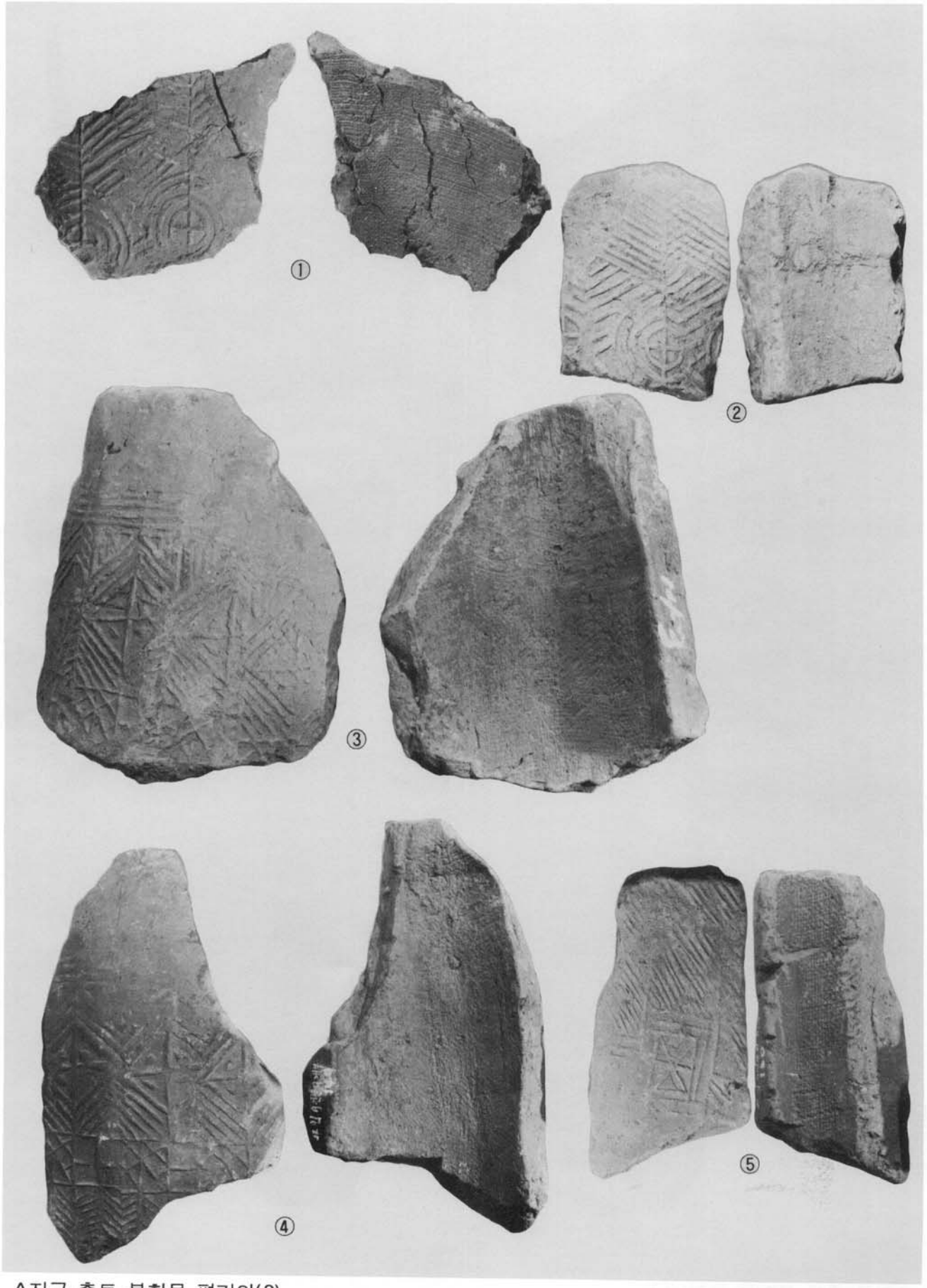


A지구 출토 복합문 평기와(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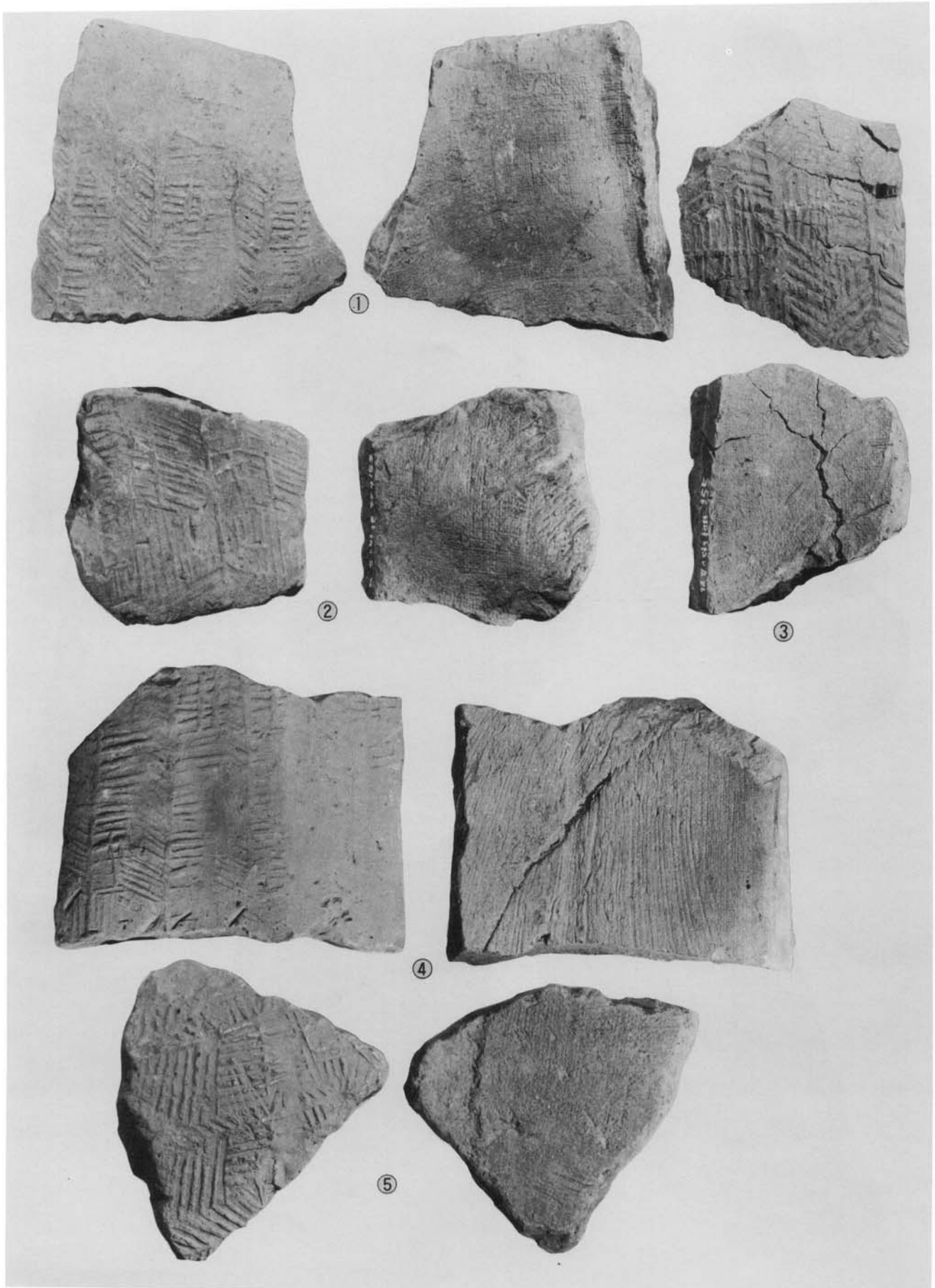


A지구 출토 복합문 평기와(2)

도판 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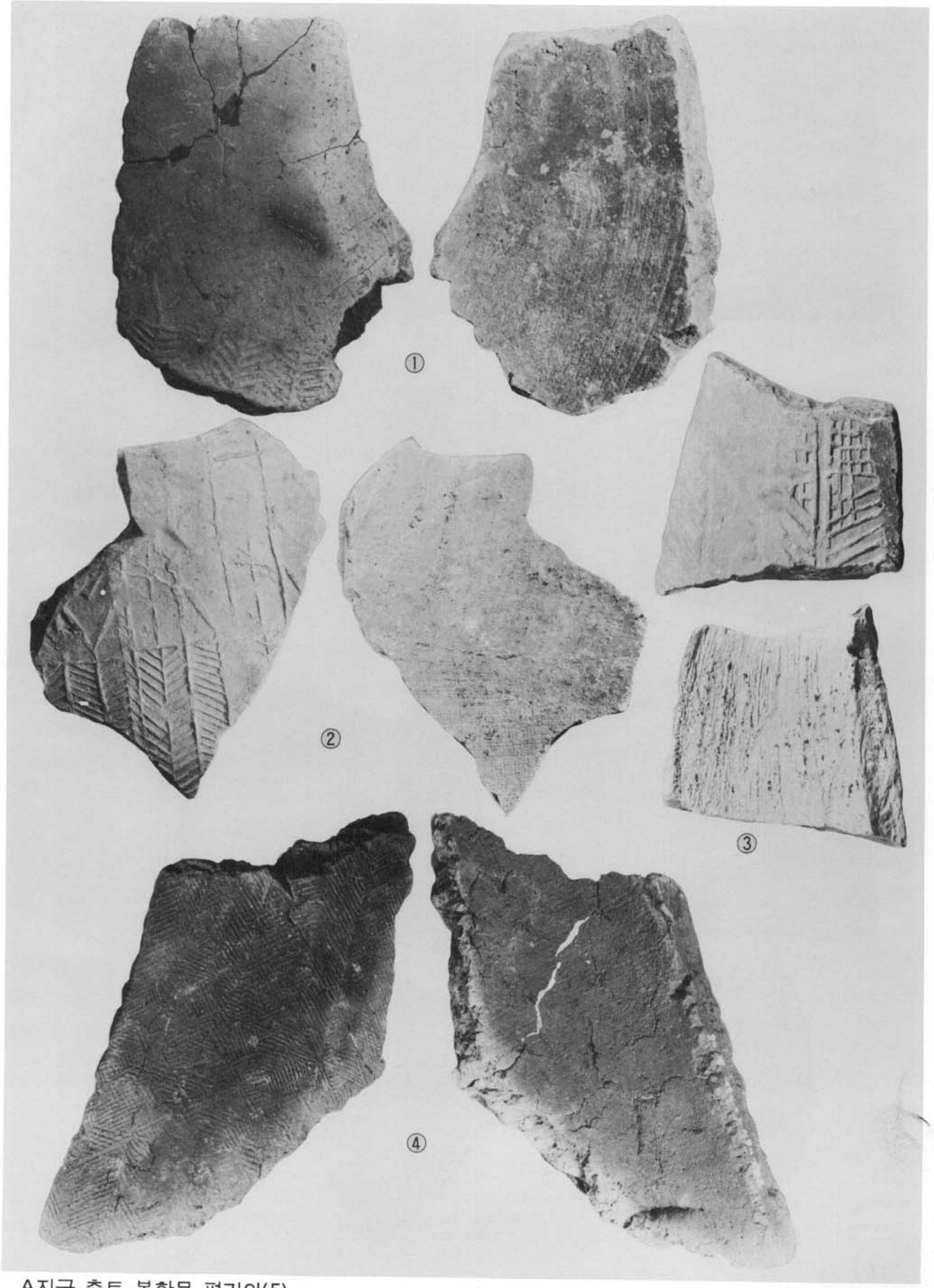


A지구 출토 복합문 평기와(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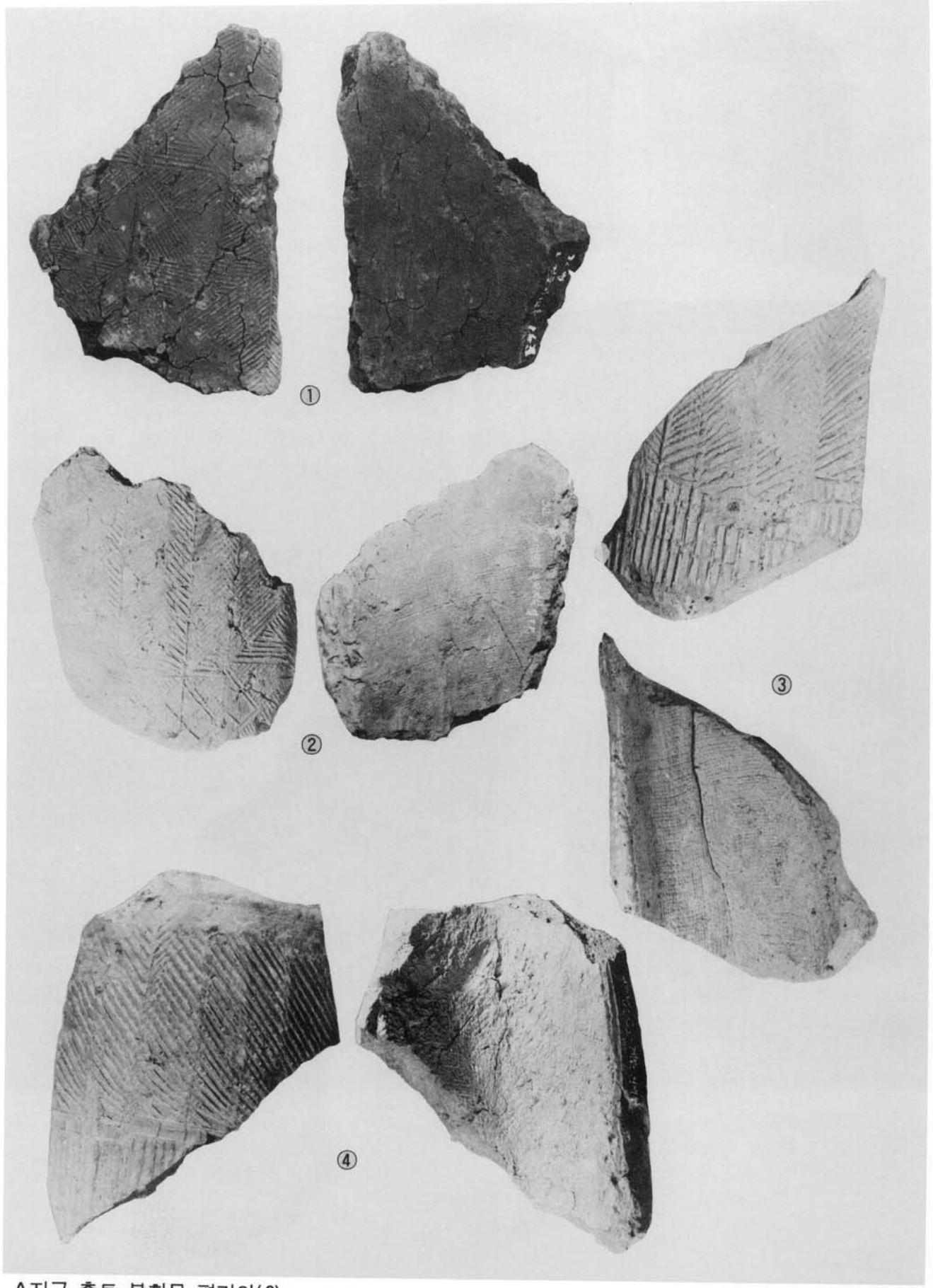


A지구 출토 복합문 평기와(4)

도판 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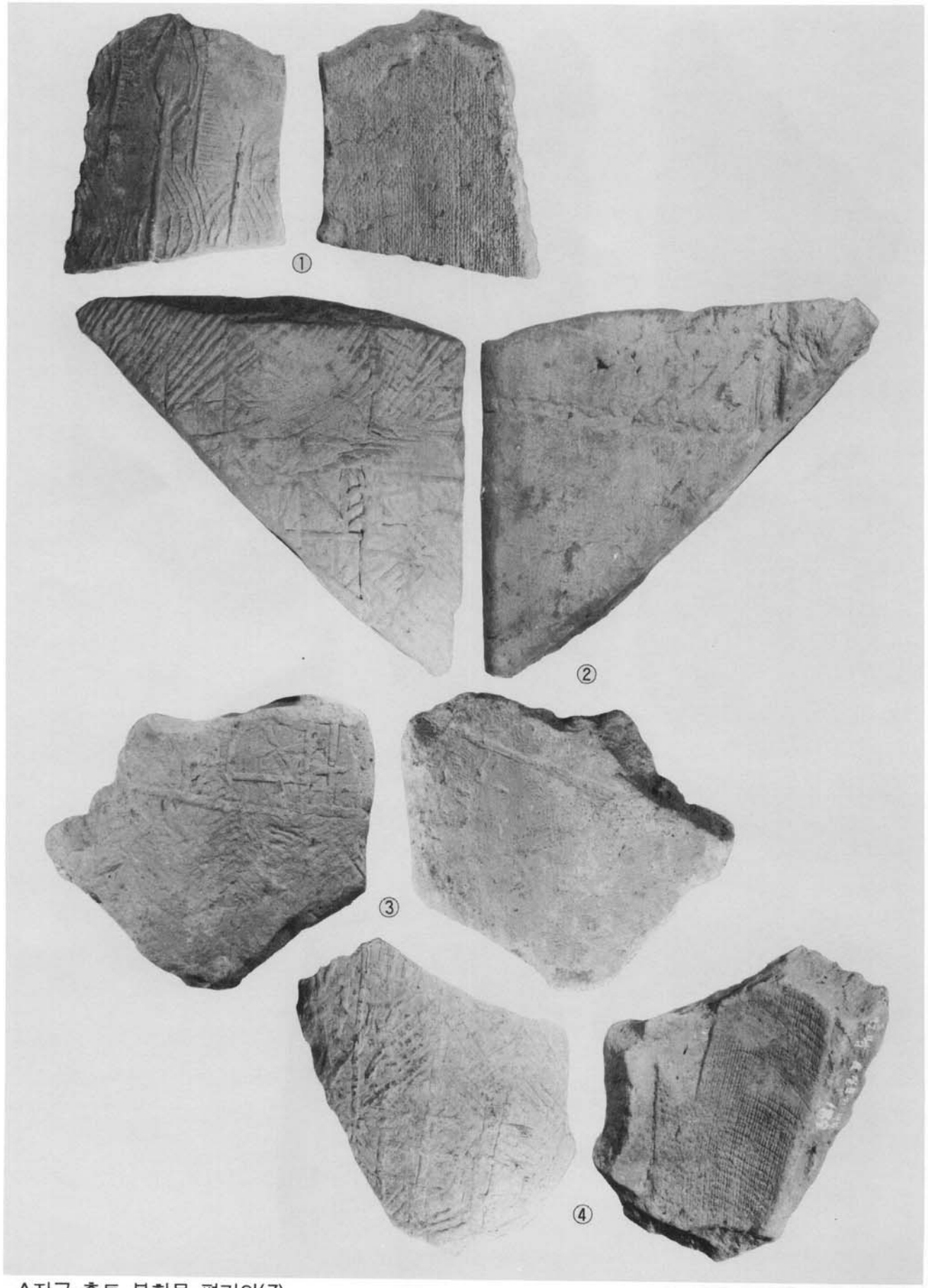


A지구 출토 복합문 평기와(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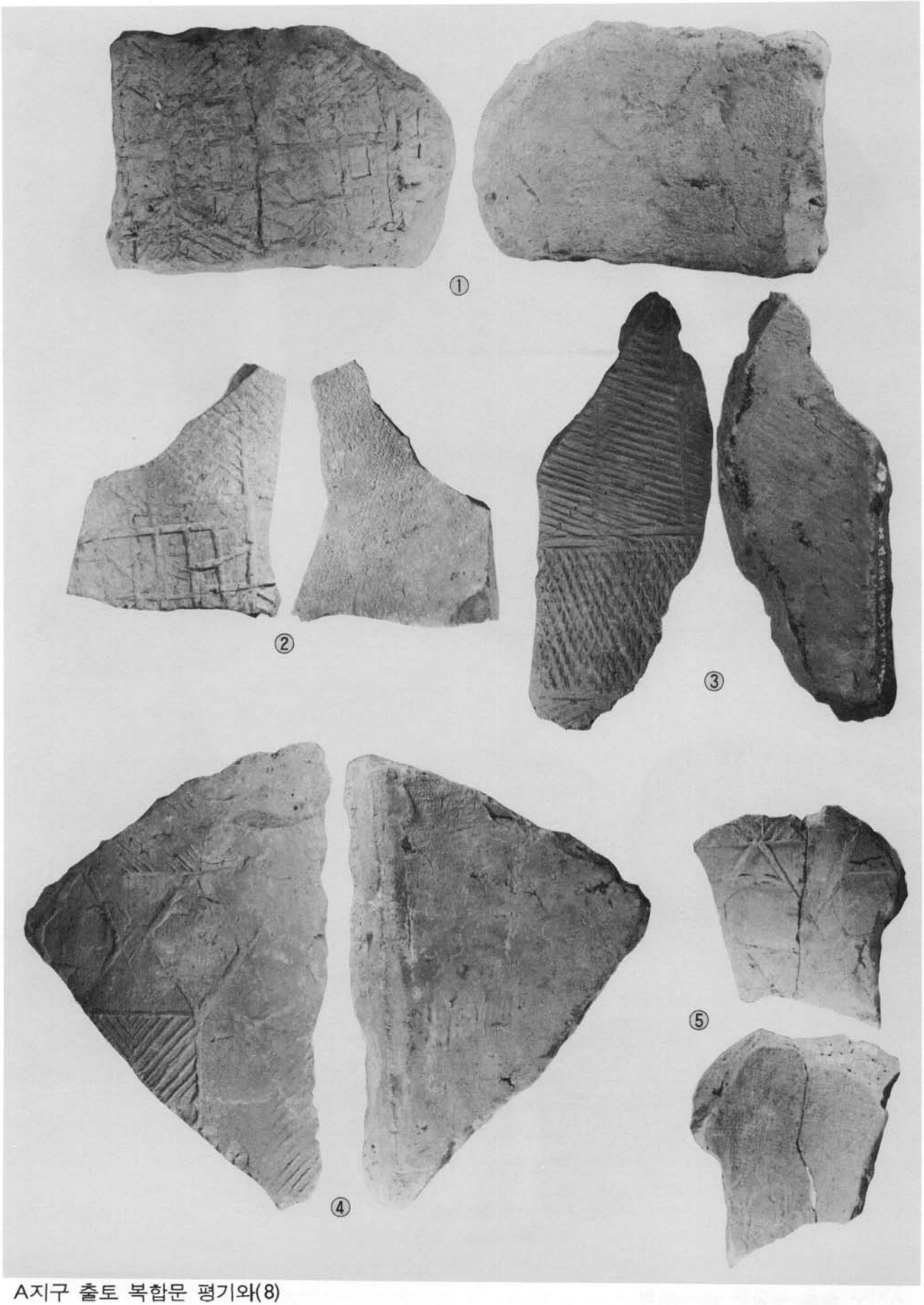


A지구 출토 복합문 평기와(6)

도판 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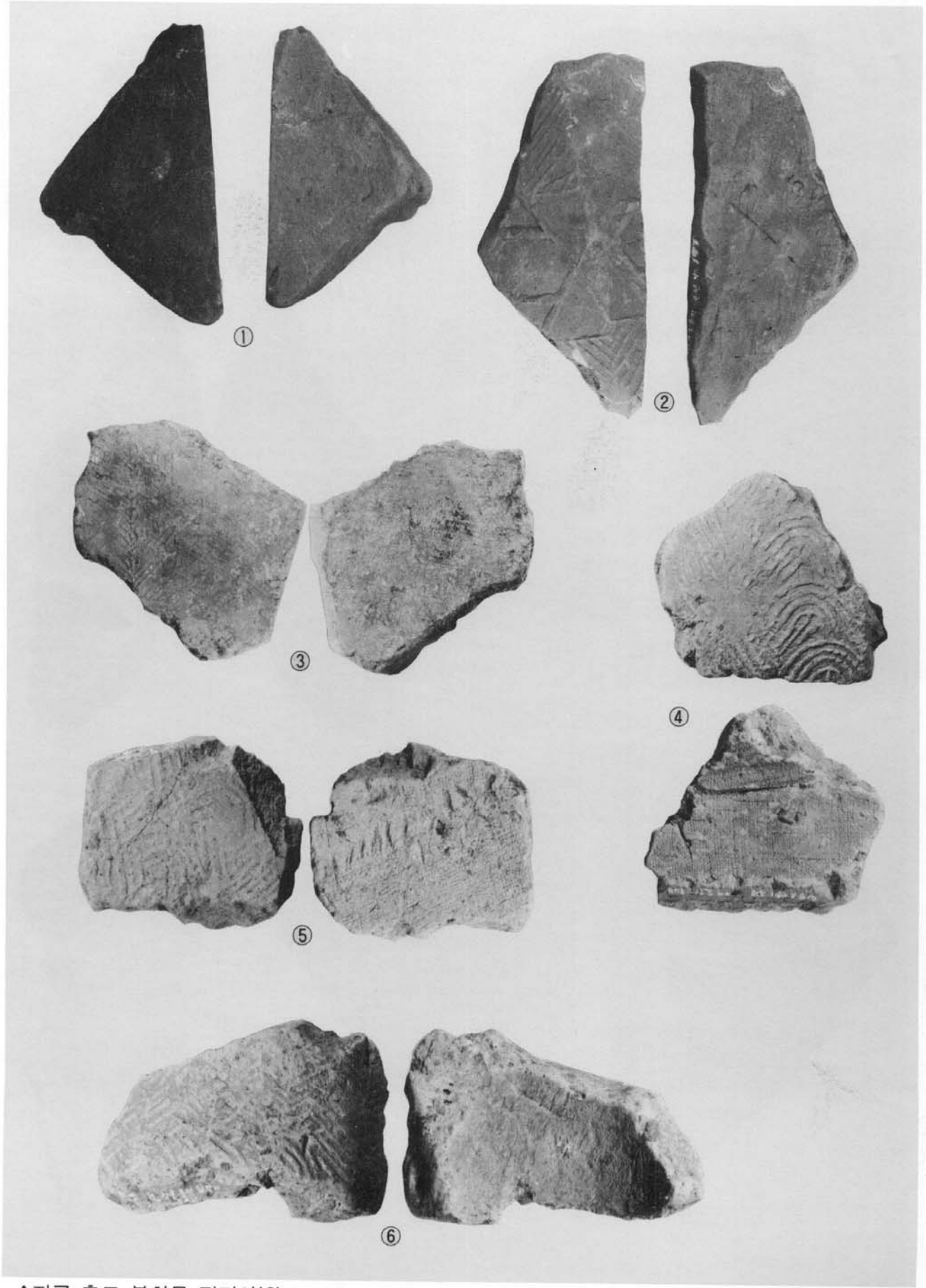


A지구 출토 복합문 평기와(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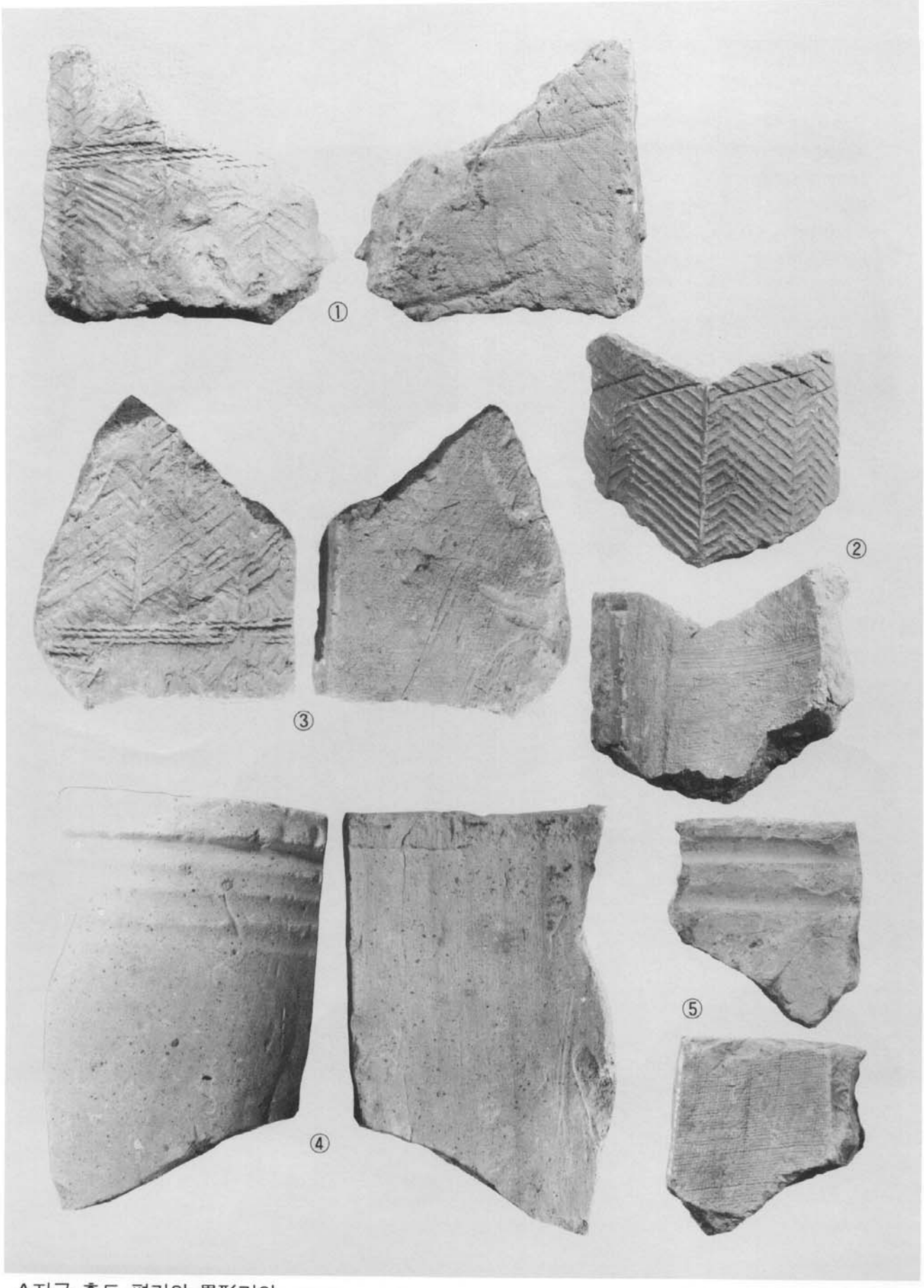


A지구 출토 복합문 평기와(8)

도판 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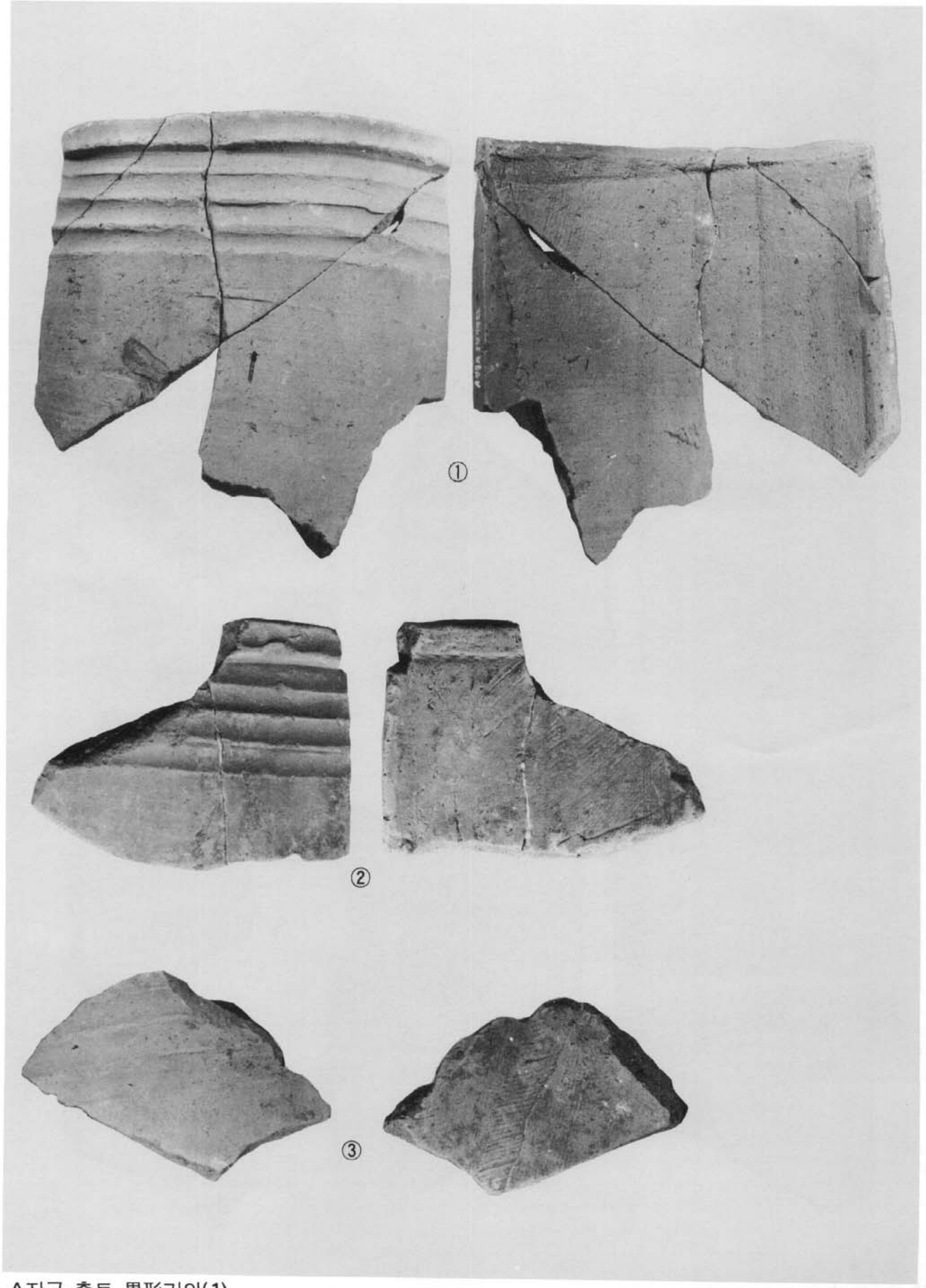


A지구 출토 복합문 평기와(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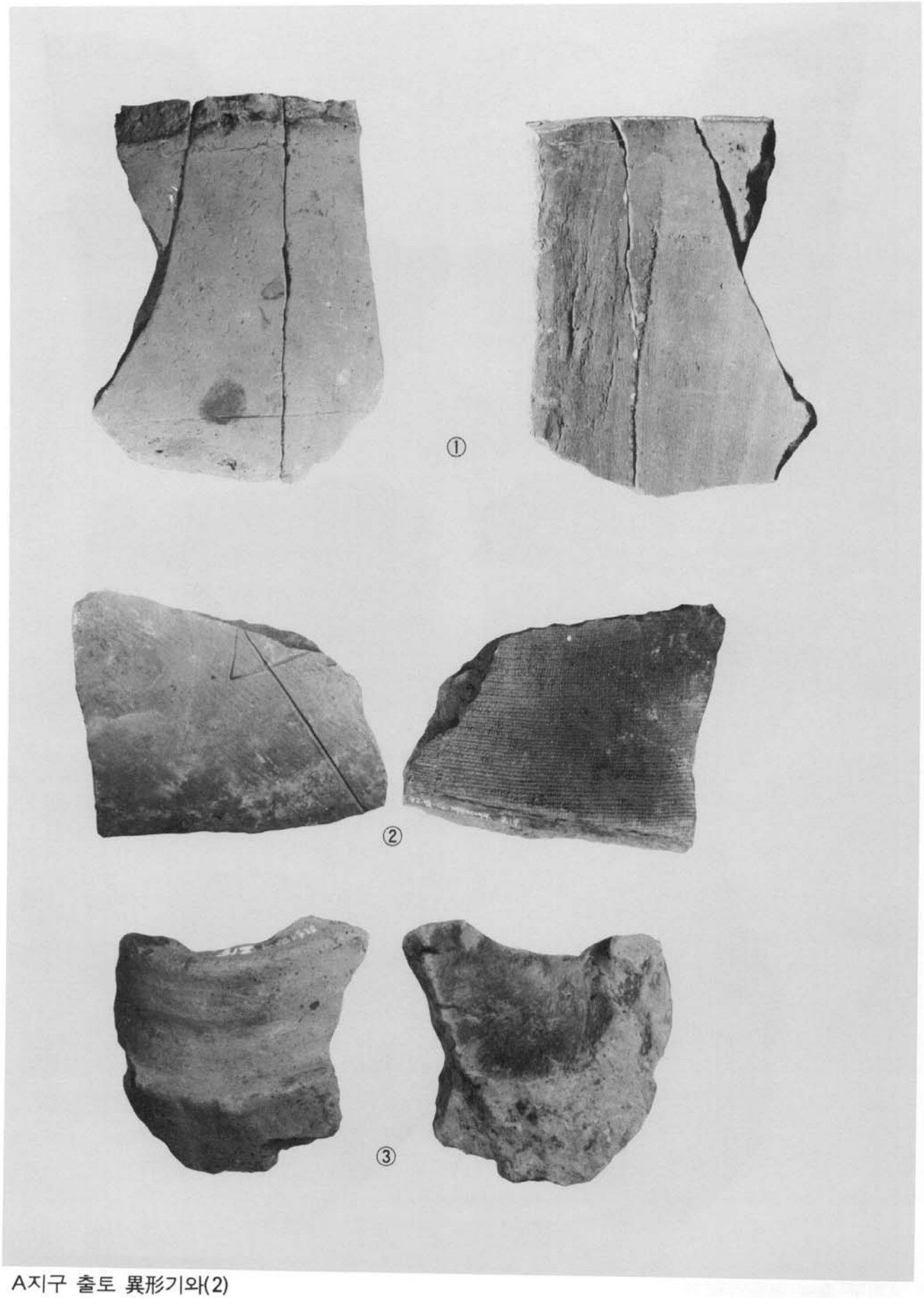


A지구 출토 평기와·異形기와

도판 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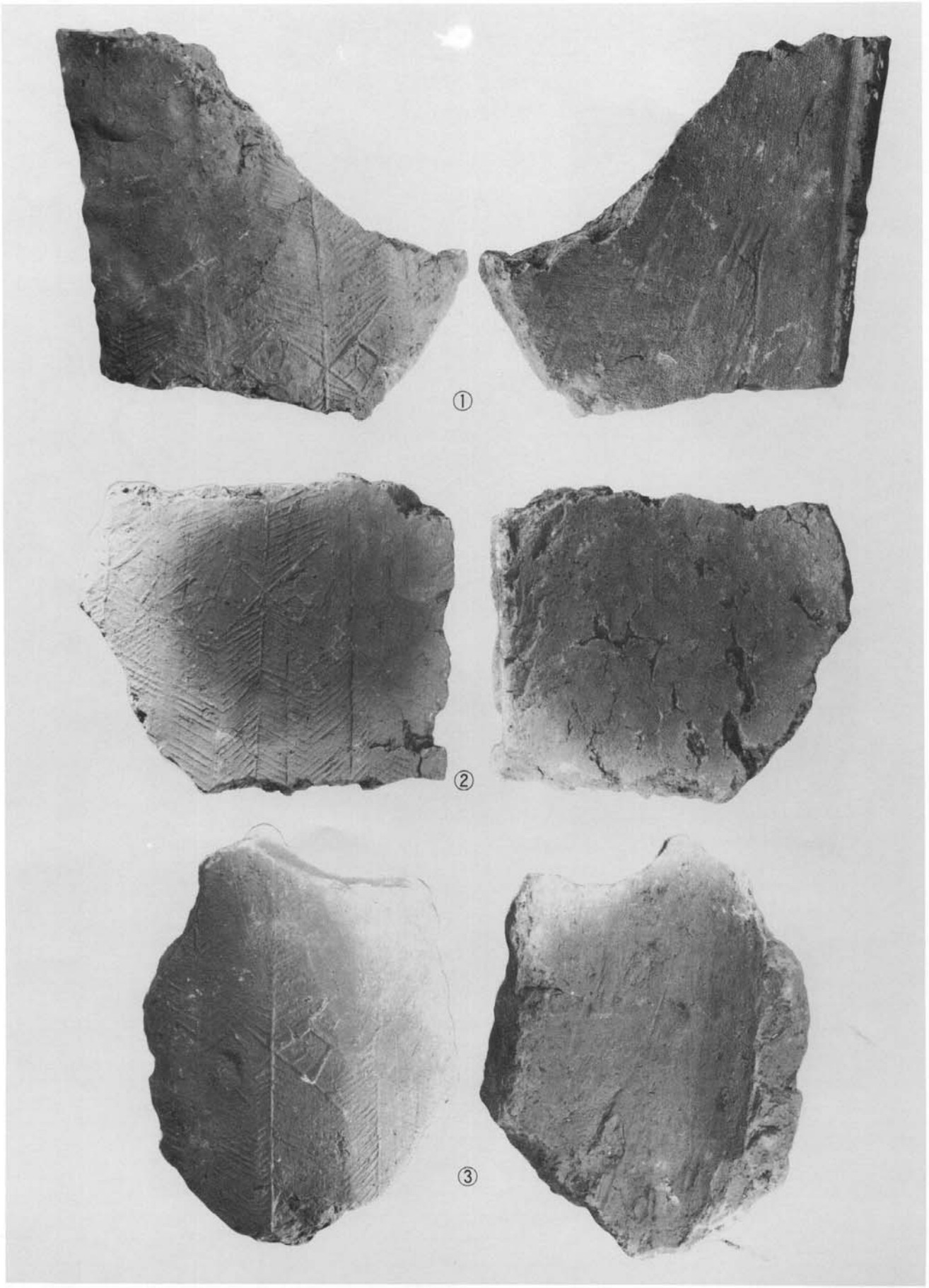


A지구 출토 異形기와(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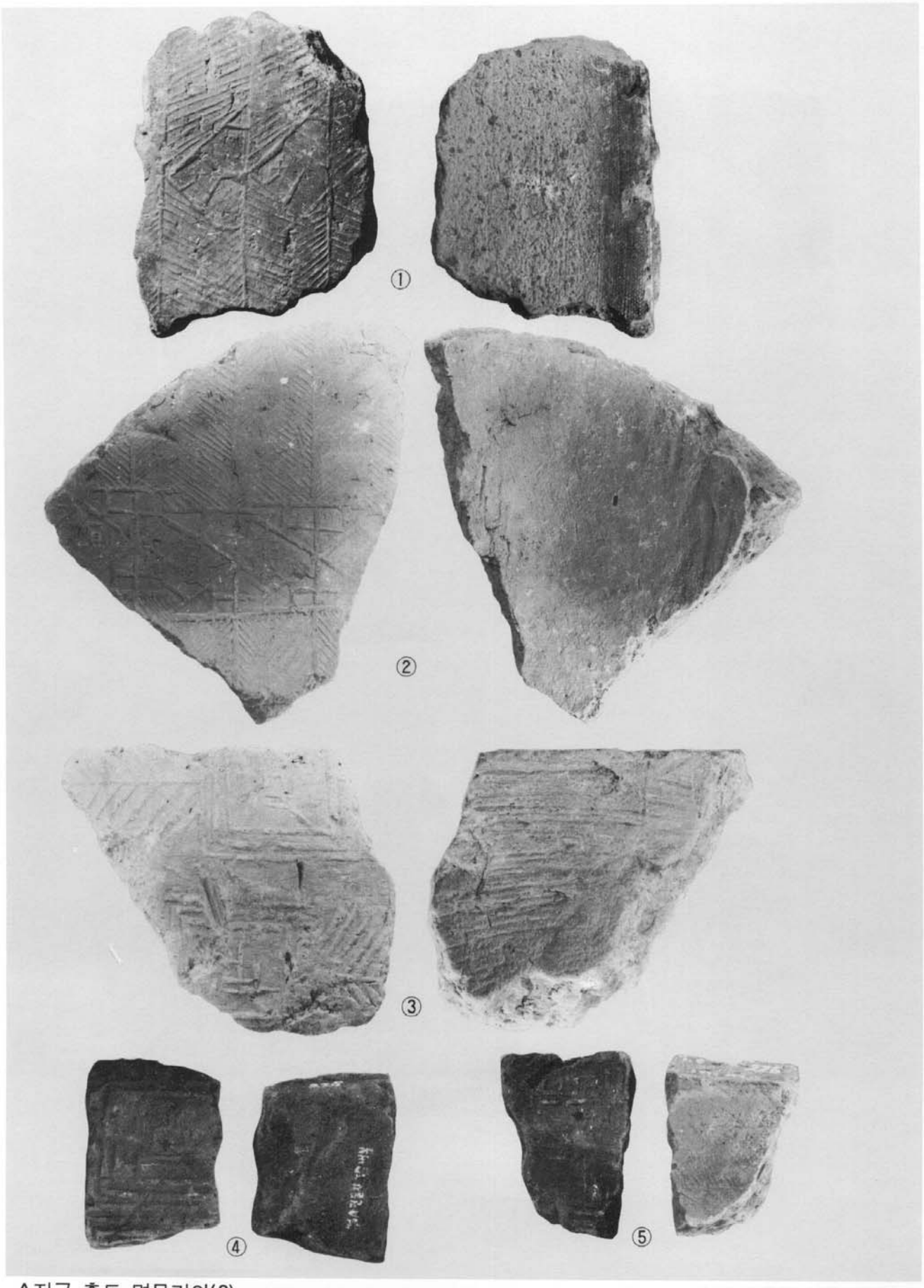


A지구 출토 異形기와(2)

도판 64



A지구 출토 명문기와(1)



A지구 출토 명문기와(2)

도판 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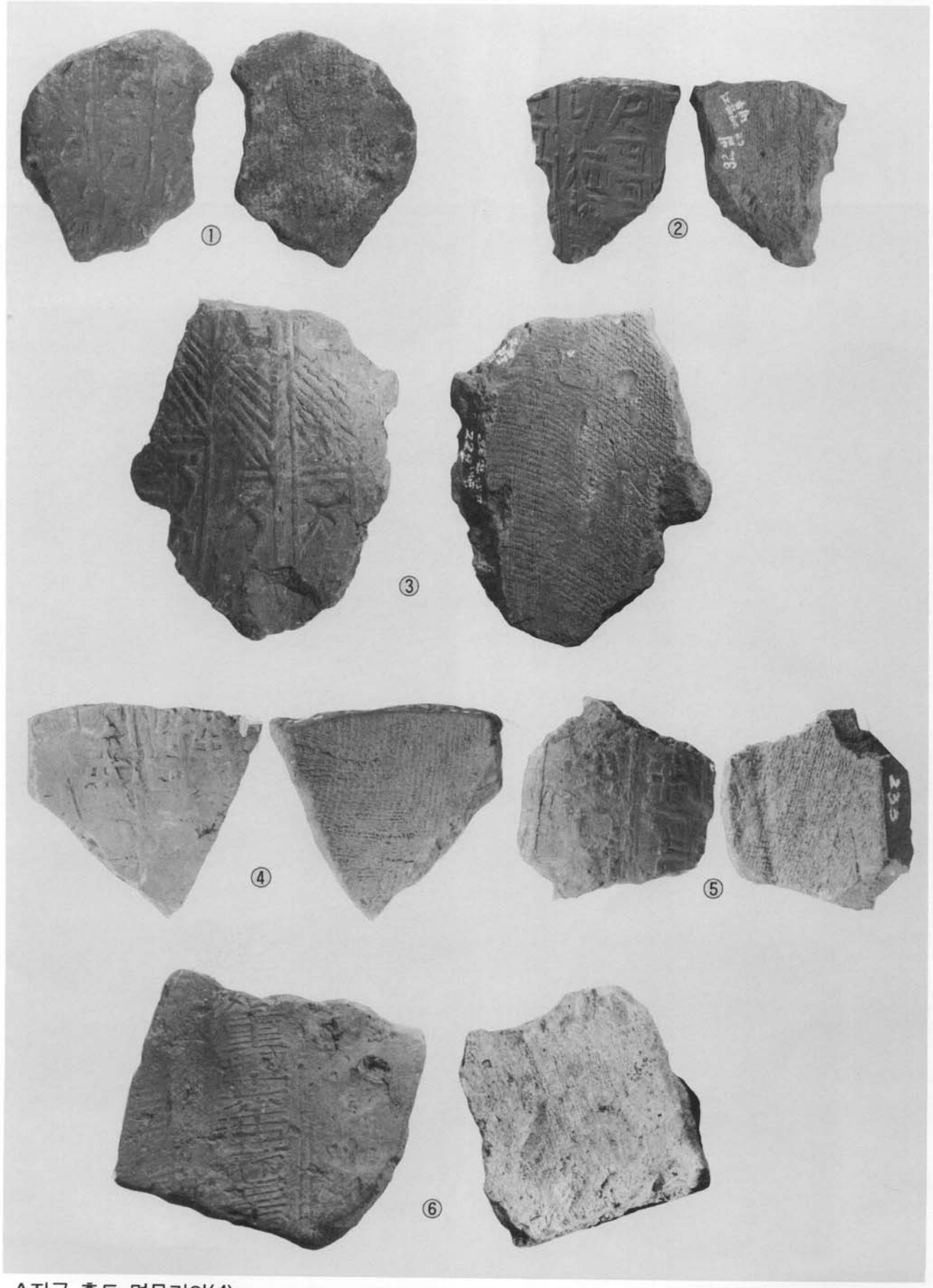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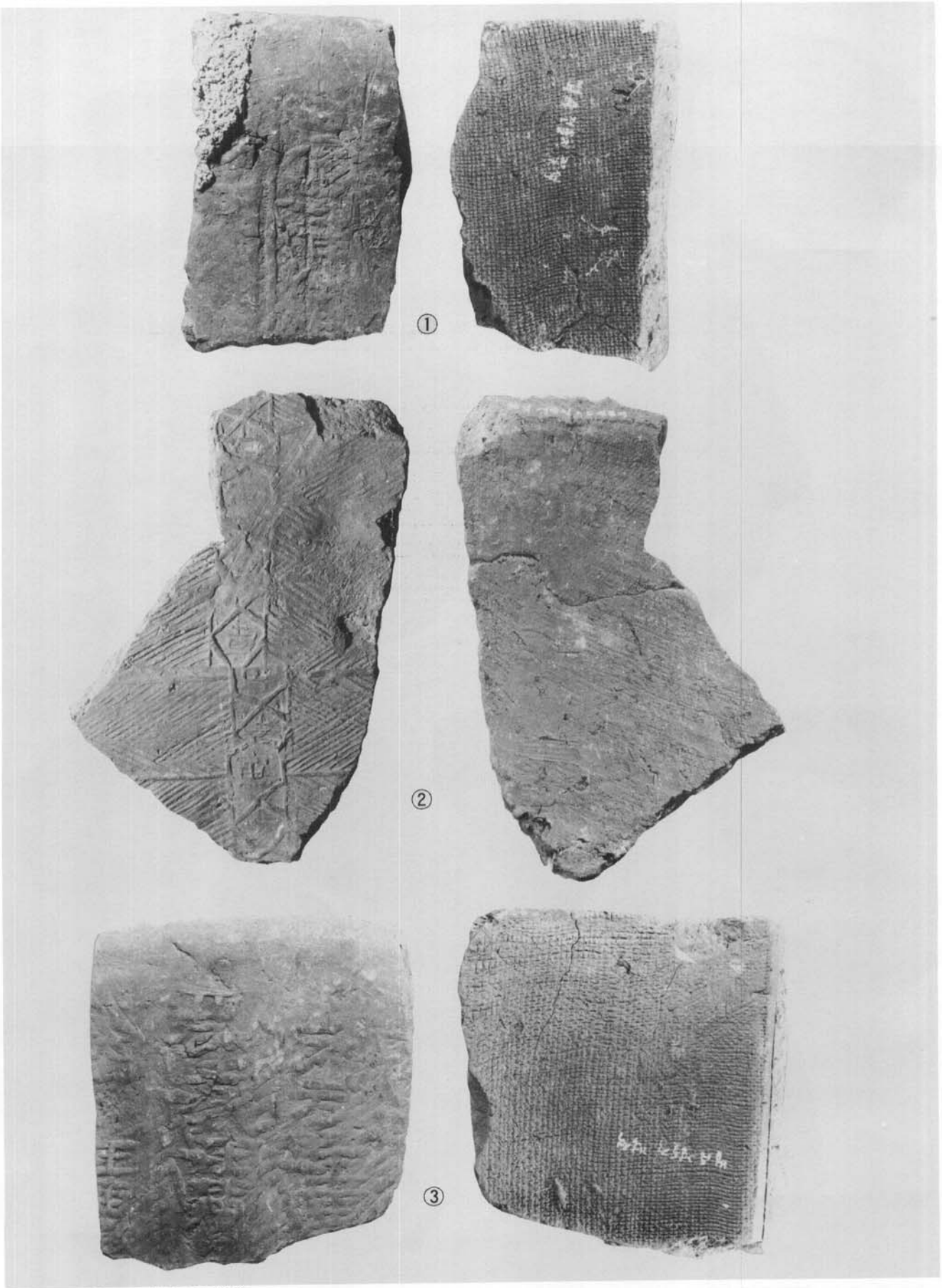
②

A지구 출토 명문기와(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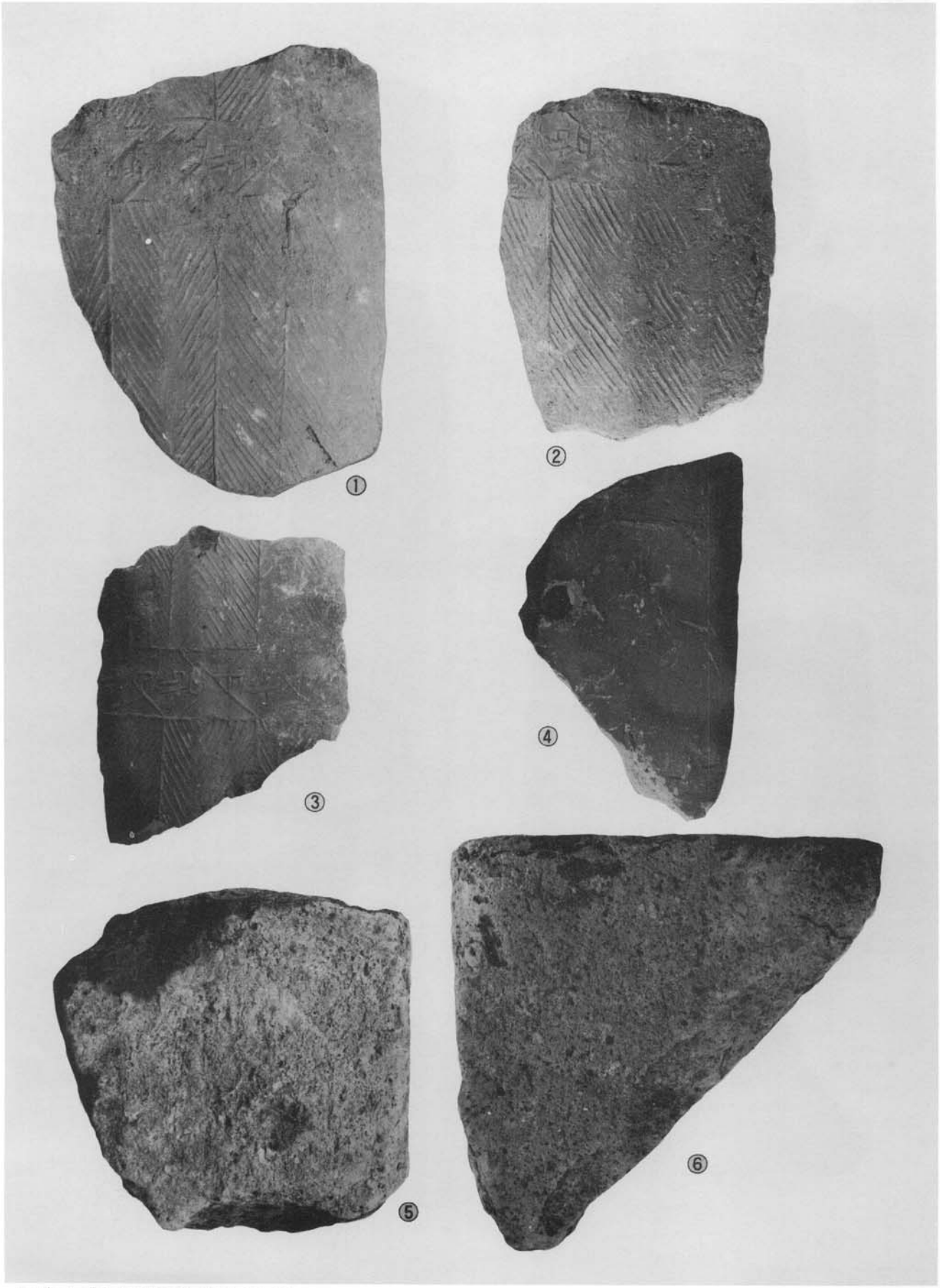


A지구 출토 명문기와(4)

도판 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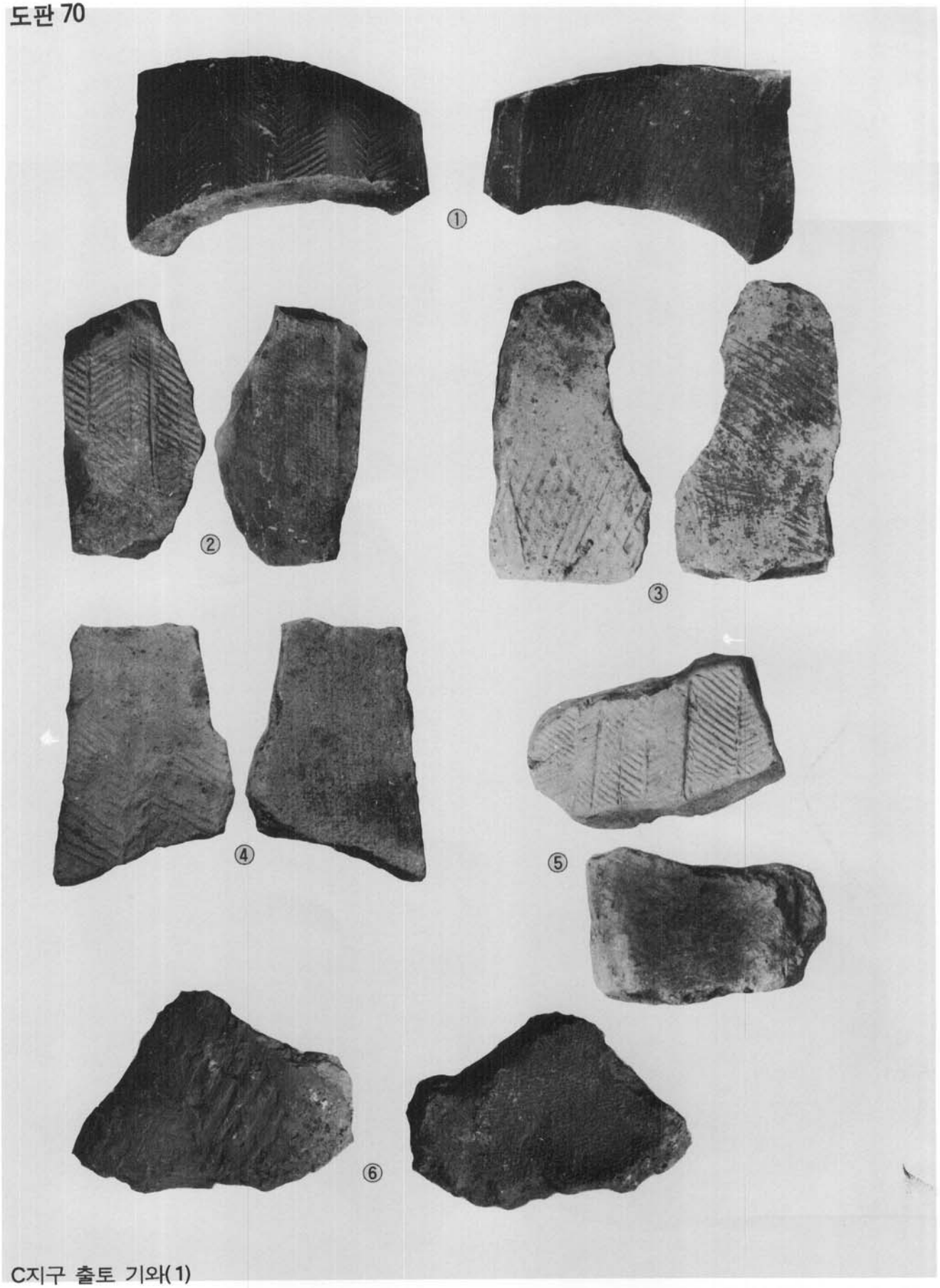


A지구 출토 명문기와(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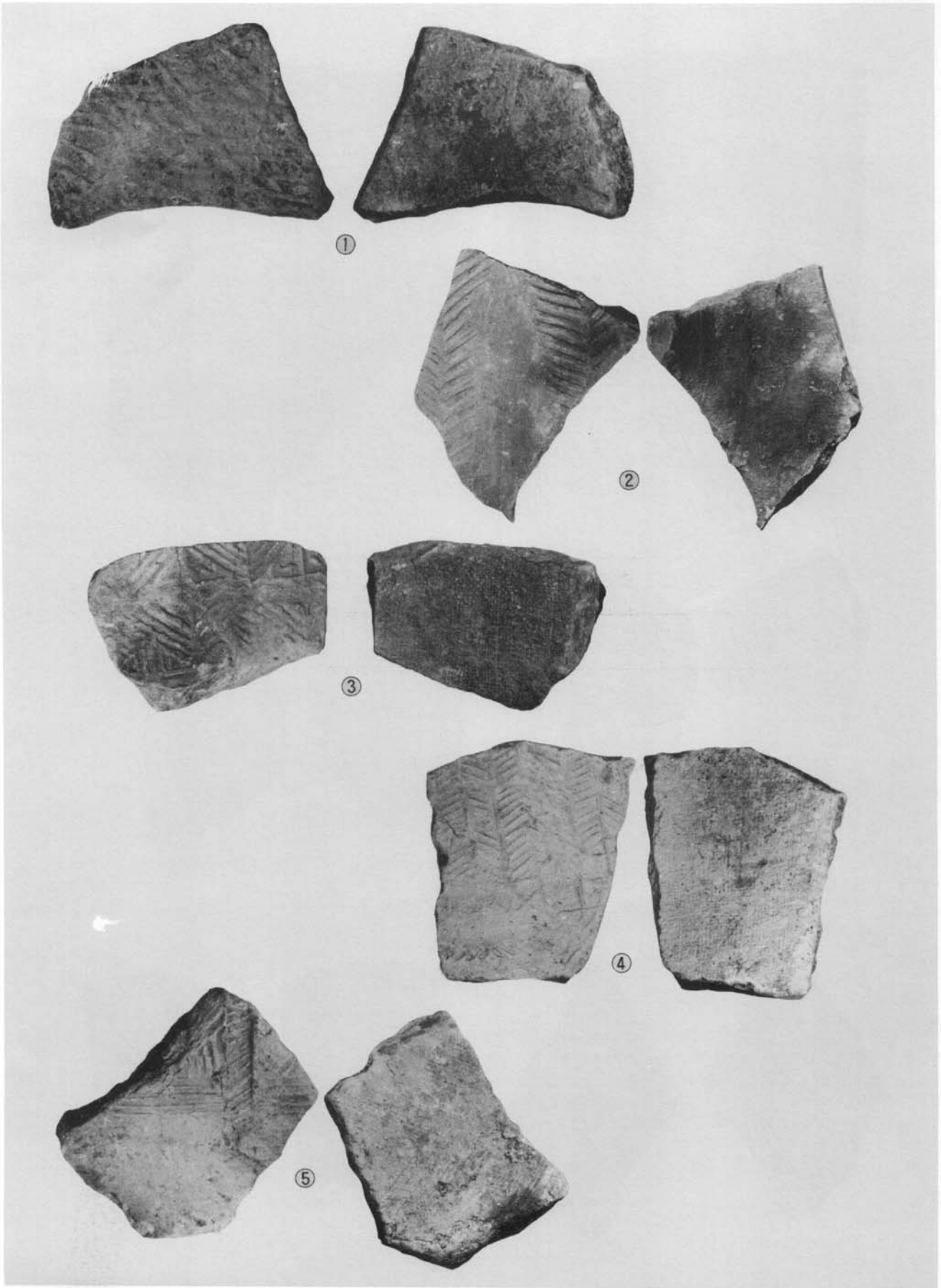


A지구 출토 명문와·특수와·전

도판 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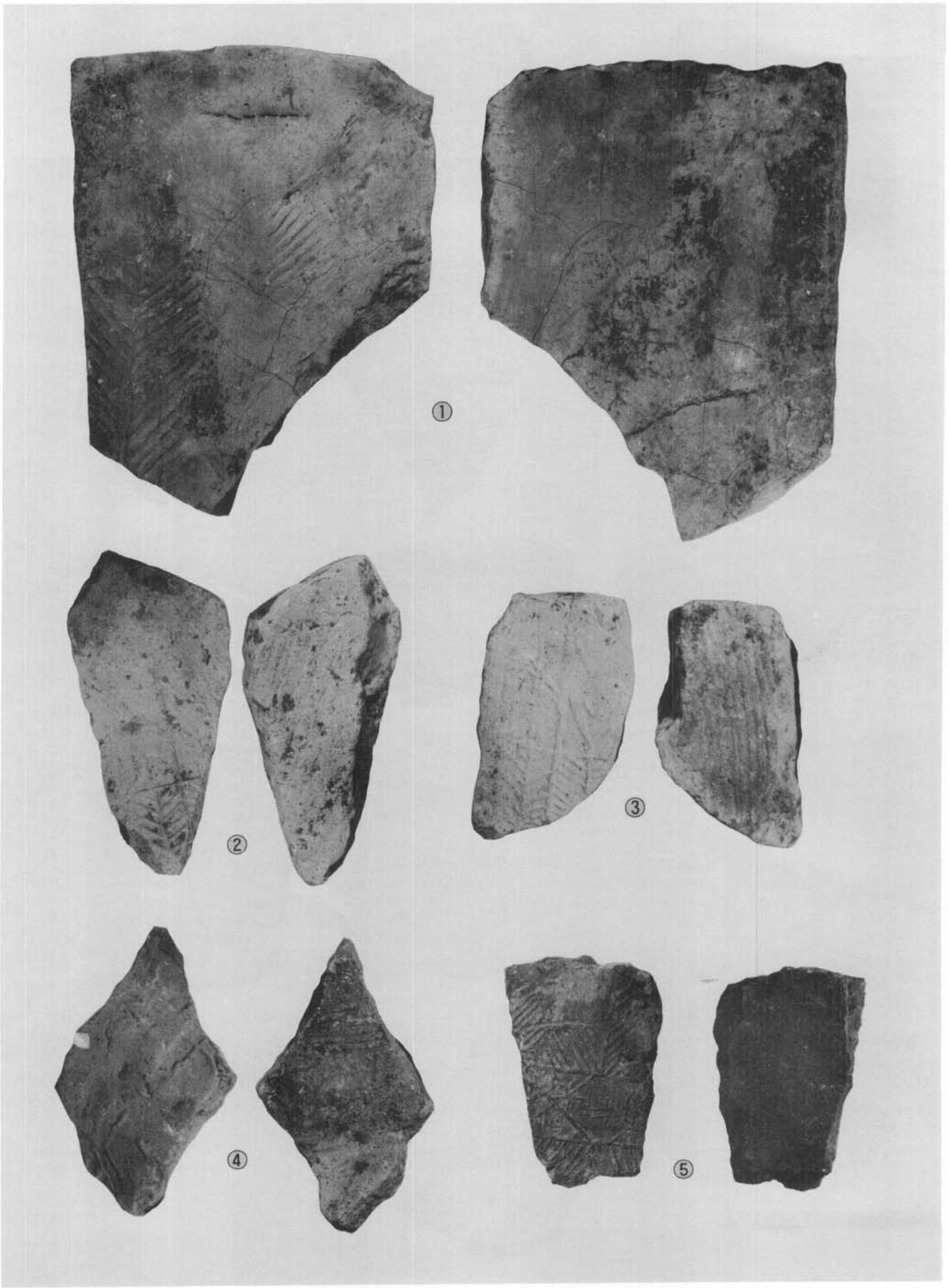


C지구 출토 기와(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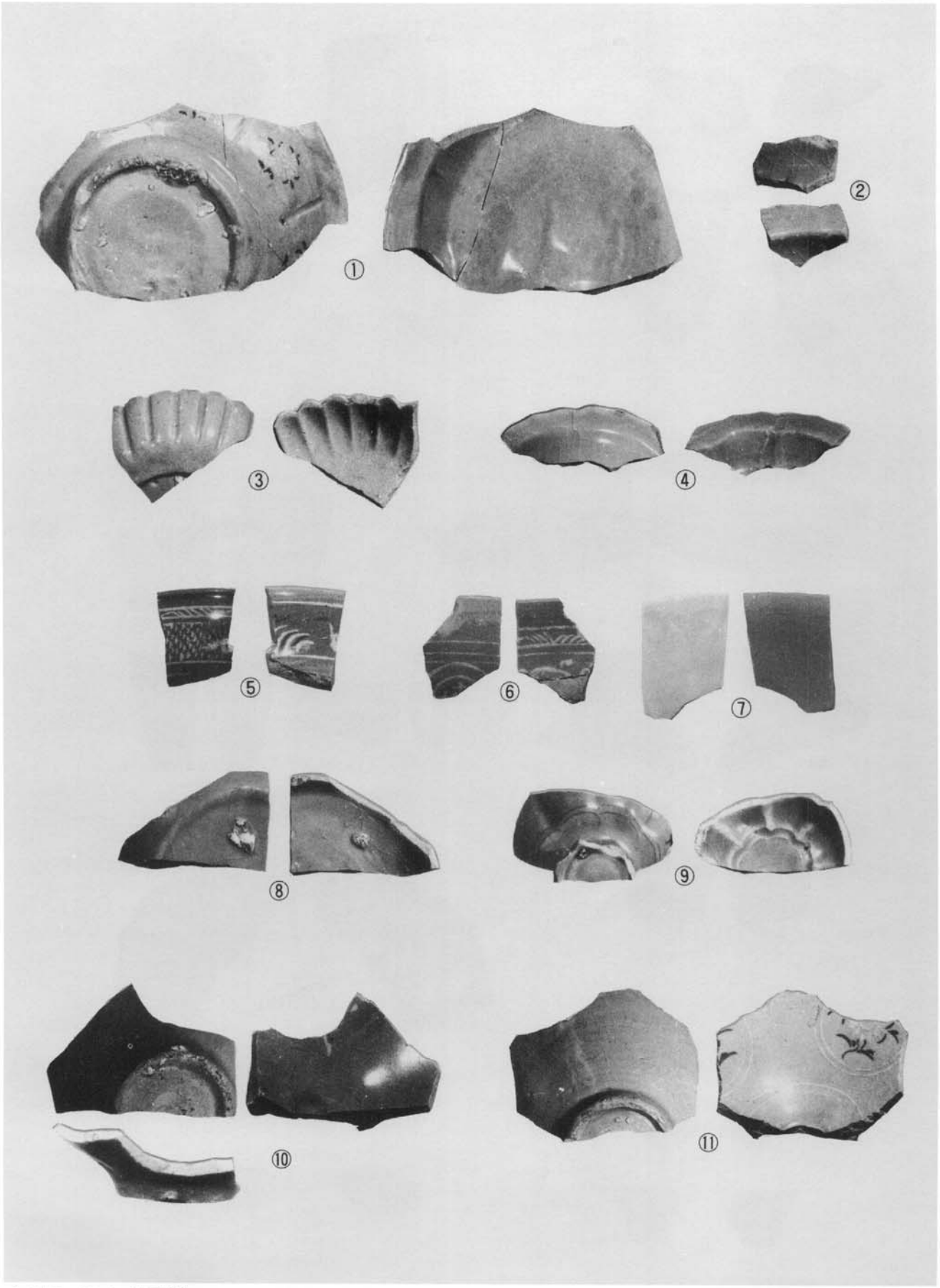


C지구 출토 기와(2)

도판 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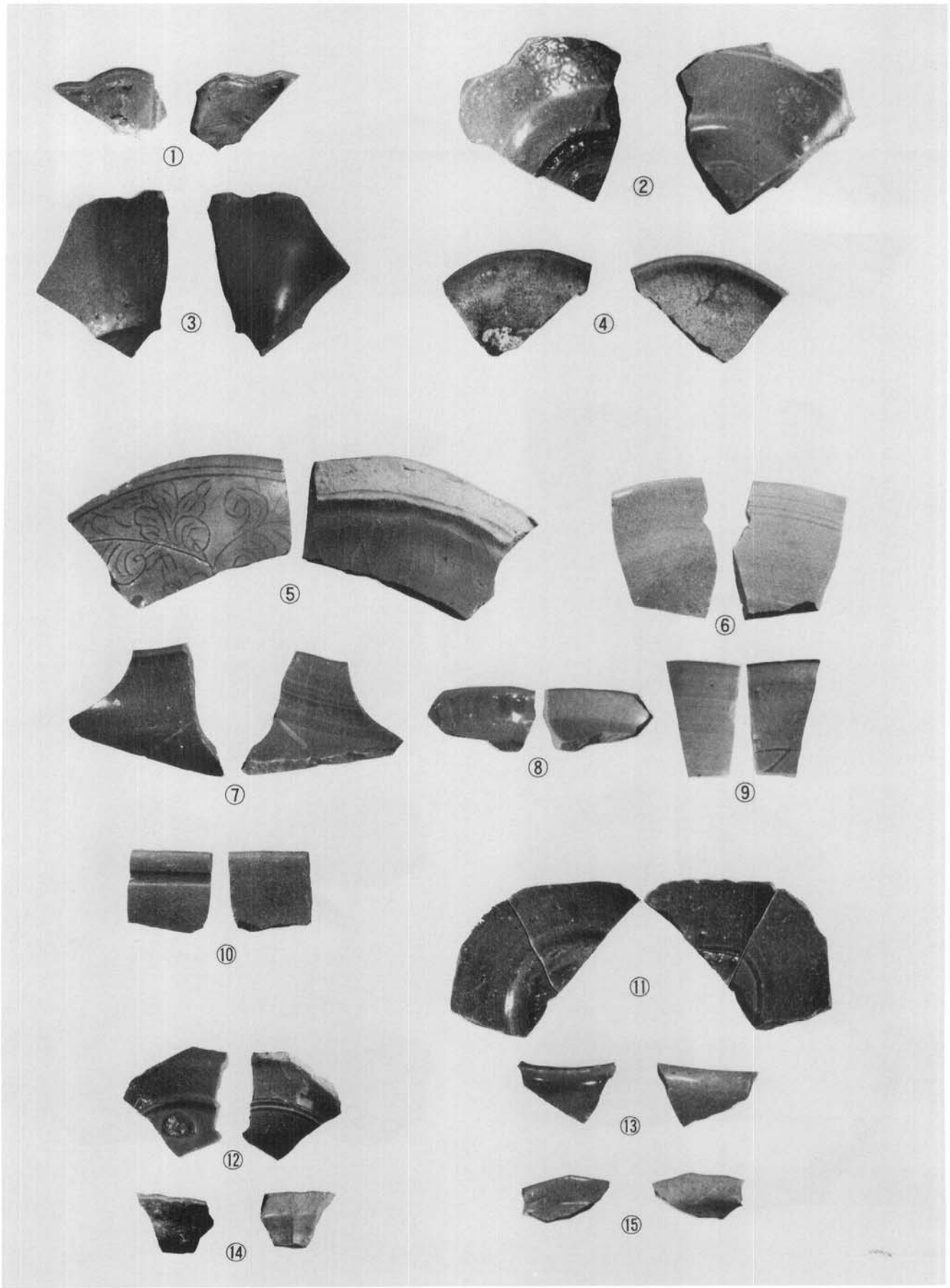


C지구 출토 기와(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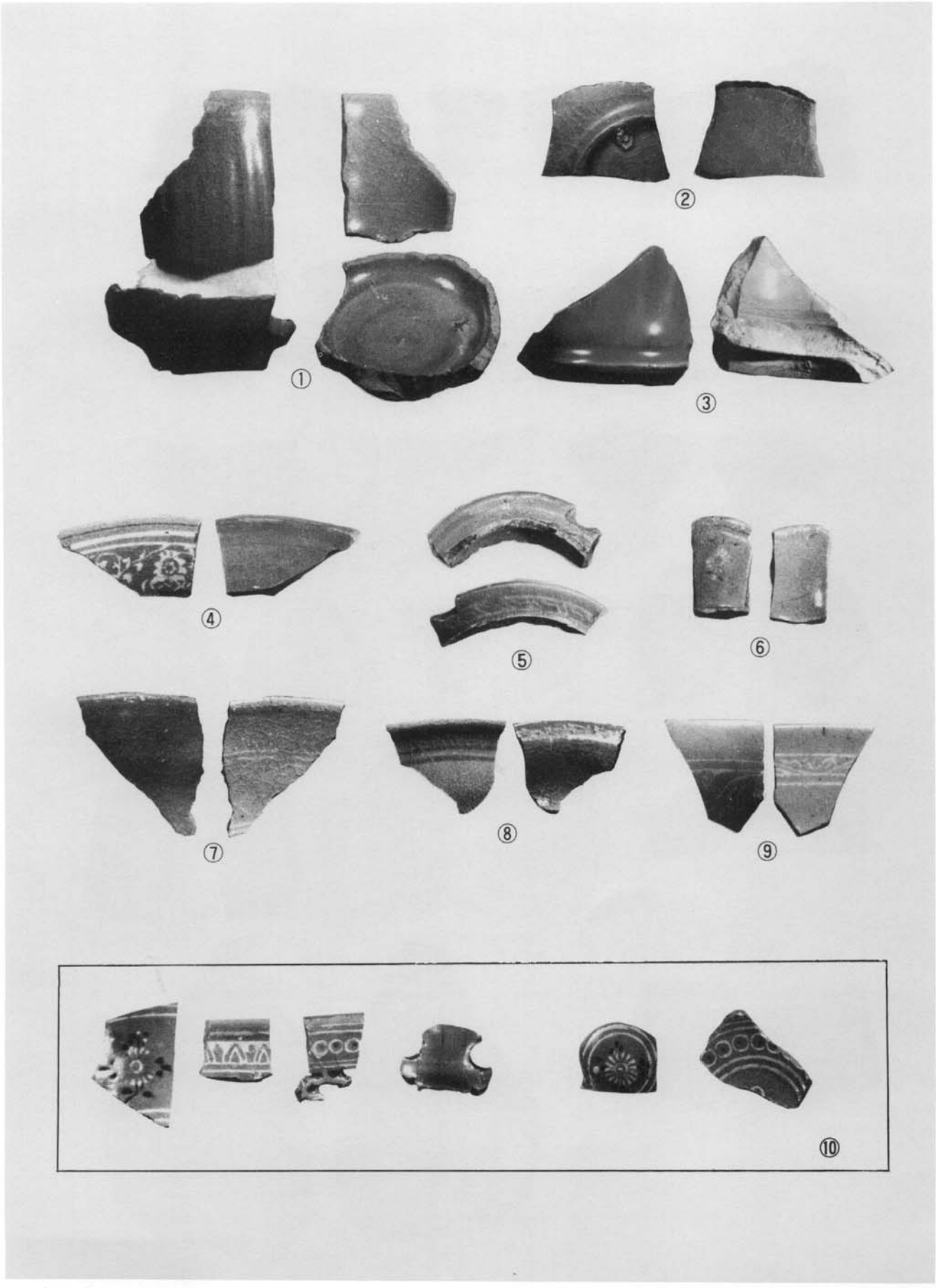


A지구 출토 청자(1)

도판 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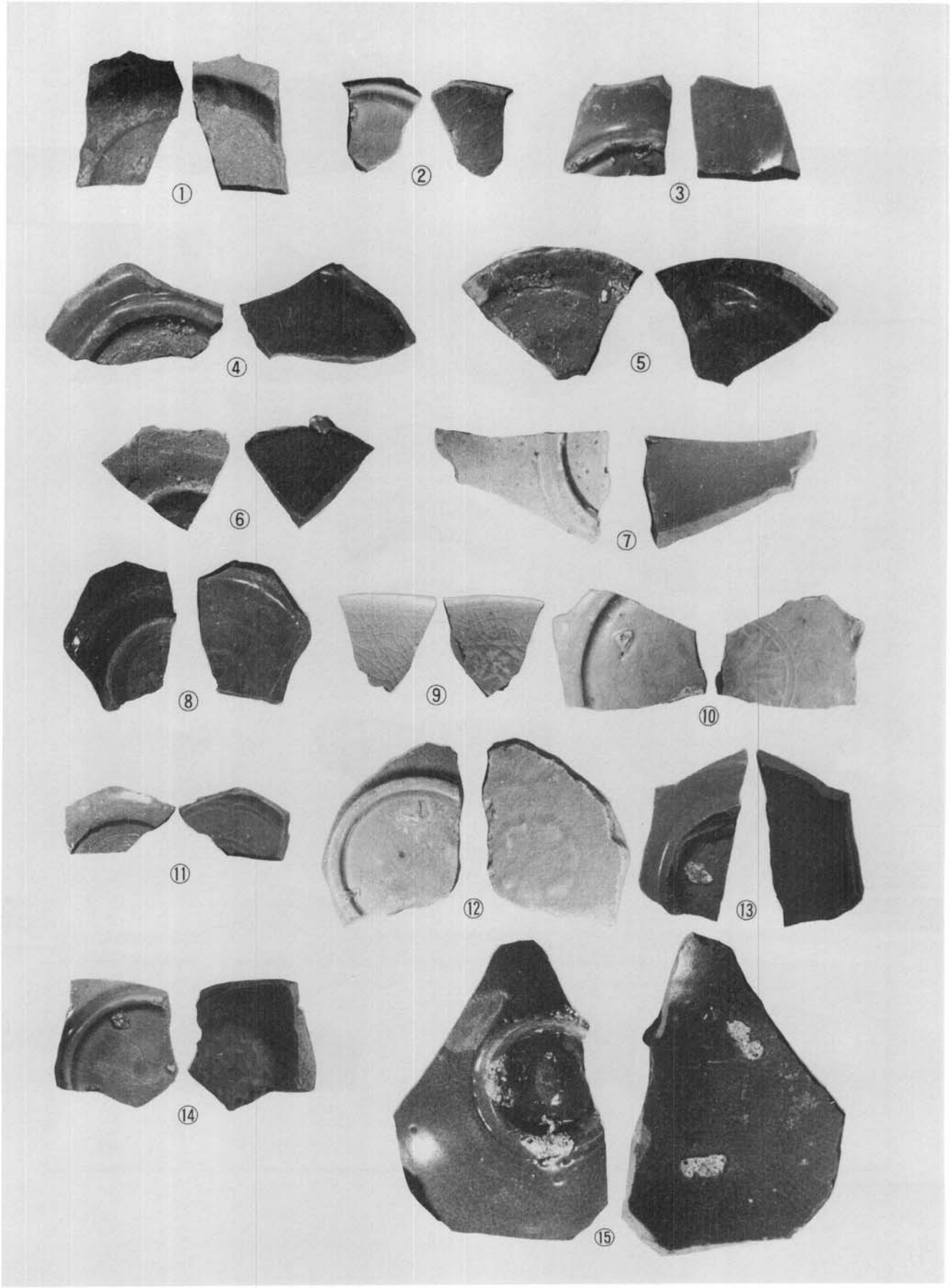


A지구 출토 청자(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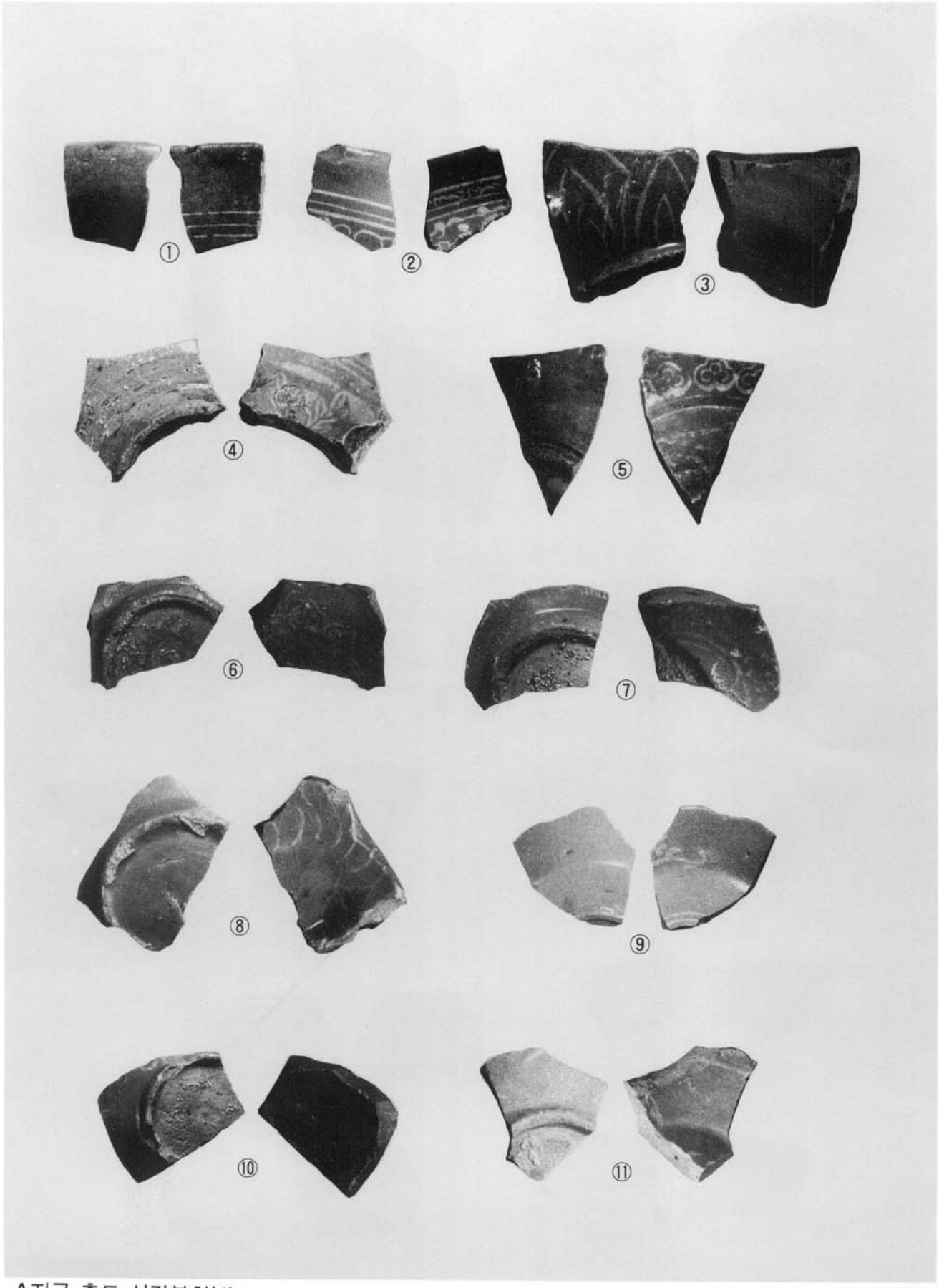


A지구 출토 청자(3)

도판 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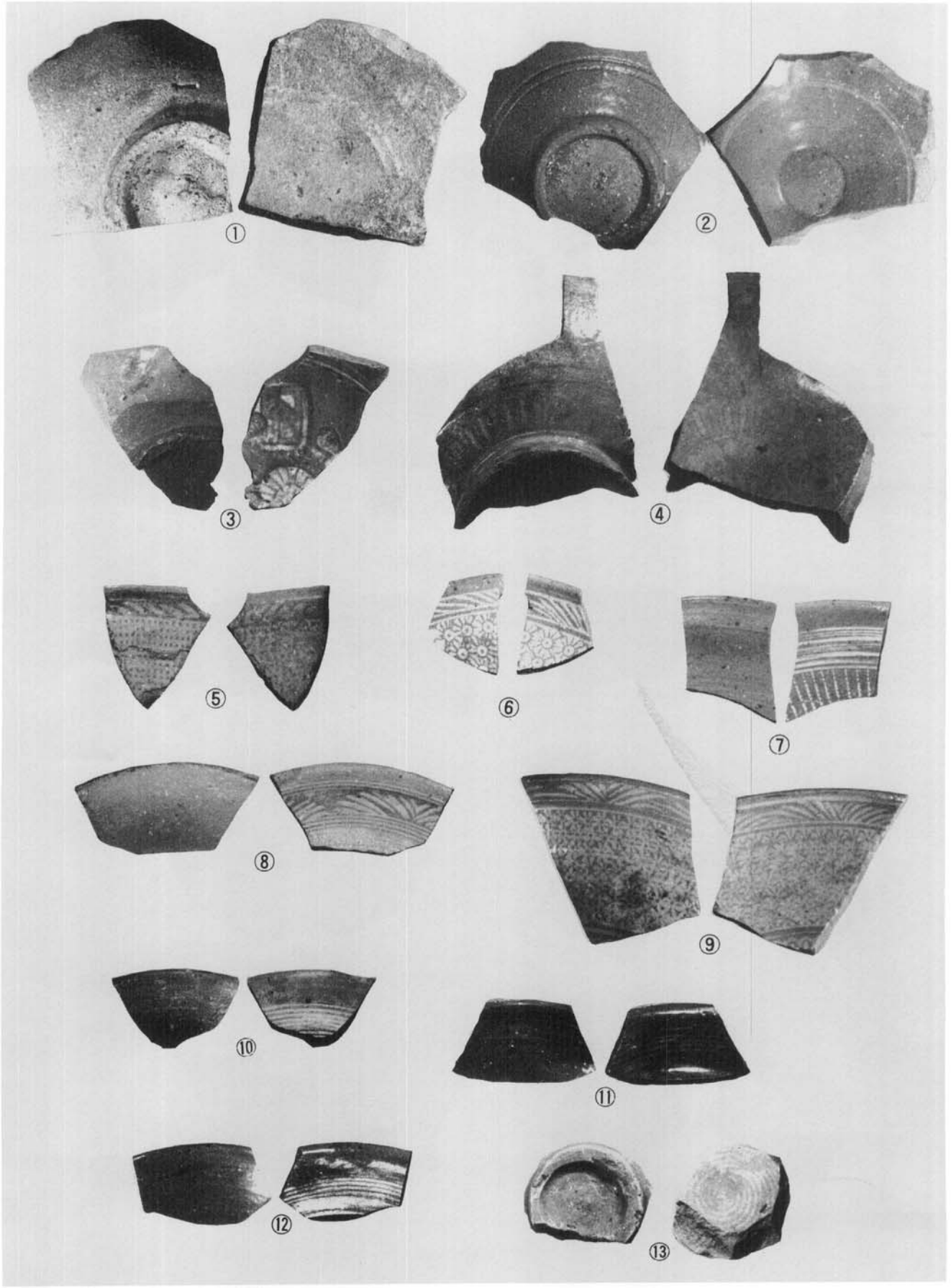


A지구 출토 청자(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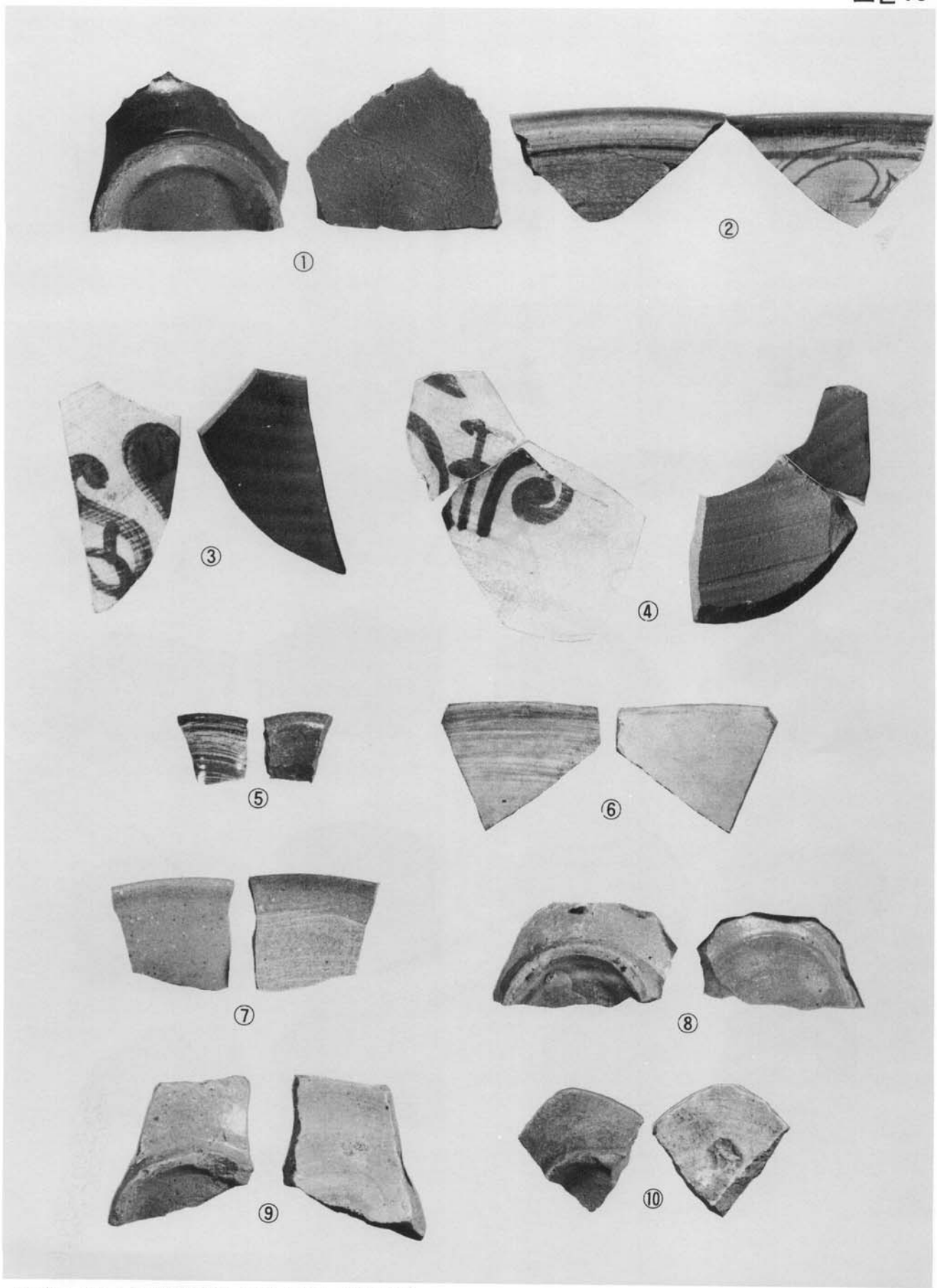


A지구 출토 상감분청(1)

도판 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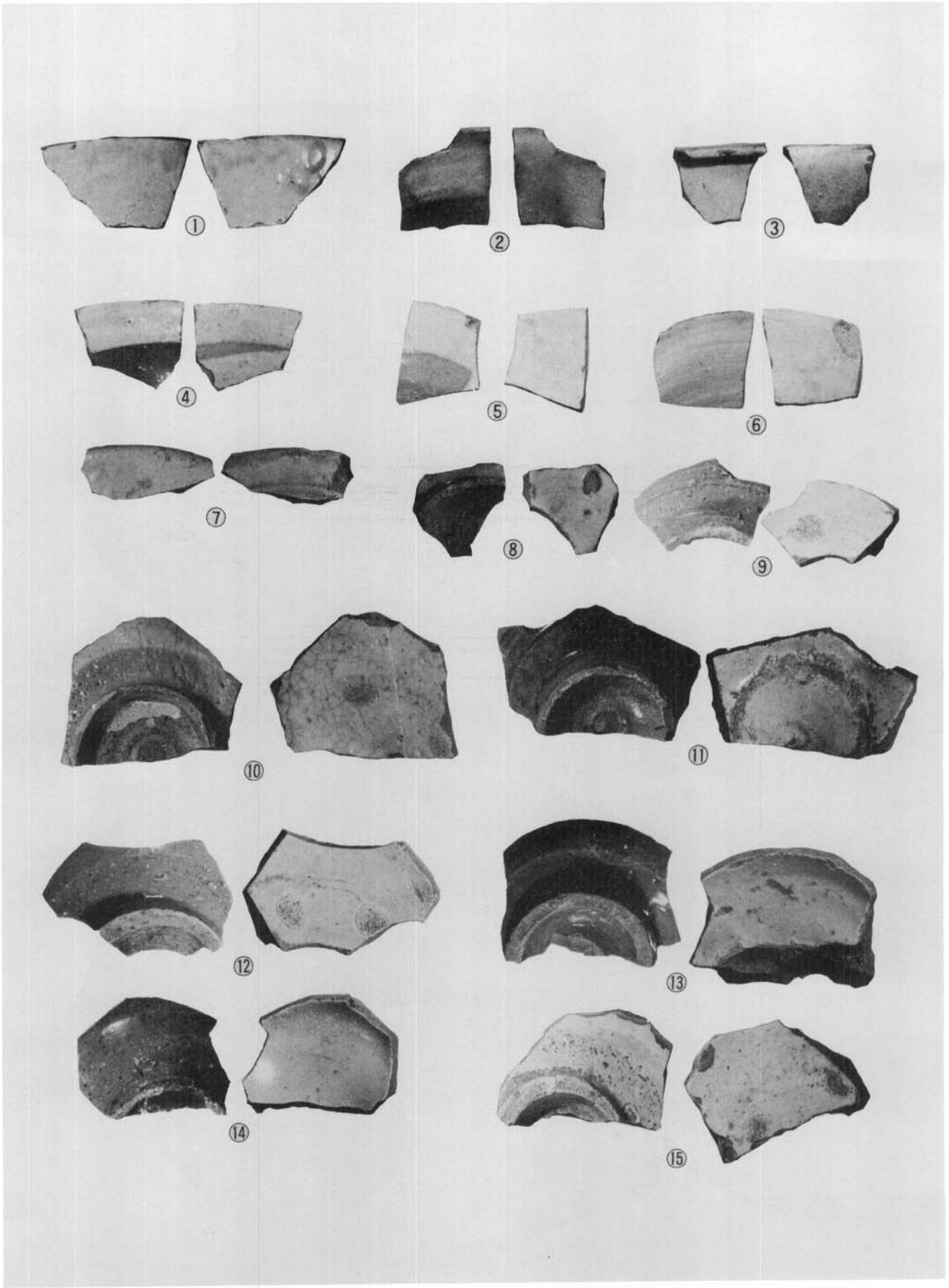


A지구 출토 상감·인화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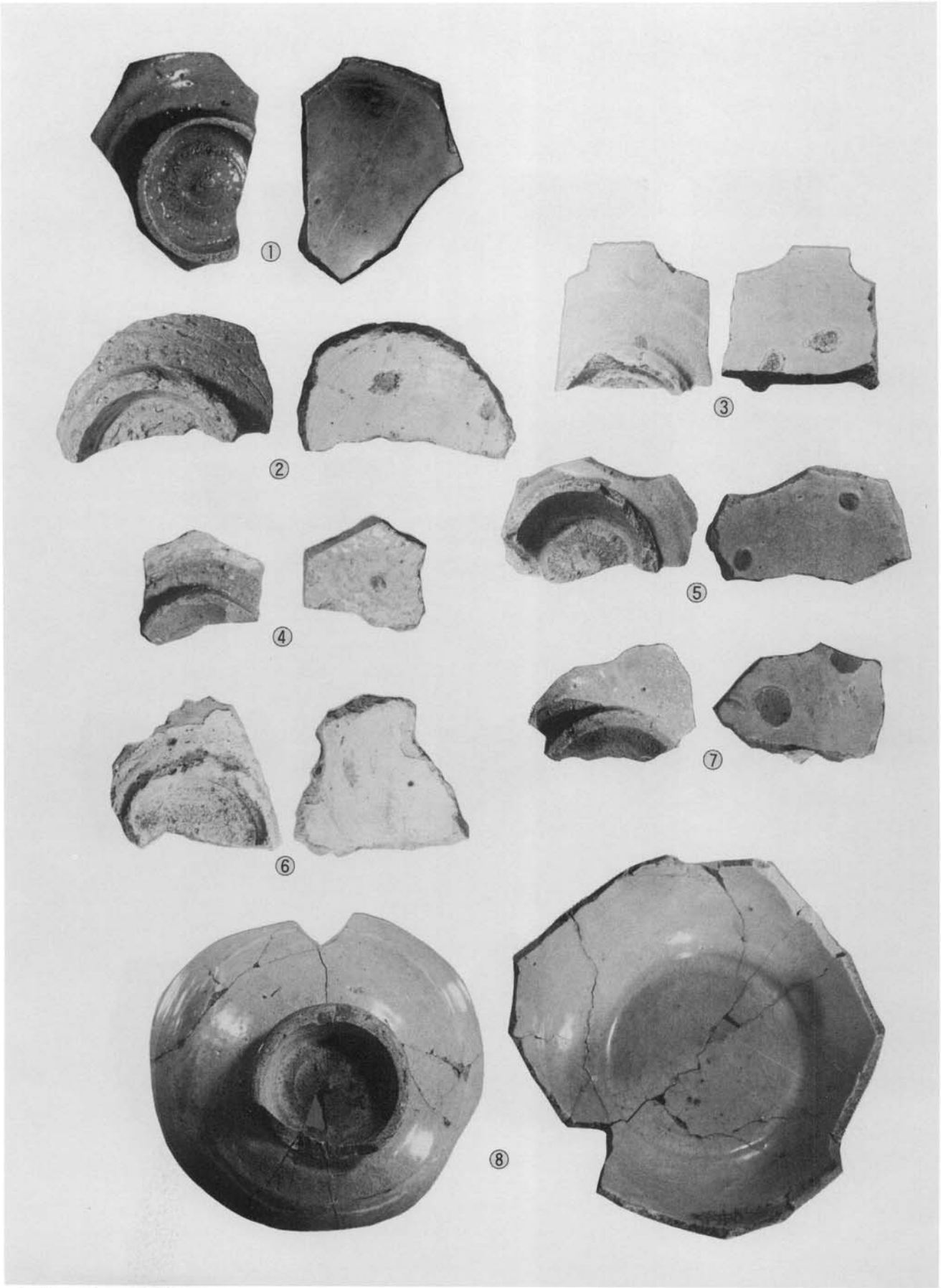


A지구 출토 조선청자와 조화·철화·귀얄분청

도판 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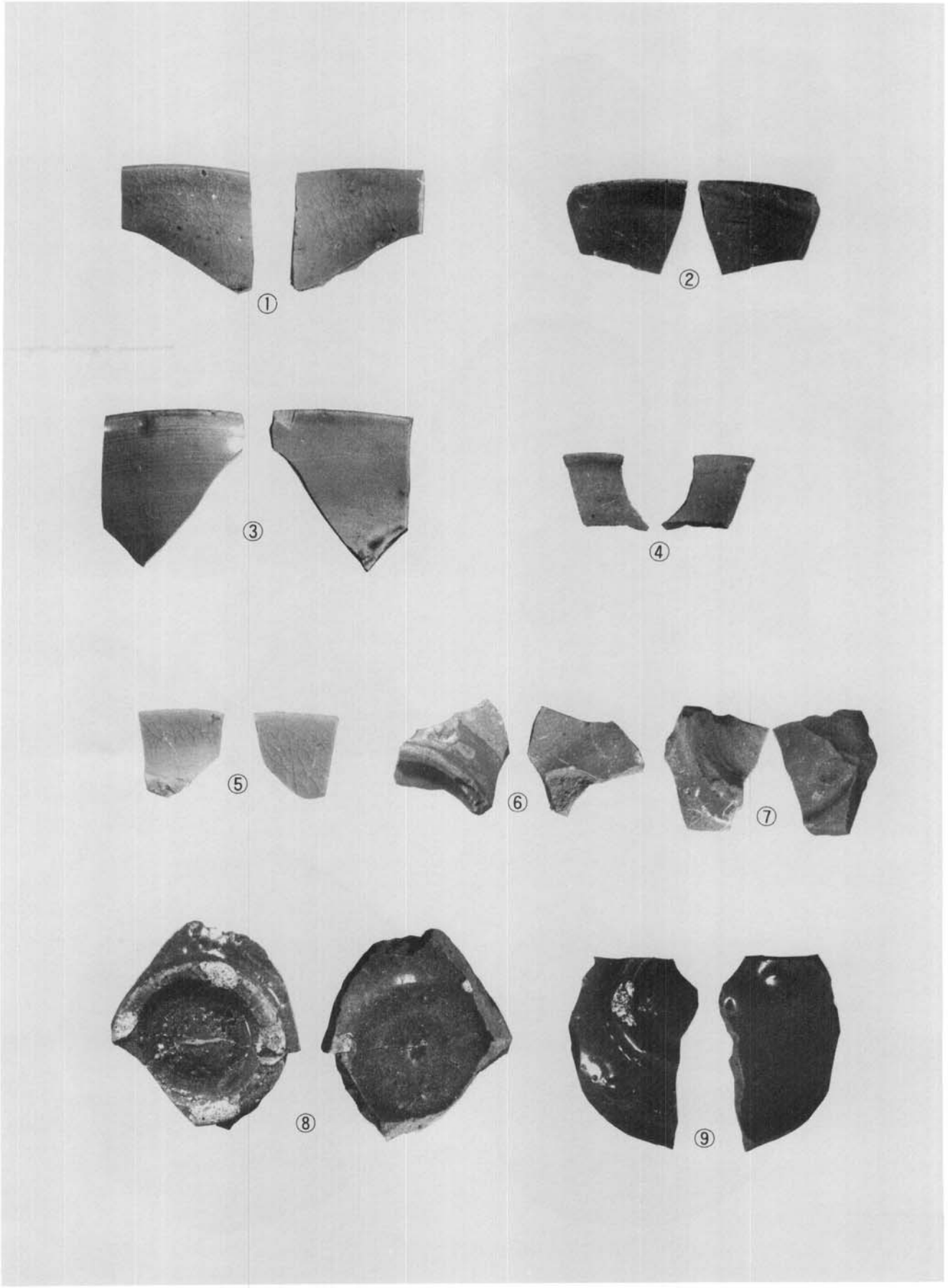


A지구 출토 덤벙분장분청(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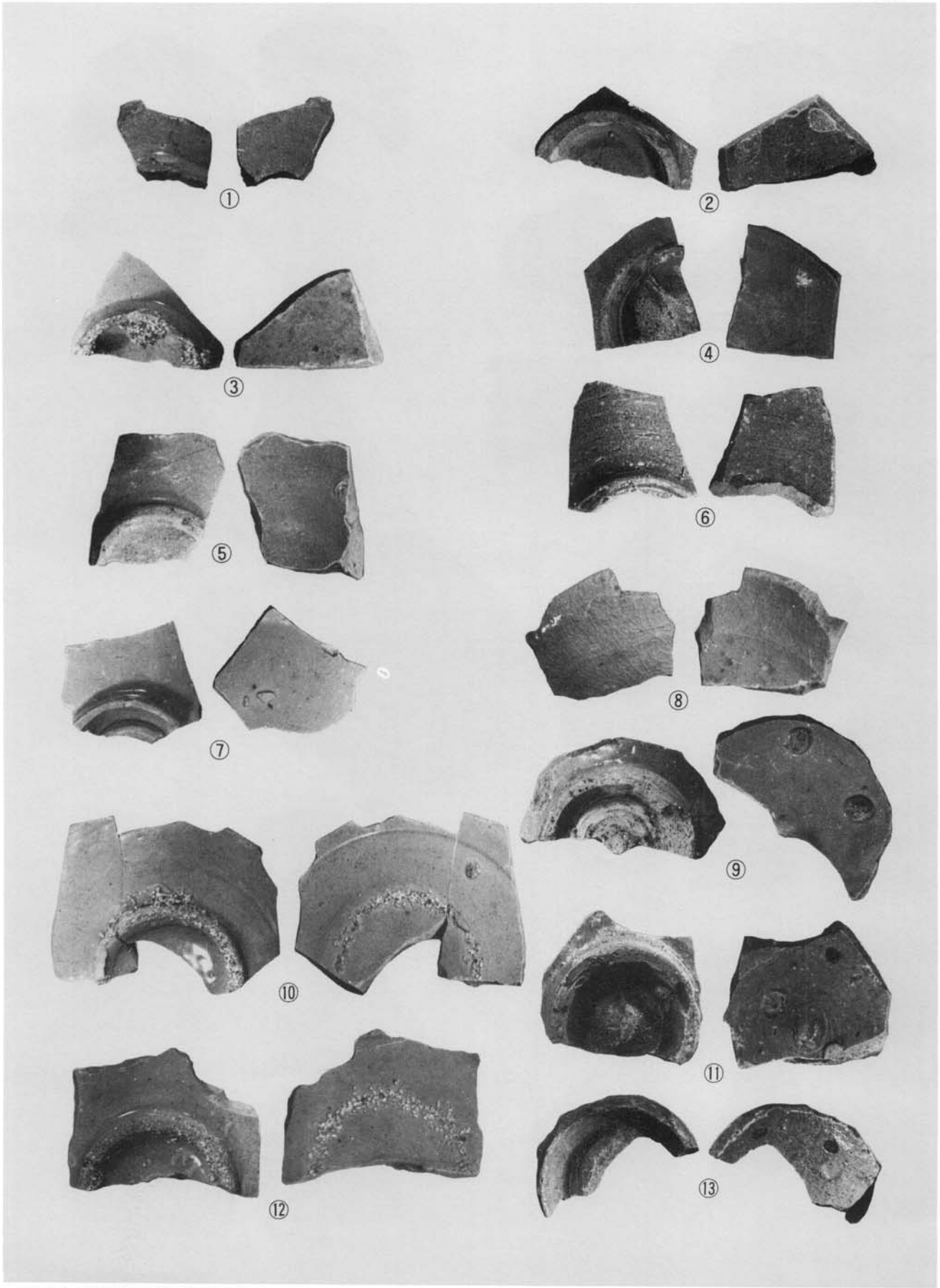


A지구 출토 덤벙분장분청(2)

도판 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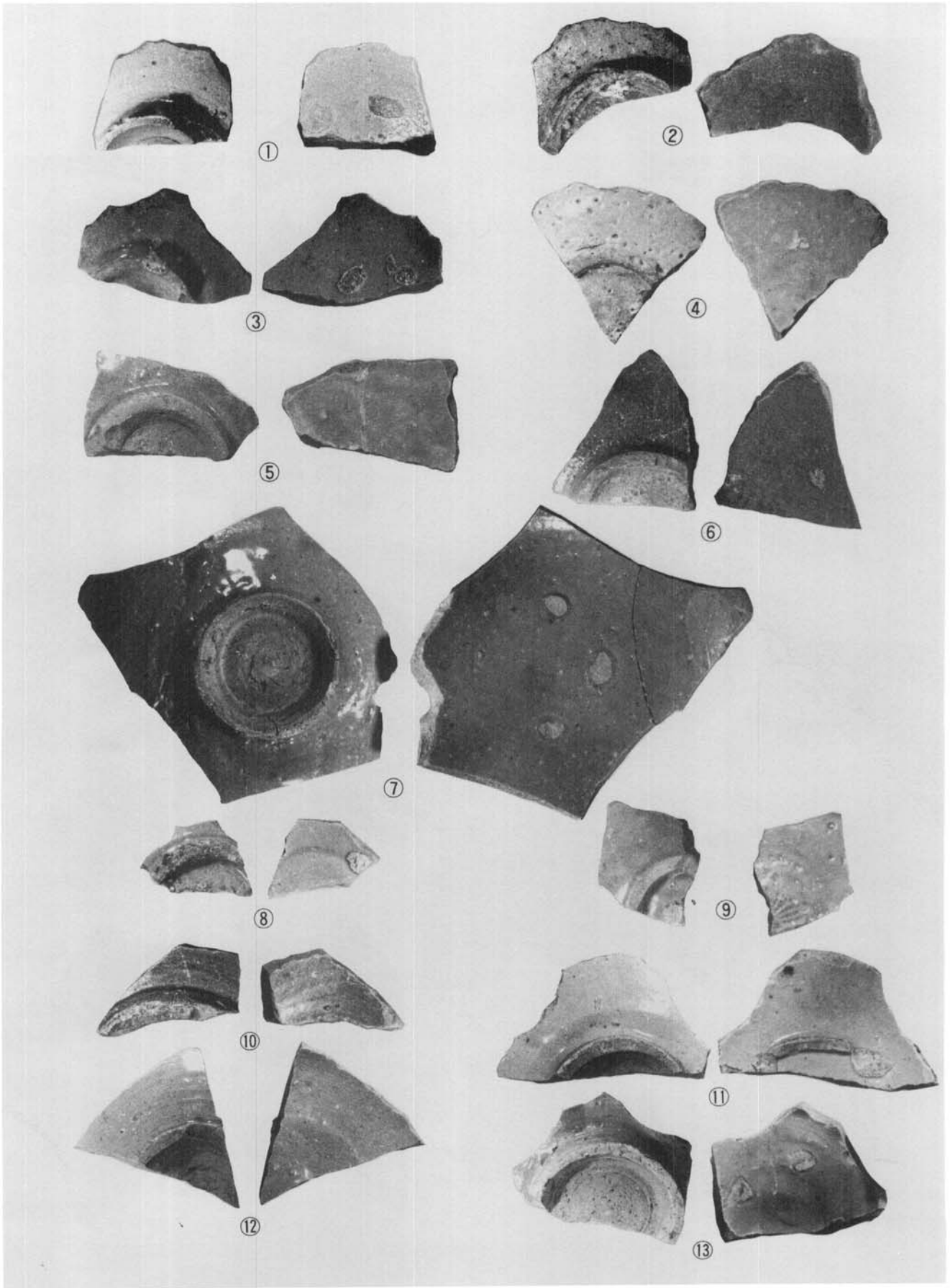


A지구 출토 기타 분청(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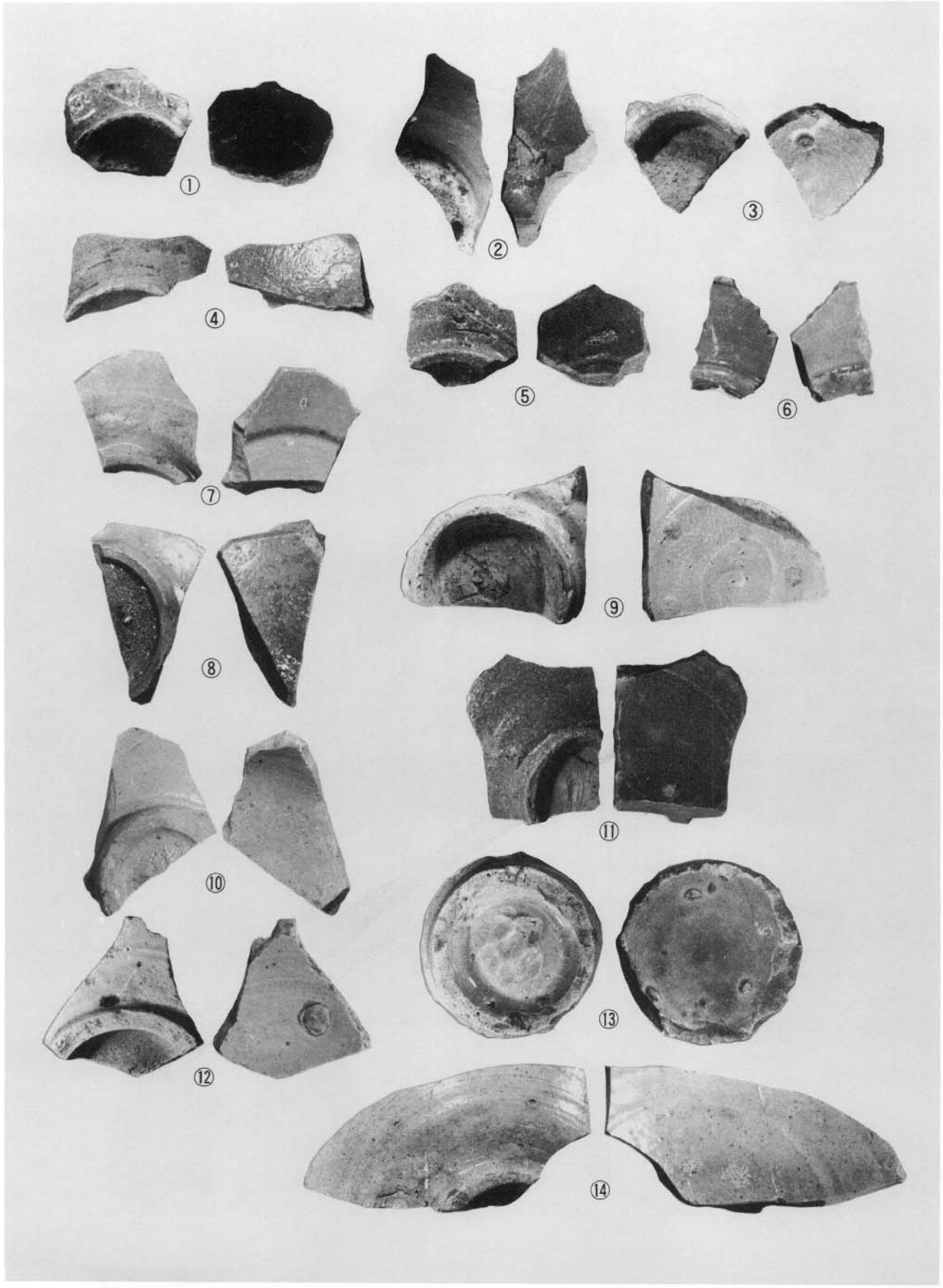


A지구 출토 기타 분청(2)

도판 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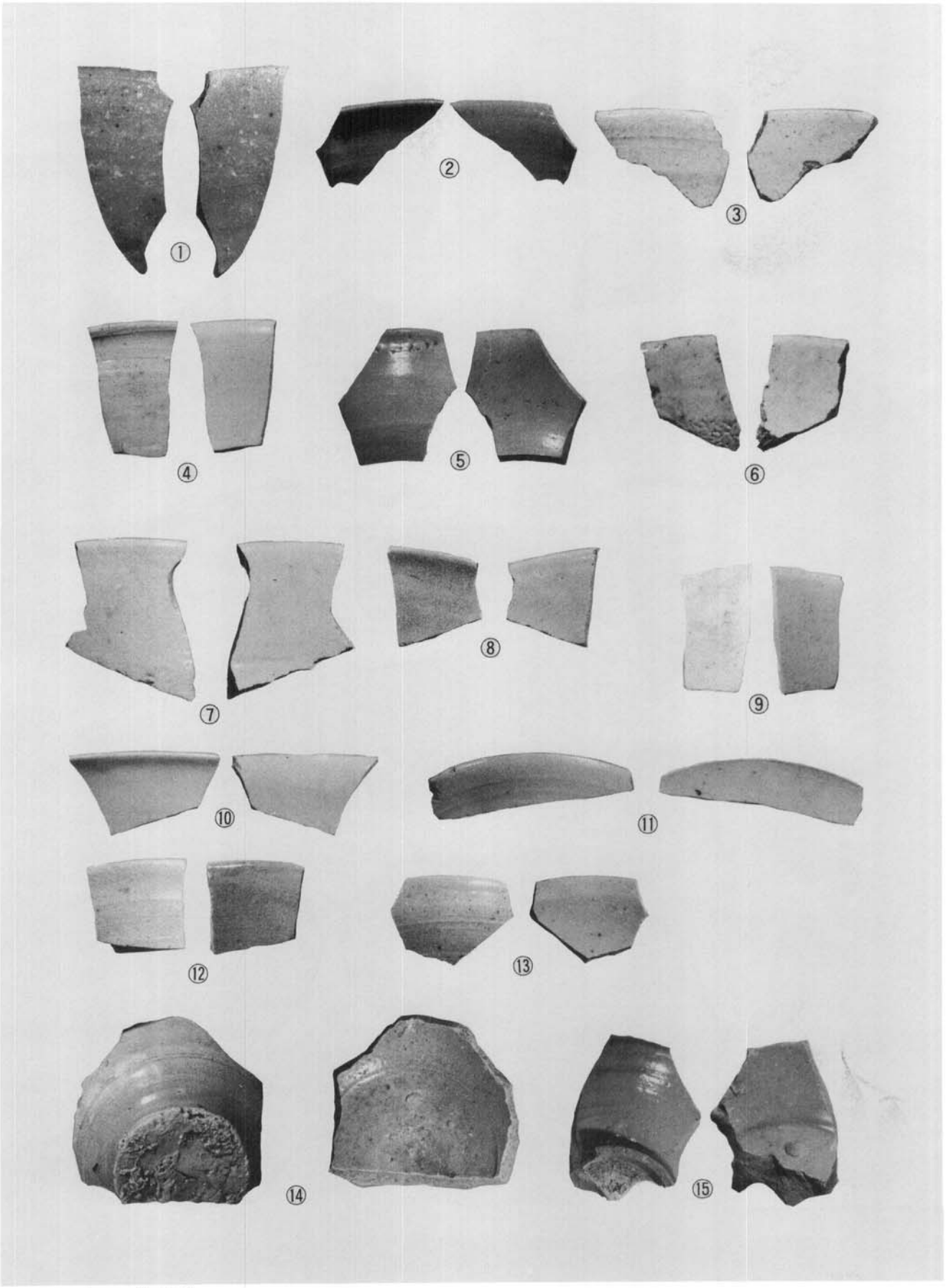


A지구 출토 기타 분청(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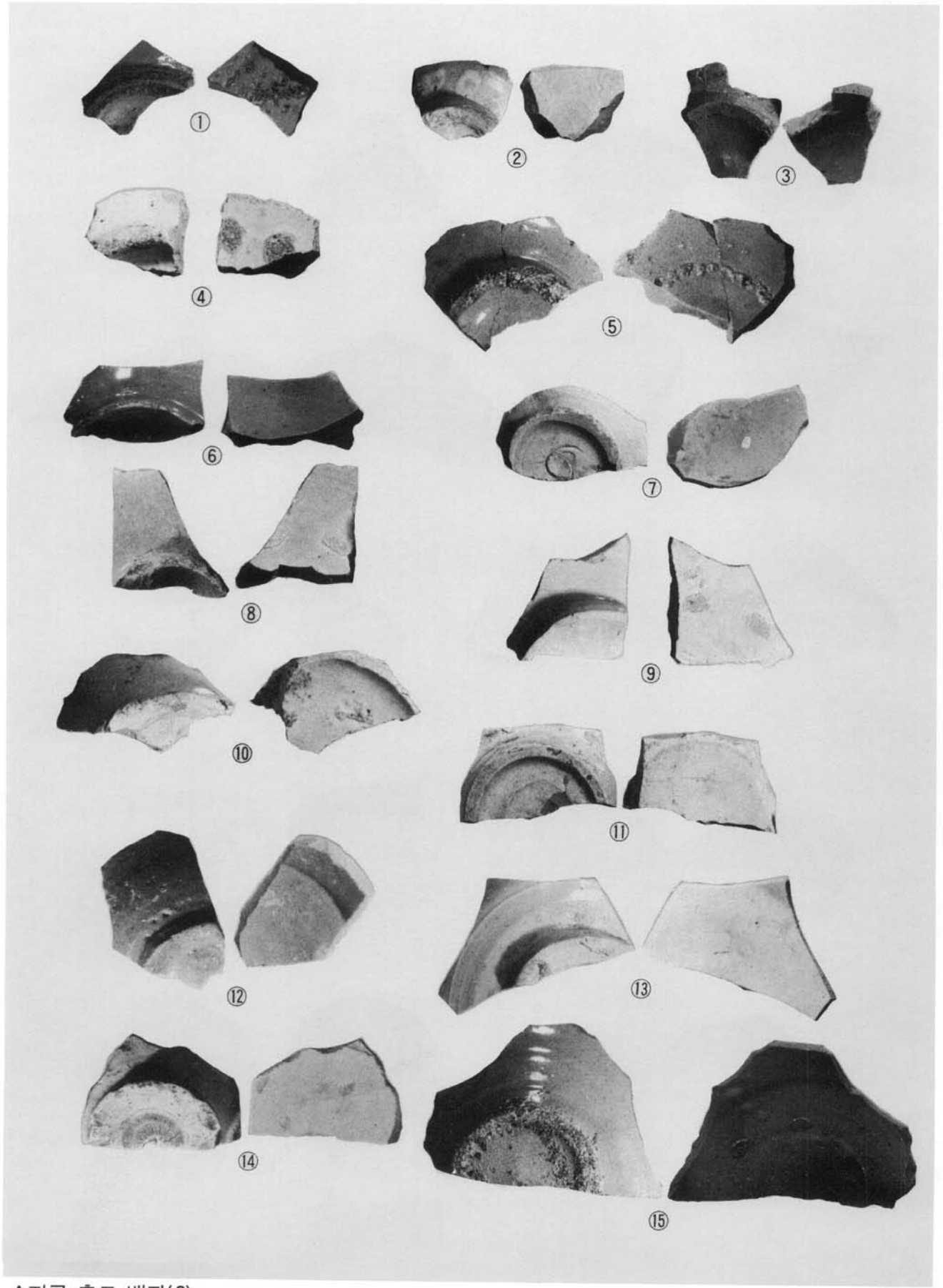


A지구 출토 기타 분청(4)

도판 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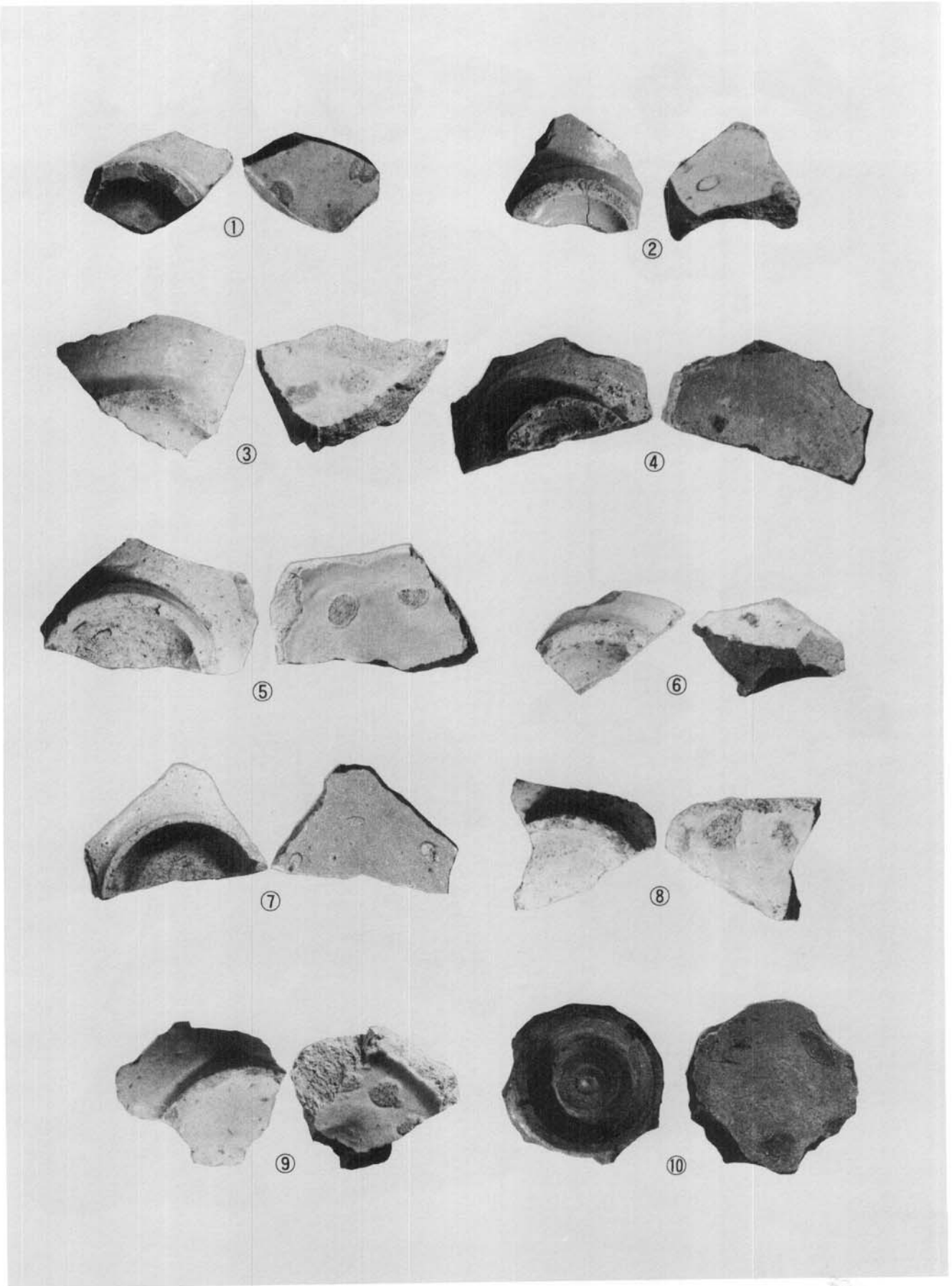


A지구 출토 백자(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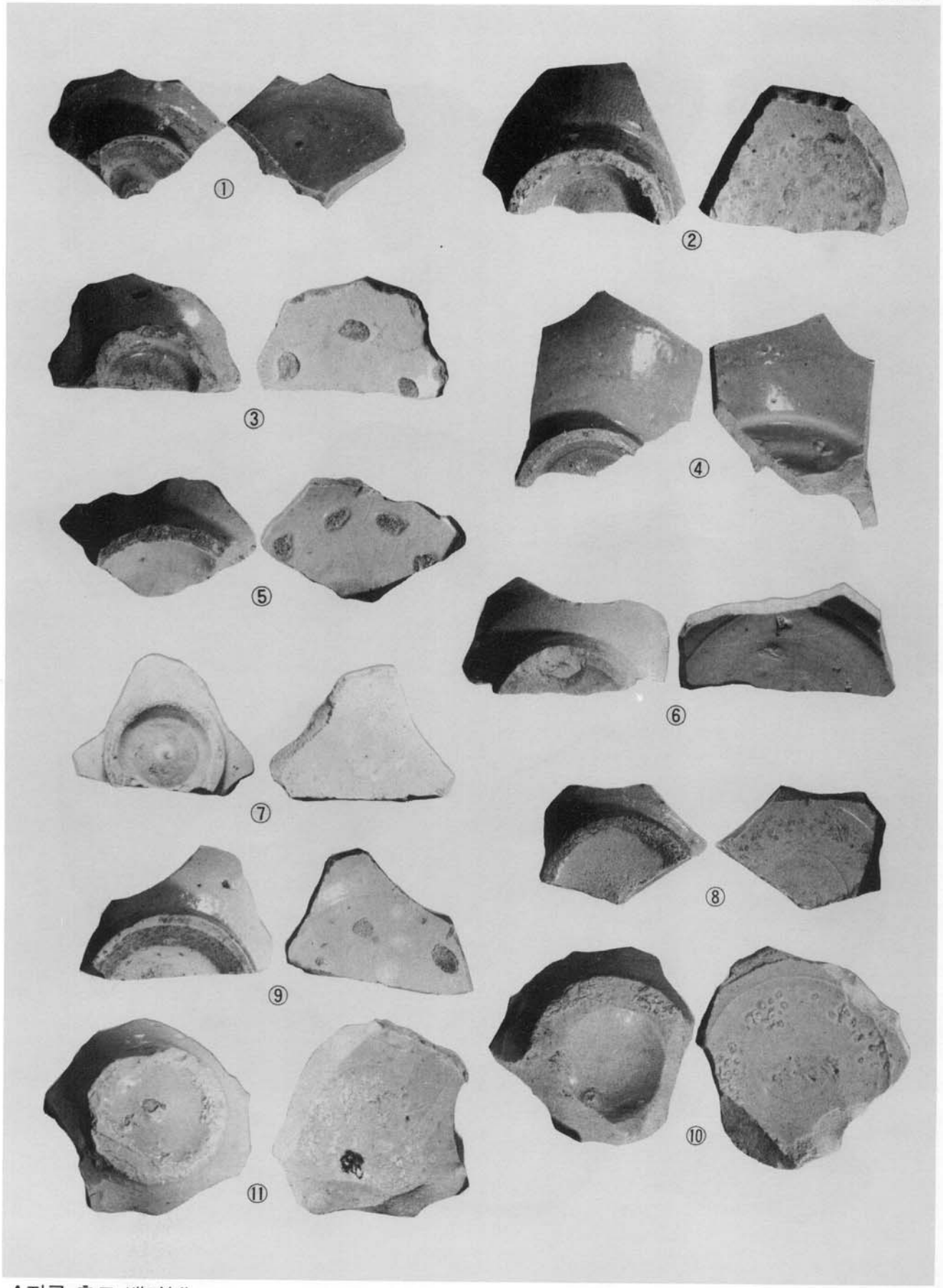


A지구 출토 백자(2)

도판 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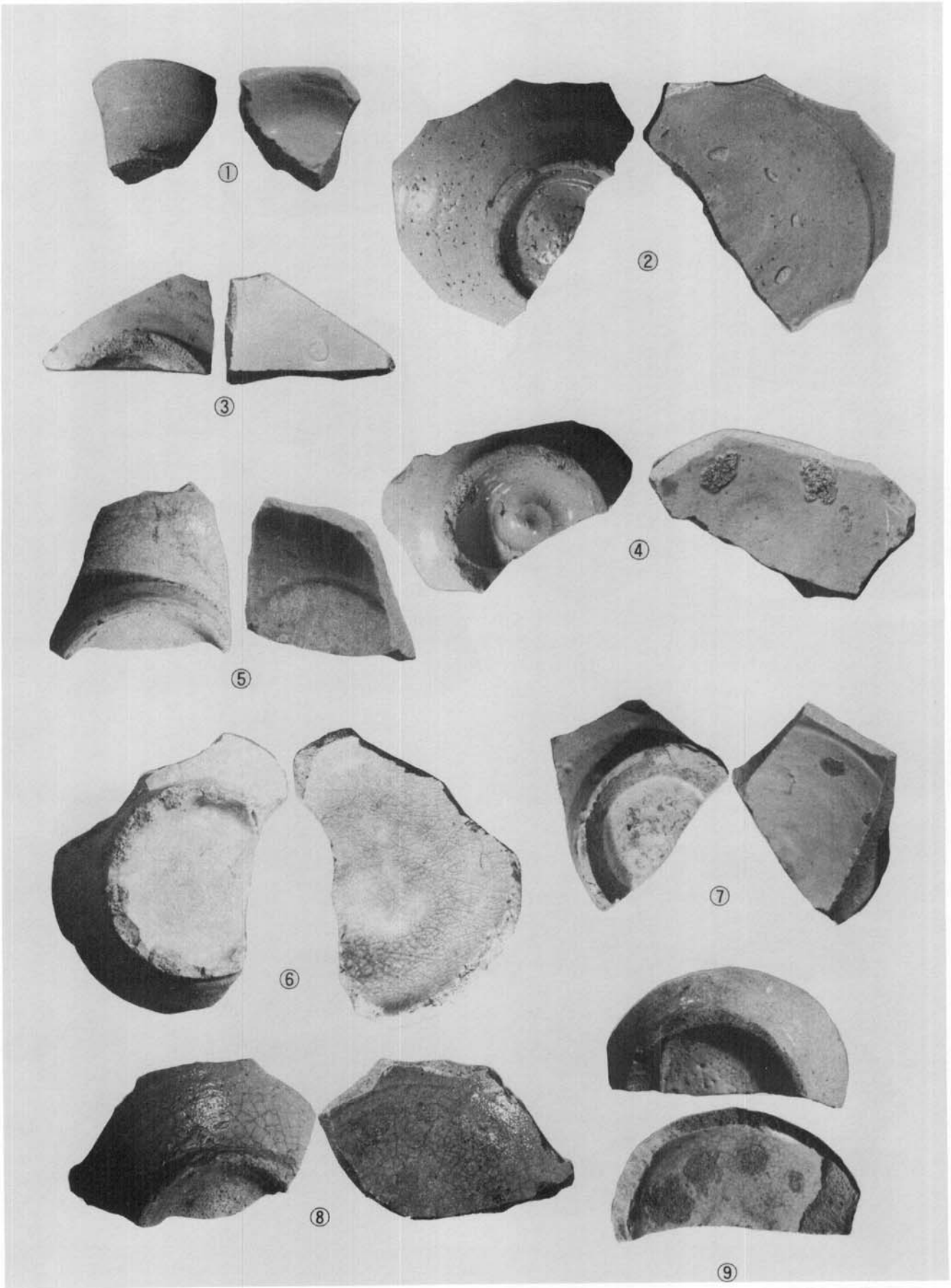


A지구 출토 백자(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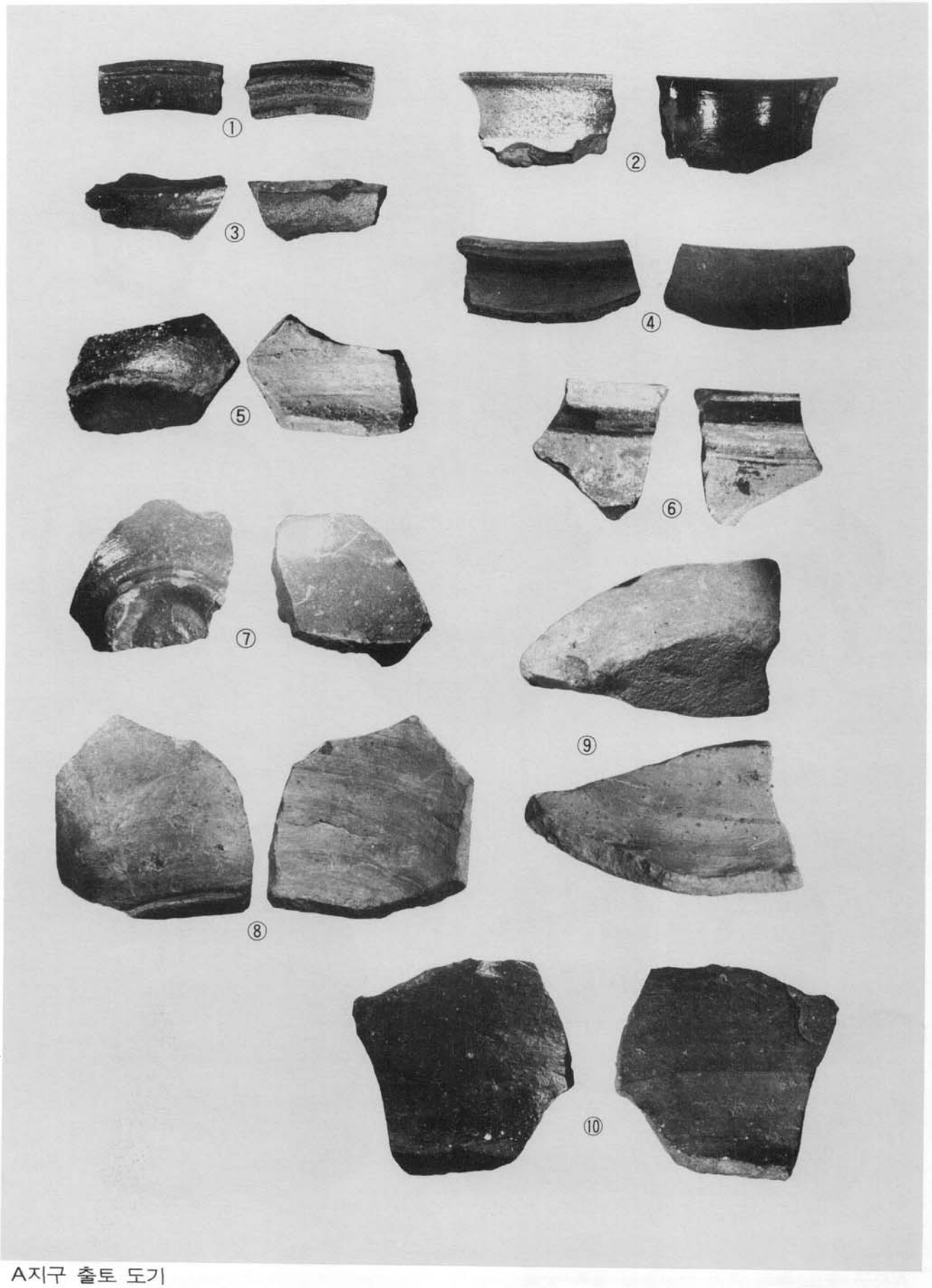


A지구 출토 백자(4)

도판 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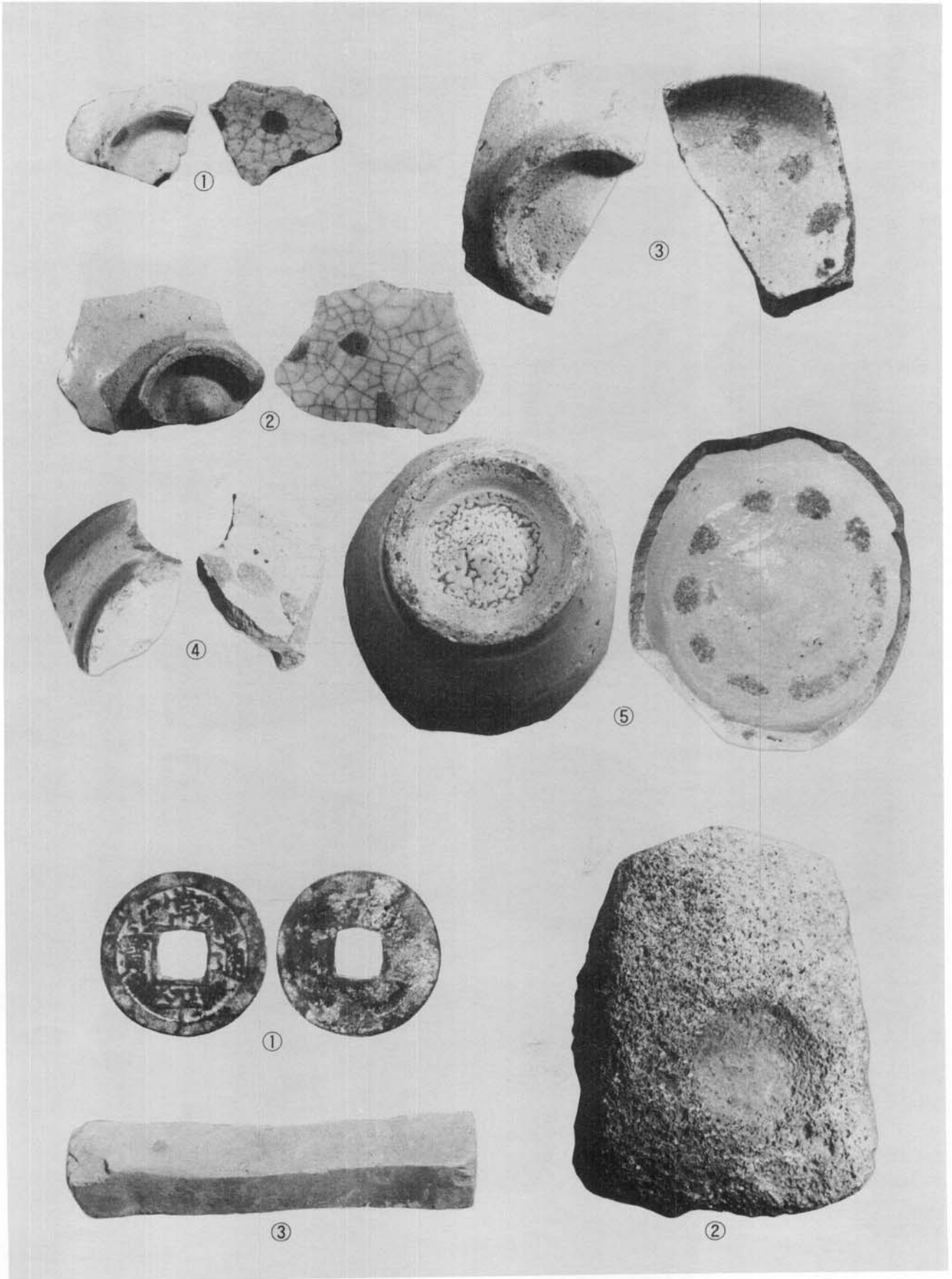


A지구 출토 백자(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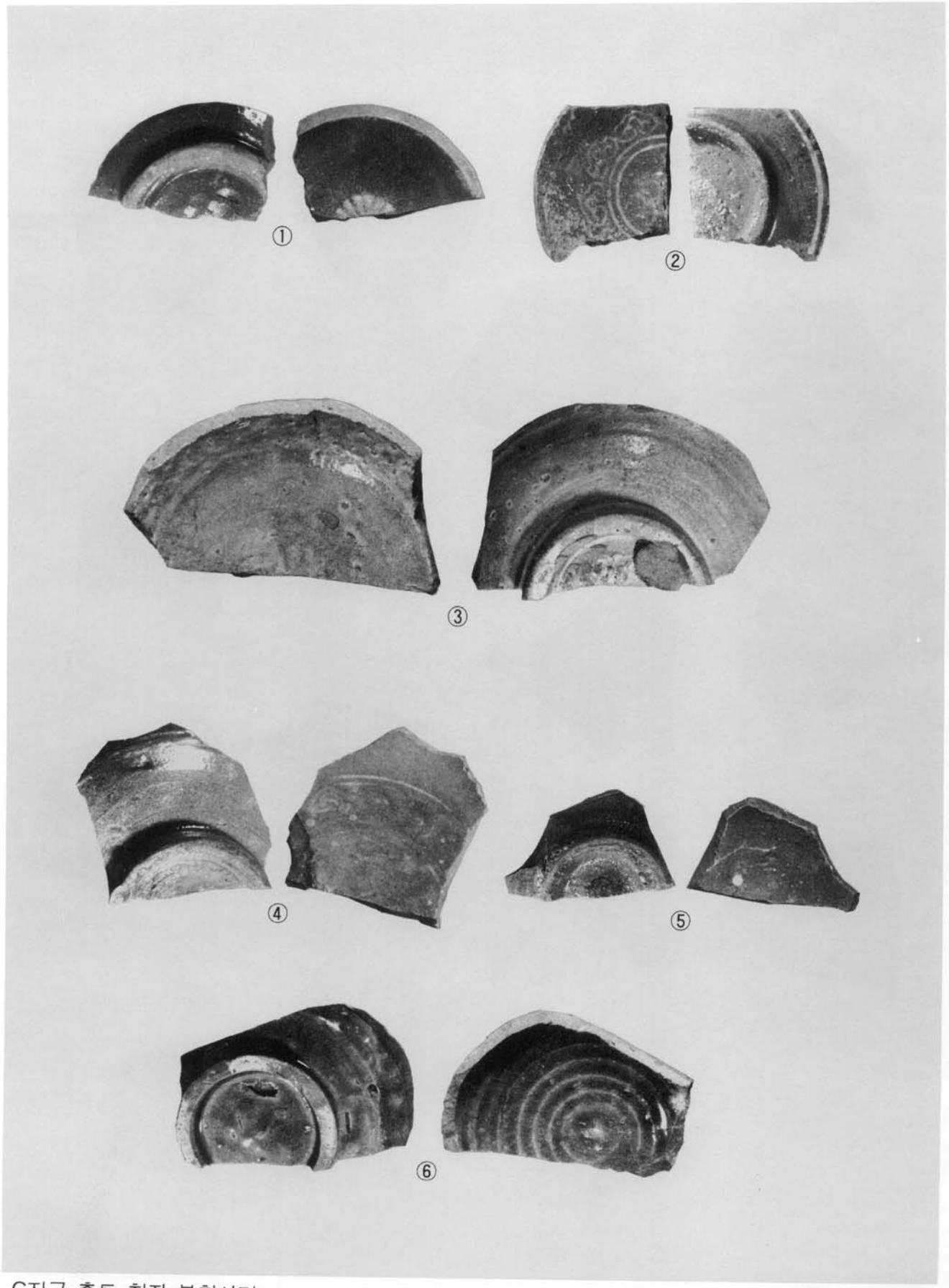


A지구 출토 도기

도판 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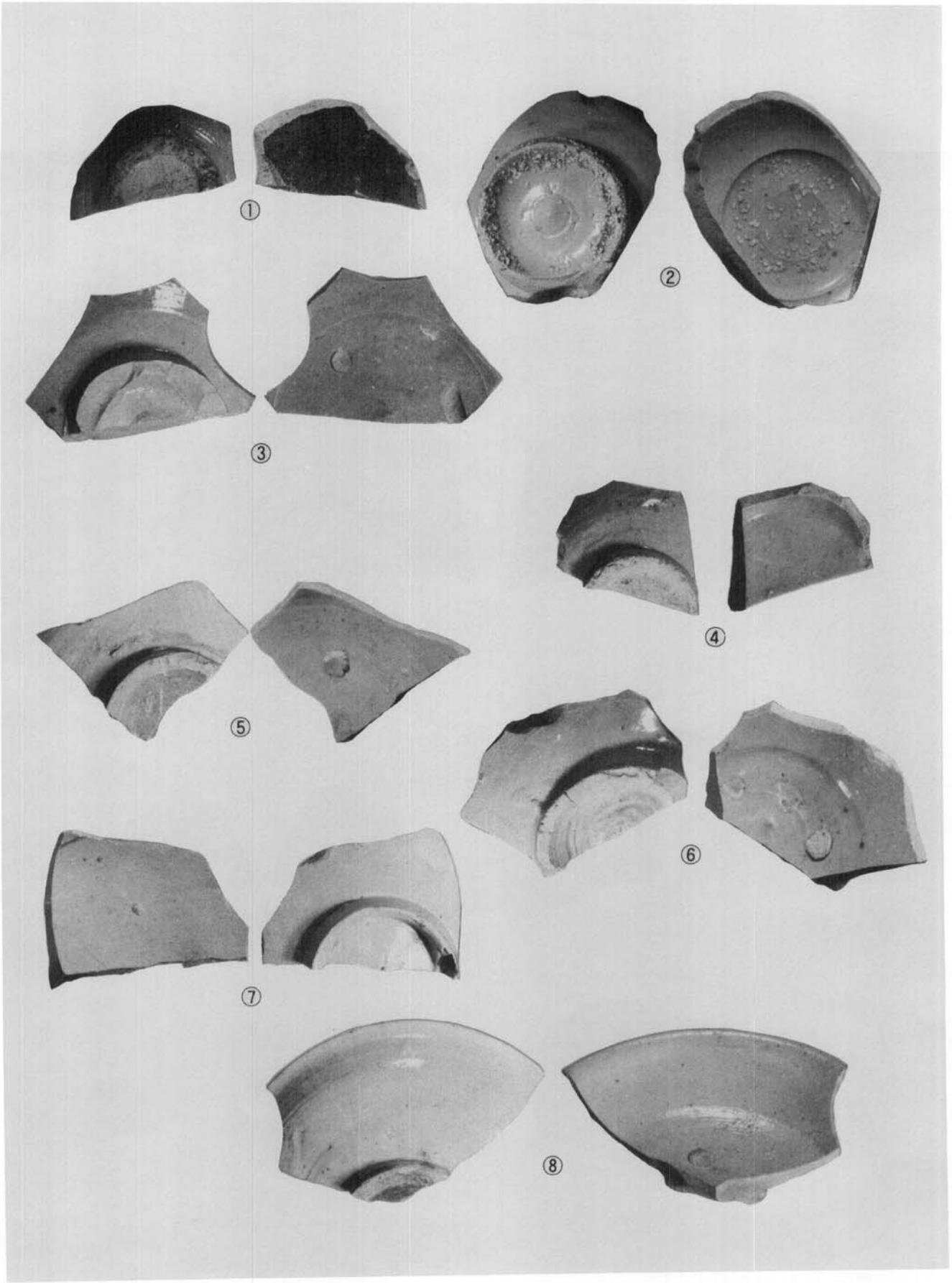


A지구 출토 후기 백자·상평통보·돌확·숫돌



C지구 출토 청자·분청사기

도판 94



C지구 출토 기타 백자